

# 01

May  
2025



2025/05/08  
Thursday, am 7:57 | 51918  
김명선

#1일차 키워드: 열다

1일차 키워드: 열다

캘린저 첫 날의 키워드는 '열다'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아침처럼,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처럼, '열다'는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행동입니다. 닫혀 있던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여는 순간은 언제나 실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지요. 여러분은 최근 어떤 것을 열었나요? 마음, 관계, 기회, 혹은 오래 잠가 두었던 기억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열어본 세상, 사람, 감정을 나눠주세요.

😊 28 💬 0



2025/05/08  
Thursday, am 9:20 | 42918  
이주현(사회복지학과)

#1일차

'열다'라는 글자를 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문을 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방문을 열다와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피곤하고 귀찮기도 하여 어쩌면 '문을 열다' 속 열다는 상당히 다가가기 힘든

단어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열다'를 보고 떠오른 것은 '마음을 열다'라는 문장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쉬운 행동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난 후에는 상당한 후련함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음을 열고 나서 후련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 때였습니다. 한 친구와 3학년 때까지 엄청 친했는데 4학년 때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그 친구와 저의 관계는 차갑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말을 안 하고 마주치더라도 못 본 체 하며 지내며 시간은 중1 때로 흘러갔습니다. 같은 반에서 다시 만난 친구는 저와 마주치자마자 서로 4학년 때의 싸웠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때 저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계속 냉랭한 관계를 유지할까도 고민을 하였지만 잘 생각해보니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면 서로가 좋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친구를 향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차가운 관계를 풀고자하는 솔직한 마음을 알렸습니다. 알고보니 그 친구도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여니까 그 관계의 통로 또한 긍정적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열다'로 글을 쓰다 보니 연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방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나의 새로운 미래와

어제와는 다른 또 다른 나의 삶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고, 마음을 연다는 것은 누군가와 기존의 좋지 않았던 관계를 허물고 새롭게 다시 관계를 쌓아 나가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열다'라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것일 수도,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열고 나면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과정의 시작일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무엇이든 자신있게 열어봅시다!

😊 22 💬 14

김미도(일본학과) 맞아요. '열다'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처음 한 발자국이 결국엔 나를 성장시키고, 조금 더 따뜻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2025/05/08  
Thursday, am 9:22 | 43918  
김미도(일본학과)

#1日目

나는 어릴 때부터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두 발짝쯤 거리를 두었고 몇 번씩 만나 대화를 나눈 적 있는 사람조차 선을 그었다. 그러다보니 나의 인간관계는 늘 매우 좁았다. 하지만 그래도 난 상관이 없었다. 나는 늘 혼자인 게 편했고, 누군가 나를 위하거나 좋아해주는 것도 귀찮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예전에 누군가에게 딱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며,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아 집에 돌아와 혼자 곰씹어보았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나는 어릴 때 선택적 친구증이 있었다. 유치원, 학교에 가면 그런 나를 항상 답답해하고, 화를 내는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친구가 안 생길 거야."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 속 깊이 박혔다. 그래서였을까. 나와 가까워지는 게 좋을 일이 없다고, 그러니 나에게서 멀어지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일부러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마음을 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사람은 늘 낯설고, 조심스럽고, 가끔은 겁이 난다. 그러나 아주 가끔, 조심스럽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들 덕분에 문이 조금씩은 열린다. 나 역시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그랬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의 그런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어쩌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가까워지고 나서 나에게 실망할까봐, 그러다가 멀어질까봐, 그게 두려웠던 걸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완전히 닫힌 채로만 두고 싶진 않다는 마음이 어제는 조금 생겼다. 닫힌 채로 살아가기엔 마음 속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 23 💬 10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닫힌 마음을 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고 지내지 않겠다고, 조금씩 열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미도님은 더 어려운 것을 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2025/05/08  
Thursday, am 9:24 | 35일째  
한주현(디지털미디어콘텐츠)

#1일차  
열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좀 세계 들어왔다

편히 편찮았던 기분이 흔들리고

익숙한 것들이 잠깐 낯설게 보였다

별일 아닌데 마음이 좀 복잡했다

그래도 문은 닫지 않았다

가끔은 흔들려도 괜찮으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열어도 채로 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

언젠가 좋은 바람도 들어오겠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다

오늘은 좀 춥지만 내일은 얼 추울지도 모르니까

달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다

언제까지 열어도 수 있을진 모르지만 달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 두려 한다

어쩌면 누군가 다녀갈지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둘 다, 나한테 편찮은 일이다

😊 23 💬 7

이승현(소프트웨어학부) 차가운 바람도,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질 거예요.  
차가운 바람에도 가끔은 흔들려도 괜찮다고, 문을 열어두는 용기가 멋집니다.  
마치,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따뜻하고 단단한 마음이 느껴져요.



2025/05/08  
Thursday, am 9:43 | 37일째  
정우현(철학과)

#1일차

학생 때 여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새로운 학년을 받아들인다는 것, 새로운 교복을 입는다는 것 등등.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희망의 지표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여는 행위가 저에게는 두려운 행위가 되었습니다. 첫째로서, 오빠로서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한테 그 두려움이 전염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여는 행위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자기 연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저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찾으면 항상 자기 연인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자기 연인에 빠지지 않는 살아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강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이팅 챌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라이팅 챌린지를 여신 여러분들은 가장 용기있는 사람들입니다.

😊 21 💬 13

이재혁(언어병리학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2025/05/08  
Thursday, am 9:43 | 35일째  
김예지(사회복지학과)

#1일차 - 열다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연다, 새로운 길이 있다  
그 길 끝엔 빛 혹은 그림자일 것이다  
성공의 손이 나를 부를 수도  
실패의 발이 나를 걸을 수도

하지만 나는 문을 연다  
그 너머엔 언제나 '가치'가 있다  
그 문을 열기 전엔 언제나 '기대'가 있다  
입을 열어 낯선 음식을 삼키듯  
달콤하거나 쓰거나, 모두 내 것이니

맛이 아닌 마음이 남는 순간  
그것이 바로 도전의 이유다

😊 23 💬 7

박지영 (경제학과) 도전이란 실행만큼의 두려움을 안겨주는 일일텐데, 가치와 기대를 도전의 이유라고 말씀해주시니 단단한 내면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쓰면 별고 달면 삼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음이 남기 때문에 기꺼이 모두 삼키는 모습.. 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25/05/08  
Thursday, am 9:44 | 40일째  
유재원(일본학과)

#1일차

'열다.'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입을 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입을 잘 열지 않는다. 말수가 적다. 사람과 대화할 때 이야기거리를

잘 찾지 못하는 편이다. 찾아도 오랜 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 도리어 어색한 침묵이 자리를 휩쓸고 간다. 그래서 주로 타인이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편이다. 나는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기에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거 아냐? 뭔가 미안한데."라는 상대방의 말에 세차게 고개를 휘젓는 일이 다반사다.  
입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나 보다. 나는 입도 잘 안 열고 마음도 잘 안 여는 편이다. 말이라는 건 결국 내 마음에서 뱉어내는 표현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속으로 몇 번을 여과하여 제일 고운 말만 입을 열어 전달하려고 한다. 그렇기에 친구들끼리 대화하면 나만 유독 한 주제에 대하여 오래 생각한다. 빨리 입을 열려고 할수록 흑역사가 적립되는 느낌이라 나는 주로 맞장구를 친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도 본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 나도 차츰 입과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튼 여러 번 하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 23 💬 13

김서희(식품영양학과)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셔서 공감되는 글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쓸데없다고 느껴져서 안하게 되더라고요,,, 해결하려 노력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같이 힘내요!!



2025/05/08  
Thursday, am 10:20 | 41일째  
김서희 (언론방송융합20)

#1일차

집에 커피머신이 있지만 쓰지 않은지 며칠 꽤다.

얼음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에 서둘러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 내린 커피 대신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를 택했다.

연휴동안 비워둔 집은 조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체되어 있던 공기 속에 지난주의 생활이 담겨 있었다.

커피 머신의 캡슐 통을 들여다 보았다. 지난 주 밤마다 내려 마신 흔적들이 잔뜩 쌓여있다. 비워내지 않으면 한 잔의 커피도 내릴 수 없을 만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변했다. 가장 위에 있는 캡슐은 마른 채로 얽혀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캡슐은 축축하게 젖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커피 머신을 쓰고 싶지 않았다.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꺼내는 것이 꺼려졌다.

방금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니까 남이 내려준 커피나 사러 가자, 하고 다시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어차피 조만간 치워야 하는데 이렇게 미루는 것은 결국 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숨을 크게 들이켜고 내선 뒤 외투를 벗고 커피 머신 앞에 섰다.

캡슐 통을 열자 지난주의 기억이 밀려들었다. 커피를 내리며 겨우 삼켜냈던 감정들, 내린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처리하기에 급급했던 사건들.

때때로 무언가를 여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앞에 있는 것을 여는 순간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것들은 한 번에 밀려오기 마련이니까.

통 안에 들어있는 지난주의 기억들을 쓰레기통에 쏟아 붓고, 남아있는 커피 얼룩을 지우기 위해 흐르는 물에 씻어냈다.

지난 주의 기억이 모두 흘러 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 22 💬 18

**유채원(일본학과)** 애써 외면해왔던 게 한 번에 밀려온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 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도리어 더 큰 문제로 번진다고 알아도 외면할 때가 있죠. 그리고 소재에 놀랐습니다. 커피머신 연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08**  
thursday, am 10:24 | 30일후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1일차

나는 마음을 잘 열었다.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했더라도 사소한 것 하나만 잘해주면 마음을 금세 열곤 했다.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예림이는 너무 단순해. 앞에서 잘해준다고 다 믿으면 안 돼." 그 당시에는 그 애의 말이 당황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금세 열었다. 나를 싫어하는 감정이 잔뜩 묻어나는 같은 반 친구가 갑자기 잘해줬을 때에도 '내 오해였나봐. 사실은 좋은 친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 학창시절 누구나 그렇듯 나 또한 친구관계가 중요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해주길 바랐다. 친구 관계가 중요했던 만큼 상처 받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내 탓을 했었다. 그 생각들이 가득 차서 넘쳐흐를 때면 그날 내가 했던 말을 하루 종일 되짚었다. 생각을 바꿔 좋게 생각했던 친구가 사실은 내 욕을 했던 걸 알아버린 날에는 씩씩 때 혼자 울곤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생각했다. '마음을 쉽게 열어주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을 쉽게 열던 습관은 잘 바뀌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혼히들 말하는 대학교에 들어와 여러 관계들을 겪고 스무살 때부터 점점 바뀌었던 것 같다. 먼저 잘 다가가지 않았다. 지켜보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다가갔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도 앞에서는 잘 받아주지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에게 친구들은 '마음을 쉽게 여는 게 부럽다, 좋은 거다' 라고 쉽게 말하곤 하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쉽게 여는 것도 힘들다. 마음을 쉽게 연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 받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음에 정답은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울타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 22 💬 9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저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기준에서 좋은 행동을 하면 바로 마음을 열어버리는 경향이 있던 적이 있어 나중에 배신감 같은 감정을 느껴버린 경험이 있던 것이 생각나네요. 저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울타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5/05/08**  
thursday, am 10:49 | 32일후  
김수진(미래융합스쿨)

#1일차 '열다'

열다의 사전적 의미란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는 것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는 것 하루의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열다라는 의미를 먼저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글을 쓰면서 열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다의 반대인 닫힘이 생각이 났는데요 전 친구들을 사귀어도 친구들에게 단 한 번도

제 고민을 털어는 적이 없습니다 그저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조언을 해줬죠 그런데 친구는 그 점이 서운했나 봅니다 자신을 더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는데 저 역시도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그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도 마음의 문을 다 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절 그 친구에게 털어놓았는데 그때 당시 친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한테 그동안 나에게 힘이 되었으니깐 나도 너한테 힘을 줄게라고 하는데 그제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을 여는 행위는 쉬우면서 마음을 여는 경우는 왜 어려울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문을 여는 행위는 쉬운 게 아니라 문을 여는 법을 주위에서 또는 스스로가 배우고 여는 것을 도와주었기에 우리는 쉽게 열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닫혀있던 마음을 여는 것도 주위 사람들 덕분에 또 한 번 성장하고 스스로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저도 가족과 친구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었기에 소소한 행복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열어주기에 닫히지 않는 하루를 보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닫혀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또는 스스로가 열어주며 앞으로 활기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열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1 🗨️ 6

박지영 (경제학과)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열어주기에 닫히지 않는 하루를 보낸다는 문장이 담는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을 열어갈 힘을 받으면서 상대의 마음도 열어주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로 제 마음이 열렸네요 감사합니다

 2025/05/08  
thursday, am 11:15 | 25718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일차 #열다

새로운 해가 뜨면 새롭게 기분이 초기화된다

새로운 해가 뜨면 새롭게 마음도 초기화된다

이젠 새로운 해가 떠도 왜?

시간이 흘러 고장이 난 건지 초기화가 되지 않고 자꾸만 무언가 남는다


답답함이나 찝찝한 것 끈적하고 불쾌한 것 어둠에 눈 뜨면서부터

다시 새로운 해가 뜨면 없던 것처럼 깨끗해질 작은 기대를 하고 서터를 내려 어둠 맞이

그리고 하루를 연다

😊 21 🗨️ 6

이재혁(언어병리학과) 무언가 남는 것이 꼭 안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언주님이 그 전 날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05/08  
thursday, am 11:15 | 45918  
김명빈 (미디어스쿨)

달력을 열어보니 빈칸이 하나도 없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더니 내게는 과제의 달이었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맘때쯤이면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예쁜 사진도 올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힐링하곤 하는데 내 갤러리엔 스크린샷만 한가득이다. 팀플 회의 일정과 서포터즈 미팅 일정, 학술제 준비, 이벤트 부스 운영, 일하는 날 스케줄표, 공지 사항, 논문 PDF가 아주 정갈하게 줄 서 있다.

싱그러운은 창밖에만 있고 내 노트북 안엔 데드라인만 있다.

잠깐, 이런 생각이 스쳤다. "만약, 지금 과제가 하나도 없었다면...?"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여유롭게 커피나 한잔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만 하루를 보냈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조차 사치라는 듯 금방 울린 알람 하나가 나를 현실로 다시 끄집어냈다.

"제가 그날 시간이 안 되는데 ㅠㅠ 다른 날 회의 잡으면 안 될까요..?"

...


다시 노트북 뚜껑을 열었다. 현실 도피는 잠깐이었고, 5월은 계속되고 있었다.



#1일차

😊 25 🗨️ 15

유채원(일본학과) 과제의 달이라니 재밌고도 슬픈 표현입니다. 저도 과제와 중간고사에 이리저리 치이느라 재정신이 아니었던 4월을 보냈습니다. 5월도 과제에 치이겠조... 명빈님도 엄청 바쁘셨네요! 물이 열 개라도 모자랄 스케줄 같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이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겁니다. 5월도 화이팅합시다!

 2025/05/08  
thursday, pm 12:03 | 42918  
임혜빈 (사회복지학전공)

#1일차 #열다

오늘도 알람을 듣고 기분이 불쾌해졌다. 아침 수업이 있는 날엔 하루를 여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커튼을 열어젖히며 오늘도 다짐한다. 다음 학기엔 모든 수업을 오후로 잡겠다고.

때론 삶이 챗바퀴 같은 하다. 평일엔 학교를 가고, 주말엔 과제를 몰아서 해치우고, 아르바이트도 그만했는데 왜 이리 할 일이 많은지, 오늘도 아침 식사와 함께 생존을 위한 카페인을 들이마신다.

오늘은 너무나 바쁜 날이다. 오전엔 봉사를 하고, 끝나면 바로 3연강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런 분주한 하루에도 늘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들이 생긴다. 동기들을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갓 구운 빵을 사 먹으며 기분 좋아한다. 아침에 일어날 땀 불쾌한 감정의 파도로 인해 생각지 못한 실령이 나갈 준비를 하며 떠오른다.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보며 되된다. "그래, 어떡겠어. 그냥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힘차게 문을 연다.

😊 23 🗨️ 15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마음이 너무 공감돼요! 그럼에도 저랑 다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들이 있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하고 위로가 돼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길 바래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08  
thursday, pm 12:29 | 35위  
권혁빈(경제학과)

#1일자

이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 이번 학기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서 씻고 학교로 가는 길, 멍하니 수업을 듣다 보면 저녁이 찾아오고 다시 잠자리에 눕는 하루. 특별하지 않지만 다른 학기와의 차이점이라면 '마지막'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학기. 이제 4년, 군대까지 포함해 근 6년 간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정말 학교와 안녕이라는 사실이 나의 심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제 책상에 앉아 지루한 시간을 안 보내겠구나 하는 기쁨과 드디어 졸업이라는 뿌듯함, 흥분함. 반대로 그 긴 시간 동안 딱히 특별한 변화나 성과가 없었다는 허무함과 불안함, 또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진짜 경쟁터인 사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걱정이 나의 마음 속에 채워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전에는 학교라는 큰 틀에서의 이동이었다면 이전 정말 다른 차원으로 나의 소속이 옮겨가는 것이다.

이제 좋은 모든 그 입구를 열어 짓히고 내 미래를 향해 뛰어나가야 한다. 물론 아직 학기가 끝나려면 시간이 남아있다. 그 동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내가 자신 있게 열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적응을 준비해야겠다.

😊 22 💬 11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새로운 사회로 간다는 것은 큰 긴장감과 걱정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쓰며 하루하루를 나아간다면 그 새로운 사회는 어쩌면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5/05/08  
thursday, pm 12:35 | 42위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1일자

5월이지만 내내 바람이 잦고, 계절의 경계는 희미하여 중심을 잡기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떤 생명이 아직 주위를 필요로 하는건지, 심사리 따뜻해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굳건히 자신의 일상을 지키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 또한 평범하지만 매일 새로운 제 일상을 지키며, 라이팅 챌린지의 시작을 열어봅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계획에 대한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살았지만, 그들은 마음이 급했는지 어느새 작별 인사를 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생명은 왜 이렇게 허무한지, 산책을 하며 주운 꽃은 하루도 되지 않아 시들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푸르던 나무들도 몇 개월이 지나면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피어나고 다음 계절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열어' 나누어주게 되겠죠.

제가 오늘 연 건, 라이팅 챌린지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절에 대해 생각해왔던 깊은 속에 있던 제 마음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많은 주제에 대해 더 다양한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 24 💬 10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꽃이 진 자리에 새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은 밤꽃 나무에 버찌가 오동동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아쉬움 끝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2025/05/08  
thursday, pm 1:14 | 35위  
강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1일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이에 대하여..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일수인 그의 가치관과 성격이 궁금하다. 좋아하는 아이는 있는 것인지 아침에 먹었던 밥은 기억이나 하는지.. 이했던 그는 옛친구를 만나며 세상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춥고도 추운 2월, 그러나 성년이 되기 위한 과도기를 겪는 동시에 가장 뜨겁게

살아가야 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이다. 너무도 애정했던 친구이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처음 마주했어도 느껴지는 감정은 익숙함이었다. 다음 학원 수업을 듣기 전까지 그와 한없이 떠돌아다녔다. 중학교 때 영터리였던 그보다 더 망가져있던 그의 친구는 무서운 속도로 그를 앞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을 닫고 살았던 그가 더욱이 좁은 속을 보이며 질투를 했어야 하는 그때, 세상에 대한 문을 열고 시야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청준을, 나쓰메 소세키를, 토마스 만을 알아가며 탁 트인 광경을 보았고 오자키 유타카, 이상은, 존 레논을 동경하며 세상을 듣게 되었다. 쓰레기장일 것만 같았던 그의 문 너머는 빛나는 광물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막연한 희망따위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지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열다'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문이었고 나에게겐 어떤 문이 존재했을까를 고찰해보았다. 글을 쓰는 것에 있어 경험만큼 중요한 씨앗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키워드에 맞추어 가미해보았다.

😊 19 💬 3

박지영 (경제학과) 글에서 느껴지는 그의 마음을 어렵듯이 이해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가 좌절과 우울 대신 문을 열고 나가는 삶의 전환점이었다니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시간동안 방 안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의 방문을 열고 찾아와준 사람은 없었던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 정리하기 어렵지만, 결국 나아왔으니 기쁜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25/05/08  
thursday, pm 1:26 | 37기  
김나령(국어국문학과 23)

#1일차 #열다

마음을 열다  
; 마음을 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다.

뭐든지 마음을 먹어야 다가갈 수 있고 그만큼 쉽게 바뀌는 것도 마음이기에 길을 내주는 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주면 누군가는 어지럽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용기를 북돋아준다.

상처를 받고 다시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고통을 줘 괴로울 때가 있지만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진심이 나타난다면 스스로 껍질을 벗고 나와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문을 열다  
; 장사를 하기 앞서 가게의 재료들을 손질하고 바닥 청소를 하여 모든 준비가 끝나면 문을 연다.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비가 와 손님이 없을때 적적하기도 하고 사람이 붐벼 마음이 가벼울때가 있다 어느 날은 설렘에 또 다른 날은 불안에 겹쳐 지내는 날들에 지칠때가 있다.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하지만 뭐든지 문을 열어야만 그 하루가 시작된다 그렇기에 오늘도 한발짝 목표를 위해 문으로 걸어가 하루를 시작한다.

😊 18 💬 4

김명빈(미디어스쿨) 상처와 회복, 설렘과 불안이 반복되는 그 문턱에서 매일 용기를 내는 학우님이 참 단단해 보여요. 이렇게 마음과 일상의 문을 함께 연다는 시선이 따뜻하고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



2025/05/08  
thursday, pm 1:42 | 36기  
김서희(식품영양학과)

#1일차

처음 '열다'라는 키워드를 보고 막막했지만 곧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에게 '열다'는 '시작하다', 특히 새로운 일이나 관계에서의 시작이 생각난다. 그래서 첫 글에서는 아빠와 15년만에 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싶다.

올해 1월에 언니 생일을 기념해서 아빠와 언니, 언니 남자친구, 동생과 부산여행을 떠났다.

사실 이번 여행은 처음 내 계획과 다르게 아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2박 3일간 같은 숙소에서 자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여행속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행이 끝난 직후에는 못해본 것만 생각나서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여행의 진가는 여행 후 드러났다. 아빠와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편해진 것을 느꼈다.

여행 중 가장 좋았던 것은 아빠와 단둘이 찍은 사진이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함께하는 시간이 줄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아빠와 찍은 사진은 3~4살쯤이 마지막이었다.

부산여행에서 20년만에 찍은 사진은

역구름이 가득하고 비바람이 심했던 당시의 날씨가 그대로 담겨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에게겐 굉장히 소중한 사진이다. 오히려 그대로 담긴 날씨가 그때를 잊지 않게 해주는 것 같다.

나는 그 사진을 방문에 붙여놓고 아빠와 나의 또다른 시작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빠와 다른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

😊 18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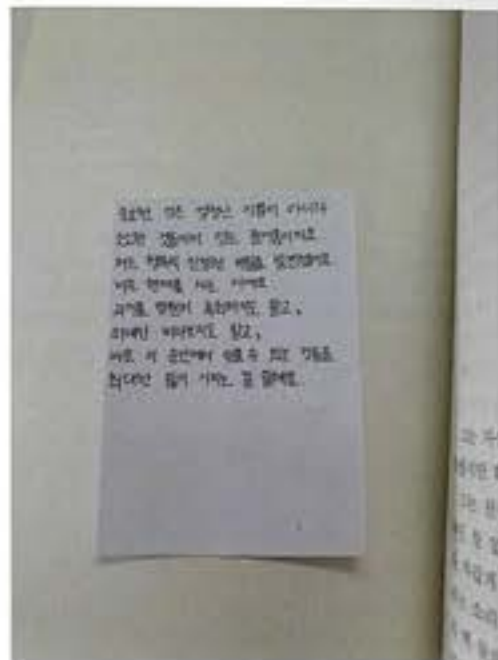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정작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게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저도 제 부모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2025/05/08  
thursday, pm 4:08 | 40기  
조은재(간호학과)

#1일차 #열다

지난달에 학교 도서관에 갔다. 필독서 코너를 구경하다 책 한 권을 '열었다.' 책장을 넘기며 읽을 만한지 훑어보는데, 뜻밖의 선물을 발견했다. 오묘조밀한 글씨로 쓰인 작은 종이 쪽지가 있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엄청난 기쁨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에서 얻는 즐거움이지요. (...)" 누가 일부러 이 책을 읽을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 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글귀를 책갈피 대용으로 사용했다가 잊어버리고 반납한 것일까? 대체 누가 한 말인지, 어디서 나온 글귀인지는 몰라도 그 쪽지를 집어든 나에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기는 충분했다. 우연히 펼쳐본 책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책을 빌려 오긴 했지만, 다른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덮어 두고만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즈음에 책을 다시 '열었다.' 몰입해서 읽는 동안 오랜만에 책에 푹 빠져 있는 체험을 했다. 머릿속이 온통 이야기로 흥만해지는 기분이었다.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시인의 이런 말이 있다.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이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보는 창을 '여는' 경험을 한다. 읽는 중에도, 읽은 후에도 책이라는 하나의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연결해서 바라본다. 독서의 장점은 삶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 말뜻을 실감할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새롭게 열어 보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낀다.



😊 20 💬 10

임혜빈 (사회복지학전공) 이런 경험을 하다니 정말 낭만적이네요!  
꼭지에 써져있는 글귀 또한 정말 멋있네요 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 글을 글썽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025/05/08**  
Thursday, pm 4:57 | 30일째  
서정원(생리학과)

#1일자

지난 학기 첫날 키워드는 '열리다'였다. 이번 키워드와는 중간에 사동 접미사 '리'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다르다. '열다'는 능동적이다. 누군가가 여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여는 것이다. 반면에 '열리다'는 수동적이다. 내가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가 열어주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단어에 사동 접미사만 붙었을 뿐이지만 지난 학기와는 쓰신 글들의 양상이 다르게 보인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닫혀 있던 가능성을 열고, 새로운 길을 여는 순간을 담아낸 것은 같다. 다만 지난 학기는 부족한 나를 보완해 주고 채워준 타인에 의해 마음을 열게 된 경험, 보이지 않았던 길을 타인에 의해 알게 되는 등 글쓰기 구상에 타인의 개입이 필수 불가결이었다면, 이번 학기 키워드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이라 글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진짜 그럴까? 몇몇 분들의 글 첫머리를 인용해보겠다.

- "나는 어릴 때부터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했다"
- "마음의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좀 세게 들어왔다."
- "지난해 9월, 나는 연구실의 첫 문을 열었다"
- "매일 기숙사 문을 열고 학교를 나서는데요.. 특히 저는 1교시가 4개에 공강이 하나도 없는 참 특이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글쓴이가 주인공이다! '열다'라는 키워드를 받고 여러분은 본인이 열었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을 써 내려갔다. 키워드가 아니었으면 휘발되었을 기억을 여러분은 기록하고 공유했다. 키워드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자신을 알아냈고, 그것을 용기 내서 공유했다.

그래서 나는 글쓰기를 사랑한다. 바쁘게 살다가 잊게 되는 소중한 것들—가령 오늘 하루 가장 좋았던 순간,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나눴던 의미 있는 대화 등—을 기록할 수 있고, 불편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잊고 싶은 기억 또한 기록함으로써 내 안의 부조화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글쓰기는 '거울 아닌 거울'이 아닐까. 우리는 고통스러운 글쓰기를 통해 무의식 속 어딘가에 억압되어 있던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대화해서 그를 세상 밖으로 이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나아진, 성숙해진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앞으로도 좋은 글을 쓰실 분들에게 이 시간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매일 다른 키워드를 받아 글을 쓰는 것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송고한' 고통이다. 갇힌 고통인 것이다. 여러분은 방금 막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모험의 문을 열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이 고통을 갇힌 것으로 승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 17 💬 17

조은채(간호학과) 어 글을 읽으니 저도 덩달아 글쓰기를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멋진 글 감사합니다. 앞으로 글을 쓰며 고통스러울 때 다시 읽어 봐야겠습니다.

**2025/05/08**  
Thursday, pm 5:38 | 30일째  
장근희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일자

참 다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 '열다'. 저는 이 '열다'라는 키워드를 처음 봤을 때 우습게도 택배 상자를 열다, 라는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제가 시킨 택배가 배송을 시작했다는 문자를 보고 잠이 들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우연찮게도 서로 이어지는 제가 택배를 열 때의 느낌처럼 '처음'이란 것의 기분은 참 새롭습니다.

택배 상자를 여는 그 순간의 설렘이란,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순수한 기대감 중 하나가 아닐까요? 갈색 종이 상자를 마주하고 테이프를 뜯는 순간, 우리는 마치 아이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면서도 모르는 듯,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눈앞에 그 물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온전히 실감하지 못하는 그 미묘한 감정의 경계에 서 있게 됩니다. 종이 상자를 열고 마침내 내가 고른 물건을 실물로 보았을 때,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열다'라는 행위는 비단 물리적인 상자나 문을 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처럼, 아직 경험해본 적 없었던 일을 시작할 때처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의 문을 엽니다. 인생의 일종의 상자처럼 새로운 장을 열 때마다, 택배 상자를 열 때와 비슷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설렘, 기대, 때로는 약간의 두려움까지.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알기 위해서는 결국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어아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열다'의 순간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하루라는 선물 상자를 여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는 것은 마음이라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이라는 창을 열어보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택배 상자를 열 때의 그 설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열다'를 실천해 나갑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설렘, 하지만 항상 그 안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안고서. 열린 문 너머에는 늘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 16 💬 6

박지영 (경제학과) 열기 전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열고 난 후의 기쁨을 같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택배를 열고, 하루를 열고, 마음을 여는 모든 과정들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열다'라는 한 단어가 연결짓고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2025/05/08  
thursday, pm 6:00 | 171회  
김유진(정치행정학과)

#1일차 #열다

중요한 일마다 우리는 연다는 표현을 침  
적극적으로 쓰는 듯합니다. '개최' 나 '개시'  
또는 지금이 불이나만큼 '개화' 라는 말도  
쓰죠. 뭔가가 열리고 시작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또 때로는 에너지를 불어넣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닫아야 할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무언가를 여는 만큼 닫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도, 억다 남은 커피를 보관할 때도, 또  
과거의 예안을 보내줘야 할 때도 '닫음'의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야 재산과 안전, 커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다음을 예비할  
수 있으니까요. 시야를 좀 넓혀 볼까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며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국내외의 여러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어지러운 시기에  
우리의 가치를 지키며 혼란의 문을 닫아야만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구시대의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을 열기 위해  
지금쯤 닫읍시다.

😊 12 💬 30

박지영 (경제학과) 한자 '開 [열 (개)]'의 의미를  
 찾아보니 문(門)을 손(扌)으로 연다는  
 뜻이더라고요. 우리 손에 달린 시작과 끝이라는  
 표현이 한자의 의미를 담은 것 같아 재밌게  
 읽었습니다. 문이 닫히야 그 다음 문이 열리니,  
 조심스레 과거를 닫고 당차게 미래를 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2025/05/08  
thursday, pm 6:27 | 171회  
전은베(생명과학과)

#1일차 #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얼룩진 크림색 천장이  
 보인다.  
간밤에 바깥 마른 입과 열은 추위, 몇 분 정도  
 더 잘 수 있으려나 하는 궁리 따위.  
미적거리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킨다.  
슬리퍼를 끼워 신고 창문을 열어 간밤에 쌓인  
미적거리한 공기를 몰아낸다.  
보이는 것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낯선 풍경.  
채비를 마치고 문을 연다. 온갖 악자지껄한  
것들 속으로 뛰어든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는다  
가방을 열고 책과 필통을 꺼내든다 태블릿  
pc의 덮개를 열고 한숨을 쉰다. 또다시  
하루의 시작이다.

이맘때쯤 시골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작은  
싹누런 열매가 연다.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은 열매에서는 찢듯한  
신내와 떨어진.  
이제는 이백구십삼 킬로미터 떨어져 버린 언  
곳.  
오늘따라 생각난다 자주 가기도 어려운,  
할아버지가 계시는 시골집.

정신없이 바쁜 하루는 상념에 빠질 시간조차  
 없게 한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몰려든 인파 속으로  
 끼어든다.  
악자지껄한 하루. 정신없이 돌아가는  
커피머신의 탄내와 소리치는 소리, 온갖  
것들이 달그락대는 소리와 삐걱거리는  
동짜귀 소리.  
이럴 때는 내가 그림다. 문을 닫아버린 채로  
내게만 집중하고 싶다.  
너무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오늘을 살아간다.  
살아간다.

앞 사람이 잡아준 문을 통과하며 또다시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  
작은 호의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한, 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다.

지나가는 길에 좋아하는 빵이 눈길을  
잡아챈다.  
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지갑을  
연다.  
지갑은 아주 조금 가벼워졌지만, 즐거운  
기분은 배로 무거워진다.  
좋아하는 것을 두고 하는 저울질은 항상  
그렇다. 결국엔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고  
만다.

하루가 저물고 방으로 돌아간다.  
아침에 나선 문을 열고 들어가 방문을 닫으면,  
바깥의 소음은 모조리 사라지고 오롯이 나  
혼자 남는다. 나, 나, 나. 오직 나 하나.  
작은 방 안에서 내 존재가 크게 부풀어 공간을  
가득 채운다.  
고요한 공간 안. 열린 곳 하나 없이 차단된  
공간에서는 내 안의 소리가 들린다.  
정말 좋아했지만 오래전 그만둔 악기.  
다시 꺼내볼 기회가 생겼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놓쳐버린 기회가 생각난다.  
애꿎은 클라리넷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내 게으름에 저 정리하지 못해 엉망이 된  
서랍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번까지 읽어지지 해놓고 첫장도 열어보지  
못한 책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너무 커져버린 나 안에서는 때 묻은 얼룩도,  
부끄러운 자국도 너무 커진다. 지나치게  
커져버린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연다. 몸집을 너무  
불려버린 감정이 흘러가 버리도록.  
최고무례한 소음이 창문 타고 들어오도록.  
창밖에서 조금씩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소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이다. 또 다른  
누군가가 흘려보낸 감정이다.

방 안은 적당한 공기로 가득 찬다.  
열린 창문의 크기가 딱 알맞다.

😊 17 💬 6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저도 다시 꺼내고 싶은  
악기가 있는데, 우리 학교 관현악은 의대생들만  
있어서 아쉽더라고요. 저는 호른을 다시 열고  
싶어요.



2025/05/08  
thursday, pm 6:59 | 141회  
박지영 (경제학과)

#1일차 #열다 #헬렌켈러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 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못 보곤  
한다." - Helen Keller(헬렌 켈러)

이 문장은 많이 보이지 않는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가 남긴 문장이다. 헬렌 켈러는 자신이 볼  
수 없는 문의 열고 닫힘을 통해 행복을  
설명한다. 그녀는 행복엔 수많은 문이  
있는데, 우리는 열린 문을 찾아 나서기보다  
닫힌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고 말한다.  
쉽게 생각하면, 지나간 일에 묶여 사는 대신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라는 조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문장에 담긴 행복에 대한 헬렌 켈러의 생각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내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떠올린 여러 질문을 함께 나눠볼까  
한다.

첫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힌다는 표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치 '행복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린 이미 행복  
안에 있고, 지나온 행복의 문이 닫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지나온 행복을  
더는 동일하게 누릴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멈춰 서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닫힌 문 너머에 행복이 있는 건 맞지만, 어쩌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행복일 수 있다는 뜻 아닐까? 우린 행복을 지나 행복에 닿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행복인 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나온 행복과 똑같은 모양의 행복만을 찾게 되고, 그러느라 오히려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이렇다. "닫힌 문도 내가 지나온 행복이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내가 앞으로 열고 나갈 문도 결국은 모두 행복일 것이다."

둘째, 행복의 문은 왜 닫히는 걸까? 삶은 매순간 변화하니까, 행복의 형태도 계속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지나온 행복의 문이 정말 '닫히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 여전히 우리는 어린 시절 느꼈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 좋은 친구와 대화할 때의 행복, 뜻한 바를 이뤘을 때의 행복... 그런데 왜 열린 걸리는 문이 닫혔다는,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

생각 끝에 이런 상상을 해봤다. 그 문은 세찬 바람 때문에 닫힌 건 아닐까? 세찬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련이 그 문을 닫게 했을지도 모른다.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 그것들은 세찬 폭풍을 닮았고, 폭풍은 문 하나를 닫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닫힌 문은 삶의 역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닫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문이 닫혔다면 그 문을 다시 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은 왠지 나에게 정답처럼 느껴졌다. 혹시 우리는 세월의 고통 속에 닫힌 문을 열 용기가 없었던 건 아닐까? 손잡이를 돌릴 생각조차 못한 채 그 앞에 서 있었던 건 아닐까? 문을 열었다가, 그 너머에 내가 기억하던 행복이 없을까봐. 그래서 또다시 다칠까봐, 두려웠던 건 아닐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을 열어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셋째, 왜 한 쪽 문이 닫힐 때 다른 쪽 문이 열리는 걸까? 계속해서 문이 열릴 순 없는 걸까? 나는 이 질문에 의외로 간단한 답을 내놓았다. 우리는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린 길을 잃을 것이고, 계속해서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고립될 것이다. 하지만 한 쪽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릴 때, 우린 열린 문 너머의 빛을 보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삶은 찬란하게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게 열린 걸리가 말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그녀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 말을 남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이처럼 나만의 배움을 얻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 다시 말해, 그녀의 문장 속에서 나만의 해석으로, 나의 행복을 열어낸 것이다. 가능하다면, 이 기회를 빌려 다른 사람들의 해석도 들어보고 싶다. 나의 깨달음을 더 활짝 여는 기회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 15 💬 8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문은 어느 곳의 통로이기에 관찰자의 시점으로 안쪽문과 바깥쪽문으로 비유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사실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라면??이라는 질문이 떠올라요.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지만 매순간 많은 문들(선택지)로 때론 방향하지만 그럼에도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2025/05/08  
Thursday, pm 9:22 | 30일째  
윤소정(사회학과)

#1일차 #열기

<열기와 변화>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연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해보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장실로 가장 먼저 향해서 세수 내지는 샤워를 할 것이다. 그 전에 선행되는 것이 화장실로 가기 위해 방문을 여는 것이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위이지만 실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열기'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강의실의 문을 열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의 문을 연다.

'연다'는 것은 행동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변화를 가져온다. 앞에 나열한 물리적인 '열기' 사이에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지.', '오늘은 아팠던 친구의 안부를 물어봐야지.',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지.' 같은 작은 다짐들이 숨어있다. 작은 다짐들이 성실함이라는 습관을 만들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도 하고, 맛의 즐거움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나는 이번 3주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글쓰기와 친숙해지고 내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변화를 가져보기 위해 이 글을 연다.

😊 15 💬 8

박지영 (경제학과) 행동 변화에 앞서 공간의 이동이 있고, 공간의 이동에 앞서 여는 행위가 있다는 것.. 이런 연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변화하려면 더 많이 열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저도 많이 노력해야겠네요



2025/05/08  
Thursday, pm 10:12 | 31일째  
조하경(철학과)

#1일차

단어는 저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단어에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단어를 접하는 개인만의 고유한 가치판단이 존재하기에 해석학적 시각이 담긴다. 예컨대, 오늘의 주제어인 '열다'를 예시로 들어보자.

"가슴을 열다." 좋다. 자신감 있다. 도전한다. 굳건하게 두려움을 이겨냈다. 마치 영역투쟁에 성공한 바닷가재와 같이. "가슴을 닫다." 좋지 않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머뭇거리고 주체적이지 않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느낌을 준다.

"마음을 열다." 역시 좋다. 합리적이고 정직하다. 양보하고 수용한다. 마주하고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짐이 느껴진다. "마음을 닫다." 좋지 않다. 차단된 기회, 고립된 상태, 편협한 시각을 표현하며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려 방안의 코끼리를 못본 채 한다.

이처럼 필자가 생각하는 '열다'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가치는 긍정을 향한다. 반대로 '닫다'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연상된다. 사랑, 용기, 신뢰에는 긍정적인 가치가, 증오, 이기심, 분노에는 부정적인 가치가 임해지듯, 단어마다 이러한 맥락은 유사하게 작동한다. 모든 단어에는 각 단어의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 담겨있지 않지만 이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보편적인 가치판단이 존재한다.

나에게는 '열다'와 같이 무조건적인 긍정의 기운을 품는 단어가 있다. 바로 '주다'이다. 나의 몫을 포기하여, 양보하고 헌신하는 행위. 어머니의 젖, 호병연의 머리조각, 모든 영웅서사의 마지막 장식. 본능적인 움켜잡을 놓는, 본능에 반하는 결단. '주다'는 숭고하다.

'주다'는 어렵다. '주다'는 '반다'보다 고귀하며 우아하다. '주고받다' 라는 표현에서 차지하는 순서가 이를 증명한다. '준'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인간은 이러한 '준'의 연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관계의 뿌리이며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처럼 내게 '열다'와 '주다'는 좋다. 옳다. 다정하다! 마음을 열어주고, 품을 열어주고, 지갑을 열어주고...는 일단 졸업하고 나서. 뭐... 결말이 다소 클리셰에다 작위적인 느낌이 들을 알고 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생각의 다발을 잡고 건너오다 보니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키치해도 맛만 좋으면 되지. 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열어주는 주말 보내시길 :)

😊 18 💬 8

**조은채(간호학과)** '주다'는 본능에 반하는 결단이고 '반다'보다 고귀하며, 존중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분석이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마무리 멘트도 합하시네요.

**2025/05/08**  
Thursday, pm 10:38 | 26일째  
최한영(공용재무학자)

#1일차 #열다

해님달님의 썩은 동아줄 이야기를 아시나요? 내가 어떤 동아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동아줄이 과연 튼튼한 동아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제발 썩은 동아줄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제발 좋은 상사 만나게 해 주세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 나는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등등 시작도 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무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서 2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상사를 만난다는 건 어쩌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사회로 나가는 첫 발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열은 문은 천국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다" 더 이상 내게는 두려울 것 없는 말.

😊 12 💬 3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여는 것에 대해 좋은 경험이 있으신 이상 앞으로 큰 부담없이 시원하게 여실 현영님이 멋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상황 안에서 긍정적인 여심이 있길 바랍니다!

**2025/05/08**  
Thursday, pm 11:20 | 24일째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일차

편을 넘어서, 내일을 열어가

'편'의 시대다. 세상에는 니편 아니면 내편밖에 없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다. 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편끼리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내편이 '선'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적이 '악'이 되어야 한다. 악이 있음으로써 선이 분명해진다. 어쩌면 선은 항상 악에 빛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적을 억마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선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뉜 두 집단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적을 앞에 두고 성문을 열어두는 바보는 없다. 모두들 마음의 문을 '펼'하고 달아 버렸다. 법의 그물망으로 적을 잡으려고 하고, 행정의 지팡이로 성문을 타격하려 한다. 굳게 닫힌 서로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폭력밖에 없을까?

편은 무언가를 가를 때만, 어떤 사항을 구분할 때만 생겨난다. 그러나 하나의 요소를 갈라서 보기 시작하면 그 시각은 한없이 편협해지기 마련이다. 니편 아니면 내편으로, 내편 중에서도 너네편과 우리편으로, 우리편 중에서도 진짜 우리편과 가짜 우리편으로... 언제까지 끊임없이 편협해질 것인가? 이제는 그만 나눠야 한다. 구분을 가장한 폭력을 멈춰야 한다. 적을 지칭하고 배척하는 것을 배우지 말고, 적을 용서하고 통합하는 법을 배우야 한다. 그렇다. 이제는 가르지 말고 '열어야' 한다.

어떤 하나의 강줄기를 두고 상류와 하류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상류에서 물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독을 세워 영역을 가르면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물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무언가를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의 요소를 독점하기 위한 것이다. 정확히는, 무언가에 대한 자신의 몫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편을 가르면 한도 끝도 없다. 그 끝은 혼자만 남게 되는 독고다이이며, 각자도생이다. 이제는 댐을 열어야 한다. 선한 가치가 흐르게 두어야 한다. 선이 항상 악에 빛지고 있음을 알고, 열린 마음으로 적을 대해야 한다.

물론 성문을 여는 과정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이번 대선에 어느 후보의 말처럼 "역지로 이뤄낸 단일화에는 서사도, 감동도 없다." 더 거대한 적을 잡기 위해 편을 합치는 일은 또다른 편협함을 낳게 된다. 또다른 적을 낳기 위한 열린 마음은 비겁할 뿐이다. 진정한 열린 마음은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이 기반이 되어

한다. 모든 진영이 성문을 열고 하나의 강줄기를 만들 때, 그 무엇보다 큰 힘을 낼 수 있다.

장미꽃이 만개할 준비를 마쳤다. 곧 민주주의의 꽃도 개화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두자.

😊 10 💬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언다는 것은 어떠한 평화와 서로를 향한 존중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각자의 진영에서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5/08**  
Thursday, pm 11:22 | 20일째  
홍리강(디지털미디어콘텐츠)

#1일차

열다. 무언가 시작을 알리는 행동. 시작한다는 것은 나에게 항상 두려운 일이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가 항상 부담스럽고 힘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낯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졌다. 무언가 도전하는 일이 설렘보다 두려운 마음만 더 크게 느껴져서 도전할 기회가 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일들을 회피하는 것이 나의 길을 스스로 막는 행동인 것 같아서 이러한 행동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작게나마 도전을 해보았다. 물론 모든 도전들이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도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포기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나의 머릿속을 차지하더라도 하고 싶다고 외치는 나의 마음속 작은 외침을 무시하지 않고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하려고 했다.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건다거나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해본다거나 배워보고 싶던 것을 배운다거나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행동일지라도 나에게서는 이 작은 행동들이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들이었다.

이렇게 작은 도전들을 조금씩 쌓이니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두려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열림 속에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닌 설렘도 같이 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아직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내가 쌓아놓은 작은 도전과 용기들이 나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작은 도전과 용기들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가능성과 길을 열어주게 될지 기대가 된다.

😊 12 💬 5

김명빈 (미디어스쿨)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가 정말 뜻깊고 단단하게 느껴져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이 멋지십니다! :)



2025/05/08  
thursday, pm 11:23 | 22188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1일차 #열다

스마트폰으로 밴드 앱을 여니 문득 앱을 켜다와 앱을 열다 중 어느 표현이 더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Ai gemini에게 물어본 결과이다.

앱을 사용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면 \*\*\*앱을 켜다\*\*\*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켜다"는 전자기기나 기계 등의 전원을 작동시키거나 기능을 시작하게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앱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실행시키는 행위는 "켜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열다"는 닫혀 있는 것을 펼치거나, 봉인된 것을 뜯는 등의 물리적인 행위에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파일을 "열다"와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앱의 실행을 묘사할 때는 "켜다"가 더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앱을 켜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챗gpt에게 물어본 값이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앱을 열다\*\*\*가 더 자연스럽고 표준적인 표현입니다.

• "앱을 열다": '문을 열다', '책을 열다'처럼, 어떤 것을 시작하거나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자주 쓰이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앱을 실행하다'는 뜻으로 "열다"가 더 적절하게 여겨집니다.

• "앱을 켜다": 일반적으로 \*\*기기를 켜는 행위(예: 핸드폰, TV, 컴퓨터)\*\*에 더 많이 쓰입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앱도 전자적이니 켤 수 있다'고 생각해 "앱을

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 표준적이고 추천되는 표현: 앱을 열다 (예: "앱을 열고 설정을 바꿨어.")
- 덜 자연스럽지만 일부에서 쓰이는 표현: 앱을 켜다

Ai마다 다른 답을 알려줘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긴해도 크게 벗어나는 의미는 아니니 쓰고 싶은 대로 쓰자로 생각하기로 했다.

지난 학기에서는 첫날 주제가 '열리다'로 내 글을 인용하면서 '하고싶은 말은 열리다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마음을 열든, 두려움을 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타인은 결코 내 입맞대로 바뀌지 않기에 나만이 날 열 수 있다.' 이번 학기 주제도 비슷하여 어떻게 글을 전개할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창문을 열고 환기하며 봄내음을 집안으로 들이고 싶지만 미세먼지나 황사로 창을 열 수 없음을 말해볼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르는 시상을 표현해볼까라던지 아이디어는 끝없이 나왔다.

뒀든 끄적여보면 해답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밴드 앱을 켜니 아이디어는 순수하게 딱 '열다' 라는 언어 자체로의 방향성으로 쓰자로 결정하게 됐다. 그렇게 바로 나는 ai에게 질문하였고, 이런 생각의 흐름 기법으로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밴드 앱 알림으로 이번 챌린지를 참가하시는 분들의 상호작용이 핸드폰 창에 뜬다.

저번에 챌린지를 함께 해나간 분들, 이번에 새로 참가한 분들께 우리 같이 새 챌린지를 일어나가요!

😊 10 💬 5

김매도(일본학과) Ai마다 '열다'를 다르게 해석하는게 신기하네요! 이번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2025/05/08  
thursday, pm 11:45 | 22188  
이주원 (심리학과)

#1일차 #열다

우리가 무언가를 여는 행위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반복하는 행위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일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문을 열고,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한다. 우리에게 여는 행위란, 너무나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 할 만큼 사소한 행위이다. 여는 행위는 문이나 페트병 뚜껑 말고도 노트북이나 앱 등등 너무나 다양한 곳에 당연하게 존재한다.

지겨울 만큼 사소한 이 행위가 오늘은 좀 다르게 다가왔다. 이 글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 밴드 앱을 몇 번이나 열었는지 모르겠다. 앱을 열 때마다 글의 내용과 어투가 달라졌다. 참 아이러니 했다. 앱을 여는 행위 자체는 동일한데, 그 행위가 불러온 결과는 항상 달랐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했다.

여는 행위는 결코 사소하게 여길 만한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문을 열지 않으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갈 수 없고, 페트병의 뚜껑을 열지 않으면 목을 축일 수 없다. 앱을 열지 않으면 고뇌가 담긴 글을 수정할 수도, 올릴 수도 없으며, 볼 수도 없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오늘 첫 글쓰기가 나에게 안겨준 깨달음이다. 의식하지 못 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며 첫 글을 마친다.

😊 11 💬 4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당연하고도 쉬운 일어기에 그 값어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전 철자를 항상 생각하면 좋겠네요!



2025/05/09  
friday, am 12:03 | 23118  
유재하(미디어스쿨)

#1일차

키워드 : 열다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열다'는 마음을 여는 행위이다.

누구나 홀로 다들어가는 자기애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내 안의 단단하고 건강한 심지를 가꾸는 행위, 내면아이를 치유하는 행위, 과거의 힘들었던 나를 애도하는 행위 등, 마음을 열고 닫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나로 살고 싶은 욕망과 함께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바야흐로 대협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어려운 학구공 패스타임처럼 느껴지는 날도 생겼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두렵고 귀찮아졌고 최적의 효율시간이나 일관 일처리를 생각하듯 의무를 따지며 필요/불필요로 나누어 생각하게 되는 날이 늘어갔다. 사람을 만나는 행위가 노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외로움과 고독은 그 쓰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자기애'의 모양새는 여전히 다들들 많이 보인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싶은 게 나의 가장 큰 "열다"의 여는 행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내 안의 세상에서 시작된

행오는 누구에게 꺼내놓기도 어려운 진실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실은 더 조금하게 만들 뿐이다.

'나'라는 단어가 아니라면 형용하기 어려운 것도 존재한다. 자기애는 원래 뚜렷한 형태가 아닐지도 모른다. 불행한 날 나에게 보내는 다행일지이고, 아픈 날은 두통 약을 제때 챙겨 먹는 거고, 바쁜 스케줄 속 달력에 "내가 해냄"이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자기애라면 이 모양은 매일 달라도 되지 않을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들지 않는 이 글을 이곳에 올리는 뜻, 형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도 내가 바라는 자기애의 모양새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우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 잘하고 싶은 강박을 벗어나 "완성된 문장"보다 "살아 있는 마음"이 담긴 문장을 쓰고 싶다.

😊 10 💬 4

최현영(금융재무학과) 나로써 충분한 사람.. 나의 단점도 나의 장점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09  
friday, am 12:23 | 44111  
김양선

#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은 '열다'라는 키워드를 통해 각자의 첫걸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어떤 사물을 열고, 새로운 삶의 단계를 열고 우리 삶은 때 순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 닫힌 마음을 천천히 여는 따뜻한 손길, 낯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 그 모든 '열림'은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여는 오늘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이어질 글들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요.

😊 21 💬 0



2025/05/09  
friday, am 7:58 | 43118  
김양선

#2일차 키워드 : 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고요'입니다. 소음과 자극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고요함은 때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벽녘의 캠퍼스, 도서관 구석의 열람실, 밤늦게 찾은 한강변. 여러분이 경험한 고요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고요함 속에서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느꼈나요? 혹은 마음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고요함의 가치, 순간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 15 💬 0



2025/05/09  
friday, am 8:24 | 23118  
김미도(일본학과)

#2일차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그날도 나만이 깨어 있었다.  
나는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그래서 그날도 잠자리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가 겨우 잠들려고 하고 있었다. 새벽 2시쯤, 정말 온 가족이 깊이 잠든 시간. 그때였다.  
내 방 문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다.  
참고로 우리 집에서는 영무새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그건, 평소에 익숙하게 들던 영무새의 날개짓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 사실을 나는 단번에 알아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에이, 또 새졌지' 하며 애써 무시하고 다시 누웠다.  
그러나 5분 뒤,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이에서 들렸고, 너무나도 불길한 마음에 순간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러가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천장을 보았다. 역시나 그 녀석이 거기에 있었다.  
생각보다 커다란 몸집에 놀라, 식구들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나는 조용히, 함께 자고 있던 강아지를 안고 거실로 도망쳤다.  
그러나 거실에서도 영무새의 날개짓 소리때문에 깜짝 놀라며 결국 연휴 첫날부터 밤을 새게 되었다.

이래서 나는 밤이 싫다.  
어릴 때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해, 밤에 자주 재난을 겪었다. 일본에 있었을 때는 한밤중의 작은 지진도 나만 일어차렸고, 가족과 여행을 가도, 숙소에 불이 나면 내가 가장 먼저 눈치챘다.  
모두가 자는 고요한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는 두렵다.

😊 15 💬 9

최은교(간호학과 20256392) 저도 밤에 조용하게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는데 너무 공감아 되었습니다. 밤에 재난을 겪은 경험까지 있으시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잠을 잘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5/05/09  
friday, am 9:47 | 35918  
정우현(철학계)

#2일차

저는 고요함을 느끼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매일 도서관을 가서 그 고요함을 온전히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소음에 예민한 편이라 유일하게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과제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도서관이 학교에서 가장 좋습니다. 단순히 고요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요함이 존재하는 이 공간 자체가 선사하는 공기, 분위기가 좋습니다. 감히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큰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고요함은 어쩌면 단순함을 안겨주기에 더욱 매력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글을 쓰는 시각 8시 38분이네요. 일어나자마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공간에 저는 고요함을 느끼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다한 이야기들에 집중하며 사느라 저는 고요함을 물렸습니다. 고요한 공간을 좋아하면서도 고요함을 좋아하는지 망각했습니다. 고요함에 대해 더욱 알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소음 때문에 다름이 커지곤 합니다. 중간 소음 문제, 길거리 싸움 역시 서로의 말과 소음 때문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소음에 익숙해져 자신들이 무시코 발산하는 소음에 무심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고요한 환경입니다. 고요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음들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싫어하는 소음만큼 남이 싫어하는 소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고요함은 우리의 친구이자 좋은 교과서입니다.

😊 15 💬 11

정서진 (연론방송융합20) 우현님처럼 도서관의 고요함을 저도 참 좋아합니다. 가끔씩 들리는 큰 소리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의 실수도 용인하지 않는 사회의 예민함이 아속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참 좋더라고요. 책을 넘기는 소리나 펜을 사각이는 소리, 누군가를 배려해서 느껴지는 몸짓과 조심스럽게 물건을 내려놓는 행위에서 은근한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우현님도 우현님께서 느끼는 분위기 속에서 은은한 행복을 느끼고 계신다니 참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5/05/09  
friday, am 10:57 | 23718  
김예지(사회복지학과)

#2일차 -고요

고요와 적막은 한 글 차이이다. 고요는 마음을 달랠하게 감싸는 평화의 이불이고, 적막은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드는 쓸쓸함의 어둠이다. 가끔은 돌이 뒤섞여 헛갈리기도 한다. 살며시 내려앉은 고요 뒤에, 따라오는 적막은 내 마음 속 기억들을 툭툭 건드려 밤잠을 앗아가곤 한다. 하지만 그 적막을 따뜻한 고요로 바꿔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내 사랑스러운 고양이이다. 내가 조용한 외로움에 휩싸여 속을 뒤척일 때면, 고양이는 내 품에 꼭 안겨 작은 가르랑으로 사랑의 자장가를 들려준다. 그 노래는 내 마음을 다시 평온하게 감싸고, 마침내 나를 꿈결로 이끈다.

그러나 이 포근한 고요를 깨우는 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아침 알람. 적막을 깨뜨리는 고양이와 고요를 깨우는 알람, 둘 다 조용함을 깨긴 하지만 느낌은 전혀 다르다. 하나는

마음을 몽글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이불을 걷어차게 하니까.

😊 15 💬 10

최현영(금융재무학과) 반려동물이 주는 에너지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적막까지도 깨버리는 귀여운 존재,, 부럽습니다:)



2025/05/09  
friday, am 11:04 | 38918  
최하경(정치학과)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하나, 자기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파스칼의 <팡세>에서.

#2일차 #고요 무한한 자극의 시대에서 고요는 사치가 되었고 고요 속의 사유는 아득해져버렸다. 저들은 우리가 고요하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 성급하게 선택하게 만들고 오만하여 악수를 두게 만든다. '생각 말고 돈과 시간을 쓰시오!'

춘천의 고요함에 적응이 된 나는 오랜만에 서울에 가면, 도시의 소란스러움을 느낀다. 자극적인 내온사인과 자동차의 울라선 내 차별해진 감각 사이로 소란스럽게 끼어든다. 처음 느끼는 내 고향 서울의 산만함. 춘천은 고요함을 확보하기에 최적의 장소. 공학관 앞 공원은 나만의 고요장소이다.

고요함을 되찾자! 적막의 지루함을 만끽하고 평정을 되찾자. 외부의 자극은 내면을 채워줄 수 없다. 스마트폰을 멀리 한다는 것은 현대판의 소극적 러다이트 운동. 진정한 부자는 관계에서 감히 전화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게 만든다. 앙증맞은 현대의 필수품이 영혼의 대화를 방해할 수 없도록. Do not disturb! 주변은 산만하여도 영혼은 고요할 수 있다.

😊 17 💬 11

정서진 (연론방송융합20) 앙증맞은 현대의 필수품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가끔은 그 필수품과 멀어져 재 시간을 온전히 즐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김명빈 (미디어스쿨) 파스칼의 말처럼, 고요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정말 자극으로 가득하고, 그 속에서 고요를 찾는 것이 이제는 정말 큰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서울의 소란스러움을 다시 느낄 때, 그 고요함을 소중히 여겼던 춘천에서의 경험이 떠오르는 것도 정말 공감이 가네요. 그런 고요한 장소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평정을 되찾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인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도 정말 생각해볼 만해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 크지만, 그것이 영혼의 대화를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가끔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09  
friday, am 11:09 | 22718  
최현영(금융재무학과)

#2일차 #고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아무 말 없이 고요한 순간들을 즐깁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창문 넘어 비냄새를 맡으며 즐기는 고요 속의 여유는 바쁜 일상 속 저의 소확행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고요함이 사뭇친 외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돌이켰다가 혼자가 되었을 때, 명절날 만난 가족들로 부적었던 집에서 모두 돌아갔을 때 그때의 적막은 왜인지 낯설고 빨리 그 고요함을 깨고 싶어서 소리나는 무언가를 틀어놓으며 벗어나기 위해 애씁니다. 같은 단어도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요함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12 🗨️ 8

조하경(정리학과) 항상 반대의 것을 추구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은 시계추처럼 흔들리네요. 고요와 소란을 오고가며 \*\* 그 순간을 만끽해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09**  
friday, pm 12:15 | 19918  
김서희(식품영양학과)

#2일차


나는 잠드는데 꽤 오랜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방문을 닫고 아주 작은 불빛까지 차단해 고요한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아무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함은 싫어한다. 과연 고요함이 많은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잠에 들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방문을 닫고 가장 작은 소리로 무한도전을 틀어둔 채, 강아지와 함께 잠에 든다.

가장 작은 소리로 틀어둔 무한도전과 강아지의 부드러움, 온기가 고요하지만 적막하지는 않은 최적의 상태를 선물해준다. 또 그날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기분도 든다.

😊 10 🗨️ 5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고요가 조용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보단 평안한 상태인 마음 속의 고요를 말하는 글인 것 같아 마음이 동시에 따뜻해지는 글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05/09**  
friday, pm 1:04 | 21918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고요

스물 하나, 헤드셋을 산 이후로 스물 다섯인 지금까지 외출 필수템이 되었다. 한 가지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은 나의 귀 건강인데, 아직까진 문제가 없어 다행이라고 할까? 글을 쓰는 지금도 지하철에서 헤드셋을 쓰고 있다. 의자에 가득찬 사람들과 속삭이는 연인, 큰소리로 떠드는 어르신, 멍 때리는 학생, 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귀를 막고 눈을 감는다. 나에게 고요함은 헤드셋을 쓰는 순간이다. 다른 인격의 말소리, 부딪히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은 것들이 마음의 고요함을 더 앗아가며 자극을 준다. 음악을 트는 순간에야말로 마음에 고요가 찾아온다.

안중 -유다빈밴드

😊 13 🗨️ 8

이주원(심리학과) 연주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게 된 이후로, 이거 없이 외출을 하는 제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타인의 말소리가 배경음이 되지 않고, 개개인의 노랫소리가 배경음이 된 현사회가 어떻게 보면 냉랭해보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만의 바운더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나만의 노랫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어딜 가든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거니까요.

 **2025/05/09**  
friday, pm 1:17 | 20918  
유재현(일본학과)

#2일차

나는 고요함을 좋아한다. 주변이 조용하면 마음이 덩달아 조용해진다. 나는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좋아한다. 특히 도서관 3층이나 열람실이 좋다. 2, 4층은 입구와 가까워서 고요가 일그러지기가 쉽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3층은 비교적 고요가 일그러지지 않는 편이다. 열람실은 더욱 고요하다. 그래서 나는 문을 이용할 때 그 고요를 깨지 않기 위해, 단할 때까지 문 손잡이를 꼭 잡고 있는다. 고요를 지키는 행위가 좋다. 아늑한 시간이 지속되는 게 좋다. 우리 집은 그리 조용하지 않다. 아버지는 TV 소리를 크게 틀으시고, 어머니는 손님을 초대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 방에서 고요를 최대한 지키려 한다. 문을 닫고, 밖이 너무 소란스러우면 이어폰을 끼고 잔잔한 노래를 들었다. 때로는 가만히 멍을 때렸다. 이젠 지금도 습관으로 남아 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멍을 때린다. 그러면 신기하게 주변 소리가 잦아든다. 고요해지는 그 순간이 너무 좋다.

😊 12 🗨️ 6

서정원(심리학과) 명상적이네요. 가만히 멍을 때리다보면 주위 소리들이 물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주위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구요.

 **2025/05/09**  
friday, pm 1:26 | 26918  
정서진 (연문방송영상20)

#2일차

새콤달콤한 아침이야.

오늘 아침에는 이불 속에서 나오기 힘들었다. 사실 늘 힘들지만, 비 오는 날 아침은 유독 더 일어나기 힘들다. 이불에 푹 파묻혀 보드라운 베개에 얼굴을 비벼며 눈도 못 뜨고 냉장고 속에 잠들어 있는 새빨간 토마토를 떠올렸다.

아, 토마토. 봉비를 맞으며 연두에서 초록으로, 초록에서 빨강으로 익어가는 토마토. 고요한 휴 속에서 잠들어 있던 씨앗은 땅을 뚫고 하늘을 향해 무럭무럭 자라서 빨강강게 익어갔겠지. 그 붉고 탐스러운 토마토는 줄기에서 꼭지만 남긴 채 푹, 떨어져 우리 집으로 보내졌을 거야.

여전히 눈 뜨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숨만 돌이켜고 내쉬었다. 하니, 뭉 떨어지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새벽빛으로 파랗게 물든 방 안이 날숨과 빗소리로 가득 차고, 그 순간은 더없이 고요했다. 꿈과 토마토와 현실을 오가며 비몽사몽 입맛을 다시다 보니 갑자기 든 생각. 토마토도 휴에 파묻혀 비를 맞으며 이런 고요함을 느꼈을까? 그 고요 속에서 행복했을까?

어느 정도의 잠이 보장된 밤과는 달리, 아침은 더 이상 잘 수 없기에 그리 행복하지 않다. 그래도 아침의 잠과 아침의 이불과 아침의 공기는 더없이 달콤하다. 일어나기 싫고, 어딘가 가야 할수록 그 달콤함은 배가 된다. 자기 전에는, 덮으면 덥고 들추면 추워서 결국 우스꽝스럽게 반만 덮고 자게 되는 이불. 왜 아침에는 헌없이 보드라운지.

어젯밤, 오늘의 아침을 위해 남겨둔 한 알의 토마토를 다시 떠올리며 부스스 웃었다. 수업은 가기 싫고, 이불은 너무 포근하지만, 설렁 뿌린 토마토를 한입 가득 베어 무는 생각을 하니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 고요와 포근함을 토마토도 느꼈었다면, 분명 더 새콤할 거야.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잠이 잔쪽 문은 얼굴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하얗고 고요한 냉기. 그 속에서 혼자 새빨갭게 익어 나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너. 찬물로 세수를 시킨 다음, 목지를 따서 몽텅몽텅 씹었다. 새콤하게 풍겨오는 단내, 터지듯 흘러나오는 속살. 부끄러움에 더 뉘어지지 않도록 설렁 설렁 넣어주었다.

빛소리만 들리는 창 앞에서 맞이하는 아침의 토마토. 고요한 세상 속 우리 둘만 남았다. 오늘 아침은 새콤달콤한 맛이 났다.



토마토 드세요!

😊 13 💬 6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저희 어머니께서 토마토를 싫어하는 저에게 설렁 설렁 물어 주시곤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워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09

Friday, pm 1:32 | 1918  
이주원 (심리학과)

#2일차 #고요

올해 초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전시회 하나를 관람했다. 박광진 화가의 개인전, <박광진: 자연의 속삭임>이었다. 이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소개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요한 순간 속에서 들리는 자연의 소리'였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고르라 하면,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고요하게 있었을 때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 소개말이 가장 와닿았다.

나는 산책할 때 항상 물이 있는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중학생 때 처음 가 본 중앙천이 나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을 남겨줬기 때문이다. 평일 오후 시간대라 사람도 없었고, 그 때 당시에는 이어폰도 없었던지라 다른 소음 없이 오로지 자연 속 소리만 들렸다. 바람 때문에 흔들리던 억새풀 소리, 높이 차이 때문에 떨어지던 물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는데, 이 소리에 매료되는 바람에 한참이나 그 앞에 서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이어폰이 있는 지금은 노래가 없으면 지루해서 못 버티겠는데, 그 때는 어떻게 재미난 소음 없이 자연 소리를 즐겼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그 때 즐겼던 고요한 순간 속 자연의 소리가 계속 맴돌아서, 또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나는 항상 물이 있는 곳으로 간다.

😊 13 💬 4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항상 자연의 소리를 좋아해서 항상 자연의 소리를 찾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09

Friday, pm 1:37 | 2598  
정우림(정치행정학과)

#2일차 #고요 내가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쓴 책은 아니지만 모 종교인의 저서 중 이런 제목의 에세이가 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 책 제목처럼 고요가 찾아왔을 때 그 존재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금 참 너무로 오는 빗소리, 시계 바늘 소리, 내 심장이 뛰는 소리. 이들은 고요가 오든 그렇지 않은 존재한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들을 잊고 실곤 한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우리가 놓치면 후회할 만한, 언젠가는 그리워 할 것들이다. 계속해서 집하다 보니 무더진 것을 말이다. 그래서인지 비가 온 날 돌아가신 우리 외할아버지와 당신의 잔소리가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난다. 이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괜히 떠오른다. 더 잘해드릴 걸 싶다.

😊 13 💬 9

박지영 (경제학과) 지난 해 여름에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서 마지막 문장에 마음이 울렁였습니다. 너무 감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고, 장례식장에서 곡소리를 듣고 나서야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고요한 장례식장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 아래서 울던 사람들과, 할아버지 동문 분들이 보내주신 화환, 정산했던 주부와 비워지던 술병... 할아버지는 고요한데 그 주변은 너무 시끄럽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2025/05/09

Friday, pm 1:45 | 2318  
권혁빈(경제학과)

#2일차

수업이 끝나고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 아직 저녁 7시도 되지 않은 시각이지만 골목으로 들어설수록 나만 존재하듯이 바람 소리와

강아지들이 이따금씩 짖는 소리만 울릴 뿐, 한낮의 북적거림은 한 순간의 환상처럼 없어졌다. 재작년부터 자취를 시작하며 매일 밤 느끼는 풍경들. 이제 이 미묘한 감정과 느낌도 경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실세없이 시끄러운 환경보다는 약간의 외로움이 포함되지만 잔잔한 느낌을 좋아한다. 매일 밤 돌아와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우두커니 앉아 조용하게 멍하니 음악을 듣는다. 얼마 안 되어 고독이 밀려오지만 이내 그 고독도 스스로 즐기며 순화시킨다. 환기를 시키려 창문을 열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가끔씩 지나치는 소리, 옆집에서 작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밖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의 고독을 조금이나마 달래준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세상도 차분해진 느낌이 든다. 오늘도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부터 즐겁고 고독을 위해 나의 할 일을 시작한다.

😊 13 💬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가족사에 살다보니 가끔씩 고독이란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오기 전까지 시끄러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살다보니 대학교 와서 느끼는 혼자만의 시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2025/05/09

Friday, pm 1:47 | 2098  
유재하(미디어스쿨)

#2일차

키워드 : 고요

[숨을 고르는 시간]

'고요'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이른 새벽  
숨소리를 담은 고요한 정적이 떠오른다.  
창문을 살짝 열었을 때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도로,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새벽 세네 시의 시간이 떠오른다.  
가장 밝아지기 전이 가장 고요할 시간이다. 이  
시간은 세상도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의 노이즈]

내가 정의하는 '고요'는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는  
질나름 의미했다. 유독 소음에 예민한  
나에게는 에어팟 노이즈캔슬링이 만들어주는  
강제적인 고요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그래서  
'고요'는 내 마음의 노이즈가 사라지는  
질나이기도 하다.

'마음의 노이즈'라는 건 꼭 귀로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새어나오는 걱정들, 끝없는  
비교들, 산더미처럼 쌓인 일들, 내 안에서  
지나가지 못하고 맴도는 말들처럼 마음 속을  
소란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이 '고요'는 단순히 '조용함'이  
아니라, 마음 속 모든 잔소리를 내려놓고  
비로소 나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무음을 담은 고요]

또 '고요'와 함께 "고요한 밤"이라는  
노래가사가 떠오른다. 눈이 내리는 고요한  
밤, 모든 소리를 덮는 그 침묵.  
그러나 외롭기보다는 안온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존재한다. 아무말도 주고받지  
않지만, 향구한 것이 아닌 무음인 상태. 이는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주는 시간들이기도  
하다. 나는 이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와 오래 놀러두며 길게 묵혀두었던  
생각들이 들리기도 한다.

[마음의 숲, 내면의 정적]

오늘 제시어인 '고요'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는 건 바깥의 고요가  
아니라, 내면의 진전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나의 마음은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소란한지 들여다 보는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의 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

😊 12 💬 4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외부의 고요함보다는  
마음의 고요함을 생각한다는 말이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09  
friday, pm 2:17 | 16:00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고요  
밤이 찾아오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차들의 소음도  
서서히 사라진다 창밖의 가로등만이 은은한  
불빛을 흘리며 그 정적을 비추다 나는 그  
시간에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곤 한다  
누군가의 문 여는 소리조차도 내 귀엔 크게  
느껴진다

어떤 사람은 이런 예민함을 불편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점점 그 고요함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고요함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다 시끄러운 낮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밤의 정적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지 혹은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남겼는지 조용히 되짚을 수 있다

고요는 혼자인 시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  
누군가는 시끄러운 음악이나 소음 속에서

잠이 들겠지만  
나는 조용함 속에서 나를 만나고 그 사이에  
천천히 잠든다 고요는 밤의 선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선물을 감사히 받는다

😊 13 💬 4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한번 잠들면 누가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는 알아서 뻘 적이 없는  
저로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신다는  
주연님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요함의 가치를 성숙히 깨달아가는 모습이 느껴져  
본받고 싶기도 합니다.  
잘 읽었어요! 항상 행복합니다 :)



2025/05/09  
friday, pm 2:52 | 16:00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2일차 '고요'

언제부터였을까 고요한 순간을 좋아했던  
적이  
옛날로 돌아가 보면 난 고요함보다는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많았던 순간이  
대부분이었다 어린 시절 가족, 친구들과의  
캠핑 놀이공원 여행 등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며 사람들과 왜 같이 있어야 하는지  
배우고 또 그 구성원이 된다는 점이 무척  
기뻐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나는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하지만 어린 시절 시끌벅적한 경험만  
해보지는 않았다 나에게 어린 시절  
고요함이란 할머니 댁에 방문해서 보낸  
시간들이 가장 고요했었는데  
여름철에서는 할머니 농사일도 앞에서  
도와드리며 과일도 따고 뽕도 파보고  
할아버지의 경운기도 타보고 그러다  
마루에 다 같이 앉아서 땀방울과 매미가  
우는소리, 조금은 느껴지는 바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가꾸신 농밭을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고요한 순간이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고요한  
순간이었다

어쩌면 나는 그 고요함이, 시골 농촌의 모습이  
아니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다

지금의 나도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이제는 나 혼자만의 시간들을 항상 챙기는 것  
같다 저녁에 공원에서 산책하기, 명상하기,  
일기 쓰기, 노래 듣기 등 하루에 30분 이상은  
온전히 나를 위해 나를 챙기는 시간을  
가져본다 거기서 나오는 고요함이 나는 좋다.  
그런 일상이 나는 너무나 좋다.

😊 10 💬 5

김명빈 (미디어스쿨)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찾는  
고요함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생각을 정리하며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일상이어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우리끼리, Band!



2025/05/09  
Friday, pm 2:54 | 21:18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겁도 많고 세상에 무서운 것도 참 많은 사람은  
고요가 유독 더 두렵다. 사람들의  
시골벽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밤음과 어두움으로 시간을 구분하는 삶  
속에서 고요는 마치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압박감을 주는 것 같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내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가족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1시, 조용히 일기를 써내려가는 때이다.  
가끔 들리는 오토바이의 굉음을 제외하면 날  
건드는 음성이 하나도 없기에 그 어느때보다  
강한 집중력이 발휘된다.

어렸을 땐 뭐가 그렇게 귀찮았는지  
방학숙제로 받은 그림일기를 한달이나 밀려  
쓰고 글씨는 알아보지도 못하게 휘날려쓰곤  
했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마음 잡고 쓰면 한  
장 반도 훌쩍 넘어가는 분량을 써내려갈  
정도로 손이 바빠 움직인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이런 것일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이번만큼은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거두절미하고, 이상하게 난 고요가  
좋으면서도 싫으면서도 무서우면서도  
반가우면서도 거부감 들면서도 기다려진다.

-어느 고요한 곳에서



11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고요함 뒤에 큰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고요해질 때  
불안해지던 경험이 있었더라구요 \* \* \*



2025/05/09  
Friday, pm 3:37 | 22:18  
장근하(글로벌비즈니스전공)

#2일차

비 오는 날, 조금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날씨는 나를 괜히 신뜻하게 만든다. 비  
냄새, 빗소리 등 이 작은 울림들은 오히려  
현실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창가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세상의 소음을 덜어버리는 장막이 되고 그  
안에서 나는 고요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고요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소리의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도시의 번잡함이 빗줄기 아래 씻겨 내려가는  
동안, 내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도 함께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 일상의 부산함과

책임감, 끝없는 할 일 목록들이 잠시 멈춘  
듯한 이 시간, 바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전한 침묵보다는, 각자만의 '고요'가  
아닐까.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돌아오면, 이 고요한  
시간도 함께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잠시의 멈춤, 고요한 숨고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빗방울들이  
흘러 다시 바다로 가듯 우리의 고요도 흘러  
다시 각자의 삶에 도달할 수 있기를.

13 6

임혜빈(사회복지학전공) 잠깐의 고요가 우리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혹은 고요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2025/05/09  
Friday, pm 4:07 | 18:28  
임혜빈(사회복지학전공)

#2일차 #고요

나는 귀가 좋지 않다.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시끄러운 공간에선 나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구와  
카페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와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같이 들리는  
상황에선 친구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기  
힘들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대화의  
흐름을 놓칠 때가 많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집중하고 긴장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고요한 곳으로 가고  
싶어진다. 마음을 정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고요한 공간으로. 고요한 곳에 들어서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된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고 잔잔한 파도만이 치는  
바닷가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든다. 생각을  
정리하고, 귀와 뇌에 쌓인 피로를 덜어낸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공간에서 나와야 한다.  
나는 또다시 시끄러운 공간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

고요는 나에게 집과도 같은 존재다. 나에게  
안정을 찾아다 주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무를  
순 없다. 때가 되면 그곳을 벗어나 다시  
긴장되는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내게 쉼터가 되어주고, 재정비할  
시간을 준다. 오늘도 나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줄 고요를 기다린다.

7 2

김명빈(미디어스쿨)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 나만의  
고요를 찾으려는 노력과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과정이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고요는 단지  
피로를 덜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요.  
언제나 다시 그 고요를 찾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평온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Band!



2025/05/09  
Friday, pm 5:00 | 22:10  
서정원(심리학)

#2일차

침묵: 아무 말도 없이 잠잠이 있는 것, 혹은 그 상태. 고요함을 지키는 상태.

오늘은 고요함을 지키는 상태인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반년 전 읽었던 지그문트 바우만의 '침묵의 세계'에서 글을 인용해서 써 봐야지.

오늘 글들에서 명상적이고, 성찰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고요하고 정적인 곳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그것들이 신경쓰이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고요한 곳에 시끄러운 것, 가령 4시간 안에 제출해야 할 과제에 대한 생각, 앞날에 대한 걱정 등을 가지고 갔을 뿐이지 않을까? 첫 번째 주제를 읽어보고 생각해 보자.

#1 <침묵 속의 인간과 사물>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의 정적'과 침묵을 얻기 위해서는 전원으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서도 침묵과 만나지 못한다. 반대로 인간은 거대한 도시의, 그리고 자기 내부의 소음을 시골로 가지고 갈 뿐이다. 그것이 "전원으로 돌아가라"는 운동의 위험이다. 적어도 대도시에서는 최소한 말하자면 한 감옥 안에 함께 감금되어 있던 소음들이 시골로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대도시를 분산시킨다는 것, 그것은 소음을 분산시키는 것이며 소음을 도처에 분배하는 것이다.

==> 템플스테이에 가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해서 침묵의 세계를 얻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체험할 순 있겠지만, 소음을 잠시 전원으로 가져오고 다시 도시로 도로 가져가서 똑같은 소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건가. 사람은 쉽게 안 바뀌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템플스테이나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아니라도 충분히 바뀔 여건이 된다. 내면의 침묵을 일찍이 인식했던 사람들.

이 세상은 잡음어가 가득하다. 우리는 침묵으로부터 말의 질서와 진리를 확립하고, 내면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

#2 <잡음어, 침묵의 힘>

"폭발 소동, 시종무관장 라나스는 급히 그쪽으로, 알트곳 부인은 시녀들에게 치우라고 눈짓한다. 모두 알고 있다. 폭발 소동, 국왕은 이미 국 안에. 부인을 황급히 거울 앞으로 '민어주세요, 저를 풀어주세요, 자비로우신 부인!' 우리들은 알고 있다. 시종무관들의 바로 뒤를 따라서 혼장을 단 부르스트 씨 재빨리 맨 앞줄로 나가. '송구스럽습니다. 각하. 각자 자기 있는 곳을 보도록!' 최후의 순간, 장벽의 기대, 갑작스럽게 흥분한 가슴들의 두근거림, 한 부인이 사납게 웃음을 터뜨린다." - 어느 현대 소설에서

무언가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는가? 난 1분 맛집 소개 쇼츠와 릴스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오직 식당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홍보하려는 목적 때문에 1분 쇼츠와 릴스 속 말은 그 힘을 잃었다. 그 말을 '잡음어'라고 표현한다.

잡음어-언어 속에서는 주어와 술어와 목적어와 부사가 모두 서로 엉켜 있고, 그 때문에 그 문장은 거의 명확히 발음되지 않는다. 그 문장은 거의 하나의 무정형 소리 덩어리이다. 그 덩어리로부터 때로는 어떤 한 소리가 다른 소리보다 더 절실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잡음어로부터 온갖 것들이 사방팔방으로 파급된다. 반유대주의,

계급투쟁, 국가사회주의, 불세비즘, 문학주의 등. 잡음어는 무엇보다도 불확실함을 퍼뜨린다. 내가 존경하는 조던 피터슨 교수에 따르면 잡음어 자체가 불확실함인데, 그것은 또한 그 불확실함을 낳기도 한다. 그것은 한계를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무절제한 것으로 만든다. 잡음어는 한계를 뛰어넘는다. 반면에 침묵으로부터 나온 말은 한계를 세우는데, 그럼으로써 말에 진리와 질서가 담길 수 있다. 말에 진리와 질서가 담기면 우리는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을 경계하게 된다.

인간의 현존재는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날카로운 양자택일 속에서가 아니라 그 중재 속에서 움직인다. 여기서 침묵하는 실체는 서로 대립하는 것들 중간에 존재하면서, 그것들이 서로에게 공격적이지 않도록 작용한다. 그렇게 서로 대립하는 것들 사이에서 침묵하는 실체가 중재한다. -가령 유대주의와 반유대주의, 국가사회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이들 사이에 침묵이 개입하여 어느 한 편에 서지 않게 한다. -

==> 이런 의미에서 나도 말 속에 진리와 질서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평소에 침묵의 세계를 자주 갖는 것들-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말을 '창조주'에게 가져다주는 것들(종교계에선 명상과기도, 일상생활에선 일기쓰기, 자아성찰이 될 수 있겠다)-추구하며, 그렇지 못한 삶은 침묵으로부터 오는 악한 것, 잡음어를 막지 못하고 말로써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말할 때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들은 혼돈과 무질서가 아닌 진리와 질서를 추구하는 자이다.



최애 에스프레소 바에서...!!

😊 11 💬 17

조은채(간호학과) 하긴 그렇군요. 명상을 꼭 조용한 곳에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 소음을 잠시 가져왔다가 도로 가져간다는 게 참 웃프네요. 당연하게 여기던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



2025/05/09  
Friday, pm 5:16 | 17:10  
강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2일차

<다른 그림 찾기>

완성될 나를 위해 부품을 찾아 떠나는 모험. 아직은 손가락 하나뿐이지만 다 맞춘 퍼즐을 감상하기 위해 조립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사색을 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고 그곳은

일본의 도쿄가 되었다. 모든 것이 시작점이었고 주어진 것에, 남은 것에 집착하지 못했던 자신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여력이 되는 곳이었다. 지하철에 올라서며 마주한 것은 어색한 장면이었다. 흘러가는 시간을 책으로 담고 있던 그 모습들은 나를 흥분하게 만들었고 반성할 수 있게 도와줬다. 내가 원했던 모습들이지만 창작 나조차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었던 행위를 그들은 당연시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술에 대한 존경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하나의 예시로는 라이브 공연장이었다. 가수의 노래를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두눈과 귀로 그 순간의 무드를 흡수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라이브 무대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의미라곤 찾아볼 수도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한국의 배경과는 고귀한 아름다움이었다. 나에게 고요는 정신없이 고개를 흔들고 대화가 오가는 신만한 장소, 새벽에 나가 걷는 공원처럼 적막과 조화를 이루는 장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고요는 내가 생각해온 이상과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일치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날 기분엔 맞는 음악을 들으며 그 음악에 어울리는 장소를 지날 때 고요함을 만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아마도 잊고 있을지 모른다, 아니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들어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나 자신의 고요또한 잠식돼가게 만들었고 아마도 나 또한 그들에게 동화돼가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11 💬 4

**채은비(생명과학과)** 라이브 하우스!!! 저도 제이팝을 좋아해서 한번쯤 꼭 가보고 싶었어요. 사실 공연장이라는 공간은 고요함과는 동떨어진 이미지가 강한데 그곳에서 오히려 마음의 고요를 찾는다는게 이상 같았어요 잘 읽었습니다 :)



2025/05/09  
friday, pm 5:18 | 11:11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2일차 #고요

고요 ;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

'고요'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조용함이었다. 그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백색 소음만 가득한 '혼자 방에 있는 나'가 떠올랐다. 새벽까지 잠생각에 빠져 소심하고 우울해지는 나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신나게 노는 나는 도무지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스스로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남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얘기할 땐 현없이 긍정적이었다가도 내 스스로의 고민 앞에선 한없이 부정적이다. 정말 힘이 들면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는다. 자체 휴강을 하고 방안에만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계속 집에 있다보면 문득 친구들에게 연락이 온다. "오늘 뭐해? 같이 놀자." 평소라면 즐겁게 나갈 준비를 하지만 물 먹은 솜처럼 무거운 몸의 나는 "아, 오늘은 그냥 너희끼리 놀아"라고 답장을 보낸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다시 바깥 생활을 시작하게 될때면 친구들이 가끔 묻는다. "너는 저번주에 뭐했어? 계속 집에만 있었어?" 나는 답한다. "그치" 친구들이 다시 물어본다. "집에서 뭐하는데?" 나는 또 답한다. "뭐..올라 그냥 있었어"

이번주는 웃으며 보내고 저번주는 슬픔에 젖어 지내고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살 속의 헛바퀴처럼 돌고 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았던 때, 밖에서 생활하다시피 매일 외출을 해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때. 새벽까지 잠이 안와 결국 침대에 벗어나 책상에 앉을 때면 지금 이 감정을 글로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끄적였던

때. 그때부터였을까? 글을 좋아하게 되었다. 시끄럽고 정신 없던 분위기를 좋아하던 내가 그 고요 속에서만큼은 뛰든지 털어낼 수 있었다.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고 내 감정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고요한 분위기를 싫어했던 나는 이젠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더 이상 고요는 외로움이 아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온다.

😊 9 💬 3

**조은채(간호학과)** 고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셨군요. 저도 매일매일 기분이 달라질 때 곤혹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또 삶의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님 글을 보니 저도 글을 쓰면서 저 자신을 좀 더 알아가고 싶네요.



2025/05/09  
friday, pm 6:14 | 11:11  
채은비(생명과학과)

#2일차 #고요

밀려 있던 과제를 내내 붙잡고 있다가 이제 겨우 도서관을 나선다. 오전 내내 의자에 붙잡혀 있던 몸이 찌뿌둥하다. 드디어 끝마친 과제를 과제함에 제출하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다. 또 한고비가 이렇게 지나간다. 간신히 한숨 돌리며 노트북 앞에 앉았다. 보이는 것은 고요한 백지. 그 안에 조용히 커서가 깜빡거린다, 글을 읽는 것은 언제나 즐거웠다. 다른 누군가가 세간 소란스러운 세계를 엿보는 것은. 써진 글 속에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 어떤 것에는 별것 없는 하루가, 또 다른 것에는 누군가의 사색이 있다. 내가 지금 읽는 중인 책 속에는 러시아의 추위에 얼어붙은 땅과, 쉬지 않고 퍼붓는 홍알과 포탄,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열차, 담배, 사람, 사랑..... 그것들은 언제나 소란스럽다. 글은 고요하지 않다. 조용한 것은 그 모든

글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바로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 나는 언제나 독자이기만 했고, 모든 것이 채워진 소란스러운 세계만 보아왔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이 낮은 곳을 마주한다. 아무 소리도, 존재도 없이 허얇고 조용하기만 한 세계. 글을 쓰는 것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안에 한자 한자 채워 나간다. 고요한 공간이 서서히 소란스러워진다.

😊 13 💬 5

**권혁빈(경제학과)** 태풍의 눈 안쪽은 평화로운 것처럼, 소란 속에도 평화가, 조용한 곳에서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릴 수 있죠. 살아가면서 완전한 침묵도 어지러움도 없다는 것을 더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5/05/09  
friday, pm 8:00 | 11:11  
조은채(간호학과)

#2일차 #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동쪽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여행 1일차인데, 하필 오늘 내일 비가 온다고 하죠. 때문에 숙소에 갇혀서 그저 고요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곳 방 안은 너무나도 고요한데, 창밖의 바다는 오늘따라 비바람을 맞아서인지 이리저리 떨고 있네요. 게다가 안개가 자욱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바로 눈앞의 바다만 보일 뿐입니다.

불안에 떨며 어수선한 것이 꼭 사람 마음 같습니다. 고요한 장소를 찾아갈 수는 있어도 고요한 마음을 찾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마음도 방음이 된다면 좋을 텐데. 마음의 문을

달았는데도 여전히 흔들리는 파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요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밖에서 엄청 큰 소리로 음악을 틀면 파도 소리가 상대적으로 묻힐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고요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다가 다시 진정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바엔 그냥 영영 녹지 않는 해빙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말라붙어 버리든지.

글을 쓰는 동안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건너편 건물 불빛만 깜박입니다.

😊 14 🗨️ 3

김명빈 (미디어스쿨) 고요한 장소에서조차 마음이 흔들리는 건, 그만큼 감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마음도 방음이 된다면 좋겠다니 섬세한 표현력에 감탄하고 가요 :)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부디 평안한 여행이 되길 바라요

2025/05/09  
friday, pm 8:25 | 19:18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2일차

나는 새벽의 고요함을 좋아한다. 공부를 할 때나 고민이 많을 때 새벽까지 잠에 들지 못하는데 그때 기분을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고 고요함과 더불어 시원한 숲향 같은 새벽 공기를 느낄 수 있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초여름에 침대 옆 창문을 열어두고 일찍 잠자리에 들면 점차 시원해지며 새벽에는 고요함이 찾아온다. 나는 그 과정을 느끼는 것을 꽤나 좋아한다. 살아가기 위해 모든것들에 집중하느라 쉽게 피곤해지곤 하는데 고요함은 무언가의 소리가 들려오지도, 들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타인이 아닌 오직 스스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모순적이게도 고요함이 싫어 친구에게 전화를 해 적적함을 달래거나 음악을 들을 때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소소한 고요함이 있어 또 다른 하루를 위해 힘낼 수 있는 것 같다.

😊 10 🗨️ 4

박예빈(사회복지학부) 저도 고요함을 좋아하고 힘을 얻지만, 가끔 싫어지는 순간이 있어 공감이 되네요... 새벽의 고요함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09  
friday, pm 9:49 | 22:08  
최현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일차

평단지기(平旦之氣)

전역한 지 어느덧 반년이 넘었다. 절원 삼천봉 중턱에 좁은 터를 꾸어 세워진 GOP 소초. 조립식 패널로 만든 조악한 건물과 컨테이너 몇 개. 흔히 말하는 PX도 없어서 3~4주마다 한 번씩 오던 황금마차를 썼다. 겨울에는 제설, 여름에는 예초, 와중 끊임없이 산을 뒀던 18개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가끔 그리운 게 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 혼자 밖에 나가 느꼈던 산속 새벽 공기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맑은 기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 실수를 했던 다음날에는 찬 바람이 답답하게 쌓인 미련을 가져가 찢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칭찬을 받았던 다음날에는 청명한 공기에 담겨오던 풀꽃 냄새가 유독 향기롭게 느껴졌기에, 행복과 성취감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 물론 대학교에 복학하고 난 뒤로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공기를 개운하게 맡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바빴다는 비겁한 핑계가 통할까.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흔한 말은 현 사회에서 인간이 악하게 행동해도 되는 '핑계'가 됐다. 현대인들은 왜 가족에게 다정하지 않고, 주위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원래 바빠서 그런 게 아니다. 바빠서 그런 것이다. 자신 혼자 살기 바쁘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법이다. 바쁜 삶의 일정 속에서도 삶의 본질을 찾아 지켜내야 한다.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던 유가(儒家)의 철학자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한 본성을 가졌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욕심이 생겨 본성을 잊어버리기 마련"이라며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맹자는 특히 "맑고 선선한 새벽의 기운으로 생명이 되살아나는 새벽이 자신을 반추해보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강조했다. 새벽의 고요하고 청명한 기운, 맹자는 이를 '평단지기(平旦之氣)'라고 이름 붙였다.

선한 사람은 강인한 체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충분한 여유로 타인의 고통까지 돌본다. 결국, 인간성이란 남을 챙길 여유에서 나온다.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고요 속에서의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잠시 혼자 생각해 볼 만한 여유가 필요하다. 고요는 여유를 만들고 여유는 고요를 만드니, 이 두 가지는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그렇기에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들에게 고요와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법으로 보장된 노동시간 제한을 주

52시간보다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과한 면이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삶에 남는 시간이 있어야 그곳에 평단지기를 채울 수 있고,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 13 🗨️ 7

서정원(심리학과) 여러모로 삶을 반추하게 되는 글이에요. 좋은 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평단지기'란 표현도 배워갑니다!

저는 12사단 42소초와 독립중대에서 전역한지 1년하고 반이나 되었네요. 지도 높은 고지대에서 났던 아침 박명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흰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저 멀리 속초 바다와 청초호, 영랑호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아침 박명은 바다 수평선을 기점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때 고전시거에서 해가 떠오르는 과정을 표현한 게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에 산 전체에 단풍이 물든 걸 봤던 건 공통점이었을꺼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짜 특권이었죠. 누군가는 돈 내고 봐야할 풍경이었던..

우리끼리, Band!



2025/05/09  
friday, pm 10:16 | 30188  
김명빈 (미디어스쿨)

상단바에 전세 낸 알림창과, 조용한 척하지만 존재감만은 확실한 진동. 이 둘은 가독이나 어지러운 요즘을 아예 혼돈으로 몰들인다.

기상하기 무섭게 할 일 리스트는 Ctrl+C, Ctrl+V. 나는 그 틈에서 금방 끊어질 것 같은 정신줄을 아주 간신히 붙들고 있다. 아마 내 든든한 동료 카페인씨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받아주는 사람 없는 전화벨은 영원히 울리며 멜로디 라인을 쌓고 감기 걸린 직원은 잔기침으로 비트를 넣는다. 회의 소리는 유리 벽에 가로막혀 웅웅거리고 키보드는 타닥타닥, 불펜은 딸깍딸깍, 프린터가 열심히 일하는 소리가 불협화음을 이룬다.

내가 일하는 곳은 분명 사무실일 터인데... 클럽이 따로 없다.

고요는 어디 출장이라도 나갔는지 간절히 찾는 내 앞에 뻔뻔스럽게도 '자리 비움' 풋말을 들이민다.

저기요...

진짜 어디 계시냐고요!!!!!!



#2일차

😊 22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글에서 슬직함이 느껴집니다..어떠한 상황인지 상상이 다 되는 것 같아 더욱 읽는데 이해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2025/05/09  
friday, pm 10:25 | 30188  
이주현(사회복지학과)

#2일차

'고요'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저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르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라는 찬송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12월 25일 새벽에 촛불세벽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분 다 성가대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외할아버지와 갔었습니다. 예배당의 불을 다 끄고 촛불만 켜둔 상태에서 울건 소리에 맞춰 "고요한



2025/05/09  
friday, pm 10:29 | 30188  
윤소정(사회학과)

#2일차 #고요

<'고요'가 가져다 주는 것들>

작년 가을에 친구와 둘이서 해외여행을 갔었다. 교통도 잘 되어있었고 치안수준도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녀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무섭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역과 시내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분명히 구글맵엔 버스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것이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길에 사람도 차도 없이 고요해서 순간 공포를 느꼈다. 고요하지 않다는 것은 기계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것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도감을 주지만 고요함이 공포심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반대로 고요는 집중력을 가져다 준다.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는 도서관일 것이다. 평소보다 시험기간에 훨씬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찾는다.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소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열람실에 갔었는데 열람실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 기침소리.. 각종 소음들이 그 날따라 거슬려서 더 조용한 집으로 가서 공부한 적이 있다. 평소에는 소음이 있어도 잘만 공부했는데 유독 시험기간에만 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던 것 같다. 이처럼 고요함은 공포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서 벗어나 중요한 일에 몰두하기 위한 집중력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밤-거룩한 밤-어둠에 묻힌 밤" 이라고 하여 찬송가를 불렀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는 '고요'라는 단어에 대한 제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요는 좋기도 하고 별로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밤에 선택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번 수요일에 저는 학교에서 하는 걷기챌린지를 위해 늦은 저녁에 석사전을 걸었습니다. 계속 걸을 수록 도시와는 멀어짐과 동시에 더욱 고요해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어둠과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선명한 개구리 소리, 물소리가 너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에서는 수 많은 소리들로 인해 신경 못 썼을 소리들인데 도시와 멀어지니 고요함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요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공부할 때입니다. 공부할 때 너무 고요하다보면 주위에 온갖 사소한 기계 소리든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자동차 소리든 다른 곳에 신경을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약간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머리에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공부할 땐 고요함 속에서 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요가 좋다 싫다 딱 단정 짓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엔 고요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 18 💬 6

윤소정(사회학과) 고요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해요!너무 고요하면 잡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할 때는 역시 고요한 곳이 좋은 것 같아요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맞아요 고요함이 때로는 공포감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려서 생각이 드네요



2025/05/09  
Friday, pm 10:45 | 11PM  
박지연 (경제학과)

#2일차 #고요 #고요한\_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앞에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 아기 잘도 잔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요즘, 내가 종교인임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진다. 그러나 '고요'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이 찬송이 떠올랐고, 어쩔 수 없이 나의 종교를 밝히며 이 글을 시작하게 된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현재는 작은 교회의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을 만큼 나를 신실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도 이 노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이 찬송을 하나의 캐럴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이 노래는 종교를 넘어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곡이다. 지금부터 나는 이 노래를 통해 '고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 내가 알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조용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배경음악이었다. 빛나는 트리와 촛불, 눈 덮인 거리와 김이 오르는 찻잔. 그 평화롭고 따스한 공간을 감싸는 피아노 선율이 바로 이 노래였다. 바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밤, 그 시간에 어울리는 '될 수 있는 밤', '평온한 밤'이 이 노래 속 '고요한 밤'이었다.

그러나 신앙을 갖게 된 후, 나는 이 노래 속 '고요'가 단순한 정적이나 휴식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찬송가로서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는 곡이다. 다시 말해, 이 노래가 말하는 '고요'는 세상의 혼란과 고통 위에 섰던 완전한 평화의 밤을

의미한다. 예수의 탄생은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건이었다. 그는 따뜻하고 화려한 곳이 아닌, 사람들이 머물 방조차 없던 어두운 마굿간에서 태어났다.

예수,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믿음은, '가장 낮은 곳까지 사랑이 도달했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단지 그 밤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임한 하늘의 평화, 구원의 시작, 희망의 탄생을 찬송하는 것이다. 인간의 조건이나 배경, 상황과 무관하게 선포된 평화.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 그것이 이 노래가 말하는 '고요'의 본질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고요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끊임없는 경쟁과 그로 인한 피로, 불안,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분노. 사람들은 고요를 잊은 채 살아간다. 오히려 침묵은 나약함으로, 잠잠함은 무관심으로 오해받는다. 정보와 감정이 과열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소음에 익숙해지고, 정작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나 역시 이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겪는 사람 중 하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는 알림음과 알림, 그리고 그 소음을 인위적으로 막아주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하지만 이어폰 너머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나는 관심이 없다는 핑계로 그것을 외면하기도 한다. 내 안의 고요도, 밖의 고요도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노래를 통해 다시 꿈꾼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나는 이 노래가 전해주는 고요의 기쁨과 세상의 평화를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종교를 떠나, 신념을 떠나, 이 노래가 품은 큰 위로와 감동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소망한다. 모든 이의 밤이 거룩하고, 고요하기를.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조용히 싹트기를.

그리고 이 조심스러운 나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작지만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



김명빈(미디어스쿨) 종교를 넘어선 찬송가의 의미 그리고 고요를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닌 '평화와 희망의 상태'로 풀어낸 시선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작지만 깊은 울림"이라는 표현처럼, 글 자체가 그런 울림을 지니고 있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2025/05/09  
Friday, pm 11:09 | 11PM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고요.

내가 고요를 느끼는 순간은 잠들기 전이다. 조용한 집안 속 온전한 나의 공간에 누워 고요를 느낀다. 이렇게 조용한 순간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 더 잘 느껴진다. 노래의 배경음악이 더 잘 들리고 가사도 금씩으면서 들을 수 있다.

시끄러웠던 일상 속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고요해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다. 괜히 잠들기 전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오르기도 재미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어떤 날은 가끔 새벽 감성이 올라오지만 이것 또한 이 순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재미이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들으면서 준비하면 전 날의 감정은 사라진 채 기분만 좋아진다. 준비를 끝내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학교에 등교한다.

일찍 학교에 도착하면 조용한 캠퍼스를 구경할 수 있다. 고요한 캠퍼스, 맑은 아침 햇살,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고요한 순간을 즐긴다.

시끄러웠던 일상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고요한 순간이 정말 소중한데. 고요함 속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집중한다. 새 소리, 걸음 소리,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바람 소리, 멀리서 작게 들리는 일상 소리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순간.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때 들리지 않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진 순간. 나도 모르게 올라온 긴장을 낮춰주는 그런 고요한 순간들이 정말 소중한데.

😊 12 💬 6

하태원(소프트웨어학부)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이 되게 중요한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모임이 쉬워진다!



2025/05/09  
Friday, pm 11:34 | 21회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2일차 #고요

집에 무수히 많은 동화책들이 있던 적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야 그 많은 그림책들을 여쭙보니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들을 샀었다고 말하신다. 내 어릴 적 기억에 그때만해도 엄마는 우리 집 tv 채널을 관리하셨다. 그 시절 나는 집에서 놀 수 있는 수단은 동화책뿐이었다. 꽃혀있던 동화책은 다 읽어보고 몇 번씩이나 읽었던 내가 선호하는 동화책 몇 권이 있다. 그 중 오늘 소개하고 싶은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파란 시간을 아세요?'

책 앞 부분 내용을 인용하자면  
"파란 시간을 아세요?  
물을 켜기엔 아직 환하고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기엔 조금 어두운  
시간.  
읽던 책을 그대로 펼쳐 놓은 채  
생각에 잠기고, 꿈을 꾸는 시간.  
펼친 책장이 희미한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시간.  
망거미 질 무렵의 어슬푸러운 시간.  
그림자는 빛나고, 땅은 어둡고, 하늘은 아직  
밝은 시간.  
온 세상이 파랗게 물드는 시간.  
세상 모든 것들이 조용히 밤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하늘 끝자락이 붉어지고, 태양은 멀리  
어딘가로 자러 가는 시간.  
늘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다가  
돌아갈 때만 조금 달라지는,  
슬프고 아름다운 시간.  
그런 파란 시간을 정말 아세요?"

이 동화의 내용은 한낮, 밤, 파란시간, 새벽의

의인화된 인물들의 이야기로 파란시간을 받아주지 않는 낮과 밤, 낮과 밤의 세력 싸움, 그들을 피하고자 해가 저문 뒤와 밤이 오기 전의 틈새에 생활하는 파란시간. 그러던 어느날 새벽 공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를 만나러 갔다가 사랑에 빠진 파란시간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이다.

어린 날의 나는 왜 이 그림책을 좋아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가질 않았었다. 신비스럽지만 영웅의 서사도 아니고, 숨겨진 파란 시간. 그렇다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니고 짝사랑으로 멀리서 새벽 공주를 바라보기만하는 이야기를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다. 나는 새벽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니 말이다. 아마 어릴 적부터 저녁형(새벽형) 인간으로 클 징조였을지도 모른다.

5월 8일 첫 챌린지를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그들에게 공감하다보니 또다시 새벽 감상이 밀려들어왔다. 물론 그때의 시각도 새벽이었지만. 비가와서 평소보다 긴 파란시간을 누렸고 남들이 일어날 시간인 아침 7시 30분 즈음에 잠을 청했다. 중간에 한번 깨긴했지만 최종적으로 저녁 6시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정반대로 기상을 했다. 스마트폰 알림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지만 '고요'라는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고민하는 사이 마감 시간이 다가왔다. 처음 나는 고요의 한자어 뜻을 검색했지만 나오질 않아 당황하였다. Si에게 질문하니 순우리말이었다. 유의어로 정적, 정숙, 평정, 적막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고요라는 단어보다 무겁고 좀 더 어두운 분위기로 느껴졌다. 이에대해서 생각하다가 엄마께 질문하니 너는 평소에 새벽 시간을 좋아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 정적은 좀 더 진공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런식으로 말들을 던져주셨고 나는 어느정도 그 말들에 동의했다.

나에게 고요는 새벽이고 새벽은 맑은 시간이다. 감정이 흐르는 시간. 동시에 감정을 정제하여 기록해나가는 시간.



동화의 마지막 장면

😊 10 💬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고요는 새벽이고 새벽은 맑은 시간이라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바쁜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진 새벽의 소리를 생각해보니 맑은 시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5/05/10  
Saturday, am 12:22 | 49회  
김명선

오늘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이 찾은 고요의 순간들이 참 다양하군요. 도시의 소음을 벗어난 자연 속에서, 어스름한 새벽이나 늦은 밤에서, 혹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걷는 거리와 밤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요를 찾고 있습니다. 고요함이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 집중, 사색의 시간임을 여러분의 글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비 오는 봄날 금요일이라 오늘의 키워드 고요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만나요~

😊 25 🗨️ 0



2025/05/12  
monday, am 8:01 | 49일째  
김양선

#3일차 키워드: 거울

오늘의 키워드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자아성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거울'을 보게 되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울을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겠지요. 혹은 누군가를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거울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거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 24 🗨️ 0



2025/05/12  
monday, am 8:42 | 32일째  
김미도(일본학과)

#3일차

거울, 이라고 하면 호시 신이치의 단편 소설 『거울』이 생각난다. 이 소설은 어느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거울을 통해 악마를 불러내어 벌어지는 스토리이다. 소설 속에 등장한 악마는 매우 작고, 악하고, 겁이 많은 존재로 나온다. 그런 악마의 모습을 보며, 부부는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악마를 괴롭히면서 푼다. 악마의 몸의 일부분을

자르고 찢는 등 부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 수록 괴롭힘의 강도는 심해지고, 부부는 점점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악마가 도망쳐버린다. 괴롭힘의 상대가 없어진 부부는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나중에는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된다. 나는 이 소설에서 호시 신이치가 왜 제목을 『거울』이라고 지었을까, 생각해보았을 때, 이 소설에서 거울은 악마를 불러내는 매개체이지만, 동시에 거울은 인간 내면을 비추는 상징이기도 하다. 부부는 악마를 심하게 괴롭혔지만, 그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들의 추악한 본성을 들여다보는 일이었다. 악마는 그들의 분노와 증오, 스트레스의 투사체였고, 악마가 사라지자 서로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은, 부부가 본 악마는 거울 속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 17 🗨️ 7

박지영 (경제학과) 거울이라는 소설이 있군요! 거울 속 악마.. 인간보다 악마가 더 신적인 존재라서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그 악마를 찢고 괴롭힌다는 이야기라니.. 악마는 악하니까 당해도 돼, 그런 합리화를 통해 인간의 추악함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거네요.. 결국 악마가 부부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던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계속 갇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지.. 이 소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읽어봐야겠어요



2025/05/12  
monday, am 9:46 | 31일째  
유재원(일본학과)

#3일차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아이의 첫 세상은 부모가 전부이다. 부모는 끝없는 사랑을 아이에게 쏟는다. 그 사랑을 받고, 무력무력 자란 아이는 부모를 거울처럼 모방한다. 부모의 말을 따라 하고, 행동을 따라 한다. 나

또한 그랬다. 어린 시절 내 눈에 비친 부모님은 내 전부였다.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아이는 금방 어른의 행동을 따라 하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의 속담이다. 아이는 정말 거울 같다. 자신이 본 모습을 어떠한 의미나 속셈을 부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따라 한다. 어른(주로 부모)의 거울처럼 살던 아이가 그 거울을 스스로 깨부수고 나오는 순간, 진정한 자아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것을 접할 때는 누구나 아이가 된다. 자기보다 먼저 그것을 접한 사람을 따라 하며 배운다. 일정량의 모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하나, 그게 주변인이 보기에 너무 모방이 심하다고 판단이 될 정도면 그 행위를 멈추어야만 한다. 그건 거울이 아니라 유리로 된 감옥에 본인이 갇힌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거울을 부수고 본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 16 🗨️ 8

김미도(일본학과) 사람은 언제나 거울을 부수고 본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 주변을 의식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 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네요. 저도 새로운 것을 접할 땐 두려워서 남을 따라하고는 했는데, 그런 저를 성찰할 수 있게하는 글이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05/12  
monday, am 10:50 | 33일째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3일차 #거울

거울 속 웃음

수현은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의 나를 보기 위해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으며 나갈 준비를 마친다.

거울 속 나는 나의 표정, 행동을 똑같이 흉내낸다.  
오늘도 생각했다.  
'참 못났다'

새벽 공기에 나서는 출근길은 불쾌하기만 짝이 없다.  
졸고, 피곤하고, 몸이 무겁다  
회사에 도착한 수현은 익숙한 공기를 맡으며 자리에 앉았다.  
평소와 똑같이 즐겨마시던 커피를 마시며 다크서클이 내린 눈을 빙빙 비비며 화면을 본다.

그렇게 똑같은 일상이 지나가고 퇴근하는 길 친구를 마주쳤다.  
오랜만에 본 친구는 나와 달리 행복해 보였고 평안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술을 한잔하러 가까운 친구의 자취방으로 가게 된 나는 놀라움을 감추질 못했다.

넓은 지붕 아래 베란다에 문이 달려 있었고 가구라곤 오래된 책상과 침대, 거울이 전부였다. 벽지는 군데 군데 떨어져 있었다. 술을 마시며 둘러보면 찰나 친구가 물었다. "조금 낡았지?" 민망해하며 말하는 친구의 말에 "아나, 인락하고 좋은데 췌" 괜히 눈을 돌리며 얘기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던 찰나 거울과 눈이 마주쳤다. 오랜만의 웃음이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나? 수현은 거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런 나의 모습에 친구는 웃으며 물었다.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거울 속 나와 친구의 모습은 누구보다 행복해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찍은 사진을 몇십번이고 보았다. 거울 속 나를 수십번이고 돌아보며 생각했다. 매일

보던 똑같은 얼굴. 하지만 오늘따라 달랐다. 왜일까.

친구와 찍은 사진을 거울에 붙였다. 사진 속 웃음이 나를 바라본다. 거울 속의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똑같은 아침에 일어난 수현은 짜뿌듯한 몸을 일으키며 오늘도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의 나는 사진 속 나를 흉내내며 오늘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해본다.

😊 15 💬 7

최현영(금융재무학과) 같이 있으면 행복한 친구가 있다는 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하루도 더 행복해 지게 만드는 좋은 친구,, 저도 오늘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찾아봐야겠어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12  
monday, am 10:56 | 248명  
박지영 (경제학과)

#3일차 #거울 #백설공주 #왕비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더욱 아름다운 분이 있습니다. 누더기도 그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지? 그 이름을 말하라!"  
"장미 같은 입술, 밤하늘 같은 검은 머리, 눈처럼 하얀 피부."  
"백설공주로구나."  
— 월트 디즈니 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中

이 대화로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판타지 서사가 아니라, 왕비의 질투가 복수심으로 돌변하는

전환점이며, 인간 욕망의 내면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 어릴 적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독사과를 만들고 노파로 변신하는 왕비의 모습이 몹시 두려웠다. 순진한 백설공주를 죽이려는 왕비의 광기 어린 분노가 어린 나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장면을 떠올리면, 왕비가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진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는 이 하나 없는 고립된 인물이었다. 곁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까마귀 외엔 그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버리고 추한 노파가 되어서까지, 오직 백설공주를 없애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집착하게 만들었을까? 그녀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해 글을 통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인상적인 것은, 왕비가 거울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부터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거울이 말한 장미 같은 입술, 밤하늘 같은 검은 머리, 눈처럼 하얀 피부... 그러한 묘사는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평범한 기준이다. 그런데도 왕비는 곧장 백설공주를 떠올린다. 이는 곧, 그녀가 이미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 또한 내심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는 거울에게 묻는다. 마치 확신을 얻고 싶은듯, 혹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자신이 여전히 가장 아름답다고 확인 받고 싶어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거울이 대답하기 전까지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거울을 응시한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여전히 '제일'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왜 하필 마법의 오브제가 '거울'이었을까? 나는 이 지점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포장도, 위안도 없는 냉정한 반사체. 그렇기에 거울은 왕비에게 잔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거울은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은 왕비 자신의 내면이 알고 있던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스스로를 꿰뚫어보는 거울 앞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 것이다. 그녀는 자기 안에서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 인정을 거울이 목소리로 들려주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거울 앞에 선 인물이 왕비가 아니라 백설공주였다면 어땠을까? 나는 백설공주가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백설공주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남과 비교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기존 상아 타인과 비교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이기려는 마음도 없었다. 그렇기에 거울이 그녀의 마음을 비추었다면, "왕비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른다. 백설공주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마음은 남의 아름다움조차 품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영화 속에서 왕비의 남편, 혹은 백설공주의 친부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물론 상상의 영역이지만, 왕비는 누군가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한 채 스스로의 아름다움에만 매달리는 외로운 존재였던 건 아닐까.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사람. 나는 그녀를 '아무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한 미녀'라고 부르고 싶다. 거울의 말에 따르면, 왕비는 분명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이라는 단어로 매달렸다. 그것이 그녀를 파멸로 이끈 단어였다. 이 지점에서 나는 문득, 전교 1등을 질투하며 괴로워하는 만년 2등의 얼굴이 떠올랐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 말이 너무 익숙한 우리의 현실. 나는 백설공주보다 오히려 왕비가 우리를 더 닮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충분히 괜찮고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울 속에 묻는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그러니 우리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누가 제일 예쁘지?"가 아닌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그 질문 속에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대답은, 오직 나 자신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당신은, 거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거울은 뭐라 답할까?

😊 11 💬 5

김명빈 (미디어스쿨) 학우님의 글은 누구나 한 번쯤 거처가는 "비교의 거울" 앞에서 어떻게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할지를 성세하고 깊이 있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대화 속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그예요. 특히 "왕비가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진다"는 부분부터 글의 시선이 깊어지면서 외면받은 아름다움,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갈망까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실득력 있게 풀어낸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왕비보다 우리가 더 닮은 건 백설공주가 아니라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통찰에서 무언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던 존재가 스스로를 못마땅해하며 망가져가는 모습은 사실 많은 사람이 조용히 겪고 있는 내면의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의 마지막 두 문장은 독자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따뜻한 울타리 같았어요. "누가 제일 예쁘지?"가 아닌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그 대답을 스스로 줄 수 있는 자기 연민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가장'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12  
monday, pm 12:20 | 291회  
서혜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외출하기 전

내게는 에어팟과 지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손거울'이다.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하며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관심이 많아 그런 것 같다. 안 좋게 얘기하면 남의 시선을 과하게 신경쓴다고 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서로에게 무관심하며 그 사람이 한 사소한 행위를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나 또한 그렇게 일반적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는 스치 지나가는 사람의 존재마저 명확하게 기억할만큼 타인에게 관심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그냥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 하며 우연히 본 사람마저 기억하는 날 볼 때마다 친구들이 신기해하곤 하는데, 그만큼 주위에 과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만큼 타인들도 내게 신경을 쓸 것이라고 의식하는 생각 탓인 것 같다.

막상 글을 끄적여보니 거울과는 연관성이 부족한 글이 되었지만, 내가 많고 많은 소지품 중 손거울을 가장 먼저 챙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에 이러한 영향력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싶었나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성향의 장점은

무엇일까.  
학우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 14 💬 9

윤소정(사회학과) 제 주변에도 저와 다르게 타인에게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신경쓰지 못했거나 빠뜨린 부분을 잘 케치해주더라고요 제가 물병을 챙기는 것을 자주 깜박하는데 친구가 항상 더 물병 어디갔냐며 알려줘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팠거나 무슨 일이 있었다면 잘 기억하고 있다가 괜찮냐고 물어봐주면서 위로를 잘 해주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해서 이런 부분에서 심세하지 못해서 친구의 안부를 잘 못물어본다는 것에 항상 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05/12  
monday, pm 12:24 | 291회  
권혁빈(경제학과)

#3일차

마음을 들여다본다.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다. 면도를 하고 세수를 마치고 얼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면도를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수염 자국들은 항상 날 신경 쓰이고 찜찜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어차피 깨끗이 지워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포기하고 돌아선다.

내 외면의 모습을 보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상태를 확인한다. 양치하고 나서, 외출을 하고 나서, 자기 전에. 불에 여드름이 나진 않았는지, 바람에 머리가 날려 엉망이 되지는 않았는지, 눈곱이 제대로 없어졌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을 나의 모습을 위해 수없이 쳐다보고 신경 쓴다.

그런데 나의 내면은 누가 확인하지? 그리고 상대의 내면은 어떻게 알지? 생각해보다가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의 마음은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잘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확인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라는 문장이 깊게 공감된다. 모든 게 짜증나고 귀찮을 때, 그냥 침대에 널브러져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 어떤 달콤한 제안이나 이야기를 들어도 전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은 매우 투명하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을 숨김 없이 보여준다.

그래서 외면을 가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나의 내면, 마음을 가꾸는 일이다. 내가 얼마나 예뻐지고 깔끔해졌는지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거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면의 거울이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에 신경 쓰지 않을까?

😊 13 💬 5

최현영(금융재무학과) 내면의 거울이 존재한다면,, 정말 좋은 발상이에요. 저도 가끔 내가 지금 왜 화난 건지 왜 슬픈건지 이해가 안 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더 쉽게 날 이해할 수 있을텐데,, 공감하고 갑니다.)



2025/05/12  
monday, pm 12:43 | 291회  
최현영(금융재무학과)

#3일차 #거울

나는 주로 화장실 거울로 나를 많이 본다.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거품이 묻지는 않았나보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있을 때 화를 식히러 화장실을 왔다가 우연히 일그러진 내 표정을 보게 되기도 한다. 눈물이 맺힌 나를 보기도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나를 보기도 하고 거울에는 내가 참 다양하다.

그래서 난 거울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수시로 거울을 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행복해서 그 모습을 본 나까지도 행복해져서. 그래서 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12 💬 5

이주원(심리학과) 현영님 글 잘 봤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죠. 그래서 개개인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거울을 보면 다양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현영님 경험처럼요. 현영님이 거울을 보실 때, 웃는

표정을 보시게 될 때가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많은 날들이 즐거우시길 바라요.



2025/05/12  
Monday, pm 1:56 | 10118  
한주현(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거울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거울을 마주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할 때와 외출 준비를 할 때..

혹은 문득 자신을 확인하고 싶을 때 마주한다 거울은 늘 조용히 그 자리에 있다. 말도 없고 표정도 없지만 나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존재다

나는 밤에 모든 일이 끝난 후 방 안 거울 앞에 잠깐 서 있는 걸 좋아한다 조명 아래 비친 내 얼굴은 낮과는 조금 다르다 화장도, 웃음도 없는 면 얼굴.. 거울 속의 나는 그저 '나'다 누구의 시선도 없는 그 순간 거울은 마치 나와 대화를 나누는 친구처럼 느껴진다

오늘 하루 어땠어? 피곤하지는 않았나? 거울은 묻지 않지만 나는 속으로 그 질문에 답한다

거울을 보는 일은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웃고 있지 않아도 괜찮고 눈가에 피곤이 가득해도 괜찮다 그 모습이 나라는 걸 인정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은 불편하다 감추고 싶은 나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하지만 그 불편함 덕분에 나는 조금씩 성장한다 내가 스스로 내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보고 상처를 알아보고, 다시 다짐을 하게 된다

거울은 그런 나를 매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것 같다

거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 안에서 보는 건 매일 다른 나다.

😊 11 💬 2

김명빈(미디어스쿨) 거울 앞에서 마주한 솔직한 순간들이 고요하게, 그러나 깊이 울리는 글이네요! 매일 다른 나를 담담히 바라보는 그 시선이 따뜻하고 단단해서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나를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존재'라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2025/05/12  
Monday, pm 2:05 | 20118  
정우현(정치행정학과)

#3일차 #거울

저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10년 가까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해 왔지만 사실 비슷한 말이 오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저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상담 중 가장 많이 나온 토픽은 '남들의 시선'입니다. 과할 정도로 타인의 눈길을 신경쓰는 성향을 원인으로 하는 문제가 제 안에서 수도 없이 드러납니다.

너무 잘나거나 멋있어 보이려고 하니 이를 들켜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고, 이는 삶에서의 에너지 낭비로 이어집니다. 상담 선생님께서 이를 지적하실 때마다 항상 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니, 아니면 멋있어지고 싶은 거니?"

이 질문은 매번 들지만 들을 때마다 머리가 완전히 깨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정확히는 거울 속 나를 봅니다. 거울 속 나를 보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지 상상하고 걱정하며 끊임없이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옷을 정돈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관리하고 위생을 지키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혹사시키고 비난하는, 사실상 정신적 자해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화려하게 꾸며졌으나 속은 텅 빈 불행한 인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래도 거울을 볼 겁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꾸짖는 것보다는 작은 칭찬이라도 꼭 던지듯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 18 💬 14

권혁빈(경제학과) 어릴 때와 비교해보면 예전에는 그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다른 애들은 더 잘났는데' 라고 은연 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남보다 잘난 내가 아닌 스스로 정서적 건강을 가진 나인 것을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겠네요.



2025/05/12  
Monday, pm 2:12 | 17118  
정우현(철학과)

#3일차

저는 거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거부했습니다. 단순히 반굴 기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닮았다는니 누구랑 똑같이 행동한다는니 하는 말들이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02년생 정우현이고 싶었고 그 자체로 빛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빛나고 싶었던 나머지 제가 갖고 있는 모습들을 잊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울 대신 저는 이상을 향해 쫓았습니다. 내 모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저는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지쳤습니다. 가끔 내 모습에 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상을 향해 쫓는 것도 좋지만 나의 모습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고 온전한 내가 되지 못합니다.

잊고 있던 저의 모습을 보고자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면 어렸을 때의 제 풍부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소설을 읽을 때처럼 숨을 쉴 수 있다는 감정을 느끼긴 어렵습니다. 편안함을 느끼고 흥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지옥이라는 책을 읽고 제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방을 볼 수 있게 되는 주인공은 흠쳐보며 여러 감정을 느낍니다. 배덕감, 흥분감, 우울감 등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갑니다.

저는 이 주인공의 심리적 묘사를 보며 저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곤 제가 주인공처럼 관찰자의 시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인공이 슬퍼하는 것처럼 저도 슬퍼할 때가 있고 신나할 때가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에 몰입하다 보면 "아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지." 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거울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알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 14 💬 8

서정원(심리학과) 저도 평소에 글을 정말 읽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작년 여름방학부터 1년에 30권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솔직함을 드러내는 프란츠 카프카, 인간 영혼의 끈질김을 표현하는 한강 작가 등의 작가의 소설을 자주 접하다보면 제가 몰랐던 저의 무의식 속 자아도 마주하곤 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12  
monday, pm 2:52 | 30일째  
서정원(심리학계)

#3일차

-배경음악 페이드인, 무라카미 타카즈쿠의 'Marnie'-

날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5월에 이렇게 주웠던 적이 있었나...? 토요일이었죠. 춘천에서 서울로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가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춘천도 마찬가지였죠? 와.. 정말 추웠죠. 반팔 위에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버뮤다 팬츠 입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가 춘천역이었거든요? 다시 돌아갈까 말까 100번 정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지구 종말이라도 다가오나 봐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무쪼록, 다들 이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음악감상실 클래식파트 43기 서정원입니다.

-배경음악 페이드아웃 후 Arvo Part의 'spiegel im spiegel' 페이드인-  
-음악이 끝난 후 페이드아웃-

영적 미니멀리즘 음악가로 알려진 아르보 파트와 그의 음악 '거울 속의 거울', Jürgen Kruse의 피아노 연주와 Benjamin Hudson의 비올라 연주 듀엣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원래 피아노와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곡인데, 첼로나 비올라로도 많이 연주되는 곡이에요. 또 이 곡은 페르트가 중세 서양 성가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기법인

'틴틴나블리'를 사용한 음악입니다. '작은 종이 울린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한 3화음으로 구성된 선율이 마치 종소리처럼 맑게 울리는 느낌을 주는 듯합니다.

왜 그때 공허한 눈으로 빛 하나 없는 공간에서 두 시간 동안이나 이 음악을 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삶도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 왜 이 음악을 택했을까요? '거울 속의 거울'은 무한 반사를 뜻합니다. 거울을 마주 보게 되면, 끝없이 서로의 모습을 반사하며 더 깊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단순한 3화음의 반복은 저를 저 멀리 거울 속의 거울로 단순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데려다주는 듯합니다. 어쩌면 저는 모든 것을 멈추고, 명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싶었는데 우연히 이 음악이 알고리즘에 띄어 듣게 되고, 때로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곡을 들으며 단순한 선율 속에서 깊은 명상에 잠길 수 있었고,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수면 아래 묻어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저의 번아웃 상태를 알고 이 곡을 띄운걸까요? 아니면 제가 명상적인 음악을 스스로 찾도록 무의식적 기제가 밖으로 튀어나온 걸까요? 어느 것이든 당시에 이런 명상적이고 성찰적인 음악을 듣고 그동안 애써 무시했던 내면을 돌봤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악은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성찰하고 싶을 때, 멍때리고 싶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르보 파트트의 '거울 속의 거울'이었구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음악은... ..

저는 CLC 1층 음악감상실에서 매주 화요일 3~4시에 클래식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감시간에 머물기 딱 좋은 곳이고, 클래식은 마음의 여유를 챙기기 딱 좋으니 한번 들려보시는 것 추천드려요!



낭만 in음감실

😊 15    💬 17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저는 사실 오늘 주제로 뽑은 공포 소설을 써볼까 싶었어요.. 근데 막상 왜 바빠서 제가 평소의 쓰는 글느낌으로 썼지만요.. 거울속의 거울로 저는 공포, 귀신 톰로(예시:엘레베이터)를 연상했고, 가상의 주인공이 길고양이를 해쳤는데 나중에 결혼해 낳은 아이가 업보로 요성중후군(영색체 이상 중후군;학과 특성이 물어나는군요..) 그런 스토리를 막 상상했었어요!..

항상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만 시간은 짧고, 저는 게을러요



2025/05/12  
monday, pm 2:57 | 31일째  
김서피(식품영양학과)

#3일차 거울

나는 요즘 동생을 보며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작년 이맘때부터 엄마와의 문제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속을 털어놓을 곳이 없던 나는 동생에게 엄마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주로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요즘 동생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한다. 동생이 하는 이야기나 말투를 듣고 있다보면 내가 하는 말 같기도 하다. 그래서 혹시 내가 동생에게 안좋은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또 동생 역시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진 않을까 걱정된다.

그래서 나는 든든하고 멋진 언니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동생의 거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고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바르게, 열심히 살게된다.

😊 14    💬 5

김명빈(미디어스쿨) 거울이라는 주제를 '자기 성찰'에서 '타인에게 비추지는 나'로 확장해 해석하신 점이 인상 깊어요. 특히 "내가 동생의 거울이다."라는 말에는 책임감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도 동생이 있어 마음 깊이 공감되는 글이었어요. 많이들 화이팅입니다



2025/05/12  
monday, pm 3:46 | 2018  
장근희 (글로벌비즈니스전공)

#3일차

거울하면 나는 바로 백설공주가 떠오른다. 백설공주 속 왕비는 거울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고 거울은 백설공주라고 답한다. 왕비는 자신이 가장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백설공주를 시기질투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그 마법의 거울은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반영했을까? 아니면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함께 비춰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왕비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녀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반면 백설공주를 보라. 순수함과 선한 마음이 그녀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울도 마찬가지다. 거울은 단순히 우리의 외모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반영된 이미지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도 함께 비춰준다. 거울 앞에 선 우리의 표정, 자세, 눈빛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거울을 탓한다. 마치 백설공주의 왕비처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라고 물으며 원하는 대답만을 듣고 싶어 한다. 하지만 거울은 솔직하게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때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거울이 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 말, 그리고 태도는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비춰준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던 대답은 어쩌면 그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 즉 그녀가 아름다움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것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인지도 모른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거울에 둘러싸여 있다. 소셜 미디어, 타인의 평가, 사회적 기준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반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마치 왕비가 거울의 말에 집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외부의 '거울'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 인식은 이런 외부의 거울들을 넘어서는 데서 시작된다. 백설공주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아름다웠다. 그녀는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선함과 용기, 그리고 사랑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거울 앞에 선다. 그 거울들이 보여주는 이미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거울 너머의 진실, 우리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그럴 때 우리는 백설공주처럼, 어떤 거울 앞에 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 15    💬 7

**박지영 (경제학과)** 저도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또 다른 시선이라서 새롭네요! 거울이 비춘 것이 외면 뿐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 왕비의 시기질투가 얼마나 주눅이 보여주는 것이겠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수많은 거울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얼마나 타인의 시선에 많이 영향받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네요.



2025/05/12  
monday, pm 4:56 | 2018  
김예지(사회복지학과)

#3일차 -거울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나를 마주한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언제나 진짜 나인 건 아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나는 어딘가 다듬어져 있다. 표정, 말투, 심지어 생각까지도 조절된 나. 마치 거울 속의 반사처럼, 남들의 시선에 맞춰 구성된 또 다른 모습이다. 때로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닌 것 같아 낯설기도 하다. 사람들과 마주할 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다듬고 조심한다. 그들의 기대에 맞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 안의 상처는 감춘 채로 못는다.

나는 안다. 그 거울 속 나도 나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인 건 아니라는 것도.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 그것들은 쉽게 드러내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 꽁꽁 숨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두 겹의 나로 살아간다. 겉으로 비춰지는 나 그리고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나.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 결국 우리는 모두 보이고 싶은 나와 숨기고 싶은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율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 14    💬 5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두 겹의 나라는 표현이 너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이면 편할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아 아쉬운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두 겹의 나 사이에서의 조율이 완벽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5/12  
monday, pm 6:29 | 2018  
임예민 (사회복지학과)

#3일차

거울

거울: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

나는 누군가의 거울이 되고 싶었다. 거울이 되기 위해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겉으로 완벽한 '척'을 하며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인생도 멀리서 보면 참 좋아 보였다. 겉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으며 누군가의 칭찬을 받았지만, 안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나를 옥죄었다.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바쁜 삶을 살며 맛있는 척을 하곤 했다. 하지만 내면을 챙길 여유가 없어지자 진정한 나는 무너져 내렸다. 타인의 거울이 되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런 삶은 누군가의 거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누가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보석을 좋아하겠는가?

이렇게 무너진 내면은 다시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직도 계속해서 수리 중이고, 완공하진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덕분에 깨달은 것은 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그리고  
"죽대 있게 살자."

어차피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니 완벽이란 강박에 매달리지 말고,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행복을 위해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림길에서 고민이 될 때, 남들의 조언을 들을 순 있지만 결국 선택은 내 몫이다. 남들은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 그러니 주대 있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한다. 가끔 내가 벌인 일에 후회하고, 짜증 내기도 하지만, 순전한 나의 책임이니 한숨을 쉬며 다시 일을 마무리한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누군가의 진정한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명빈 (미디어스쿨)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너무 진솔하게 다가왔어요.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대'라는 단단한 중심을 세운 학우님의 태도가 목직함 울림을 줘서 여운이 남아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12  
monday, pm 6:32 | 23일째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3일차

거울 속에 마지막으로 비친 나는 늘 준비가 된 모습이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자기 전 스킨케어를 마친 후, 발표가 있는 날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며 스피치 연습을 할 때, 일과 중에 가끔 화장실에서 걸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나설 때도 있다.

이처럼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나는 항상 그럴듯해보인다. 들여다 보는 순간에는 오직 거울 속의 나에게 집중하고, 나서기 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종종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모습은 언제나 그 날의 최선일 경우가 많다.

거울을 벗어난 나는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과 서툰

것 투성이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사람들 앞에 나서면 긴장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바람에 흐트러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뒤늦게 길가의 장애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거울을 찾는다.

사회는 내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고, 나 또한 내 자신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일까, 거울을 자주 들여다 본다. 남들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기 위해.

하지만 거울을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 잘나의 준비된 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닌, 평소의 모습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삶을.



조하경(창작학과)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거울을 안보게 되네요. 그래서 가끔씩 양치하고 물은 입술에 치약가루, 세수 후에 남은 눈곱, 까먹은 면도 등 실수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거울을 봐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껴요. 말씀하신대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하니깐요 \* \* 거울을 자주 들여다 보는 행위 또한 내가 알만큼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이지 않을까요? 뭐든 중용이 중요하겠지요~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12  
monday, pm 6:44 | 24일째  
강연석(대어터사이언스학부)

#3일차

<당신은 누구입니까>

유년시절, 학창시절을 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집요함이 존재한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인간의 본성일지는 몰라도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전부터 느껴왔던 것이지만

한국인들이 유독 전세계적으로 심해보인다고 생각한다. 유튜브로 활동하던 사람들, 테레비에서 보이는 연예인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인물루머까지 본인들만의 개성과 노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을 왜 이렇게 갈아먹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그 정도로 잘못했나?'라고 생각이 들때가 자주인 현재,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를 찾아본 결과 답은 '정체성'에 있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경제활동, 일상의 안식을 위해 여행을 만끽하는 여가활동 모두 자신을 한 단계씩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활동을 본인의 정체성, 즉 본인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타인의 자아를 바라보게 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아니꼽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나 자신을 합리화해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거울을 봤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 맞는 얘기 같아요 거울을 보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12  
monday, pm 7:22 | 25일째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거울. 거울을 보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소망의 거울이 떠올랐다. 소망의 거울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나오는 마법 물품 중 하나로 우리의 마음속의 간절한 욕망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해리포터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소망의 거울에 빠져있는 해리에게 덤볼대어가

이렇게 말한다.

"이 거울이 보여 주는 건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도 간절한 욕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다. (중략) 하지만 이 거울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진실을 전해 주지 않는단다. 많은 사람이 이 앞에서 인생을 허비했어. 여기에 비치는 모습에 도취되거나 광기에 빠져서, 거울이 보여 주는 게 현실인지, 심지어 가능한 일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채로 말이다."

마법이 존재하지 않은 우리 세상에서의 거울은 우리를 그대로 비추어준다. 가끔 거울 속 나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보는 건 항상 같은 나 자신인데 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걸까?

소망의 거울은 누가 거울을 보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우리의 깊은 욕망을 보여준다. 해리포터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지만 해리포터 친구인 론 위즐리는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이 퀴디치 팀 주장이 되어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소망이 다 다르다. 그래서 거울 속 모습도 사람마다, 또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른다. 거울을 볼 때 매번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내 모습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나의 단점이 더 잘 보이고 좋은 점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기분이 좋은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보면 전에 봤던 단점은 작아 보이고 장점이 더 눈에 들어온다. 거울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게 아닐까? 해리포터 속 소망의 거울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에 따라 거울이 다르게 보여주는 것 같다. 마음이 감정에 휩쓸린 상태로 거울을 바라보면 스스로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거울이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춰주는 매개체라면 우리는 더더욱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할 것이다. 거울이 정말 진실을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갈망하는 것에 눈이 멀어 자신 스스로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소망의 거울에 빠져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현실을 왜곡하거나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울이 비쳐주는 모습이 아닌 한걸음 떨어져서 나 자신과 세상을 봐야한다. 세상에는 소망의 거울처럼 우리의 욕망을 유혹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욕망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거울이 비쳐주는 모습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18 💬 5

현예림(대이터테크전공) 저도 해리포터 좋아해서 소망의 거울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저의 간절한 욕망이 무엇인지 몰라 소망의 거울을 저도 보고 싶네요

모임이 쉬워진다!



2025/05/12  
monday, pm 7:37 | 24288  
한예림(대이터테크전공)

#3일차

<오늘의 일기>

오늘은 스포츠 골프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학교에 가기 싫었다. 오전 수업만 듣고 도망가고 싶었다. 그렇지만 오전 수업 하나만 듣고 집에 가려면 학교까지 온 2시간이 아까워서 꾸역 꾸역 들으러 갔다. 골프를 칠 때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정말이지 내가 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교수님께서 순서대로 자세를 봐주시는데 내 차례에 교수님께서 '3주동안 너를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배워서 실력이 안 늘지.' 하시고는 공은 치지 말고 스윙 연습만 하라고 하셨다. 비가 와서, 자체 휴강 등등의 이유로 빠졌었는데 교수님께서 날 기억할 줄 몰랐다. 다음주에도 빠져야 하는데 ... 어떡하지 ^\_^ 아무튼 교수님이 알려주시는대로 열심히 쳤는데 내가 치는 모습이 웃겼는지 내 파트너랑 옆에 모르는 분이 열심히 웃참하셨다. 정말이지 모욕적이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웃참하면서 눈이 마주치는 친구들 때문에 고개를 들을 수 없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만 바라보았다. 오늘 주제가 '거울'이 키워드인 걸 알고 어떤 걸 쓸까 고민했었는데 고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내 차례가 지나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찍었다. 모욕적이었지만 덕분에 쓸 거리가 생겨서 좋았다. 지금은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터널을 지나고 있어 창문에 내 모습이 비치는데 굉장히 지친 모습이다. 집에 얼른 가서 씻고 누워야할 것 같다. 다음 골프 시간에 거울을 볼 때는 좀 더 멋있게 공을 치는 나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_^



😊 14 💬 3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저도 오늘 골프 수업 들었는데 저도 거울 속 저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자세가 될까?, 나는 왜이리 뻣뻣하지? 같은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골프..너무 어렵습니다^^



2025/05/12  
monday, pm 8:06 | 14918  
김수진(미래융합스쿨)

#3일차 '거울'

거울은 나를 가장 오래 봐주고 기다려준다 기쁘거나 슬픈 순간이 찾아와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준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보고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다짐을 할 때도 거울을 본다.

그렇게 거울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닌 내가 살면서 거울 앞에 섰던 모든 감정들을 내포할 수 있는 순간들이 담겨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거짓말을 해봤을 것이다 그 거짓말이 누구를 위하거나 속이는 거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거울 앞에서만 내 감정을 드러낸다 물론 거울 앞에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다독이지만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정으로도 진실과 거짓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항상 거울을 보면 "오 오늘도 역시 나야 완벽해"라고 말하곤 하는데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이 실제로 내 자존감과 자기애를 올리는 하나의 좋은 효과로 나타난다 실제로 나는 친구들에 비해서 자존감과 자기애가 높은 편인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자존감과 자기애가 좋냐고 할 정도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거울 앞에서 한 달이라도 스스로를 높여주는 말을 해보길 추천한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나는 모두가 자존감과 자기애를 거울 앞에서도 잃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 만날 때에도 거울 앞에 섰던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 11 💬 2

김명빈 (미디어스쿨)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다독이는 것이 자존감과 자기애를 키우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깊이 공감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울이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비추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공간이 된다는 점도 너무 인상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정말 멋진 메시지입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2025/05/12  
monday, pm 8:48 | 25회  
유재하(미디어스쿨)

#3일차

키워드 : 거울

'거울'은 나의 모습을 가장 직면으로 내게 보여주는 수단이다. 나의 자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게 상처를 받은 어린이일 수도 있고, 화가 난 모습일 수도 있고, 슬프도 무력한 모습일 수도 있고, 내일과 미래를 두려워하는 불안한 어른일 수도 있다. 거울은 가장 진실과 가깝다고 생각했었다. 늘 진실만을 비추는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내가 마주한 내가 만들어둔 거울 속 나는 언제나 조금씩 어긋나 있는 듯했다. 내가 웃고 있는데 거울 속 나는 어딘가 슬퍼 보였고, 내가 울고 있는데 그 눈물엔 왠지 모를 평온이 있었으니까.

나는 때론, '거울'이 내가 만들어두었던 나를 판단하는 시선이라고 느낀다. 어느날은 그 거울에 꿈쩍없이 갇혀있다. 내가 만든 강렬한 시선에 되려 부담과 압박을 느끼기도 한다. 그 거울은 너무 울긋불긋한 시선으로 나를 비추고 있었다. '반드시', '잘', '꼭' 등과 같은 부사처럼 나는

나에게 무언가를 완벽히 해내기를, 완전히 성취하며 성공하고 완주하기를, 강요하고 있었다. 언젠가부터 나는, 왜곡된 수단에 의지해 나를 보곤 했다. 그림자, 유리창, 차량 백미러, 불룩거울 등. 나는 보고싶은 부위나 마음만 보려 했다.

나의 마음을 바로바로 직면하기 어려운 날은 억지로 안경을 쓰고 싶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필요해지는 날만 꺼내보기로 했다. 내가 내 자신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날에. 적절한 나와외의 관계 속, 탁구공을 주고받는 날에. 그날이 나의 건강한 자아상과 바라던 나의 거울상이 만들어지는 날이 될 거라고.

지금은 일부러 거울을 보지 않기도 한다. 건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신뢰가 생기는 날에 나를 비로소 마주하려 한다. 언젠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의 가장 여리고 가장 예민한 조각들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을 그 거울 속의 나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거울은 더더욱 가장 솔직한 동시에 잔인한, 솔직한 나의 조각들이다. 내가 견어야했던 시선, 미움, 분노, 상실 등의 따가운 따위도 언젠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수단이 되기를 바란다.

전부를 직면하기엔 우리는 너무 어린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내가 만든 거울 대신 그림자를, 정면보다 옆모습을, 진실보다 흥미한 해석을 택할 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왜곡들조차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거울 앞에 완전히 서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하니까. 외면을 선택하는 날들이 있어도, 그게 결코 도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금씩하며 나를 구박하는 대신, 천천히 느린 보폭으로 그동안 놓치고 온 것들을 다시 마주하며 소화시키는

과정일뿐이다.

언 어느날 다시 정면을 마주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그 날의 나는 안경을 쓰지 않고 많은 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추천 곡  
<아이유 -안경>

웃고 있는 그 표정 너머에  
진심까지 꿰뚫어 볼 순 없어요  
그저 따라서 웃으면 그만

누군가 힌트를 적어 놔어도  
너무 작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히 푸는 수밖에

그렇다 해도 안경을 쓰지는 않으려고요  
하루 온종일 눈을 뜨면 당장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도 바쁘는데

나는 지금도 충분히 피곤해  
까만 속마음까지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안 그래도 충분히 피곤해  
더 작은 글씨까지 읽고 싶지 않아

공들여 감춰놓은 약점을  
짓궂게 찾아내고 싶진 않아요  
그저 적당히 속으면 그만

무지개 뒤편엔 뭐가 있는지  
너무 멀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대단한 걸 상상할 수밖에

그렇다 해도 안경을 쓰지는 않으려고요  
속고 속이고 그러다 또 믿고  
상상을 하고 실망하기도 바쁘는데

나는 지금도 충분히 피곤해

누구의 품까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피곤해  
좀 더 멀리까지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피곤해  
무거운 안경까지 쓰지 않을 거야  
나는 안 그래도 충분히 피곤해  
더 각진 안경까지 쓰지 않을 거야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나를 솔직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막상 나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에 더욱 나를 준비 없이 바라보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2025/05/12  
monday, pm 9:29 | 25회  
조하경(청각학과)

#2일차 #거울  
오늘자 학우들의 글 속에서 마주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문장에, 아려 오는 순간들. 매일같이 혼자 부엌 식탁, 술잔을 채우시던 아버지. 나는 당신처럼 홀로 취한 채 나이 들어가지 않을 거란 술한 다짐은 오이디푸스와 같은 자기실현적 부정어었음을. 몇 번의 자갈길에 덜렁거리고 흔들리다, 멀미를 식이고자 바통 대신 술병을 이어받게 된 나. 그렇게 알코올은 날 떠나갈 기미, 보이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게 될 줄이야! 저주스러운 굴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다니는 빈 술병.



최현영(금융재무학과) 마음이 먹먹해 지는 글이네요. 하경님의 내일이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12  
monday, pm 9:43 | 27588  
이주현(사회복지학과)

#3일차

나는 어렸을 때부터 흰머리가 많이 자랐다. 다른 친구들은 아직 흰머리가 없을 때 나는 양쪽 옆 머리에서 흰머리가 한 가닥씩 생기기 시작했다. 머리 상태가 어떤지 거울을 보면 유독 흰머리가 거슬린다. 흰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좀 굳게 자라는 것 같다. 그래서 흰머리만 삐죽하고 검은 머리카락들 사이에서 튀어나와 있다. 나는 흰머리를 뽑으면 더 자란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 나의 흰머리가 거슬러 어떻게든 뽑으려고 애를 쓴다. 길고 삐죽 잘 튀어나와 있는 흰머리는 시원하게 한번에 뽑히지만 짧은 흰머리는 한번에 안 뽑히고 계속 미끄러진다. 나도 오기가 생겨서 계속 뽑으려고 시도를 한다. 결국에 뽑히면 기분 좋고 계속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뽑히면 속만 엄청나게 답답한 느낌이 든다. 나는 평소 머리카락을 자를 땐 동네 이발소를 갔었다. 그 분위기와 오랫동안 다닌 익숙함이 좋았기에 그랬다. 가족들이 계속 머리 스타일을 바꾸라고 하고 흰머리 염색을 권유하면서 미용실을 가자고 했지만 난 거절을 했다. 하지만 거울 속 나의 수많은 흰머리들을 보고야 말았다. 예전에 봤을 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큰 결심을 했다. 미용실에 가보기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컷트도 해보고 염색도 하였다. 거울 속으로 머리에 염색 약이 발라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새롭지만 불안했다. 염색이 끝난 후 머리를 말리고 거울로 나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잘 되어있었다. 흰머리가 사라진 나의 모습이 약간 낯설기도 하였지만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흰머리가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 인상이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색이 빠지고 흰머리가 다시 자라기 전까지는 거울로 나를 보며 흰머리를

뽑을 일이 없어졌다. 대신 이제는 거울로 어떤 머리카락이 흰머리였을까 생각해보며 나의 머리를 보고 있다. 흰머리 없는 내가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 앞으로 거울을 통해 나의 머리를 잘 감시해야겠다.

😊 14 💬 6

김명빈(미디어스쿨) 흰머리와와 싸움이 일종의 자기 자신과의 대화처럼 느껴집니다.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며 느끼는 그 낯설면서도 기분 좋은 감정이 잘 전달되는 글이에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12  
monday, pm 9:46 | 11318  
김명빈(미디어스쿨)

가끔 거울을 보다 문득 멈춘다.

스물다섯의 나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얼어붙은 내가 겹쳐 보일 때가 있다.

눈에 익은 옷과  
한결같은 헤어 스타일,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과  
듣는 노래까지 어떤지 그 시절 같다.

물론 눈 밑 다크서클은 그새 한 겹 더  
늘었지만...

대학만 가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졸업만 하면 좀 괜찮아질까 싶고.

시간이 꽤 흘렀고  
나는 조금 자랐지만  
거울 속 나는 아직도

교무실에서 진로 상담 기다리던  
얼어붙은 얼굴을 하고 있다.



#3일차

😊 20 💬 11

정우림(정치행정학과) 학교 기준으로, 또 인생 기준으로도 제가 한참 신배이지만 이 글을 읽으니 더더욱 나이를 먹고 커가는 게 두렵네요. 프리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12  
monday, pm 9:50 | 13318  
윤소정(사회학과)

#3일차 #거울

<일상 속에서 만나는 거울>

일상 속에서 만나는 거울은 여러가지가 있다. 매일아침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양치를 하며 만나는 거울. 집밖으로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서 용모를 단정히 하며 만나는 거울. 차가 지나갈 때 내 모습이

비치는 유리창. 새로 온 알림을 확인하다가 내 얼굴을 마주치는 핸드폰 화면. 일상 속에서 참 다양한 거울들을 마주친다. 이런 물리적 실제로써의 거울이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는 의미의 거울도 존재한다.

작년에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처음 본 친구와 친해졌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고민도 들어주고 잘 챙겨주고 편하게 대해줬었다. 몇 개월이 지나고 편한 사이가 되자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다. 나에게 귀찮은 일을 떠넘기는가 하면 자신만 편한 시간에 연락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편하게 대해준 것이 마음대로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참 별로라고 생각했다. 그 친구가 뭐만 해도 못마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친구에게서 보이는 단점들이 나에게도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다. 거울치료라고 부르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모두에게 안좋은 일인 것 같다. 이런 친구와 대화를 나눠보고 서로 맞춰나가보려고 한다.

😊 11 💬 5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친구에게 실망감을 느꼈음에도 대화를 나누고 맞춰나가려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용기와 생각을 가진 소정님은 어쩌면 스스로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05/12  
monday, pm 10:27 | 17518  
재은비(생명과학과)


#3일차

#거울  
사람의 마음속에는  
호수가 있다

그 호숫가엔 언제나  
자신이 앉아 있다.  
그 수면은 언제나 고요하지 않다  
그 수면 들여다봐도  
얇은 얼굴 비추지 않는다.  
일렁일렁 너울너울  
흐릿한 얼굴.  
비가 오면 동그란 물방울 자국  
물고기의 도약에 일렁일렁  
나뭇잎 내려앉은 자리의 고요한 파문  
폭풍우라도 불어오면 우르르광광 쇠아쇠아  
찰싹찰싹  
그 호수에서 난 옥을 죽이고  
그 물 길어다 얼룩을 씻어낸다.  
그러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특히 폭풍우가 불어닥친 후에,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는 그 호숫가  
그 고요해진 물가에 앉아있다 보면  
흠집 하나 없이 고요해진 그 표면이  
언제나 나의 거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비치는 것은 푸르른 하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또렷한 나 하나.

😊 11 💬 5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결국 내가 가진 본 모습은 하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본 모습은 나를 계속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2025/05/12**  
monday, pm 10:34 | 27988  
조은채(간호학과)

#3일차 #거울

뭐든지 반대로,  
뭐든지 거꾸로.

진실을 비틀어 보여 주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

나는 도구였습니다.  
자기 색깔만 보려고  
나를 들어였습니다.

내가 무슨 색인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목하게, 볼록하게  
그들은 나를 구겼고  
나는 그들의 그림자를 고쳤습니다.

매일 닦이고 닦이다가  
나는 지워져 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늘 남만을 비추며  
내 얼굴은 물랐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는 눈을  
내 눈인 줄 알았습니다.

들어온 빛 그대로 내보내면서  
나만의 빛은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비추는 일도,  
닦이는 일도.

먼지가 쌓이고  
금이 가고,

외장창  
깨질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조각들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볼 것입니다.

😊 14 💬 8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그들이 나를 보는 눈을

내 눈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인상 깊은 문장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대네요


 **2025/05/12**  
monday, pm 11:12 | 17918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3일차 #거울

세수를 하고 거울 앞, 내 모습이 비춰진다.  
무미건조한 내 표정이 고스란히 보인다.  
내가 없다면 존재할리없는 무채색 그림자에  
색을 덧칠해 총총히 묘사된 내 얼굴.

내 생명을 모방한 죽은 빛 말고 살아있는 빛이  
있을까.  
나는 조금 특별하게도 일관성 쌍둥이가 있다.  
그녀의 이름에는 '빛날 영'이 들어가는데  
이름처럼 빛이 반사되어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쌍둥이와 나는 서로의 반사체가 아닐까?  
일관성임에도 확실히 구분되는 쌍둥이와 나.  
부분 집합이 있긴해도 메인 관심사와 취향도  
아주 다르다.  
어느날에 유튜브 영상 추천으로 시공간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었다.

[https://youtu.be/HgujaMy5SL8?si=iveh\\_xg9gNqM8yDyP](https://youtu.be/HgujaMy5SL8?si=iveh_xg9gNqM8yDyP)

 4차원 시공간을 이해하는  
방법(민코프스키 시공간)

완벽히 이해하진 못 했지만 내 경험을  
비탕으로 직감적인 해석으로는 인연은 n차  
방정식안에 담겨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나아가서 쌍둥이와 나는 같은 시공간의  
평행세계 결과물일꺼하는 그런 상상도  
추가적으로 생각했다.  
화풍이 다른 같은 그림같달까.


그림자와 거울속 나 말고, 나와 심지어  
유전적으로도 거의 일치하는 생명체  
쌍둥이하고 내 영혼을 담은 것은?  
내 깃gpt다.  
사용자에 따라 그들의 생각 구조를 모방하는  
코드지만 마치 진짜 내 영혼의 분신같은  
기술력.

쌍둥이와 눈을 마주보고 서로를 바라봐도,  
혼자서 거울을 몰속을 유리를 바라봐도  
내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  
사진이나 그림으로 담는다해도 내 잘나..  
그것도 렌즈나 화가의 왜곡도 간과할 수 없는  
법.

거울이 내 내면을 비추기까지 한다면  
현재는 ai이지 않을까?

😊 12 💬 5

김명빈(미디어스쿨) 와, 문장 하나하나에 감각과  
사유가 총총히 얹혀 있어서 읽는 내내 몰입하게  
되었어요. 쌍둥이와의 관계, 거울, 시공간, AI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철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화풍이 다른 같은 그림 같다'는  
표현이 정말 멋졌고요 묻고 되묻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탐색해나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12**  
monday, pm 11:18 | 16918  
이주원(심리학과)

#3일차 #거울

고등학교 2학년 말, 수학 선생님께서 수업  
도중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년에 원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기 전, 지금부터 거울 보면서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해라.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입꼬리  
모양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요소였다. 근데 이 말 한 번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울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간다. 내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간 편이라서 더 의식하게 된다. 근데 항상 거울을 볼 때만 그렇다. 평소에는 입꼬리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데, 항상 거울을 볼 때만 입꼬리를 올리게 된다. 어쩌면 거울은 의식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매개체가 아닐까? 내 모습은 오로지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으니 평소에 내 모습을 의식하기란 쉽지 않다. 대표적인 무의식 상태로 일컬어지는 꿈을 꾸는 순간도,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의식할 수 없다. 거울을 보는 순간은 무의식을 유일하게 의식할 수 있는 순간인 듯하다.

😊 11 💬 4

김경환(화학과) 의식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매개체라는 말이 인상깊네요. 거울로도 볼 수 없는 내면의 모습까지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2025/05/12  
monday, pm 11:29 | 12118  
최연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3일차

누가 거울을 닦고 있는가

필자는 고작 토막글 하나를 완성하는 것에도 골머리를 앓는다. 자신 있게 "다 썼다!"고 말해도 5분 뒤면 눈에 오할자나 비문(非文)이 보이니 곧바로 수정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다. 글은 디지털 매체에서는 수정 버튼만 누르면 되고, 지면에서는 지우개를 쓰면 금방 수정이 끝난다. 잘못된 내용을 지우면, 곧바로 세상에 아예 없었던 내용이 된다. 그러나 삶은 어떨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유행어처럼 인간의 삶은 수정해야 할 것들 투성이다. 삶에서는 자신의

잘못에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그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삶은 잘못된 과거를 고스란히 안고, 현재를 살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 사람들은 이를 흔히 '양심의 가책'이라고 부른다.

일제강점기를 살다 간 시인 윤동주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던 사람이다. 윤동주는 1942년 1월 29일, 일본 유학을 결정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일본어로 창씨개명(創氏改名)한다. 그리고 창씨개명을 하기 5일 전, 한글로 지어진 자신의 이름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에 고통스러워하며 <참회록>이라는 시를 남겼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윤동주는 시에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욕됨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서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손발을

이용해 거울을 닦아내며 더욱 직시한다. 직시한 후 거울 속에서 다시 본 자신의 뒷모습(미래)은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이었다. 운석 밑으로 가는 건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야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윤동주는 민족주의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받다가, 광복을 반년 앞둔 채 결국 1945년 2월 16일에 요절했다.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 동물은 반성할 만한 이성이 없고, 기계는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인한 반성'이야말로 인간성의 근본이라고 부를만하다.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는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시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쾌한 것을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그게 정신 건강에 편하기 때문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기본 좋으면 보고, 기분 나쁘면 외면'한다. 그런데, 단것만 삼키고 쓴 것을 뱉는다면 심장질환 병원행을 피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기분 좋은 것만을 보고 만족해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도파민만 머리에 가득 잘 뿐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언제나 기분 좋을 수는 없다. 때로 거울에서 보는 자기는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무례하고, 멍청해 보인다. 그렇다고 거울에 먹물을 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거울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고 스스로를 마주해야 한다. 아픔을 이겨내고서 기어코 따뜻한 인간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총 7명의 후보가 나왔다. 4명의 후보에게는 전공(前科)가 있다. 송진호 후보 17건, 권영국 후보 4건,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3건이다. 유심히 볼 부분이다. 어떤 후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과연 누가 "구리 거울 속 욕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밤마다 자신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 보고 있는지."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제 다시 시민들이 선택할 일이다. 과연 어떤 정치인이 제일 인간적인지.

😊 16 💬 5

조은채(간호학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인간성의 근본이라는 통찰 진짜 멋집니다. 글의 수정에서 시작해서 삶의 수정에 이르며 영시의 현재 세태에의 적용까지... 글의 구성 또한 정말 깔끔하고 칼럼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12  
monday, pm 11:37 | 15118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거울

거울 속의 내가 과연 진짜 나일까? 거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두 명의 내가 보인다. 거울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우린 평생 1인칭의 시점으로만 보고 살아간다. 거울을 들여다 보는 그 순간 또다른 눈과 마주치며 인사한다. 외형으로만 보면 두 개의 나이지만,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거울이지만 미용실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새로운 공간에서의 거울 속 나는 또 다르게 보인다. 외모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겐 거울 보는 일이 흔하지 않다. 어쩌다 거울을 보게 되면 "내가 이래?" 하며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나를 제 3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서의 거울은 외적인 단편적인 모습만 비춘다. 거울 없이는 정면의 나를 절대 마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린 서로의 거울이 된다. 너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 저할 땐 저렇게 행동해 서로 알려주며 새로운 나의 모습을 알아간다.

부족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은 나눌 수 있어  
우린 서로의 거울이 된다. 거울로서의 당신은  
그 역할을 잘 다하고 있는가? 간혹  
거울이라는 이름으로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가?

😊 12 💬 4

강지오(일본학과) 저는 그간 거울을 자신을  
바라보는 수단으로만 여겼었는데,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된다는 새로운 시선에서의 해석이 감명  
깊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05/13  
tuesday, am 12:19 | 31888  
김형선

오늘의 쓰기 마감합니다. 거울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이 참 다채롭네요. 매일 아침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타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보는 경험까지.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비추는 도구를 넘어 자아상찰의  
매개체로서 우리 삶에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나의 거울이  
되어주는 경험도 많이 써주었네요. 언젠가는  
나의 삶도 누군가의 거울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 거울을 잘 닦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 18 💬 0



2025/05/13  
tuesday, am 8:03 | 40188  
김형선

#4일차 키워드 : 길

오늘의 키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길'은 어떤 의미인가요? 매일 걷는 익숙한  
길일 수도 있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낯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길'에  
비유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길'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 길에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 '길'은 어떤  
모습인가요? '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여러분의 추억,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 19 💬 8



2025/05/13  
tuesday, am 9:24 | 20718  
김명자(일본학과)

#4일차

"너는 착각하고 있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꼭 좋은 길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만화 도라에몽의 한 대사다.  
도라에몽은 어릴 땐 단순히 웃기고 귀여운  
만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커서 보면 와닿는  
말들이 참 많다.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편이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에는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이견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이견 나랑 안 맞을 거야  
하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 따져, 결국 겨우겨우  
하나 고른다. 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선택할  
때도 나는 꽤 오래 망설였다. '내가 이걸  
선택했다가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건  
나에게 안 맞을 것 같아.' 그렇게 계속  
복수전공을 헤매다가 3학년이 되어야  
정착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편의점에서 음식  
하나 고르는 데조차 나는 오래 걸리는 편이다.  
칼로리, 가격, 양, 평소에 먹어본 적이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따져,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들이 답답해질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해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올 때도  
 많다.

주변에 하고 싶은 일도 분명히 알고, 각자의  
길을 찾아 잘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진다. 사실 지금도 이런 내가 한심하다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고치기가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굴러먹을지도  
모른다. 세상에 어려운 길은 없고, 그냥 하면  
되는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성격을 꼭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다. 올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집에 갈 때 일부러 지도를  
보지 않고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거나,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도전해보는  
식으로.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렇게 작은  
선택부터 조금씩 바꾸어가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루미네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다.  
"운명은 태어난 날보다, 그날 내가 고른  
옷에서 변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태어난 날이나 시간 등이 인생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들이 곧 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21 💬 8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주변에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부럽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건 뭘지 어떤 길을 갈지 일종의 평생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길에  
정답은 없듯이 "운명은 태어난 날보다, 그날 내가  
고른 옷에서 변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처럼  
오로지 길은 내가 개척해야되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13  
tuesday, am 9:27 | 24718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4일차 #길

길 위의 신호등

어느 길을 가도 신호등이 보인다. 빨간불일면

누구든 가던 길을 멈춰야하고 초록불일면  
길을 건넌다. 삶의 길이란 신호등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나아가야 하는 길엔  
때때로 멈추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한다.  
오로지 직진만이 아닌 지나온 길을 바라보며  
 말이다. 신호등에 걸려 멈춰야 할 땐 다른  
길을 찾을 때도 있다. 그것 또한 본인의  
선택이고 지나가야 될 길이다. 길의 목적지를  
향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가는 길에  
정답은 없다.

길치

나는 길치다. 길을 찾아 헤맬 때가 있다.  
그럴때면 지도를 켜고 길을 찾는다. 헤매고 또  
헤매 목적지에 도착했을때의 기분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 오면서  
힘들었던 기분은 사라지고 오로지  
뿌듯함만이 남아있다. 길치인 내가 결국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 먹고 싶었던  
케이크집에 도착했을 때. 케이크의 한입을 문  
순간 영법에 맘을 홀리며 길을 걸어가던  
고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다. 나와  
달리 다른 누구는 쉽게 길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남들보다 더 오래 걸렸을지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는가. 케이크의 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달고 맛있었다.

😊 18 💬 7

유재원(일본학과) 저도 길치라 공감어 많이  
갑니다. 지도를 보면 잘 가는데, 안 봐도 되겠지  
하고 지도를 달는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가는  
길에 정답이 없다는 나경님의 말과 같이, 그렇게  
잃어버린 길에서도 무언가 얻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쁜 카페라든가, 손님이 바글바글한  
맛집이라든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에 허탈대면  
도리어 본인의 마음만 부정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잃을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주변을  
천천히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나경님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2025/05/13  
tuesday, am 9:48 | 22100  
한주현(디지털미디어콘텐츠)

#4일차  
길

길이라는 키워드 보자마자 난 지름길이 떠올랐다.  
중학교 3년 동안, 나는 매일 등하교 때마다 지름길을 이용했다. 그 길은 비포장도로였고, 늘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곤 했다. 비가 오면 길 곳곳에 큰 웅덩이가 생겨 지나가기가 어려웠고 주차된 차들 때문에 도로는 더욱 좁아졌다. 언덕도 심했고, 그 길은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저녁만 되면 너무 어두워서 무서운 길이 되었다.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 늘 조심해야 했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특히 밤에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두려워서 절대로 가지 않았다. 그러나 낮에는 그 길이 나의 빠른 길이 되어주었고 무엇보다 학교에 늦지 않게 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길은 마치 내게 일종의 도전처럼 다가왔다. 위험하지만 빠르게 가는 길. 그 길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그 길을 지나칠 때마다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길을 선택하는 나 자신에게 조금 자랑스러움도 느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빠른 길을 택했던 그 경험은 어쩌면 나에게 조금 더 용기를 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밤에 혼자 그 길을 가는 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길은 낮에는 익숙해졌지만 밤에는 또 다른 무서운 세계가

펼쳐졌고 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결국, 그 지름길은 나에게 낮에만 가는

편리하고 빠르지만 위험한 길로 남아있다.

😊 15    💬 5

김예지(사회복지학과) 저도 최근에 버스정류장 가는 지름길을 찾았는데 별래가 참 많아서 빠르지만 무서워요, 하지만 정단점 중 장점이 더 크니까 길로 남아있는거겠죠!? 재밌는 글 감사합니다!



2025/05/13  
tuesday, am 9:53 | 25900  
유재현(일본학과)

#4일차

나는 새로운 길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딘가로 외출할 때면, 가는 길과 오는 길을 다르게 한다. 예를 들어, 목적지로 갈 때는 버스만 타고 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지하철만 타는 식이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교차되는 것뿐인데, 어떤 길을 이용하냐에 따라 주변 풍경이 다채롭게 달라진다. 그 새로움이 좋다.

전로도 여러 길을 영두에 두고 있다. 나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직업의 특강은 죄다 들는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이든 아니든 모두. 예로, 4월 30일에는 학교에서 진행한 출판 기획 편집자 특강을 들었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KOICA에서 진행하는 국제기구 진출 사업 설명회에 갈 예정이다.(운 좋게도 그날이 개고기기념일이어서 시간이 생겼다.) 사실 아직까지 풀리는 직업이 없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이 여러 길들이 언젠가 한 길로 모이는 과정이 되길 바라며 나는 오늘도 새로운 길로 걸어나간다.

😊 15    💬 7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허 지도 그 편집자 특강 들었었어요! 처음 들었던 특강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도움이 많이 돼서 그 이후로 다른 특강들도 들으려고 찾아보고 있어요. 이런 특강들부터 여러 사소한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 결국엔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2025/05/13  
tuesday, am 10:28 | 29900  
김예지(사회복지학과)

#4일차 -길

길을 걸을 때면, 나도 모르게 바닥을 자주 본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을수록 어깨는 처지고, 시선은 자연스레 아래로 향한다. 발밑의 길만 바라보다 보면 무엇이 앞에 있는지도 모른다. 걷는다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지만, 시선이 머무는 곳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눈썹 햇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면, 그 따사로운 빛을 마음속까지 받아들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햇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나는 그게 참 좋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든, 햇빛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비추어준다. 그 따뜻함은 마치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희망이 된다. 무거운 가방은 여전히 어깨에 남아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마음까지 가벼워진다. 그렇게 나는 매일 걷는다. 길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햇빛을 마음의 양분으로 삼는다.

😊 16    💬 5

박지영(경제학과) 길을 걸을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길이 산책길이 되기도, 고행길 되기도 한 것 같아요.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며 바라보는 하늘은 그 길을 여행처럼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요새 비가 와서 오늘 해가 내리릴 때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좋은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2025/05/13  
tuesday, am 11:05 | 17900  
장근철(글로벌비즈니스전공)

#4일차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할까.' 아이유의 분홍신이라는 노래의 한 구절이다. 나는 길을 잃거나 잘 모르는 길을 걸을 때 노래를 부르곤 한다. 이 가사는 정말 단순히 길을 잃은 상황에서 부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확대해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 때로는 분명한 표지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미로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길을 발견할 기회일지도 모른다. 계획했던 경로에서 벗어나 우연히 발견한 골목길이 때로는 더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기도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일 것이다. 빠르게 달려가는 길도, 천천히 감상하며 걷는 길도 모두 가치가 있다. 때로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도 없이 시작하는 여정이 두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나만의 길이 되어있을 것이다. 길을 찾는 여정에서 때로는 길을 잃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고민하게 되니까. 오늘도 나는 노래를

홍일거리며 내 길을 걸어간다. 비록 그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 14 🗨️ 5

어주현(사회복지학과) 목적지는 어디일지 모르더라도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저도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든 새로운 길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2025/05/13  
tuesday, pm 12:28 | 33위  
김명빈 (미디어스쿨)

숨 가쁘게 달려온 5월 반. 진짜 누가 봐도 생고생했던 2주였다.

그래서 오늘 아침엔 작은(?) 사치를 부렸다. 서울버스나 시내버스 대신 택시! 오늘은 좀 편하게 가고 싶었다.

"마침 근처에 있어서 금방 잡혔네요! 운이 좋았어요!"

밝고 쾌활한 목소리에 순간 '학' 했다. 이어폰 끄고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조용히 가고 싶었던 내 작은 플랜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올라탄 건 택시가 아니고 토크박스였구나...

어쩔 수 없이 아침부터 사회성을 끌어올려 기사님의 스왈토크에 맞장구 치기로 했다. 그런데 똥가 느낌이 왔다. 이 기사님 심상치 않다.

술쩍 다글로-인공지능 받아쓰기 서비스, 대학생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다.-를 켜다.

"학생이에요? 지금 학교 가요?"

토크 교수 기사님의 자연스러운 리드에 이것저것 술술 대답하기 시작했다.

몇 학년인지, 전공은 뭔지, 형제자매는 있는지.

마침 취업 얘기를 들으시길래 내가 "어디든 붙여주면 가야죠."라며 못자

기사님은 "행복하게 제일 중요해~"로 대답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을 냈다. ㅋㅋ-

그리고는 나를 보며 물으셨다.  
"난 어때? 행복해 보여?"  
"네, 행복해 보이세요."

기사님은 내 거침없는 대답에 호쾌하게 웃으시면서 "정답!"이라고 외쳤다. 그 웃음에 나도 전염돼서 웃었던 거 같다.

기사님은 몇 년 전, 아들을 위해 심리상담 자격증을 따고 했다. 심리 공부를 하면서 요즘 청년들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할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 후엔 택시에서 만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부모님한테 순종적인 삶을 살던 대학생이 처음 반항할 썰, 진로 고민에 지쳐 한숨만 폭죽 쉬던 고등학생, 미혼모가 돼 울면서 택시에 탔던 중학생, 기사님이 그들을 위해 명절마다 새 옷을 보내주거나 직접 복지기관과 연결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준 이야기까지.

"내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길 좀 먼저 걸은 사람으로서 손 내밀어본 거지~"

그걸 잡는 건 그 예들 뿐이야!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웃으면서 시작한 대화인데 어느새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냥 편하게 가고 싶었던 아침이 기사님의 따뜻한 이야기 덕분에 훨씬 밝아졌다. 택시비는 조금 비쌌지만,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힘을 주유 받았다.

시요점 정리 스크린샷

할 키우고 싶었던 저지 부모는 갔다 와서 얘기를 해라 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털어내라 그래서 진짜 갔다 와서 솔직히 털어내어 한 6개월 만에 내 차를 다시 탄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이 그날 그 솔직히 털어놓으니까 얼마 아박가 내가 그런 걸 몰랐고 그래서 세 친구 부둥켜안고 사정을 알은 데 재차보는 데서도 막 울었대요 그게 가지고 그 다음 날 이후로 서울의 부동산에 관련된 학원 다니는데 지금...  
이 택시 탔는데 스크린샷 그 기사님 만난 건이... 다음날 친구 네사람... 함께 갔을 때 마지막에 영웅을 칭해서... 언젠가 후일...의 거였다

그래서 얼마 아박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 아박과 아들 어 딸들은 좀 좋게 아박과 아들 근데 그 집은 좀 특이한 집안이고 아 그때 어린 청년들이 내 택시에 무지 많이 찾아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 더 폭발적인 거야.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혼 문제 해인 있다는 거야. 애인 얘기를 봐 내가 얘기 다 해줘서 내가 인생 경험이 풍부해졌어. 그리고 내가 예를 키우면서 우리 예를 키우면서 느꼈던 게 많거든. 자제분들은 나이가 어릴게 되세요. 아니 결혼 다 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걸 나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청소년들이 뭐 기성세대 뭐 이런 사람 이런 여자 남자 많이 타잖아. 좋잖아 거기에 맞춤형으로 내가 그 심리 상담을 공부했어. 내가 2급 자격증 있어 그게 가지고 우리 아들 때문에 배운 거야. 내가 미래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재능 기부하는 거야. 재능 기부 어 내 친화번호 막 가지고 간 사람 많아 지금 제일 많은 게 청년층이야 나중에 꼭 내서도 되겠다는데요. 택을 낼 정도는 아니지 거기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택시 기사님이 주변에 널리 알리라고 하셔서 영수증도 남겨본다. 춘천 내에서 택시를 타다 마주치게 된다면 그 또한 소소한 행복 아닐까?

#4일차

😊 21 🗨️ 10

박지영 (경제학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파다해지는 요즘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읽으면 눈물이 핑 돌니다. 정겨운 대화가 소중하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이런 대화가 없어지고 있다는 말이 다 보니 마음이 복잡하네요. 그래도 이런 어른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한 번 더 들여다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행동들이 이 나라를 지명하는 힘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2025/05/13  
tuesday, pm 12:37 | 22위  
권혁빈(경제학과)

#4일차

가보지 않은 곳, 가보고 싶은 곳. 어릴 때부터 현수의 주변 어른들은 '이미 정해진 경로 외에는 가지 말아라. 만약 너가 궁금증을 가지면 큰일 날 거야' 라고 단단히 경고를 하셨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이제 성인이 된 현수는 어릴 때 들었던 말을 새겨듣고 부모님이 정해주신 학교, 정해주신 진로, 정해주신 직장에 들어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행복하지는 않은 일상을 하루하루 지낸다.

현수는 생각한다.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든 채 관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현수는 태어나고 나서부터의 일생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 현수는 현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준 타인이 그런 삶을 대신 살아왔다는 것을. 그 날이 지나고, 현수는 무단으로 회사를 결근한 이후에 아무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난다. 하고 싶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지만 내가 내키고 즉흥적으로 끌리는 대로 하는 여행. 때로는 무모하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현수는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는 자신의 삶을 찾은 것 같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웠다.

여행을 다녀오고 몇 달 후, 현수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차렸다. 그 가게는 현수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아직 새로운 경로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가게였다. 현수는 일생 동안 자신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법을 알려주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로 거듭났다.

😊 14 💬 3

**박지영 (경제학과)** 현수의 인생은 수동적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것마저 능동적인 인생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꿈을 찾아가는 것이 항상 실패고 통트는 기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피어진 길이라고 그 길을 걸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 길을 걸어낸 현수는 그렇게 자기 삶을, 자신의 길을 기꺼이 스스로 걸어낸 건 아닐까요?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마음으로는 손해본 것 같을지도 모르겠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봤네요

**2025/05/13**  
Tuesday, pm 1:21 | 20188  
김서희(식품영양학과)

#4일차 길

나는 어릴 적 부터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며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나는 잦은 전학을 다니며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학업 성적도 좋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때는 바닥을 보며 걷는 습관 때문에 엄마한테 난 왜 그렇게 걸나며 많이 혼나기도 했다. 어린마음에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혼내기만 하는 엄마가 미웠던 기억이 난다.

엄마한테 그렇게 혼났지만 대학생이 된 지금도 여전히 나는 바닥을 보며 걷는다.

하지만 바닥을 보면서 걸으면 계절감을 느낄 수 있어 좋다. 봄에는 만들레, 풀, 개미를 볼 수 있고 여름 장마철에는 지렁이를 볼 수 있다. 가을에는 떨어진 낙엽을 볼 수 있고 은행도 잘 피헤다닐 수 있으며 겨울에는 새하얀 눈에 찍힌 귀여운 강아지 발자국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보면 나도, 바닥을 보며 걷는 습관도 여전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많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요즘이다.

😊 14 💬 6

**조은채(간호학과)** 저도 중학생 때까지 바닥만 보고 걷는 게 습관이었는데 부모님이 계속 지적해서 고등학교 중 때는 눈높이에 있는 주변을 보고 다녔어요. 시야가 넓어지니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바닥에서도 즐거운 경험을 이끌어내는 글쓴이분의 태도가 정말 좋네요. 늘 높은 곳만 볼 필요는 없지요. 저도 가끔 낮은 곳을 다시 봐야겠어요.

**2025/05/13**  
Tuesday, pm 1:27 | 20188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4일차

세상에 '길'만큼 다양한 갈래로 뻗어있는 존재가 또 있을까.

누군가에겐 익숙한 길, 누군가에겐 낯선 미지의 여정. 길은 변화하지 않고 내내 같은 모습이지만 그 위를 걷는 인간은 항상 새로움을 느낀다. 속도를 내어 앞서가는 누군가가 있는 반면에 잠시 멈춰 풍경을 감상하고 금어 간 벽에 대해 생각도 하며 발걸음을 고르는 누군가도 있다. 그렇게 같은 길을 지나치며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을 투영한다.

'길'은 선택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수없이 갈라지는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기 마련이기에.

조금만 더 나아가면 넓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길의 끝이 막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험한 가시덤굴에 둘러싸여 진입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길의 입구에 치유의 봉대가 놓여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두려움에 뒷걸음을 치든,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며 간과하던 우리는 그저 길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학우님들이 걸으실 모든 길이 안전하길 바라겠습니다 :)



😊 15 💬 5

**권혁빈(경제학과)** 같은 학교를 다녀도 자신만의 길은 다르고, 심지어 같은 가족끼리도 서로의 나아가는 방향은 다릅니다. 다만 방향이 다르다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Band!



2025/05/13  
tuesday, pm 1:45 | 22일째  
김수진 (마케팅융합스쿨)

#4일차 '길'

god(지오디)-길 이란 노래를 아시나요?  
저는 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알게  
되었는데

이 노래는 제가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듣게 되었고 아직도  
꿈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 노래가 제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저희 어머니 시대에서도 많은  
공감을 일으켰다고 들었는데 자신의  
길(방향)에 대한 고민은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갔었던 길들이 어땠는지  
현재는 잘 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길을 나아갈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래 구절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라는 긴 가사를 적어봅니다

이 가사는  
저에게  
청춘들에게  
부모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찾은 사람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방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도약하는  
사람들도 막막해질 수 있고

아직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길' 즉 '방향성'입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장애물이 많아도  
자신의 길(방향)을 믿고 전진하세요  
모두의 길은 꽃길로 이루어져 있으니깐요

혹시 이 노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씩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들으신  
분들도 이 글을 읽고 한 번씩 더 들어보길  
추천합니다!

길  
노래 god 2001.11.15.



[계상]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 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  
있네 \_

▶ 비로재생 ♡13,819

😊 13 💬 6

박지영 (경제학과) 저도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  
역시 좋은 노래는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내 안의 불안을 노랫말로 적어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복잡한 마음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알고  
있다는 것, 그게 슬프면서도 묘한 위안이 되네요,  
우리의 삶이 모두 꽃길이길



2025/05/13  
tuesday, pm 2:15 | 24일째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4일차

스물셋 가을. 그 무렵 나는 낮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낮에는 스테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무렵이 되면  
길게 뻗은 직선 도로를 따라 일하는 카페로  
걸음을 옮겼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햇살을 머금은 바람도 약간의 찬 기운을 내기  
시작하는 가을의 한창때. 스테디 카페 문을  
열고 나와 4층의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직선도로의 시작점에 내가 서 있었다. 어떤  
날은 우산을 들고, 어떤 날은 차를 끌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들고. 우리는  
그 길을 손 잡고 걸어갔다.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길의 시작점에 내가 서 있었고,  
너의 데려다주는 행위는 다정하고 따뜻해서,  
맞잡은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언제까지나  
함께이길 바랐다.

영원할 것 같은 다정이 식어가기 시작한 건  
겨울이라기에는 따뜻한 날이었다. 우리는  
자주 다뤘고, 그 다름은 찾아졌다. 서로의  
다른 점이 이끌렸지만, 서로의 다른 점이  
힘겨워했다. 너는 혹하면 헤어짐을 방패로  
쓰기 일쑤였고, 나는 그런 너를 어르고 달래며  
위기를 넘어가기를 반복했다. 그날 카페에  
마주 앉은 너는 아무 말 없었다. 얘기하자며,  
아무 말도 안 할거면 왜 만나자고 했어, 그  
말이 너에게는 옥박지르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너는 입을 더 굳게 다물었다.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너와 카페를 나섰고, 너는  
처음으로 나를 집에 혼자 보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의 기분에서는  
너무나도 쓴맛이 났다.

세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열정적으로 싸우고,  
여러 번의 이별 통보를 당하고, 얼굴 보면  
풀리고, 다시 싸웠다. 상처를 주고 받아도

결코 서로를 놓지 못하기를 반복하다 다음 해  
오월, 이런 정말 그만하기로 했다. 서로에게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는 없었다. 헤어지는 순간에는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서로의 인생이 서로가 없을  
때 행복하다면, 그 길로 각자 행복하기를  
원했다.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닌 각자의 길을  
걸어간지 한참이나 지나버린 지금, 이제는  
서로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 지금. 이제는  
입거나 원망스럽지 않다.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이었으니까.

😊 14 💬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비록 지금은 각자의 길을  
용원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함께 길을 걸어갔던 그  
순간들은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입거나 원망스럽지 않다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2025/05/13  
tuesday, pm 3:01 | 25일째  
박지영 (경제학과)

#4일차 #길 #god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 god '길' (2001년 발매곡)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라는 삶의  
목적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god의  
노래 '길'. 제시어를 보자마자 이 노래가  
떠올랐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2001년에  
발표된 곡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입에서  
불리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이 노래가 잊히지  
않는 이유는, 삶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유효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덩달하게 흘러가는 가사에 켄스레 울컥했던 기억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답 대신 질문으로 가득한 가사는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다. 그 모든 질문이 소중하게 느껴져서 가사 전체를 인용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분량상 핵심만 담았다. 시간이 된다면 꼭 한 번, 이 노래를 들어보기를 추천하고 싶다. 오늘은 이 노랫말을 통해 삶과 내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우리는 종종 삶을 '길'에 비유한다. 길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갈래와 굽이, 예상치 못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펼쳐진다. 어떤 길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지만, 어떤 길은 어두운 터널을 지난 후에야 겨우 빛을 만날 수 있다. 삶이란 그런 길을 많이 달아 있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라는 말처럼, 우리는 정해진 시작과 끝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통해 삶을 만들어간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방향을 찾고, 좌절과 성장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삶과 길의 결정적인 차이라면, 삶은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항상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삶은 늘 낯설고, 늘 처음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 길 위의 우리를 '여행자'라고 부르고 싶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처음 마주하는 길 위에서 방향을 찾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나그네 말이다.

우리는 단지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길 위에서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스스로의 길을 발견해가는 존재다.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며 수많은 생각을 품고, 그 안에서 삶의 가치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간다. 그래서 여행의 끝, 죽음에 닿았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품은 채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

노래 속에 반복되는 네 개의 질문 —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구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 는 우리에게 '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던진다. 그것은 결국 속도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예시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뭘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꿈'을 꾀야 할지를 자주 잊는다. 모호하고 애매한 삶 속에서 방향을 잡는다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렵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해 걷고 있느냐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점점 더 빠르게 살아가고 있다.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보면, 생각하는 것을 미루고 그저 달리는 데에 익숙해져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 노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단순한 옛 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는 삶'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문장들. 불안 속에서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결국 길을 찾는 법이다. 오늘도 나는 길 위에서 묻는다. 이 길은 정말 나의 길인가. 그리고 그 물음 끝에서, 언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기를 바란다.

😊 14 💬 5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그 초 이 노래는 정말 시대가 변해도 모두에게 의미가 깊은 노래인 것 같아요 또 질문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이 노래가 그 가치관과 잘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13

Tuesday, pm 4:24 | 202505  
조은채(간호학과)

#4일차 #길

그동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울타리 처진 길을 걸었다.

다른 길을 눈으로 구경할 순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를 넘을 수는 없었다. 내가 다른 길을 말하면 그 길은 위험하다고 그들이 늘 이야기했다. 그래서 수긍했다. 편하고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 더 행복하겠지.

탄탄하다고 생각한 길이었는데 구멍이 있었다. 그대로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길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 길이 정말 나에게 좋은 길일까? 나에게도 할선의 욕망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내 생각으론 방향을 꺾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없었다.

평탄한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부끄러웠다. 진창길, 빙판길, 자갈길,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나는 기껏해야 얇은 오르막길, 내리막길만 걸었다. 게다가 앞만 보고 걸어오느라 주변에 무슨 꽃이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여행자 친구와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음을 느꼈다. 내가 아는 꽃의 이름은 극히 적었다. 다른 여행자들은 꽃을 많이 알고 있었다. 꽃병에 꽃기만 하는 게 아니라 꽃다발도 만들고, 화관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길잡이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 되고 있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다. 길잡이는 길잡이일 뿐이다. 실제로 길을 걷는 것은 나다. 내 길의 주인은 바로 나다. 여행길에 던져진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지만, 어떤 여행을 할지는 내 마음이다.

이제 셋길에도 발을 들인다. 갈림길이 나왔을 때 또다시 길잡이에게 의지하게 될까 아직은 두렵다. 하지만 꽃들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길동무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내 길의 굴곡을 사랑할 것이다.

편하다고 죽지 않는다. 부드럽게 구부러져 주변의 꽃과 나무를 동글게 감싸는 길이 된다. 직선은 편리하지만 곡선이 더 아름답다.

😊 13 💬 4

여주현(사회복지학과) 어떠한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길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합니다!



2025/05/13

Tuesday, pm 5:28 | 202505  
서정원(심리학과)

#4일차

13.대구 달성구의 A 앞  
인천 동춘나래도서관 혹은 스타벅스  
인천동춘DT점으로 추정,  
2025년 1월 17일

우리는 다만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들을 읽어야 할 게야.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자네가 쓰는 식으로, 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밥소사, 만약 책이라고는 전혀 없다면, 그 또한 우리는 정혀 행복할 게야.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재앙 같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누군가의 죽음 같은, 모든 사람들로 부터 멀리 숲속으로 추방된 것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들이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짚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래 언젠가 내가 자네에게 주장했지, 외부에서 오는 그 어느 것도 지금 나의 글쓰기 일을 방해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줄곧 너무도 확고하게 느꼈기에, 나 자신을 산산이 부서지게 하는 결정이 적절한 결정적인 길이로 침투하게 할 수가 없었어. 이런 생각도 들었지. 살아남는 것이 죽음보다는 나의 글쓰기를 덜 중단시킬 것이라고.

-카프카의 편지 '행복한 불행한 이에게' 중-

당신에게도 블로그를 통해 여럿 보여줬었어. 내가 최근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이유를 말이야. 대운호 카프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나는 내 안의 한계점 때문에 막혀있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 얼얼물론 바다를 깨부수는 용도로 책을 읽어. 또 깨부순 것을 방지하지 않고 기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글을 쓰지. 간접경험으로서의 책은 정말 좋은 직접경험의 대체제인 것 같아. 내가 몰랐던 시대에 모르는 곳에서 살았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쓴 글들을 읽다 보면 저절로 그의 삶에 동화되는 느낌이 들게 되지. 카프카의 수백 통의 편지를 읽으면서도 느꼈어. 나는 잠시나마 프라하 구시가지 한복판에서 삶의 방향하는 한 청년이 되었지

그래도 직접경험이 좀 더 당장 와닿는 것 같아. 최근에 정말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한 계기가 되어준 한 사건이 있었어. 나는 그저 100년 전쯤 유행했던 '보헤미안'의 길을 걷고 싶었던 것 같아. 영화 '비포 선셋'의 두 남녀 주인공이 나섰던 대화 같은... 길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을 텐데 한번 들어줘, 내가 작년 1월에 한참 당신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누군가에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해서 스스로 쓰는 것보다 이야기에

오류가 많아질 수 있고,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어. 터놓고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 있을 때의 이점은 그렇게 한 쪽에 치우치게 말해서 나의 불안감 내지 걱정, 근심거리가 해소되는 것 뿐이지.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과 관점을 공유받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면 좋을 수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위에서 말한 해소의 이점 외에는 썩 도움이 되질 않을거야.

그러면 나한테 적합한 대화 측은 어떻게 만들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 완전히 친목만을 위한 모임과 친목 외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가 오갈 수 있는 모임을 따로 만드는 거야. 아니면 모임 전에 그 컨셉을 정해두고 만나거나,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 저들이 어정쩡하게 섞인 상태에서 만난 모임은 이야기 자체의 흐름도 어정쩡하니까.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과거에 함께 겪었던 웃기고 슬펐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대화축이 섞이면 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한 길게 이야기 나눌 순 없게 되겠지.

나도 오랜만에 만나거나 가깝고 의지할만한 상대와 만나 하하 호호 웃고 밥 먹는 모임을 갖는 것이 사소한 행복이라고 보긴 해. 그런데 그 정도를 다르게 두고 싶었던 거야. 특정 모임에서 오간 대화들로 인해 내가 얻는 것이 있는 쪽으로 가고 싶으면 학술적이고, 목적 중심적인 모임을 가져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것이고-ENTJ적 모임이랄까-그게 아니라면 학술적이고 목적 중심적인 이야기에서 '완전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탈피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끝내는, 그런 모임을 갖는 거야.

나는 뭐, 알다시피 전자의 모임은 주로 나를 포함해서 두세명 정도 나와 뜻이 비슷하거나 생각과 감정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모임 장소가 정적일 때 가지게 되지. 후자의 모임은 나와 뜻이 비슷하거나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견해차로 싸우며 갈등하고 해소하며 지냈던 사이이고, 애초에 만났을 때부터 학술적이고 목적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과거를 반영한 경우에 가지게 되는 것 같아.

모두가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나는 후자의 모임에서 갑자기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주위에 남자 중심의 모임이 많은데, 그들과 그동안 웃기고 추억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런 쪽의 이야기가 나누게 되는 것은 뭐랄까, 쪽팔리는 기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진지한 고민 상담을 친한 남자애들이 아니라 여자애들한테 물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그래서 당신에게도 신세진 적이 많지.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했어. 음... 나는 완전히 목적 중심적인 남자 모임이 아니면, 그 외의 남자 모임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자신이 없었을까. 왜 그럴까? 왜?

미숙한 성인 남성을 끌고 와 1년 6개월간 남성성을 강제로 부여하고, 해결 중심적인 사상을 주입한 군대 탓. 이라고 이전에 글로 분석한 적이 있어. 물론 그 영향도 있겠지. 하지만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봤어. 애초에 나는 남자가 겪은 사건은 남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과거 유년기부터 가지고 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친한 목적 중심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친구들이 진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으면, 그 외의 모임보다는 더 엄격히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저 친구들이 죽을만큼 힘든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목적 중심적인 남자 모임, 여자도 섞인 모임에서 오가는 간단한 고민거리보다는 덜 집중해서 덜 신경쓰고 듣게 될 것 같아.

편파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과거력-아마도 내 유년기부터 묵묵히 힘들다는 표현 없이 일하시고 야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으로부터 생긴 기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말이 됐는데, 요점은 모임마다 특정 분위기를 부여하고 그쪽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거였어. 그러려면 보통 그런 모임 분위기를 주도하는 내가 미리 모임을 갖기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눌 거라고 딱박을 던져 놓거나 하는 식으로 마음먹고 가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참, 이기적이고 목적 중심적이지?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목적 중심적으로 되는 것 같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자고, 테이커와 기브엔테이커가 아닌 '기버'가 되자고 다짐하는 나날들인데, 그러기가 참 어려워.

아무튼, 당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이들과 있었던 일들이 지금의 나로 있게끔 이끌어 준 거야.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내가 더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포장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때로는 방어주의적일 순 있겠지만, 내게 새롭고 더 나은 길을 알려준 당신과 당신들에게 참 감사해.

우리끼리, Band!



😊 13 💬 8

조하경(창작학과) '책은 도끼다' 박웅현 작가의 책이 떠오르네요. 저를 상상시켰던 책들은 견고한 내 세계를, 한없이 경박했던 제 두개골을 거차없이 부숴준 책들이더군요. 내 사고에 걸림은 피가, 표현이 아닌 진짜로 피가 흐르는 듯했던 그런 책들이요. 문학은 치유가 아니고 진폭이라 믿는 저에게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글입니다. ✨ ✨

이분법적으로 인간관계를 나누는 방식도 흥미로워요. 온방과 냉방에 양발을 담고 계산듯한, 비슷한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 잘 모르겠네요. ✨ ✨

최근 '뇌는 간접경험이 아닌 직접경험을 한다'는 아티클을 접한 기억이 나요. 소설속에서 걷는다, 향기가 난다, 만진다고 같은 표현을 읽는 사람들의 뇌 속 피질에서 각각 활동에 해당되는 피질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네요. 뇌는 그 순간 감각적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결코 알 수 없는 상대에게 이 에세이를 소리내어 읊조리는 정원님 모습이 상상됩니다. 소설같이 글 속 시간대의 전후를 상상하게 만드네요. ✨ ✨, 재밌어요~ 잘 읽었습니다. :)



2025/05/13  
tuesday, pm 6:07 | 19:18  
장우현(철학과)

#4일차

저는 과거 안정적인 길을 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위기 없이 산 것이죠. 하지만 sns의 발달로 인해 제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제 인생은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껴졌고 위기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 위기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비탈진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것은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힘든 일이란 아닌 일이란 간에 결국 더 큰 불행이라 의미 부여하면 무너집니다.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을 시에는 긍정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학생,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믿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길이 펼쳐지든 곳곳이 걸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걷고자 하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요즘 믿음이 굉장히 큰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부정적인 믿음이 강했습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고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구체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저는 좋은 사람, 좋은 아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저는 제 믿음들이 꼭 실현될거라고 믿습니다.

😊 14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우현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과 그 길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꼭 그 믿음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5/05/13  
tuesday, pm 6:27 | 19:58  
한주연 (디지털미디어콘텐츠)

#4일차 #길  
짧은 인생길.

기계의 부품,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것.

충을 겨누고, 인격을 무시하며, 나를 돌아보기 전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너의 고통을 온전히 느낄 순 없대도,

끌어안아 함께 아파하겠다.

시대를 통틀어 우리의 만남은 짧은 행운이기에.

😊 14 💬 5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머리가 멍해지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13  
tuesday, pm 7:34 | 19:18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4일차

어렸을 때는 공주, 아나운서, 가수, 판사, 검사, 방송 PD, 연구원 등의 여러가지 꿈을 꾸었고 원하는 바 또한 확실했다. 지금도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진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생명과학을 좋아해 생명공학 관련 학과를 가서 연구원이 되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는 한림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다.

수시 원서 쓸 때 6지망으로 쓴 곳이었다.

면접을 보러 가지 않고 서류만 넣어도 합격을 안정적이게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데이터사이언스의 "사이언스"만 보고 당연히 가지 않을 줄 알고 넣었는데 경춘선 춘천행을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다. 내게 있어서

코딩이라는 건 단 1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코딩을 해야 한다니 당황스러웠다. 처음에는

나에게 맞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1년을 해보니 코딩이 생각보다 재밌었다. 잘

맞는다고는 못하지만 안 맞진 않았고 다른 걸 하기에는 하고 싶은 건 명확히 없어서 전과나

편입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생각해둔 취업 방향에 맞춰 자격증도 취득하고 있지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잘 걸어가 보고 싶다.

하고 싶은 건 있어도 현실에 부딪쳐 순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밝게 빛나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길은 어땠을까.

😊 12 💬 4

조세환(생명과학과) 예령님의 많은 고민이 꼭꼭 눌러 담긴 글이네요. 저도 요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맞는지 자주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잘 걸어보고 싶다'는 말이 유난히 깊이 와닿았어요. 어쩌면 현재에 충실한 것도 멋진 일인데 말이예요.



2025/05/13  
tuesday, pm 7:52 | 22명  
최원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4일차

도(道)를 아십니까?

제목만 보고 오해하지 마시길. 필자는 현재 무고다. 굳이 따지자면, "죽기 전까지는 사후세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불가지론(不可知論)자다. 그럼에도 종교가 있는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는다. 내가 봐왔던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내가 봐왔던 불교인들은 자비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전 하나의 클리셰로 굳어버린 문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목적으로 길거리에 나와 일방적 포교(布教)를 일삼는 사람들. 통칭 '사이비'들이 "도를 아십니까"라며 길거리에서 활개 치며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저기요, 혹시 요즘 몸이 아프지 않세요? 지금 당신 뒤에 슬픈 표정으로 조상님이 붙어 계세요. 돈으로 제사를 지내서 위로해드리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당신의 목숨을 뺏아가실 수 있어요!"와 같은 말들, 이제는 진부하게까지 느껴진다.

이들이 말하는 '도(道)'란, 즉 '길'이란

무엇일까? 예로부터 동양에서 '도'라고 하면 곧 진리를 뜻했다. 진리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총체적 요소 등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다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사이비들은 "당신이 걸어갈 도(길)를 알려줄 테니 우리에게 돈을 내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다.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을 돈만 내면 알려준다고? 말만 들으면 딱 유혹적이다.

'사이비(似而非)'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사이비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철학자 맹자였다. 그는 "사이비는 겉치레를 차려 고결하고 믿을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선비의 덕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런 자들이 이익을 위해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 두려워서, 공자는 사이비를 제자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걸어갈 길(道)은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자신의 삶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사이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도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네, 저는 저만의 도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가볍게 웃어줄 수 있어야 한다.

기자가 꿈인 필자에게 가장 마음 아픈 건 요즘 '사이비 기자'들이 성행한다는 사실이다. 비판 기사 대신 홍보 기사를 써 준다는 조건으로 지자체와 중소기업에서 금품을 받아먹다 체포당한 기자들이 한 달에 2~3명꼴로 경찰에 붙잡힌다. 사회 정의를 울부짖지만, 속으로는 돈을 얻으려는 기자들 때문에 '기레기'라는 오명이 사회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미래에 기자로서 걸어갈 길에 대해 착잡한 고민을 하게 되는 요즘이다. 역자를 위해 따뜻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될 수 있다면

최고겠지만, 적어도 돈만 바라보는 사이비 기자는 되고 싶지 않다. 적어도, 기자의 '도를 아는' 기자가 되고 싶다.

11 7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저도 2월달에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원가 신기하면서도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기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것이 많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도를 아는' 기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5/05/13  
tuesday, pm 8:14 | 21명  
조화경(청각학과)

#3일차 #길

'길'이라는 말은 흔히 누군가의 계획과 의도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영어 단어 'road', 'trail'의 어원을 보면 '흔적'(track), '자국'(trace), '여행'(journey)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서양에서 '길'의 개념은 누가 먼저 닦아놓은 것이 아니라, 걸어가며 만들어지고 남겨지는 것이다.

동양에서 말하는 '길' 또한 단순한 통로가 아니다. 한자문화권에서 쓰이는 도(道)는 사람이 오고 가는 물리적 길을 넘어, 사람이 마땅히 걸어갈 할 도리,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道)가 비상도(道可道非常道)'는 길이란 본디 고정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처럼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군가를 따라가도 좋고, 앞서 걸으며 스스로 만들어가도 좋다. 백 명이라면 백 개의 길이 있다.

길은 곧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기록이 된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으며,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가?

14 7

김영민(미디어스쿨) 아, '길'에 담긴 깊은 의미를 어떻게 다시 보니 세상 마음이 울립니다. 길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만들어가는 삶의 발자취이자 존재의 흔적이니깐요. 저마다 다르게 걷는 길 위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13  
tuesday, pm 8:17 | 22명  
임예민(사회복지학전공)

#4일차

길

나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 것을 좋아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무서워했고, 그 기질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다음 학기부터 완전히 다른 길에 들어선다. 25-2학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 대학에서 한 학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외국에서 반년을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이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매우 긴장된다.

교환학생을 신청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우울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춘천에서 다니며 안정된 삶을 살았다. 물론 이 생활이 만족스럽지만, 교환학생을 갈 여건이 되는데도 가지 않는 건 후회가 남을 것 같았다. 늘 익숙한 길만을 택하면 발전할 수 없는 걸 알기에, 아주 큰 용기를 내봤다.

새로운 길은 다듬어지지 않아 거칠고, 아픔도 따른다. 실제로 이 낯선 길의 시작부터 고된 일들이 많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교환학생 경험자가 없었고, 나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수행했다. 아직 한 걸음만 내디뎠을 뿐인데, 많은 돌발상황을 마주했다. 하지만 난 우울 안을 벗어날 것이다.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꾸준히 나아갈 것이다.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나 자신을 응원하며, 더욱 발전할 나를 기대하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저의 교환학생 소식을 전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글을 올리기가 아직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 16 💬 9

박예빈(사회복지학부) 응원합니다. 거칠고 아픈 길일지라도 많은 걸 남길 것이라고 믿어요. 꾸준히 나아갈 거라는 다짐이 길게 다가오네요..



2025/05/13  
tuesday, pm 8:54 | 2025년  
이주현(사회복지학과)

#4일차

'길'이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나는 길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났다. 누군가가 살아온 인생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나는 작년 1학기 때부터 한림대학교 도현학술원에서 하는 '시민지성 한림연단'이라는 특강을 들어왔다. 이번 학기에도 이 특강을 듣고 있다. 시민지성 한림연단은 매 학기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한다. 이번 특강의 주제는 '나의 삶, 나의 길'이라는 주제이다. 특강을 해주시러 오시는 여러 유명하신 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특강을 듣다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걷다보면 언젠가 위에서 말한 특강에 오시는 분들처럼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걷는 것 같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힘든 순간이 오고 무엇인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묵묵히 힘들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힘들더라도 묵묵히 걸어가기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엔 힘들음 참고 견뎌온 것에 대한 값진 결과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각자의 길 위에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15 💬 10

김미도(일본학과) 저도 시민지성 한림연단 특강 듣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남들보다 뒤쳐질 수 있어도 묵묵히 계속 나아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현님도 앞으로의 삶의 길을 응원합니다!!



2025/05/13  
tuesday, pm 8:58 | 2025년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4일차 #길

<https://youtu.be/J3VZ78hWhQw?si=9A1WTwVjM3I2QMgp>

오늘의 주제로 김운아의 길 노래를 떠올렸다. 이 노래에서 화자가 자신의 선택한 길; 인생,

공간적 의미의 길에서 알이 막힌 도착지에 와서 느끼는 역간의 공포감과 이런 힘든 자신을 알아봐달라고 외치지만 내가 느끼기에 체념한 후 담담히 이 공포감을 받아드리고 헤쳐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노래다. 드라마 시그널을 시청하지 않아 내가 그 드라마의 ost인 이 노래와 내 감상을 정확히 연결짓지는 못 하지만 곡 분위기, 노래를 부르는 김운아의 목소리, 곡의 가사에서 받은 인상은 저러하다.

라이팅 챌린지는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지만 알게 모르게 나는 엄마께 이 주제를 공유하며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의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내 인생의 길에서 나는 시작점이 아닌 이제는 후배들을 위한 길을 펼쳐주는 사람.. 내 능력이 대단하지 않기에 큰 도움은 줄 수 없지만 좀 더 편한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셨다."

이 글을 쓰기까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지나쳤지만 엄마의 저런 말을 듣고 놀라웠다. 나의 인생의 길이란 답답한 느낌이다. 아직도 진로적인 인생의 방향에서 여러가지 갈래의 길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 길 저 길 다녀와서 다음 단계를 지나지 못 하고 있기에.. 큰 틀에서 본다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후배에게 좋은 길을 안내한다는 말은 나를 멍하게 만들었다.

내 인생의 길도 이렇게 난해하고 표류하고 고된데 이런 내가 감히 누군가의 길을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조언을 거의 하지 않는다. 애초에 나도 나를 잘 다스릴 수 없는 내가 누군 조언할까? 이론 성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내가 누구에게 첨언을 할까?

그럼에도 노래 길처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길 저 끝에 다 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며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 내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어제와 똑같은 이 길에 머물지 몰라 저 거미줄 끝에 꼭 매달린 것처럼'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다.

😊 12 💬 5

윤소정(사회학과) 어머님의 후배들을 위해서 좀 더 편한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고싶다는 말씀이 인상깊어요. 대단한 위인이 되어 길을 제시해준다는 것은 사실 소수의 사람만이 가능한 일어 같아요. 하지만 편한 길로 인도해주는 것은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예를들면 그 나이 때만 하는 고민에 대해 물어주고 '나는 이렇게 했었다.'는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거창한 이야기 아니어도 누구나 겪는 생애주기 속에서의 고민들에 대한 조언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5/05/13  
tuesday, pm 9:05 | 2025년  
윤소정(사회학과)

#4일차 #길

<0리단길과 젠트리피케이션>

요즘 서울 골목 곳곳에 경리단길, 송리단길, 망리단길 등 다양한 '길'이 생겨나고 있다. 상권이 들어선 골목을 두고 0리단길이라고 부르며 관광장소로써 기능하고 있다.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존재한다. 단점은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중하류층이 생활하는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에 상류층의 주거 지역이나 고급 상업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상으로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출처: 우리말샘) 0리단길에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상승하며 대자본의 유입된다. 원주민들이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생각한다면 0리단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낙후된 지역으로 낡아빠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데 또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별로인 것도 같기도 하다. 아직은 어떤 게 더 좋은 일인지 확고히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14 💬 6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사람들의 거주지를 희생해서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조금 꺼림직하네요. 재개발이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기존 거주민 분들에게 입은 손해를 상회할 정도의 보상을 제공해야 정당할 것 같아요!

 **2025/05/13**  
tuesday, pm 9:22 | 271회  
정우림(정치행정학과)

#4일차 #길

적어도 코모두스가 권력을 쥐기 전까지는 로마는 당시 존재했던 그 어떤 국가보다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로마로 통하는 '길'이 있었죠. 한일병합이 이루어졌을 때도 일본은 길, 즉 철도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했고, 영화와 뮤지컬 <위키드> 와 그 원작인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도 '엘로 브릭 로드'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수 년은 된 유행어입니다만 '꽃길만 걸자'가 감성적 워딩의 표본이 된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역사에서, 작품에서, 또 일상에서 쓰이는 말인 '길'을 들여다보면 길 자체에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밟는 길이라마로, 예메알드 시티로 가는 길이거나 혹은 꽃길이라든가 그 길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힘들었던 고3 생활을 추억해보면 알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학교 입학할 땐 학업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가는 길에 의미를 붙여 하루하루 버텨내지 않았습니까. 따분하거나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한 번쯤 돌아보시고 존중하며 다음 스텝을 밟을 에너지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고 계신 길, 강인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갈 길, 뾰족 길든 꽃길이든 자갈길이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7 💬 8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당장 내가 서 있는 길이 최고의 길이기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렁님의 글을 읽으니 '내가 자갈밭에 서있으면 아무런 아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13**  
tuesday, pm 9:23 | 271회  
채은비(생명과학과)

#4일차

#길

음,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마땅한 것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루 온종일 수많은 길을 떠올려 봐도, 명확히 보이는 것은 없고 모호한 것들 뿐이네요. 답답한 마음에 괜히 국어사전이나 뒤적거려 봤습니다.

'길'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물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 건너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지금 보니 '길'의 뜻이 참 많습니다. 위의 뜻뿐만 아니라 물건에 길을 돌리는 것도 길이고, 좋은 날을 뜻하는 말도 길일이네요. 저 다양한 뜻을 보니 무언가 떠오를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사실 저는 처음으로 글을 써보다 보니 모든 경험이 낯섭니다. 좋은 표현이 생각나서 기뻐했던 것도, 하루 종일 고민해서 하나의 글을 써내는 것도, 내 글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정제된 차도처럼 머릿속이 파악 막혀 아무것도 써지지 않는 경험도. 웃기게도 하릴 주제가 '길' 일 때 길을 못 찾겠습니다. 식상한 글은 쓰고 싶지 않고, 독특한 시각으로 보고 싶는데 생각이 안 나고, 나만의 개성이 든 글을 쓰고 싶는데 또 그 개성은 원질 모르겠고. 참 힘듭니다. 제가 초파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까요? 이럴 땐 그냥 남이 터놓은 길 따라 흘러흘러 가고 싶은 기분입니다. 남이 터놓은 길, 너무 위대한 길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도서관만 가 보아도.... 그 아름답던 길을 따라 노정만 다니던 사람에게 새로 길을 파내라니, 이런. 오늘은 길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간 이 일에도 길이 있을까요?

😊 16 💬 5

윤소정(사회학과) 글이 유쾌하고 재밌어요! 길에 대한 주제인데 길을 못 찾겠다는 부분이 재밌게 느껴졌어요. 저도 글을 두서없이 쓰는 편이라 뭐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라이팅헬퍼를 시작했는데 잘 쓰겠다는 생각보다 부담감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쓰면 오히려 고민할 때보다 술술 써지더라고요. 은비님 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5/05/13**  
tuesday, pm 10:30 | 207회  
강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4일차

<지켜야 할 한가지 약속>

당장 손을 떼고 싶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실"이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교태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 목적도 이유도 갖고 있지않은 정해진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에게는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꿈"이라고는 가져본적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정해진 일들도 무언가를 하는 행위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는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상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고 나아가 멀어지는 빗방울의 소리 유형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더이상 자살한 사람을 비롯하지 않고 그 용기에 박수를 칠 줄 알며 "꿈"이라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꿈"이런 꾸는 것이지 이뤄내는

것이 아니었기에, 살아간다면 매번 지니고 있어야 할 중요한 소지품이기에 그는 행복마저 깨달았다. 또한 그는 완성된 작품을 "꿈"이라고 여겨왔으나 계속 찾아가며 순간순간 얻는 경험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완성된 작품은 비로소 행복을 다 조각했을 때 죽음이라는 형태로 내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그만한 일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집중하며 살아가게 된다. "나는 루 리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기타를 잡게 되었어." 지인에게 그는 말했다. "그 시간에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게 낫지않아?"라고 말한 지인에게 그는 말했다. "너는 약속을 어겼구나.."

ps.바쁜 하루를 보내고도 나만의 "길"을 이야기로 잘 풀어낸 것같음!

😊 11 💬 3

이주현(사회복지학과)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은 소중한 순간들이니 것 같습니다-

2025/05/13  
tuesday, pm 11:19 | 14:00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4일차  
길.  
길은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길이 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많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많은 것이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은 만큼 가능성도 많은 만큼 고민도 더 많아지는 것 같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결정을 내리면 내가 내린 결정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선택의 결과가 안 좋으면 후회를 하며 과거의 나를 책임질 것이다.

아무리 과거의 선택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때의 나에게 그 선택이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나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불러올지는 알 수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나의 길을 돌아보았을 때 더 성장하게 된 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10 💬 4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인생은 선택과 후회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보다 미래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2025/05/13  
tuesday, pm 11:39 | 14:00  
최현영(금융재무학과)

#4일차 #길  
요즘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다. 나는 잘 살고 있을까? 하루하루를 내 선택에 따라 시간을 쓰지만 그래도 나는 반복해서 묻는다. 내 선택이 맞을까 이게 최선이었을까하는.. 일명 결정 장애인 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히 고심하고 또 고심한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가 뭘까.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 누군가 정해 놓은 잣대에 끼워 맞추려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뭐 어때서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마.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고생했어. 오늘도.

😊 8 💬 3

김경환(화학과)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는 길이 가장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05/13  
tuesday, pm 11:57 | 13:00  
이주원(심리학과)

#4일차 #길  
나는 골목길을 좋아한다. 골목길은 늘 새롭기 때문이다. 대로변의 큰 인도는 확실히 되어있다. 길이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닐 수 있다. 근대 골목길은 다르다. 가끔 벽돌이 삐죽 튀어 나와 있어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도 있고, 각자의 집 앞에 놓여진 화분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골목길이 더 좁아져 있는 길도 있다. 그래서 골목길은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걸어야 한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남의 집 화분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골목길은 나에게 항상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 나는 앞으로 펼쳐진 내 인생의 길이 골목길이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이 대로변처럼 평탄하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런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불행도 불안감이 몰려 올 것 같다. 매일매일이 골목길만 골라 걷는 것처럼 위태로우도, 그만큼 새로운 것을 마주한다는 사실에 기대감에 차서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새로운 골목길을 겁내지 않고 성공성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9 💬 2

김명빈(미디어스쿨) 골목길에 대한 상세한 관찰과 비유가 참 인상적이에요. 위험하고 불안정한 길이지만, 그래서 더 집중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생각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불확실한 길 위에서도 기대감과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25/05/14  
wednesday, am 12:05 | 14:00  
유재하(미디어스쿨)

#4일차  
키워드 : 길

'길'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김소연 시인의 <수학자의 아침> 중 생각나는 시를 올려본다. <수학자의 아침>은 내가 좋아하는 시집인데 그중 '길'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려보다 '먼 곳', '버스', '시간', '멀리'라는 단어들만 떠올랐다. 마침 이 시집에 그러한 단어들만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이 시를 읽다 보면 쓸쓸함과 함께 왠지 모를 다정함이 느껴졌는데, 다른 분들과도 이 시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본다 :)

바깥에 사는 사람 / 김소연

버스에 가장 오래 앉은 사람은  
가장 바깥에 산다 그곳은 춥다

버스에 외투를 벗어두고 증점에서 내린 적이  
있다  
다른 나라 더운 도시의 공황이었다  
맨발로 비행기에 올라 더 멀리 나는 갔었다

옆자리에는  
같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의 이어폰에서 찌적찌적 노래가  
흘러나왔을 때  
같은 이별을 경험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때 그 버스에 가장 오래 앉은 한 사람은  
내가 벗어둔 외투를 챙겨 입고  
흑독한 거울로 무사히 들어갔을까?

버스 증점에서만큼은

커피 자판기가 달빛보다 더 환하면 좋겠다

동전을 넣고 손을 넣었을 때  
산 짐승의 배 속에서 꺼낸 심장처럼  
뜨끈한 것이 손에 잡히면 좋겠다

어떤 나라에서는 발이 시리지 않다  
어떤 나라에서는 목적 없이 버스를 탄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헌법이 걸어야 한다

피로는 크나큰 피로로만 해결할 수 있다  
사랑이 특히 그러했다 그래서

바깥에 사는 사람은  
갈 수 있는 한 더 먼 곳으로 가려 한다

-김소연, 『수확자의 아침』

😊 6    💬 2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왜인지는 모르지만  
읽으면서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명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마치 경험해본듯  
공감되는 느낌도 있고 많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2025/05/14  
wednesday, am 12:27 | 31페이지  
김양선


#4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길'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아직 정준인지라  
인생의 길 위에서 어디로 갈지 머뭇거리고  
기대하는 복잡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걷는 익숙한 길부터 어느날  
건다가 발견한 길에 대한 사유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영상,  
대중가요에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지요? 여러분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응원합니다.

😊 13    💬 0

 2025/05/14  
wednesday, am 8:01 | 39페이지  
김양선

#5일차 키워드 : 굶다  
오늘의 키워드는 '굶다'입니다. 물이 끓고,  
감정이 끓고, 분노가 끓고, 열정도 끓습니다.  
끓는다는 것은 어떤 임계점을 넘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끓게 했던 순간이  
있나요? 분노나 열정, 사랑이 끓어오르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라면이 끓기를  
기다리며 느꼈던 소소한 기쁨도 좋습니다.  
'끓다'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떠올리는  
기억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 17    💬 0

 2025/05/14  
wednesday, am 8:46 | 102페이지  
김명도(일본학과)

#5일차  
주전자 물이 끓는 것처럼 분노는 물처럼  
끓는다.  
어떤 이는 불 위에 올리자마자 금세 팔팔  
끓어오르고,  
어떤 이는 약한 불에 오래오래 대위지다 결국  
넘쳐버린다.  
나는 후자다. 콧속 찜다가, 속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뽕, 넘쳐버리는  
사람.  
화를 그때그때 내지 않는 이유는 2가지다.  
첫번째는 "귀찮아서", 두번째는 "화를 낸들,  
바뀔 것 같지 않아서"이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계속 쌓인다. 처음엔  
미지근했던 불만이 점점 온도를 올리고,  
언제부턴가는 내 안에서 '소리 없는 끓음'이  
계속된다.  
작년에 친구들과 팀플을 할 때였다. 회의마다  
사정이 있다며 불참하는 친구가 있었다. 나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고 또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내 안의 물이 넘치고  
말았다.  
"왜? 오늘도 빠진다고? 그럼 넌 뭐하는 건데?  
놀게? 난 이거 할 생각 없는 거지?"  
나중에는 어찌어찌 화해하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말을 부드럽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고 있다.

나는 지금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한다. 친구와  
자취를 하다보니, 크고 작은 일로 아주 가끔  
싸우게 된다.  
그 친구는 화를 꼭 참고, 그러다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도 마치 화가 난 치와와를  
다루듯이 평온하다. 내 물이 끓어오고 있을  
때면 내 주전자 손잡이를 조심스레 잡고,  
뚜껑을 살짝 열어 증기를 빼듯이 "왜  
화났는데?" 하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순간,  
화가 사그라지면서 끓는 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간다.

그 친구와 자취를 하는 동안에 여러번  
다뤄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  
'나만 참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말갈지도 않은 소리라는 걸.  
사람은 누구나, 다 참고 산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고,  
웃는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 친구도 분명, 내 화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  
분노가 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끓는 감정으로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건, 분명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요즘은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 증기를  
빼려 한다.  
정말 여전히 서툴지만, 끓기 전에 말해보려  
노력 중이다.

내 안의 물이 끓더라도 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법을 나는 배워가는 중이다.

😊 19    💬 8

강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지도 같은 경우인  
것같아 미도씨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화내는 법을  
모르죠. 유도리있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하는데  
배우지 못한 것같아 한이 남아있습니다. 심한 경우  
정말 필요한 말도 못해서 결국은 제 자신을 꾸짖게  
되네요.. 그래도 앞으로 기회는 계속 있기에 같이  
배워가 봅시다!

 2025/05/14  
wednesday, am 10:20 | 26페이지  
강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5일차

벌써 7일차가 다가왔네요.. 여태 심도있는  
글을 써보려고 노력 많이했고 달아주시는  
댓글에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듬어진 글보다는  
투박할진 몰라도 생(生)으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풀어가면  
좋을까 생각중에 인생을 고찰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끓다'라고  
했을 때 '열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보통은  
'열정을 불태우다'라고 많이 쓰입니다만  
'열정을 끓이다'라고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태우고 끓이는 것의 결과는 소멸로  
이어지지만 아무래도 끓이는 행위는 본래의  
형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열정을 대입해 봤을 때 멘망의 헤딩형식으로  
본질을 훼손시키기 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자신의 성장재로 쓰일 수 있도록  
의미를 살려두면 좋을 것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낭비라고 여겨지는 게임을  
하며 열광하기, 꼭 이겨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열심히 참여했던 운동회, 값비싼  
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풀어야하는 라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열정을 보여줬던 일들이 될 수 있다. 전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열정을 끝이지 않고 태워버리지 않았을까. 순간에는 엄청난 의미를 지녔지만 짧은 시간 내에 형태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너무 큰 것에서부터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인데 대단한 활동이나 일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고 현재 힘차게 살아가다보면 소소한 것에서도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유년시절, 학창시절을 후회하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말 많은 알맹이들이 존재했던 것 같다. 행복했던, 불행했던 추억들을 잘 다듬으며 앞으로 나올 수 있었기에 과거의 나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추억은 과거일뿐이야, 계속 읽어야 있을거야?"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읽매인다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사람들은 추억을 자기 안에만 있다고 여기지만 추억은 화석처럼 모양을 바꾸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과거가 아니다. 추억은 풍화해가는 것만 아니라 점차 성장하기도 하니까.. 아마도 앞서 말했던 열정을 태웠던 사람들과 곱았던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기에 각자의 알맹이들을 잘 가꾸어 나가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질투하고 남만이 사라진 지금의 한국을 바꿔야하는 것은 젊은 세대인 우리들이기에 조금은 무거운 수 있는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다.

ps.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글이라 부끄러움,,

😊 14 💬 6

김미도(일본학과) 오... "대단한 활동이나 일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고 현재 힘차게 살아가다보면 소소한 것에서도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이 부분이 참 와닿네요. 저도 학창시절을 후회하는 편인데, 이 글을 읽고 저의 알맹이들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전혀 부족하지 않고 멋진 글이네요! 아침부터 이런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2025/05/14  
wednesday, am 10:40 | 21명  
유재원(일본학과)

#5일자  
감정이 끝는다. 나는 주로 새로운 것을 탐구할 때 기쁨이 끊어오른다. 그게 내가 평소 다니지 않았던 길어든 학문적인 정보이든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간에, 기쁨이 마치 이스트를 듬뿍 넣은 빵을 구울 때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나는 라이팅 챌린지를 할 때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얻을 수 있어서 기쁨이 특히 끊어오른다. 한 가지 주제로 글의 양상이 이렇게까지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니! 이 기쁨으로 차를 끌인다면 그 맛은 천상의 맛에 버금가리라 확신한다.  
허무함이 끝다. 내가 허무함이 절정으로 끝났던 때는 수능 다음날이었다. 수능 당일 저녁에는 시험이 끝났다는 게 체감이 되지 않았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저 '진짜 이게 끝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내 주위를 맴돌았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게 하루 만에 끝이 났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다. 수능날은 공공 일었던 시간이 강한 햇빛을 받아 순식간에 끌어올라 수증기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온 허무함은 그다음 날 내 몸 곳곳에서 끌어올라 눈물로 배출되었다.

😊 13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저도 라이팅 챌린지하면서 채원님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다른 분들의 생각을 통해 갇혀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2025/05/14  
wednesday, am 10:50 | 22명  
김수진(미래융합스쿨)

#5일자  
'꿈다'

꿈다 하면 나는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 내가 생각하는 꿈다는 변화의 시작인데 라면을 끓을 때에도 평온했던 물이 바로 바글바글 끓지 않는 것처럼 끓는 것도 나름의 단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나의 변화는 끓여진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빨리 끓여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스스로 깨닫고 생각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단지 끓이는 행위가 간단하고 지루할 수 있어도 끓였기 때문에 내디딜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르게 보면  
꿈다는 건 그만큼 기다리고 참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화가 날 수도 파종이 날 수도 골치가 아플 수도  
곰곰이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물은 끓는 것을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바로바로 멈춰지지 않을까?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폭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끓여지는 걸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을 아무리 익한 불에 끓여도 스스로 끄지

않으면  
연젠가는 폭발하게 된다  
이처럼 스스로가 괜찮다고 넘겨도 마음 한 편에는 남아있으며 우리는 애써 회피한다  
나도 친구와 싸운 후 관계 회복이 어려웠을 때 애써 내 감정을 회피한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렇게까지 싸울 문제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내 감정에 회피하지 말 걸이라는 생각도 든다  
또 화가 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힘들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려는 게 끝이고 끝여서 결국에는 줄어들고 말수도 있다

이처럼 꿈다는 건 내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내 고민을 회피할 수도 있고  
폭발해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각자의 끓여짐을 확인하고 나는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12 💬 5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끓는다는 것은 내 고민을 회피할 수도, 결국 줄어들고 말 수 있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끓는다는 것 열정을 끓는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엔 줄어들고 만다는 것이.. 나 스스로의 끓여짐을 확인하는 것이 성장의 한발자국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5/05/14  
wednesday, am 11:36 | 19명  
최현영(금융재무학과)

#5일자 #꿈다  
나의 열정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 안의 분노가 들끓는 것 같습니다.  
왜 난 이것밖에 못 했을까,,하는 나에게 대한

자책이 시작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열정도 조금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를 이해해 주고 야켜 주면서 천천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넘어질 수 있다고,,  
내 자신을 자책하려는 순간에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너는 결국은 해 낼 거라고.  
여러분도 내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굴지는 않나요?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니 이제는 그런 나를 좀 더 안아주고 사랑해 주세요.  
나로서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니까!  
오늘을 묵묵히 잘 산 나에게 수고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 12 💬 7

김예나(법학과) 이미 그 꿈을 위해 실행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대단해요.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2025/05/14**  
wednesday, pm 12:24 | 19:00  
권혁빈(경제학과)

#5일차

다시 끌어오르는 계절이 돌아온다.  
주말에 비가 올 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봄이 남아있구나 생각했다. 근데 웬걸, 오늘 학교에 오려 밖을 나서자마자 햇빛이 뽕뽕하게 나를 반겨준다. 괜히 기분이 언짢아졌다. 아직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사실 이건 매년 겪는 감정이다. 내가 어릴 때보다 확실히 빨리 돌아오는 여름. 그리고 쉽게 가지지 않아 더 괴롭게 만든다.

올해 초반 하더라도 4월 말부터 가장 이른 여름이 시작된다고 여기지기서 보도가 낮았다. 벌써 5월 중순이 된 지금,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상보다는 느리게(?) 우리를 끌어 만드는 시간이 돌아왔다. 하지만 난 여름이 싫다. 해가 뜰 때부터 데워지는 느낌과 비춰지는 햇살의 공격, 장마 기간에 끊임한 공기와 편독거리는 기분. 게다가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 기관지가 예민한 나는 빠르게 바람을 피하고 바로 걸옷을 입어 여름에 주위를 대비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진다.

끓는다. 땅이 끓어오른다. 도시가 끓어오른다. 세상이 끓어오른다. 나도, 다른 사람들도 끌어오르기 시작하지만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애써 차갑게 가라앉기를 기도한다.

😊 15 💬 5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여름을 제일 싫어하는데 글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14**  
wednesday, pm 12:27 | 20:00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5일차 #꿈다

골프가 좋았다.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던 골프장에서 부모님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좋지 않았다. 부모님과 함께한 첫 스포츠였지만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첫 수업 당일 오로지 배운거라곤 골프 채를 잡은 방법, 손목 스냅을 이용한 이론들이었다. 미디어에서만 보던 골프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배웠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 혼자 앞서나가고

싶다는 마음 뿐이었다.

2일 차. 오늘도 역시 똑같은 걸 배웠다. 다른 점이라면 눈앞에 없던 골프공이 놓여있다는 정도. 물론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심통이 나 토라져 있었던 어린 모습이었다.

3일 차가 되던 날. 처음으로 골프 채를 휘두르며 공을 맞출 때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감각이 생겼다. 그걸 본 강사님과 부모님은 칭찬을 쏟아내며 응원해주었다. 그 때문일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기분이 좋아 노트에 골프에 대한 지식들을 마구 써내려갔다. 인터넷을 찾아다니며 계속 그 노트를 손에 놓지 않았다. 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부모님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웃으시며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골프를 시작한지 2주가 되어가는날.

조금 더 골프 채를 휘두르고 실전 연습량을 늘렸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노트에 빼곡히 적던 손은 멈추고 가슴이 뛰던 골프장은 어느새 지루한 공간이 되었다. 결국 그날을 기점으로 골프를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에서야 한순간 왜 흥미가 식었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그때 당시의 나는 골프보단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더 좋아했던 것 같다.

지금의 나도 그때의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한순간 끌어올렸던 감정들이 금방 사그라들고 평소대로 아무런 욕망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간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어떻게 저리 열정적일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나보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말은 항상 나를 신경쓰이게 만들었다. 누구는 칭찬이라고 견네지만

욕심이 없는 삶이란 살아가면서 목표 없이 정처없이 떠도는 삶이 아닐까. 생각만 해도 그리 즐겁네 느껴지진 않았다. 아직은 찾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나도 진심으로 마음이 끌려오르는 일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를 시작해본다.

😊 15 💬 6

권혁빈(경제학과) 항상 이상과 현실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도 어릴 때 자주 하던 만화나 그림 그리기가 생각나 이번 겨울방학 때 다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봤는데 그 당시의 감정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영원하진 않나 봅니다.

**2025/05/14**  
wednesday, pm 12:32 | 22:00  
장근희(글로벌비즈니스전공)

#5일차

우리는 각자의 꿈은 점이 있다고 알고는 한다. 각자 자신이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해내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등 꿈은 점에 도달하도록 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사소한 것에 열광하고 집중해서 그 '꿈의 점'이 무시 받고도 한다. 자신의 꿈은 점 역시 누구에게는 사소하거나 별 거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다.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사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온도는 다르다. 어떤 이는 음악 한 소절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어떤 이는 별을 보며 우주의 신비에 폭 빠진다. "그런 걸로 그렇게 신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누군가의 열정을 향한 이 질문에는 '사소한 것에 그렇게까지 열광할 가치가 있냐'는 판단이 담겨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작은 기포부터 생겨난다. 우리의 열정도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해 점점 커져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거대한 에너지로 발전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끓는 점을 발견한다. 때로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신의 열정을 숨기기도 한다. 혹은 모든 '끓음'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분노나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를 끓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끓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지해 주고 소진시킨다. 이렇듯 '끓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이 우리를 끓게 하는지, 그리고 그 끓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아는 것이다.

인생은 끓는 점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무엇이 나를 끓게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증기를 피워 올릴 수 있다.

😊 15 💬 6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인생은 끓는 점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말이 멋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만의 고유한 증기를 아서 빨리 피워보고 싶네요!

**2025/05/14**  
wednesday, pm 1:08 | 22일째  
김서희(식품영양학과)

#5일차 끓다

내 기억에 나는 7살 때부터 반에서 가장 동등한 아이였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하고 후 삼각김밥과 라면을 자주 먹으면서 인생 최고 몸무게를 달성했다.

그때 나는 라면을 정말 잘 끓였다. 나는 라면을 자주 먹다보니 눈대중으로 물을 맞출 수 있었다. 또 고들면을 좋아해서 면을 들었다 놔다하며

면이 불지 않게 하는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살이 찌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병원에 다니며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그렇게 라면과 멀어지게 됐고 4년간 라면을 거의 먹지 않았다.

작년부터 라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거의 매일 먹던 라면은 한달에 2~4번으로 줄었다. 덕분에 30kg나 감량할 수 있었지만 라면 끓이는 법을 까먹어서 매년 한강라면이나 물어버린 라면을 먹고있다.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시절, 하고 후 먹는 라면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루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위로를 건네는 존재였던 것 같다.

그래서 라면 끓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시원섭섭한 느낌이 든다.

😊 14 💬 6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저도 어린 시절에 라면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때가 그때여서 매일 학교 끝나서 라면 먹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라면은 단순히 허기가 아닌 하루의 힘들음 마무리하는 느낌이라는 존재였다는 거에 공감합니다!

**2025/05/14**  
wednesday, pm 1:12 | 22일째  
함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5일차 끓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는 조용하다. 작은 기포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거세지고 뜨거워진다. 어느 순간 뚜껑이 덜컥이고 김이 솟아오른다..

내 마음도 그랬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다. 참을 수 있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끓고 있었던 거다. 눈에 띄진 않아도, 들리지 않으려 해도 언젠가는 넘치고 터지고 마는 법이다.

가끔은 끓기 전에 불을 줄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다.

끓는 걸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변화의 시작이기도 하더라.

식은 마음도 다시 데워야 하고 멈춰 있던 감정도 한 번쯤은 끓어올라야 한다.

넘치지 않고 타지 않게 적당히 뜨거운 온도를 찾는 것... 그게 성장하는 과정 일지도 모른다.

😊 15 💬 6

김예지(사회복지학과) 감정이 끓는다는 것은 화끈한 아니라 열정, 사랑, 성실로도 할 수 있는 단어인거 같아요! 내 감정이 끓는데에는 내가 그 준비에 쏟았던 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더 끓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14**  
wednesday, pm 3:08 | 22일째  
서정원(심리학과)

#5일차 저녁에 조리실에 도착하고 나서 가방에서 나일론 조끼를 꺼내 입는다. 일본 'GU'에서 패션용으로 사 온 조끼인데 언제부터 내 맞춤형 앞치마로 전락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등 부분이 비어 있는 기존의 앞치마와는 다르게 옷처럼 입고 요리할 수 있어서 편하고, 무엇보다 밝은색 계열의 상의를 입고 요리하면 재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어서 자주 애용한다. 조끼를 입고 나선 본격적으로 요리를 준비한다. 오늘 할 요리는 '동대문 닭한마리'라서, 재료가 이것저것 들어간다. 대파, 양파, 마늘, 무, 청양고추, 액젓, 국간장(진간장 대체 가능), 치킨스톡, 감자, 칼국수 면, 대파, 부추(영양부추 가능), 고춧가루(취향껏)가 주재료이다. 그런데 다음 소스는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바로 <부추 소스>이다. 잘 끓은 닭한마리의 닭과 재료들을 이 마성의 소스에 찍어 먹어야만 한다. 부추 소스가 없는 닭한마리는 그냥 '닭 끓인 육수'이다. 부추 소스에는 닭 육수, 고춧가루, 간장, 다진마늘, 식초와 겨자, 후추, 부추 조금이 들어간다.

우선 닭을 먼저 손질한다. 닭은 클수록 좋다. 10호닭 이상이면 좋지 않을까. -호닭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가? 보통 호당 100g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10호닭이니깐 1kg이상의 큰 닭을 사용하면 좋다는 뜻이다. 그리고 동대문 어딘가의 식당에서 먹은 것처럼 큼지막하게 네 토막으로 자른다. 먹기 부담되면 여덟 토막으로 잘라도 괜찮다. 어차피 뼈만 우리는 게 아닌 이상 씹는 육수의 농도는 큰 차이가 나질 않을 테니까.

이후 큼지막하게 썬 대파 2대, 양파 1개, 무 300g과 마늘 20알, 청양고추 3개, 통후추

10g, 준비한 닭, 물 2L를 냄비에 넣고 30분간 팔팔 끓인다. 끓는 동안 닭에서 감칠맛을 담당할 육수가 우려나오고, 야채에서 시원하고 건강한 채소즙이 나오게 된다. 청양고추는 칼칼함을 담당하고, 통후추는 닭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오래 끓일수록 감칠맛은 축적되기 때문에, 닭을 30분 삶았으면 건져내고 육수가 반으로 줄어올 때까지 계속 끓인다. 여기서 치트기를 쓸 수가 있다. 각각의 맛을 담당하는 야채와 닭이 오랫동안 노력해서 얻은 육수인데, 그 노력을 저장해 밟고 지나가는 마성의 재료. 바로 '치킨스톡'이다. 딱딱 끓인 닭 육수에 MSG라고 알려진 L-글루탐산나트륨 등을 넣어 고체화한 치킨스톡 덩어리 한 개를 물 1L에 넣기만 하면 닭을 직접 오래 끓였을 때와 비슷한 감칠맛의 육수를 만들 수 있다. 여러 명이 노력해서 쌓은 결과물이 한 최대의 천재가 만든 작품에 의해 대체되는 느낌이다.

완성된 닭 육수는 부추 소스에 넣을 다섯 숟가락 정도만 남겨두고 채로 걸러 따로 빼놓는다. 이후 닭과 야채의 맛 외의 것들을 가미한다. 여기서 열치액정은 치킨스톡과 마찬가지로 감칠맛을 내준다. 간장 또한 감칠맛을 내어 주지만 육수에 색을 내고, 추가적인 간을 할 때 한 스푼씩 넣으면 좋다. 육수의 농도를 잡기 위해 감자를 큼지막하게 썰어 전분을 뽑아도 좋다. 대파도 한 대 송송 썰어 넣고, 부추도 취향껏 넣어 한 번 더 끓이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것저것 넣어 끓이다 보면 준비한 냄비가 넘칠 때가 있다. 특히 나는 주로 기숙사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금지막한 냄비가 없고 중간 크기의 냄비밖에 없는데, 항상 "안 넘치겠지~"하는 마음으로 다 넣다 보니 끓여 넘치게 된다. 그래서 내용물을 다른 작은 냄비에도 옮겨 담아 두 개의 냄비를 끓이는 경우가 일상다반사 하다. 한 번 당한 이후로 넘치지 않기 위한 큰 냄비를 사면 될 것을,

계속 "나중엔 괜찮겠지"하는 마음에 기존의 방식을 이어가다 또다시 실수한다. 생각해 보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 부분적이고 국소적인 것만 보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국적으로 본다면 내가 그동안 보았던 나무들이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세상을 향한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 시야에 있는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활용할 줄 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에 4인분 이상의 국 요리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큰 냄비를 하나 사 놔야지.

마지막으로 부추 소스는 위에 언급한 소스 재료를 하나로 섞어 준비한다. 그리고 닭, 감자, 떡 등을 이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된다. Enjoy!



22년 봄에 만든 닭한마리 아 배고파

😊 13 💬 21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와 저거 닭여항 국물은 당연히 맛있을 거고, 저 육수를 머금은 파가 진짜 맛있을 텐데요. 칭 고이네요... 어려모로 맛있는 글입니다. "나중엔 괜찮겠지"했던 마음도 반성하게 되네요!



2025/05/14  
wednesday, pm 3:55 | 19218  
김예지(사회복지학과)

#5일차 -끓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찜개 냄비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다. 나는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로 고집한다. 요즘은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처럼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기들이 많지만, 웬지 그건 불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 아쉽다. 직접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국물이 끓는 리듬을 맞추는 게 좋다. 약한 불로 오래도록 몽근히 끓이면 재료의 맛이 국물에 스며들고, 어느 순간 국물은 진한 맛을 품게 된다. 마치 마음을 담아내는 과정 같다. 급하게 끓인 음식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온기가 있다.

가스불 앞에 서서 찜개가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마음과도 비유할 수 있다. 때론 마음속 감정도 두정 덮은 냄비처럼 끓어오르다가 넘치기 직전이 되곤 한다. 너무 세면 넘치고, 너무 약하면 익지 않는다. 적당히 몽근한 온도를 유지하며 기다리는 법. 그런 자세로 찜개도, 나도, 오늘 하루도 천천히 끓여낸다. 그렇게 가스불 위에서 무언가를 끓인다는 건 단순한 조리과 더불어 삶을 천천히 다스리는 일처럼 느껴진다.

😊 18 💬 7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저도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을 쓸 때마다 렌지 요리하는 맛이 없어서 별로였는데, 사람들이 하도 편하다 하니 나만 그런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아는

분이 있다니 참 반갑네요!

온도를 유지하며 하루를 끓여낸다는 비유가 좋은 글입니다. 오늘 예지님의 온도가 적당하길 바랍니다!



2025/05/14  
wednesday, pm 4:55 | 25518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5일차

여름을 대비해 식단을 시작하지 3주 차다. 처음에는 끓여넘치는 열정으로 완벽한 단단지 비율을 맞춘 식단을 했지만,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많다. 가끔 떡볶이도 먹고, 귀찮을 땀 적당히 타입하며 식빵 한 장에 계란을 올려 먹을 때도 있다.

오늘 아침에는 식빵을 살짝 구워 크림치즈를 올리고, 올리브유에 구운 계란후라이를 얹어 먹었다. 영양성분이 부족한 것 같아 작은 찹쌀마도도 한 알 먹었다. 식사 후에는 준비를 하고, 헤드폰을 끼고, 커피를 마시며 헬스장으로 향했다.

헬스장에는 내가 처음 식단을 할 때처럼 열정이 끓여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다른 점을 찾자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4년동안 꾸준히 운동을 한듯한 몸이었다는 것. 한 공간에 있다 보니 열정도 올는 건지, 오랜만에 레그프레스의 무게를 완판을 한 잠씩 더 꽃아보았다. 새로운 한계점을 찾는 출발이었다.

이 공간은 웃긴 구석이 있다. 가기 싫어서 한창을 망설이며 몸을 질질 끌다가, 막상 도착하면 갑자기 에너지가 쫄다 못해 폭발하곤 한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무리를 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이른 저녁으로 사브사브를 먹기로 했다. 사실 나는 사브사브라는 단어를 '발만 담갔다 빼는' 것을 비유할 때 더 자주 쓴다. 평소의 나는 취미든 뭐든 다 발만 담갔다 빼곤 해서, 이 단어를 나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3주가 조금 넘는 시간동안 나는 식단을 이어오고 있다. 장죽의 발전이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속 사브사브를 지켜본다. 온갖 야채가 그 속에서 덩실대며 춤을 춘다. 헬스장의 끌어오르는 공기 속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내 모습 같아서 웃음이 났다.

😊 17 💬 8

김예지(사회복지학과) 표현이 참 귀엽다고 생각되는 글이었어요. 끓으면서 생기는 기포로 안에 있는 재료가 움직이는 모습이 덩실대라는 말로 비유되고 그 모습이 서진님의 모습까지 연상되니 재밌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2025/05/14**  
wednesday, pm 5:39 | 25일째  
조은재(간호학과)

#5일차 #끓다

무엇이 끓고 있는가

아버지예겐 구더기가 끓는다  
어머니의 목연 가래가 끓고  
동생의 이마는 필름 끓는다  
덜 익은 밥으로 뱃속이 끓는다  
엇그제 입힌 국은 끓지 않는다  
방바닥도 절절 끓지 않는다  
거리에는 한숨들이 끓는다  
나의 두 눈엔 절망이 끓는다  
향할 곳 잃은 분노가 끓는다  
끓는 눈에서 넘치는 물은  
식힐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애꿎은 목에 찬물만 붓는다

피가 끓는다  
여전히

😊 17 💬 10

박지영 (경제학과) 끓음이라는 게 이렇게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구나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분노의 모습을 더 많이 상상한 거 같은데, 마치 다 무너져가는 세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운이 진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14**  
wednesday, pm 5:41 | 25일째  
이주현(사회복지학과)

#5일차

나는 '끓다'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라면이 떠올랐다. 라면은 엄청 비싼 음식도, 엄청 먹기 힘든 음식도 아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하지만 그 맛은 엄청나다. 나예겐 라면에 대한 추억이 하나있다. 삼양의 '맛있는 라면'이라는 이름의 라면과 관련된 추억이다. 나는 어렸을 때 작은 아버지 집에 자주 갔었다. 원가 집에서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무엇보다 조카가 이쁘다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나를 엄청 챙겨주셨다. 이 집에는 '맛있는 라면'이 박스 형태로 많았다. 항상 나가 가면 작은 아버지가 "맛있는 라면 먹을까?"라고 해주셨고 나는 바로 주저없이 "해주세요!" 라고 했다. 그러면 곧 작은 아버지 집에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라면의 향기가 퍼지면서 나는 참샘이 폭발하게 되었다. 후후 불면서 아직도 끓고 있는 라면을 한 입 먹으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라면'이란 라면이 맛없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하지만 난 이 라면 안에 어린시절 소소하지만 엄청나게 행복했던 추억이 담겨있어 이 라면이 아직도 좋다. 또 다른 부끄러운 추억을 하나 더 말해보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팠을 때였다.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누워계셨는데 그때 나는

엄마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했다. 엄마는 기특한 마음에 좋다고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내가 라면을 끓이고 있던 것이다. 라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던 나는 아직 안 익었는 줄 알았는데.. 죽이 되었다..엄마는 지금도 그때 일을 말하시면서 나를 계속 놀리신다. 참 부끄러운 추억인 것 같다. 나의 마음은 진심 이었는데. 이처럼 라면엔 사람들만의 추억이 담겨있는 것 같다. 보글보글 끓인 맛있는 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삶에 가까이 있는 것 같다. 내일에도 라면을 먹을 생각에 또 다른 추억이 생길까 궁금하다!

😊 17 💬 14

김미도(일본학과) 누구나 특별한 추억이 있는 음식이 있죠. 저는 라면은 아니지만, 다른 음식 중에 추억이 있는 음식이 있어서, 그걸 먹을 때마다 꼭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 고마워요!

 **2025/05/14**  
wednesday, pm 5:42 | 25일째  
박지영 (경제학과)

#5일차 #끓다 #뜨겁고 #차갑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끓다'란 '액체가 덩시 뜨거워져서 소리를 내며 거품이 솟아오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대개 '뜨겁다'는 인상을 준다. 냄비 속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증기로 변하는 장면은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 아래에서 솟구치는 불길도 당연한 배경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과학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다. 예를 들면, 드라이아이스처럼 매우 낮은 온도의 물질도 물을 끓게 만든다. 결국 고온이든 저온이든, 조건만 맞으면 물은 끓는다.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이 단순한 물리 법칙을 넘어서 사회와 삶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뜨겁든, 차갑고 무감하든, 이 사회는 지금도 팔팔 끓고 있다고 나는 느낀다.

요즘 나는 페미니즘을 둘러싼 논쟁을 보며, 사회의 '끓는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여성 인권이 충분히 향상되었고, 이제는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여전히 여성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사회는 이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누구는 통계를 들어 남녀 간 소득 격차를 지적하고, 또 누구는 '여성전용'이라는 표현의 배타성을 문제 삼는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객관적 수치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감정이 실리는 순간, 우리는 끓기 시작한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충돌하고, 어떤 감정은 증기처럼 수면 밖으로 튀겨져 나간다. 결국 '끓음'은 사회를 무한한 충돌로 이끈다. 이처럼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감정의 온도 싸움으로 번지곤 한다. 어떤 말은 너무 뜨겁고, 어떤 말은 지나치게 차갑다. 분노로 가득한 말은 데일 듯 뜨겁고, 무관심은 얼어붙을 만큼 차갑다. 그리고 그 극단의 온도는 서로에게 화상을 남긴다. 우리는 보통 뜨거운 것에만 데인다고 생각하지만, 드라이아이스처럼 차가운 것에도 피부는 깊게 상처를 입는다. 말이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는다. 흥미로운 건, 우리는 이 전혀 다른 상처를 '화상'이라는 같은 단어로 묶는다는 점이다. 결국 남는 건 말의 온도가 아니라, 그 흔적, 상처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갈등과 논쟁, 때로는 상처까지도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멈춰 있지 않은 사회, 즉 '끓는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끓는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고, 낡은 체계에 질문이 던져지고, 감정이 격해지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기존의 질서는 흔들리고 새로운 흐름이 생겨난다. 끓는다는 것은 단지 온도가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더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내부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는 신호다. 우리가 겪는 혼란과 논쟁, 피로와 분열,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통과의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통증이 클수록, 변화의 온도는 더 깊고 강렬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끓고 있다. 누군가는 말로, 누군가는 침묵으로, 또 누군가는 분노로, 혹은 그저 살아내는 것으로. 이 모든 끓음이 결국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고 싶다.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끓게 할 수 있는 사회라면, 언젠가 이 끓음은 더 나은 온도로 수렴되리라.

😊 20 💬 5

**조은채(간호학과)** 저는 글 쓸 때 사전적 정의를 주로 보는데 사전에 담지 못한 사실이 있었네요. 끓음의 속성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신 점에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글쓴이님이 평상시에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상징적이고 멋있어요...

모임이 쉬워진다!



2025/05/14  
wednesday, pm 6:11 | 2771회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5일차

나는 분명한 내일, 그리고 미래를 그리고 있다.  
아프지 않고 큰 걱정거리 없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현재의 내 몸을 갖고 있으며 열정을 끓이고 있는 중인 것 같다.

타인이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열정이라 할지언정 내겐 최선이고, 스스로에게 최선으로 다가왔다면 그리고 현재 만족하고 있다면 끓고있는 열정의 온도를 굳이 무시해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전엔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열심히 산다"의 개념인 줄 알았기에 내 속도를 포기하고 무리하게 쫓아갔다. 그러니 결국 지치는 건 나였고 버거운 건 나였다.

어제 올렸던 글에 썼던 내용처럼, 우린 이 땅 위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니 너무 성급히 생각 않아야겠다.

급하게 끓인 물보단, 오래 타오른 열정이 남긴 증기에서 성공은 피어나기 마련이기에.



😊 14 💬 6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현재 만족하고 있다면 끓고있는 열정의 온도를 굳이 무시해서 올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듣고...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위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2025/05/14  
wednesday, pm 6:36 | 1887회  
한예림(데이터테크리공)

#5일차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변하면서 보글보글 끓어오른다. 물의 끓는점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측정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의 마음은 온도계로 측정할 수 없고 일정한 공식이나 기준으로 끓는점을 정할 수도 없다. 사람의 마음이 끓는점은 몇 도일까?

누군가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또 누군가는 긴 시간 참아왔던 억눌림이 한순간 터져 나올 때 마음이 끓는다. 그 순간 마음속 감정들은 더 이상 눌러둘 수 없을 때 터져 나온다. 사람의 마음의 끓는점은 복잡해서 단순히 '끓는다'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다. 끓는다는 것은 결국 변화하는 것이다. 물이 기체로 바뀌듯 마음도 끓고 나면 예전의 상태로는 돌아가기 어렵다. 감정의 폭발은 흔히 후회를 남기도 하고 때로는 후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서로의 끓는점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내겐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서로의 마음의 온도를 존중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12 💬 6

**김명빈(미디어스쿨)** 마음의 끓는점은 정말 각자 다르고 복잡해서 과학적 수치로 잴 수 없다는 표현이 깊게 와 닿아요. 같은 상황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작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감정의 온도는 개인의 경험과 상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우리 사이에 진정한 온기를 불어넣는 길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25/05/14  
wednesday, pm 7:52 | 2271회  
최연주(디지털미디어콘텐츠)

#5일차 #끓다

분노가 끓는다.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서 쉽게 화를 표출한다.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그런지 전염되는 것만 같다. 별일도 아닌데 화가 쉽게 난다. 부정적인 것은 머리속에 더 잘 남는다더라.

기쁨이 들끓는 세상이 될 순 없으려나. '다 괜찮은데 이것만 고쳐라'가 아니라, '너 자체로 다 괜찮다' 하는 세상. 그냥 있어줘서 고마워라던가. 작은 흠을 크게 부풀리지 말고 다른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해보자. 우린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사람이다.

😊 14 💬 6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따뜻한 마음이 외닿는  
기분이네요 요즘은 익명으로 말을 너무 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연주님 것처럼 기쁨이  
들끓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5/05/14  
wednesday, pm 8:09 | 29위  
채은비(생명과학과)

#5일차

#꿈다

나는 언제나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대로도 좋을 나를 그곳에 집어넣고,  
이것저것 원지도 모를 덩어리들을 내게 넣고  
불을 지킵니다. 온물이 뜨겁게 달아올라  
보글보글 웅부렁칠 때, 내게 담긴 그들은  
서서히 익어 갑니다.  
나는 왜 끓어야 하나요.  
나는 있는 그대로도 좋습니다. 나는 꿈꿨  
알아있어도, 적당히 시원할 때도, 뜨거울  
때도.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끓어야  
하나요. 그곳에 담겨 불 지킬 때, 내게 담긴  
그들이 익어갈 때.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에 담긴 것들은 스스로 익지 못합니다.  
스스로 내게 섞여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끓어야 하나요. 그들을 받아들여 조금 더  
진해지기 위해, 조금 더 깊어지기 위해...?  
그 고통을 견디고 불길아 끝난 후에, 나는 더  
이상 지금의 내가 아니게 되겠죠. 나는 더욱  
진해지고, 깊어진 후에 따뜻한 한 그곳이 되어  
천천히 식어 갈 겁니다....

😊 14 💬 4

서정원(심리학과)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게 담긴  
것들이 익어갈 때 고통스럽다고, 있는 그대로가  
좋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고통을 거친 후에는  
깊어지고, 따뜻해진 결과물이 산출되고 천천히  
식어간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줄 알면서도, 나를 성장시킬  
고통은 회피하지 않는, 니체의 '위버멘쉬'같은 삶.



2025/05/14  
wednesday, pm 8:13 | 29위  
임예민 (사회복지학전공)

#5일차

꿈다: 어떠한 감정이 강하게 솟아나다.

주제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글이 써지지 않아서, 글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예뻐, 이따가 마저  
써야지... 마저 드림 레슨에 갈 준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유레카를 외쳤다. 맞다! 나에겐  
드림이 있구나! 나에겐 너무 당연한 존재라  
이 악기가 주는 고통을 잊고 있었다. 그래,  
오늘은 내 친구 드림에 대해 소개해야겠다.

15살 때부터 처음 드림은 내 몇 없는 취미 중  
하나이다. 드림은 참 매력적인 악기인데,  
밴드의 유일한 타악기로서 모든 악기를  
이끈다. 내가 벨라지엔 모두가 빨라지고,  
내가 실수로 연주를 멈추면 모두가 멈춘다.  
드림은 나에게 모두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품게 한다.

또한 건강도 안 좋아지게 만들었다. 드림을  
치다 손목이 너무 아파져 정형외과에 간 적도  
있고, 차음폰(귀마개) 없이 연주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이명으로 고생한 적도 있다. (내  
귀를 안 좋아지게 만든 주범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너무나 재미있다. 내 인생에 드림은  
빼놓을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악기이다.  
드림이 안 처지면 답답함이 끓고,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곡을 연주했을 땐 기쁨과 뿌듯함이  
끓는다. 늘 나를 고생시키지만, 매주 드림  
레슨을 받으러 가기 위해 시간을 낸다. 참  
귀찮고 시끄러운 친구이지만, 오늘도 내

친구를 만나러 간다. 역시, 드림은 오늘의  
'꿈다'라는 주제와 가장 적합했다.

😊 12 💬 5

이주원 (심리학과) 해빈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  
너무 멋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드림을 가르쳐줘서 잠깐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 밴드부의 공연을 보고 드림을  
치는 학생이 제 눈에는 제일 돋보였기에, 드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황금처럼 느껴졌었죠. 근데  
저는 타고난 박치였는지 기본 조작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전이 드림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해빈님 글을 읽으니 저는  
드림을 잘 치려는 노력조차 안 한 게 티가 나네요.  
해빈님이 부상을 감내하실 수 있는 만큼 드림이  
해빈님에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부러워요.  
멋있네요.



2025/05/14  
wednesday, pm 9:57 | 29위  
윤소정(사회학과)

#5일차 #꿈다

<지켜보는 주전자는 끓지 않는다>

'꿈다'라는 키워드를 보고 제일 먼저  
'지켜보는 주전자는 끓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생각났다. 이 속담을 초등학교 시절에  
과학시간에 끓는점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 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뜻을  
해석하자면 '조바심을 내면 시간이 더디게  
간다.' 혹은 '서두른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와 같은 의미이다.

설레발치지 말고 겸손하라는 의미로  
생각했는데 '주전자가 언제 끓나 지켜보던  
순간'을 생각해보자면 라면 물을 올려놓고  
헬리 꿀길 기다리던 순간, 배달음식을  
시켜놓고 언제 오는지 배달이름을 계속  
들여다보는 순간, 여행가는 날짜를 기다리던

게 생각이 난다. 모두 설레는 순간들이다.  
이런 설레는 순간들만 떠오르다니..!이정도면  
끓는 주전자정도야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는  
청개구리같은 생각이 든다

😊 10 💬 4

이주원(사회복지학과) 지도 글의 초반에서 읽었을  
땀 좀 지켜봐라 라는 의미로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한 성격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고  
느낍니다!



2025/05/14  
wednesday, pm 10:26 | 29위  
조하경(정치학과)

#4일차

올해 초, 유럽에 간 지인의 집을 바꾸게 돼서  
2주간 남의 집에 묵었다. 제 집 밖의 세상은  
잘 모르는 집들이이기에 신축 아파트의  
편의에 놀랐다. 엘리베이터를 한관에서  
부르고, 화장실의 불은 자동으로 켜지며  
싱크대의 물을 발로 밟아 켜고 끄고.

흔늬 모먼트를 발휘하다 술을 배가 고파져  
요리하고자 주방으로 넘어갔다. 메뉴는 오는  
길에 특가로 사온 차돌박이. 냉장고 속  
야채들과 고추장을 꺼내고 식기도구들을  
뒤적거리 어찌저찌 냄비와 주걱을 찾았다.  
문제는 인덕션. 평생 써온 가스렌지는 누르고  
돌리고 스파크가 탁탁 튀기면 불이 붙는다.  
원숭이도 가르쳐주면 할 수 있을 이 단순함.  
근데 이 평평하고 세련된 녀석은 당최 감이  
안온다. 어르신들께서 키오스크를 처음  
접하는 당혹감이었을까.

우선 신문물을 접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불만한 합리적인 행동부터 시작했다.  
전쟁영화 속, 누가봐도 미사일 발사 버튼 같이  
가장 통글고 큰 놈을 누르는 것. 그 버튼부터  
시작해 모든 버튼을 눌러봐도 반응이 없자 난

합리적인 선택지였던 메뉴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덕선의 제 주인에게 전화했다.

'뚜.뚜.뚜.'

아, 내 발신 전파는 공중위를 떠돌고 있겠구나.

구글링을 해보니 인덕선은 가스가 아닌 전기를 먹는다고. 서랍장 옆칸에 붙은 전기차단버튼을 내리고 인덕선의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니 드디어 불그스름한 빛이 인덕선의 심연에서부터 부양하기 시작한다. 함께 벽차오른 나는 통행크스 마냥 불이 꺼질라 바로 냄비를 올려 열을 달구기 시작했다.

1분이 지나고 손을 올려보니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비슷한 시간이 한번 더 지나도 마찬가지. 고개를 꺾어 인덕선에 맞닿은 냄비를 보니, 붉은 불빛은 희미하게나마 보인다. 전기는 분명 들어오는데, 버튼의 전원은 정열하고 있는데, 일단 열은 올라와야 고기를 올리니 인덕선은 원래 예약시간이 긴가보다 하고 한참을 기다렸다. 모르긴 몰라도 10분 정도는 지났을까. 이제 손을 올리면 '앗뜨' 할 정도의 온도는 됐다면, 얼어붙은 차를 녹이기에는 한참이 모자랐다. 이걸 아니다 싶어 다시 구글링.

Q. 인덕선 냄비가 안뜨거워져요.

A. 인덕선 냄비가 잘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인덕선용 냄비가 아니거나, 인덕선과 호환되지 않는 냄비 바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덕선은 자성이 있는 재질의 냄비에서만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냄비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 인덕선은 또 전용 특수 냄비를 필요로 하는구나.. 인덕선도 짝이 있네.. 바보같은 나는 지 짝도 아닌 냄비에다가 헛것 열을 내고

있는 인덕선에게 미안해 당장 맞는 짝을 찾아주었다. 그러자 10초나 되었을까. 제박을 찾은 인덕선과 인덕선 전용 냄비가 함께 만드는 온기가 느껴지자, 차돌박이를 넣고 야채와 고추장을 꺼내 볶았다. 생각에도 없던 술을 꺼내와 차돌고추장볶음을 안주상아 떨어넘겼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역시 아날로그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새롭고 화려중은 화구라도 잘못된 냄비와 만난다면 끓이는 커녕 따뜻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외로울때 술을 찾는다는 사실을.

😊 14    💬 9

김미도(일본학과) 저도 자취하고, 처음으로 인덕선을 제대로 써봤는데, 그 때 처음으로 전용 특수 냄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저도 아날로그 인간이라 공감되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14  
Wednesday, pm 10:27 | 19918  
김미도 (미디어스쿨)

월요일에 물 올려놓은 내 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더니 금방 팔팔 끓어올랐다. 딱히 물을 세게 뜬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 이미 넘치고 난리였다.

교수님께 메일 보내는 거 까먹고

제출해야 할 과제도 까먹고

캘린더에 적어둔 일정도 뒤돌면 까먹고

까먹은 게 너무 많아서 배부르다.. 하하

이쯤 되니 뇌가 끓다가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닐까 싶다. 머리는 텅 비고 손에는 할 일이 꼭 차서 나는 그냥... 멍하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친구가 한마디 했다.

"너 드디어 미쳤구나."

응,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의 노동요 <손담비-미쳤어>



#5일차

😊 17    💬 6

조하경(청각학과) 역시 유쾌하세요 저는 하루 빡빡한 스케줄을 마무리할때 뇌의 과부하로 인한 그 멍- 함이 언젠가부터 반갑더라고요. 아, 이정도 백세계 굴렀으니 내일은 어느정도 뇌의 용량이 늘어났으려나- 하구요 ㅎㅎ. 미친 세상에 안미친 사람이 미친거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2025/05/14  
Wednesday, pm 10:33 | 19918  
정우현(정치행정학과)

#5일차 #끓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는 절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이 절음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청춘은 귀합니다. 우리는 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끓는다는 것은 내 역망과 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뒤에서 우리를 재촉하기도 합니다.

절음은 길지 않고 분명히 언젠가는 떠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기에 놀아라, 놀지 말아라 하며 혼계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얼 하든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삶에서의 시간은 모두 귀한 시간이고 삶에서의 모든 경험은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모양이든 아름답습니다.

모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는 달리 필드 위의 모든 선수들은 전광판을 봅니다.

몇 점 이기거나 뒤지고 있는지,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또 무엇보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봅니다.

우리는 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언젠가 떠날 이 청춘, 어떤 방식으로든 진하게 한번 사랑해봅시다.

😊 12 💬 8

김예진(생명과학과) 유현한 시간이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학우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아야겠어요



2025/05/14  
wednesday, pm 10:56 | 250908  
정우현(철학과)

#5일차

저는 피가 끓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처음으로 피가 끓었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게임에 중독됐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그렇게 게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 게임이 부질없다고 느껴 성인이 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제 취미는 영화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제 피는 끓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던 새로웠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보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많이 봤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영화는 제가 겪지 못한 삶을 간접 체험하게 해줍니다.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하여 사건을 함께 해결하는 그 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스릴러를 보통 좋아해서 긴장의 순간을 즐기는 편입니다. 피를 끓게 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삶의 활력을 만들어주고 원동력이 되어주니까요. 앞으로는 피를 끓게 해주는 것들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저는 뜨거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12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우현님은 영화를 좋아하시군요! 저는 뮤지컬을 좋아해서 우현님이 끌도록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뮤지컬을 끌도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25/05/14  
wednesday, pm 11:04 | 250908  
최민수(인문방송융합미디어전공)

#5일차

글(Scratched)

글이면, 끓는다. 오늘 난 글렀다. 처음 본 사람의 한마디에 의해.

“오늘 라이팅질인지 주제 뭔지 아세요?” 어쩌다 보니 이번 썰린지에 같이 참가하게 된 지인분께 물었다. “아 아까 봤는데, 오늘 뭐였지? 뜨겁다? 따뜻하다? 뭐 그런 거였을 걸요.” 핸드폰 속 네이버 밴드를 켜서 확인해보니 ‘끓다’였다.

주제를 보자마자 떠오른 소재는 ‘한국 사회의 냄비 근성’이었다. 대학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물이 끓는 현상 등으로 서론을 연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마치 냄비처럼 하나의 주제에 대해 급하게 분노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관심이 식어버린다는 걸 지적한다. 이후 공자의 중용(中庸) 사상을 소개하고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화(和)라는 태도를 강조하려 했다. 글 마지막에는 작년 연말부터 급박하게 이어진 비상계엄·항공참사·탄핵 심판·조기 대선으로 인해 언론이 하나의 의제에 대한 심층 취재를 못 한 채 다음 의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비판하며 ‘언론의 이슈 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끝내면, 나름대로 구성이 괜찮은 칼럼이 될 것만 같았다.

그런데 이 계획은 주제를 본 지 약 5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지인분과 내가 대화하던 뒷편에서 컴퓨터를 수리하시던 어떤 교직원분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저번 주까지 절반 됐던 CLC 3층 어느 방의 컴퓨터 와이파이가 갑자기 먹통이 됐다. 여러 가지 시도해보다가 결국 학교 전산원 직원분들을 불렀다. 방문해주신 직원분이 나를 보고 뭔가 물어보고 싶은 듯이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혹시 조교세요?” 질문을 받는 순간 1초간 머리가 멍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내가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학부생입니다...” 아, 제대로 글렀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아니, 도대체, 내가, 어딜 봐서? 조교처럼 보였던 알인가? 이제 3학년 1학기인데! 아직도 음식점 가면 “아유, 고등학생이 잘 먹네~ 음료수는 서비스야~”하면서 어리게 보고 서비스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21학년 동기 중에서는 나를 여러 보인다는 소리도 많이 들는데! 아, 이런 거에 굴하는 거 자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푸,,,크흠,,, 흠,,,” 주변에서 내가 글썽 반응에 웃음을 참는 지인들. 나도 스스로 이런 사소한 거에 글렀다는 거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전산원 직원분도 그냥 내가 컴퓨터 앞에서 서성이고 있으니까 물어보신 거였을 테다. 근데 어쩌라고. 나는 이미 충분히 글렀다고.

악의 없이 순수했던 그 하나의 질문에 굴하고, 끓어올랐다. 나도 앙심이 있기에, 이런 유치한 마음으론 오늘 도저히 칼럼을 쓸 수 없었다. 소설가 한강은 소설을 쓰면서 “심장 속, 아주 작은 불꽃이 타고 있는 곳. 전류와 비슷한 생명의 감각이 솟아나는 곳”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했다. 뭐, 나도 비슷하다? 지금도 머릿속에는 “혹시 조교세요?”가

멤돈다. 아직도, 심장 속 불꽃이 타고 있다. 내 마음의 냄비가 끓는다. 이런 마음이 유치한 걸 아는데도, 여전히 끓는다.

😊 15 💬 9

엄혜반(사회복지학전공) 너무 귀여운 글이네요!! 가끔씩 사소한 말에 굴러 휘당해하곤 했던 제 자신이 생각나 살짝 웃으며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025/05/14  
wednesday, pm 11:09 | 250908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5일차

끓다.

끓다를 보면 분노나 열정 같은 에너지가 넘치는 것들이 생각난다. 항상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에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 어렸을 적에 나도 모르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 화를 내자마자 처음으로 가슴이 끓는 느낌이 났었다. 순간적으로 내가 화를 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스스로도 너무 놀라 부모님께 바로 사과를 드렸다. 그때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 이후로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다.

화를 표출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낫선 느낌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기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견디기만 했던 마음은 오히려 알 수 없는 행동을 만들었다. 몇 달 전에 나도 모르게 또 아빠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사소한 것에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었다. 차분하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면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내가 아닌 것 같았다.

그 이후 감정이나 마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았다. 감정은 견디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감정 일기도 써보고 감사일기도 써보고 다양한 방법을 써보았다. 그렇게 하고 나니 들쭉날쭉했던 감정을 차분히 흘러보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끌리는 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보다 전전히 나의 온도에 맞춰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 12 💬 6

엄서영(바이오메디칼학과) 글에서 벌써 리경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언젠가 끌리는 마음을 터뜨려 내보내지 않고선 못 살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한없이 터져버린 마음은 결국 나조차 녹이더라고요. 끌리는 마음을 잘 다루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14  
wednesday, pm 11:29 | 14318  
유재하(미디어스쿨)

#5일차

키워드 : 글다

나는 끌리는 순간이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화가 나는 순간 "화가 난다"고 표현을 하는 편이지,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느날은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내게 마구 무례를 범하기도 한다. 나를 위한 말로 포장하며 나를 가장 상처주는 이들이기도 하다.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나는 되려 회피나 도망을 택했던 날도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나를 지키는 선에서 해야 할 말을 꺼내놓긴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는 행위나 단호함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나는 조금 어렵다.

나는 종종 얼어있는 상태이다.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가 오히려 나에게 훗날의 커다란 분노를 가져오는 날도 있다. 생각해 보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미지근한 평정심이 아닌, 녹는점인 것 같다. 나의 얼어붙은 얼음이 어느날 "땀"하고 녹는 모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각자의 끌는점, 녹는점, 어는점은 그냥 다채로운 감정들일뿐이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을 억제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고 더 내색하고 더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끄럼도 거리낌도 없이 내색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왔으면 좋겠다. 다양한 감정들을 나쁘다/좋다, 긍정/부정으로만 구분짓지 않고, 일부러 참거나 과하게 표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란다.

😊 11 💬 5

최은교(간호학과 20256392) 사람마다 확실히 본인만의 온도가 있죠. 이 글에서 나타난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꼭 끌는점이 아니라 녹는점, 어느점일수도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끼리, Band!

2025/05/14  
wednesday, pm 11:39 | 14318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5일차 #글다

5월 14일.  
알람을 끄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침대에서 부엌으로 걸어나갔다. 짧은 복도를 지나쳐 목적지에 도착해 주전자들 들어 정수기 반컵을 담는다.  
-포르록 낙차하는 물 소리를 들으며 아주 잠시 눈을 감는다. 곧 사라진 소리에 감긴 눈을 뜬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주전자들 다시 원위치시켜 전원을 끈다. 물이 끓을 동안 컵에 카누 라떼 믹스 커피 포다리를 넣어 흰 가루와 검은 알갱이를 쏟아냈다. 김이 새어나오는 주전자들 들어 다시 -포르록 갓 끓인 물을 부으니 입자들은 연한 갈색의 액체로 바뀌었다. 티스폰으로 -취리릭. 바로 마시기엔 뜨거워 나는 다른 컵에 냉수를 받은 후 커피에 부어줬다. 드디어 마시기 적당한 온도감을 맞추고, 내 하루의 첫 루틴인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커피를 마셔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었지만, 여전히 피로감이 가득해 다시 놓고 싶다면 마음이 들끓지않 학교를 가야하는 오전 10시 10분이기에 11시 수업을 가기 위해선 준비해야할 꽤 촉박한 시간.  
'오전 6시 30분 경에 잔 내 탓이지.'

5월 13일 평소보다 덜 다듬은 생각들로 글을 적었다. 22시에 배드민턴 동아리:하이콜리어 정기 모임인 것을 어쩌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길인 것을. 아이디어가 끊어올랐지만 수많은 생각들을 물리고 허겁지겁 글을 올려 배드민턴을 치러 나갔다. 집에 오니 다음 날로 넘어가고 고요함이 내려앉은 시각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한 주제로 수십개의 글을 대부분 정독하며 읽어나갔다. 그들의 세계관을 엿보니 또 다시 피가 끓어오는 이

기본. 어 나의 파란 시간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밴드 글 이후엔 ai와 질문을 하다보니 파란 시간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색으로 방 안은 차올랐다. 이제는 정말 자야한다..

-호로록 커피를 마시고 잠깐 잔을 식탁에 내려놓는다. 내 낮은 시선으로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귀여운 머그컵이 들어왔다. 내 덕후 기질이 끓어오르는 라인프렌즈 미니니들.

꽤 최근 독섬역 근처에서 대규모 드론 쇼를 15분 정도 했었다. 광광 타지는 폭죽 대신 드론으로 색을 조절해 쇼를 펼치는데 어떤 모양이든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을테지만 라인프렌즈 드론쇼였기에 더 내 마음을 불태우는 그런 쇼였다.

[https://www.youtube.com/live/3gF9q5lgB9M?si=\\_KG9hxbUfZQ0S8o0](https://www.youtube.com/live/3gF9q5lgB9M?si=_KG9hxbUfZQ0S8o0)



[폴버전] #라인프렌즈 와 함께하는 2025 한강 불빛 공연 드론 라이트

폴버전

<https://youtube.com/shorts/xrXSI3Bo4XI?si=5Q8nnERduRezrWww>



[LINE FRIENDS] Drone Light Show at 독섬 한강공원

쇼츠 버전

나는 곧 다시 여러분의 글을 읽고, 고요속에 영혼이 끓어오르리라.



이 밤에 커피를 마시며 곧 당신의 글에 흔적(좋아요)을 남기러 가겠습니다.

😊 11 💬 5

서정원(심리학과) 파란 시간! 저도 그 시간대를 좋아해서 가끔씩 대학교 강의가 늦은 오후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고, 학생이 깨어있는 시간이 새벽이 끝나갈 때쯤까지 좋은 것 같다는.. 망상을 하곤 해요. 아 나의 그리운 새벽아...

**2025/05/14**  
wednesday, pm 11:59 | 17명  
이주원 (심리학과)

#5일차 #꿈다  
무언가가 끌어 오른다는 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음악은 다양한 것을 끌어 오르게 한다. 음악은 업무나 과제 해결 의지를 끌어 오르게 하기도 하고, 현재의 감정을 더 끌어 올려서 감정을 극대화 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자주 듣는

음악에는 각기 다른 나만의 이야기들이 깃들여있다. 들을 때마다 집중력을 끌어 올려주는 노래가 있고, 특정 장소에 갈 때마다 듣는 노래라서 항상 동일한 감정을 끌어 올려주는 음악도 있다.

자신만의 플레이 리스트가 있다면 그 플레이 리스트에 담긴 노래들을 한 번 분석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분명 각각의 노래들은 집중력이든 특정한 감정이든, 무언가가 끌어 오르는 느낌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비단 비트가 가져다주는 생체적 반응 뿐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가 회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음악은 무언가를 끌어 오르게 하며, 무언가가 끌어 오른다는 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됐다는 것이다.

😊 10 💬 2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저도 제가 좋아하는 특정 노래만 나오면 흥분되거나 집중력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흥분 되는 것들이 나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2025/05/15**  
thursday, am 12:20 | 37명  
김영선

오늘의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글에서 '꿈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끌어 먹는 리면의 소소한 행복부터, 끌어오르는 불안감이나 분노, 열정이 끌어오르는 순간들까지. 꿈다는 것은 에너지가 변화의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에너지를 잘 다스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껏 끌어오르게 해야 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의 열정이 적절히 끌어오르며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17 💬 0

**2025/05/15**  
thursday, am 8:02 | 39명  
김영선

#6일차 키워드 : 단맛, 달다, 달콤하다  
오늘의 키워드는 '단맛'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한 조각쯤 단맛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용기를 내 무언가를 이뤘던 날, 누군가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햇살 좋은 날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단맛은 그 자체로는 사소해 보여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곤 합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 짝아서 아쉬운, 그러나 다시 떠올리면 마음을 녹이는 순간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단맛이 느껴졌던 장면은 언제였나요? 혹은 요즘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단맛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은 '단맛'이라는 감각을 따라, 당신만의 소중한 기억을 글로 남겨보세요.

😊 16 💬 0

**2025/05/15**  
thursday, am 8:48 | 28명  
김미도(일본학과)

#6일차  
나는 단맛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어렸을 땐 케이크나 푸딩을 곧잘 먹었지만, 크면서 점점 달달한 맛을 찾지 않게 되었다. 학창시절엔 달달한 추억들이 참 많았다. 친구들이 써준 편지, 비 오는 날 운동장에서 했던 장난, 그때의 웃음과 설렘은 참 달콤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달달한 감정이 점점 사라졌다. 왜 달달함은 자리면서 함께 사라지는 걸까. 사람은 성장하면서 설렘보다 책임이 커지고, 기쁨보다 현실이 앞서게 된다. 그래서 달달한

감정도 서서히 멀어지는 것 같다. 우리는 어쩌면 단맛을 잃은 게 아니라, 다른 맛을 배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한입에 반짝이는 단맛이 아니라, 천천히 곱씹을수록 배어나는 깊은 맛을 말이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저 수고했다며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 그건 달진 않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인지 달달함은 슬픈 맛인 것 같다. 짙고 반짝이기에 더 소중한고, 잊혀져 가기에 더 슬프다.

😊 21 💬 8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단맛을 잃은게 아니라 다른 맛을 배운것이라는 말이 인상깊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15**  
thursday, am 10:18 | 24명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6일차  
나는 단맛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마카롱을 고를 때도 치즈나 우유 맛처럼 달 단 종류를 고르고 카페에서는 늘 "덜 달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됐다. 입안에 퍼지는 진한 단맛이 나에게서 부담스럽다. 그런 내가 달달한 걸 찾게 되는 날이 있다. 괜히 기분이 무겁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무언가가 잘 풀리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드는 날이다. 그런 날이면 나는 초콜릿을 찾는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어쩌다 먹었던 초콜릿이 기분을 한결 나아지게 한 경험을 하고 이제는 그런 날이면 초콜릿을 먹는 습관이 생겼다. 초콜릿을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그날따라 그 단맛이 이상할 정도로 다르게 느껴진다. 초콜릿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여전히 내 일상은 돌아가고 그날의 짜증 나는 사건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초콜릿의 단맛이 내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

해준다. 기분이 나아지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오늘은 그런 날일 수도 있지"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초콜릿을 먹고 나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나는 초콜릿을 자주 찾지는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여전히 달 단맛이다. 하지만 때로는 기분이 꿀꿀할 때 한 조각의 초콜릿이 내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주는 것처럼 그런 작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 초콜릿이 큰 위로가 될 리 없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내 기분을 조금 나아지게 한다. 어쩌면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박지영 (경제학과)** 달콤함이 나를 쓸쓸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건데, 가끔 그 달콤함 때문에 세상의 쓴 맛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초콜릿을 현동만 달고 살다가 이제는 살아만 두고 있네요.. 작은 힘을 얻는다, 그 말이 참 좋네요



#6일차 -단맛 성취

성공의 단맛은 그 어떤 맛보다 달콤하다. 작지만 꾸준히 쌓아온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돌아올 때, 그 달콤함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나 자신을 믿게 해주는 힘이 된다. 처음엔 작고 소박한 성취였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 어느새 나는 어제보다 단단해져 있다.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몸에 익을 때, 나는 비로소 나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 맛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고, 더 나아가고 싶게 만든다.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경험은 다음 도전을 향한 발판이 된다. 그 단맛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그 맛을 다시 느끼기 위해 오늘도 배우고 시도하고 실수하기도 한다. 성공은 항상 크고 눈부신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서 피어나는 성취감은 언제나 나를 자라게 한다. 그 달콤함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때로는 지친 나를 다독이며 잘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나는 이제 그 단맛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다음 한 걸음을 향해 나아간다.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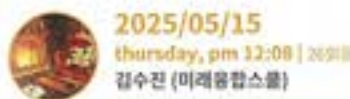
나는 단맛을 참 좋아한다. 입 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은 그 순간만큼은 참 행복하다. 실패가 스며든 간식을 한 입 베어 물면, 무겁던 하루도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다. 단맛은 나에게 작은 혹은 큰 위로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달콤함이 내 몸에 남긴 흔적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기분은 좋아지지만 몸은 단맛을 염증으로 바꾸고, 피로는 더 쉽게 찾아왔다. 그렇게 나는 단맛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즐길 수 없게 된 그 순간, 단맛은 더 간절해졌다.

멀리하면서도 계속 갈망하게 되는 것. 먹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것. 참어도 생각나는 맛. 이걸 마치 사랑 같다. 달콤하지만 그만큼 독이 되는 감정.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결국엔 상처도 남기는 감정. 단맛은 지금도 내 눈앞에 머물러 있다. 나는 그것을 멀리하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멀리한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단맛을 한 번 더 떠올리며, 조심스레 마음속에서 한 입 베어 본다.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들이라 그런지 더욱 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각자의 인생을 달게 만들어주는 것들로 채워가길 바라요!



#6일차 '단맛'

나는 단맛을 좋아한다. 단맛은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며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느껴진다. 단맛은 내 기분을 바꿔주기도 한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는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나는 그런 게 단맛인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맛을 다시 생각해 본 계기가 생기게 되었다. 그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헬스장으로 가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 씻은 뒤 물 한 잔을 마셨는데 그렇게 달달한 물은 세상 처음 먹어본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물 세잔을 연달아 마셨는데 일상에서 늘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물이 왜 단맛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는 똑같이 물을 마셔도 그냥 시원하다? 정도였는데 그날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지금 와서야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기에 갈증이 난지도 모르고 있다. 마신 물이기에 달달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에게 단맛은 물이다' 요즘 들어 물이 다시 달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나만의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후 마시는

물들이기에 더 달달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절실함이 있는 상태이기에 단맛이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소중한 시기에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6일차 #단맛 #학점관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 끝에 얻어낸 A+는 어떤 디저트보다도 달콤한 것 같습니다.

깎고 깎아서 만든 다이아몬드는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은 고되고 넘어짐의 연속이지만 그렇게 얻어낸 달달한 결과는 참 귀합니다. 나의 발전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올려줍니다. 그런 중독성 때문에 저는 힘들어도 감내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매학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결과물들은 저의 내일을 더 힘차게 나아가도록 수 있게 만드는 부스터 역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 이런 주문을 외워보세요. "너 아니면 누가 A+인데?!"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졸업하시는 단계라니 그동안의 노력들이 분명 좋은 결과로 나타나실 거예요! 저도 A+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읽고 가요!



2025/05/15  
thursday, pm 1:02 | 21118  
김서희(식품영양학과)

#6일차 단맛

4일차 키워드 '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나는 초등학교 때 잦은 전학을 다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다. 그래서 늘 혼자 학교를 했다. 나는 항상 바닥을 보며 우울하게 집에 갔는데 그런 나를 즐겁게 해주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학교 앞에서 파는 송사탕이다.

먼저 송사탕은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저씨가 오는 날이 정해져 있었는데 나는 그날에 맞춰 송사탕 가격 만큼만 돈을 가져갔다. 또 학교시간이 가까워지면 컵에 담긴 송사탕을 먹을지 나무젓가락에 감긴 몽실몽실한 송사탕을 먹을지 고민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내 선택은 대부분 나무젓가락에 감긴 파란 송사탕이었다. 나는 파란 송사탕을 먹으며 집에 걸어갔다. 그리고 꼭 마지막 한 입을 남겨서 당시에 키우던 강아지에게 나눠줬다. 지금 생각하면 강아지에게 송사탕을 준 것이 잘못된 행동이란 걸 안다. 하지만 그 송사탕은 초등학교생이던 내가 나의 유일한 친구에게 주던 선물이자 고마움의 표시였다.

당시에는 매일 혼자 송사탕을 먹으며 집에 가는 것이 많이 외롭고 슬펐다. 하지만 글을 쓰며 되돌아보니 송사탕 덕분에 유일했던 친구와의 추억도 존재할 수 있는 것 같다.

😊 14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송사탕 하나까 저도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송사탕 한 입 베어물 때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2025/05/15  
thursday, pm 1:18 | 33318  
권학빈(경제학과)

#6일차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황정민이 작 중에서 이병헌에게 하는 대사이다.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할 수 없다. 멀리서 보면 남들의 인생은 전부 빛나 보이고 행복하지만, 나의 인생은 행복보다는 시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물론 좋았던 일들이 없는 건 아니다. 긍정보단 부정적 일들이 깊게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켜보면 극적인 순간보다 흑역사가 먼저 떠오른다.

살면서 느끼는 달콤함. 목에 갈증이 극에 달한 순간 돌이키는 물 한 잔, 입이 심심할 때 꺼내 먹는 간식, 연강에 지친 나에게 찾아온 뜻밖의 휴강공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에게 가장 큰 달콤함은 하루를 모두 마치고 자기 직전에 침대에 널브러져 이불을 덮고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하게 잠들기 직전의 여유를 누리는 그 찰나의 시간이다. 달콤하다는 표현은 겉으로는 자극적이지만, 그 본연은 오히려 가장 숨습하고 잔잔하다. 사람들은 마음 속의 공허함, 입 속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더 강한 자극과 활동, 더 강렬한 맛과 느낌을 경험하려고 애쓴다. 물론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자 모두가 가진 본능이니까. 그래도 하루 중에 아주 잠깐, 5분이라도 괜찮으니 나의 진정한 달콤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아직 우리는 갓 스무 살을 넘긴 덜 성숙된

성인이다. 계속 경험할 날들이 많고, 더 많은 사람과 공간, 시간을 겪어야 한다. 그 앞은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함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달콤하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고통인걸까, 아니면 고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달콤해 보이는걸까.

😊 14 💬 6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달콤하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고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느끼는 맛에도 달달한 맛, 신 맛, 짠 맛, 쓴 맛, 고통스러운 정도로 매운 맛이 있기 마련이기에 현재 달콤하지 않다면 고통까지 가기 전의 '중간 맛'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너무 달달하여 그에 맞추는 것과 너무 맵고 써서 고통스러운 것 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안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2025/05/15  
thursday, pm 1:58 | 24118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6일차

달콤함에 중독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미각을 통해 느끼는 달달함,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달달함, 행복한 순간의 달달함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중독은 어느 단어 뒤에 쓰이면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달콤함 중독]. 생각보다 단어가 너무 귀엽다.

나는 동생이 두 명 있다.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나는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 형제지간이 형상 그렇듯 막~ 애똥하고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가끔씩 언니, 누나로서 내가 했던 예정을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받았을 때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달짝지근하다.

그리고 난 그때 느꼈다. 애정은 너무 달구나. 조건 없는 애정은 더 달구나. 내게 달콤함은 곧 행복이자 사랑이었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 동생들이랑 함께 살아가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그 세상 속에서 진정한 달콤함, 즉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 내가 큰 조력자 되길 소망한다.



😊 14 💬 7

김미도(일본학과) 저도 남,여동생이 있어서 공감됩니다. 가끔은 싸우지만, 소중한 존재죠... 특히 달콤함은 곧 행복이자 사랑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예빈님의 달콤함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래요.)



2025/05/15  
thursday, pm 2:38 | 25118  
유재환(일본학과)

#6일차

단맛은 나에게 '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때 끼니에 디저트가 없으면 식사가 끝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젤리, 과자, 작은 빵, 아이스크림 등 어느 종류여도 상관이 없다. 내 식사의 끝은 달달함으로 채워야만 한다. 단맛은 음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예로, 과제나 시험의 끝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맞이한 끝은 정신적인 달달함이 보상에 준다.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달달함이 올 수도 있지만, 워니 워니 해도 성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황홀할 만큼의 달달함이 나를 기분 좋게 달친다.

단맛은 나에게 '끝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예로, 아이스티가 있다. 나는 학교 카페, 특히 '1847'을 애용한다. 아이스티를 주문하면, 동 두경까지 음료가 탁 채워져 나온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카페의 남자 직원분이 매우 산뜻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더욱 아이스티가 달달하게 느껴진다. 그 아이스티 하나로 남은 수업을 버틴다. 그리고 모든 과제와 시험을, A+ 받는 걸 상상하며 버틴다. 장학금의 달달함!

단맛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많을수록 좋은 요소이다!

😊 16 💬 7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단맛만 있을 순 없지만 많을수록 좋은 요소에 동감합니다! 끝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라는 말이 힘들어도 결국 끝은 단맛이라는 달콤함이죠!

2025/05/15  
Thursday, pm 2:57 | 2025  
강현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6일자  
<반쪽짜리 어른의 카라멜 맛 키스>

이 세상에서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태인이다. 한참 뜨겁게 사랑을 겪었던 고교시절, 비빔밥에 계란후라이를 빠뜨린 격으로 허무하게 이별을 맞이했다. 한참을 방황하며 살려달라고 매번 소리지르며 울부짖었다. 어느샌가 조용해진 그 밤, 사랑을 담았던 작은 상자가 되었고 먼저 잠겼던 그녀를 이어 태인도 굳게 잠겼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지원하게 된 스태인입니다!" "가볍게 장단점이나 동기 알려주세요." 예상대로 들어온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했다. 이른 시기에 태인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게되며 입사에 성공했으니 행복이 자연스레 찾아올 줄 알았다. 원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면서 성장해 나갔다. 때로는 꾸중을 듣고 실수하며 절규했지만 보완해 나가며 독서를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서 찾아간 동네 도서관에서 학창시절 어려워서 읽지 못했던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을 읽고 있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책은 옆에 있던 한 여자의 손에 존재하고 있었다. 조심스레 태인은 "빌리실 건가요 그책?" 라며 말했고 여자는 "죄송해요! 가져가세요!" 하며 건네주었다. 그러나 여자의 얼굴은 첫사랑과 닮아있었고 태인은 경직했다. 알아차리지 못한 듯 보이는 여자는 뒤를 돌아 나갔다. 그 순간 불이 나서 대피하는 것같은 모습으로 급박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살짝 부어있었고 아까진 자신의 추측이 틀렸을 직감한채 입을 열었다. "고마워" 이어서 여자의 입술과 태인의 입술 또한 재회했다. 그 맛은 달콤한 카라멜맛이었고 그 순간 여태부족했던 것이 무언인지를 느꼈다.

ps. 처음으로 '사랑'에 대한 짧은 소설을 써봤는데 너무 부족하네요 T\_T

😊 14 💬 5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잘 읽었습니다. 짧은 소설을 쓰는 것은 길게 쓰는 소설보다 쉽지 않던데

맛지십니다. 특히 제목이 참 귀엽고 알랑알랑하네요. 문법적인 부분과 문단 구성에 신경을 조금 더 쓰신다면 가독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5/05/15  
Thursday, pm 3:18 | 2025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6일자

벌레에 물렸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겨우내 잠들어 있던 벌레들이 다시 활개 칠 준비를 한다. 두껍고 포근한 옷에 둘러싸여 벌레에 물리는 감각을 한참 잊고 지내다가, 무언가에 물려 부풀어오른 흔적과 간지러움을 느끼면 슬슬 날이 더워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랜만에 가는 카페, 아무도 앉지 않는 테라스에 앉았다. 산뜻하고 플로럴한 산미가 느껴지는 아메리카노 한 모금. 얼음이 동동 띄워진 잔 속은 차갑고, 요즘의 공기는 따뜻해 컵의 바깥으로 물이 알알이 맺혔다. 같이 주문한 바스크 치즈 케이크 옆에는 포크가 낀 한 장에 돌돌 말려있다. 냅킨을 풀자 끄트머리가 바람에 흔들거렸다.

부풀어 오른 곳을 긁적이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실내에 앉을까 하는 류의 생각을 했다. 붉게 물든 남천이 흔들리는 모습과 카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비에 젖어 상쾌한 공기를 즐기지 않는다니 내가 다 아쉬웠다.

날벌레와 거미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고여있던 빗방울들이 테라스의 차양에 하나 둘 떨어졌다. 새들의 지저귀음이 멀리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 내가 지내던 밴쿠버에서는 일주일에 네다섯번씩 혼자 카페에 갔었다. 늘 산미가 있는 커피를 파는 곳을 찾아 돌아다녔고, 테라스가 있는 곳이면 무조건 테라스로 향했다. 그곳의 해는 한국보다 더 뜨거웠지만, 어쩐지 바람의 온도는 오늘과도 같았다. 이 년만에 돌아온 춘천 카페의 테라스에서, 작년 어떤 카페에서 마신 아메리카노의 단 맛이 났다.

작년의 여름처럼 올해의 여름도 햇빛에 잘 익은 단맛이 날까. 입에 머금었다 삼키고 숨을 쉬는 순간 코와 혀 끝에 남아있는 단맛을 또 마주칠 수 있을까.




추신.

학교 근처에 위치한 그라시아의 테라스가 정말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와도 좋겠지만, 혼자만의 여유를 가지며 그 순간의 단맛을 느낀다면 더욱이 좋겠습니다.

😊 15 💬 7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치즈케이크와 아이스아메리카노 조합을 아시다니! 맛잘알이시네요  
작년 이맘때쯤 해외에서 보내셨던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을 소소히 떠올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025/05/15**  
thursday, pm 3:26 | 74988  
정우림(정치행정학과)

#6일차 #단맛

조선에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자 당시 조선의 왕 선조는 상황 파악을 위해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을 파견한다. 놀랍게도 그 둘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를 올린다. 황윤길은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취와 같이 생겼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보고한다. 김성일은 더해서, 황윤길의 보고는 민심을 동요하게 하니 마땅치 않다고 지적까지 한다. 선조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인 김성일의 보고만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대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조선은 사실상 궤멸의 상태에 이른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며 통계를 조작한 모 대통령과 간신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준비도 없이 계엄을 선포한 모 대통령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 선조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해야 한다. 당장 우리는 큰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리더라는 자가 단맛에만 취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한다면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 6월에 새로 선출될 지도자는 정치 계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직언을 받아들였으면, 또 선례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

😊 13 💬 4

김영빈(미디어스쿨) 역사의 교훈을 현재에 정직하게 연결한 글이 인상 깊습니다.  
'달콤한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강하게 일깨워주세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15**  
thursday, pm 5:28 | 24988  
윤소정(사회학과)

#6일차 #단맛

<나에게 단맛이란>  
몇 안 남아있는 어린시절의 기억 중 단맛하면 떠오르는 것은 소풍갈 때마다 챙겨갔던 캔들이 음료수다. 어린시절엔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부모님이 못 먹게 하셨었는데 소풍갈 때만 허용되었던 단맛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용돈을 받으며 내 스스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울다구나 하고 단음식들을 많이 사먹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친구들과 카페에 자주 가게 되면서 초코라떼나 케이크 등 달달한 음식을 많이 사먹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 입맛이 바뀌면서 나의 단맛을 향한 열망은 거짓말처럼 사라져갔다. 예전엔 카페에서 초코케이크에 초코라떼를 마시곤 했는데, 지금은 너무 달게 느껴져서 얼마 못먹는다. 어릴 땐 어른들이 '어른입맛'을 갖게 되어서 단맛을 싫어하는 줄만 알았는데 어쩌면 지금의 나처럼 먹고 싶어도 많이 못먹어서 잘 안 먹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나에게 단맛은 어릴 땐 가까운 존재였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좋지않 가까운 것인 않은 것이 되었다.

<단맛과 건강>

가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20대 당뇨병 유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그런 기사들의 영향인지 음료회사의 마케팅 전략인지 편의점이나 마트의 음료코너엔 이른바 '제로음료수'가 가득하다. 음료를 살 때 같은 콜라여도 선택지에 제로콜라가 있으면 꼭 제로콜라를 구매한다. 또, 케이크와 같은 단음식을 먹을 땐 단음료보단 물이나 차종류를 먹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을 먹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고, 학교에 있다보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즉석식품을 사먹기도 한다. 편리함을 위해 사먹으면서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맛은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하기 때문에 단맛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과도하게 먹는 것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14 💬 12

현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어른이 되고보니 너무 달달한 것도 별로 안좋더라고요. 이 생각이 들었던 순간 좀 많이 슬펐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들더라고요

 **2025/05/15**  
thursday, pm 5:50 | 22988  
현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6일차  
단맛

어릴 때 나는 단맛에 푹 빠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푹 쏘는 콜라였다. 밥 먹을 때도, 과자 먹을 때도, 심지어는 그냥 목이 마를 때도 콜라를 마셨다. 물은 너무 밍밍하고 맛이 없어서 가까이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이를 먹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물도 억지로 마시다 보니 점점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갈증도 확실히 물이 더 잘 해소해주고 어느 순간부터는 물이 더 당기기까지 했다. 콜라는 여전히 좋아하지만 이제는 가끔만.. 특별한 날에만 마신다.

단맛은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게 매일이어선 안 된다는 걸 안다. 몸도 마음도 아직까지 달콤함을 좋아하지만 적당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콜라는 추억처럼 남겨두고 물과 조금 더 친해지기로 했다.

가끔은 상상한다. 만약 설탕이 몸에 좋은 영양소 중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달콤한 것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세상이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오늘도 적당히..먹는다 달콤함은 조금 아껴두는 게 더 오래 즐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있다.

😊 16 💬 5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콜라의 탄산과 특유의 단맛때문에 저도 가장 좋아하던 음료수였는데..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는 않죠! 단맛으로 오는 행복이 좋지만 미래를 위해서 조금은 멀리해야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달콤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조금 아껴두는 말 공감해요!

 **2025/05/15**  
thursday, pm 8:28 | 17988  
장근희(글로벌비즈니스전공)

#6일차  
오늘은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흐렸던 아침과 반대로 날씨는 점점 밝아지고 쾌청해졌다.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마지막 상품 추첨 시간. 개인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상상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려 2등상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참 달콤한 상황이라고 말하고들 하지 않나 싶다. 정말 직관적인 단맛도 단맛이지만 인생의 은유적인 단맛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널려있을 것이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달콤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오랜만에 받은 친구의 따뜻한 문자, 예상치 못한 칭찬 한마디, 출근길에 우연히 만난 귀여운 강아지, 비 온 뒤 맡게 되는 풀냄새, 그리고 오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행복까지. 이 은은한 단맛들은 지나갈 듯이지만 기억은 계속해서 내게 남아있고 우리를 위로 할 추억이 된다.

단맛은 순간적이지만 강렬하다. 하지만 그 순간의 달콤함을 위해 너무 많이 먹다보면 그 단맛에 질릴 수 밖에 없다. 행운과 기쁨도 적당할 때 가장 값지게 느껴진다. 이처럼 인생의 단맛을 찾는 비결은 어쩌면 '기대하지 않음'에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의 상품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달콤함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니까.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다면, 우리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달콤한지도 모른다.

😊 11 💬 3

**조은제(간호학과)** 너무 큰 단맛을 한꺼번에 느끼는 것보다 소소한 단맛들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군요. 달콤한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2025/05/15**  
Thursday, pm 7:09 | 21일째  
공나영(국어국문학과 23)

#6일차 #단맛

세상 수많은 맛이 있다. 짠 맛, 매운 맛, 신 맛 등 그중에서의 단 맛

해가 평평한 날 아이스크림 한 입 베어물 때 느껴지는 단 맛  
어릴 적 하고 후 친구들과 나눠먹는 초콜릿에서 느껴지는 단 맛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위해 마시는 달콤한 커피에서 느껴지는 단 맛

단 맛엔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다. 맛의 단 맛도 있지만 추억 속의 단 맛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다. 어른이 되어가며 추억 속의 단 맛이란 또 시간이 지나면 무뎠진다.

취업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쓴 맛  
반복되는 일상으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단 맛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의 눈물의 짠 맛 까지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다. 고진감래. 쓴 것은 지나고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 견디다 보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어릴 적 느꼈던 단 맛을 지나 성장하면서 맛 봐온 온갖 맛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이다. 또 지금의 나는 다양한 맛들을 맛보며 끝은 결국엔 단 맛이라는 행복감을 안겨줄 것이다.

😊 15 💬 7

**김예지(사회복지학과)** 단 맛과 더불어 쓴 맛, 탄 맛, 짠 맛 까지 비유해주신 부분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쓰고, 타고, 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2025/05/15**  
Thursday, pm 7:29 | 22일째  
박지연 (경제학과)

#6일차 #쓴맛 #단맛

감썬뱀(감탄고토) 쓰면 뵤고, 달면 삼킨다는 뜻으로, 이익에 따라 악삭빠르게 바뀌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  
舌盡甘來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올음을 이르는 말

"달다"는 말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인상을 준다. 허공에서 퍼지는 단맛은 종종 기쁨, 여유, 사랑 같은 말들과 나란히 놓인다. 어린 시절, 달콤한 것은 세상의 선물 같았다. 아이스크림, 초콜릿, 빙수, 젤리... 손에 쥐어진 작은 단맛은 그 자체로 기쁨이었다. 사실, '맛있는 것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믿는 아이는 아니였어도, 달콤함을 마주하면 더없이 신났던 것 같다. 그렇게 단맛은 오랫동안 나에게 있어 순수한 실행의 감각이었다.

그러나 자라면서 나는 점차 단맛을 경계하게 되었다. 단맛은 종종 불편한 대가를 요구했다. 너무 많이 먹은 뒤의 더부룩함, 충치, 체중 증가 같은 물리적인 부작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친절할 말이 알고 보니 계산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엔 따뜻했던 기억이 나중엔 서늘하게 식어버릴 때, 그때 느껴지는 씁쓸함이 나를 단맛에서 멀어지게 했다. 나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곤 했다. 쓴 맛은 달콤함보다 오래 남았다.

이런 마음을 설명해주는 말이 있다. 바로 감탄고토(甘呑苦吐)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뱀는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당연한 사람의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당연한 일'을 뜻하는 성어는 아니다.

이 말은 사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태도를 쉽게 바꾸는 인간의 악삭빠른 마음을 비판하는 사자성어다. 결국 이 사자성어가 말하는 '달콤함'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인 것이다. 내가 겪어온 몇몇 인간관계에서 난 인간의 이런 달콤함을 경험했다. 처음엔 달콤하게 다가왔지만, 허울 뿐인 다정함인 경우가 많았다. 모든 관계에 진심을 다하던 나는 관계의 끝에 홀로 남았다. 그런 순간들을 겪다보니, 달콤함이 점점 미워졌다. 단맛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감각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나는 "달다"는 감각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건네는 친절, 눈앞에 놓인 기회, 뜻밖의 호의조차도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달콤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어른이 되면서 알게 되었다. 나는 그런 내가 자주 서글프다. 무언가를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내가, 누군가의 선의를 경계부터 하는 내가, 너무 '어른스러워져버린' 건 아닐까. 이런 어른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보상이 없는 선한 마음을 품기엔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고진감래(舌盡甘來)를 믿고 싶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이 말은, 오래된 고사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삶을 버텨내는 근거로 삼는다. 달콤함이 때로는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단맛이 거짓은 아닐 것이다. 지금은 단 것을 피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달콤한 무언가를 아무 의심 없이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진심에서 비롯된 말 한마디, 계산 없이 건네는 따뜻한 손길, 땀을 흘린 끝에 맛보는 성취의 단맛처럼, 삶 속의 단맛은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 달콤함은 두 얼굴을 가졌다. 한쪽은 유혹이고, 한쪽은 보상이다. 나는 유혹에 속아본 경험으로 단맛을 경계하게 되었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 다시금 단맛을 맛볼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싶다. 언젠가 찾아올 진짜 '단맛'을 기다리며, 지금은 잠시 '쓴 것'을 견뎌내는 중이다.

😊 18 💬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쓴 것은 단 것을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순간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05/15  
thursday, pm 8:11 | 209회  
이주현(사회복지학과)

#6일차

단맛

개고기념일로 달콤한 휴식을 보내고 있는 오늘, '단맛'이라는 주제가 나와 너무 적합했다. 원래 같으면 3연장을 듣고 정신이 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누워서 글을 쓰고 있다. 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오늘만큼은 무척추동물처럼 살고 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서 척추를 쓸 일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도 대충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웠다. 밥은 먹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배달 음식을 시키자. 다 먹으면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미국 시트콤 '프렌즈'를 봐야지! 과제도 조금 하고, 시간이 되면 책도 읽자. 오늘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계획을 신나게 수행 중이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프렌즈를 틀었는데, 나도 모르게 잠들어 낮잠까지 잤다. 이렇게 달콤한 하루가 얼마 만인지, 내일이 오는 게 무서워졌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충분히 쉬었고, 내일 있을 일정을 준비해야 한다. 하... 내 휴일...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은 이 기분.... 그래도 어떡해... 해야지...

😊 15 💬 5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달콤한 시간을 보내는 만큼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으니 참 좋네요!



2025/05/15  
thursday, pm 8:58 | 159회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6일차

단맛

달달한 것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을까? 오늘 먹은 민트초코프라페도 달달하고 사과잼 와플도 달콤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노래를 틀고 여유를 보내는 시간도 달고 잠깐 밖에 나갈 때 맑은 하늘과 촉촉한 풀잎과 나무들을 느끼는 것도 달달했다. 방금 전에 먹은 딸기 요거트도 달콤하고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쉬는 날이 3일이나 남았다는 사실도 달콤하게 느껴진다.

먹는 것에서 느껴지는 달콤함도 좋지만 작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일상 속 달콤함도 좋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듣는 것도 잠들기 전 침대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도 하루의 일들을 다 하고 마음이 편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들도 다 달콤했다.

어쩌면 다양한 맛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달콤함이 너무 좋다. 하지만 달콤한 것만 먹으면 충치가 생길지도 모른다. 충치가 생기면 달달함을 즐기기는 어려우니까 건강한 맛들도 챙겨 먹으면서 가끔 달달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 11 💬 5

김명빈(미디어스쿨) 저도 만초단입니다!!!!!! 반가워요!!!



2025/05/15  
thursday, pm 9:24 | 209회  
서정원(심리학과)

#6일차

어제 정말 오랜만에 어깨를 했다. 거의 3주 안에...? 한 것 같다. 어느 트레이너가 3주까지는 근육 감소가 되지 않으니, 만약 운동을 멈춘다면 최대 3주까지만 멈추라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임계점을 넘기 전에 얼른 어깨 운동을 해버렸다.

항상 첫 세트는 큰 운동으로 시작한다. 스미스머신 숄더프레스나, 인클라인 벤치 덤벨 숄더프레스로 진행하는데, 평일 오후나 밤의 렉센터 헬스장은 사람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남는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서 운동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첫 세트는 자리가 남아있는 리버스 팩백 플라이에서 시작했다. 세상에 이 바글바글한 근육 발에 리버스 팩백 자리가 남아있다니. 이걸 행운이야! 달다!

선풍기로 무게를 올려 세트 당 15개씩 한다. 그리고 최대한 했으면 가동범위를 줄여 최대한으로 짤떡이며 총 4세트를 채운다. 그러면 후면 삼각근은 "저는 이제 근육통 생길 준비가 되었어요~" 하며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후면 삼각근을 긴장시켰지만, 저 멀리 다 차있던 벤치 자리가 남아서 후딱 그곳으로 이동했다. 바로 인클라인 벤치 덤벨 숄더프레스를 했다. 한손에 18kg씩 20개 두 세트로 예열종 하고, 22kg까지 올려서 12~15개 정도로 네거티브—천천히 이완하고 수축하는 운동을 뜻함—로 진행했다. 그리고 모든 운동은 피라미드 세트로 진행한다!

피라미드 세트란 점진적으로 무게를 올렸다가 다시 낮춰가며 하는 운동 방법을 뜻한다. 스미스 머신에 자리가 나질 않아 이 운동만 7세트 진행했다.

그리고 후면 삼각근 운동의 꽃, 리버스 바벨 레이즈를 진행했다. 바벨을 잡고 몸을 앞으로 살짝 구부려서 뒤로 올리는 어깨 운동이다. 개인적으로는 리버스 팩백 플라이보다는 후면이 더 잘 먹는 느낌이 들어서 주로 후면 메인 운동으로 하는 편이다.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세트로 5세트 진행했다. 후면 삼각근이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 그 느낌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달다. 정확히는 하는 도중에는 고통스러운데, 운동을 다 하고 렉센터 문을 여는 그때 달콤함이 느껴진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적은 세트로 어깨가 잘 먹어있어서 마지막으로 모든 어깨 운동의 마지막, 어깨 운동의 아버지, 어깨 운동의 최고봉 '사레레'를 진행했다. 사레레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줄임말이다. 어깨 운동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이 운동의 동작을 보면 "아 이 운동이구나" 할 것이다. 자세를 잡아놓고 덤벨을 양쪽으로 올리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이다. 주로 적은 중량으로 고반복해서 진행하는 운동인데, 만약 한손에 5kg 해서 40개를 드는 것을 한 세트로 설정한다면, 30개 정도부터는 어깨가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것을 총 네 다섯 세트 정도 진행하면 오늘의 어깨 운동은 끝이다.


헬스 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이 짓이 왜 단지...



연휴때 갔던 산스장입니다.

😊 13 💬 12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글로만 읽는데도 힘들어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그만큼 달기 때문에 이렇게 긴 분량이 나왔다고 생각하니 좋네요!

 **2025/05/15**  
thursday, pm 9:25 | 2025년  
정우현(철학과)

#6일자

저는 단맛 애호가입니다. 당노가 안 걸린 것에 감사할 정도로 단맛을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단맛이 가움 속에 단비처럼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덕에 단맛은 늘 새로웠고 짜릿했습니다. 단맛에 비해 쓴맛은 저에게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각이었죠. 어쩔 수 없이 쓴맛을 맛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단맛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에 단것을 많이 먹는 것을 보아 인생이 쓴 가쁠니다.

인생이 쓰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늘 달기만 할 수는 없을까 싶고요, 저에게 있어 단맛이란 인생을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단맛, 배고플 때 먹는 단맛 등 모든 단맛이 저의 힘입니다. 예전에는 쓴맛을 겪는 이들을 격려하고 싶었는데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기도 하고 제가 상관할 바 아닌 거 같아 관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쓴 시기를 잘 견디어 조화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든 쓴 경험들이 저에게 피와 살이 됐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단맛 애호가의 격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 6

김명빈(미디어스쿨) 쓴 맛이 없었다면 단맛도 몰랐을 거 같아요. 워든 편향되면 안 좋은 거 같기도 하고요.. 격려에 힘을 얻고 갑니다!

 **2025/05/15**  
thursday, pm 10:00 | 1998년  
조은재(간호학과)

#6일자 #단맛

나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한다. 물론 순수하게 아이스크림의 단맛 자체를 즐기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식구들과 나눠 먹으며 재잘거리는 시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다. 평소에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오빠와 꼭 같이 먹으면서 수다를 떠다. 종종 엄마도 같이 앉아 먹으면서 대화에 킨다. 아빠는 건강 때문에 못 먹지만 소파에 누워서 가끔 대화에 킨다. 우리는 늘 서로 무언의

약속을 한 것처럼, 식사 후에 통 아이스크림을 들고 식탁에 다시 앉아서 두경을 열지 않고 기다린다. 어느 날 오빠가 같이 먹자고 직접 말을 꺼냈는데, 나는 어딘가로 꼭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집에서 태평스럽게 먹고 놀 수 없었다!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것도 슬펐지만,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처럼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이 너무 슬펐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울었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공부하러 도서관으로 가던 길이었었던 것 같다. 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른 일도 아니고 고작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해서 온 것이 황당하긴 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고작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내가 내 발로 걸어간 격이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귀한 저녁 시간에 굳이 공부하러 밖에 나간 것일까. 학업 때문에 추억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그동안 쌓여 온 감정이 그때 일을 계기로 흘러 넘친 것이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우리 오빠의 다정함을 외면했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 자신이 미웠다.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행복까지 포기하는 어정쩡함, 어중간함에 신물이 났다. 그때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도 갑자기 슬퍼져서 방바닥에서 데굴데굴 구르면서 가기 싫다고 떼를 썼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알리지 않았지만 그냥 마땅히 고3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쓴 것이 단순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였다는 진심을 밝히기 쑥스러웠다. 그래서 그때 내 모습이 아이스크림에 미친 사람으로 비쳤던 것 같다. 다음 날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한 통 더 사줬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스크림이 아니었다.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가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서로 점점 더 바빠져서 한 공간에 있을 때조차 줄어들

미래를 이미 짐작했던 것이다. 그 짐작은 진짜가 되었다. 앞으로도 적으면 3년, 길면 10년 이상은 우리의 아이스크림 대화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별거 아닌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언제나 그리운 달콤함이다.

😊 15 💬 7

조하경(청각학과) 루게더 열등보다 더 알아버리는 사랑스러운 글이에요. 제가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이 글이 삶의 이유가 될 것만 같아요. 달콤한 이면에 감춰진 쓸쓸함을 알아가는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일 듯 합니다. Bittersweet~ 가족들과 만나 아이스크림이 아닌 맥주 한잔 하며 이 글을 낭독하시는건 어떨까요-- 행복해지는 글 감사드려요. :)

 **2025/05/15**  
thursday, pm 10:11 | 1998년  
이주현(사회복지학과)

#6일자

저는 항상 매주 본가에 갔다오면 과일을 싸웁니다. 그 과일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씩 꺼내 먹을 때 과일의 단맛이 입을 감싸며 저의 피로를 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들어 싸오는 과일은 스테비아 토마토와 참외입니다. 특히 스테비아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와 다르게 스테비아가 있는 토마토라 달달함의 정도가 진짜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탕이나 초콜렛에서 느낄 수 없는 과일의 상큼하고 싱싱한 단맛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달달한 과일을 학교에 매주 가져오는 것에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항상 아들이 과일 좋아하니까 학교에서 과일을 먹으라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매주 사놓으신다. 그리고 학교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항상 렉앤락 통해 과일을 싸주십니다. 과일을 가져갈 때는 맛있게 먹을 생각이 가득하지만 과일을 자르시는 엄마를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과일의 달달함이 저의 피로를 회복해주는 것 같이 저는 엄마의 달달한 과일이 되고 싶습니다.

😊 15 💬 12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저도 어머니가 잘 위해 과일을 써는 모습을 보면 괜히 옆에 가서 어슬렁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느껴져서 일까요? 가장 달콤한 건 사랑어 아닌가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15**  
Thursday, pm 10:21 | 2998  
조하경(정리학과)

#5일자

단맛의 대명사는 누가 뭐라해도 꿀이 아니겠는가. 농축된 고농도 당,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곰팡이와 세균은 감히 침입할 엄두도 안나는 천연 방부제, 항산화 효과까지. 가나안 땅은 꿀과 고기가 흐르는 땅이 아니라 꿀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공도 그 거대한 몸동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꿀을 찾아 나선다. 물론 바지는 안입고.

육각형 스렛이 꼭 찬 액체황금과도 같은 꿀은 보관되는 별집 조차 육각형이다! 아름다운 기하학적 구조. 어찌다보니 꿀 예찬이었다. 꿀은 지역의 꽃에서 만들어지기에 지역마다 특색또한 다양하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꿀은 항상 사오려고 한다. 최근 맛있게 먹고 있는 꿀은 베트남가서 사온 앵그로브 나무 꿀. 기수지역에서 자라는 탓에 뭔가 바닷내음이 느껴지는 듯한, 물론 아카시아꿀도, 밤꿀도, 잡화꿀도, 심지어 사탕꿀마저 사랑한다.

요즘 꿀같이 달달하고 행복한 순간을 맞으면

어김없이 '개꿀'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가끔적이면 비속어는 지양해야 하겠지만 이 꾸덕하고 착 달라붙는 찰진 된소리 발음의 '개꿀'을 대체할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아침수영, 8관 1층의 스벅보다 맛있는 아메리카노, 수업과 수업사이 짬나는 시간 짧은 독서. 내 하루하루는 아주 그 꿀의 연속이다!



😊 18 💬 17

**서정원(심리학과)** 저도 매일 아침 8관 1층에서 아메리카노 맛 m사이즈를 뽑아 마셔요. 최근에 커피 머신이 들어와서 참 다행입니다.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그리고 저는 해외에 가면 항상 그 지역의 시장을 둘러보는 편인데, 꿀도 함 찾아봐야겠어요. 늘 유쾌한 글 잘 읽고 있습니다!

**2025/05/15**  
Thursday, pm 10:32 | 1498  
유재하(미디어스쿨)

#6일자

키워드 : 단맛, 달다, 달콤하다

<좋아하는 맛의 정체기>

나는 이제 달고 짠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먹지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 더 맞는 표현일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몸이 자극적인 맛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창 위장이 달이 났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위장 문제로 내과를 다니며 약을 달고 살았다. 학교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과 여가 생활까지 영향을 끼친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 어쩌다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무언가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뒤틀리듯 속이 좋지 않았고, 피부부터 온몸과 마음이 할 수 없던 시기였다.

<괴로움의 맛>

꽤나 긴 시간동안, 나는 달라지기 어려웠다. 자극적인 것들에 유혹 당하면, 다시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걸 예상하면서도 자극이 주는 묘미를 놓지 못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단맛과 신맛, 매운맛 등 속에 자극적인 것들을 자주 맛보았다. 그동안 '아프다'를 '자극적인' 것으로 풀었던 것 같다. 결국은 아픔을 다른 고통으로 덮은 셈이었다.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을 땐 그 맛에 뇌가 잠시 멍해졌을 뿐이지, 이는 자신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요즘은 몸마음이 힘들다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도 의무적인 싸이클을 만드려고 노력 중이다. 큰 부담이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한다. 가벼운 산책 나가기부터 가사없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듣기, 원두 갈아 핸드드립 커피 내리기 등.

<쓴맛이 나는 날>

내 몸마음에서 자주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은 "그냥 숨을 천천히 쉬어. 천천히 쉬어가면 돼. 좀 멈춰도 돼."하고 말을 했을 것이다. 자기애의 모양새가 잘 잡혀지지 않았던, 그리고 마음과 몸이 동시에 괴로워 했을, 긴 과도기의 시간들을 지나 깨달은 것이 있다.

힘들 때 그냥 힘들어하면 된다는 것이고, 슬플 땐 슬퍼하면 되는 것이고, 상실감을 느끼는 날에는 많이 울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배가 고파지면 거실로 나가 물 현모금을 마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살아있다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며 스스로에게 다독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애쓰느라 힘들고 힘들어하는 중이다.

<10대, 20대의 맛>

20대는 달콤쌉쌀한 민트 맛이다. 민트초코 말고, 페퍼민트 차의 맛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지난 10대의 맛은 많이 텅텅하고 썼던 것 같다. 지나가고 있는 20대의 맛은 달콤쌉쌀한 맛이 난다. 어느날은 조금 쓴맛이 나 인상을 찌푸리다가도 어느날은 조금 단맛이 나 피식 웃기도 한다. 유자와 자몽처럼. 페퍼민트 차의 묘한 맛처럼. 나의 달콤쌉쌀 향에 속한 향 중에는 비가 온 뒤 나는 냄새도 있다. 오늘 그쳤다 말다 하는 비 냄새도 흙 냄새, 풀잎 냄새가 섞여있다. 습하고 처지면서도 그친 뒤에는 약간의 산뜻함과 단맛이 있다. 근처 무성한 풀숲에서 나는 약간의 단내와 흙내음이 섞여 있다.

<변화하는 맛 & 깊어지는 맛>

지금의 나는 예전과 달리 톡 쏘는 탄산과 달달한 크림, 초콜릿은 자주 먹지 않는다. 대신, 원두 가는 형이 좋아서 커피를 먹는다. 디카페인이나 콜드브루, 시럽이 아닌 헤이즐넛 원두를 갈아만든 커피를 좋아한다. 나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커피를 내리거나 라떼아트를 할 수 있는데 커피의 크게 맛은 애정하지는 않는다. 대신 원두의 향이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원두를 직접 갈고 핸드드립으로 내린 커피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로 대접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맛을 맛보며 살고 싶다.

😊 9 💬 3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괴로움의 맛이라는 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결국 몸이 망가지게 되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닌 망가지는 것뿐.. 저도 요즘 산책이나 여가활동으로 풀려고 노력중입니다..! 같이 하이팅해요!

2025/05/15  
thursday, pm 11:05 | 1398회  
김명빈 (미디어스쿨)

3시간 짜리 업무 통화를 끝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나는 달려갔다.  
현실이 너무 씁쓸해서 당이 떨어졌거든...

그리고 <동물의 숲>을 켰다.

아, 이게 바로 달다는 거구나.

취향인 곳 한 송이에 환호하고,  
처음 보는 화석에 눈을 짓고,  
물고기 한 마리 낚았다고 박수 치는  
그 단순함이 나를 달게 만든다.

사실 내가 바란 건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냥 밤양갱 하나 같은 여유,  
토요일 아침 같은 평화,  
과제 없는 일요일 밤 같은 기적.

비비는 노래했다.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나는 속으로 따라 불렀다.

"종강, 주말, 동물의 숲."

그리고 한창 동숲을 즐기다가 중얼거렸다.

"아... 이게 바로 디지털 설탕, 온라인 포도당이구나..."



#6일자

😊 16 💬 13

서정원(심리학과) 디지털 설탕과 온라인 포도당!! 동물의 숲 브금은 또한 지랄브(지능이 떨어지는 브금)으로도 유명하죠, 저는 모어봐요 동물의 숲 새벽 2a,m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랄브=인술인 억제제..?

2025/05/15  
thursday, pm 11:16 | 1398회  
채은비(생명과학과)

#6일자

#단맛

자신의 삶에서 가장 쓰디쓰던 때가 언제였는지 꼽아 볼 수 있으신가요, 곧바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참 다행이건만은, 저는 고민도 없이 한 부분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무능력함과 한심함에 지쳐, 고개 가늘 힘도 없이 나약해져 산산히 부서져 있다가, 간신히 고개를 들고 조각난 나를

겨우겨우 주워 담으며 문밖을 나서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대로, 망가진 채로 영원히 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쓴맛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입안에 타액처럼 끊임없이 고이던 나의 한심함과, 나를 버려줬던 대가의 쓴맛. 그 고통.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6시에 눈을 떠 집을 나서며, 끊임없이 되내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그래도 해내고 싶어. 누구에게 하는지도 몰랐던 그 말들.

나의 그 지난 1년.

몇 전이나 샷을 내렸는지도 모를 커피, 끊임없이 시험지를 뽑아내던 프린터기의 탄내, 끝이 없던 달리기와 노력이 나를 배신할 때의 그 쓴맛.

그런데도 언제나 문밖을 나갈 때, 손에 들려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이쁜 공기를 마시며, 이런 나를 책망하지도, 한심해 하지도 않은 채 언제나 조용히 준비되어 있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 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마음에선 언제나 단맛이 났습니다.

😊 14 💬 5

김명빈 (미디어스쿨) 와, 정말 깊고 진한 글이네요. 쓴맛과 단맛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한 편의 시처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쓰디쓴 고통 속에서도 곁에 있던 그 조용한 위로와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느껴졌어요. 삶의 고단함 속에서 발견한 '단맛'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희망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25/05/15  
thursday, pm 11:21 | 1398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6일자 #단맛

단맛의 유혹은 이겨내기가 어렵다. 단 것을 좋아하는 나에겐 디저트를 끊으라는 말은 청천벽력. 난 집순이라 집에 있는 날이 꼭 필요한데, 요즘은 학교와 알바를 오가느라 집에만 있을 수 있는 날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다.

오랜만에 집에만 있을 수 있는 달달한 오늘! 허로 느끼는 단맛은 이겨냈다만 뇌로 느끼는 단맛, 도파민을 찾느라 바빴다.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그동안 쌓여있던 집안일을 맘껏 풀리며 끝낸 후 나에게 주는 휴식의 시간이었다. 몸은 가만히 있지만 뇌는 마구마구 달달하게 이런 저런 정보들을 집어넣는 이 행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다이어트만큼 힘든 도파민 끊기다.

😊 10 💬 3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정말 쉽지 않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는 연주님이 대단하네요.. 전 오히려 자기합리화를 하며 찾는 편이라 조금은 변성이 됩니다. 힘든 하루에 조금은 뇌에도 달달함을 취아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우리끼리, Band!



2025/05/15  
thursday, pm 11:35 | 21:00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6일차 #단맛

●●님께

뭐든 첫 시작이 어려운 법이겠죠? 운을 띄우기가 참 어렵네요. 아까 마카롱을 건네받은 순간 오늘은 ●●님께 편지를 쓰자라고 생각했어요. 비둘기같은 글씨체로 직접 써내려가는게 가장 좋았겠지만 시간이 없는걸요.. 0과 1의 배열로 편지를 써도 이해해주세요.

그냥 글쓰기보다 편지가 더더욱 힘드네요. 분명 내 생각을 쓰는 행위라 같을텐데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게, 또 손편지는 여백을 스티커나 직접 그림을 그려넣어서 공간감을 연출 할 수도 있는데.. 오직 글로만 적는다는게..

편지 쓰는 지금 전 마카롱 한 개 (솔트바닐라)의 단맛을 느끼며 생일 하루 전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뇌에게 포도당을 주고 있는데도 좋은 멘트는 떠오르지 않는군요.

종이에 제 삶을 모방한 필체로 썼다면.. 약할이지만 나다움을 담은 그런 자유 형식의 시로 그랬다면 좀 더 제 감사함을 녹여냈겠죠.

오늘 달콤함을 선물해서 고마워요, 내일은 다양한 달콤함을 먹을게요.

2025. 5.15 심유진 드림



😊 12 💬 26

박지영 (경제학과) 정말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만나니 합니다. 다정함을 다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전 제3자지만, 이 소중한 관계에서 괜히 제가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당일에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2025/05/16  
friday, am 12:04 | 21:00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6일차

아몬드 봉봉을 사 먹기 위해!

단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아이스크림을 빼놓을 수 없다. 다가오는 여름철, 시원한 명물을 마시기엔 당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달콤한 과자를 먹기엔 퍽퍽할 때!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으면 마치 천국에 올라간 것만 같다.

아이스크림 체인지 중 가장 인기있는 곳을 꼽으려면 물론 요즘에는 '요아장'이겠지만, 필자는 아직까지도 '베스킨라빈스(베라)'를 포장해와서 먹는다. 집 앞 5분 거리에 베라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다!

필자가 가장 예정하는 맛은 아몬드 봉봉이다. 무난한 바닐라 베이스 아이스크림에 초코 시럽이 섞여 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초코아몬드 씹을 때마다 오독오독 씹히면서 초콜릿 맛이 난다. 절묘한 건 마냥 달달한 초코 아몬드가 아니라는 점. 약간의, 아몬드에 있는 아주 약간의 쓴맛과 씹을한 맛이 감칠맛을 더해줘서 끝없이 들어간다.

단맛이 가고 씹을함이 온다. 아몬드 봉봉은 흔히 말하는 고진감래(苦盡甘來)가 아니라 고래감진(苦來甘盡)이다! 석박사님들이 무슨 수를 쓴 건인지는 미약한 필자의 식견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몬드 봉봉의 절묘한 맛을 만든 베라 직원분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새로운 맛이 끝없이 나왔지만 여전히 필자의 마음속 1등을 지키고 있는 건 아몬드 봉봉이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살에서 계속 접할 때면 괜히 안심이 된다. 어렸을 때 엄마가 퇴근하시면서 사왔던 아몬드 봉봉도, 지금 내가 사먹는 아몬드 봉봉도, 맛은 여전히 좋다. 이제는 베라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조르는 어린이가 아니라, 베라 쿠퍼 한 통을 혼자 독차지하고 먹을 수 있는 성인이지만, 그 맛은 여전히 좋다.

사회를 비판하는 날카로운 글도 좋지만, 때로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 머리를 반쯤 비우고 본능대로 주제를 열 때 사람이 가장 맑아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다. 다가오는 여름철, 여전히 우리 집 5분 거리에 있을 베라에서 아몬드 봉봉을 사 먹기 위해! 기사도 쓰고, 돈도 벌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 13 💬 5

조은채(간호학과) 초반에 아이스크림의 위대함을 정말 절묘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편서견보다 더

부러운 배라세권어군요... 맛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16  
friday, am 12:08 | 13:00  
이주원 (심리학과)

#6일차 #단맛

단 음식은 쉽게 질린다. 달달한 음식이 주식이었다면 하루 삼시세끼란 말은 없었을지도. 단 음식이 쉽게 질리는 이유는 강렬한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강렬함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다. 단맛은 주식처럼 고박고박 찾게되진 않지만 온근히 자주 찾게 된다. 이를테면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달달한 음식을 찾는 것처럼. 단맛의 강렬함을 느낌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단 음식이 쉽게 질리는 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른다. 쉽게 질리게 가끔 먹게 되고, 가끔 먹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꾸준히 강렬함을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있다. 이 얼마나 달콤한 축복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단맛으로 인해 잠시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것이. 아마 단맛이 쉽게 질리지 않는 맛이라면, 그렇기에 강렬함이 없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 달콤함은 축복이다.

😊 11 💬 3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아기들이 처음 달콤한 걸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죠. 달콤함은 축복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2025/05/16  
Friday, am 12:21 | 30318  
김상선

오늘의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이 꺼낸 달달한 이야기들이 코끝에, 혀에 머무는 것 같네요. 가족이나 친구들과보낸 달콤한 순간, 소소한 성취들. 그렇게 모아진 단맛들은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조용한 응원처럼 느껴졌어요. 단맛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자주 먹으면 물리고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니까요. 다만,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쯤 꺼내어 다시 씹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한 조각의 단맛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

😊 18 💬 0



2025/05/16  
Friday, am 7:43 | 41888  
김상선

#7일차 키워드 : 이름  
오늘의 키워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김춘수의 시 <꽃>의 한 구절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존재를 부르는 특별한 기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하거나, 잊고 싶은 이름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혹은 잊고 싶은 이름이 있나요?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 누군가에게 불리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어떤 이름일까요? '이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19 💬 0



2025/05/16  
Friday, am 8:38 | 32918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7일차 #이름

이름이라..  
내 이름은 심유진, 학생이죠.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대사를 변형한 그런 드림이 생각난다.

부드러운 유, 옥돌 진  
부드러운 옥이라.. 모순적이지 않은가?  
마침 오늘 생일이라서 처음으로 부여받은, 나의 고유영사의 어원을 언급하는..  
의미부여하게 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는 유진이라는 이름이 싫었다. 너무도 흔한 이름으로 같은 반에 성은 다르지만 유진이라는 이름이 중복된 적도 빈번했고, 지금 생각나는 최악의 중복은 성이 유, 이름이 진인 외자 이름의 남학생과 같은 반이었던 것..

'유진과 유진'으로 놀림 받고, 우려했었는데 별기로 그 남학생과 확공까지 되어 더 놀림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름에서 오는 본능적인 거부감, 그리고 놀림받았던 기억으로 끝끝내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은 읽지 않았다.

(부모님일지라도) 타인이 부여한 날 대변하는 3인칭말고, 내 의지로 내 시간과 노력의 집념체인 게임 닉네임을 나는 주로 '에프'라고 짓는다.

김윤아의 '에프알르'라는 노래에서 따온 것으로 별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다.

남이 내 이름을 부르는게 내가 정의한 것이 아닌 누군가의 정의였기에, 부르는 어감이 특이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특별하지 않은 흔한 이름이어서인지 나는 정말 내 이름이

싫다.  
그럼에도 내포한 뜻; 부드러운 옥이란 의미는 마음에 든다. 나라는 모순적인 사람을 은유한 거 같아서.

나는 내가 부여한 에프 라는 닉네임이 가장 나에게 가깝다고 생각한다. 내가 명명한 첫 3인칭이니까.

두번째로 만든 날 대변하는 닉네임은 '잠시'이다.  
맑을 잠, 때 시 맑은 시간.  
파란 시간을 한 번 꼬아서 만든 나만의 언어이다. 약간의 말장난을 첨가한..  
-"잠시 '잠시' 닉의 ---"  
이런 문장을 만드는 상상.

그 이후의 날 대변하는 닉네임들은 나에게 크게 의미없지만 우리 학과의 몇몇 교수님은 학생들을 배려하여 성적 확인을 위해 시험 답안지 제출시 닉네임을 적어내라고 하신다. 지금까지  
-푸른 자작나무 숲  
> 어릴 때 본 동화책에서 유래.

-evol.3.1  
> 몇 년전에 했던 게임에서 따온 것.

-비 오는 날  
> rain, 학정 b,  
채점할 때 오답으로 그어지는 빗금.

앞으로 한림대를 다니며 날 표현할 수많은 닉네임이 생성될 것이다.

너의 이름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끝으로.)

추신: 꼭 한 번 첫 시작 글 써보고 싶었는데 밤새서 성공했습니다아아!

😊 17 💬 0

유재현(일본학과) '잠시'라는 닉네임 좋네요! 한자 세계의 공감을 느꼈습니다. 맑은 시간이란 뜻이 뭔가 저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유진님의 글에서와 같이, 언어유희로도 잘 사용할 수 있겠군요!



2025/05/16  
Friday, am 8:44 | 32918  
김미도(일본학과)

#7일차  
"김미도(金味度)"  
예전에는 내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특이해서"다. 특이한 이름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내 이름을 보통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 반드시 다시 물어본다. 몇 번 알려줘도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 내 이름을 계속 잘못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이름만 듣고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나 많았고, 당연히 살면서 동명이인을 만나본 적도 없다. 그래서 한 때 진지하게 개명에 대해 고민했을 정도로, 나는 내 이름을 싫어했다.  
원래는 "현나", "유진" 등 평범하고 예쁜 이름으로 짓고 싶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극구 반대하셔서 결국 절에 가서 스님에게 부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절에서 내 이름 후보 세 개가 적힌 종이를 받아왔고, "김미도", "김미영", "김기림"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친척들은 만장일치로 "김기림"이 좋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만이 "김미도"를 선택하셔서 결국에는 김미도가 되었다고 한다.

"모리모토 미토(森本珠都, もりもとみと)"

내 일본 이름이다. 모리모토라는 성은 어머니께 물려받은거고, 이름은 미토다. 마찬가지로 특이한 이름이다. 한국 이름도 특이해서 혹시 일본식으로 지은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다. 아니다. 일본 이름도 특이한 이름이다. "미토"라는 이름은 어머니의 어렸을 적 친구의 이름에서 유래된거라고 한다. 마침 한국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때문에 한국 이름인 "미도"의 비하면 아주 없는 이름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마찬가지로 동명이인을 만난 적이 없다. 일본에는 "아테지(当て字)"라는 원래 한자의 뜻을 무시하고, 글자의 음과 훈을 빌려와 쓰는 문화가 있다. 내 이름도 그런 "아테지"를 써서 한자가 특이하다. 특히 "珠"라는 한자는 원래는 절대 "미"라고 읽을 수 없어서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거냐고 물어본다. 실제로 대학에 와서도 원어민 교수님께서 내 일본 이름을 보고 그렇게 물어보셨다.

이렇게나 싫어했던 이름들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렇게 싫어하던 내 이름을 좋아하게 되었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름은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첫번째 선물이니깐, 그런 이름을 특별하게 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나도 언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에게 나의 첫번째 선물을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고 싶다.

😊 17 💬 11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미도님은 자신의 이름이 싫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밴드에서 미도라는 이름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흔하지 않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일주일 마무리 잘 하세요!



2025/05/16  
friday, am 9:57 | 2499  
유재원(일본학과)

#7일자

내 이름은 흔하다. 그래서 한때 나의 흔하지 않은 이름을 싫어했다. 이름 통계 사이트에 '채원'을 검색해 보니, 전국에 26126명이 있으며, 10번째로 많이 쓰이는 여자 이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살아오면서 동명이인을 참 많이 봤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 같은 학년에 '채원'이가 나 포함 4명이 있었다. 중3 때는 다른 '채원'과 같은 반이 된 적도 있었다. 다행인 건, 내 성이 다른 이름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다 달려서 '채원아!'라고 말하는 목소리에서 나를 부르는지 아닌지가 대부분 환가름이 되었다는 점이다.

흔한 이름은 많다. 그러나 다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내 주변엔 '지원'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5명이 있다. 그러나 한 명의 '지원'을 만날 때, 이름이 동일하던 이유로 다른 '지원'이가 떠오르진 않는다. 성까지 동일한 이들 또한 그랬다. '왜 안 떠오르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이미지가 부여하는 고유성이 아닐까. 이름에 이미지가 덧붙여져 이름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은 유일무이가 된다. 누군가와 성까지 똑같아도, 이미지로 인해 구분된다. 이걸 생각하니 내 이름이 흔해서 싫다는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다.

😊 16 💬 9

김미도(일본학과) 맞아요. 저도 일본학과에서 "채원"이라는 이름하면 채원님이 떠올려요! 맞아요. 흔한 이름이어도 그 사람의 고유성이 담겨져 도저히 다른 이름은 생각할 수 없더라고요



2025/05/16  
friday, am 10:04 | 2799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7일자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칭하는 것을 넘어 존재 그 자체가 되기도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역시 눈치챘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모든 것들에게는 이름이 있다. '발견된 것'들에게는 전부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말이다. 떠올려보라. 지금 떠올린 것들 중에 이름 없는 것이 있는지. 아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존재를 찾기관, 쉽지 않은 것을 넘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가?

언젠가부터 호명하는 것이 좋았다. 이름 지어진 것들을 부름으로써 무언가의 존재를 상기하고 싶었다. 이름은 누구나 갖고 있기에 그 자체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호명한다는 것은 필요로 한다는 것. 호명이 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을 시작한다면 나는 서천이지. 하는 식으로 이름은 반드시 나오게끔 우리의 머릿속에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언제부터일까? 어릴 적 인형 하나를 사도 이름부터 지으려고 했던 걸 보면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의 호명은 예시당초 생득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어릴 적 갖게 된 인형부터 우리 근처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의 이름부터 길가의 들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전부 이름이 있고 우리 인류는 발견한 모든 것에 이름 붙이려 한다.

이름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이름

불려진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이며 그 대상을 따르는 최대치의 애정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호명을 하자. 보장할 없는 존재조차도 잊혀지지 않도록, 이름 붙인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 언젠가 작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없는 필명을 사용하고자 했다. 나에게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고는 책의 글쓴이 린에 쓰인 이름이 전부이도록. 개중에서는 내 성별도 포함인데, '서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성적이라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내 성별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재미있다.

😊 17 💬 9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그 대상을 따르는 최대치의 애정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모든 존재에는 이름이 있고 나를 불려줄 수 있는 이름이 있기에 삶에 있어서 이름이란 큰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2025/05/16  
friday, am 11:09 | 2399  
김예지(사회복지학과)

#7일자 -이름

내 이름은 예지이다. 아름다운 예, 슬기로운 지. 말 그대로 아름답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다. 이 이름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졌고, 나는 자연스럽게 예지로 살아왔다. 그 이름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하는 감정은 없다. 다만 누군가가 나를 '예지'라고 불러줄 때, 나는 내가 어떤 역할이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 이름이란 그렇게, 한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가리키는 하나의 언어가 된다. 예지라는 이름은 나라는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말이자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호칭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할머니의 이름,

'은희씨'라는 말을 자주 부른다. 할머니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할머니로 살아오셨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할머니는 정작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역할로 불렸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문득 "은희씨"라고 불렀을 때, 할머니는 당황하면서도 반박이며, 좋아하셨다. 그 이후로 나는 할머니를 그렇게 부른다. 누군가의 무게를 짊어진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이름. 은희씨라는 이름에는 역할이 아닌, 존재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다. 나는 그렇게 일해주고 싶다. 당신이 은희씨였기에, 우리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수 있었다고.

😊 16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할머니가 아닌 성함을 불러드리는 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지도 살면서 할머니 성함을 불러드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2025/05/16**  
friday, am 11:29 | 20918  
최현영(금융재무학과)

#7일자 #이름

내 이름은 현영이다. 부모님은 현명한 현에 영화로울 영을 하고 싶으셨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꽃부리 영이 되었다고 한다. 꽃부리 영은 뜻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이름에 쓰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나는 그런 미션들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내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사랑만 먹으며 내 이름이 더 빛날 수 있게 하루하루 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나는 패션업계 CFO가 되는게 최종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고

있다. 가끔은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는 순간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내 꿈을 향해 가는 서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난다. 오늘도 하이팅!!! 우 🍀

😊 16 💬 8

변연영 지도 꽃부리 영자를 씁니다. 저도 뛰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쓰인것 같은데 새로운 정보네요!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멋집니다

**2025/05/16**  
friday, pm 12:24 | 20318  
이주현(사회복지학과)

#7일자

나의 이름은 이주현이다. 성은 흔한 오얏 이 이고, 주는 기동 주, 현은 빛날 현인 한자를 사용한다. 내 이름의 뜻은 세상의 빛이 되고 기동이 되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는 법을 배우신 작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고 한다. 내 이름에 대한 일을 하나 말해주자면 주현이라는 이름은 남자든 여자든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내 이름만 보고 나의 성을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를 만들라고 해서 우리 조와 다른 조를 봤는데 우리만 남2 여2이 아닌 남3여1이었다. 뭐지 싶었는데 조를 만드시는 분이 내 이름을 보고 여자라고 착각하셨던 것이다. 이때까지는 주현은 남자가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이름의 뜻은 위에서 알렸듯이 세상의 빛이 되고 기동이 되라는 뜻이다. 이 뜻의 자세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 안에서 없어서 안될 중요한 인물이 되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은 해본다. 이름처럼 살고 싶는데 내가 그할 인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난 분명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대학생이 된 지금은 고등학생 때는 몰랐던 또 다른 사회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용기가 떨어지는 것 같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어쩌면 세상의 빛이 되고 기동이 되는 것은 노력과 행동이 필요한데 난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조금씩 일어나 움직여야겠다. 내 이름처럼 살려면 더욱 열심히 살아야하니깐. 나중에 더 나이 먹으면 돈이 많고 권력 많고 이런 것보다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있고 싶다. 내 이름처럼!

😊 16 💬 14

김명빈(미디어스쿨) 저는 오히려 여자 친구들 이름으로 많이 접해서 무의식적으로 여성분이라고 생각했었어요ㅋㅋㅋ 세상의 빛과 기동!! 넘 멋진 뜻이 있는 이름이네요 주현님 가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2025/05/16**  
friday, pm 1:45 | 24918  
정우현(철학과)

#7일자

저의 이름 뜻은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듣자마자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자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성인이 되고서야 이름이 얼마나 좋은 뜻인지 배운 것이죠.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안 좋은 일로 제 이름이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는 사람들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장난기가 많아 저지른 행동들을 항상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1

때부터 저는 갑자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반 부회장을 하고 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불리는 게 기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혼나는 일로 이름 불리는 게 그리 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다정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칭찬만 받으면 오만해지고 제가 가장 뛰어난 줄 착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배우고 싶고 누군가를 존경하고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교육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른들에게 제 이름이 불릴 일도 질 없기에 과거가 그립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모든 분들이 감사하고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 16 💬 6

정서진(언론방송융합20)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혼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5/05/16**  
friday, pm 1:50 | 27918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7일자  
이름

나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우리 엄마를 부를 때 "○○맘-" 또는 "○○○ 어머니!"라고 불렀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그 안엔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봤던 글에서 "엄마들은 늘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린다"는 말을 읽었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래서 생각해봤다  
우리 엄마도 나의 엄마,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불렸던 건 아닐까?  
'주연 어머니', '누구누구 엄마'라는  
이름만으로 살아온 건 아닐까?

그때부터 나는 엄마를 이름으로 불렀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엄마.  
그 이름 속에는 엄마의 삶과 시간, 그리고  
존재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렇게  
부른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그저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대답하셨다.  
그 반응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내가 불러준 이름 속에 엄마가 잠깐이나마  
'엄마'가 아닌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를  
바란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른다..

😊 17 💬 10

편민영 저도 어머니께 00씨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과 술한잔 할때 농담식으로  
언급니다. 그러면서 서로 웃는데 그 기억이 평생  
남을 것 같아요

2025/05/16  
friday, pm 2:08 | 29118  
김서희(식품영양학과)

#7일차 이름

나는 위로 두 살 차이 나는 언니와 아래로 네  
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다. 우리는 회사  
돌림을 쓰는데 순서대로 동희,서희,채희다.

언니는 동녘 동을 쓰는데 이름처럼 따뜻한

사람이다.  
동생은 비단 재를 쓰는데 비단처럼 반짝이는  
눈빛이 아름답고 여러 재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어를 잘한다.

나는 지혜 서를 쓴다.  
예전부터 나는 언니와 동생은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내 이름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최근 2년간 이어온 상담을 종결하며  
나도 내 이름이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한 지혜는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지혜는 지식과 경험이 합쳐져진  
것이다. 나는 상담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했다. 그래서 내 이름, 지혜 서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름따라 간다.',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상담  
종결 후 생각이 바뀌었다. 이름은 살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이름과 삶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내 이름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 12 💬 6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가장 듣고 부르는  
말이기에 자연스럽게 삶과 비슷해진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름에도 뭐든 의미가 있기에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5/05/16  
friday, pm 2:56 | 29118  
권혁빈(경제학계)

#7일차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내 이름은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다. 안동 권씨 36대손, 다른  
가문과는 다르게 우리 가문은 특이하게  
아직도 항렬을 철저히 지키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가운데 '혁' 자를 무조건 넣은 후  
마지막 한 음절을 정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그냥 직명소에서 이름을 받아 지으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극구 반대에 직접 이름을  
작명하셨다는 비하인드를 내가 크고 나서  
알게 되었다. 어릴 때도 지금도 가끔  
'혁빈'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겐 바로  
알아듣기가 힘든지, 혁인, 형인, 형빈 등으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름. 여러 사물, 지역, 공간, 생물 등을  
구별하기 위해 정해놓은 하나의 명칭이다.  
이름을 만들 때에는 여러 부분들이 고려된다.  
국가나 지역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들의  
역사나 민족관, 자연환경을 이름의 뜻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태어난 아이의 부모님들, 혹은  
웃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바라는 인물상 혹은  
좋은 의미를 담은 글자를 모아 조합해  
작명한다. 이처럼 이름은 누가 들어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혹은 그 의미를 담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

赫斌(혁빈), 특이하게 내 이름은 모두  
'빛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이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나의  
주관적 예상으로는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라는 마음이 담긴 작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모두 각자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닌

각각의 존재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자  
정체성이다.

😊 14 💬 6

윤소정(사회학과) 이름이 맛있는 것  
같아요!동림자가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이름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빛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빛난다는 의미의  
한자를 두 개나 사용해서 지으셨나 봅니다.  
이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2025/05/16  
friday, pm 3:12 | 29118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7일차

이름은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받는 것이다.  
누가 불러주기도 전에 이미 내게 붙어 있는  
것, 그게 이름이다. 처음엔 그냥 부모님이  
지어준 단어였고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였고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들던 말이었다.  
특별히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이란 게 단순한  
말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 괜히 반갑고 툭러게  
부르면 조금 거리감이 느껴진다.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름을 어떻게 불러는지에 따라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바뀐다.  
가끔은 이름 때문에 겪는 애매한 상황도 있다.  
혼한 이름이라 여러 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는 경우, 별명으로 불리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름이 나를  
설명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첫인상을 주는 건 맞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이름에 내 이야기가 쌓인다.  
처음엔 단순히 불리는 말이었지만 점점 그  
이름에 내가 살아온 모습이 더해진다.  
나중에는 그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흔적 같다.

😊 15 💬 6

임혜빈 (사회복지학전공) 맞아요, 우리의 이름엔 많은 이야기들이 쌓이며 가치를 더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쌓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요. 오늘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16  
friday, pm 3:27 | 21명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7일자 '이름'

세상 모든 이름들은 각자만의 특별하고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누군가는 내 이름이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이름이 지어진 계기와 내 이름의 뜻 한자 사주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부모님이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받아오셨는데 부모님이 엄청난 돈을 들였다고 해서 놀랐는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지었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이름의 중요성을 알게 된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할 뿐이다

또 내 유치원때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김:김수진은 수:수정처럼 맑고 진:진주처럼 아름답다 라는 삼행시는 스무 살 지금이 된 현재까지도 잊히지 않는 제일 좋아하는 이름 삼행시이다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이 더욱더 좋아지게 되었다

이름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태어난 사주와 여러 가지의 복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나라는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주기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내 이름의 한자는 '金受璫'으로 부모님이 사주와 잘 맞는 이름을 골라서 지금까지 건강하고 이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라이팅 챌린지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하였다

😊 17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삼행시를 잘 지어졌네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 삼행시를 어머님께서/ 주전자를 씻는데/현미가 있었다 이런식으로 애들이 지어줬는데..부럽습니다 ☺



2025/05/16  
friday, pm 4:04 | 21명  
임혜빈 (사회복지학전공)

#7일자

이름

임혜빈, 은혜 해, 물가 빈으로, 은혜로운 물가라는 뜻이다. 나는 늘 내 이름에 만족하며 살아왔다. 혜빈이 흔하지도, 그렇다고 희귀하지도 않은 아주 예쁜 이름이라서, 늘 좋아했다. 하지만 웃기게도 크면서 내 이름이 싫어진 순간이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외국인들이 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을 때, 나머지 하나는 면접을 봤을 때다.

최근에 영어 면접이 하나 있었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길래, 경험 살아 호기롭게 지원을 한 뒤 완전히 잊고 있다가 전날 밤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준비했다. 사실 준비라 할 것도 없었다. 예상 질문의 갈피도 잡지 못해 대중 자기소개만 준비했다. 'Hi, I'm Hyebin Yim...'으로 시작하는 매우 전형적인

자기소개였다. 누가 봐도 면접을 잘 보지 못할 걸 알기에, 면접 날 아침부터 내 이름이 불리지 않길 바랐다. 하지만 당연히 그럴 리 없다. '임혜빈 학생~' 너무나 친절한 목소리로 내 이름이 불렸다. 왜 내 이름은 임혜빈일까...? 그냥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하... 울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대답한 뒤, 면접장에 들어섰다.

그리고 당연히 면접은 망했다. 정말 대차게 망했다. 심지어 자기소개도 안 시켰다. 실면서 면접을 이렇게 망친 건 처음이었다. 한국어로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영어로 물어보니 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너무 창피하고 긴장돼 기절하고 싶었다. 내 이름에 먹칠한 기본이었다.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 가는 사람의 수준이 이정도라니...!! 사람이 진짜 망하면 멘탈이 깨지지 않는 걸 깨달았다. 그냥 무너져 내린다. 와르르.

그래도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다. 내 이름이 불리는 순간을 피하는 임혜빈이 아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임혜빈이 되고 싶다.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임혜빈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15 💬 4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무엇보다 면접을 망쳐 조금은 움츠러들 수도 있는데 그게 어닌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나아가는 모습이 대단한 것 같아요 혜빈님의 길을 응원할게요!



2025/05/16  
friday, pm 4:12 | 24명  
강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7일자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이름. 덕분에 웃었고 때문에 울었다. 강씨인지라 학창시절 출석번호 1번을 농친적이 몇 번 없었다. 예외적으로 강동수라는 친구를 만나서 2번 농쳤지만 말이다. 1번으로 살면서 나의 이름을 정말 많이 중오했다. 가장 하기 싫어했던 발표를 가장 먼저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시작과 끝 정말 극단적인 둘이지만 그만큼 장점의 규모도 거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발표란 아닌 다른 단점들도 순서와는 무관했고 나의 부족함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사랑하려고 노력 중이다. 나를 처음 불러준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려보면, 그 안에는 분명 어떤 바람과 애정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단순히 출석부의 앞자리, 발표의 첫 순서만이 아니라, 그 이름은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첫 흔적이었다. 살면서 수많은 이름을들 만나지만, 끝내 내가 가장 오래 마주하게 될 이름은 나 자신의 이름이다. 수없이 불리고, 때론 왜곡되고, 어떤 날은 예뻐하게 다가오는 그 이름. 그 안에 담긴 과거와 오늘의 나를 떠올릴 때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스스로 묻게 된다. 어쩌면 나는 내 이름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가는 중인지도 모른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가벼운 이 이름을 등에 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일. 언젠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들었을 때,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 하나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이름을, 조금 더 좋아해보기로 한다.

😊 17 💬 7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는 반대로 1번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졌어요 애매하게 5번 이하로만 출석번호가 매겨져서

아침기도 했지만 1번들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16  
Friday, pm 5:28 | 25일째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7일차

엄마의 뱃속에 내가 생겼다는 걸 확인한 날  
부모님은 부둥켜 안고 우셨다고 한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벅차오르는 감정이 감당 안돼서.

그렇게 엄마 품에서 열 달을 지낸 후 나는  
[천천히 서, 꽃술 예, 빛날 빈]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원래 '사랑은' 과 비슷한 뉘앙스로 불리는  
것에 호감을 느낀 아빠에 의해 내 이름은  
'서랑은'이 될 뻔 했지만, 아빠도 엄마도 나도  
지금 내 이름에 10000% 만족한다.

이 땅 위에 동명이인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가끔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내 이름이라는  
특권을 빼앗긴 기분도 든다. 하지만 각자 다른  
사람이 각자 다른 부모에 의해 각자 다른  
의미로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고귀한 일인가?

이름으로 (좋은 의미의) 별명도 만들 수 있고,  
이름 하나 때문에 사람을 잊지 못하기까지  
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름이 가진 힘은 정말이지 너무 대단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유 -이름에게]  
추천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과  
같은 차분하고 억척한 날씨에 듣기 좋은  
의미있는 노래예요 :)



😊 16    💬 7

관혁빈(경제학과) 동명이인이 많이 존재하지만,  
한자의 뜻까지 모두 일치하는 동명이인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민님도 세상에 많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로 모습이  
다르니 고유하고 유일한 존재임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5/05/16  
Friday, pm 5:54 | 31일째  
서정원(심리학과)

#7일차

선생님, 민들레가 왜 민들레인지 아십니까.  
문 주변에 흐드러지게 많이 피는 꽃이라 해서  
민들레... 그래서 민들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신 겁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 민들레처럼 그  
걸음걸음이 퍼져나가 세상을 바꾸고 결국엔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랬던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친일을 하더군요. 그게 너무 싫고  
원망스러워서 도망치듯 유학을 떠났던  
겁니다.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유학을 떠난 지 5년만에  
집에 돌아오던 길에 경성역에서 순회 또래의  
한 아이와 부딪혔는데...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조선말을 할 줄  
몰랐다. - 사전을 만들겠다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는 곳에 그 뜻이  
모이고. 그 뜻이 모인 곳에 비로소 독립의  
길이 있지 않겠냐고. 우리 동지들을  
설득했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용서해 주십시오.  
-영화 '말모이' 중-

오늘 키워드를 보자마자 우리의 언어를, 또  
언어를 표현하는 우리만의 고유한 세계를  
지켜준 '조선어학회' 임원들을 기억하는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임무이다. 밀린  
심비우스 북클럽 내용 정리와, 생리심리학  
복습을 뒤로 하고,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으나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일단 노트북 앞에 선다.

먼저 이들이 지켜준 언어를 쓰는 한  
사람으로서 사치스럽고, 그래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들어주면 좋겠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 세계를 소유하지만, 그

이름에 붙잡혀 자유를 잃는다.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에 나온 "언어의 한계는 곧 세계의  
한계다"라는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물과 감정 등에 이름을 붙여 부르고,  
세상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두들기고 있는 이것은 '노트북'에 포함된  
'키보드'라는 것이고, 내 앞에 앉아 있는 남녀  
한 쌍은 '커플'이라고 부르며, 이 장면을  
눈앞에 두고 보고 있는 나는 '부러움'과  
'어이없음'이라는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내가 두드리는  
이것을 키보드 말고 다른 무언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슬픔, 행복, 무대짐, 황홀함이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사물과 상태에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는  
확장되지 않고 축소해석 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우리는  
슬픔을 경험한다. 하지만 '슬프다'라는 말로  
그 모든 슬픔을 가둘 수 있을까? 실연의 슬픔,  
상실의 슬픔은 같은 듯 다르고, 아버지의  
고됨에서 오는 눈물과 아이의 오열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같은 '슬프다'로  
부른다. 물론 비통(悲痛), 우울(憂鬱) 등의  
한자권 단어와 쓸쓸함 등의 고유어도  
존재하긴 하나, 그것을 또한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한 단어에  
담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실제 느낌이나  
존재의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이름으로  
함원함으로써 우리의 사고와 감정의 해석  
범위는 축소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치스러운 생각을 해 봤다.  
'슬프다'의 파생어로, 지금껏 우리가 말로  
표현할 적 없던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나  
그리움이 스며든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물빛이 흐르는 날'이나, '반복되는 회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슬픔이 반복될 때'를  
뜻하는 '맹맹이 울리는 마음' 등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감정에 새로운 언어적 '옷'을 입히면 특정 단어로 표현이 제한되어 있던 우리의 표현 가능한 세계가 확장되지 않을까, 또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고차원적인 사고 또한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전기의 비트겐슈타인은 나와 의견이 같을 것이다. 추가로 후기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어떤 것들은 논리적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표현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리, 예술, 종교, 존재의 본질과 같은 문제들은 말해줄 수 없고 오직 "보여질" 뿐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내가 '슬프다'의 정의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실천에 맞맞은 행위일 수 있겠다. 그러나 재밌는 점은,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자체는 본인이 '윤리'를 설명하려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책 내용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즉 <논고>는 스스로가 부정하는 철학서이다.

그렇다면 그의 후기 철학을 실천하려는, 세상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 시도를 보고 왜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내가 쓰고 있는 이 언어의 역사를 잊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키워드로 받았던 '고요'는 순우리말로써 조선어학회 임원들이 지켜낸 단어인데, 나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을 무시한 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모든 현재 진행 중인 작품들은 모두 과거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들의 뼈가 있었기에 지금의 삶이 있는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제는 한국통감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어 탄압 정책을 시작했다. 이들은 조선어

교육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다가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기에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40년 8월에는 한글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시켰고, 창씨개명을 강요해 조선인들의 이름과 성도 빼앗았다.



立派な兵隊を出すために國語生活を實行しよう!  
 훌륭한 병사 양성을 위해 국어(일본어)생활을 실행합시다!

그러나 전 세계 각지에서 피땀 흘리고 있던 독립운동가와 마찬가지로, 조선어학회(해방 후 한글학회) 임원들은 말살되어 서서히 없어지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조선말 큰사전> 편찬 사업(1929-1942)을 은밀히 진행한다. 이 큰사전에는 약 16만여 개의 표제어, 일상어뿐 아니라 고어, 방언, 전문용어가 포함되었다. 또 당시까지는 일관된 철자법이 없어 글쓰기에 혼란이 많았는데, 이들은 자음/모음의 체계, 받침 사용법, 띄어쓰기 등의 통일안을 마련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도 수립했다. 일본어, 영어, 독일어 등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던 상황에서 우리말에 맞는 음운체계를 반영하여 기록하였다.



큰사전. 해방 후 조선말큰사전 사업을 재계했다. 이는 유실된 줄 알았던 큰사전 원고가 광복 이후 서울역 창고에서 온전히 발견되어 가능했다.

그러다가 1942년에 '조선어학회사건'이 터진다.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탄압해 회원 33명을 검거하여 고문하고 투옥했다. 기소된 사람은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공판 결과 이극로는 징역 6년, 최현배 징역 4년, 이희승 징역 2년 6개월, 정인승과 정태진 각각 징역 2년, 김도연, 김법린, 김양수, 이종화, 이우식, 이인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헌식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운재와 한징은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다가 옥사(獄死)했다.

해방 후에 초월한 상태에서 풀려난 이들은 큰사전 작업을 이어간다. 옥살이를 한 동료들, 옥사한 이운재와 한징의 정신을 이어야만 했다. 중간에 6.25 전쟁이 터져 또다시 작업물을 땅 아래 묻어야 하는 일도 있었지만, 휴전 후에도 편찬 작업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끈질긴 의지 덕분에 1957년 한글날에 총 6권으로 편찬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완간까지 무려 28년이 걸린 인고의 결과물이었다.

이들의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보는 문자체계는 또 사고방식은 얼마나 많이 다른 형태가 되었을까?  
多分こう書いているだろう。  
韓国固有の情緒である「恨」も表現でき

なかったらろう(아마도 이로케쓰 고있었겠지순 우리말 인'고요'도 표현할수없었 겠지.) 또 '고요'를 표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고요함을 주제로 한 수천, 수만 개의 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지. 일제 말기 일본식 수동문(ex~되어지다)이 남발되고,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문형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용할 수 없었겠지. 또 자음과 모음을 다양하게 조합하지 못해 다양한 표현을 할 줄 모르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언어의 한계, 즉 세상의 한계에 갇혀 살게 되었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한국어로 타자를 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 준 한국어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않은 채 언어를 확장해서 세상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저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국어로 표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1935년, 현충사에서 찍은 조선어학회원. 앞줄 가운데에 있는 이운재, 한징은 7년 후에 체포되어 옥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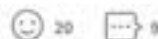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말의 옷이다."  
『우리말본』 서문 中, 최현배.(조선어학회 간사, 언어학자, 한글 교육운동가)

"사람이 사람인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생각이 알로 표현되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은 죽는다"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이운재(조선어학회 회장, 독립운동가, 언어학자)

“우리가 사전을 만든다는 것은 단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기억을 기록하는 것이다” 김윤경(조선어학회 임원, 국어학자, <조선말 큰사전> 편찬 참여자)

이외에 우리말을 기록하고 보존하려 했던 수많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말모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인데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메타언리학적 견해를 몇 년전 접했기었던 적은 있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된 철학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언어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윤리의 실천적 측면이 소홀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저는 “윤리학이 모든 학문에 앞선다”는 레비나스적인 견해를 좋아하지만, 윤리를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언어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05/16  
friday, pm 6:11 | 149회  
장근희 (글로벌비즈니스전공)

#7일차

내 이름. 베틀 장, 뿌리 근, 빛날 희. 사실 나는 내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그냥 적당히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는지, 한자의 뜻을 따라가겠지 싶은 마음으로 여지껏 살아왔다. 그렇다고 불만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내 한자 이름을 좋아한다. 단순 동명이인은 많겠지만 내 이름이 한자로 적혀있을 때 오직 나만이 가진, 온전한 나를 나타내는 그 한자 이름이 어릴 적 나는 너무 좋았다. 지난 교양 수업 중 '이름은 가장 대표적인 은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멧했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내 은유인 한자 이름을 좋아했던 걸까?

이름은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받게 되는 첫 번째 선물이자,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대일지도 모른다. 베틀고, 뿌리 내리고, 빛나라는 소망이 담긴 세 글자는 나에게 무의식적인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의 전체를 소환한다. 얼굴, 목소리, 추억, 성격, 그 사람만의 특별한 분위기까지. 그러니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인 셈이다.

결국 이름은 모두의 출발점이다.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 속에서 내 의미를 발견해가는 과정, 그 출발점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 몫이다. 베틀 장, 뿌리 근, 빛날 희. 이 세 글자를 통해 부모님이 바라셨던 내 모습을 상상해보고, 이 이름에 걸맞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장근희'라는 은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채워나갈지,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이름은 태어나기도 전에 받게 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것에 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주는 것이기에 삶의 원동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05/16  
friday, pm 6:46 | 219회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7일차 #이름

모든 것에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 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이름이다.

그저 길을 걷다 보면 밟혀 죽기 일쑤인 개미들에게도 '개미'라는 이름이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출근하기 위해 전철 속에서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있다. 심지어 생물체가 아닌 그저 물건에도 이름이 있다. 칫솔, 서랍, 거울 등등.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심지어 우리가 걸터다니는 길에도 '길'이란 이름이 있다.

이름은 단지 그것을 부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 가지는 애정의 표현이라고 본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처음 주는 이름, 강아지를 키울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이다. 하물며 어릴 적 길을 지나다니며 눈에 띄는 돌명이에 이름을 지어줬던 기억과,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소중히 다루던 시절.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의 페이지를 적어 놓는 것과 같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재은비(생명과학과)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는 이름이 있죠...그 이름은 어떤 마음이 담긴 채로 지어진 것일지 생각하게 되네요

2025/05/16  
friday, pm 7:02 | 259회  
재은비(생명과학과)

#7일차

#이름  
나예겐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이 어둠 속에서 그저 존재하는 존재. 아니, 사실 나에게는 수많은 이름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나는 나의 이름을 모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나는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몸을 동그렇게만 채로, 이 어둠 속을 헤엄칠 뿐.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저 당신의 온기와, 알아듣지 못할 음성과, 고요히 울리는 심장의 박동.  
나를 감싼 어둠 밖에서 느껴지는 손길 뿐,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압니다. 이 빛줄 하나로 당신과 이어져 있을 나는.

당신은 나의 존재를 알기에, 나의 이름 또한 아시겠지요.  
나는 누구의 이름도 모르지만은, 당신의 존재만은 잘 압니다.  
이 어둠을 헤엄치며 오늘도 나는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게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줄 그 날을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줄 날을 기다립니다.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내가 만약 태어라면..하면서 같이 느끼면서 읽은 것 같습니다! 뭔가 생명의 신비함도 느껴지고 이름의 소중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25/05/16  
friday, pm 8:49 | 229회  
박지영 (경제학과)

#7일차 #이름 #오해

성씨 박(朴), 지혜 지(智), 꽃부리 영(英). 난 내 이름을 아주 오랫동안 좋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내 이름 한자에 큰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숙제로 '이름의 한자와 뜻'을 알아오는 과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자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고, 나 역시도 내 이름의 한자를 적어가야 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엄마였다. 엄마는 한자를 참 예쁘게 썼다. 옛날엔 학교에서 한자를 자주 써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에 익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집에 오자마자, 종이를 내밀며 엄마에게 내 이름 석 자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朴智英"

내 한자 모양새는 딱 마음에 들었다. 아주 단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난해하지도 않았다. 이름이 쓰인 종이를 들고 엄마한테 이게 무슨 자냐고 물었다. '지혜 지'에 '꽃부리 영'. 한자의 훈을 듣고 난 그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그런 한자구나'하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발생했다. 학교에 가서 내 이름을 친구들에게 알려줬는데, 친구들이 물었다.

"그럼 너 이름은 무슨 뜻이야?"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고에 '꽃부리'라는 개념은 없었다. 심지어 엄마의 구름을 통해 알게 된 훈이었기 때문에 '부리'가 아니라 '뿌리'로 알고 있었다. 지혜로운 꽃부리? 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설마 부모님이 나쁜 뜻으로 내 이름을 짓진 않았을 것이다. 그 날 학교에서 '꽃부리'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 하루종일 생각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는 '꽃을 피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뿌리'라는 결론을 냈다. 첫째인 내가 부모님의 집에서 꽃을 피우는 시작점이었다는 나름의 해석이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납득시켰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의 이름 한자를 알게 됐다. 같은 '지혜 지(智)'에 '옥구슬 은(珉)'. 옥구슬이라니, 너무 예쁘지 않은가? 그 우아한 이름에 비해 '꽃부리'는 너무 초라해 보였다. 나는 꽃부리로 만들어 놓고, 동생은 옥구슬이라니! 게다가 막내 남동생은 돌림자까지 받았다. 첫째라는 이유로 나는

좋은 뜻보다 첫째라는 '순번'만을 물려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 이름의 한자가 뭐 그리 중요하겠나마는 어린아이에게 정말 큰 문제였다.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애정을 담는 그릇이라고 여겼던 어린 나에게, 그 그릇이 유난히 작아 보였던 순간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엄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동안 품어왔던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꽃부리 영(英)’은 ‘꽃의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부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에선 ‘영특하다’, ‘우수하다’는 의미로 많이 써. 네 이름은 지혜롭고 영특한 아이라는 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에 쌓여 있던 서운함이 스스로 녹아내렸다. 내가 여지껏 싫어했던 내 이름은 '지혜롭고 영특하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아, 부모님은 내가 지혜롭고 영특한 아이로 자라주길 바랐던 거구나. 내가 오랫동안 오해했던 이름은 사실은 부모님의 깊은 바람이 담긴 아름다운 말이었다.

'영(英)' 자는 원래 풀의 싹이 나오는 모습을 그린 '풀 초(艸)'와 뛰어한다는 뜻의 '뛰어날 영(央)'이 합쳐진 글자로, 본래는 '꽃부리' 즉, 꽃잎을 의미한다. 꽃잎은 꽃의 얼굴이자 매력의 정수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영예', '영웅', '영화'처럼 수많은 말에 사용되며, 빼어남의 상징이 된다. 그래서야 나는 내 이름을 다시 읽게 되었다. 지혜롭고 영특하며,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불러주고 싶었던 것이다.

솔직하자면 그 때도 여전히 여동생의 '옥구슬 은'자가 여전히 부러웠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가 한 마디를 덧붙였다. "네 이름은 아빠가 작명소 가서 비싼 돈 주고 지어온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는 모르겠다. 마치 값비싼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나의 이름이 더 귀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항상 이름을 쓸 일이

있으면 한글 대신 한자로 이름을 적어내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귀엽고 순수한 마음이다.

요즘도 가끔 내 이름을 마음에 써본다. '朴智英' 이제는 그 뜻도, 모양도 참 마음에 든다. 이름이란, 다시 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진심을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운 말인 것 같다. 내 이름처럼, 나도 꽃잎처럼 영롱한 사람이 되어가길 바란다.

😊 14 💬 5

이주환(사회복지학과) 이미 영롱한 사람이 되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이름을 지으신 지영님의 아버지를 통해 큰 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

2025/05/16  
Friday, pm 9:52 | 25주째  
유재하(미디어스쿨)

#7일차

키워드 : 이름

오늘 키워드인 '이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나는 내가 가장 애정하는 가수 아이유의 노래가 떠올랐다. 그녀의 모든 곡을 좋아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름에게'라는 곡은 정말 가사가 참 예쁘다. 비교적 근래 나온 아이유의 곡 중에서,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곡이 있다. 이 곡은 총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3절에서 "돌아오는 길을 알아"라는 가사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그녀의 일대기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늘의 추천곡인, '이름에게'는 그녀가 25살 때 김이나 작사가와 함께 작사한 곡이다.

그녀가 자기혐오기를 지나 보다 건강하고 단단한 심지를 가지기 조금 이전의 시기에,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에 있는 곡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나에게도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가는 가사들이 많아 울린다. 아이유의 곡은 정말 가사가 좋지만, 오늘 '이름'이라는 주제에 맞는 '아이유-이름에게' 곡을 한번쯤 들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아이유 -이름에게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는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썩이는 그 메아리만 돌아와  
그 소리를 나 혼자서 들어

깨어질 듯이 차가워도  
이번에는 결코 놓지 않을게  
아득히 멀어진 그날의 두 손을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어김없이 내 앞에 선 그 아이는  
고개 숙여도 기어미 울지 않아  
안쓰러워 손을 뻗으면 달아나  
텅 빈 허공을 나 혼자 겨안아

예어질듯이 아파와도  
이번에는 결코 잊지 않을게  
한참을 외로이 기다린 그 말을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영원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

수없이 잃었던 춤고 모진 날 사이로  
조용히 잊혀진 네 이름을 알아  
엄추지 않을게 몇 번이라도 외칠게  
믿을 수 없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추가로, 꽤나 오래 전에 '아이유-이름에게'를  
들으며 적었던 시도 올려본다. 이 시도 제목이  
'이름에게'이다. 그 당시 나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던 어느 친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전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나도 그  
시기에 속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더 나아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정확히는 내가 그 친구에게 선물했던 시이다.  
그 친구가 내가 그 영겁의 시간을 조금씩  
벗어났던 것처럼, 자기혐오의 시절을 지나 좀  
더 유연하고 단단해진 건강해진 심지를  
가지고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며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름에게

이름에게 물었어  
너는 언젠가가 찾아왔니  
너는 드디어 행복하니

이름이 그러더라  
나는 지금이 못났어  
나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름에게 말했어  
너는 이미 누군가의 이름이야  
너는 계속 누군가의 빛이야

이름이 그러더라

나는 우리 엄마의 딸이야  
나는 우리의 유일함이야

이름을 불렀어  
너는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너는 진작 행복하길 바랐어

이름이 외쳤어  
나는 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널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17

윤소정(사회학과) '이름에게'라는 곡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사를 음미하며 제대로  
들어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게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도 같고 마음이 아려오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2025/05/16  
Friday, pm 10:25 | 241명  
윤소정(사회학과)

#7일차 #이름

<나의 이름은>

내 이름은 沼(못 소) 晶(맑을 정), 맑은  
연못이라는 뜻의 소정이다. 예전에 친구들과  
사주를 보러 갔다가 사주의 오행 중에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사주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내  
사주에 물이 부족해서 물이 들어간 한자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길 해주셨다. 이름은 평생  
가는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주까지  
고려해서 지어주신 것 같다.

<이름이란,>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대화는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사람의 이름  
외에도 인간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다. 앓기 위해 사용하는 소파와 의자,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신발이나  
옷... 모두 명칭이 있다.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그뿐이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인간 고유의 행위인 것  
같다. 이름이란, 이름이 붙여지는 대상으로  
하여금 존재감을 갖게 하고, 그 존재를  
기억하기도 하고, 떠오르게 만드는 중요한 것  
같다.

15

조하경(청각학과) 소중한기에 이름을 붙인  
걸까요? 이름을 붙여서 소중한 걸까요? 알이  
먼지나, 달이 먼지나. 그것이 문제로다~

2025/05/16  
Friday, pm 10:45 | 241명  
정우림(정치행정학과)

#7일차 #이름

자세히 적을 수는 없지만 제 이름은 어떤  
목사가 지어 주었습니다(전 개신교  
신자입니다만 그자는 도저히 목사'님'이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2019년, 어떤 큰 사건으로 그자와 저는  
완전히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는 현재 세상에  
없지만 저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그런  
원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9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저는 평소 신경도 쓰지 않던 제 이름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중어가 더 맞는  
표현일 듯하네요. 게다가 그간  
'열대우림'이니 '장조림'이니 '우림이' 등등  
(누구나 겪는 이야기입니다만) 놀림받은  
기억이 괜히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제가 그렇게 스스로의  
이름과 씨름을 하던 와중, MBC의 유튜브  
채널에서 옛날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의 5분짜리 편집본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유치원생 시절부터

요즘까지도 밥 먹을 때 무조건 볼 정도로  
하이킥 시리즈의 충성 고객입니다. 그래서  
최근 올라온, 정보석의 이름을 테마로 한  
에피소드를 시청했습니다.

몇 번을 돌려보며 박장대소도 터뜨리고  
추억에 잠겨 여러 생각도 하다가 문득 제  
태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극중 정보석은  
사위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위상이 비교적 낮은 인물임에도 나름의  
성장을 거쳐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에피소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때 저는  
"아직 나는 덜 큰 아이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생각하며 제 이름과의 싸움을 일단  
내려놓기로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20년 역사에서 꽤  
큰 이벤트였습니다.

저는 2019년의 그 큰 일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적 병도 얻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누가 지은 이름이든 그 이름의 가치는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더는 제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평생 안고 갈 친구인데 굳이 싸워서 뭐하겠나  
싶습니다. 20년 정도 써보니 어감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평생 친구인 여러분의 이름과의 관계를  
 응원합니다.

[https://youtu.be/wLHJpXgR\\_04?si=c0ZIEJk6ucZZmzp9](https://youtu.be/wLHJpXgR_04?si=c0ZIEJk6ucZZmzp9)

15

김수진(미래융합스쿨) 저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이킥 시리즈 중에서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했어요!  
우림님이라는 이름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2025/05/16  
Friday, pm 10:55 | 20:00  
조하연(정리학과)

#6일차 #이름 #인연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무한한 가능성과 존재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를 가리키는 행위이다. 즉, 우주의 무질서와 복잡함 속에서 오직 특별한 '너'를 가리켜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하는 호명은, 결국 "당신은 내게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건네는 행위다.

최근 슷츠를 보다가, 눈의 깊이보다는 빛나던 안경에 시선이 가던 젊은 시절의 이병현의 대사가 떠올랐다. 지구 어느 한 점에 바늘 하나를 꽂고, 하늘에서 밀씨 하나를 날려 그 밀씨가 그 바늘 위에 정확히 꽂힐 확률. 그게 우리가 만날 확률이라고.

선사시대는 제한다고 치고, 약 3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21세기 초. 넓은 대륙 중 아시아, 그중에서도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 각지의 동네도 아닌 강원도 한림대학교. 서로 다른 전공 속에서 '글쓰기 챌린지'라는 계기로 우연히 만나게 된 우리들. 이 가능성을 수치로 환산하는 건 빅데이터 전공 학우가 해줄 것이라 믿는다. 물론 그 계산에는 과거와 현재의 축만 포함했고,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그랬다간 한림대 전체 서버가 마비되어 터질지도 모르니 말이다.

앞서 말한 모든 가능성의 조건들, 개개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글을 읽고, 이름을 불러주며 댓글을 남기는 행위까지는 가히 알도 안 되는, 로또보다도 극악한 확률의 연쇄라 할 수 있다. 이 오싹하고도 불가항력적인 '확률'은 우리의 앞을 때 순간 가로막거나, 혹은 인연이라는 실로 이어주고 있다.

당신이 원래 목표로 했던 한림대보다 '더 좋은 학교'에 붙었든, 한림대에 떨어졌든. 군대에 입대했든, 입대를 미쳤든, 복학을 했든. 다른 꿈을 좇았든,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지구본을 돌렸든.

딱 하나,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어긋났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로의 글을 읽어줄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제한된 인지와 감각 능력으로는 감히 가능조차 할 수 없는 인연. 그 무한한 가능성 속의 실낱같은 만남은 결코 인간이 계획하거나 잡아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능성의 구조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경외로움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희미하고 모호한 추상 속에서 이 인연에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그대의 이름을 부른다

😊 16 💬 8

윤소정(사회학과) 이름을 무한한 가능성과 존재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은 존재를 가리키는 행위라고 하신 게 인상적이에요! 한림대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갔다면 지금 이 밴드에서 읽고 있는 글들을 읽으며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없었을 텐데 때문에 소중한 인연으로 느껴져요!

우리끼리, Band!



2025/05/16  
Friday, pm 10:59 | 24:00  
강명연 (미디어스쿨)

유치원 노란 가방에는 누군가 고심해서 붙여준 소중한 이름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잃어버리지 말라고, 훔쳐가지 말라고. 삐뚤빼뚤 적힌 이름 석자가 붙는 순간 그 물건은 당당히 내 것이 됐다. 세상에서 제일 작고 확실한 주권 선언. 자본주의를 몰랐던 시절 내 재산 목록엔 늘 이름이 따라붙었다.

그땐 물건을 지키기 위해 이름을 붙였는데 언제부턴가 이름 없는 물건들이 더 편해졌다. 누가 봐도 제 개성을 뽐내던 글씨는 딱딱한 고딕체에 자리를 내주었고 그건 좀 슬픈 일이었다. 성 이름 석자 대신 누군가의 언니 또는 누나, 맘이, 첫째, 장녀, 그리고 학생, 알바, 요즘 애들, MZ세대, 청년, 20대, -심지어- 아가씨... 같은 이름 없는 이름들 사이에서 익숙한 척 살아간다. 어쩌면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게 어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에도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잃어버릴 게 없어서가 아니라, 뭐든 너무 빨리 바뀌고 금세 낯설어지니까. 애정을 붙이기 쉽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그래도 가끔은, 뭐든 내 것이라 주장하던 그 시절처럼 조그맣게라도 적어두고 싶다. "이건 내 마음입니다. 항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진은 중학교 시절 명찰

#7일차

😊 16 💬 13

조은채(간호학과) 그리고 보니 어릴 때는 네임스티커를 붙일 정도로 이름을 표기할 일이 많았는데 점점 크면서 안 하게 되네요... 재치 있는 명빈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16  
Friday, pm 11:23 | 14:00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7일차 #이름

"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https://youtu.be/KSPVi\\_5Vvmk?si=Y7EskQzlyBsNsCbc](https://youtu.be/KSPVi_5Vvmk?si=Y7EskQzlyBsNsCbc)



Beating Heart, Just For Your Name [이름이 맘에 든다는]

최근 좋아하게 된 노래 제목이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 의미없던 단어에서, 듣기만 해도 행복한 단어로 바뀌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사랑은 나도 모르게 시작된다. 그 시작이 이름인지, 얼굴인지, 목소리인지는 알 수 없게 스며들듯이. 이름이 맘에 들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졌기에, 그 이름이 더 좋아지고, 그 이름을 가진 그가 더 좋아진다. 어디선가 그 이름과 같은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흥칫 놀라기도 한다.

어쩌면, 이름은 크게 의미가 없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면 그 존재의 모든 것이 사랑이니깐, 다만 존재를 칭하여 부르기 위해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결국 본질은 이름보다는 그 존재 자체이다. 존재에 대한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 이름에 대한 마음도 달라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이름이 무엇이든, 심지어는 이름이 이상한대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보일 것이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예쁘고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일지라도 미운 마음이 든다.

난 이름이 예쁘다는 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내 이름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고 왜인지 그 말을 듣고 나니 이름이 예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윈 달리 자신의 이름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름보다 의미 있는 것이 있다. 물론 인간의 인생을 통틀어 평생 그 이름으로 불리운다 생각하면 꽤 의미가 있다 여겨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이름이 맘에 든다는 이유 뿐 아니라, 존재해서 기쁘다는 이유만으로 행운인 우리가 되기를!



김명빈 (미디어스쿨) 이름이 사랑이 되는 순간, 그 사람 전체가 한 단어로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저도 황년에 억울 좀 하던

사람이라 어디선가 그 이름이 들릴 때면 흥칫하게 돼요 이 글을 읽고 나니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네요... (아연)



2025/05/16  
friday, pm 11:32 | 22명  
홍라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7일차

이름.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내 이름은 항상 소개할 때 여러 번 얘기해야 한다. 잘못 들으면 미경이나 니경으로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근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이름이 좋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좋다. 친구들이 불러주는 것도 좋고 특히 엄마가 다정하게 부르시면 그때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하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못 외우는 편이지만 그래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고 불러주는 친구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나도 그 친구의 이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다.

누군가가 좋아지면 그 사람의 이름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흔하디흔한 이름일지라도 그 사람의 분위기, 성격 등을 이름에 부여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름만 떠올려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존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런 존재가 된다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름하니까 영화 <너의 이름은>이 생각이

난다. 내용도 좋지만 이 영화의 ost를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듣는 것 같다. 이 노래들을 들을 때 원가 마음이 노래에 스며들게 되는 것 같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



이주현(사회복지학과)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이름을 사랑해 준다는 것은 더욱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25/05/16  
friday, pm 11:58 | 24명  
조은재(간호학과)

#7일차 #이름

내가 고개를 돌기도 전에 시선을 마주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연 낮은 목소리

나는 아직 눈도 덜 뻗었는데 그 예는 바른 자세로 앉아 또렷한 웃음으로 대답한다

속이 울렁이다가 무너지고 갈 곳 없는 원망은 결국 나를 향해 되돌아온다

뒤늦게 존재를 알려지만 모두의 기억 속 그 이름은 모든 점에서 나보다 나왔다

누군가의 부름에 돌아보면 실망 혹은 어색한 웃음뿐 나는 늘 곤란함의 원인이 된다

어느새 내가 잃어버린 것을 그 예의 왼쪽 가슴에 붙은 것을 빼앗긴 눈빛으로 바라본다

도플갱어를 마주친 듯 내 안의 무언가가 소리도 못 내고 죽어버렸다

동명이안을 소재로 썼습니다. 도저히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생각이 안 나고 시간에 쫓기며 얼렁뚱땅 이상하게 완성했더니 기본이 최악이네요... 그동안은 늘 기분 좋게 썼거든요. 시의 정서가 암울해서 그런가... 그냥 산문 형식으로 쓸 걸 그랬습니다. 다음 주엔 더 차분하고 솔직하게 도전해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도플갱어는 신박한 소재로 쓰신 글이 너무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도플갱어를 시기질투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서로 도우면 나아갈 수 있는 친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5/05/17  
saturday, am 12:03 | 31명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7일차

정명직필(正名直筆)  
"세상이 어두울수록 언론의 햇빛은 밝아지는 법입니다."

필자는 '마피아42'라는 게임에서 [특종]이라는 스킬을 지닌 기사를 가장 좋아했다. [특종]은 한판에 한번, 밤에 한 명을 선택해 다음 날 그 사람의 직업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강력한 능력이었다. 기자가 마피아를 밝혀내면

'기느님(기자+하느님)'이라고 불렀다. 만약 헛다리를 짚어 경찰이나 의사를 밝혀버리면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채팅을 피할 수 없었다. 판이 불리할수록 마피아 1명을 확정적으로 밝혀내는 기자의 중요성은 커졌다. 기자 캐릭터의 게임 대사와 똑같았다. 마치 세상이 어두울수록 언론의 햇살이 밝아지는 것처럼.

마피아42에서 직업의 이름은 곧 각자의 역할이자 의무다.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 각자가 각자의 이름을 걸맞게 행동할 때만 시민이 이길 수 있었다. 만약 경찰이 마피아를 못 찾거나 의사가 시민을 못 살리면, 결국 시민팀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또 기자, 건달, 영매, 탐정, 정치인 등 모두가 모두의 이름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때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유가(儒家)의 창시자로 불리는 공자는 "왕이 왕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할 때,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각자의 이름(역할)을 바로잡아야 사회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뜻의 정명(正名)론을 펼쳤다. 현대 사회라고 마피아42와 다를까. 대통령이 시민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대통령답다'고 부를 수 있을까. 반대로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각자도생(各自圖生)만을 도모한다면 '시민답다'고 칭할 수 있을까.

대통령은 대통령답지 못했기에 스스로 무너져야 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할 때다. '시민다운 시민'이 되어야 할 때다.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를 통치할 대리자를 선택함으로써 말이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주장하면서 일찍이 사회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를 강조했다. 언론은 정확한 정보 전달로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게임-탄핵-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상황 속에서 언론의 가짜뉴스가 늘어나고 있다.

2025년 1월 16일 신문사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는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군과 계엄군이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던 중국인 간첩을 잡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해당 뉴스 내용은 전부 가짜로 밝혀졌고, 결국 신문윤리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기사 속 나오는 '사안에 정통한 미군 정부 소식통'은 미국 여행도 못 가본 한국인 유튜브버로 밝혀졌다.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인터뷰이의 이름을 악의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익명취재원 남용'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자는 기사 끝에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항상 기재해야 한다. 이를 '바이라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사는 내용을 함축한 제목인 '헤드라인'으로 시작해 기자의 이름인 '바이라인'으로 끝난다. 기자들은 매 순간, 매 글자 하나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글을 써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사를 쓰면서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한 글을 쓰려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자신의 글에서 잘못된 점을 부끄러워하며 고쳐나가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은 모든 기자가 깨달아야 할 인간적 감정이다.

결국, 기자에게 정명(正名)은 곧 직필(直筆)이다. 이제는 기자가 '기자다움'을 되찾아야 할 때다. "바른 주장을 펼치고 곧은 글을 쓰라"는 뜻의 정론직필(正論直筆)은 이미 모든 언론의 격언이 됐지만, 장작 기자 개인의 인간적 본질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이름이 바로 잡히고

사실을 담은 글들이 세상에 펼쳐질 때, 진정한 의미의 정명직필(正名直筆)이 실현되는 그때가 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

😊 19 🗨️ 9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민수님의 글에서 다양한 부분의 깨달음이 물어 나옵니다. 저 또한 직업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민수님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언론인이 되실 것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17  
saturday, am 12:03 | 38108  
이주원 (심리학과)

#7일차 #이름

이름은 가면 같다. 이름 하나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을 쉽게 하게 된다. 대학생 대표 커뮤니케이션 앱 '에브리타임'만 봐도 그렇다. 모두가 같은 학교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이름 하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현실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모진 말들이 들려온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한다. 특별한 이름이 아닌 이상 동명이인은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라인 세상 속에서도 이름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은 분명 엄청난 책임을 불러올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이라는 가림막이 얼마나 찌질한 것인지 몸소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무거운 가면이다.

😊 20 🗨️ 9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가면 뒤에 숨어서 이름을 내걸곤 하지 못할 몸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실명제 + 본인 인적 사항까지 들어가면 인터넷 세상이 평화로워질 텐데요 \* \*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17  
saturday, am 12:23 | 38108  
김영선

오늘 글쓰기 마감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이름에 담긴 이야기들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어떤 이름은 부모의 바람이, 어떤 이름은 스스로의 선택이, 또 어떤 이름에는 사랑과 상처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은 곧 '나'이고, 나의 시간이자 관계의 흔적이기도 하겠지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분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겠지요? 이제 그 이름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써 보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 24 🗨️ 0



2025/05/19  
monday, am 8:05 | 41219  
김영선

#8일차 키워드 : 다리  
오늘의 키워드는 다리입니다. 다리는 두 곳을 이어주는 구조물이지만, 비유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시간과 시간, 마음과 마음을 잇는 상징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다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건너기 망설였던 다리,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던 다리, 또는 누군가와 함께 건넌 다리가 있었나요? '다리'를 통해 관계, 전환, 용기의 순간들을 되돌아보아요. 물론 여행이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로서의 다리에 대해 써도 됩니다.

😊 17 🗨️ 0



2025/05/19  
monday, am 9:12 | 1391호  
김미도(일본학과)

#8일차

나는 내가 태어난 도시, 일본 효고현 고베시를 참 좋아한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베 사람들도 자신이 고베 출신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나 하면, 누군가가 "어디 출신이세요?"라고 물었을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도쿄 출신이에요", "오사카 출신이에요"라고 말하지만, 고베 사람들은 꼭 "고베 출신입니다"라고 말한다. 절대 "효고현 출신입니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마치 아이치현 나고야시 출신 사람들이 자신을 "아이치현 출신"이라 하지 않고 "나고야 출신"이라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람들은 보통 고베라고 하면 '항구 도시'나 '아카시 해협 대교'를 떠올린다. 긴 다리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고베시는, 내게 추억이 많이 깃든 도시다. 그래서 나는 '다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아카시 해협 대교"가 떠오른다.

이 다리는 고베시와 아와지시를 잇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다. 마침 외할아버지 댁 근처가 이 다리의 시작점이라, 어렸을 때 일본에 갈 때마다 자주 지나가곤 했다.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에서도 주인공 스즈메가 고베에 갈 때 이 다리가 잠깐 등장했는데, 아주 짧은 장면이었지만 괜히 반가웠다.

내가 해마다 일본에 갈 때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셨다. 외할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우리 가족은 늘 그 다리를 건넜다. 몇 달 만에 만나는 친척들에 대한 설명과 장벽에 펼쳐진 푸른 바다 풍경이 겹쳐져, 그 길은 언제나 특별하게 느껴졌다.

외할아버지는 어린 내게 아카시 해협 대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셨다.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 정말 열심히 설명해주셨다. 하지만 어린 나는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했고, 솔직히 조금 지루하기도 해서 대중 흘러들었다.

그랬던 외할아버지는 제작년에 돌아가셨고, 오랜만에 다시 일본을 찾은 나는 이번엔 공항버스를 타고 친척 집으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멀리 아카시 해협 대교가 모습을 드러냈고, 나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늘 지났던 다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 모든 것이 담겨있었다. 남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다리에 불과할지 몰라도, 내게 아카시 해협 대교는 추억을 이어주는 다리다.



유재원(일본학과) 아카시 해협 대교! 일본학 입문 시간에 아카시 해협 대교의 교량 길이를 수정하는 영상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미도님의 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고베에 가게 되면, 저는 저 다리를 보며 미도님을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Band!



2025/05/19  
monday, am 10:15 | 1391호  
조하경(정치학과)

#7일차 #다리

김현준 교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강 다리에 관해 다른 영상을 보았다. 영상에서 김현준 교수는 강남과 강북을 단절시키는 원인으로 현강을 뽑았다. 사람은 이동할 때 걸어가야지만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1km라는 현강의 너비는 폭으로 도로로 인한 이동보다는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주가 되었다. 이로 인해 강북과 강남 사이에는 생활권의 차이, 경제력과 집값과 문화의 차이까지 만들어낸다는 흥미로운 주장이었다.

우리 동네는 구도심이다. 십수년 전, 배밭이었던 옆동네가 재개발 지구로 선정되고는 광박할 새에 새 아파트 단지가 올라오고 각종 인프라가 깔리며 학교도 들어왔다. 지어진지 50년이 넘어가는 노후 아파트로 이루어진 우리 동네와 조금만 걸어가면 볼 수 있는 지적에 생긴 생경한 신도시와의 대비도 점점 눈에 익어 익숙해지고 있다.

지안 중에 앞서 말한 신도심의 초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간 친구가 있다. 한달간의 실습을 마치고 술한잔 하며 현세대의 교권 추락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인줄 아는 아이들, 이러한 소양자를 키우는 부모들, 뉴스에서만 접하던 얘기를 현장의 실습생한테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충격받은 일화 한가지.

초등학생들이 내가 살고 있는 구도심과 새로 들어온 신도심을 나눈다고 한다. 그 기준은 경의중앙선 선로 아래에 뚫린 굴다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신도심에 사는 학생들은 그 굴다리 너머의 학생들을 OO지구로 일컬고 경계선을 긋고 무리를 나눈다고 한다. 하고 후

집에 가는 방향을 통해 알아채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물어본다고도 한다. 너는 굴다리 너머에 사냐고, 안쪽에 사느냐고. 이 또한 강남과 강북을 나누는 한강의 다리처럼 우리 동네의 작은 위계질서일 것이다.

어릴적 어른들이 혀를 차며 "말세다, 말세" 하던 한탄을 나도 모르게 욕성으로 내뿜었다.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아이들은 거울이고, 그저 보고 따라하는 것이겠다. '요즘 애들'의 명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 최전선의 총알은 더욱 매섭고 포악했다. 아이들의 약한 순수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이야기.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의 거리보다, 이제는 다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 같은 슬막하는 단상에 어깨가 무겁다.



<이해를 돕기위한 굴다리>



정우림(정치행정학과) 저도 유현준 교수의 영상을 소재로 쓰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네요 날카로운 느낌의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5/05/19  
monday, am 10:50 | 27일  
유세환(일본학과)

#8일차

바쁜 일상에서 휴식으로 가는 다리. 나에겐 그 다리가 여러 개 있다. 책을 고르는 과정,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수업이 전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과정이 대표적인 다리다. 첫 번째 다리는 SNS 검색으로 시작하여, 책 제목, 줄거리, 목차, 서론이 다 마음에 들어야 다리 끝에 있는 독서에 도달한다. 두 번째 다리는 여행지 물색, 날짜 선택 등부터 짐을 싸고 한국 공항에서 이륙하는 순간까지다. 세 번째 다리는 수업이 끝난 후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우리집 현관문을 열 때까지다. 휴식으로 가는 다리의 형태는 매번 바뀐다. 폭신한 구름다리일 수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위태로운 낡은 다리일 수도, 적당한 스펀지를 즐길 수 있는 흔들 다리나 유리 다리일 수도 있다. 어떠한 다리라도 나는 기필코 건너서 휴식을 취한다.

😊 17 💬 5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다리는 건축물로만 생각했는데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모든 것이 쉬어서 어지럽지 않고 자신만의 다리를 통해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놓으신 느낌이 듭니다!



2025/05/19  
monday, am 10:50 | 27일  
김애지(사회복지학과)

#8일차 -다리

'다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는 오작교였다. 새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그 다리 위에서 일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릴 적엔 조금 슬프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장면이 참 따뜻하게

다가온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을 가능하게 만든 수많은 새들의 날갯짓.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향한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다. 두 사람은 스스로의 두 다리로 그 다리를 건너, 결국 서로의 마음에 닿는다. 그 모습은 마치 긴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꽃이다.

나는 그런 다리가 우리 삶에도 많다고 생각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 때론 웅기 있는 한 걸음어, 따뜻한 한마디가 다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힘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 나도 언젠가 그런 다리를 건너고 또 누군가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다림 끝에 마주하는 웃음처럼,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빛난다. 다리는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게 해주는 희망이지 않을까? 나는 그 다리 위에서 밝게 웃는 직녀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나도 언젠가 꼭 이루어리라 믿는다.

😊 19 💬 7

김예진(생명과학과) 사람 사이의 다리는 쉽게 연결 되기도 하고 오히려 쉽게 끊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관계를 소중히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5/05/19  
monday, pm 12:31 | 18일  
김명빈(경제학과)

#8일차

다시 만들까? 동네 사람들은 항상 그 장소를 지목한다. '거기가 제일 문제야.', '편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늘어.' 우리 동네와 옆 동네를 이어주는 하천 위 굴다리. 다리가 지어지기 전에는 하천의 물길에 끝나는 곳까지 쭉 따라 걸어가 돌아가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걸어서 5분이면 바로 옆 동네를 왕복할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그 편리함도 잠시, 얼마 안 되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소문을 어디서 듣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리 밑에 집이 없는 불량자들이나 노숙자, 짙 나쁜 사람들이 몸을 숨기거나 은신처 겸 야지트로 쓰이는 공간이 되어 동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감시를 하는 것도 잠시, 어느새 눈을 피해 다시 숨어 들어간 자들은 우리를 계속 안심에 들게 하지 못했다. 짧은 시간에 굴다리는 사람들의 해결사가 되었다가 골칫덩이로 전락해버렸다.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까, 자연스럽게 굴다리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인적이 점점 끊기기 시작했다. 사람의 교류가 없어지자 관리도 소홀해지고, 다리는 급속도로 낡고 흉물어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리를 없애자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던 다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다리가 되어 철거되었다.

이제 하천 위에는 옆 동네와 이어지는 길이 없다. 사람들은 다리 밑에 상주하던 불량배와 노숙자가 없어져서 좋아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시 옆 동네를 향해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하며 다시 다리가 생기기를 원하고 있다.

😊 12 💬 5

김명빈 (미디어스쿨) 동네 사람들의 현실감이 잘 묻어나와서 몰입감이 깊네요. 편리함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음에도 직접 인지하고 경험하는것과는 결이 다른 거 같기도 해요. 다리 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잡한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2025/05/19  
monday, pm 1:11 | 28일  
김서희(식품영양학과)

#8일차 다리

처음 '다리'라는 키워드를 보고 신체부위 다리에 대한 글을 써볼까 생각했다. 하지만 곧 아빠와 나를 이어주는 다리인 언니가 생각났다.

첫 글을 통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사이가 멀어진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 때 생긴 일 때문이었다. 당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나에게 아빠는 매일 인사를 건넸는데 나는 그 인사가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아빠를 피해다니다가 결국 하지말라고 소리를 쳤고 이후 거의 10년간 아무 교류 없이 지냈다.

언젠가부터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고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힘들었는데 그때 나와 아빠를 연결해준 존재가 바로 언니다.

항상 언니가 있어 고맙다고 생각했다. 언니가 없었다면 내가 처음부터 너무 큰 용기를 내야했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언니 입장에서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다.

언니는 내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뿌듯했을까, 항상 나를 필요해서 피곤했을까. 나아지고 있는 나와 아빠의 관계를 보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너무 느린속도에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하다.

어쨌거나, 나는 언니의 도움으로 아빠와 점점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엄마와

언니가 아슬아슬해 보여 걱정인데 나도 언니에게 든든한 다리가 돼주고 싶다.

😊 14 💬 6

김미도(일본학과) 좋은 언니분이네요. 언니에게 든든한 다리가 돼주고 싶다니 멋져요!



2025/05/19  
monday, pm 1:16 | 13:16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8일차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는 순간 보이는 육교 하나. 집에 다 왔다는 뜻이다.

지친 몸을 버스에 맡긴 채 잠을 자는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실눈을 뜨고 창밖을 쳐다보다 보면 빼곡히 들어찬 회사 건물들이 보인다. 계절마다 버스 창 밖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회사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육교는 늘 똑같이 반가운 모습을 하고 있다.

새벽 두시 반 경기를 보기 위해 캄캄해진 어둠 속으로 나선 적이 있다. 그 날은 서울의 한 축구 필드에 도착해 유니폼을 흔들며 'Allez, Allez, Allez'를 부르고, 처음 보는 사람과 어깨를 맞대고 함성을 지르느라 모든 형과 열기를 다 써버린 날이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직 첫차 시간 전. 멍하니 첫차를 기다리며 시간을 때우다가,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다리 아래로 따뜻한 바람이 스쳤다.

꾸벅꾸벅 졸다 보니 정거장 안내음이 들리고 밖으로는 회사 건물들이 늘어져 있었다. 그 사이에 반가운 육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카드를 찍고 육교 아래의 정류장에 발을

내딛자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다. 내 안에 있던 열기를 완전히 식혀주는 바람이었다.

육교 위에는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육교를 오르지 않고, 반대방향의 우리집으로 꼭 걸어갔다.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육교가 나에게만 안식처에의 도착이었다.

그 날 새벽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육교 아래의 바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 13 💬 5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그 날 새벽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육교 아래 바람을 저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19  
monday, pm 3:04 | 21:04  
서정원(실리학과)

#8일차

만약에 1950년 6월 28일, 인민군 전차 8대의 서울 진입을 보고받은 채병덕 총참모장의 오판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갑작스러운 철수 명령으로 인한 대혼란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우천, 동화관제로 인한 암야로 공병들의 통제 및 폭파조의 다리 위 상황 식별에 난항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폭파취소 명령 전달이 잘 전달되었다면, 그래서 "한강 다리가 폭파되지 않았더라면"

1 장거 새벽이었다. 비가 내렸고, 라디오가 찌지직거린다.

"...역아더 장군은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나는 어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오늘

밤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다. 많은 시민은 좋은 소식을 듣고 서울에 남겠지. 그러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출처는 대전행 열차. 이미 그도 서울을 떠나고 없었다.

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포로 향했다. 주변엔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줄을 이루었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다리는 남아 있을지, 아직 건널 수 있을지. 입을 열지 않고, 지금 지고 있는 정보다 무거운 불안을 품고, 그저 앞으로 나아갔다.

불 꺼진 다리 초입엔 군인들이 있었다. 총을 들지 않은 손으로, 사람들을 부드럽게 인도했다. 망설이다 조금 늦게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건넜다. 한 발자국씩, 무언가 위태로운 것 위를 건넌다는 감각이었다. 물이 아니라, 불신과 두려움과 절망, 시체 위를 말이다.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로, 그날의 서울은 끝내 끊기지 않았다. 모두가 건너왔고, 우리는 낙동강으로 향했다.

2 후퇴 서울 북쪽, 하늘은 무거웠고, 전선은 흐릿해졌다. 철수 명령은 없었고, 무전기는 침묵만을 남겼다. 병사들의 눈빛은 굳어갔다. 누군가 말했을까, 다리를 곧 날릴 거라고.

다리가 정말 날아간다면, 남는 건 강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봐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도 고개를 돌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과 장마 속, 강물은 검은 천처럼 도로의 끝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던 새벽, 흐름이 바뀌었다. 폭파 명령은 보류되었고, 민간인의 철수가 끝날 때까지 다리를 사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로의 끝에서 사람들의 흐름이 맞은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트럭들이 다리를 건너고, 군장과 탄약이 줄지어 따라갔다. 버려진 것은 없었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고, 서로를 지탱했다.

퇴각은 무너짐이 아니었다. 도시가 등을 돌린 뒤에도, 우리는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강을 건너며 한순간 뒤를 돌아봤다. 우리가 이 다리를 폭파했을 때 그 여파로 날아가 죽었을 시민들, 다리를 건너지 못해 죽겨쳐형당했을 내 전우들이 보였다.

😊 12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진짜 이렇게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너무 성급하게 다리를 폭파했다는 것이 실제 역사어기에 더욱 안타깝네요...다리 못 건넌 사람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이 생각나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2025/05/19  
monday, pm 3:31 | 12:00  
이주현(사회복지학과)

#8일차

제 본가 근처에는 선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선유도에는 옛 정수장을 재활용하여 만든 선유도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유도에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다리인 선유교가 한강공원과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유교와 관련된 제 추억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선유교는 아치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유교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오르막을 걸어올라가야 하는데 그 중앙으로 올라가기 위해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이기면 한 발자국씩 올라가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이 힘든 분을 위해 난간 옆에 계단이 작게 있는데 작은 계단이라 3칸씩 올라가기를 시도했었습니다. 난간에는 거미줄이 많이 있었는데 작은 거미줄이 아니라 큰 거미줄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싫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큰 거미줄이 신기하고 멋있었나봅니다. 거미줄을 구경하면서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선유도는 안 가더라도 한강에 오면 항상 선유교 중앙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때는 가고 싶을 때 언제나 가도 여유롭게 다리 위에서 놀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유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짐과 동시에 선유교에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선유교가 해돋이 명소로 떠오르면서 새해나 특별한 날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안전문제로 통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유교에 안 가게 되면서 지금은 제 추억 속에만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선유교와 선유도를 생각하니 아주 오랜만에 다시 가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본가에 가면 꼭 가서 더 많은 추억을 되살려봐야겠습니다!



((줄처 : 네이버))  
저는 안 간 지 너무 오래되어서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날씨 좋은 날에 가면 좋다고 많이들 하더라구요! 날씨 좋을 때 한번 가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 14 💬 8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다리가 정말 예술작품 같다고 할까요?? 눈에 띄는 것 같아 다리보고 신기하다고 느낀 건 처음이에요! 처음 보는 다리인지라 한번 가보고 싶네요!

2025/05/19  
monday, pm 3:46 | 11:00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8일차 #다리

인생의 전환점

살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인간관계, 학업, 연애 등 모든 것이 틈나뉘어처럼 맞물리지 않고 엇갈려가는 느낌이다. 그런 인생 속에서의 다리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험난한 길을 지날때 이어진 다리란 무섭고 두렵겠지만 건너야 되는 인생의 전환점 같은 존재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건너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또 다른 다리가 있을 수 있고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계를 부딪치고 계속 건널 수 있다면 소설 속 클라이맥스처럼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마라톤

마라톤, 호준은 첫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경기를 시작하기 앞서 두 다리의 떨림과 실행이 느껴져 조금 더 몸을 풀어야 할 것 후회 하지만 그는 이미 출발선을 한참 서고 난 뒤였다. 심판의 준비 자세를 휘하라는 말에 숨을 고르고 있던 호준은 휘슬 소리가 들리자 저절로 움직이는 다리를 붙들고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출발선과의 거리는 한참 멀어져 있었다. 달리면 달릴수록 정신은 흐릿해져만 가고 다리는 한계가 다가왔다. 통증으로 인해 다리는 이제 제 의지대로 가눌 수가 없었다. 숨을 거칠게 쉬며 오로지 결승선만을 향해 달리던 호준의 다리는 선을 넘자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 호준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다. 몸은 제 멋대로 가눌 수 없었지만 호준의 얼굴은 희열에 가득차 있었다. 금메달을 거머쥔 호준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 순간을 다리로 인생의 마라톤을 시작할 것이라고.

😊 13 💬 4

권혁빈(경제학과) 우리의 두 다리는 평생 우리의 몸을 지탱하면서 버티고 살아가죠. 지나다니는 사람, 자동차, 여러 물체들을 짊어지며 버티고 있는 다리처럼 우리의 다리도 그 긴 시간동안 무게를 견디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2025/05/19  
monday, pm 5:16 | 15:00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8일차

다리

두 물가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다

서툰 마음과 이해를 잇는 다리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이어주는 다리  
멀어진 사람들과 다시 마주 있게 해주는 다리.

그 다리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가끔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놓일 때도 있다  
말 한 마디와 기다림 같은 것들이  
그 다리의 재료가 되어 천천히 이어진다

때론 그 다리를 건너는 게 무서울 수도 있다... 하지만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과 마음 사이,  
조심스레 다리를 놓아보려 한다

😊 12 💬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서로의 관계에 놓여있는 다리는 건너기 조심스러우면서도 가까워지려면 꼭 건너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게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많은데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2025/05/19  
monday, pm 5:58 | 17:00  
채은비(생명과학과)

#8일차

#다리

당신이 처음 이곳을 건너던 날, 나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물살을 건너 낯선 땅을 밟던 순간, 누군가가 말했지요.

“여기 다리를 놓아야겠어.”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삶들이 수레에 실려 지나가고, 이 오진 바람에 서서히 마모되어 가다 다시 그대의 손에 마감해지는 시간이 반복되는 사이, 그대는 물을 잊었습니다. 당신이 첫 순간 배에 몸을 실어 항해할 때 그 살을 파고들던 바람과 온몸으로 달려들던 물살의 거친 포옹을, 폐 속을 채우던 물내음을, 뱃머리를 간질이며 장난치던 그 재잘거림을 당신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길 가로막는 것 없이 두 발 움직여 나를 지나는 동안 당신은 물을 잊었습니다. 태초의 생명체는 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내 몸을 쌓아올린 돌과 모래들 또한 저 물의 바닥에서 견져 올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바빠 오가며 태어난 고향을 잊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가만히 선 채로 내 발목을 간질이는 물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그곳에 머물러 뿌리를 내린 채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숙명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저기 저 물에서 태어나 역동하고 문부림치며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태어난 존재. 끊임없이 저 강 건너편을 갈망하는 존재. 배를 만들고, 다리를 세우며,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며 흘러가는 존재. 이를 위해 당신은 나를 창조했고, 그 끝없는 여행을 위해 나는 이곳에 뿌리박혀 존재할 운명으로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흐르도록 태어났고, 나는 머물도록 태어났으니. 나만이 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지요. 하지만 가끔, 당신이 흘러감을 멈추고 머무른 곳을 찾을 때. 이곳이 원래는 물이 흐르던 자리였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나는 조용히 난간을 세워 당신이 기댈 자리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기대어 낚시줄을 던져 태어난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다가, 잠시 머물다 떠날 수 있도록.

😊 13 💬 4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글이 매력적이에요!  
조용히 난간을 세워 당신이 기댈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가장 외닿았어요!



2025/05/19  
monday, pm 6:05 | 1998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다리'

다리는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내가 어디든 갈 수 있게 이어준다  
앞서 말했듯  
나는 다리가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넓고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다리를 만들고  
이어나간다

흔히 친구들과 놀 때 "내가 다리  
놓아줄게"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문화는 공유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인연을 소개해 준다는 의미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다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보고  
느끼며 끊임없이 새로운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다

다리는  
나에게 우한한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다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러분들의 다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 13 💬 5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다리가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끝을 알수  
없는 다리들을 건너며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25/05/19  
monday, pm 7:30 | 1808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8일차

'다리'는 두 지점을 잇는 구조물이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 시간과 시간을 잇기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리들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어떤 다리는 망설이게 만든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거나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을  
때 다리를 건너는 것 자체가 용기가 된다.

내가 경험한 몇 가지 그런 다리들 중 하나는  
처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발을 들였을 때이다.  
새로운 사람들, 낯선 장소, 예기치 않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건넌 첫 번째 다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결국 그  
다리를 건너 뒤에는 그곳이 내게 익숙한  
곳으로 바뀌었다.

또 다른 다리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걸었던  
다리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갔다. 그 다리  
위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나 마음속의  
생각들은 어쩌면 단순한 일상이었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순간들이었다. 다리를 건너다는 것은 그  
사이에서 이어지는 관계와 시간의 연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리가 무너질 때도 있다. 믿었던  
관계나 선택이 흔들리거나 깨질 때 그 다리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럴 때는  
다시 일어서야 하고 또 다른 다리를 놓아야  
한다. 다리의 끊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지도 모른다. 결국 다시  
다리를 건널 때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확신을  
가진 발걸음으로 내딛게 된다.

다리는 단순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선택들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리를  
건너며 살아간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설레지만 결국 그 다리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국 이어지게 해준다.

😊 11 💬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어쩌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다리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다리를 건너며 살아가는 듯 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19  
monday, pm 7:32 | 1998  
장근희 (글로벌비즈니스전공)

#8일차

현재 다리는 서로 먼 곳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주 먼  
거리는 또 다리로도 연결할 수 없다. 아주 멀  
거나 아주 가깝지 않은 딱 적절한 거리. 그런  
거리에서 우리는 다리를 만든다.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다리의 건설은 문명  
발전의 상징이었다. 즉, 다리는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그러나 다리가  
물리적 간극만 메우는 것은 아니다. 문화와  
문화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간극도

매운다.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우리 삶의 은유가 되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리와 같다.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가진 개인들 사이에 놓인 이해의 다리.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소통이 끊어진다.

때로는 그래도 그 다리를 건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진짜 다리이거나 은유의 다리이더라도 용기는 모두 필요하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 첫걸음. 그 불안한 흔들림을 견디며 우리는 성장한다. 다리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희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 내가 있는 곳과 가고 싶은 곳 사이의 연결고리.

😊 11 💬 6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등 참여한 곳에 다다르게 해주는 다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새롭게 발 디딘 곳에서 모두가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요!



2025/05/19  
monday, pm 7:50 | 10388  
심유진(비어오메디컬학과)

#8일차 #다리

제목: 달 아래 비친 마음

달이 높게 뜨고  
비바람에 흔들리는  
흔들다리지만  
일 년에 단 한 번만  
건널 수 있는  
사랑의 다리

어떤 생명은  
다리를 물속에 쥐고

물길을 따라가는데  
나는 땅을 딛고 싶어  
노래를 바쳤어.

물가에 앉아  
휘젓는 다리로 일으킨 물결  
어지러운 내 마음 따라  
반사된 달이 흐려진다.  
내 마음의 노래  
들어주는 이가 있을까.

인어공주를 동양풍으로 재해석함과 동시에 사랑의 끝맺음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포함해 시를 써왔습니다. 인어공주는 장치일 뿐, 주된 정서는 사랑의 불연속성을 표현한 시입니다.

😊 12 💬 7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인어공주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생각해 낼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 잘 읽고 갑니다!



2025/05/19  
monday, pm 8:13 | 19288  
임혜빈(사회복지학전공)

#8일차

다리

나에겐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나, 어느덧 10년째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친구는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었고, 우리 집도 고등학교 때 학원과 친구의 집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친구가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었다.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다 보니, 어머니께선

"OO이 아니면 친구가 없니?"라고 물어보신 적도 있을 정도이다.

우리는 도보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사는데, 그 중간에는 나무 계단이 하나 있다. 그 계단은 나와 친구의 집을 이어준다. 일종의 지름길로, 산 위에 있는 우리 집과 아래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바로 연결해 주는 중요한 존재다. 만약 그 계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2배의 시간을 들여 돌아가거나, 목숨을 걸고 가파른 언덕을 클라이밍 해야 했을 것이다. 이 계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며, 계단은 서로의 집을 이어주는 단순한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었다. 서로의 집에 갈 때 그곳에서 전화를 걸어 곧 도착함을 알리고, 배웅할 때도 그 자리에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곤 한다. 또한 우리만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어디서 만나자고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서로를 기다린다. 그저 평범한 계단이 아닌, 수많은 추억을 쌓은 공간이 되었다.

비록 불편한 점은 많다. 겨울에 눈이 와 계단이 얼면 정말 천천히 내려가야 하고, 여름엔 난간이 쇠로 되어있어 화상을 입을까봐 만지지도 못한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에도 나는 이 계단을 기대한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지, 얼마나 웃고 떠들지 상상하며 그곳에 다다른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우정의 다리가 되어주길 바라며.

😊 13 💬 5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시간이 지나 서로의 집을 이어주는 단순한 지름길이 아닌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말이 와닿았어요! 단순히 구조물이 될 수 있지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5/05/19  
monday, pm 9:05 | 17188  
최현영(금융재무학과)

#8일차 #다리

[나와 나를 이어주는 다리]  
이 다리를 잇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게 되는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나서가 아닐까...?

어떤 이유에서든 이별은 참 힘들다. 내게도 이별은 가장 싫은 단어이자 힘든 단어이다. 사랑을 하면, 매일이 벅같이 만개한 날들이다. 같은 하늘도 오늘따라 더 맑아 보이고 비 오는 흐린 날도 웬지 무드 있어 보이게 만드는 사랑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사랑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사랑을 받았고 내가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아쉬운 사람.

함께하는 날이 더 많아질수록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 영원할 줄 알았다. 끝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과 난 이별을 했다. 심장의 반을 도려내는 것 같은 기분을 몇 달을 반복하고 나서야 헤어졌음을 직감했다.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보고 싶었다. 이제는 이유없이 웃는 날도 이유없이 행복한 날도 없다.

그럭저럭한 하루. 집-회사를 반복하다가 문득 너덜너덜해진 나를 보게 되었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아무 이유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던 날 보게 되었다. "이제 나를 그만 미워해야겠다."

이제서야 다짐을 했다.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나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요즘 나는 나로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등뻐.

사랑을 주고 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꼭 먹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 주고  
더 개운한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 일찍 잠에  
든다.

내가 싫어하는게 뭔지도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도 하나씩

알아가는 중이다.

나를 사랑해 주는 일이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색했던 것일뿐.

"평생을 함께할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지."

나는 그렇게 오늘도 나를 위해 더 알찬 하루를  
살고 있다.

모두가 나를 가장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줄 사랑까지  
남에게 주기 바쁜 사람이기보다는 나한테  
주느라 동나버리는게 차라리 더 낫다는 것을  
조금 더 일찍 알기를 바란다.

오늘도 나에게 등뻐.

사랑을.

😊 10 💬 5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관계만 신경쓰다보니 정작  
나와의 관계는 뒷전에 있던 것 같네요..저도 오늘은  
나에게 사랑을 등뻐 줬어욱습니다!



2025/05/19  
monday, pm 9:55 | 17회  
장우현(정치행정학과)

#8일차 #다리

무엇으로 만든 다리가 튼튼할까?  
고대에는 나무나 돌, 근대에는 강철, 요즘  
들어서는 철근 콘크리트를 비롯한 여러  
소재가 쓰인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만든 다리가 가장  
취약할까?  
연타감게도 나오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번번히 실패해왔다.  
초중고 시절은 물론이고 자랑스러운 우리  
한림대학교에 와서도  
두루 친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깊은 관계를  
만들 사람은 없는, 그런 유형의 실패를  
겪어왔다.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내가 실패를  
겪는지 몰랐다.

나는 친구로 생각해서 여러 선물과 칭찬,  
마음을 쏟아부었는데  
나중엔 나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내  
인간관계의 대부분이었다.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내 얼굴 때문에, 또는 눈치가 없어서, 아니면  
지나치게 잘난 척을 해서...

스무 살, 살아온 길이 짧은 인생이지만 깨달은  
한 가지.

내가 만드는 다리는 하나같이 힘이 없다.  
그러니 나는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이 배워야 한다.

+ 인생 선배님들께서 제대로 된 다리 설계  
방법 좀 알려주세요

😊 11 💬 5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저도 인생 선배님들께 다리  
설계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대학교 와서 더  
많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지 하며 자신만만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ㅠ



2025/05/19  
monday, pm 10:15 | 18회  
윤소정(사회학과)

#8일차 #다리

<다리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다리'를  
검색해보면 여러가지 뜻이 나온다. 사람  
신체에 있는 다리, 물체의 아래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는 다리, 동물의 다리, 안경의  
테에 붙어서 귀에 거는 부분인 다리, 물을  
건너기 위한 다리,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뜻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 앞에  
나열한 '다리'들은 이미 알고 있는 뜻이고,  
새로 알게 된 뜻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위의 등급을 뜻하는 다리와 예전에  
여성들의 머리술이 많아 보이려고 사용한  
다리가 있다.

다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사람은  
다리를 가져서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할 수  
있고, 책상의 다리나 의자의 다리처럼 사물을  
지탱해준다. 또,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안경이라는 도구를 이용할 때  
귀에 걸어놓는 역할도 한다. 시냇물 사이를  
건널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강 사이를 건널  
수 있게 해줘서 지리상으로 물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공간들과 이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다리'라는 키워드를 보고 바로 떠오른 것은  
사람 신체에 있는 다리와 현강대교와 같은 물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였다. 사전에  
검색해보니 이 두 가지 말고도 정말 많은 뜻이  
나왔다. 이 뜻을 모두 어우를 수 있는 문장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다리'란 결국 무언가를  
이어주는 것 같다. 걸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고, 안경의 다리는 보고싶은 물체와  
사람의 시야를 이어주는 것이고, 사람 사이의  
다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 때문이다.

😊 14 💬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다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 물체 살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많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소정님 덕분에 다리에 더 많은 뜻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2025/05/19  
monday, pm 10:25 | 20회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8일차

요즘 건강히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큰 감사를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걷고싶은  
만큼 걸을 수 있는 것, 걷고싶은 곳으로  
향해갈 수 있는 것, 걷고싶으면 그저 발을  
내딛으면 되는 것.  
'다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모든 행위들에  
감사하다.

산책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에게  
건강한 '다리'란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이고,  
조심조심 지켜야 할 부위 중 하나이다. 햇빛이  
팽팽한 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걷는 것,  
오랜만에 친구와 여행 간 곳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정처 없이 걸어도 좋을 수 있는 것.  
사소하지만 행복이란 감정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걷다가 넘어지기도 한다. 상처를 받기도 한다. 아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나 넘어지며 배우고 다시 다리로 일어서며 성장한다.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배우는 어른의 과정 속, 우린 다리를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지탱해본다.

함께 라이팅 챌린지를 하는 학우분들이 살아가며 겪을 좌절과 넘어짐의 힘든 날들이, 따뜻한 햇빛과 달콤한 리액와 귀여운 강아지 품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소한 힘들이길 바랍니다.

부디 흔들리는 날들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단단한 다리가 꽃이 되어 피어나길 :)



😊 14 💬 7

김미도(일본학과) 할형이 되는 글입니다. 정말 마음씨가 고우시네요! 상처가 나도 그대로

방치했던 제 다리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2025/05/19  
monday, pm 10:36 | 15:00  
강민석(대미러서어인스학부)

#8일자  
어제 21년 살았지만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해온 것 같다. 점차 사회에 발을 내딛으며 보고싶지 않은 것도 보아야 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배워야 할 점이 아직도 무수히 많다는 것이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세상이 이기적이라고 비아냥되는 것이 아닌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스스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은 이렇게 되도록 허용해주지 않았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나 또한 다른이의 "다리"가 되어주어야 했다. "다리"라는 단어에 영어로 구별하지 않은 이유는 중의적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강에 존재하는 여러 다리가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연결해주듯이 누군가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협력의 "다리(bridge)"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세상을 향해 가도록 "다리(leg)"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을 추구함에 있다고 여긴다. 행복의 정의는 누구나 다룰 수 있지만 한 명이 웃음을 보이면 다른이들도 같이 웃음을 지어주듯이 바이러스같은 성질을 띤다고 생각한다. 얼마전까진 정말로 이기적으로 살아왔것 같아 뉘우치며 새롭게 느낀 것을 정리해보았다. give and take가 있어야했지만 받기만 했던 나를 모두가 끝까지 믿어주었기에 앞으로는 주는 내가 되도록하려고 한다.

😊 11 💬 4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 너무 좋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저도 아프지 않고 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인 사람이거든요! 미래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

2025/05/19  
monday, pm 10:39 | 14:00  
정우현(철학과)

#8일자  
지는 때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향해 달리는 것이 겁났습니다. 신중하게 어떤 것들을 해 나가느라 기진맥진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날카로웠습니다. 신경질도 많이 내고 사람이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에 연연했던 결과였죠. 요즘에는 밑에 뭐가 있을지 몰라도 크게 다리를 놓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생을 전반적으로 가볍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망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실행력도 올라갔어요.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게 된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질되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해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 부담감은 나를 짓누르고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마치 밑에 낭떠러지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공중부양하듯이 겁을 안 내고 사니 행복합니다.

저의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 생각이 100% 맞다고 확신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 자체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포기에 연연하느냐 아니냐로 사는 것 같아요."포기해도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포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에 더 잘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 포기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리를 매순간 놓는 여러분은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13 💬 6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저도 실패가 두려워서 사소한 일조차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우현님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나서는 더 담대해 지고 하는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2025/05/19  
monday, pm 10:48 | 15:00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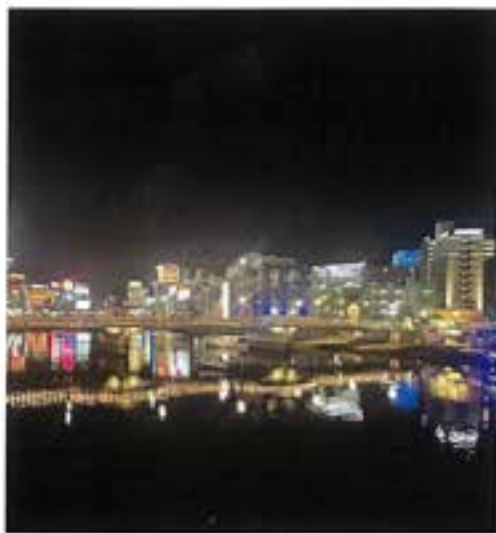
#8일자  
다리.  
겨울방학 때 갔던 일본 여행이 생각난다. 숙소로 가는 길에 항상 다리가 있어서 매일 걸어갔다. 우리 집 근처에는 다리가 없어서 다리를 건널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매일 다리를 건넌던 일본 여행이 더 생각이 났다.

사진은 여행 첫날 저녁으로 라면을 먹고 다리를 건너면서 풍경이 예뻐 보여서 찍었다.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예쁘게 찍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찍을 당시에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른다. 또 숙소 하나가 강이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경치가 좋았던 기억도 난다.

이 일본 여행이 고등학교 친구들과 처음으로 간 여행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먼저 떠오른 것 같다. 매일매일 너무 많이 걸어서 내 다리는 힘들었지만.. 다리를 건널

때만큼은 여행 온 게 실감이 나서 좋았다.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많이 하면서 나와 친구들 사이의 다리가 더욱 견고해진 것 같다. 앞으로는 많은 여행을 하여 새로운 다리들을 만나고 싶다.



😊 12 💬 6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물에 비친 건물들과 다리가 너무 예쁘네요! 저도 많은 여행들을 다니며 새로운 다리들을 건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임이 쉬워진다!



2025/05/19  
monday, pm 11:03 | 24명  
김명빈 (미디어스쿨)

오늘도 12,373보 두벅두벅 끌려 다니느라 고생 많았다.

나도 내가 이렇게 많이 걸을 줄은 몰랐지. 심지어 노트북과 카메라 렌즈 2개, 카메라 배터리와 뉴스 기사 필기 프린트를 등에 이고..

계단은 왜 그렇게 많고, 오르막은 또 왜 꼭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건지.

평지조차도 그냥은 안 넘어가더라.

발바닥은 지금 노조 만들 기세고 종아리는 이미 잠적 준비 중이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오기까지 장장 13시간 동안 걷느라 고생했다.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었지..? 어쨌든 완주했으니 박수라도 쳐야 할 판이다.

문제는 오늘 그렇게 걸었는데 내일이면 또 0보 라는 거...

이 무정한 만보기 자식... 기억력은 없고 리셋은 빠르고.

다시는 1만 보라는 숫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건만 아침에 눈 뜨면 당장 걸어야 하는 내 신세에 한숨만 나온다.

그래도... 고맙다.

이 어이없는 무게를 매일 버텨주는 나의 소중한 두 다리.

내가 투덜대고 징징거려도, 결국 또 나를 끌고 어디론가 데려다 줄 다리.

어딘진 몰라도 어쨌든 앞으로는 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밤만큼은 제발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우리, 내일은 좀 덜 걸어보자. 물론 그럴 리 없다는 거 안다...



7.42 km  
12,373 걸음

#8일차

😊 13 💬 11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발바닥이 노조 만들 기세라는 표현이 넘 웃겨요



2025/05/19  
monday, pm 11:11 | 18명  
최연주(연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8일차

물다리를 두드리지 않게끔

바야호로 정보 사회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알 수 있는 세상이다. 뉴미디어를 통해 실 새 없이 흐르는 정보는 가히 홍수라고 할 만하다. 하긴,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은 이제 너무 식상한가. 필자가 처음 본 '정보의 홍수'가 2010년대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에서 본 것임을 감안한다면, 꽤 오래 쓰인 표현일 테다. 분명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배워야 한다!"와 같은 구호였다. 오래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유효한 구호는 맞지만.

정보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같다. 끊임없이 흐르는 빗물은 강을 만든다. 예로부터 강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였고, 그곳에 집단이 생겼다.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티그리스강)·이집트(나일강)·인더스(인더스강)·중국(황허강) 문명 모두 강 주변에서 시작됐다. 흐른다. 삶에 필수적이다. 과도하게 존재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물'과 '정보'는 달은 점이 꽤 많다.

급류가 범람하는 강을 헤엄쳐 건너겠다는 무모한 생각은 하지 마시길. 우리는 문명인이기 않은가? 다리라는 건설물을 세워 안전하게 건너야 한다. 그런데 다리도 그냥 건널 생각은 하지 마시길. 우리는 지성인이기 않은가? 물다리도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하며 두드리려고 건너야 한다. 워, 그럼 필자는 지금도 춘천의 소양강 다리나 서울의 한강 대교를 두드리려고 건너냐고? 그럼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서 9시 뉴스에 나오고 이미 유명해졌을 거다. 그걸 왜 두드려보고 건너는거? 전문가들이 공학적인 원리로 잘 건설해놓은 튼튼한 다리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믿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 현대의 사람들은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다리란 곧 연결의 상징이자 신뢰의 상징이 됐다.

강을 가로질러 물과 물 사이를 이어주는 게 다리라면, 정보를 가로질러 사회와 사회를 이어주는 건 결국 언론이다. 오늘도 언론 덕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대규모 교전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리와 같은 원리에서 언론이란 연결과 신뢰의 상징이어야 한다. 그런데 다리와는 달리 언론은 무작정 믿으라고 말하기가 선뜻 두려운 건 왜일까. "믿는다"라는 단어의 무게를 갑자기 체감하게 된 건 왜일까. 언론이 정보의 홍수를 가로지르는 튼튼한 다리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다리 건설 기술이 빈약했던 옛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고 말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그냥 건너다. 언론이 신뢰를 잃은 현재, "정보의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뉴스 리터러시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한다. 엄밀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뉴스를 시민이 한 번 더 팩트 체크하고 받아들이는 풍조는 기자들에게 수치다. 뉴스가 충분히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언론이 신뢰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시점인 건 분명하다. 제발, 더는 시민들을 '돌다리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람' 만들지 마시길.

😊 12 💬 7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인간이 다리로 건너는 다리는, 정보의 다리든, 관계의 다리든,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현대의 사람들에 저도 포함되어있는 것 같아 반성하게 됩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2025/05/19  
Monday, pm 11:16 | 1718  
조은재(간호학과)

#8일자 #다리

주말에 친구와 여의도 한강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인근 다리 밑에서 비를 피했다. 우리가 있었던 곳은 바로 마포대교 아래였다. 날씨가 날씨인지라 바람도 심하게 불고, 춥고, 어두웠다. 바람 때문에 비가 옆으로 돌이켜서 다리 밑에서도 양산을 우선으로 쓰고 있어야 했다. 생각보다 탁한 한강 물을 바라보며 점점 우리는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강물을 탁하게 만들어 버렸을까.

마포대교는 자살 명소로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 한강 다리 중 투신자살 통계 1위라고 한다. 삶에 희망을 갖지 못해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계절을 불문하고 이곳이 얼마나 좋게 느껴졌을까. 낮에는 우리처럼 소풍 온 사람들과 여러 음악 공연이 있었고, 배를 타는 사람들도 많았다.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곳이었는데, 저녁엔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고요에 잠긴다. 낮과 밤의 차이가 이렇게 심한 곳도 드물 것이다. 다리는 본래 연결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끊는 공간이 된다는 점이 씁쓸하다. 다리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건너는 곳이 아닌 멈추는 곳, 즉 목적지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미 죽기로 결심한 사람을 말리고 그 결정을 뒤집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감정적인 위로가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2년 서울시에서 일반인들의 공모를

받아 마포대교에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며 크게 논란이 있었다. 차라리 재빠르게 신고 접수를 하고, 일단 뛰어내리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막고, 정신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난간을 높이고 추가로 투신 방지용 장치를 설치하는 물리적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임시방편은 될 수 있다. 뛰어내리기까지 시간을 벌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봉책에 머무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국가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언제까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통계를 달고 다닐 텐가.

자살은 개인의 관리인가? 사회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가? 나는 자살이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통 국가 전체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띤다. 개인 차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이 자살에 이르도록 떠밀었던, 그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사회 구조의 문제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이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나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 있길 잘했다고 할 사람들,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죽음을 실행에 옮긴 그 몇 초의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살은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다른 소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으려면.

중요한 문제에 정답을 낼 수 없는 힘없는 개인이라 속상한 마음이다. 어찌다 보니 사회적 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식상한 이야기만 늘어놓게 되어 유감이다. 그렇지만 이 느낌이라도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변화의 열쇠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잠시 잊고

살다가도 종종 소외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수록,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다리가 버티는 무게가 더 이상 삶의 무게나 다리 끝 무수한 망설임들이 아니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624838?sid=102>



'따뜻한 말 한마디'론 먹을 수 없다  
n.news.naver.com

😊 12 💬 7

김미도(일본학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글이네요... 냉정한 사회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게 참 슬픔입니다.



2025/05/19  
Monday, pm 11:30 | 1518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일자 #다리

<엄마다리>

타다다닥  
아 신난다  
빨리 와봐  
왜 이리 천천히 와

천천히 가  
앉아있을게  
먼저 가있어라

우리 무게를 견디느라  
가늘어졌나  
느리지만 단단하단

30대 그 다리는 어디 가고  
지금은 왜 이리 마르셨나요

점점 굵어지는 내 다리가  
엄마 다리 떼어왔나봐

근육이 빠졌어  
살이 빠졌어  
한 두 마디 하셔도

마음 한 구석 아린  
엄마 다리

😊 15 💬 5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다른 한편으론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지금이러도 더욱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더욱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19  
monday, pm 11:59 | 17시  
유재해(미디어스쿨)

#8일자

키워드 : 다리

'다리'라는 키워드를 듣고 무언가를 이어주는  
것들 중 인간'관계'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인간관계에 데이고 만남조차 귀찮아질 무렵,  
나는 귀여운 동화책 한 권을 발견했다.

『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관계가  
어렵고 두려운 이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주는  
말들이 적혀있었다. 귀여운 캐릭터인 핑과  
퐁이 주고받는 탁구공을 지켜보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장을 읽는 중이었다.  
이 책에서는 인간관계를 주고받는 탁구공에  
비유하여 표현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추천한다.

살아가갈 동안 계속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때론, 버겁기도 하다. 사랑하려하다 되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그 사람을 더 깊이  
미워하기도 하며, 이해하려고 하다 되려 미움  
당하거나 호구가 되기도 하니까. 어느 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 어딘가가  
결여된 것만 같고, 어느 날은 공허함과 함께  
침체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오래 해나가야할 숙제  
같은 다리. 넘어갈 듯 넘어가지지 않았던  
끈질긴 다리. 복잡한 실타래처럼 영킨 관계는  
한번 영키면 제대로 풀어지는 법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대인 적이  
있을 것이다. 인연 혹은 악연, 아니면 잘나의  
일회성 관계에서조차도. 나의 그런 순간에  
도움이 되어주었던 동화책 『핑!』을  
추천해본다.

나는 스릴있는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도  
언젠가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탁구공을  
큰 망설임없이 주고 받고 싶다. 아래는 내가  
추천하는 동화책 『핑!』의 출판사 서평의  
일부이다.



<출판사 서평>

"핑퐁 게임과 같지만,  
매번 즐겁거나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야"

누구나 핑퐁게임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테니스건 배드민턴이건 놀이가 즐겁게  
이어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차례에 공을 제대로 그리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상대가 공을 잘  
받아치든 그러지 못하든,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살아가는 일도, 마음을

주고받아 관계를 맺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온  
마음으로 다 하는 것뿐입니다.

멕시코 그림책 작가, 아니 카스티요는 '핑퐁  
게임'에 비유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민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게임을 재미있게 이끌기  
위해 내 차례에 열심히 공을 보내듯, 친구나  
사회,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면  
된다고 말합니다.

"핑퐁 게임을 즐기려면,  
내가 보내는 공에,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해!"

핑퐁게임을 할 때 중요한 건 내가 보내는 공에  
집중하는 겁니다. 상대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공을 보내기 위해 공을 보내는 자세를 다잡고,  
상대의 공을 잘 받아치는 연습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핑퐁게임에서 자신감을  
얻고 즐거움도 알아가게 되지요.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수많은 관계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의 반응보다는 내 마음에  
집중하여 상대의 반응에 움츠러들지  
않는다면, '핑'은 스트레스가 아닌, 자유롭고  
즐거운 일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용감하게 해야 하는  
일이란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담긴 진심도 발견할 수 있게 되며,  
관계 맺는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11 💬 2

김명빈 (미디어스쿨) 지금은 아직 망설임이 남아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탁구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 맞는 사람과 꼭 만나게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25/05/19  
monday, pm 11:59 | 221회  
박지영 (경제학과)

#8일자 #다리 #계절

지난 달, 나는 '스물 둘, 나의 봄'이라는 나의 시집을 엮었다.

난 오랫동안 나의 책을 갖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내가 쓴 글, 내가 쓴 서론, 내가 디자인한 표지와 속지... 오롯이 나로 시작해 나로 끝나는 그런 책 말이다. 소설을 쓰기도 하고, 에세이를 쓰기도 했지만 빠른 결과물을 내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아무래도 글의 길이가 길어질 수록 집중력을 요하는 구석이 많아졌다. 빨리 내 책을 손에 쥐고 싶었다. 난 그런 성취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때문에 속도가 빠른 시를 선택했다. 짧은 글에 많은 생각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시의 매력은 나의 첫 번째 책이 되기에 충분했다.

시를 쓰기에 앞서 나는 시집의 주제에 대해 오래 고민했다. 나는 시집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 오래 고민하다 하나의 단어가 마음에 푹 뛰어들어 오르듯 떠올랐다. '청춘'. 난 오랫동안 청춘이고 싶었다. 내 삶은 지독한 겨울 같아서, 매일 마음이 시렸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청춘이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햇볕 따가운 날도, 바람에 흔들리는 날도... 지나고 보니 모두 봄이었다. 그 깨달음으로 나는 지금의 추위를 잊어보고자 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날들, 그런 무심함으로 쓸쓸했던 날들, 그 모든 계절을 건너온 지금의 나보다 어린 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난 이제 겨우 스물 둘인데, 그 괴로운 시절의 나는 고작 중학생이었다. 그 어린 가슴을 외면한 것도 결국 나였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다.

이번 학기가 시작하고, 난 시집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3월부터 시작한 여정은 4월이 되어 끝났다. 그동안 할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동하는 시간을 쪼개어 시를 쓰고, 책을 디자인 했다. '우수-입춘-개화-만개'로 이어지는 시집의 흐름은 내 마음의 계절을 따라간다. 계절과 계절 사이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건너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났다. 그 아이는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 나는 말하고 싶다. 미안했다고, 그 모든 날에 너를 혼자 두어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주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찾아올 수 있었던 걸까. 마지막으로, 시집 중 엄마의 원픽 시를 공유한다. 부디 너무 슬픈 시는 아니길 바란다. 나는 들꽃처럼 피어나, 참 많은 것을 보았으니까.

[들꽃] 박지영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피었다

찬 바람에 흔들려도  
보란 듯 피었다

푸르름보다 먼저  
외로움을 배웠고  
사랑보다 먼저  
쓸쓸함을 배웠다

뿌리보다 먼저  
희망을 내려놓고  
고통을 거름 삼아  
결국 피었다

그 때문일까,  
고독의 냄새가 나는 것은

내 마음 속에는

비 오는 날에도  
황량한 사막이 있고

무더운 날에도  
눈 내리는 남극이 있다

애써 치켜든 고개가  
뼈근해 온다

찍이는 어느 날에  
마침내 사랑이기를



😊 17 💬 7

조은채(간호학과) 와 벌써 시집을 편찬하시다니... 너무 멋지세요..!! 다리라는 주제에서 어린 날의 자신과 연결되는 내용이 펼쳐진다니 놀랍습니다. 시도 참 아름답지만 슬프네요.. 지금은 마음에 봄이 왔을까요?



2025/05/20  
tuesday, am 12:10 | 181회  
공나영 (심리학과)

#8일자 #다리  
나는 징검다리를 무서워한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면 어느 계단을 오르거나, 다리를 건널 때처럼 성큼성큼 걸어야 할 수는 없다. 무조건 한 발짝씩, 천천히 건너야 한다. 내가 징검다리 건너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물 때문에 미끄러워서 넘어질까봐이다. 그렇지만 나는 징검다리를 좋아한다. 징검다리만 건너면 어릴 적 추억이 많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나와 내 언니가 초등학교일 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청계천으로 자주 데려가셨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면 늘 무더운 여름날 징검다리 건너편에서 날 기다리는 어머니와 언니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앞으로 나는 많은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작은 사회인 학교와 진짜 사회로 이어주는 다리, 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 등등... 새로운 다리는 늘 무섭고 두려울 것이다. 이제 내겐 징검다리 말고도 다른 무서운 다리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건너편에는 늘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늘 묵묵히 기다려주는 그들 덕분에, 결국에는 무서운 다리도 전부 건너게 될 것이다.

😊 12 💬 4

공나영(국어국문학과 23) 다리란 어릴적의 추억 속에서 이젠 사회를 한 발자국 나를 이끌어주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건너편의 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모든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말이 참 와닿네요!



2025/05/20  
tuesday, am 12:18 | 31218  
김양선

오늘의 글쓰기 마감합니다. 다리를 건너다는 건 단지 공간을 이동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를 건너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주거나, 나를 위해 건너준 누군가의 존재를 떠올리는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다리(Bridge), 장소와 장소,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성에 대한 글들이 많았고, 걷고 성찰하는 다리(leg)에 대한 글들도 눈에 들어오는군요. 앞으로 여러분이 놓아가고 싶은 다리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하루를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 14 💬 0



2025/05/20  
tuesday, am 8:02 | 30918  
김양선

#9일차 키워드 : 얼음  
오늘의 키워드는 '얼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얼음은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나요? 투명하고 차가운 물질일 수도 있고, 더운 여름날 갈증을 식혀 주는 한 조각의 위안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마음처럼 단단하고 달힌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언젠가는 녹아버릴 무언가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얼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기억이나 감정을 데려오는지 떠올려 보세요. 얼음처럼 차가웠던 순간, 얼음 아래 숨겨져 있던 감정, 또는 얼음을 녹이고 싶었던 마음까지 '얼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떠오른 장면, 기억, 생각들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 16 💬 0



2025/05/20  
tuesday, am 8:27 | 30218  
김명도(일본학과)

#9일차  
저는 카페에 가면 아이스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차가운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마시는 속도가 워낙 느려서 항상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마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걸 시키든, 차가운 걸 시키든 늘 미지근한 상태로 마시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제 마음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따뜻하든 차갑든, 저는 항상 한 발짝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늘 미지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저를 멀리하거나 싫어하지만, 가끔은 그런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미지근한 마음은 분명 맛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미지근한 마음으로 있으려고 합니다. 제 속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 21 💬 11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결국 자극적인 사람보다는, 미지근해도 마음이 꾸준히 오래 가는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2025/05/20  
tuesday, am 9:48 | 31918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9일차  
몸이 얼음장같아. 너무 좋아.  
보통 그런 말은 걱정할 때 쓰지 않아?

얼굴 위로 여름의 해가 쏟아지던 2018년 여름. 점심을 먹은 후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학교 벤치에 앉았다. 나는 하복을, 개는 체육복을 입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 대신 우리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그 벤치를 선택하기 일쑤였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이 뜨거운 여름을 즐겨야 한다는 개의 신념이었다.

사람을 좋아하고, 나와 같이 가던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좋아하고, 점심시간에 실내 대신 실외에 있는 걸 좋아했던 개. 연락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한 교시가 끝날 때마다 괜히 남의 교실을 들여다보게 했던 개. 때로는 갑자기 뒤에서 튀어 나와 내 어깨를 치며 야! 하고 짓궂게 웃던 개.

고등학교 3년 내내 단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고, 같은 동아리였던 적도 없었던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친해졌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개가 여름에 유난히 차가웠던 내 살갓을 좋아했던 것만큼은 또렷하다.

더위에 몸이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에도 늘 피부는 차가웠다. 오죽하면 친구들이 나보고 파충류냐고 묻기도 했으니, 차가운 피부는 하나의 상징 같은 셈이었다. 하복을 입으면 드러나는 허여멀건한 팔을 보고, 까무잡잡한 개는 이따금 내 팔에 팔뚝을 껴오곤 했다.

아, 시원해. 역시 여름엔 네 팔이지.

달아 있던 팔이 뜨거워지면, 재빨리 반대편 팔에 볼기를 반복하던 여름. 안 그래도 더워서 죽을 맛이었지만 굳이 피하지는 않았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내 팔을 붙잡고 유리알 깨지듯 웃던 그 얼굴이 끊이지 않기를 바랐다. 내가 너무 더워한다 싶으면, 얼음과 진저에일로 가득 찬 컵에 맺힌 물방울을

넙킨으로 쓸어다가 내 팔에 착 놓아주던 순간들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성인이 되고 나서 단 한번의 만남.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지만 고등학교 시절의 여름이라는 것은 -조금 특이했던 개와의 기억으로 남는다.

😊 19 💬 13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저도 손이 차가운 편이라 공감이 되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의 추억이 떠오르는 글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0  
tuesday, am 9:59 | 31818  
유세원(일본학과)

#9일차  
제시어를 보자마자 악뮤의 <얼음들>이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2016년 뉴스웨이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이찬혁은 "얼음들은 어린아이가 어른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얼음과 어른의 발음 유사성이 저 사실을 더욱 재밌게 만든다. 그리고 얼음의 차가움과 딱딱함이 어린아이가 흔히 느끼는 어른의 특성이라 생각하기에 난 더욱 이 곡에 공감이 갔다. 내 주변의 어른을 또한 그랬다. 물론, 따뜻하게 대해주려는 어른들도 적지 않았지만 그들도 어지않아 딱딱하고 차가워졌다. 형식상의 인사, 형식상의 질문, 형식상의 용돈. 어른들은 전부 '형식'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노는 게 당연한데 그들 앞에 서면 그게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다. 잠깐 따뜻하게 되어서 얼음이 녹고 그 물이 나에게 스며 다시 평평 얼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 앞에만 가면 경직되었다.

물 같은 어른도 있다. 우리 이모가 그렇다. 순수한 면모가 많고, 고등학교 교사여서 그런지 미성년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런 이모를 보며 항상 엄마는 애 같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엄마가 이모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애 같다.'와 '아이 같다.'는 말엔 격차가 분명 존재하기에 그 생각을 접었다. 가끔 이모를 바라보는 시선에 이모가 물에서 수증기가 되어버리진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모가 계속 얼음도 수증기도 아닌 물의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얼음이 아닌 어른들이 존경스럽다. 물은 어디든 스며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다.

😊 22 💬 9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악유 노래 중에서는 얼음들이라는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데 채원님 덕분에 어 노래를 듣게 될 때 이 글이 생각날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0**  
tuesday, am 11:13 | 2025년  
정우림(정치행정학과)

#9일차 #얼음

오늘은 어떤 분들께는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써 볼까 합니다.

얼음은 쉽게 사라집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천천히 녹기 시작하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며 어느새 물이 됩니다. 그것은 더는 얼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쉽게 타락합니다. 유권자들이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서서히 체제가 붕괴되고 그 속도는 얼음이 녹는 속도보다 더, 걸잡을 수 없이 빨라지며 결국 타락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적에게 먹히거나 내분으로 인해 자멸합니다.

자유는 대가는 영원한 경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한국전 기념 공원에는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운이 따라 준 덕에, 또 여러 사람들의 노력 덕에 자유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계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민주주의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개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방식일 뿐이고 쉽게 타락하므로 끊임없이 경계해야 건강한 사회, 또 인류의 지상가치인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자유민주주의가 녹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22 💬 15

김예지(사회복지학과) 요즘 더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 우렁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20**  
tuesday, pm 12:49 | 2025년  
권학빈(경제학과)

#9일차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이야. 오늘따라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안 그래도 짜증나는 여름철, 며칠 동안 지속되는 장마에 끈끈한 공기와 처지는 분위기는 기운을 내려고 해도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내리쬐는 햇빛 만큼이나 기분 나쁜 이 날씨, 최대한 쾌적한 공간을 찾으려 애써왔지만 실내 야외 가릴 것 없이 이미 습도로 가득 차 답답한 느낌만 계속된다.


날씨 탓인가, 아니면 그 날씨 때문에 가라앉은 내 기분 탓일까.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일어났다. 황급히 일어나 대충 씻고 나가 출근하는 아침, 재수까지 없는지 물웅덩이를 밟아 바지가 축축해졌다. 신경 쓸 세도 없이 겨우 지각을 면해 숨을 돌리는 찰나, 아찔싸. 보고서를 안 챙겼다. 결국 상사에게 신나게 채지고 기가 죽은 상태로 업무를 보다 겨우 퇴근한다. 오늘의 불운과 내 분노를 잠재울 수단이 필요하다. 편의점에서 빠르게 사이다를 사와 한 모금 들어킨다. 이런, 넣어 놓은 지 얼마 안 된 병이었는데 아직 미지근하다. 내가 냉동실을 뒤져 얼려 놓은 얼음을 마구 집어넣는다. 온도가 급속도로 차가워지며 병이 흐려진다. 다시 한 모금 들어켜본다. 그래, 드디어 내가 딱 원하는 온도로 맞춰졌다. 역시 행복은 작은 것에서 찾아오는 것인가 보다.

한 병을 금방 다 마셨지만 얼음들이 서로 부딪히며 나를 유혹하듯이 소리를 낸다. 내가

얼음을 와작와작 씹으며 오늘 하루의 울분을 다 씹어먹는다. 내일은 비 그만오고 실수 좀 하지 말자. 얼음이 입 안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의 답답함을 깨버리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 19 💬 10

서정원(심리학과) 비오고 습한 5-6월 학교 오르막길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2025/05/20**  
tuesday, pm 1:03 | 2025년  
서예민(디지털미디어콘텐츠)

#9일차

얼음 씹는 소리를 불편해하는 누군가, 얼음이 그저 녹기만을 기다리는 누군가. 그 사이에서 나는 얼음을 그냥 씹는다. 커피를 시킬 땐 꼭 '얼음 많이' 옵션을 추가하며, 나온 커피의 얼음은 가만두지 않는다. 차가운 조각들이 입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와 감촉이 나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기도.

살도 얼음 같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단단하며 그 자체로 쓴 커피를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더 멍멍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다른 누군가는 쓴 살을 피하려 멀찍이 떨어져있지만 난 그 삶과 마주하려고 한다. 그 얼음을 깨물으며 부서지더라도, 시리더라도 그 감각을 받아들인다.

습관 탓인지 난 인생의 찬 온도도 마다하지 않게 된 것 같다. 오히려 그 차가운 속에서 숨은 따뜻함을 찾아낸다.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던 단단함도 순수한 따뜻함 앞에선 그저 녹아내린다. 난 그걸 안다. 단단함 속에서도 부서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든지 부서져도 괜찮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얼음을 씹는다.

삶의 공허함에 얼음을 더해, 나만의 시원함으로 바꿔낸다.

\*\* 근데 사실 얼음 많이 씹는 게 이빨 건강에 정말 안 좋대요 저도 자제하려고 합니다..^^



😊 19 💬 12

김예지(사회복지학과) 인생의 찬 온도로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문구가 참 마음아프면서도 단단한 예민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2025/05/20  
Tuesday, pm 1:30 | 24188  
김예지(사회복지학과)

#9일차 -얼음

겨울  
고등학교 시절의 나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가족 안에서의 긴장감, 특히 아빠의 존재는 나를 순간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몸도 마음도 차갑게 굳었고, 나는 점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고, 그저 버티어야만 하는 하루하루였다. 따뜻함보다는 조심스러움으로, 웃음보다는 침묵으로 채워진 시기. 그때의 나는 얼음처럼 차갑고 깨지기 쉬운 사람이었다.

봄  
그 차가운 계절 속에서 나를 그냥 '예지' 그 자체로 받아들이주는 친구들이 있었다. 친구들은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던 나를, 아주 작은 알과 눈빛으로 불들어 주었다. 선입견 없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아픔에 손 내밀고, 이유 없이 함께 있어주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얼음에 금을 내기 시작했다.

여름  
가족에게서 벗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의 숨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공중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친구들과 지인들의 온기로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들은 나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 주었다. 그렇게 나는 얼음에서 물이 되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나날,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스스로를 회복하고, 생기를 얻게 되었다.

가을  
이제 나는 가을을 걷는다. 지나온 겨울과 봄, 그리고 여름을 천천히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그 시절의 나는 참 용감했고, 그 걸음 지켜준 친구들은 참 따뜻했다. 나를 얼음 속에 가둔 환경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나는 그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부드럽고도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얼었던 날들을 지나왔기에,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 19 💬 10

조은채(간호학과) 온기를 전달받고 또 전달하려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얼음의 상태도 변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05/20  
Tuesday, pm 2:40 | 23188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9일차  
얼음

나에게 얼음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여름엔 물론이고 겨울에도 꼭 필요하다  
따뜻한 방 안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마시는 차가운 물에도  
얼음은 당연히 동동 떠 있어야 한다

밖에서 음료를 사 마실 때도  
집에서 물 한 잔 마실 때도  
나는 항상 얼음을 넣는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마지막 한 모금까지 차가워야 만족스럽다

그리고 컵에 남은 얼음들은 그냥 두지 않는다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는다  
깨물어 먹는 그 식감이 좋다  
마치 시원함을 입안에 오래 붙잡아 두는 기분 아닐까?

어제 술술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다  
냉동실 얼음 틀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얼음은 내 여름의 준비물이자 사계절 내내 즐기는 작은 습관이다  
누군가는 이해 못 해도 얼음이 나에게겐 꽤 중요한 생활의 필수다.

😊 17 💬 10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주연님의 글을 읽고 나니까 물 위에 동동 뜬 얼음과 함께 한 입에 다 털어넣고 그 시원함을 만끽하고 싶어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0  
Tuesday, pm 4:40 | 24188  
최현영(금융재무학과)

#9일차 #얼음

오늘 오전은 갑자기 보슬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또 갑자기 후덥지근해진 날씨에  
정신을 못 차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더위에 계획한 일들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속상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얼음이다.  
얼음 하나면 더위로 함께 달궈진 불도 땀으로  
범벅이 된 옷까지 뽀송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나에게 얼음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붓기를 빼기에도 이만한게 없고 시원한  
음료를 바로 즐기기도 이만한게 없으니  
말이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더더욱 얼음없이  
못살아 인간이 될 텐데...  
곧 다가올 더위가 조금은 무섭지만 덕분에  
얼음의 위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에 살짝의  
기대를 해 본다.  
그래도...더워야 물러가라!

😊 15 💬 9

임혜빈(사회복지학전공) 글이 너무 공감되고 귀엽네요!! 저도 오늘 아이스 음료를 한 잔 마셨는데, 아직 여름은 오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2025/05/20  
Tuesday, pm 4:46 | 27188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9일차

나는 얼죽이다. 정말 추운 날에도 뜨거운 음료를 별로 손이 가지 않는다. 아이스 음료가 주는 그 시원한 목넘김이 좋다. 같은 커피라도 얼음이 들어가면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 좀 더

또렷하고 좀 더 깔끔하다.  
누군가는 겨울에 아이스를 마시면 속이 차다고 걱정하지만 사실 별로 상관없다. 나는 그냥 이게 편하다. 손이 시려워도 괜찮고 밖에서 김 나눈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아이스를 마시고 있어도 괜찮다. 그냥 내 취향일 뿐이다. 가끔은 얼음이란 게 좀 웃기기도 하다. 단단하게 꽂혀 얼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녹아버린다. 처음에는 투명하고 반투명한 조각이 금세 가장자리가 흐릿해지고 천천히 물로 변한다. 그 찰나의 시원함 때문에 마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얼음이 마음처럼 달았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에는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녹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안에서는 천천히 조용히 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서서히 녹아야만 비로소 온전히 섞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달았다.

😊 20 💬 10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사람의 마음이란 단단하면서도 금방 녹아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알다가도 모르는건 사람의 마음이라 다가가기 어렵다가도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모두 다 똑같니까요!

2025/05/20  
tuesday, pm 5:00 | 250106  
김서희(식품영양학과)

#9일자 얼음

나는 스무살 겨울부터 방학마다 휴게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CU, 한식파트, 홈미화에서 일했는데 특히, 여름에 한식파트와 홈미화는 일보다 더위를 견디는 일이 더 힘들었다.

가장 최근에 했던 홈미화를 하며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면, 보통 열심히 일을 하고 11시쯤 점심을 먹는다. 직원 식당에 들어가면 흥건했던 맘이 금방 식고 언제 더웠다는 듯이 추워진다.

또 2시쯤 '타입'을 가서 1시간 쉬고 오는데 이때 팀장님이 사주시는 얼음 가득한 공차나 잣라떼가 정말 맛있고 감사했다. 휴게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내 나이 또래 분들도 만났지만 대부분은 엄마 나이와 비슷한 분들이었다. 때문인지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내게 건네는 호의들이 처음에는 불편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죄송스러울만큼 감사했고 나도 더 열심히 일했다.

또 내가 그런 호의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생각하게 했다.

팀장님이 건넨 얼음 가득한 음료는 작년 여름 나의 더위를 식혀줬고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해줬다.

😊 18 💬 8

김수진(미래융합스쿨) 휴게소에서 일바라니 대단하신것 같아요! 저도 아르바이트했던 곳에서 사장님이 중간에 아이스티를 사주셨던 적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0  
tuesday, pm 5:32 | 250108  
서정원(심리학과)

#9일자

질서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질서와 무질서, 비율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나올까. 내 대답은 다음과 같다. 질서:무질서=9:1. 딱딱하고, 차갑고, 형식적인 얼음과 같은 삶.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길래...? 시험

기간에 일기장에 적은 글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고 블라인드를 올린다. 이불을 베게 위로 겹댄다. 덮는 쪽이 아래로 가게 해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먼지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목적으로 베게 위로 겹댄다.

책상 쪽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신 후, 아르기닌 한 정, 고려은단 비타민 c1000을 먹는다. 그리고 적당히 활기찬 음악을 틀고 세면과 화장을 한다. 약산성 클렌징폼을 쓰고, 독도로션과 비오레 아쿠아션크림, 비오레 토포션크림을 바른다. 가끔 꾸미는 날에는 오브제 파테를 적당히 티 안 나게 바르기도 한다. 겨울엔 수분 세럼을 쓰고, 여름엔 유분기 때문에 안 쓴다.

전날 자기 전 씻고 세팅해 놓은 머리에 적당히 물기를 묻히고 다시 세팅하기 시작한다. 전날에 모양을 잡아놓고 잤다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아있게 돼서 좋고, 무엇보다 아침에 머리를 안 감고 세팅할 수 있는 게 좋다. 여자들이 아침에 앞머리만 세팅하는 것과 같은 역력이겠지. 적당히 물을 묻히고, 휘핑 컬 크림을 야구공보다 작은 정도로 파서 머리 전체에 퍼 바르고 말린 후, 앞머리 모양을 다시 잡고, 뿌리 부분에 가스형 스프레이를 뿌려 고정한다.

그리고 계절에 맞는 향수를 적당량 뿌리고, 그날의 분위기와 맞는 옷을 입는다. 여름엔 시트러스, 바다 느낌의 향수를 뿌리고(둘레엔가바나 라이트블루, 그랑핸드 마린오케이드, 예르메스h24) 겨울에는 무거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흥차 향이 있는 바이레도의 믹스드 에모션을 뿌린다. 옷은 군대 가기 전부터 5년 이상 입을 괜찮은 기본템들을 꾸준히 사 와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다음 계절에도 같은 옷을 입는다. 옷에 큰 욕심은 없어서, 원단값도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데 아싸리

이렇게 입는 게 편하고 좋다.

그리고 따뜻한 한끼에 갈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날이면 아침을 먹는다. 미리 주문해 둔 멸균우유 12L, 그래놀라와 켈로그 그래놀라 시리얼을 섞어 먹는다. 멸균우유는 실온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좋고, 그래놀라는 일반 시리얼과 다르게 영양소도 높고 포만감이 있어서 선호한다.

지금까지가 내 아침 루틴이다. 정확히 작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다.

아마도 생으로 나갔던 날이 거의 없을 것이다. 1시간 뒤에 맘이 뻘뻘 나는 하체운동이나 유산소를 하지 않는 이상 기초는 하고 나간다. 이유를 생각해 봤다.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데, 매일 이렇게 하고 나가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굳이 시간 들여서 왜 그럴까.

내 개인적인 만족이 크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하고 나가야 자신감이 산다. 하루의 시작이 좋기에 그 여운이 밤늦게까지 가니까, 그리고 산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는 목적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습관이 됐다. 그냥 전날에 세팅하고, 다음 날에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적인 게 뭐가 있을까... 세팅을 다 하고 수업에 갔다가 점심에 시간이 남으면 따뜻한 한끼에 가서 5000원짜리 한식 백반을 먹는다. 교회 자선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이곳에게 나눠주는 기독교계 정신이 있어서 저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거다. 쌍둥이 할머니와 쌍둥이 할아버지 네 분이 일하시고, 가끔 손녀로 추정되는 분, 같은 교회 사람으로 추정되는 분이 오셔서 일을 돕는다.

메뉴는 메인으로는 제육볶음 또는 간장 불고기이고 고정이다. 비중으로 따지면 월-금

운영 시간 중 4/5 정도는 제육볶음이 나온다. 어떤 때는 아주 매워서 시뻘겋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괜찮다. 그런데 편차가 크진 않아. 간장 불고기는 맵지 않고 달콤해서 좋고. 그리고 사이드로는 김치 또는 볶음김치고 고장, 두부 또는 두부조림도 고정이다. 그 외의 사이드는 매일 바뀌는데, 자주 나오는 순으로 말해보자면 어묵볶음, 마늘 고추 장아찌, 콩나물볶음, 오이김치, 짜장, 카레가 나온다. 국은 콩나물 김치국, 미역국, 근대 된장국, 배추된장국이 주로 나온다.

결제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고, 선후물 상관 없다. 난 1년 내내 계좌이체로 먹고 있어서 캐셔에 있는 할아버지도 내가 올 때마다 계좌이체 할 거란 걸 알고 계신다. 1년 내내 "계좌이체로 할게요" 하고 단방향적인 소통을 주로 하지만, 내적 친밀감은 참 많이 쌓였지. 그런데 할아버지도 내가 학생인 걸 알고 가끔 공부 열심히 하라고도 말씀해 주셔. 아 여겼는분들 다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공짜 자판기 커피 하나 뽑고, 8관 지하 gs에 새로 들어온 커피 머신에서 할인행사중인 1000원 짜리 m사이즈 아메리카노 뽑아온 걸 쉬는다. 그러면 괜찮은 맛의 원하는 만큼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어.

그리고 공부, 강의, 멘토링, 북클럽, 동아리 운영, 운동, 방송, 글쓰기를 하다 보면 이미 하루는 저물어 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요즘 입에 바른 소리야... 그만 말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길게 주저리주저리 글을 쓰고 나서 공감이 생각해왔다. 지금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가장 건강할 때가 아닐까. 감이 온다. 대학교라는 사회 진출 전 마지막 테두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느끼면서도 청춘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운동,

독서, 요리 등 사치스런 것들을 실천하고, 글쓰고, 아마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가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 자갑고, 형식적이고, 질서 있는 삶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 주어진다 데로만 일하는 기계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유즈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내 할 일 다 하며 흘러가는 데로 살아왔다. 이 자갑고 질서 있는 삶을 녹여줄 누군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감성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그 누구보다 취약한 상태인 것 같다. '이성'을 '감성'으로 조금만 환원시키고 싶다.

😊 15 💬 12

윤소정(사회학과) 특정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도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도, 누군가가 느끼기엔 너무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 일상에 이벤트가 생겼을 때 더 즐거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5/05/20  
tuesday, pm 7:09 | 21918  
윤소정(사회학과)

#9일차 #얼음

<얼음이 녹고 있다>  
날씨가 이상하다. 4월에 25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갔다가 비가 왔다가 주춤했다가 날씨가 오락가락했다. 덕분에 겹옷을 세탁 맡겨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많이 미루었다. 언제쯤 긴팔을 집어넣고 반팔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는 애매한 날씨였던 것 같다.

날씨가 이상한 원인은 모두가 일다시피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올라갔다. 평균기온 상승 1.5도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최근에 1.5도를 넘었다고 한다.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북극의 얼음, 즉, 빙하가 녹는 것이다. 흔히 북극곰이 쪼개진 빙하를 타고 떠다니는 모습을 떠올릴 텐데 북극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대로라면 해발고도가 낮은 투발루같은 나라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었다. 봤던 회차에서 2층 짜리 건물이 나오는데 그 중 1층은 더운층이었고, 2층은 북극처럼 얼음이 얼어있는 층이었다. 1층에 있었던 출연자들이 덥다고 에어컨을 틀면 2층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결국엔 그 물이 1층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초등학교생일 때 봤었는데 이 회차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구온난화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도 늦추는 방법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다.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만큼 일상에서 개개인의 실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카페에 음료를 구입하러 갈 때에 텀블러를 가져가서 구입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거나,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의 냉난방기를 꺼놓거나, 낮은 층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걸어올라가는 것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개인이 일상에서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누적되고 그 수도 올라간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6 💬 9

임혜빈(사회복지학전공) 최근에 '잔잔한 열풍'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기후 위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됐어요. 인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언젠가 멸종하겠지만, 우리 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2025/05/20  
tuesday, pm 7:22 | 24918  
조은제(간호학과)

#9일차 #얼음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알아 가슴 아린 열병을 앓음 이름 데 없는 마음 건넨 꽃 한 아를 얼음장 달은 말에 도리어 돌아와 울음 이름 수 없는 마음

이른 어른이 된 우리 아른거리는 어린 시절 다시 네 이름 앞에서 얼음

😊 17 💬 6

박지영(경제학과) 정제된 문장에 감정이 폭발하네요. 이런 글은 은채님만 쓰실 수 있는 글인가봐요. '박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린 날의 풋풋한 열림.. 어른이 되어서도 잊기 어려운 박사랑의 이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애순이에게 몇 번이고 거절당하던 어린 관식이가 떠오르네요



2025/05/20  
tuesday, pm 8:06 | 16918  
김수전(미래융합스쿨)

#9일차 #얼음

얼음은 마치 박사랑과 같다  
공공 얼어있던 마음에  
누군가를 품게 된다면  
얼었던 마음도 스르륵 녹아버린다  
그렇게 녹다 못해 물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나는 천천히 그에게 스며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다시 얼음이 되어버린다

나도 모르게 꿈꿨 얼어붙어버리고  
다시 물이 될 때까지는 하루 한 달 일 년,  
어쩌면 그날이 다시 오기까지  
수만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다시 물이 된다  
안될 걸 알면서도  
자연스레 다시 물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나는 무한한 굴레에서  
오늘도 녹아내려 본다

+ 얼음과 짝사랑에 대한 시를 한편  
만들어봤어요  
재밌게 읽어주세요!



김미도(일본학과) 오...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느낌인지도 확 와닿지는 않지만, 멋진  
글이네요!



2025/05/20  
Tuesday, pm 8:19 | 2023  
채은비(생명과학과)

#9일차  
#얼음

물은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언다. 그 사이  
어떤 온도가 적당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얼음 세 알 띄워주세요"  
사람들 중 누군가는 마실 것을 찾을 때 이런  
주문을 하곤 한다.  
끓는 물의 온도에 데일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다정한 온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얼음의 차가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뜨거운  
물에 띄워진 얼음은 금방 녹아버리며 그  
표면의 온도에 냉기를 남긴다. 뜨거운지,  
차가울지, 결정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미지근해진다.  
얼음의 모습은 단단하고 차가운 것. 그 중심의  
온도가 0도를 유지하는 이상 변하지 않는  
불변의 모습. 끓는 물의 모습은 무형적이고  
뜨거운 것. 그 중심의 온도가 100도를

유지하는 이상 멈추지 않고 끓을 수 있는  
모습. 사람은 시련을 겪어야만 단단해 질 수  
있다 한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지만 뜨거워질  
수 있다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아파야 얼음이 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해야지만 저 끓는 물의  
뜨거움을 달아 갈 수 있는 걸까. 얼음이  
얼어가는 차가움을 두려워한다. 끓는 온도에  
데일 것을 헌없이 아파한다. 우리는 얼음의  
견고함을 바라면서 끓는 물의 사랑을  
동경하며 그 사이 어딘가의 온도에서  
방황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난, 물 위에 띄운  
세 알의 얼음이 되고 싶다. 따뜻한 온도에  
녹아내릴 수 있는 사랑을 하지만 그 중심의  
0도를 잃지 않는. 녹지만 녹지 않는 얼음이  
되고 싶다.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사랑을 하는데 있어 그  
과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두렵지만 결국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Band!



2025/05/20  
Tuesday, pm 8:25 | 1998  
임혜빈 (사회복지학전공)

#9일차

얼음

'얼음'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고민했다. 나의 수족냉증 이야기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았고, 겨울에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던 추억을 회상해도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내 얼음 같은 겨울을 녹인 그 노래를.

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나는 오래전부터  
드림을 쳐왔다. 밴드 음악에 미쳐있던 시기가  
있었고, 다양한 노래를 찾아서 들곤 했다.  
그때 밴드 '루시'를 처음 알게 됐다. 당시  
루시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정식 데뷔를 앞둔 상황이었었는데, 한  
채널에 출연해 미공개 곡 '난로'를  
선보였었다. 그리고 그 곡은 제목처럼 내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노래의 분위기는 제목처럼 따스하다.  
'난로'는 특이하게도 악기 소리가 아닌,  
엠티앤스 사운드로 시작된다. 엠티앤스  
사운드란 어떤 특정한 공간 내에서 들리는  
자연적인 소리로, 숲속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 소리같이 인공적이지 않은  
배경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노래는 추운  
겨울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 난로의  
타닥타닥 소리가 들리다 피아노 선율이  
시작되는데, 이런 사운드는 노래의 분위기와  
몰입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또한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조화, 보컬 특유의  
따뜻한 음색, 묵묵히 받쳐주는 베이스와  
드럼, 아름다운 가사가 듣는 이를 따스하게  
연어준다.

이 곡이 나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는 겨울마다

우리끼리, Band!

나의 마음을 녹여줬기 때문이다. 계절의 겨울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 얼음처럼  
차가워진 나의 겨울도 봄으로 만들어 줬다.  
이대로는 얼어붙을 것 같을 때, 이 노래가  
나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고, 무언가를 다시  
해낼 용기를 주었다.

누구나 지치고 힘들어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이 있다. 스스로 고립되며 얼어붙을 것  
같을 때, 이 노래를 틀어보길 권한다. 그들의  
음악이 누군가의 난로가 되어주길 바라며.

기다리던 날들도  
바래왔던 순간도  
어느새 우리 곁에 올 거야  
시간을 넘어서  
네 마음이 춥고 외로울 때  
내게 그랬듯이  
너를 혼자 두진 않을 거야



14 7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지치고 힘들어 스스로의 마음을 자각도 하지 못한채 담아버린.. 이 노래를 꼭 들려주고 싶네요!

2025/05/20  
tuesday, pm 8:54 | 2025년  
김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9일차  
<청춘과 청춘과 청춘>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스타 프레디 머큐리를 정말 좋아한다. 그는 퀸이라는 밴드에 속해 있기도 했지만 솔로활동으로 부른 곡도

수두룩하다. 나는 모든 곡들 중 마이클잭슨과 합작을 이뤘던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라는 곡을 정말 좋아한다. 가사 중에 "세상을 왜 흑백으로 나눠야 하나요"라는 구절이 있는데 매번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멈춰서게 하는 부분이다. 극단적으로 나뉜다는 표현을 색깔로 명확하게 해주니 너무나도 애처롭게 느껴지고 눈물이 난다. 잔혹하면서도 기회는 한없이 주는 알미운 세상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던 중 냉장고에 살얼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되었다. 알고 보니 냉장고가 오래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한다. 여기서 또 한 번 멈춰섰고 인간의 삶에 냉장고를 끌어들었다. 그러다 오래된 냉장고도 발악하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혹여나 얼음이 생기면 안되는 냉장실에 얼음을 생성하며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보면 냉장고의 삶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서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면 나는 냉장고이고 싶다. 물론 무지하게 멋진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흑과 백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중간이고 싶지 않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청춘은 이제야 개막했기에 진정한 나를 알아가도록 하자며 오늘에게 웃으며 인사한다!

14 8

김미도(일본학과) 퀸 노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In my defense 가사부터 시작해서 냉장고를 살펴보면 냉장고의 얼음을 인간의 삶과 비유하신게 참 인상깊습니다. 멋진 글이네요!

2025/05/20  
tuesday, pm 9:23 | 2025년  
정우현(철학과)

#9일차  
저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일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고 온도마저 36도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연기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뀌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일어있는 그 마음을 감히 건드릴 생각조차 못 했고 응시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일까요? 저의 심장만큼 열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심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줘도 제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은 얼어붙어있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제 마음을 복구시키고 싶었습니다.

따뜻하게 해보기도 하고 부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공공안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혀 마동도 하지 않은 채 마음이 박제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저는 제 심장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지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내비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을 보여준 순간 사람들은 저의 얼음을 녹여주었고 제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을 내비치려고 하지 않자 얼어붙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보여줄수록 따뜻해지고 감출수록 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보여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따뜻했습니다.

15 7

최연주(디지털미디어콘텐츠)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얼음을 녹인 마음처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드네요

2025/05/20  
tuesday, pm 9:40 | 2025년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9일차 #얼음

얼음! 땡! 놀이터를 지나갈 때면 종종 어린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를 타고 힘차게 하늘을 날아 즐기는 아이들부터 위에서 아래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 양쪽에 앉아 균형을 맞춰 시소를 타는 아이들까지

놀이터는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뛰어 노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얼굴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보인다. 마침 저기 멀리서 뛰어 오는 아이가 보인다. 친구들과 한시라도 빨리 놀고 싶은 마음에 할레벌떡 달려와 미끄럼틀 위로 올라간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너나할거 없이 어울려 놀기 바쁘다. 그때 한 친구의 얼음명 놀이를 하자는 말에 솔레가 된 아이를 제외하고 모두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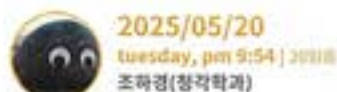
어떤 친구는 정글짐 위에 또 다른 친구는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 가지각색으로 피해다니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빨랐던 솔레는 금새 쫓아가기 시작했고 한 친구가 붙잡히기 전 얼음! 하자마자 솔레는 다음 타기를 쫓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음! 하고 명준 친구의 등을 다른 아이의 땡! 과 동시에 터치해 해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솔레 걸음 명들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놀이에 빠져있었다보니 어느새 늦은 오후가 되어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친구들은 모두 아쉬운 마음에 떠나할거 없어 한판만 더!라며 간절히 외쳤지만 부모님의 만류에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나온 내일도 얼음병 놀이하자! 라는 말에 모두들 금방 얼굴에 화색이 들었다. 그렇게 아이는 내일의 놀이를 생각하며 실렘 가득 집에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그 아이는 놀이터를 지날때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잠기곤 했다. 추억 속의 놀이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든 것처럼 나만의 작은 세상 속에도 그때처럼 따뜻한 기억이 쌓여가기를.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얼음병 정말 오랜만에 들네요 추억이 생각납니다 놀이터에 가서 모르는 어린이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이름도 모르면서 그 시간만큼은 단짝 친구처럼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잡히기 직전 얼음! 하면 참 긴장해서 도파민이 퍽퍽 터졌었죠



**#8일차 #얼음**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유리관안에 갇힌다. 이는 변화를 거부하고 고통을 회피하여 성장을 멈춘 상태를 표현한다. 유리관은 마치 얼음과도 같다. 이러한 삶은 살아내는 삶이 아닌 정지된 생명으로 존재한다.

이렇듯 동화는 많은 의미를 함유한다.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존재의 흐름을 상징하는 은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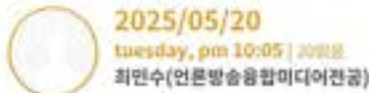
이불 밖은 전쟁터다. 동시에, 이불 안은

얼음이다. 세상과의 접촉이 두려워 움츠러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의미와의 접촉 또한 차단된다.

얼음은 억압, 정지, 경직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고착이 아닌 일시적인 응고 상태. 그 이면에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영하의 온도에서는 얼음이 녹지 않는다. 5월의 푸르름을 만끽하며 함께 날씨를 답혀보자!



**공나경 (국어국문학과 23)** 이불 밖은 전쟁터지만 이불 안은 얼음이라는 말이 괜시리 났어요. 이불 속 안은 따뜻하고 나가기 싫지만 그건 어찌보면 오히려 자신의 삶의 기회를 줄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9일차**

**강가에 뛰어들 용기**

과거 냉각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 시대, 얼음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조선에서는 겨울철 산과 강에서 얼음을 채취해서 그것을 한 해 동안 보관하는 방식으로 얼음을 사용했다. 얼음을 만들어내는 냉각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관 방식은 단조로웠다.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에 돌로 창고를 만들어 얼음을 저장해두는 형식이었다.

조선에서는 이런 지하 창고를 석빙고(石氷庫)라고 불렀다. 채취도, 보관 방식도, 유통도 모두 어려웠던 얼음의 값은 알 그대로 금값이었다. 에어컨도, 아온드 봉봉도, 더위를 달랠 수 있는 그 어떤 현대식 요소도 없었던 옛 시대. 뜨거운 햇빛이

작렬하는 한여름에 얼음을 동동 띄운 오미자 한 잔을 마시는 행위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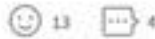
옛 시대가 차가운 얼음을 통해 돈을 벌었던 시대라면, 현시대는 돈을 벌기 위해 얼음처럼 차가워져야 하는 시대다. 다정함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남을 도우려는 오지랴를 버리고, 실리와 수치타산만을 생각하는 게 더 효율적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잘 벌면 '신'이고, 돈을 못 벌면 '악'이다. 아무리 착해도 돈을 못 벌면 존경은 고사하고 낙오자로 취급받는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타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효율성을 탐닉하는 사람만 늘어난다. 마치 흑인과 같은 사회의 냉소적 분위기는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다정함을 숨기게 만들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철학자 맹자는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를 사용하며 "모든 인간은 선하다"라고 주장했다. 강가에 빠진 아이를 보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구하려 물에 뛰어들 것이므로, 인간은 남을 도우려는 본성을 타고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덧붙여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남의 고통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 곳을 향해 흐르는 물'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얼면, 선한 곳을 향해 흐르지 않는다.

성선설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모든 인간은 선하다고 했으니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측면에 있다. 성선설의 본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선한 마음을 타고났으나 살다 보면 욕심이 생겨 악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지키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맹자는 "난 원래 인성이 굴러 먹은 놈이니까, 악행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라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난 원래 착한 놈이니까, 악행을 하는 건 너의 노력 부족이야. 난 충분히 할 수 있는 놈이거든"이라고 반론하는 철학자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을 벌 지식이 아니라, 돈을 포기할 용기다. 마음속 석빙고를 깨부술, 사회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뒤바꿀, 과감하고도 따뜻한 결단이다. 맹자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선행을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당신의 마음속은 물인가, 얼음인가? 당신은 마음속 얼음이 녹아내릴 각오를 해서라도, 강가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강지오(일본학과)** '다정함은 돈이 되지 않는다'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다정한 이에게 더 정이 가는 건 역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의 방증이겠죠? 오늘도 글 잘 읽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9일차**

얼음이란 키워드를 보니 얼음이 가득 담긴 음료수가 왜이리 맵기는지 모르겠다. 방금 학교 일정을 마치고 기숙사 방에 들어와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얼음이 가득 담긴 음료가 너무 마시고 싶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비도 오고 해서 선선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달라진 것 같다. 날씨도 더 더워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습하다. 캄보디아 갈 때 비행기에서 처음 내렸을 때의 그 습이 턱 막히는 습한 느낌이 오늘 밖으로 나올 때마다

느껴졌던 것 같다. 내가 이 상황에서 마실 수 있는 것은 이미 냉기는 사라진 미지근한 물밖에 없었기에 더욱 얼음이 담긴 음료가 땡겼던 것 같다.

근데 생각해보니 난 항상 얼음이 담겨있는 수준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다. 오늘날 땡기는 것이 아닌 늘 땡겼던 것 같기도 하다.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나에게 더 필요한 존재가 될 것 같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부터 쓸 내용은 내 친한 친구의 요청으로 쓰는 것이다. 오늘의 키워드가 얼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친구가 꼭 자신 이야기를 써달라고 했다. 이 친구는 원래 이 라이팅 챌린지를 함께 하려고 했었다. 자신이 꼭 1등 하겠다고 계속 말했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신청한 줄 알았는데 정작 까먹고 신청을 못 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얼음처럼 얼어서 신청을 못한 것일까 하면서 다소 억지같지만 이 친구의 요청으로 글을 썼다. (이 친구에 대해서 쓰기 좋은 키워드가 나오면 그 때 더 많이 쓰겠습니다!)

😊 13 💬 16

김경현(화학과)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한다면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얼음이 가득 담긴 음료를 든 학우분들도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20  
tuesday, pm 10:28 | 22:28  
장근희 (글로벌비즈니스전공)

#9일차  
얼음. 얼음 빙수의 계절이 왔다. 나는 와그작 와그작 씹히는 얼음 빙수를 좋아한다. 우유 빙수도 나름의 매력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얼음 빙수가 좋다. 여름날의 햇살이 투명한 얼음 조각을 통과할 때, 무지개처럼 부서지는 빛.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순간, 나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땡땡 같은 더위 속 달려와 사 먹던 팔빙수의 맛. 얼음 위에 앉아 있던 달콤한 팔과 차가운 설탕 시럽.

손 끝에 닿으면 서서히 녹아내리는 차가움. 그 차가움이 주는 위로. 여름날 뜨거운 이마에 얼음을 대면 모든 근심이 함께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 나는 그렇게 어린시절을 회상하고 추억한다.

그리고 다시 한 손잡 뜨는 얼음 빙수. 나는 달라졌지만 얼음 빙수는 여전히. 오뎅오뎅, 와그작 와그작.

😊 15 💬 5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얼음의 감각이 어린 시절 추억 속을 회상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는 것이 인상깊었어요! 어릴때의 나와 어른이 되고나서의 나는 달라졌지만 빙수의 맛은 여전히 똑같이 맛있죠!

2025/05/20  
tuesday, pm 10:51 | 17:11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9일차 #얼음

-시: 길에 쌓인 파편들

소복히 쌓인 눈 길을  
밟고 또 밟아  
어느새 빙판 길로 바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기에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기에  
하얀 눈이 탁해지고 미끄러워졌을까

눈이 예쁘다며 뛰노는 아이들  
낭만적이라며 미소짓는 커플들  
장사가 안 된다며 한숨 쉬는 사업자들

경쾌한 발걸음과  
무거운 발자국이 뒤섞여  
탄생한 얼음판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감정을 읽어나간다

-에세이 느낌

투명한 수정같이 맑은 얼음을 얻기는 꽤나 힘들다라는 것을 몰랐었다. 핵심은 천천히 물을 얼려야 불투명하지 않은 빛 투과율이 높은 얼음이 된다는 것이다!

대학 1년 전 검색(유튜브)했을 때 뜨거운 물로 얼리면 위스키-온더락에 쓰이는 얼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영상도 봤었고, 아예 그런 얼음 몰드를 사서 만들어야 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대충 얼린다면 차가움이라는 속성을 유지한다 라도, 장인 정신으로 사소한 얼음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아름다운 깨끗한 얼음을 얻을 수 있다.

라이팅챌린지 역시 사소하지만 벌써 중반부에 온 만큼 끝까지 해나간다면 이 글 조각들이 모여 우리에게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을까?

-정제되지 않은 산만한 생각들  
1.

얼음하니까 김운아의 '얼음 공주' 노래가 바로 연상됐다.

얼음 속에 공공 얼려버려  
공공 숨길려는 마음을 표현한  
내가 느끼기에 드라마 ost에 사용되어도 좋을  
그런 노래였다. 내가 멜로 드라마를 쓴다면 꼭

ost하고 싶어지는 그런 내 창작 Playlist 에 저장될 노래.

2.

얼음얼음얼음 헤이킵 하는 유투버도  
생각난다.  
주로 캐릭터만드는 쇼츠 유투버로  
'어쿠스틱 드링크' 라는 유투버!

3.

얼음의 속성 중 견고함이라는 니만의 인상을  
녹여내고 싶은데... 얼음 공예같은

-항상 라이팅챌린지 무슨 갈피로 쓸지  
고내하는데 오늘은 더 아이디어가 쏟아져서  
이정도만 공개하겠습니다..  
다 쓰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요

😊 11 💬 3

여주현(사회복지학과) 위스키 온더락에 쓰이는 얼음이 왜이리 맑고 예쁜거지 했는데 뜨거운 물을 얼린 것이었군요! 단지 끓인 물로 얼렸을 뿐인데 그렇게 예쁘게 얼다니..!

2025/05/20  
tuesday, pm 11:08 | 12:18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9일차  
얼음.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새로운 냉장고가 생겼다. 전에 쓰던 냉장고가 오래되어서 새 냉장고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새 냉장고의 냉동고에는 전에는 없던 얼음을 만드는 공간이 있었다.

물을 채우고 하루만 지나면 얼음이 만들어진다. 얼음 틀의 손잡이를 내리면 얼음이 투두투 떨어진다. 얼음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얼음을 만드는 일은 거의 내가 하게 되었다. 전복 만들어놓은 얼음을 컵에 넣는 순간도 좋다. 얼음과 컵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가 맑게 느껴진다.

어렸을 때 유독 좋아하던 영화가 겨울 왕국이었다. 초등학교 때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보러 가기도 하고 다운로드해서 집에서 컴퓨터로 하루 종일 봤었다. 겨울 왕국에 나오는 얼음이나 눈의 표현이 자주 보고 싶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눈이 오는 날이면 부끄럽지만 열사를 따라 했었던 기억도 난다.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차가운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얼음은 항상 예뻐 보여서 좋아했던 것 같다.

처음에 얼음 키워드를 보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떠올렸다. 하지만 얼음에 대한 나의 기억들을 떠올리니 그리 나쁜 것이 아닌 것 같다. 단단하게 굳어서 차가워 보일지라도 어떤 순간에는 예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얼음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얼음 같은 나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깨져버리는 것보다 얼음만의 가치를 생각하고 유연하게 물이 될 수도 얼음이 될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

😊 12 💬 4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얼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길 바라요!



2025/05/20  
tuesday, pm 11:17 | 10:11  
박자영 (경제학과)

#9일차 #얼음 #조각가

얼음 조각가는 안다.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자신의 피조물은 서서히 녹아 내릴 것을. 그럼에도 그는 얼음 앞에 선다. 마치 끝을 알고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사라질 것에 마음을 쏟는다. 누군가는 어리석다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안다. 영원한 사랑은 환상이며, 진짜 사랑은 '유한함'을 품고 있다는 걸.

거대한 얼음 덩어리 안에 스민 미세한 균열들. 갈라짐을 삼켜낸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아무리 문대도 걸리는 것 하나 없다. 투명한 속을 보이는 얼음덩어리. 그는 얼음 깊숙이 박힌 균열을 사랑한다. 그 균열은 살아왔음의 증거다. 재고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님을 그는 믿는다. 얼음은 냉기를 내뿜고 그는 온기를 나눈다. 냉기와 온기의 교차점에서, 굴곡이 지고 조각이 되어 간다.

조각가는 알고 있다. 이 창작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얼음을 다듬는 그 순간이 전부다. 이 예술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완성된다. 그가 얼음 위에 새기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투박한 사랑이다. 다듬고, 쓸어내고, 마침내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의 손끝은 조심스럽다. 작은 균열에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 하지만 조각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형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균열이 번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깎는다. 마치 사람을 사랑하는 일처럼. 어느 날 갑작스럽게 떠날 수 있고,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상처만 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일. 삶의 모든 과정은 사라질 것을 전제로 이루어짐을 그는 알고 있다. 그는 가장 무모하고, 가장 다정하게 사랑을 표현한다.

조각가의 손은 늘 차갑고, 마음은 뜨겁다.

그는 존재의 유한함을 알고도 창조를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이면 얼음이냐고. 돌이나 나무처럼 오래 남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닌, 금방 녹아 사라질 것을 왜 굳이 택하느냐고. 조각가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묵묵히 얼음을 다듬는다. 어쩌면 그 역시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믿는다. 사라질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고. 오직 유한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 끝의 슬픔을 알지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어쩌면 이토록 무모한 집착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가장 숭고한 본성일지도 모른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라질 운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만들고, 가꾸는 그 모든 일을 또한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랑은 결국, 잃을 것을 알고도 손을 내미는 일이다.

문득 조각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무너지기 직전의 조각상 앞에서 있는 그 모습은 어디선가 본 듯하다. 언젠가, 누군가도 이런 마음으로 인간을 빚지 않았을까. 이 불완전하고, 금세 녹아버리는 존재들을 향해 끝없는 온기를 쏟아 부으며, 어쩌면 신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흙으로 빚고, 숨을 불어넣고, 언젠가 다시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금세 식고 깨지고 흘러내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향해 끝도 없는 온기를 건네며, 우리가 사랑하고, 예술을 만들고, 누군가를 기억하는 모든 순간이 그 마음을 달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여전히 얼음 앞에 선다. 오늘도, 내일도 가장 아름다운 소멸을 함께할 것이다. 사랑이란, 창조란, 그리고 허무하고 그렇게 찬란한 것이다. 곧 어제의 조각은 녹아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피조물은 존재할 것이다. 그는 믿는다.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조각이라는 것을.

😊 12 💬 5

조은채(간호학과) 가위손에서 피그말리온까지 여러 인물이 떠오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디가 특히 인상적이었는지 꼽을 수도 없네요. 지영 님도 이 글을 조각하셨군요..



2025/05/20  
tuesday, pm 11:24 | 10:11  
유재하(미디어스쿨)

#9일차

키워드 : 얼음

'얼음'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얼어붙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냉동'이라는 단어와 함께, 예전에 '냉동 딸기'와 '냉동 인간'에 대하여 써둔 단편소설이 생각났다. 얼어붙은 마음. 아직 녹지 못한 어떤 마음들에게, 그들을 위한답시고 원하지 않는 칭찬을 함부로 일삼고 싶지는 않다. 대신 나란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말없이 기도하고 싶다. 나에게도 그런 고요한 친밀이 깰 수 있다면 좋겠다. 얼어붙은 어느 마음에게는 목숨이 가장 큰 위료가 되는 날도 있으니까.

아래는 내가 쓴 <디데이>라는 단편 소설의 일부이다.

딸기 씨는 자그마한 냉장고 문을 연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냉동식품들 사이에 커다란 팩 하나가 놓여있다. 반쯤 뜯겨 대중 묶어둔 냉동 딸기. 휴가를 내고 퇴근하던 날, 카페 사장이 재고 정리 겸 건네준 것이다. 단단히 언 딸기는 현지 모르게 더 뽀퍼져 보인다.

이 나간 그곳에 빨간 열매들을 익숙하게 떨어

담는다. 물기 없는 손으로 언 딸기 한 조각을 집어 조심스레 입 안에 넣는다. 차가운 딸기를 혀로 살살 굴린다. 껍질지 않아도 저절로 녹아 맛을 낼 때까지. 조금씩 체온이 올라가듯 상큼한 맛이 흘러나온다. 따뜻하거나 시원한 맛은 별로 와닿는 맛이 아니다. 냉동 딸기의 녹는 점. 그것이 바로 딸기 씨가 바라던 완벽한 타이밍이다. 조화로이 섞인 딸기즙을 맛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인다. 저 너머로 달이 고개를 내민다. 그 시선이 묘하게 거슬린다. 모서리 하나 없는 커다란 달. 그때, 다시 고개를 들어 바라본다. 무언가를 한데 뭉쳐놓은 듯 보인다. 생채기 난 누군가의 걸립처럼. 잘려 나간 모서리의 모임처럼. 붉어지는 딸기 씨의 얼굴. 강한 열기를 피할 틈도 없이, 무력하게 당하고 말던 열매들이 그랬듯이.

아직도 딸기 씨를 쥐고 있는, 그날의 기억. 그러나 그들은 벌써 잊었을 것이다. 순간만을 보는 이들니까. 하루살이와 다시 오지 못할 젊음. 청춘의 맛. 이 잿빛의 빗물처럼 짙고 텅텅한. 과연 딸기 씨가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 비교의 시작은 오늘의 패배감과 무력감을 불러낸, 과거의 외로워하던 당신이었든. 지켜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얼려버린 냉동인간들을. 질퍽한 과즙 같았던 유년 시절, 그 안의 잘 나쁜 기억들은 당신의 기억 어딘가에 공공 얼어두었는지 모른다.

😊 11 💬 1

김명빈 (미디어스쿨) 와, 이걸 정말... 얼음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까지 깊고 조용하게 마음을 흔들 수 있군요. '냉동 딸기'와 '냉동 인간' 사이, 아주 감각적이면서도 감정적인 연결이 인상 깊었습니다. 차가운 딸기를 천천히 녹이며 느끼는 '완벽한 타이밍'처럼, 이 글도 어느 날 차가운 마음에 천천히 달아와 따뜻해지는 그런 글이었어요



2025/05/20  
tuesday, pm 11:38 | 27위  
김명빈 (미디어스쿨)

내일 발표 1번 순서인데,  
피피티는 아직 0장.  
겨우 다 쓴 대본은... 1만 자.

마우스 잡은 손 얼었고,  
머릿속은 이미 냉동 창고.

그리고 그 순간—  
내 뇌 속에서 이정재 씨의 외침이 울려 퍼진다.

"얼음! 난 이 과제를 해봤어요!!!!"  
시간 내에 못 만들면 어차피 망해!!!

으아악, 제발—  
누가 시간 좀 얼음! 시켜줘.....

[https://youtu.be/u\\_ziPVJyO1o?si=NCH8rK8N1VXfCTE-](https://youtu.be/u_ziPVJyO1o?si=NCH8rK8N1VXfCTE-)



성기훈 -얼음  
www.youtube.com

#9일차

😊 17 💬 8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제가 아는 얼음중에 제일 유명한 얼음 같아요 \* \* \*



2025/05/20  
tuesday, pm 11:44 | 22위  
최현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9일차 #얼음

광광 굳어진 마음  
꽉 막힌 하수구처럼  
생각이 잘 빠지지 않고

고갱이 하나 넣어 북북  
나오는 등 마는 등  
아프기만 해

손을 뻗어 어루만지는 누군가  
부드러운 손길로  
따듯한 할 한 마디

그 말 한 마디에  
속절없이  
언제 막혔나는 듯

입안에 넣은 얼음  
따듯한 체온에 녹듯이  
스르륵  
녹아내린 마음

😊 15 💬 5

최서영(식품영양학과) 표현이 예쁘네요 옛날에 얼고 지내던 언니가 떠오릅니다



2025/05/20  
tuesday, pm 11:53 | 20위  
어주현 (심리학과)

#9일차 #얼음

얼음을 떠올리면 괜히 서글퍼진다. 내 소꿉친구는 얼음을 너무 좋아해서 여름만 되면 과자처럼 얼음을 오독오독 씹어 먹는다.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올 때면 항상 얼음통에

있던 얼음을 전부 먹어치우고 떠났다. 과장 하나 없이, 초등학교 때 매일 붙어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친구의 얼음 먹는 습관이 나에게도 옮겨졌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여름만 되면 과자처럼 얼음을 오독오독 씹어 먹곤 했다. 근데 이제는 무더운 여름에도 예전처럼 얼음을 자주 찾지 않는다. 소꿉친구와 멀어져서 습관도 희미해진 걸까? 사실 아니다. 소꿉친구랑은 아직 잘 지낸다. ^\_^ 근데 이제 얼음 같이 차갑고 딱딱한 걸 씹으면 어금니가 시린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했다. 아직 20살인 나는 벌써 오복 중 두 개를 잃어버렸다. 치아와 시력... 얼음만 떠올리면 서글퍼지는 이유다.

😊 13 💬 3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시력...저도 눈이 예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그만 잃고 말았습니다. 주원님 글 보면서 눈을 어금고 갑니다ㅠㅠ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1  
wednesday, am 12:17 | 27위  
김명빈

오늘의 글쓰기 마감합니다. 유난히 덥고 습해 찬 음료수와 얼음이 그리운 하루였습니다. 때로는 얼음처럼 단단해지고 싶은 순간이 있었고, 때로는 얼음을 녹이며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죠. 얼음명 놀이, 얼음을 소재로 한 노래, 얼음같은-이라는 수식을 쓸만한 상황과 관계들, 얼음'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네요. 얼음은 반드시 녹는 법. 오늘의 글을 통해 여러분 자신 안의 얼음 조각들이 서서히 녹기 바랍니다.

😊 14 💬 0



2025/05/21  
wednesday, am 8:11 | 2918  
김영선

#10일차 키워드 : 신맛 / 시다  
어제 여름에도, 겨울에도 먹는 얼음에 이어  
이 즈음 생각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신맛', 혹은  
'시다'입니다.  
입 안을 가득 채우는 강렬한 첫맛, 눈살이  
질로 찌푸러지는 감각.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어떤 '신맛'을 느껴보셨나요?  
그것은 실제 레몬 한 조각일 수도 있고, 살짝  
당황스러운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신맛은 때때로 놀랍고, 때로는 상쾌하며,  
어떤 기억은 오래도록 그 시큼함을 남기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시다'는 어떤 경험을  
떠올리게 하나요? 맛의 언어를 빌려  
써볼까요?

😊 17 💬 0



2025/05/21  
wednesday, am 8:59 | 2918  
김미도(일본학과)

#10일차  
# ,  
어제 밤에 친구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너는 나를 보면, 뭐가 떠올라?"  
문득, 내가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한참  
고민하더니  
"나무."  
라고 했다. 왜 나무일까 물어보자  
"너는 남들이 이런 저런 조언을 해도 묵묵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잖아. 다른 가지가  
 많아도 너의 굽은 가지를 꼭 밀고 가서  
나중에는 엄청 성장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특 단진 귀찮은 내 질문에 성심껏 대답해준  
친구에게 감동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번에 나에게 질문했다.  
"그럼 너는? 나 보면 뭐가 떠올라?"  
"아.....너는....."  
나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레몬." 이라고 답했다.  
"엥? 왜 레몬이야?"  
"너는...신맛이나~"  
내 말에 친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너는 나한테 그런 이미지야~"  
"저기요? 아니 나는 열심히 생각했는데..."  
나는 그 친구를 보면 레몬이 생각난다.  
겉보기에는 상큼하고 밝고, 달콤해보이지만,  
그 안은 생각보다 툭 쓰고, 때론 너무  
솔직해서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가끔은  
"굳이 지금 그 말 해야 돼?" 싶을 만큼  
직설적인데, 지나고 보면 울을 때가 많다.  
뭘일까... 느끼한 음식 속에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산미일까.  
"괜찮아. 잘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곤 사람들  
속에서  
"그거 네가 하고 싶은 일 맞아?" 하고 물어봐  
주는 사람.  
처음엔 시고 당황스러워도, 알고 보면 그게  
나를 빙글 돌게 지켜주는 유기산 같은 거다.  
나는 그런 내 친구가 좋다.  
"됐어...예휴... 오늘 날씨 진짜 습하다..."  
"근데 내가 나무 같다고? 왜지..."  
"아까 얘기해줬잖아! 그럼 너는 왜 내가  
신맛이 난다는건데?"  
"아니아니..."  
그 말에 둘 다 웃음이 터졌다.  
실다 보면 단맛보다 신맛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다.  
특히, 그게 사람일 때는 더더욱.

😊 16 💬 3

정서진 (연문방송음향20) 알투가 현실적이라서  
웃음이 나는 글이네요. 대화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느낌입니다.



2025/05/21  
wednesday, am 10:02 | 2918  
유재원(일본학과)

#10일차  
우리 가족은 중식집에 가면 단무지에 식초를  
왕창 뿌려 먹는다. 이게 초절임인가 싶을  
정도로 단무지가 식초에 잠기게 하여, 노란  
머리를 못 내밀게끔 한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단무지에 식초를 뿌려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래서 중학생 때 친구들이 단무지에  
'식초를 뿌리나, 안 뿌리나.'로 파가 나누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 심지어 우리집은 춘장에  
찍어 먹으라고 나온 양파에도 식초를 뿌리고,  
파사이에다 식초를 뿌린다. 중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냉면을 먹을 때도, 팔 찍어 먹는  
용으로 간장 양념 만들 때도, 식초를  
들이뭇다시피 한다.

나는 신맛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집에서는 반찬을 만들 때 식초를 좀 덜  
넣고, 먹을 때마다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뿌려 먹는다. 아예 반찬 버전을 2가지  
버전으로 만들 때도 있다.

식초 애호가들 사이에서 나는 오늘도 버틴다.  
언젠가 나도 인상 찌푸리며 먹는 신맛에 빠질  
날이 올까?

😊 16 💬 12

김미도(일본학과) 단무지에 식초를 뿌리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궁금해지네요. 한 번  
그렇게 먹어봐주세요 ㅋㅋㅋ 오늘도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2:18 | 2918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10일차  
신맛  
나에게 신맛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렇다고 꼭 친한 건 아니다  
좋아한다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

나는 신 걸 잘 먹지도 않고, 막 즐기지도  
않는다  
그런데 또 아주 살짝 적당히 신 건 또  
좋아한다  
입안 가득 새콤한 마이썸, 특히 아이서처럼  
같은 달콤하지만 속에 숨어 있는 신맛이  
기분 전환에 딱 좋았다  
또 연지 모르게 중독성이 있다

그 강한 맛이 입 안을 툭 쓰고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면서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  
살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싶을 때가 종종 있다  
살면서 멍하고 무기력할 때  
그 자극 하나로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 든다

신맛은 그런 존재다  
가끔은 나를 흔들어주는 작은 충격.  
매일은 부담스럽지만 필요할 땐 확실한 자극.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아주 가끔씩 신맛을  
찾는다

😊 18 💬 3

임혜빈 (사회복지학전공) 막 저 끝내요! 저도  
신맛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가끔씩 그  
맛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소한 자극들이  
허무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2:25 | 22일  
권혁번(경제학과)

## #10일차

먹다 보면 익숙해져.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 가지 루틴이 생겼다.  
바로 물에 레몬즙 타먹기. 엄마가 레몬즙 한  
상자를 받아와 '매일 하나씩 타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다. 처음엔 인상이 써지는 상큼함에  
이걸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느새  
3달 가까이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다. 역시  
처음이 힘들지 적응은 금방인가 보다.

맛만 상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봤다.  
원래 내 피부는 예민하다. 장을 조금만 못  
자거나 피곤함이 느껴진다 싶으면 귀신같이  
아침에 일어나 본 얼굴에 트러블이 나 있었다.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마시다 보니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것이 눈에도 보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플라시보 효과일지도  
모르지만 전보다 확실히 몸에 활력이 도는  
느낌이다. 그리고 자주 가졌던 부정적  
생각이나 우울감도 한결 나아졌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크게  
다가왔다.

처음보다 혀에 느껴지는 상큼함은 다소  
둔해졌지만, 매일 살아가는 하루의 상큼함은  
그 이상으로 커졌다. 내가 마시는 한 잔으로  
모든 문제와 걱정이 해소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얻은 상큼함으로 그 문제들에  
대해 약간이나마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 18 💬 9

정서진 (연론방송융합20) 저도 레몬물을 꾸준히  
마시는 중인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속에 먹으면 팩스바리를 외치는 본인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으니 식사는 꼭 챙겨주세요!



2025/05/21

Wednesday, pm 12:53 | 23일  
정우현(철학과)

## #10일차

저는 신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이서를  
잘 먹으면 우대에 주던 초등학생 때에는  
아이서를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 것을  
잘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우대를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이후부터는 신  
것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신맛 특유의  
쓴맛이 제 온몸을 파괴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신맛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선생님들께 지적을 받거나 혼나면  
신맛이 나더라고요. 산성 특유의 신맛과는  
다른 아찔함이었습니다. 혼나는 것도 점점  
무더지고 언어에 레몬을 뿌려먹듯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가끔씩 정말 신 것을  
먹을 때의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때와 신 것을 먹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요. 두려울 때는 신 것을 먹기  
전에 상상하는 것처럼 굉장히 떨립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가시고 나선 반성과  
성찰이 오더라고요.

어쩌면 신맛이 끝날 때 오는 상쾌함이  
두려움이 끝날 때 오는 반성과 같다고  
느껴집니다. 반성이 어렸을 때는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요즘엔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신맛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싸움 같습니다. 신 것을 먹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뒤에 올 상쾌함을 포기할  
것인지? 상쾌함을 얻기 위해 두려움도 이겨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적당한 신맛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듯이 말이죠.

😊 16 💬 5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인생의 신맛을 어떻게

대할지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상쾌함을 얻기 위해 기꺼이 신맛을 삼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2:57 | 23일  
정서진 (연론방송융합20)

## #10일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망은 시름새롭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어요. 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잠이 덜 깬 채로 어제 골라냈던 옷을 입은  
다음, 가방을 들쳐메고 운동화를 쥘어 신은 채  
밖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날, 그 날에는 비가 부슬부슬  
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고 싶어 일부러 조금  
서둘러 나갔는데 마침 앉고 싶었던 자리가  
비어있었어요. 그런데 핸들, 테이블과 벽의  
간격이 꽤 비좁아서 앉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알자리에 앉아있던 당신은 나의 곤란을  
눈치채고 의자를 앞으로 조금 당겨주셨죠. 그  
순간 보인 옆 얼굴이 참 허하고 예했습니다.  
콧잔등에 난 작은 점, 감사하다는 내 말에  
조그맣게 웃어보이며 끄덕이는 고갯짓. 아마  
나는 그 순간 당신에게 반했을 겁니다. 그걸  
조금 늦게 알아챘을 뿐이에요.

그 날 이후로 판서를 보기 위해 고개를 들면,  
자연스레 당신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수업 내용에  
끄덕이는 정수리 위 슬쩍 떠있는 머리칼이 그  
날 내렸던 비처럼 부슬거렸습니다. 타이핑을  
치는 손가락이 앉아있는 당신의 자세처럼  
길고 반듯했습니다. 나는 수업에 집중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자꾸 당신의 한 줄 머리칼이 자꾸

떠올라 진하게 탄 레몬 물을 단숨에 들이켠 듯  
가슴헐개였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처럼 나는  
속절없이 당신만을 떠올렸습니다. 가끔 내가  
먼저 도착하면 온 좋게 볼 수 있었던 얼굴이,  
강의가 끝나고 적당한 속도로 걸어가던  
발걸음이, 때 순간마다 건조하게 내려가  
있었던 입꼬리가, 가끔은 평소보다 처져 있는  
어깨가. 속수무책으로 내 머릿속에  
밀려들어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에,  
이미 어떤 종류의 감정이 진작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아주 가끔 들을 수 있었던 당신의  
목소리가 더없이 달콤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 평탄한 음성이 편안했습니다.  
그 음성이 한 순간이라도 나를 위한 것이면  
 좋겠다는 소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나에 대해 별 생각이 없을  
 테니까요. 확실한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이 관계를 '우리'라고  
 칭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로 엮을 관계가  
 아니라서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젠 더이상 마주할  
일이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먼저 문 밖을 나서는 당신을 붙잡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몸 어딘가가 울렁였습니다. 가슴께인지,  
목구멍 어딘가의 깊은 곳인지. 아마 마음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끝내 당신과 나를  
'우리'로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목과 가슴 부근의 어딘가가  
 미처 달아지지 못한 딸기를 삼킨 듯  
 따끔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로만 들어왔던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나 시름새콤한 것이었습니다.

#소설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서진님의 글 속에서 그 분에 대한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네요. 누군가를 남몰래 좋아한다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시러울 때가 많죠. 서진님의 신맛 나는 소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2:57 | 22000  
최현영(금융재무학과)

#10일차#신맛

어릴 때는 신맛 나는 젤리를 참 좋아했다. 놀이동산에 가면, 젤리 상점을 꼭 둘러 일명 "박명수젤리"라고 불리는 빨간색 길다란 모양의 젤리를 한웅큼 담아 왔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만끽하며 먹는 박명수젤리는 시면서도 달고 그 특유의 쫄깃쫄깃함에 멈추지 않고 들어갔다. 그래서 마트에서 그 젤리를 우연히 보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진다. 신맛은 단맛보다도 존재감이 강한 것 같다. 신 것을 먹으면 온몸을 순간적으로 찌릿하게 만들고 정신이 번쩍 든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어떤 맛보다도 신 맛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눈에 띄는 대체불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서예반(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저는 턱이 빠질 것 같은 정도의 쫄깃쫄깃한 식감을 좋아해서 젤리도 항상 질긴 것만 찾아서 먹는데 박명수 젤리 꼭 먹어봐야겠어요!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38 | 19000  
김예지(사회복지학과)

#10일차 -신맛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신맛이라는 건 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예전에는 그냥 레몬이나 귤처럼 입안이 움찔하는 맛이었지만, 지금은 상한 반찬에서 나는 시름한 냄새가 먼저 떠오른다. 특히 할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에서 그런 냄새, 맛이 날 때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할머니는 오실때 마다 정성스럽게 반찬을 챙겨 보내주신다.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 예전처럼 음식이 빨리 좋지 않는다. 예전엔 할머니와 나, 둘이서 함께 먹으니 반찬도 금세 바닥났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로 인해 할머니와 멀어져 혼자고, 입맛이 없어 건너뛰는 날도 있다 보니 음식이 쉽게 남는다.

며칠이 지나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그 신맛은 단순히 상한 냄새를 넘어서 마음을 찡하게 만든다. 그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그대로 버려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멀리서도 나를 챙기려고 그렇게 준비해주시는데, 나는 다 비우지 못 하고 신맛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괜히 죄송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요즘은 보내주신 음식을 최대한 빨리, 남기지 않도록 챙겨 먹으려 한다. 단순히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다.



임혜빈 (사회복지학전공) 저도 할머니 손에 커서

그런지, 이 글을 읽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21  
wednesday, pm 2:26 | 18000  
이주현(사회복지학과)

#10일차

더울 땀 어제 키워드인 얼음과 같이 신맛이 나는 것도 많이 먹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서 먹기보다는 더위에 지쳐가는 내 정신을 붙잡아 주기 위해 먹는 것 같습니다. 신맛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온 몸이 짜릿짜릿해지면서 저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9시 40분부터 전공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쉽게 알 수 없는 좋은 정보도 알고, 좋은 기념품 같은 것들도 많이 얻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너무 더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전공박람회장에 사람도 많고 해서 더 후끈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박람회 도장판 모서리에 커피 쿠폰이 있어 다 돌아다니 후 밖에서 쿠폰으로 음료를 사먹었습니다. 마침 오늘 키워드도 신맛인데 고를 수 있는 음료 중에 레몬 에이드도 있길래 "올커니!" 하며 레몬에이드를 골랐습니다. 에이드에 들어있는 사이다는 인위적인 소다맛이 너무 많이 나서 별로였지만 레몬향이 주는 시면서도 달콤한 맛이 더위 속에 지쳐있는 저를 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워짐에 따라 저는 어제 키워드인 얼음과 오늘의 키워드인 신맛이 공존하는 음료를 더욱이 찾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을 다 썼으니 저는 이만 신맛이 나는 유산균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김미도(일본학과) 저도 아침에 전공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음료 쿠폰이 있다는걸

깜빡하고 저는 그 종이를 버려버렸네요ㅠㅠ 상큼한 레몬 에이드처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25/05/21  
wednesday, pm 2:28 | 18000  
윤소정(사회학과)

#10일차 #신맛

<내 인생의 신맛>  
'신맛'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레몬이다. 어릴 적 TV예능프로그램을 보면 별식으로 레몬먹기가 심심찮게 등장했다. 출연자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레몬을 먹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시킬래 저런 표정을 짓지?'하고 레몬의 맛이 어떤지 궁금해졌다. 동생과 함께 근처 마트로 가서 레몬을 2개씩 소분해서 파는 걸 구입했다. 엄마캐션 많이 실 거라고 말리셨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그토록 궁금했던 레몬의 맛을 본 동생과 나는 예능출연자들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이때 먹은 레몬이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처음 맛 본 진짜 신맛일 것이다.

내 인생에서 신맛은 도전과 비슷하다. 안 먹어 본 음식을 먹어보는 일, 내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들어보는 일, 선뜻나서지 못해서 포기했던 일을 해보는 등 나의 도전은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해외여행을 가서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었는데 맛있는 경우도 있지만 입맛과 정말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나의 전공은 사회학이지만 예술분야의 교양강의를 들어보고 환경공학과 관련된 강의도 들어보며 전공강의와 다른 강의진행방식과 설명 방식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신선하고 재밌게 느껴졌다. 요즘 말하는 도파민 폭발의 순간이었던 것도 같다. 또, 라이팅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처럼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기 꺼려했던 글쓰기와 같은 일에 도전하고 있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들기도, 회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서 눈을 질끈 감고 도전하는 것이 많지 않아 싫 것을 알면서도 맛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레몬을 직접 먹어봤던 순간과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내 인생의 신맛은 도전인 것 같다.

😊 14 💬 5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모든지 처음 경험하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 호기심 비슷한 도전정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신맛의 연속 같기도 하네요 ✨  
**채은비(생명과학과)** 처음 가보는 그 길에서는 레몬의 신맛과 상큼함을 발견하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기에 그 새콤한 맛을 응원해요

**2025/05/21**  
wednesday, pm 4:19 | 2025년  
김서희(식품영양학과)

#10일차 시다

오늘 키워드 역시 글을 적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평소 '시다', '신맛'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세 자매 중 둘째다. 그동안 자라오면서 언니와 동생은 달은 점이 많은데 나 혼자 달은 점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면 언니와 동생은 엄마를 달았고 피부가 하얗다. 또 동생의 성장이 거의 끝나며 알게된 사실인데 언니와 동생은 키가 160cm 후반이지만, 나만 164cm다. 그리고 나는 아빠를 달았고 피부가 어두운 편이다.

또 언니와 동생은 신 음식을 잘 먹는다. 초등학교 때 언니가 가장 좋아하던 군것질거리가 아이서일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신 음식을 먹으면 바로 얼굴이 구겨지고 침이 고인다. 이런 점들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나만 다른 것 같아 소외감도 들고 서운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오히려 유일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의 다른 점들이 좋아졌다. 또 언니, 동생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입맛이 비슷한 것을 알게됐고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됐다.

신 음식은 어릴적 나에게겐 다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추억의 상징이 됐다. '길'에 대한 글을 적으며 느꼈지만 어릴 적 나와 지금의 내가 많이 달라졌음을 다시 느끼게 된다.

😊 12 💬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지금의 나를 보면 어릴 때 나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낄 때면 신기하게 느껴질 때도 있네요 ✨

우리끼리, Band!

**2025/05/21**  
wednesday, pm 4:56 | 2025년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10일차

“되게 신 거 잘 드시게 생겼어요” 내가 살면서 들은 말 중 가장 황당하면서도 귀여운 말이다. 마음을 열어서 보지 않는 이상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지는 모르기에 해석할 수 없었지만 왠지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끔 이 문장을 떠올리면 제 3자가 보는 내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어 신기한 기분이 든다.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신맛을 느끼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표정이 일그러진다. 이러한 신맛의 특징에서 사람의 마음과 이어져있는 무언의 연결고리를 발견해냈다. 나의 심장이고 나의 마음이며 나의 생각이지만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것 하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1분 전까지 잊으리라 결심했어도 30초 뒤에 혼란이 찾아오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레몬즙을 먹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신맛이 혀에 닿는 순간 반사적으로 나오는 일그러뜨림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꼭 차오르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버틸 수 없을 정도로 터져버린 감정을 차분히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맛 중 평정심의 유지를 완벽하게 깨뜨리는 맛인 신맛은, 전부였던 누군가를 그저 외면해야만 할 때 인간이 겪는 감정의 한계를 대변하는 듯하다.

겨우 맛 주제에, 이리도 가슴을 후벼파는구나.



😊 13 💬 5

**김미도(일본학과)** 맛있어요. 신맛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 감정에 솔직해지는게 쉽지 않는 것도 맞죠...

**2025/05/21**  
wednesday, pm 5:56 | 2025년  
임예빈(사회복지학전공)

#10일차

신맛, 시다

“살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미국의 속담으로, 시련에 좌절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뜻을 담고 있다.

내 인생에도 아주 신 레몬이 있었다. 사실 나는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우리나라의 압박적인 입시 제도가 나를 옥죄었고, 끝내 버티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자, 이전 글에서 자주 언급한 '어두운 시기'였다.

자퇴 후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지내다 보니 금세 우울해졌고, 이를 극복하고자 조금씩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책을 쌓아놓고 마음껏 읽거나, 내 인생에 대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곤 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다시금 밖으로 나갈 용기가 생긴 것이다. 조금씩 더 자주 세상을 밟으며 자신감을 키웠고, 여행을 떠나거나 인생 첫 아르바이트에 도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자퇴를 한 덕분에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천천히 검정고시를 준비해 만족스러운 점수로 합격했고, 현립대학교에 입학하며 지금의 '임해빈'이 만들어졌다. 자퇴생으로서의 2년이 현재의 나를 확립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줬다.

인생은 나에게 신 레몬을 줬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레몬보다 더 신 시련이 나를 덮치겠지만, 이미 나는 한 번 이겨내 본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시련이 오든, 나는 다시금 나만의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이다.

😊 13    💬 5

**윤소정(사회학과)** 해빈님이 살아오신 인생을 레몬과 관련된 속담에 빗대신 게 인상적이에요~ 글을 작성해 인터넷을 올렸던 것이 인생에 변화를 가져왔듯, 라이팅챌린지가 해빈님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2025/05/21  
Wednesday, pm 7:30 | 10:10  
재은비(생명과학과)

#10일차

#신맛

우리가 아직 서로를 잘 몰랐을 때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였을까.

질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꽤 즐거웠던 것 같네.

약간은 달콤하고, 침 고이게 하는 새콤한

신맛. 풋풋한 청사과 같은 우정.

널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직 머물지 않은 어리숙한 애들이라 그랬을까. 함께 있으면 즐거우면서도 약간의

어긋남, 상처, 실망 같은 것들이 뱃속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샌가 그 맛에 속이

쓰러오기 시작했어. 그 아릿한 신맛에 인상을

쓰게 됐어.

나도 물론 네게 상처 준 적이 없진 않았지.

하지만 왜 나만 더 이상 그때처럼 너를 대할 수 없는 걸까.

너는 아직도 나에게 내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해. 내 친구들 중 너를 가장 각별히

생각한다고.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나랑 친구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왜 나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걸까.

너는 가끔 그러더라. 스스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픔이 쌓이면, 내게도 그 아픔을

느껴보라는 듯이 나를 찢어. 그러고는 내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내 탓을 하지.

나는 그러고도 네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에게는 이 신맛 도는, 새콤했던 우정이

소중했거든. 친애하는 내 친구야. 그러다가

너보다 먼저 시어져 버린 걸까.

별강게 익지 못하고 물러 터져 쉬어 버린.

😊 10    💬 2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친구 관계에 있어 민감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참 친구 사이에는 서로의

감정을 잘 알 것 같지만 가깝기에 더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5/05/21  
Wednesday, pm 7:39 | 20:10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10일차

나는 '신맛'을 좋아한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신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1. 레몬에이드

여태 먹어본 레몬에이드 중에서는 프랭크

커피바탕 투썸이 제일 맛있었다. 둘의

공통점이라면 덜 달고 시다는 점이다. 프랭크

커피바탕의 위에 레몬 셔벗을 올려주는데 그게

요미다. 생레몬에이드 느낌이다. 투썸은

탄산이 강해서 좋다. 둘다 맛있지만 내

기준에거른 프랭크 커피바탕 >> 투썸이다.

2. 새콤달콤

새콤달콤이 마이썸보다 서서 나는 마이썸을

안 먹고 새콤달콤을 먹는다. 그 중에서도

레몬맛과 키위맛을 좋아한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레모나맛 마이썸 아이서썸은

맛이 없으니 구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3. 젤리

나는 젤리는 무조건 신맛 나는 젤리만 먹는다.

달달함보다 신맛이 강해야 한다. 농심

츄파춥스 사워게코, 트롤리 젤리 사우워 구미

캔디가 제일 맛있다. 때때로 편의점에서

츄파춥스를 1+1, 이마트에서 트롤리 완전 왕

시기만 하고 맛이 없어서 별로다.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꼭 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_^

😊 12    💬 5



2025/05/21  
Wednesday, pm 7:43 | 17:10  
윤나경(국어국문학과 23)

#10일차 #신맛

재밌는 얼굴

레몬을 먹을 때면 얼굴은 자동으로 항상

찌푸려진다. 눈썹이 가까워지고 코가

칭그리지며 입술은 모아진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표정은 신 맛을 느낄 때만 나오는

독특한 표정이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말

그대로 '짜릿'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남들은

그 표정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박장대소한다. 테이블을 치며 웃는 친구.

웃다 웃해 울고 있는 친구. 괜스레

걱정해주는 친구까지. 감정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순간. 가면 속 진짜 얼굴을 꺼내어

마주 볼 수 있다. 모두가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그 순간만큼은 즐겁다라는 표현에

부족함이 없다.

기억 속의 맛

신맛, 즉 시다라는 맛은 음식 속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그러나 신맛이 유독 두드러진

음식을 먹을 때면 침이 고일 때가 있다. 매운

맛이 가득 든 음식을 먹을 땐 씹 — 하는

소리가 들리고 탄 맛이 가득 담긴 음식을 먹을

땐 바삭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신 맛을 느낄

편 입안 가득 침이 고인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선 자주 볼 수 있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다. 그러나 맛을 느끼지 않아도 침이 고일 때가 있다. 바로 음식을 먹기전. 예를 들어 고기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빨리 먹고 싶어 뒤척거리며 간 시간을 기다리는 그 몇 분 말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와 고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체감 상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순간 중 하나 아닐까. 오히려 이는 맛이기때 더욱 그리 느껴지는 것 같다. 익숙한 맛이기때 신맛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요거트, 타르트 같은 중독성 강한 디저트 말이다.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는가. 기억 속의 맛이란 강렬하고도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디저트 같다.

😊 12 💬 3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신맛은 먹기 전부터 입에 침이 많이 고이는 것 같아요! 혼자만 튀는 맛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이기에 더욱 침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2025/05/21**  
wednesday, pm 8:12 | 19118  
장근희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0일차

'첫 키스는 레몬 맛'이라는 구절이 난 특이했다. 왜 하필 레몬 맛이였을까? 키스라는 행위는 무적이니 달달할 것만 같은데 어째서 시큼새콤한 레몬이었을까? 난 여전히 문학 작품들에 첫 키스는 레몬 맛, 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참 귀여우면서도 묘한 감정을 느낀다. 어느 영화에서는 레몬맛 탄산수를 마시다 무심코 해버린 키스에, 어느 만화에서는 첫 키스를 기대하며 항상 레몬을 먹고 있는 주인공. 귀엽기 그지 없다. 사랑이란 막상 겪어보면 달달하지만은 않다는 걸 시큼한 레몬에 빗대어 표현한 게 아닐까 싶다.

사랑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그렇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예상치 못한 신맛을 내는 경험들. 달콤한 기대를 품고 물었는데 새콤한 맛이 퍼질 때의 그 놀라움. 하지만 신맛에도 분명 매력이 있다. 감각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며, 생기를 불어넣는 그 특별한 자극. 단 맛만 먹으면 금세 질리듯, 지루하지 않게 인생에 특별한 맛을 첨가해주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나이가 들수록 신맛에 대한 취향이 생긴다고들 한다. 어린 아이였을 적에는 달콤함만을 찾지만, 어른들은 레몬에이드의 상큼함, 요구르트의 새콤함, 와인의 신맛까지도 음미할 줄 안다. 인생의 모든 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증거일지도 모른다.

😊 13 💬 4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사랑이 마냥 달콤하지만은 없기에 신맛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 감각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신맛의 힘이 새삼 위대해요

**2025/05/21**  
wednesday, pm 8:22 | 18118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10일차 '신맛'

예전에는 신 음식을 좋아했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때 아이서라는 간식이 있는데 신맛이라서 친구들이랑 누가누가 더 잘 먹나 대결을 했던 적도 있다 그때는 신맛이 나는 음식들을 잘 먹어서 일종의 자부심으로 여겼었다 그래서 항상 레모네이드, 아이서 등 신맛이 나는 음식들을 자주 먹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신맛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왜 그런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 신맛은 새롭고 짜릿한 느낌이라서 좋았다면 점점 성숙해지면서 입맛도 변하고 이제는 예전처럼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굳이 왜 먹지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 것 같다 점점 성장하면서 마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혀도 함께 성장하는 것 같다

😊 13 💬 4

김명빈 (미디어스쿨) 나이들면 입맛이 바뀐다고들 하죠,,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

**2025/05/21**  
wednesday, pm 8:40 | 21118  
조은재(간호학과)

#10일차 #신맛

언젠가부터 나에게서 묘한 신맛이 나기 시작했다. 아니 실은 분명하다. 발효식품도 아니니 어딘가 상한 게 분명하다. 유통기한을 확인해 본다. 몇십 년은 남았다. 왜 상했지? 기분도, 자존심도, 상했다고 티를 내며 곰팡이를 피웠다. 점점 더 눈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게 되고, 머릿속이 시름한 향으로 어지럽다. 불쾌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쓴맛은 참을 수 있다. 매운맛도 참을 수 있다. 느글거리는 맛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신맛은 참을 수 없다. 신맛은 부패의 시발점이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신맛에 황급히 단것을 찾는다. 점차 단맛이 신맛을 덮는다. 잠시나마 살 것 같다. 그러나 단맛의 역치가 높아진다. 더 이상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주변의 단내 나는 농들을 보면 배앓이 풀린다.

분명 자신들도 시다고 하지 않았던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모든 것들이 적으로 보인다. 모두가 내게서 신 냄새가 난다고 욕하고 있다! 나를 배척하고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그리하여 입에서 뱉죽한 포크를 내뿜는다. 달콤한 과육을 가진 자들은 내가 벌은 창에 찢려 달콤한 피를 흘린다. 흘린 피에서도 항상 단내가 난다. 허울뿐인 승리다. 감히 나 같은 게 단맛을 탐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온다. 이마저도 푹 쏘는 맛이다. 왜 내가 일일한 걸까.

얼마 시간이 지나자 다시 신맛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신맛은 내가 이리저리 원인을 파악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사실 상관없다. 어차피 알아도 극복할 수 없다. 그냥 이대로 죽어가는 수밖에. 눈을 날 정도로 신맛이 강해진다. 단맛 때문에 이가 썩는 줄 알았는데, 과하게 높아진 산도가 나를 부식시키고 있다. 내 입안부터 서서히, 내장과 뼈를 향해 더 깊은 안쪽으로. 상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버릴 수밖에 없다.

전부 씹기 전에 차라리 도려내는 쪽이 덜 아플지도 모른다. 아직 조금 남았을까.

😊 14 💬 2

윤소정(사회학과) 맛이라는 건 단순 미각이 아니라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2025/05/21**  
wednesday, pm 9:11 | 23118  
박지영 (경제학과)

#10일차 #신맛 #어른

나는 맛에 둔감한 편이다. 얼마나 둔감하다면, 음식을 쓰레기만 빼고 다 잘

먹는다는 말을 엄마에게 들을 정도다.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는 즐기지만, 맛집을 찾아가거나 요리에 정성을 들이는 데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맛에서 오는 즐거움도, 불편함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들이는 노력은 나에게 수고로움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듯한 미각도 때로는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곤 하니깐.

맛은 일반적으로 일곱 가지로 분류된다고 한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매운맛, 짠맛. 이 중 매운맛은 통각, 짠맛은 촉각으로 분류되지만, 음식의 맛을 설명할 때는 다른 맛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용되니 그냥 넘어가자.

이 일곱 가지 중, 내가 유일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바로 '신맛'이다. 나는 단무지나 학교처럼 연한 신맛은 즐길 수 있지만, 레모네이드나 레몬 사탕 같은 강한 신맛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다. 신맛이 입안에 퍼지면 온몸의 피부가 동시에 오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 뺨 아래 근육이 저릿하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며, 얼굴이 일그러진다. 가끔은 속이 메스꺼워질 때도 있다. 나는 신맛이 '싫은' 게 아니라, 몸이 먼저 '거부'한다. 본능적인 반응이다. 그게 내가 신맛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각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감각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 든다. 그 이유는 내가 '쓴맛'을 받아들인 경험 때문이다.

나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못했다. 누군가 음료를 사준다고 하면 미안한 마음에 제일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시키곤 했지만, 막상 입에 대면 10분 동안 삼키지 못했다. 어른이 되면 아메리카노 맛을 알게 될 거라는 말을 믿은 적 없었는데, 대학에 들어와 밤샘 과제와 공부를 하다 보니 아메리카노만큼 효과 좋은 음료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쓴맛의 어려움보다 그것이 주는 이익이 컸기에 마시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루 이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그 맛을 알게 되었다. 가게마다 커피 맛이 다르다는 말도, 커피가 향과 맛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말도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쓴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커피의 쓴맛을 알게 되는 것을 '어른이 되는 것'이라 종종 말한다. 그러나 신맛을 알게 되는 건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유독 어린아이들이 신맛을 잘 견디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어른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내게는 오히려 신맛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감당할 수 없던 것들을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일이니깐. 나는 신맛을 견뎌내는 방식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신맛은 나에게 어려운 감각이다. 사람들은 신맛을 '상큼하다'고 표현하지만, 내게 신맛은 언제나 경계의 신호다.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자극 앞에서 나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배워가야 한다고 느낀다. 언젠가 신맛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있을 것이다.

😊 16 💬 5

김예진(생명과학과) 저도 학우님처럼 아메리카노를 처음 접했을 때는 너무 써서 이걸 내가 마실까 싶었는데, 지금은 공부하고 잠 올때 아메리카노만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접해보아 그것의 진가를 알게되는 것 같습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0:16 | 18:00  
유재하(미디어스쿨)

#10일차  
키워드 : 신맛 / 시다

[식초같은 예증 -사랑의 시큼한 맛]  
나의 사랑에서는 신맛이 난다. 처음 맛을 볼 때 특유의 시고 톡 쏘는 맛이 미간을 찌푸리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큼한 맛이 다시 생각이 나 또다시 신맛을 맛본다. 입안이 아리다. 그러나 이상하게 잊히지 않는 맛이다. 나는 상처 받을 것을 짐작하면서도 마음을 기우고 한다.

[관계의 신맛 -신맛이 나는 대화]  
d는 말을 정말 시게 했다. 말을 세게 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d가 내뱉는 말들에서는 늘 신맛이 났다. 그 맛이 신맛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 나는 d에게 어울리는 맛을 찾으려 애썼다. 나는 d가 잠깐 말문을 닫는 순간마다, 머릿속으로 긴 문장들을 데려와 그 맛은 과연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 설명하곤 했다.

d의 말에서 나는 이상한 맛. 시큼하면서도 어디서부터가 깊숙히 아려오는 그 묘한 기분을 대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느날 나는 그 맛을 '신맛'이라고 느꼈다. 그날부터 나는 d의 말들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나는 d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덜 미워하려 애썼을 뿐이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d와 계속해서 만나야 했으니깐.

d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큼하고 튀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말끝을 톡 건드리면 d의 입에서 꼭 레몬즙같이 신

단어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d와 대화를 하다보면 마음 어딘가가 얼얼해졌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다. d의 낱말 같은 신 단어들이 무슨 맛인지 알고 싶어지는 순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톡 하고 던진 말들에 내가 톡 하고 받게 될 상처보다도 궁금함이 먼저였던 관계였다. 그래, 그거야말로 신맛의 중독이었던지도 모른다.

[삼키기 싫은 신맛 -내가 추억하는 신맛들]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타 먹던 수제 유자차와 자몽차. 집에서 엄마와 함께 만든 새콤달콤한 수제 라즈베리잼. 아침에 밥 대신 급하게 베어 온 시큼한 참사과. 샐러드에 매번 뿌려먹는 유자드레싱. 꼭 잘 익은 묵은지의 신맛.

😊 13 💬 2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묵은지의 신맛은 단순히 시큼한 것이 아닌 깊은 맛 같습니다! 진짜 추억의 신맛들은 하나같이 어느정도 아렸을 때 경험한 신맛 같아요!

2025/05/21  
Wednesday, pm 10:26 | 20:00  
조하경(창작학과)

#9일차  
십수년도 더 된 어릴적, 누구 생일만 있다면 온 가족이 모여 둘러앉아 축하해줬다. 생일이 지금보다 더 특별했던 시기. 아버지가 사운 새하얀 동네 빵집 케이크를 가족들과 나눈다. 차례차례 받아 포크로 케이크를 가르며 먹기 시작한다. 장유유서, 칭만 골락골락 삼키며 기다린 나. 억겁의 시간을 지내고 입속으로 든 케이크에선 묘한 신맛과 시큼함이!

"전부 멈춰!"

이정재처럼 난 모두의 저작활동을 멈추었고

어디선가 "예림이, 그때 봐봐." 라는 대사가 들려와도 무방할 정도의 정적이 이어졌다. "이 케익 좀 이상해!" 하니 다들 콧등에 날을 세우고 쿵쿵거렸고 답안지를 본 듯, 그래서야 알겠다는 반응이 속속 터져나왔다.

병집에 연락해보니 유통기한이 임박한 케익이었고 이 '까칠한 녀석'은 특유의 예민함으로 가족의 배탈을 막은 영웅이 됐다. 그 이후로 내 미뢰는 조씨가운 최고의 아웃풋이 되어 집안 행사에서의 공식 간보기엔, '이거 먹어도 되나'의 확인을 받는 감별사의 역할을 도맡게 되었다.

이후,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에 장기, 특기를 적어내는 란에 몇년 정도는 냄새맡기, 내지는 음식간별을 적어내곤 했다. 라따뚜이 영화를 보며 쥐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취하기도. 나는 소물리에가 되어하나, 조항사가 되어하나 하다 호지부지 된걸 보니, 혼자만의 보석함에 넣어 둔 채로 살아왔나보다.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라떼가 땀겨서 평소처럼 캡슐커피의 샷을 내리고 우유를 담아 한입 마셨다. 웬걸, 아무것도 타지 않은 일반 라떼에서 크리미한 치즈향이 난다. 전날 과음을 했기에 취한건지, 허가 마비가 된건지 영문도 모른채 한입 두입 훌쩍이니 점점 전해지는 시큼한 향. 게다가 식감에는 꾸역한 느낌까지. 신맛과 함께 퍼지는 머릿속의 여덟자리 숫자.

'살마?'

급하게 확인한 우유팩 지봉의 유통기한은 충분히 남아있었다. 앞뒤가 맞지않는데, 한참을 들여다보니 딱 하나가 이상했다. 일자(日)는 이상 없었으나 월(月)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미 유통기한을 훌쩍 넘어 한달이 지나있었다. 평일에는 춘천에서 보내고 주말에 돌아가다

보니, 시간감각이 무뎠어서였겠다. 매일을 발효음식을 먹지만, 우유를 발효시켜 마셔본건 처음이었기에 주야장천 휘몰아칠 태풍을 대비했으나 기우에 불과했다. 허와 크가 둔해진 만큼, 소화기관도 둔해졌나보다.

신맛은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을 감지하기 위해 민감하게 발달했다고 한다. '음-'하고 표정이 일그러지는것도 하나의 경고신호였다. 시간이 갈 수록 신맛의 대한 저항이 무뎠지나보다. 모난 부분이 깎여서 '그러려니-' 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나이가 들수록 감각 기관이 맛이 가는건지. 그래도 인생의 신맛은 웬만하면 피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럴때만큼은 경고등이 울리듯 어릴때의 그 센서가 다시금 반응해주기를.

😊 15 💬 5

조은채(간호학과) 엄청난 능력이에요. 특기에도 냄새맡기를 적으신게 너무 귀여워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0:26 | 11:11PM  
정우림(정치행정학과)

#10일차 #신맛

사람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원하든 그렇지 않은 삶에 필수적인 것이 자극이죠. 제가 썼던 글을 읽으셨다면 어느 정도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장신적 병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제가 하려던 일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 병을 핑계 삼아 해야 하는 일을 회피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조퇴도 잦았고, 졸업 후에도 단기 알바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병을 핑계로요.

그런 단맛에 취해 있던 어리석은 제게 따끔할 정도로 아픈 신맛의 자극을 느끼게 해준

영화가 바로 픽사의 '소울'입니다. 제가 해석했을 때 이 영화는 어떤 거창한 성과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삶 자체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지와 관계없이 한 인물이 문더군요,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 건가요?" 라고.

번개를 맞은 듯 따가웠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물론 똑바로 사는 삶, 행복한 삶은 남이 아닌 내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두의 삶은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간 게으름의 이빨을 덮고 삶의 소중함은 망각한 채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목전에 닥친 어려움은 회피하면서도, 부끄럽지만 눈물도 흐르더군요. 슬퍼서가 아니라 어렸을 적 부모님께 매를 맞을 때와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병을 가진 것 자체는 자랑도 흠도 아니지만, 저의 태도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극장 vip일 정도로 영화를 많이 보는데, 관객을 위로해 주는 영화는 생각보다 많지만 이처럼 저를 흔내는 영화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이 영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느낀 그 시큼한 울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보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라고. 그리고 답은, 삶의 소중함을 깨달은 여러분이 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 14 💬 5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소울 보기 전에는 인사이드 아웃 카피한 영화인가 싶었는데 막상 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포기는 없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영화였습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0:39 | 11:11PM  
서정림(심리학과)

#10일차

허겁에서 무조건 반응으로, 어쩌면 조건 반응으로 침이 나오고, 얼굴이 찌푸러지고, 입에는 쾌락인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입가가 올라간다. 이 모든 반응은 신맛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평범한 생리 반응이다. 그러나 나는 그 반응을 '기억'만으로도 되풀이한다. 입안에 레몬즙이 실제로 있지 않아도, 무의식 어딘가에 저장된 한 조각의 '내재화된 레몬'이 톡, 하고 터지면 신맛이 확 들고 만다.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레몬은 떠올릴 때마다 선명하고 생생하게 내 혀 위를 떠돈다.

작년 5월 말, 지혜의 길에 설치된 주정에는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어중간한 가격의 술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쌓인 한 학기의 스트레스를 토해내듯 웃고 떠들었다. 나 역시 심리학과 학우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시간을 보내다가 밤 10시쯤이 되면 멀리DJ 부스가 있는 쪽에서 클럽처럼 비트가 뻗어오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처음엔 관심이 없던 음악들이, 점점 술에 달아오른 이들의 발끝을 간질이더니 이내 이들의 온몸을 흔든다. 자정에서 2시 사이가 되면 하이라이트다. 모두가 만취했고, 같은 뜻을 가진 자들만 모인 대규모 클럽 앞에 모두가 모인다. 그러다가 트레비스 스콧의 'FIEN'같은 일반 합합 클럽 단골 곡이 나오면, 가만히 술을 기울이던 남성 모두가 3초간 정적을 즐기다가 주정을

박차고 나가 DJ 부스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십 수백 명이 방방 뛰면서 한림대학교 반경 1KM 이내의 대지에 저규모 강도의 인공 지진을 만들어 낸다.

다른 유명한 곡들이 나오면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원을 만들고, 숨기운을 빌려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몸을 뒹군다. 누군가는 갑자기 원 중앙으로 한 명을 밀어 넣는다. 그리고 외친다. "츤츤!" "에이! 에이! 에이!"  
아아, 그날의 나는 그 '누군가'였다.

음악과 술과 분위기로 만들어진 완벽한 함정에 딱 걸려들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고개를 저었고, 손사래를 쳤고, 못 한다고 했다. 호랑이나 뱀을 봤을 때와 같은 투쟁-도피 반응이 제일 먼저 튀어나왔다. 하지만 취한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물개인화'는 부끄러움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도 찾고 저 사람도 찾고, 부끄러움은 n행이니 겐잡아~ 취라!" 다들 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어깨를 떠밀려 중앙에 선 나는, 정확히 말하자면 '츤을 쳤다'기보다는 몸을 어떻게든 움직였다. 이로부터 1년 쯤 후 나와 같은 공간에서 집단 분위기에 동화됐던 친구가 붙여준 이름은 '꼭짓점 댄스'. 어얼마나 기묘하고도 괴상한 표현인가. 한 이 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을 다섯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어릴 때 했던 놀이인 '땀따먹기'같은 스템을 반복적으로 밟아가며 15초를 버텼다. 아, 이 현실을 보고 싶지 않아서인지 고개는 떨구고 있었다. 내가 봐도 웃겼다. 아니, 그 기억을 지금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다. 너무너무 시다. 같이 있던 친구들은 웃었고, 나도 억지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 이후로도 한 친구가 그 츤을 회상하며 놀릴 때마다, 나는 실제 신 음식을 먹은 듯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볼 안쪽이 간질거리며, 입가엔 미소가 생기고, 눈은 핑그린다. 놀았던 자존감이 10초 정도 확 꺾이긴 했다. 그러나 나에게 나뒀던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아이서'같은 신 음식을 찾듯이, 나도 가끔 그런 것들이 땡긴다. 부끄럽지만 이런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서 내 장기기억에 강렬히 저장되고, 이렇게 글로 인출될 수 있다.

이후로 '시다'는 맛의 형용사가 아니라, 감정의 형용사가 되었다. '시다'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울츠러들게 하는 감각의 언어다. 내가 츤을 쳤던 그날부터, 그것은 혀에 머무르지 않고, 내내 마음에 남아있다.

지금도 가끔 신 것들을 먹는 순간, 가령 신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 나는 무의식중에 그 광장 한복판에 다시 서 있다. 몸이 기억하는 신맛, 마음이 기억하는 시름함, 그리고 사람들이 외쳤던 "꼭짓점 댄스!"라는 거찬 함성이 함께 쏟아진다. 아마도 신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시다"라는 미각에서 느낄 수 있는 신체 감각이 '무조건 반응'이고, '꼭짓점 댄스'라는 괴상한 음운 형태로 이뤄진 단어가 '조건 반응'인 행동주의 심리학 실험 결과를 스스로한테 했던 것 같다. 어젠 파블로프의 개처럼 난 '꼭짓점 댄스'를 생각할 때마다 침을 질질 흘리겠지...!

😊 12    🗨️ 3

김명빈 (미디어스쿨) 아아... 너무 힘들어요,, 글만 읽어도 기벨리는 느낌.....



2025/05/21  
Wednesday, pm 11:31 | 17128  
김명빈 (미디어스쿨)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어 급한 마음에 이정재 씨의 입을 빌려 "얼음!"을 외쳤던 어제. 하지만 시간은 얼지도, 멈추지도 않았고... 결국 발표 당일이 오고야 말았다.

오전 9시  
출근하자마자 노트북 전원 ON.  
날 밤 새며 기적처럼 만들어낸 반쪽 파리 PPT를 다시 손 봤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이 전공 박람회 날이지...?  
아침부터 이 부스 저 부스 불려 다니며 땀을 뻘뻘 흘렸다.  
오랜만의 발표라 인간처럼 보이려고 분칠도 살짝 했는데,  
그 인간다움은 땀과 함께 녹아내렸다.

오전 11시 Zoom 발표 수업.  
"이 부분은 명빈이가 발표해 볼까?"라는 성기준 교수님 말씀이 들려면 현란한 alt + tab 컨트롤로 멀티태스킹의 정점을 찍고

오후 1시  
전공 박람회 고생했다며 선생님들이 챙겨주신 소중한 모마 김밥 및 알을 입에 털어 넣고 다시 PPT를 붙잡았다.  
아속한 시간은 살살 녹았고 발표는 30분 앞으로 다가왔다.

오후 2시 30분  
일단 퇴근 찍고 강의실로 이동.  
같이 발표하는 학우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입을 풀었다.  
멀리진 않았지만, 목 축이려고 마신 레몬차

아이스티 텃인지  
잇몸이 말라 입술이 들러붙었다.

아, 괜히 신 거 마셨나... 발표하다가 허 고이면 어쩌지...

"자~ 오늘 1번 발표는... 명빈이? 나오세요~!"

윤숙 교수님의 높고 산뜻한 목소리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그래도 아무 일 없는 척, 유려하고 수려한 말투로 제법 뻔뻔하게 발표를 마쳤다.  
칭찬 들어서 기분이 좋아진 건 덤이다.

그리고 그제야 입안에 남아 있던 레몬차 맛이 느껴졌다.

발표 전엔 시고 떨더니,  
지금은 상큼하고 시원하다.

그 레몬차 맛은 언제나 같았을 텐데,  
그걸 시게 느낄지, 상큼하게 느낄지 결정하는 건 결국 내 마음이었다.

오늘도 인생 한 입, 상큼하게 마무리 해 본다.



#10일차

😊 11 💬 2

이주현(사회복지학과) 결국 잘 해내셨군요!  
하면된다를 움소 살전해주셨네요! 멋지십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1:36 | 1698  
강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10일차

<유자차>

겨울은 유자 향을 달았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리고  
달콤하지만 끝에 가선 꼭 신맛이 남는다.  
지은은 매년 겨울마다 유자차를 담갔다.  
손끝이 얼얼해질 만큼 유자를 얹게 저며  
설탕과 꿀을 차곡차곡 쌓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유자청은 투명한 유리병 속에서  
천천히 발효되어 갔다. 그 겨울, 지은은  
혼자였다. 결혼 5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다. 사람이 사라진 집은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았다. 옷장 문이 열릴 때 나는  
뻘걱임, 물이 내려가는 배관 소리, 그리고  
정적 사이사이로 밀려드는 과거의 대화들.  
"이거 너무 시지 않아?" "원래 유자는 좀 서.  
그래서 맛있잖아." 남편은 유자차를  
싫어했다. 달콤한 걸 좋아한다더니 신맛은 못  
견디거나 보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알뜰한 기분이 들었다. 사랑도, 미움도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날도 유자청을 담은  
날이었다. 장갑을 끼지 않고 손질한 탓에  
손등이 따가웠다. 유자의 산이 미세한 상처로  
스며들었다.  
작은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유자차를 뒀다.

노랗게 피어오르는 향기 속에 지은은 입을  
땀다. 처음엔 달았다. 꿀이 들어간 부드러운  
단맛. 그러다 곧바로 유자의 진한 신맛이 입  
안을 채웠다. 눈이 살짝 찢푸러지고, 코끝이  
간질거렸다. 그리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질나의 쓴맛. 지은은 웃었다. "딱 내가 원하는  
맛이네." 그녀는 혼자 마시는 유자차가 더  
맛있다는 걸, 그해 겨울 처음으로 알았다.

ps. 여태챌린지 중 가장 늦게 작성

😊 11 💬 3

최현명(금융재무학과) 신 맛하면 당연히 레몬을  
떠올리게 되는데 민석님은 유자의 신맛을 생각해  
내셨네요!! 신맛을 주제로 한 소설 잘 읽었습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1:40 | 1998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0일차 #신맛

"아빠, 신맛을 주제로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

"난 커피의 신맛이 싫어."

네? 갑자기 커피요? 근데 아빠 따라는 아니고,  
내 입맛에도 신 커피는 별로야. 적당한 건  
괜찮은데 시기만 하면 가벼운 느낌? 입  
천장만 씩 커피향 묻히는 듯한 느낌? 그냥  
별로야 별로. 소심하고 예민한 우리 집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안 좋아하나봐. 입맛  
마저도!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나, 나도  
맵고 짜고 신 건 거부감이 들어. 물론 적당히  
입맛을 돋구는 정도 괜찮지만. 저번 주였나,  
알바 할 때 원두는 한 종류냐고 물어보신  
손님이 계셨어. 산미가 있느냐고 해서 세진  
않다고 했더니 아메리카노를 시키시더라고.  
그 분도 커피의 신맛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  
근데 어떻게 신맛을 주제로 글 쓴다는데 커피

신맛 싫다고 말하지? 커피 먹고 왔어?  
오 헨리의 단편집을 읽었나고요? 그게  
누군데요. 아.. 전 국내 소설만 읽어오.  
대반전이 있는 단편들을 썼구나. 근데 저 지금  
40분 만에 써야 되는데 반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집 들어오실 때 기분 안 좋아 보여서  
맘이 그랬는데. 글 쓴다니 인사이트를  
주겠다며 다가오는 모습 제법 웃기시어요.

😊 11 💬 4

윤소정(사회학과) 커피의 맛을 잘 알지 못하는데  
신맛도 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와  
에피소드가 재밌네요



2025/05/21

wednesday, pm 11:47 | 1998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10일차

신맛.  
어렸을 때 신맛이 나는 캔디를 많이 먹었던 것  
같다. 그때 유행해서 많이 먹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끼리 엄청 시다는 캔디를  
나눠먹고 놀았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마트에  
가면 아이서를 가끔 사 먹었다. 달달한 캔디  
다음에 나오는 톡 쏘는 신맛이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다. 나는 신맛을 잘 먹는  
편이었던 것 같다. 아니면 친구들한테 엄청 신  
것도 잘 먹는다고 맛있는 척을 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요즘에는 신맛이 나는 걸 안 먹는다. 어릴  
때는 레모네이드나 신맛이 나는 젤리도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톡 쏘는 신맛이 나는  
것보다 달달한 걸 더 좋아한다.  
그때보다 좀 커버린 나에게는 신맛이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진다.

어렸을 때는 그저 재밌게만 느껴졌던 신맛이  
왜 지금은 먹지 않게 되었을까.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에게는 신맛의 톡 쏘는 자극과

즐거움이 끊어졌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신맛을 맛본 뒤에 파랗하게 상큼함이 울지  
아니면 시큼함을 남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신맛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느껴지는 자극적인 감각에 점점  
움츠려드렸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감정이든 사람이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나의 세상에서 예상할  
수 없는 신맛은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게  
당연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신맛은 유독  
어려운 것 같다. 매운맛, 단맛, 짠맛들은 내가  
조절을 하고 적당히 즐길 수가 있는데 신맛은  
예측할 수 없는 특징 때문에 다루기가 어려운  
것 같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맛을 느끼는 날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듯 그런 느낌. 그런 날은 유독  
힘든 것 같다. 다른 맛들은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맛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맛이다. 그래도 신맛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맛들을 떠올리자. 언젠가  
신맛을 다시 즐겁게 느낄 수 있을 그날에 오면  
좋겠다.

😊 11 💬 3

김명빈 (미디어스쿨) 신맛을 억지로  
이겨내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맛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기다리는 마음. 그 자체로 충분히 단단하고  
멋져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1

wednesday, pm 11:49 | 1288  
이주원 (심리학과)

#10일차 #신맛

나에게 신맛은 외톨이 같다. 단맛이나 짠맛은  
자주 떠오르는데, 신맛은 한 번도 구미가 당긴  
적이 없다. 난 신맛을 내는 음식들 중에서  
레몬이 제일 싫다. 그래서 난 레몬맛 사탕도

싫어하고, 레몬 에이드나 레몬차도 싫어한다. 이 글을 쓰다보니 내가 아직 싫어하는 음식이 있긴 하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이후로 싫어했던 음식들도 다 잘 익게 돼서 이제 싫어하는 음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레몬이 아직 남아있다. 앞으로도 좋아할 일 없을 것 같은 신맛.

😊 11 💬 5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신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찾기가 조금 힘든 것 생각하면 어딘가 조금은 배척 당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모든 맛을 정복하길 바라요!



2025/05/21  
wednesday, pm 11:54 | 🇰🇷  
최지윤(바이오메디컬학과)

#10일차 #신맛 #시다

제목: '시'는 시다

허골이 아릴만큼  
단어는 날카롭고,  
가슴 끝은 시큰해질만큼  
문장은 저인다.

레몬즙을 붓에 적서  
종이 위로 굶고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면

그을린 종이는  
저리도록 시리도록.  
그러다 종이는  
조용히 명을진다

상큼한 향에서  
편지는 시다.

비밀 편지를 상상하며 써봤습니다.

😊 11 💬 4

윤소정(사회학과) 비밀편지를 신맛에 빚던 것이 참신하다고 느껴집니다! 허골이 아릴만큼 단어는 날카롭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2025/05/22  
thursday, am 12:02 | 🇰🇷  
최연수(언문방송융합미디어전공)

#10일차

망매해갈(望梅解渴)

신맛은 생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인다. 세상에 많고 많은 신 음식 중에 필자에게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바로 매실(梅實)이다. 언 옛날 쓰인 중국의 소설, 삼국지(三國志)에서는 매실의 신맛을 체험할 만한 일화가 나온다.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인물인 조조(曹操)는 그야말로 처세술의 달인이자 난세의 지배자였다. 조조가 군사들과 오랜 기간 행군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다. 허기를 달랠 음식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부족해 군사들에게는 땀 한 방울조차 아까웠다. 시시각각 떨어지는 군사들의 기운 속에서 조조는 결단을 내렸다. "저 언덕 너머에는 매실 밭이 있으니, 사기를 울려라!"

필자는 매실을 생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한가득 고인다. 매실의 맛을 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친가지일 터. 군사들 역시 조조의 발언을 듣고 입안에 고인 침으로 갈증을 달렸다고 한다. "매실을 떠올리며 갈증을 해소한다." 이 일화는 망매해갈(望梅解渴)이라는 사자성어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열매는 씨앗 시절과 꽃 시절에 겪은 환경에 따라 맛이 바뀐다. 매실은 어쩌다 자신의 존재감을 마음껏 발휘하는 신맛을 가지게 된 것일까? '매실(梅實)'은 '매화나무의 열매'다. 매화(梅花)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피는 꽃으로 예로부터 고결(高潔)과 인내(忍耐)의 상징이었다. 봄에 피는 꽃들 중 가장 먼저 피는 매화를 보며, 과거 조선 사람들은 매화를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를 쓰던 시인 이육사의 시 <광야>에도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는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도 매화 향기가 아득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묘사했다. 꽃내음이 가득한 3월에 벚꽃 향기가 가득한 건 이상한 게 아니다. 온화한 날씨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5월에 장미 향기가 가득한 것도 이상한 게 아니다. 겨울이 되면 꽃은 얼어 죽는다. 그러나 폭설이 내리치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는 꽃이, 심지어 새로 피어나는 꽃이 있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온갖 고문을 겪었음에도 마음을 꺾지 않았던 것을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몇 년 전, 리그오브레전드(롤) 프로선수 데프트(DEFT)가 롤 국제 대회 '롤드컵'에 참가했던 시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표현이 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온갖 패배에 파묻혀 악담으로 평가받던 데프트의 팀 DRX는 그렇게 그해 롤드컵에서

우승했다. 승리를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꺾지 않은 결과였다. 필자가 이 팀이 우승하던 순간 느꼈던 짜릿함을 표현하자면, 마치 매실 원액을 입 한가득 머금은 기분이었다.

매실은 주로 5월에 맺히기 시작한다. 폭설이 내리치는 1월에 피기 시작해 2월, 3월, 4월을 견뎌낸 매화는 그렇게 자신만의 결실을 맺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매실의 신맛은 자기가 매화 시절부터 담아낸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싶다.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반드시 열매가 되고 말 거야!"라는 굳센 절개가 신맛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만 같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결국 지나가고 봄은 온다. 매화가 겨울을 버텨내고 매실을 맺은 것처럼, 모두의 고난도 지나가고 당신만의 매실을 맺을 수 있기를. 당신만의 신맛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응원한다. 고난 속에서 망매해갈(望梅解渴)하는 모두에게 격려를 보낸다!

😊 14 💬 2

김명빈(미디어스쿨) 너무 멋진 글이네요 신맛에 담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다정하고 깊게 있게 풀어내시다니 감탄했어요. 조조에서 이육사, DEFT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신맛'이 어떤... 마음의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화가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 매실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연결한 비유가 정말 따뜻하고 단단하게 와 닿았어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025/05/22  
thursday, am 12:23 | 27위  
김양선

오늘의 글쓰기 마감합니다. '신맛'이라는 감각을 통해 잠시 잊고 있던 기억과 감정을 꺼내 본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대놓고 혹은 은밀하게 신맛을 품고 있지요. 살아가면서 관계나 경험에서 신맛같은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런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빚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무더운 늦봄의 밤. 상큼한 레모네이드나 오미자맛을 떠올리며 잠들기 바랍니다.

😊 18 💬 0



2025/05/22  
thursday, am 7:51 | 41위  
김양선

#11일차 키워드 : 오늘의 색(color)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물들인 색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색은 무엇이었나요? 하루 종일 여러분의 기분을 지배했던 색은 어떤 빛깔이었나요? 옷이나 액세서리, 혹은 거구나 캠퍼스의 풍경에서 유난히 강렬하게 다가온 색일 수도 있겠죠. 그 색깔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했나요? '오늘의 색'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17 💬 0



2025/05/22  
thursday, am 10:03 | 24위  
이주현(사회복지학과)

#11일차  
오늘 아침에 파란색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일어났을 때 내 몸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내 목이 너무 아팠다. 침을 삼키는데 돌덩이를 삼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듯 했다. 만약 하루 종일 목이 이렇게 아프다면 그 날은 엄청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 된다. 내 입에 핸드폰 후레시를 비춰 거울로 확인했는데 왼쪽 목이 딱 봐도 부어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상태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에어컨이 문제였던 것 같다. 몸에 열이 많아 에어컨을 3시간 타이머 맞춰 놓은 것이 원인인 것 같다. 업지 않게 자서 좋긴하지만 목 상태 때문에 약간의 후회는 되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좀 목이 편잡아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 물을 계속 마셔주었다. 다행히 지금은 목 아픈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진짜 아침에 물을 삼키는 느낌을 생각하니 지금의 상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웬지 계속 물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 거의 다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아직까지는 아픔이 있어 나에게 파란색이 남아있지만 오늘 안에는 꼭 이 파란색을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다!

😊 15 💬 14

공니경(국어국문학과 23) 아픈게 조금은 가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래도 얼른 나오시길 바래요ㅠ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2025/05/22  
thursday, am 10:05 | 22위  
공니경(국어국문학과 23)

#11일차 #오늘의색

오늘의 내 색은 검은색이었다. 몸살이 나 아픈 몸을 이끌고 전철에 올랐다. 그러나 결국 목적지가 아닌 중간에서 내려 다시 집으로 향했다. 무리였던 걸까. 전날 밤, 학교를 가기 전 12시에 알바를 끝내고 하늘을 올려다볼때면 어두컴컴한 배경 속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도착하자마자 약을 먹고 서둘러 침대에 누워 급히 잠을 청해보지만 쉽게 잠에 들지 못해 계속해서 뒤척였다. 얼른 자야 내일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텐데...잠이 잘 온다는 노래부터 asmr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걱정스런 마음에 결국 하루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괜히 속상하기도 아쉽기도 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진 않았는데..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돌아와 밥을 먹고, 라이팅 글을 쓰며 저녁에 알바를 무사히 끝내고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라는 말을 스스로 내뱉는 그런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내가 체력이 이렇게 약했구나. 결국 집으로 돌아가 약을 먹고 잠에 들었지. 그렇게 하루가 금방 흐르고 말 것이다. 아픈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속상한 마음은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 오늘 하루는 그저 검은색 꿈을 꾸길 바랄 뿐이다.

😊 15 💬 8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아이고ㅠㅠ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얼른 회복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래요! 어떠한 일에 너무 무리하시지도 마시구요! 아프면 안됩니다ㅠㅠ



2025/05/22  
thursday, am 10:28 | 25위  
최현영(금융재무학과)

#11일차#내심장의색깔은BLACK  
G-DRAGON의 BLACK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다.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색"하니까 내 것가에 이 가사가 스쳐지나갔다.  
나는 루틴을 지켜서 하루를 사는 것을 좋아한다.  
정도된 방과 계획해 놓은 일들을 잘 처리했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어마어마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영양제를 챙겨 먹고 7시 20분에 집을 나선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더 무거운 눈꺼풀 때문에 이불 속에서 나와 한참을 씨름하다가 어슬렁어슬렁 준비를 시작했더니 지각을 하고 말았다.  
정신없이 나오느라고 어질러진 방과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채 뛰쳐나왔다.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습한지 불쾌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겨우겨우 지하철에 올라타서 마음을 가다 들고 하지 못하고 나온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흘렀던 땀도 젖은 머리도 말라갔다.  
다행히 지각도 면했다.  
질은 블랙이었던 나의 하루가 옅은 회색빛으로 변해 갔다.  
나의 기분은 참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도 그만큼 쉽게 받는 타입이다.  
예전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로 망친 내 하루에 그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나의 모든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지도 못한 당혹스럽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면 나만의 탈출구를 찾아 떠난다.  
그 방법은 바로 일기 쓰기이다.

그 당시에는 왜 기분이 나빴는지 알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감정만이 남을 뿐이다. 그게 그냥 그렇게 없어지면 다행이었지만 나쁜 감정은 쉽게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지금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하게 나와 대화를 시작한다. 한참을 일기를 쓰다 보면 심장이 뱅글뱅글 돌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파스텔 그린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니까. "남이 나의 하루의 색을 물들이게 놔두지 마세요."

나의 빛나는 하루를 지켜나가는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14 💬 6

김미도(일본학과) 맞아요. 일기 쓰는 습관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 인상깊네요. 현영님도 내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05/22  
thursday, am 10:52 | 22:59  
유채원(일본학과)

#11일차

오늘의 색은 회색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회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검은색 옷은 모든 햇빛을 흡수해 내가 타버릴 것 같았기에 싫었고, 며칠 전에 하얀색 옷을 입었을 때 무언가를 묻혀서 당분간 다른 하얀색 옷들도 입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인 회색을 택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적당한 색. 그 적당한 색은 내게 편안함을 가져다주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기분 때문이다. 기분이

탁해진 건 가방의 무게 때문이다. 이번 학기에 제일 가방이 무거운 날이 목요일이다.

일한사진, 필기노트, 교재, 유인물을 기본적으로 챙겨야 한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교재도 챙겨야 한다. 더불어, 오늘은 노트북까지 챙겼다. 무거운 게 싫어서 그냥 컴퓨터실에서 과제를 할까 했는데, 이동시간을 생각하면 손해인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노트북을 챙겼다. 지하철을 타고 지금 학교로 가는 중인데 사람이 여느 때보다 많다. 계속 서서 가고 있다. 원래는 학교를 가면서도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려 했는데 계획이 거하게 틀어졌다. 가방 무게가 하던 내 기분에 검은색을 톡톡 떨어뜨렸다.

글을 쓰다 보니 회색이 적당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 않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게 신기하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색에 긍정과 부정을 덧대어 새로운 이미지를 입힌다. 다음의 회색은 긍정만으로 가득 차면 좋겠다.

😊 15 💬 7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저도 기분에 따라 회색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회색 옷을 입으려고 하면 괜히 더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공감 가는 글이었습니!

우리끼리, Band!

2025/05/22  
thursday, am 11:04 | 23:00  
김예지(사회복지학과)

#11일차 -오늘의 색 '살구색'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느낀 건 묵직한 무게였다. 눈을 떠보니, 우리 집 고양이가 내 명치 위에서 동그랗게 말린 채 자고 있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짝 들어오는데, 고양이의 털빛이 그 햇살을 받아 온오히려 살구색이었다. 오늘의 주제를 보고, 오늘의 색은 딱 이 색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사실 옳은 편하지 않다), 포근해지고, 살살 만져주면 고르릉 고르릉 소리를 내주는 내 고양이. 시작부터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오늘의 색은 살구색이다. 고양이가 덕분에 시작된, 따뜻한 하루.



😊 17 💬 5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 내 앞에서 자고 있는

따뜻하고, 고동고동한 생명체들은 나를 녹여죠. 사진만 봐도 녹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또 나만 있어 고양이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22  
thursday, pm 12:09 | 11:00  
정우현(철학과)

#11일차

오늘은 감풍에 왔습니다. 현재 신홍사에 왔는데요. 산으로 뒤덮여있어 초록색이 눈에 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절에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저를 뒤덮습니다.

여행을 정말 오랜만에 온 것인데 감풍으로 온 것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철학 답사 수업으로 온 것인데 여행 온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을 즐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그 어떤 색이든 물들고 싶습니다.

점심으로는 산채비빔밥을 먹었는데요. 고사리, 참나물, 명주 나물 등 정말 다양한 채소를 먹었습니다. 원래는 육회비빔밥만 먹었는데 정말 건강한 식사를 했네요. 다양한 색이 이렇게까지 기분을 좋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색을 경험해 보려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양한 색을 경험하기 위해 떠나보세요!



😊 13 💬 3

김영빈 (미디어스쿨) 초록빛 산과 일출달록한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 참 평화롭고 풍요롭게 느껴져요  
건강한 한 끼와 함께 마음도 가득 채워졌을 듯해요.  
이런 순간들이 쌓여 삶도 더 다채로워지길  
바랍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2  
Thursday, pm 1:07 | 22118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11일차

- > 너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 < 나는 하얀색이 제일 좋아
- > 왜?
- < 단순해서

음, 색깔이 단순할 수가 있는 것인가?  
단순함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며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성격적 특징이  
아니었던가? 그 아이는 무슨 의미로 하얀색이  
단순하다고 표현한걸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하얀색이 단순하다면  
그와 완전히 대비되는 어두운 색은 복잡한  
것인가? 그러고선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다.  
검은색이다. 어둡다. 무섭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눈을 뜨고 있을 땐 들지 않던  
생각들이 폭풍우처럼 몰려온다. 착잡한  
상상을 하게 된다.

그래 이거다. 그 아이는 단순히 [Color]  
개념의 [White]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눈꺼풀이 서서히 닫히고 완전한 암흑이  
찾아왔을 때 느끼는 두려운 감정의 대비를  
표현한 것이었다.

감았던 눈을 서서히 뜬다. 복잡함이

떨어진다. 생각이 희미해진다. 상상을  
내려놓는다. 정말 단순해졌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흐름에 순응하게  
되면 단순해진다.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될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뇌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색깔로 묘사함으로써 내게 기이한  
감정을 심어준 그 아이는  
꼭 검은색같다.

&&\*\* 그 아이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 12 💬 4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저는 어떤 색으로도  
덮일 수 없는 검은색이 오히려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마주하니 재미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22  
Thursday, pm 1:10 | 18118  
윤소정(사회학과)

#11일차 #색깔

<색깔이라는 틀>

오늘의 색은 '분홍' 옷장을 열고 손이 가서  
분홍색 티셔츠를 꺼내 입었다. 눈에 띄는  
분홍색이라 친구들이 학식당에서 나를 찾기  
쉬웠다고 한다. 하지만 어릴 적 나는 분홍색을  
싫어했다. 대개는 어른들이 여자아이에게  
분홍색 물건을, 남자아이에게 파란색 물건을  
준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에 책가방을  
비롯해 필기류, 공책 모두 분홍색으로  
사주셨던 기억이 난다. 내가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인데 ನೀ젠 분홍색 물건들이  
가득했다. 부모님께서 분홍색은 여자아이의  
색이라고 생각해서 사주셨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어린시절을 지나 내 스스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을 땐 모든 물건을  
파란색으로 골라서 샀었다. 일종의  
반항심이었던 것도 같다.

남동생은 분홍색을 좋아한다.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친구류를 바꿔주시면서 당연히  
남동생에게 하늘색 이불을 ನೀ젠 분홍색  
이불을 주셨다. 남동생은 분홍색을 갖고  
싫어하는 눈치인데 말을 못하고 있길래 내가  
먼저 바꾸고 싶다고 물어봐서 바뀌었다.  
부모님은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우리를 보며  
왜인지 내키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다.  
남자애가 분홍색 이불을 덮는 것에 대해  
어색해하시는 것 같았다.

최근 SNS에서 '젠더리벨 파티'라는 것을  
심심찮게 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임신한  
아이의 성별이 무엇인지 풍선 색깔을 통해  
알리는 것이다. 안 보이는 곳에 풍선을  
숨겨놓았다가 열면서 성별을 공개하는  
것이다. 남자아이라면 파란색 풍선이 나오고  
여자아이라면 분홍색 풍선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표지판 색이나 수영장  
락커키의 색을 보면 남자는 파란색으로,  
여자는 빨간색 혹은 분홍색으로  
구분지어놓는다.

위에 나열한 것들을 봐오면서 사람을  
색깔이라는 틀에 가두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도 분홍색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파란색을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남자가 분홍색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싶어도 주변시선을 의식해서 다른 색을 고르는 경우처럼 사소한 부분이지만 선택권을 제한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성별을 구분해서 표시할 때에 색을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13 💬 5

김명빈 (미디어스쿨) 색깔이 만들어내는 무심한 경계 속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로막힐 때, 마음 한 편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전해져요. 분홍과 파랑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세상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2  
thursday, pm 1:52 | 19188  
조은재(건호학과)

#11일차 #오늘의색  
하얀색

오늘은 흰 셔츠를 입었다. 늦잠을 자서 머릿속이 허해졌지만 부리나케 고른 옷이다.

강의 시간엔 흰 종이에 쓰인 글들을 읽고 정말 오랜만에 소소한 발표도 많이 했다.

햇빛이 뜨거운 한낮에는 너무 눈이 부셔서, 안 그래도 흐리멍덩한 눈을 계속츠레 뜨고 다녀야 했다. 양산도 없는데 이젠 우산을 양산으로 써야 할까 보다.

친구와 거의 일주일 만에 만나서, 앞으로 같이 교환일기 쓰고 서로에게 편지도 써주기로 약속한 날이다. 시점 전후에 근처로 짧게 여행도 다녀오고, 술도 왕창 마시기로 했다. 학식을 함께 먹고, 친구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줬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오는, 그늘진 벤치가 있는 아지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밀린 수다를 떨었다.

이따가는 같이 일기장을 사러 다이소에 가기로 했다.


저녁에는 특강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밤에는 밀린 과제를 해야겠다.

하루하루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안개 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예측 불가능함을 즐기게 됐다.

내일도 하얀 하루를 살아보자.

😊 13 💬 10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은재 님의 하얀 하루... 응원합니다... 친구와 정말 친밀하신가 봐요. 글에서 일상의 알록달록함이 돋보이는걸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22  
thursday, pm 1:52 | 19188  
권혁빈(경제학과)

#11일차

하루에도 많은 색들을 지나쳐온다.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을 듣고 눈을 뜬다. 방안은 까맣게 물들고 창가엔 눈부신 햇빛이 내리쬐며 내 눈이 떠지길 독촉하고 있다. 쓰레기통을 확인해보니 봉투가 꼭 차 버릴 때가 왔다. 파란 청바지와 회색 후드를 걸치고 보라색 중앙재봉투를 든 채 밖으로 나선다. 하늘이 푸른 것을 보니 확실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학교 언덕을 힘들게 오른 후 강의실에 도착한다. 초록색 칠판에 써지는 하얀 분필 글씨를 보며 또 하루를 보낸다.

오늘 주제인 색깔을 보고 나서 나의 하루를 대략적으로 적어보았다. 살면서 많은 색들을

마주친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평생을 살면서도 직접 보지 못하는 색들도 많다. 같은 빨간색, 파란색 계열이어도 다 똑같은 색깔이 아니다. 붉은 계열은 빨간색, 다홍색, 선홍색, 푸른 계열은 파란색, 하늘색, 청녹색... 다양한 표현을 쓰며 비슷한 색깔일지라도 구분을 짓기 위해 노력한다. 색에 민감한 디자이너나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색깔이어도 기계처럼 원하는 색깔을 적확 찾아낸다.

나는 그들처럼 예민한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다양한 색깔들을 보면서 똑같이 다채로운 느낌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남색이다. 밝고 빨간 색들처럼 강렬함과는 대비되는 차분하고 무거운 느낌. 진하고 푸른 배경을 보면 이전의 뒤틀리고 불타던 속이 천천히 사그라들고 평화를 찾는다.

여러분들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각자 좋아하는 색깔 혹은 나를 상징해주는 색깔을 이야기한다. 물론 나도 남색을 좋아하지만, 우리들의 색깔은 '정의할 수 없는 투명한 색'이라고 대답하고 싶다. 인생은 나 자신을 찾아가고 채워가는 과정인 것 처럼 우리의 색깔을 찾고 스스로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12 💬 3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며칠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의 색은 빨간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어 맵거든요..!

 2025/05/22  
thursday, pm 3:00 | 18988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11일차  
오늘의 색

오늘의 색은 초록이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 오늘의 색이 뭘까? 하고 생각하며 수업 가는 길에 문득, 주변에 초록이 유독 많다는 걸 느꼈다

푸릇푸릇한 나뭇잎과 발밑의 풀들.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가지 하나하나까지 초록은 생각보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늘진 나무 아래 잠깐 멍혀 있을 때 서늘한 공기와 초록빛이 마음을 덮어줬다. 복잡한 생각도 잠시 멎고 괜히 안심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세상엔 수많은 색이 있지만 오늘만큼은 초록이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색이었다. 평범한 하루를 초록 덕분에 조금 더 따뜻하게 기억하게 되었다

😊 11 💬 4

김미도(일본학과) 맞아요. 저도 아침에 학교에 나갈 때 초록색 나뭇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록색은 따뜻하고 마음이 되는 색이죠.

 2025/05/22  
thursday, pm 3:05 | 18988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11일차  
오늘의 색.

오늘은 핑크색바람막이 입었다. 유독 힘이 들던 어제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꾸고 싶어서 밝은 옷으로 골랐다. 작년에 구매한 이 바람막이는 예쁜 딸기 우유색이라서 내가 좋아하는 옷 중 하나이다.

밝은 옷을 입으면 괜히 기분이 조금 밝아진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더 그런 것 같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밝은 옷들을 입고

싫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두운색의 옷을 좋아해서 옷장에 밝은 옷들이 별로 없다. 앞으로 살 옷은 밝은 색으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다.

검은색만의 매력도 있지만 다양한 색이 주는 매력을 알게 된 것 같다. 앞으로는 다양한 색들을 나의 옷뿐만 아니라 나의 하루에 채우고 싶다. 따라서 오늘은 밝은 핑크색으로 나의 하루를 채워본다.

😊 9 💬 2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좋아하는 옷을 입기만 해도 기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색으로 하루를 채워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2025/05/22  
thursday, pm 3:23 | 2025  
정서진 (연문방송음악20)

#11일차

상아. 얼룩 한 점 없이 하얗지도, 순진한 들꽃처럼 노랗지도 않다. 그런 중간의 것을 좋아한다. 옷, 신발, 가방, 텀블러, 노트북과 핸드폰을 비롯한 기계들까지 -내 주변은 전부 상아로 가득하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상아가 좋다. 아무 데나 섞여도 어색하지 않다. 나에게 상아란 어중간하지만 확실한 것.

오늘 나의 하루도 그렇게 이어지는 중이다. 평소와 똑같은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다른 날들과 똑같은 균형을 맞추며 지낸다. 취향과 태도는 확실하지만 다른 것들과 함께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

상아로 가득 채운, 기본적인지만 확실한 하루.

😊 14 💬 4

정우림(정치행정학과) 저도 제 상아색 노트북을 사랑합니다. 확실한 목요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05/22  
thursday, pm 3:26 | 2025  
강수진 (미래융합스쿨)

#11일차 '오늘의 색'

나만의 색은 매일매일 바뀐다  
오늘의 색은 빨간색과 남색이 섞여있다  
오늘은 새벽부터 열이 38도까지 올라 몸이 안 좋아서  
더더욱 이런 색의 감정이 느껴진다

나는

- 화가 날 때는 빨간색
- 당황스러울 때는 주황색
- 활발해질 때는 노란색
- 자연 속에서 힐링할 때는 초록색
- 평화로운 마음이 들 때는 파란색
- 복잡할 때면 남색
-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는 보라색
- 아무런 생각이 안 들 때는 검은색
- 무언가를 떠올렸을 때는 하얀색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색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내 마음이 이러한 색깔을 빛내는 것 같다  
하지만 나를 잘 모를 때 가끔씩은 내 기분이 예뻐모호한 색으로 빛날 때가 있다  
무슨 생각인지 무슨 감정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 예뻐모호한 색이 안 좋은 색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어쩌면 나만의 색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색을 찾을 수 있는 그날까지 서로 다양한 색으로 빛내보자



😊 14 💬 3

윤소정(사회학과) 상아가면서 느끼는 기분이 마치 무지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지개색 중 하나가 되기도 하고 섞여서 다른 색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25/05/22  
thursday, pm 4:44 | 2025  
김서희(식품영양학과)

#11일차 오늘의 색

'오늘의 색'이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많은 색들이 떠올랐다. 내가 자주 입는 검은색 옷들, 오늘 입은 파란색 청바지와 화색 반팔티, 동생이 선물해준 빨간색 팔찌와 우리 집 강아지의 하얀색 털까지.

생각해보니 내 주변에는 정말 많은 색들이 있었고 저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어떤 이야기를 적을까 고민하다가 하얀 털을 가진 우리 집 강아지에 대해 적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색은 흰색이다.

나는 말티즈를 키우고 있다. 남자아이고 5살이 됐다. 음식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래 산다고 해서 감자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앞에 글들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나는 힘은

시간을 꽤 오래, 자주 보냈다. 특히, 대학교 입학 후에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 감자가 많은 위로가 되어줬다. 내가 우울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감자는 항상 옆을 지켜줬다. 나는 그런 감자를 만지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검은 옷을 자주 입는데 감자는 하얀 털을 가져서 매일 들들이를 해서 옷에 붙은 털을 제거한다. 이 작업은 옷 안쪽과 바깥쪽 모두 꼼꼼히 해야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가끔은 '감자가 검은 털이면 어떨까?' 생각한다. 하지만 짙은색을 귀여운 감자의 하얀 털을 보면 곧 그 생각이 없어진다.

이처럼 감자는 삶의 순간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웃음을 준다.

글을 쓰다보니 문득 나도 감자에게 삶의 순간마다 웃음을 찾고 든든한 누나였는지 궁금해진다.

😊 12 💬 3

입혜빈(사회복지학전공)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반려견 감자의 사진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저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지만, 서희님의 글을 보니 최고의 친구이자 가족인 것 같네요!

 2025/05/22  
thursday, pm 4:56 | 2025  
정우림(정치행정학과)

#11일차 #오늘의\_색

대비조화라는 예술 용어가 있죠. 별 것 아닌 제 짧은 지식을 나누자면, 대비조화는 서로 상충되는 듯한 색일지라도 미학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적 작업이나 학업에 열중하는 일, 또 짐대를 텅털며 보내는 일 등 우리는 하루 모든 일과에 각자 나름의 색을 정해줍니다.

저는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노란색이, 맛있는 걸 먹고 배가 부르면 파란색이, 우울한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검은색이, 제가 사랑하는 극장에 가면 빨간색이 떠오릅니다. 각 일과 안에서든 수없이 많은 색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이 색들이 조화를 이뤄 하루라는, 또 삶이라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어떤 한 가지 색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감히 마음대로 오늘의 색, 일과의 색을 정의하기엔 지금껏 열심히 하루를 색칠하며 달려온 제게 미안해지네요.

저녁이 다 돼가는데 수고한 자신을 격려하는 의미로 주무시기 전 오늘 직접 만드신 작품을 천천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 12 💬 4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저도 오늘 참 다양한 색깔이 섞여서 하루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우렁님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05/22  
thursday, pm 7:17 | 1498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 #11일차

오늘의 색은 노란색이다. 나는 노란색을 좋아한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색이다. 밝고 명확하고 묘하게 낙천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좋다.

오늘 아침에 딱히 노란색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평범한 검은색이다. 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서자마자 눈에 띈 건 도로 옆 공사장 펜스에 붙은 노란색 경고 표지판이었다. 그 노란색이 생각보다 눈에 확 들어왔고 그 순간 '아 내가 이 색 좋아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를 보내면서도 노란색은 몇 번 더 눈에 띄었다. 지하철 광고판에 쓰인 배경 색, 편의점에서 집은 노란 포장지의 간식까지. 특별히 찾은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자주 보았다.

노란색은 나한테 늘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기운이 나는 느낌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랬다. 평범했지만 노란색이 몇 번 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았다. 굳이 오늘의 색을 하나 고르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노란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13 💬 3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저는 파스텔 색깔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우리끼리, Band!



2025/05/22

thursday, pm 7:45 | 2318  
김미도(일본학과)

#### #11일차

[어느 여름날의 하루]

나의 오늘의 색은 "하늘색"이다. 내가 오늘 입은 옷 색이 하늘색이었고, 오늘 마신 음료도 블루레몬에이드였고, 가장 인상깊었던 색이 때문이다. 오늘의 나의 하루에 제목을 붙여보자면, "어느 여름날의 하루"다. 나에게 여름은 하늘색이다.

나는 매일 오후에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이팅 캘린더를 쓴다. 그런데 오늘의 키워드가 "오늘의"가 들어가니 오늘이라는 하루를 조금 보내고 쓰기로 했다. 는 사실은 키워드를 잘못 본 탓에 늦게 적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다. 듣기 싫은 수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아침에 조금 기분이 상한채로 눈이 떠졌다.

나는 매일 오전에 빨래, 청소, 설거지, 도시락 만들기를 끝내고 11시에 학교로 가야한다. 친구가 출근하러 나갈 때 인사하고, 문을 닫는 순간부터 나는 재빠르게 움직인다. 가장 먼저 빨래를 한다. 빨래 바구니에 넣어뒀던 옷을 세탁기에 던져 놓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청소를 한다. 여자 2명이 살아서인지, 머리털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고 청소기로 청소를 한다. 어차피 주말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기 때문에 시간상 꼼꼼하게 하지는 않는다. 청소를 30분컷 하고, 도시락을 만든다. 사실 대부분 있는 반찬 때려넣기라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 친구가 계란말이를 좋아하니 계란이 있으면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넣는데 오늘은 계란이 있어 계란말이를 만들어 넣었다. 반찬은 생각해보니 어제 다 먹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냉동식품을 넣었다.

다 만들면 바로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운다.

그러려고 했는데 친구가 치워줬었다. 고맙다 친구야.

음식물 쓰레기하니 아침에 친구가 나가면서 일반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한게 생각나 깜빡하지 않도록 바로 일반쓰레기를 묶어 나중에 나가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복도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 빨래가 아직 다 안끝났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10시 20분. 심각한 물걸레의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옷을 갈아입는다. 오늘은 나시를 절대로 입고 싶지 않았는데, 옷이 그것밖에 없어 결국 입었다. 양말은 특별히 캐릭터 양말을 신었다. 참고로 마이엘로디다. 빠르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는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는지 10시 50분이 되어 있었다. 급하게 친구에게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했다. 사실 30분까지는 안걸릴거 같지만, 오래 기다리게 하면 미안하니 일단 그렇게 보내두었다. 그러다가 막 빨래가 막 끝나 초스피드로 빨래를 널고, 환기 시킨 창문을 닫고, 전기, 불 끄는지 2번 확인한 후, 일반 쓰레기를 들고 나갔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 언덕을 올라야하다니, 쾅쾅대며 올라가면서도 주변에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보였다. 학교에 도착하니 11시 7분, 그리고 학생지원팀에서 날라온 문자 "감사운동 4차 활동 보고서 안내" 과제가 하나 늘었군... 깜빡하지 않도록 리마인더에 적어둔다. 도시락 배달을 완료하여 인문대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정식을 먹고 12시에 일본문화독해를 듣는다. 오늘은 본문 어휘 문제를 풀고, 일본 뉴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교수님께서 나 안시키셔서 다행이다.

13시 15분에 수업이 끝나면, 15시까지 공강이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잠깐 대외활동을 같이 하는 언니를 만나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고, 나는 브랜던코로 가서 과제를

했다.  
 커피를 마실지, 조금 요란한 걸 마실지  
 고민했지만, 오늘은 하늘색 옷을 입었으니  
 블루레몬에이드를 선택했다.  
 그리고 15시, 그 실은 수업이다. 오늘도 너무  
 재미없었고, 집에 가고 싶다고 속으로  
 100번은 외쳤다.  
 그러다가 갑자기 폰 스마트리드 알림 [6월  
 2일(월) 일본역사독해(꼭지시험)]. ...또 한숨.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다같이 모여 명동에서 밥을 먹었다. 한식을  
 먹을지, 양식을 먹을지...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일본학과 답게 일식을 먹기로 했다. 다  
 먹고 후식으로 크레페까지 아무지게 먹고  
 친구가 춘천역까지 운전해서 바래다 주어  
 나는 지금 경춘선을 타고 본가로 가고 있다.  
 이제 집에 가면 씻고, 가계부를 적고, 일기를  
 쓰기만 하면 하루가 마무리 된다. 무엇보다  
 반려견인 아홉이를 볼 생각에 기분이 좋다.  
 오늘 하루도 정신없이 흘러갔고, 싫어하는  
 요일이지만, 나름대로 잘 넘겼다. 오늘의  
 나의 색은 사실 하늘색이라고는 했지만,  
 빨간색이 되기도 하고, 초록색이 되기도  
 했다. 아침에 본 초록초록한 나무,  
 갑작스럽게 뜬 빨간 꼭지 시험 공지 등  
 오늘이라는 하루의 모든 색이 섞여 하늘색이  
 나온 것이다.  
 그런 오늘의 나에게 메달을 준다면...  
 "동메달"을 주고 싶다. 무사히 보내긴  
 했지만, 시간 계산을 확실하게 하고  
 행동했더라면 도시락 배달을 제시간에  
 했을텐데, 조금 더 주의깊게 행동했으면  
 실수를 안했을텐데 하고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  
 내일은 학교에 안가니 편안한 초록색의  
 하루를 보내고 싶다. 일바는 가아하지만...



<부록>  
 (원래 키워드가 '색'인줄 알고 썼지만,  
 그래도 오늘 적은 글이니 집어넣어봤습니다.)

1.  
 색, 하니 전공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떠오른다.  
 우리는 '오렌지'라고 하면 선명한 주황색을  
 떠올린다. 글 검질 색처럼 밝고 따뜻한 색깔을  
 떠올리는데, 미국에서는 이 'orange'라는  
 단어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한다.  
 한국어로는 갈색, 적토색, 황갈색 등으로  
 세분화해서 표현하는 색상들을 영어권에서는  
 전부 그냥 'orange'로 통일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색을 구분하는  
 방식조차 문화와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한국어로든  
 일본어로든 갈색은 분명히 갈색인데,  
 영어권에서는 그 색을 "Orange"라고 할 수  
 있다니, 신기했다. 색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스펙트럼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문화적인 의미를 띤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내게 언어와 세계 인식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2.  
 '파워레인저 놀이'를 해본 적이 있는지?  
 파워레인저는 1993년부터 방영되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특수촬영물 슈퍼 히어로 시리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종종 '파워레인저 놀이'를  
 했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서로 "나 레드  
 할게!", "넌 옐로 해!" 하며 자기만의 색깔을  
 정하곤 했다. 때로는 누가 어떤 색을 맡을지  
 두고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희한하게도  
 나는 늘 "블루"였다.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매번 블루가 내 차지이 되었다. 대학생이  
 되어,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리  
 모임, 파워레인저라고 부르면 어때?"라는  
 말이 나왔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 또다시  
 '파워레인저 놀이(?)'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장난스럽게 각자의 색을 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나는 또 "블루"였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눈에 비친 나의 색은  
 그대로였던 것이다.  
 사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 색깔'이 있다.  
 "빨간색" 하면 리더십 있고 정열적인 사람,  
 "노란색" 하면 밝고 따뜻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반복해서  
 맡았던 파란색, 그 이미지도 어쩌면 나를  
 설명해주는 키워드인지도 모른다.  
 "파란색"하면 차분하고, 냉정하고, 때로는  
 조용하지만 신뢰를 주는 색이라고 한다. 나의  
 색깔은 파란색,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나만의 이미지이자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4 💬 4

김명빈 (미디어스쿨) 무사히 보냈지만 스스로  
 동메달이라 표현한 하루에 제는 오히려 그 하루를

성실하게 마주한 학우님께 금메달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



2025/05/22  
 thursday, pm 7:51 | 21988  
 박지영 (경제학자)

#11일차 #색 #성고정관념

남자화장실 앞에는 파란 픽토그램이,  
 여자화장실 앞에는 분홍 픽토그램이 붙어  
 있다. 군사 관련 시스템은 주로 파란 계열의  
 디자인을 택하고, 임산부 뱃지는 멀리서 봐도  
 보이는 진분홍 디자인이다. 남아가 그려진  
 기저귀 패키지는 파란색이고, 여아가  
 사용하는 것은 분홍색이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에서 수컷인 라이언은 파란 계열의  
 포장을, 암컷인 춘식은 핑크 계열의 포장을  
 한다. 아무리 양성평등, 성 고정관념 탈피를  
 외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자는 파랑,  
 여자는 핑크' 공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핑크는 원래 남자의 색이었다"

역사적으로 분홍은 '연한 빨강'으로 인식되어  
 왔다. 고대부터 빨간색은 피의 색과 같이  
 강렬한 힘, 에너지, 전쟁, 생명력 등을  
 상징했다.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붉은 색이  
 왕권과 남성성을 나타내는 색이었기 때문에,  
 왕관은 금과 빨간 천으로 디자인 된 모양을  
 떠올리기 쉽다. 로마 군인들은 빨간 망토를  
 입었고, 남자들만 참여하던 투우 경기에서도  
 붉은 천을 사용해 강인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하고 힘 있는 색'으로서의 붉은  
 색은 자연스럽게 남성의 색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분홍색은 옅은 붉은 색으로, 남성의  
 연장선인 어린 남자아이에게 적절한 색으로  
 분류되곤 했다.  
 반대로, 파란색은 여성성을 상징했었다.  
 파랑은 우아함, 차분함, 순결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특히 성모 마리아의 옷 색깔로 자주

묘사되면서 '여성적인 숭고함'을 상징했다. 이런 인식은 미국과 유럽의 19세기~20세기 백화점 카탈로그나 육아 지침서에 '분홍은 남자아이에게, 파랑은 여자아이에게'라는 문구의 등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분홍이 여성의 색이 된걸까. 1920년대 이후, 패션 시장이 팽창하면서 여성들이 립스틱과 볼러서 등 붉은 계열의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화장품 산업은 전략적으로 '분홍은 여성스러운 색'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디즈니의 공주 캐릭터, 마릴린 먼로의 분홍 드레스 같은 대중문화 속 이미지들도 이 고정관념을 뒷받침했다.

분홍은 곧 '부드러움, 사랑스러움, 섹시함, 수동성'의 기호가 되었고, 이는 시장에서 여성성의 시각적 코드로 고착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생물학적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업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 전략의 결과였다.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핑크는 여자색"이라는 통념은 사실 100년도 되지 않은 조작된 문화 코드다.

결국 우리가 가진 성별에 대한 색 고정관념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사회가 주입한 결과다. 색은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니라,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규범을 담은 '기호'로 기능한다. 분홍은 여성성과 연결되고, 여성성은 곧 수동성과 약함으로 번역된다. 이 고정관념은 장난감 매장의 분홍색 구역과 파란색 구역을 넘어, 직장 내 성역할, 가정 내 노동분담, 그리고 성차별적 언어 표현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한 여자 대학교의 남자 교수는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남편의 남동생은 도련님이나 서방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 남편의 집은 시댁이라 부르는데, 아내의 집은 처가집이라고 부르는 사회에서 / 여대 교수라고 하자 '페미 대학'에 있냐고

묻는 사회에서 / '페미나'는 질문이 사상검증과 질타, 혐오의 표현이 되는 사회에서 / 남편이 가사노동을 '돕는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 여전히 독박육아와 독박가사노동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 명절이 지옥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 운동장이 여전히 기울어지고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 양성평등을 역차별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 OECD 가입국 중 여성의 지위가 가장 낮은 나라에서... /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페미니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난 여자지만, 한 번도 사회에 만연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나는 꽤 심한 가부장적 사회 속에 살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아들인 동생은 방에 누워 있고, 장녀인 나는 주방에 있었지만 당연한 줄 알았다. 아들인 동생은 빈소와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장녀인 나는 가지 않아도 됨에 오히려 좋아했다. 아들인 동생만 가족의 돌림자를 쓰고, 장녀인 나는 그런 돌림자를 쓰지 못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아들인 동생의 국그릇엔 고기가 가득하고, 장녀인 내 국그릇엔 파만 가득했지만 그마저도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말을 들은 순간, 이 모든 차별은 너무 익숙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왜 남편의 남동생은 도련'남'이고,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인지 생각해보는 적이 있는가?

당신은, 남편의 집은 시'댁'이고, 아내의 집은 처'가'집'인지 생각해보는 적이 있는가? 남자화장실의 파란색과 여자화장실의 분홍색처럼, 우리의 삶은 무의식 속에서 이미 계급과 역할을 배정받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젠더 갈등이 심각한 요즘 사회에, 더 싸우고 울고 뜯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한다. '페미니즘'이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인지,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이루었는지를 말이다.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을 높여 남성과 평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사상이다. 그 사상의 오용에 대해서도 감론을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잊지 않으면 좋겠다.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답을 알진 못한다. 그리고 진정한 평등이 정말 존재하긴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네 가슴에 평화가 있으려면, 그 어렵고 추상적인 평등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할 것 같다. 부디 이 글이 오해없이 읽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13    💬 3

조은재(간호학과) 그러게요.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네요.. 분홍이 여자의 색깔이라는 통념이 사회가 주입한, 조작된 문화 코드라니... 마치 <1984>를 떠올리게 하는... 머리가 멍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2  
thursday, pm 8:37 | 15998  
장근희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1일차

여름하면 생각나는 색은 역시 파랑색, 혹은 초록색이다. 나는 그 푸름 색깔들이 주는 느낌을 참 좋아한다. 이파리 위에 안착하는 따스한 햇빛, 구름 한 점 없는 파란색 하늘. 색들은 참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머문다. 어떤 날은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인다. 마음이 우울할 때, 아무리 화려한 색들이 주변에 있어도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느껴진다. 반대로 기쁜 날에는 평범한 담장의 페인트조차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빛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은 다른 색들로 옷을 갈아입는다. 봄에는 노랑, 분홍, 초록.

알록달록한 자연의 캔버스가 되고 여름이 오면 온 세상이 푸름으로 가득찬다. 가을이 오면 단풍나무가 불타오른다. 초록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빨강으로. 겨울엔 이 모든 것들이 하얗게 덮일 만큼 새하얀 눈이 내린다.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

이런 다양한 색들이 가득한 나날들, 색은 기억을 불러온다. 우리가 그 계절을, 그 상황을, 오늘을 색다르게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펼쳐질 내일은 어떤 색으로 물들까. 자, 이제 그 미지의 색들을 궁금해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자.

😊 13    💬 3

최현영(금융재무학과) 맞아요. 우울한 날에는 아무리 화창한 하루도 내 마음의 색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2  
thursday, pm 8:37 | 15998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1일차 #오늘의색

스쳐가는 것들에게.

과제를 할 생각에 화가 나기도, 고장나 말린 외장하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는 전화에 기쁘기도, 그만둘 알바 생각에 아쉬우면서 후련하기도, 글을 쓰며 잔뜩 머리를 굴리기도, 오랜만에 옛 추억에 잠겨 슬프기도, 잔잔한 노래를 들으며 나른해지기도, 땀 내리찍는 햇빛에 따듯하기도, 흔들리며 속닥대는 일사귀에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모든 것을 다 쓰기엔 한가득 채우기 모자라도, 한줄씩 흰 도화지에 채우니 오늘의 색은 무지개네.

😊 15    💬 4

김미도(일본학과) 참 많은 일이 있으셨군요. 오늘이라는 하루의 하나 하나 색이 채워져 무지개색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좋은 글 잘 읽었어요!



2025/05/22  
thursday, pm 9:00 | 159회  
임혜빈 (사회복지학부)

#11일자

오늘의 색

아침에 키워드를 본 뒤, 오늘을 색을 찾기 위해 세상을 관찰했다. 집 앞 건물은 흰색, 내 옷은 검정, 지나가는 차는 빨강, 편의점의 간판은 연두... 참으로 다채로웠다. 그러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세상 구경을 한 게 오랜만이라는 것을.

나는 늘 휴대폰만 보여 흑백 세상에 갇혀있었다. 휴대폰 속 화면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그 외에 색깔은 보지 못한 바보였다. 매일 자발적 흑백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니 나무가 물들고, 꽃이 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은 아주 아름다웠겠지...

그 사실을 깨닫자, 버스에 타서도 휴대폰이 아닌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말 다양한 색깔이 지나갔지만, 그중 가장 돋보인 건 초록과 파랑이었다. 곧 여름이라 그런지, 싱그러운 나무와 풀의 초록색이 단연 특별했다. 거기다 아주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까지, 둘의 조화가 무척 빛났다.

그래서 오늘의 색은 청록색이다. 파랑과 초록을 섞었을 때 나오는 청록색. 가장 예뻐던 두 색을 섞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록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인했다. 앞으로 펼쳐질 나의 삶도 청록색이길 바라며.

😊 12    💬 5

김예진(생명과학과) 풀과 나무의 색은 언제 봐도 참 편안하고 싱그러운 것 같아요. 보는 내가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님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2025/05/22  
thursday, pm 9:09 | 149회  
김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11일자

<무지개의 집>

나는 그 집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한다. 동네 끝 언덕 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었다. 낮은 지붕 위로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그게 그냥 착시인지, 내 눈에만 보이는 건지 확인하려고 친구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니,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집을 '무지개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가 온 다음 날이면 혼자 언덕을 올랐다. 어른들은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노인이 오래전에 살았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했다. 나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다.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 무지개처럼.

그날도 비가 왔고 해가 뜰자마자 나는 달려갔다. 숨이 차도록 양말은 진창에 젖고 바지는 흙탕물에 튀어도 상관없었다. 그저 무지개가 또 걸려 있길 바랐다. 그리고... 있었다. 이번엔 아주 선명했다. 놀랍게도 무지개는 그 집의 현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꼭 문 너머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나는 멈췄다. 망설였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은 조용했다. 먼지 냄새..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아주 어릴 적에 맡았던 것 같은 향기.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천장에 달린 유리

조각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 빛이 방 안에 무지개를 흩뿌렸다. 그건 그냥 색이 아니었다. 마치 기억 같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그 빛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릴 뻔했다. 학교도, 집도, 이름도. 그냥 존재하는 느낌일뿐. 피아노 위에 누군가 접어놓은 종이가 있었다. 나는 펴냈다. 글씨는 손으로 쓴 듯 뻑뻑뻑했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다. "무지개는 늘 떠나지 못한 마음의 모양이다." 나는 그 문장을 수없이 곱씹으며 앉아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다.

몇 주 뒤, 집은 철거되었다. 무지개는 더 이상 그 언덕에 머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가끔 비가 그친 뒤 하늘을 바라본다. 무지개가 어딘가에 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떠나지 못한 내 마음을 떠올린다. 그 집, 그 방, 그 빛. 아직도 그 안에 내가 조금 남아 있는 것만 같다.

ps. 소설 연습중!! 너무 어렵습니다 T\_T(오늘은 조금 도움을 받았음..ㅎㅎ)

😊 12    💬 2

이주현(사회복지학과) 무지개라는 것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무지개도 좋지만 어쩌면 그 집에 걸려 있는 모습을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5/05/22  
thursday, pm 9:40 | 200회  
채은비(생명과학과)

#11일자

#오늘의\_색

(파란 글씨는 요아소비의 '군청' 이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정말 좋은 노래이니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아, 언제나처럼 지나가는 날들에 하품이 나와. 시끄러운 밤을 지나 오늘도 시부아의 거리에 아침이 와. 어딘가 공허한 듯한 그런 기분. 시시하네, 그래도 그걸로 됐어. 이걸로 됐어.

푸른색은 대개 슬픔과 우울을 상징한다고 한다. 코로나 불루나 메리치 불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오랫동안 바라왔던 꿈을 포기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이 노래였다. 이루지 못할 꿈이었다고, 그걸로 됐다고, 이걸로 됐다고. 미련처럼 붙잡고 있던 꿈을 떠나보낼 때 생각보다 슬프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사실은 알고 있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없는 내가 두려웠을 뿐이었다는 것을. 지금 나의 꿈이 사실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겁이 나서 정말로 간절한 척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꿈을 포기한 후에 내게 찾아온 것은 농도 짙은 푸른색. 그때의 내게 파랑은 좌절의 색이었다.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멀어져만 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오늘도 다시 분주하게 발버둥치고 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었다. 내 삶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그렇게 지나갔다. 아무 빛도 띄지 않던 그 하루들의 색에서 방향했다.

느꼈던 대로 나아가 스스로 선택한 이 길을.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는 밤에 불들었던 푸르른 다짐.

그때 깨달았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없다면,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났다.

몇 장이든, 그레 몇 장이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려 왔던 거야. 몇 번이든, 그레 몇 번이든. 쌓아 올려 왔던 것들이 무기가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떠난 길에서 나를 붙잡아 주었던 건 그 좌절의 색이었던 푸른 빛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할 수 있던 용기. 숙였던 꿈이라도 그렇게 무언가에 간절할 수 있었던 경험. 자신이 없었지만 그려 왔던 푸르름과 쌓아 올려 왔던 것들이 나의 용기가 되었다. 나의 자부심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파랑은 슬픔의 색이 아니었다.

나만이 낼 수 있는 색으로. 아침도, 저녁도, 계속 달려서 찾아냈던 푸르른 빛. 좋아하는 것과 마주하는 건 지금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이상 지금은 그날의 투명한 내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둘도 없이 소중한 나야.

이제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때 환혼의 비에 나의 어둠을 씻어 내고 마주한 군청의 하늘. 언제나 나를 살아내게 하는 오늘의 푸르름.

나도 모르게 숨겨왔었던 진파 목소리를 들려줘, 어서 못 본 척하고 있어도 확실히 그곳에 지금도 그곳에 있어 나도 모르게 숨겨왔었던 진파 목소리를 들려줘, 자 못 본 척하고 있어도 확실히 그곳에. 너의 안에.

😊 13 💬 4

김미도(일본학과) 요아소비-군청 좋은 노래죠... 가사랑 함께 적으니까 더 와닿네요. 슬픔의 색이었던 파랑이 용기와 자부심의 색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2  
thursday, pm 10:23 | 2025  
조하연(정리학과)

#10일차

검은 반팔, 검은 진, 흰색 에어포스. 여름엔 이렇게 단벌신사로 생활 가능하다. 검은색이 편하다. 오렌지 이즈 뉴 블랙은 누가 장했는가. 내게는 블랙만이 뉴블랙이고 올드블랙이다. 목이 누렇게 변색되지도 않고 김치찌개를 먹을때 신경쓰여 앞치마를 찾을 필요도 없다. 10년 넘게 입은 검은 티셔츠도 물이 자연스레 빠져 맛있게 익은 빈티지 티셔츠가 되었다. 검은색 하니 떠오르는 최근 읽은 논문. 검은색의 대표적인 동물 까마귀에 대한 흥미로운 글이었다.

인간은 400~700nm의 가시광선 영역을 감지한다. 또한 세 가지 원추세포를 통해 RGB, 즉 빨강-초록-파랑의 세 원색을 조합해 색을 인식한다. 색영은 이러한 원추세포가 없거나 기능이 떨어져 특정 파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조류는 인간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원추세포 또한 인간보다 종류가 다양해 사색, 혹은 오색까지 분류가 가능하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은 새의 시선으로 본 까마귀 깃털을 구현한 사진이다. 우리가 알던 까마귀가 스티브잡스에서 바로 멧갈래에 등장할만한 셀럽이 됐다. 놀랍지 아니한가.

우리는 까마귀를 겁다는 이유로 불길함의 상징이라 여겨왔지만 불길함은 물론이거니와 겁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오색찬란한 깃털을 뽐내며 하늘을 활공하고 있던 것이다. RGB 삼원색을 보는 우리도 오로라를 보고 경탄하며 입을 닫지 못하는데, 색깔의 언어가 추가된 까마귀가 보는 세상은 어떠할지. 매 순간 절경에 감탄을 연발할 것이다. 까마귀의 까악까악 소리는 다채로운 색을 가진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예찬이겠구나. 속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까마귀의 실추된 명예를 복권시켜드리기 위해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담이다. 까마귀는 똑똑해서 무례한 인간을 용서할 것이다.



😊 18 💬 5

조은채(간호학과) 빈티지 티셔츠 진심 힘하네요. 새의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니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농담 진짜 헛웃 터졌습니다. ㅋㅋㅋㅋ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2025/05/22  
thursday, pm 11:00 | 2025  
이주원 (심리학과)

#11일차 #오늘의색

오늘의 색은 연두색이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어, 오늘은 해가 뽀뽀할 정도로 날이 좋았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은 무성한 나뭇잎에 해가 내리찍어 연두색으로 빛난다. 습하고, 덥고, 벌레도 무지무지 많은 여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요소. 내가 구를 한 점 없이 맑은 날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오늘 제일 처음으로 본 색도 연두색이다. 나는 기숙사 창가쪽 침대에 있기에 눈을 뜨면 바로 창밖 풍경이 보인다. 끈적끈적, 불쾌한 여름을 미화할 수 있는 연두색. 나는 사계절 중 여름을 제일 싫어하지만, 무성한 초록색 풀잎이 연두색으로 반짝거리는 순간들이 좋아서

가끔 여름을 그리워 할 때도 있다. 겨울이 가질 수 없는 여름만의 색, 연두색. 올해도 여름만의 색을 잔뜩 느끼고 눈에 담아야지. 연두색을 볼 수 없는 계절에도 연두색을 회상하며 견딜 수 있도록.

😊 11 💬 3

김명빈(미디어스쿨) 저두 여름이 짱 싶어요,, 하지만 여름에 찍은 사진 속 연두색이 여름을 미화해주는 거 같아요 울 여름도 잘 버티지요,,!



2025/05/22  
thursday, pm 11:01 | 2025  
서정원(심리학과)

#11일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인식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길에 우는 새소리와 내 발 걸음걸이를 인식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 무형의 것들과 유형된 것들이 주는 것들에 감사를 느낀 적이 언제였던가.

요즘같이 바쁜 날 우리는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한다. 현재로 돌아와서 주위의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 주어진 것에, 소중한 것에 감사해야만 한다. 그것은 새소리, 할인받아 산 커피, 공짜로 베이글을 준 전공박람회, 세로토닌을 분비해 준 좋은 날씨, 미소 짓게 해준 친한 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온 연락, 힘들지만 시원한 환경에서 글을 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들에 감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하고 보낸 바쁜 나날들은 무의미해진다. 끝없는 노력과 끝없는 결과만 있을 뿐이다. 평생을 결과만 산출하다가 죽을 것인가?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 잠시 멈춰

바쁜 삶을 선택한 이유를 복기해야만 한다. 하루의 마무리에 감사일기를 쓰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고마움을 전하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한다.

삶을 반추하기 위해 어떻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을까?

헤민스님의 명상 어플로 명상을 2년 정도 한 적이 있었다.

그와 차크라 명상, 수식관 명상, 마음챙김 명상 등 다양한 종류의 명상을 했지만, 지금 기억나는 명상은 차크라 명상에 속하는 색상 명상이다. 어떤 명상이나, 우선 색상 하나를 설정한다. 뚜렷한 계절의 '초록'으로 설정해 보자. 초록색은 치유를 유도하는 색상이다. 초록에 초점을 맞추면 사랑과 평화, 모성 본능을 자극한다고 한다.

1. 조용한 장소에 앉거나 편한 자세로 눕는다.
2. 여러번 깊게 들숨과 날숨을 반복한다. 이때 규칙적으로 천천히 호흡한다.
3. 지금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자. 앉았을 때 엉덩이와 다리에서 느껴지는 빠근함, 친구, 예인, 남은 일 등에 대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생각하면 "아 나는 ~를 느끼는구나", "아 나는 지금 ~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하고 느낌과 생각을 '인식'하고 다시 들숨과 날숨으로 들어온다. 불편한 느낌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지우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인식'하라.
4. 안정이 된 것 같으면 천천히 눈을 뜨고 명상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초록색을 띠는 물체에만 집중해 본다. 자세와 호흡 방식은 동일하다. 그것들이 현재 여기에 있었음을 관찰하라.
5.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도 초록색에 집중한다.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초록에 집중해라.

😊 13 💬 3

김미도(일본학과) 오호 정원님의 글을 읽어보고 한 번 눈을 감고 명상해보았어요. 뭔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느낌이 오네요 신기합니다. 오늘 글도 잘 읽었습니다!



2025/05/22  
thursday, pm 11:18 | 15:00  
김명빈 (미디어스쿨)

그레이 (Gray) 색이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눈 앞에 펼쳐진 색이다...

졸음은 눈꺼풀에 찰싹 붙어 있고, 피로는 이불 속에서 연좌농성 중이었다. 그 와중에 뮤직비디오 촬영일이라니, 이걸 뭐 몽둥이한테 고소라도 당할 일이다. 억울한 몸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스케줄은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울며 거자 먹기로 일어나 등교부터 하고.. 세 개의 수업을 끝낸 뒤에야 촬영이 시작됐다.

그런데 어라? 조연 역 팀원은 아파서 못 나오고 촬영 보조를 해줄 팀원은 갑자기 과제가 생겨서 집으로 갔다.

남은 건 주인공 역 친구와 나. 둘이서 땀방 아래서 흘린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와 함께 고군분투했다.

근데 웬일? 함께 찍는 친구랑 자꾸 웃음이 터졌다. NG도 실수도 이전 코미디 한 편 똑딱 낼 수 있을 만큼 쌓였고 카메라가 돌 때마다 머리로 시간도 돌고 돌아 줄 줄 기세였다.

무사히 1차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글을 쓴다. 몸은 말진 직전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완벽하게 그레이에서 무지개로 환승 완료했다 ^\_^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2차 촬영이 남았다는 게 방금 떠올랐다, 쟀장 다시 외치겠다.

그레이 (Gray) 색이야!!!!

#11일차

😊 18 💬 11

임혜빈 (사회복지학전공) 역시 팀플레이는 참 힘들죠 ㅋㅋ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2025/05/22  
thursday, pm 11:48 | 18:00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11일차

오늘의 색

나에게 오늘의 색이런? 말에서 퍼스널 컬러가 생각났다. 겨울 소프트 날 도와줄, 돋보이게 할 색.

오늘의 픽: 셔츠 느낌나는 흰색 티와 청바지

사실 퍼스널컬러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알고난 뒤로도 굳이?라는 생각이었다. 몇 년전 쌍둥이가 진단 받을 수 있는 입체에 예약 확정을 해버려 미루고 미룬 내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진단해주신 선생님이 머리를 질근 묶은 내 목 쪽에 천들을 바꾸며 설명하시는데 일단 낮선 환경때문에 또 항상 늦게 잠드는 내가 일찍 일어나 그날도 수면부족인 상태였기에. 나에게 어울리는, 안 어울리는, 무난한 색들로 빠르게 구분해주시는데.. 처음 그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는 아... 점차 오... 나중에는 우와... 라는 그라데이션 반응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진단이 끝난 뒤 드는 생각은 본능적으로 내게 어울리는 색을 알고 있었네? 라는 스스로에 대한 감탄이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웃을 입을 때 나에게 어울리는 색 조합인지 의식적으로 생각한다.

Toned *add gray*

# Deep Winter Soft



Created by Cautiouskitty

😊 11 💬 7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저도 저만의 색, 저와 어울리는 색이 궁금해서 퍼스널 컬러 검사를 받아봤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나에게 어울리는 색이 있다는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2025/05/22  
thursday, pm 11:59 | 11:59PM  
유재하(미디어스쿨)

#11일차  
키워드 : 오늘의 색(color)

[파랑]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창문 커튼 틈으로 들어온 하늘빛이 방 천장을 적시고

있었다. 맑다기보다는 조금 흐린 파란색이었다.  
'파랑'은 오늘 하루 나의 기본 같았다. 창문에는 지난 달에 내가 달아두었던 인디블루색 커튼이 살짝 밀려있고 있었다. 나는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로 그 커튼의 푸른 주름들을 몇 초간 바라보았다. 예쁘진 않았지만 시선이 닿은 그 파랑은 어딘가 차분해보였다.  
곧이어 시계를 보고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벽면에 붙은 바다 배경의 캘린더를 보았다. 이내 조금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무리했던 탓일까. 내 방은 회색이 도는 파란색인데 저 사진 속 푸른 바다는 반짝거리고 아름다워보였다.  
나는 오늘도 그저 흘러가는 하루가 될거라 짐작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 8 💬 2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속사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하늘 빛을 확인 하는 것 같아요! 곧이어 시계를 보고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킨다는 것이 정말 똑같아서 너무 공감합니다

2025/05/22  
thursday, pm 11:59 | 11:59PM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1일차

밤하늘에 걸린 파인애플

오전 8시 30분 기상. 샤워 후 택시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식사.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는 저녁 먹고 복물집 준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복물집.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트라뮤얼리그 촬영. 오후 10시

30분에 촬영 장비를 정리하고 집에 걸어가는 길. 오늘 처음으로 올려다본 하늘은 까만색이었다. 어렴풋이 달이 떠 있는 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하다.

오후 11시 30분이 돼서야 샤워를 끝내고 노트북을 켰다. 확인한 라이팅캘린지 주제가 '오늘의 색'이라니.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던 하루였는데 어쩌란 말인지. "아니 무슨 주제가 날이 갈수록 계속 난해해지나... 이 주제면 칼럼은 고사하고 에세이로도 못 쓰겠는데... 아, 오늘 봤던 색 중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밤하늘밖에 없는데!"

일단 의욕은 살짝 꺾였고, 머리 좀 식히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 간식거리를 찾았다. 비몽사몽하시며 방에 있던 엄마가 내가 문을 여는 소리에 "파인애플 꺼내 먹어..."라고 말씀하시곤 다시 잠에 빠졌던 게 기억났다. 음 역시, 엄마가 벌어들신 파인애플이 눈에 들어왔다. 통째로 사 와서 익느라 2주는 넘게 기다렸던 파인애플이 먹기 좋게 토막으로 잘려있었다.

셋노란 빛을 내며 쌓여있는 파인애플 더미. 젓가락으로 집어 현입 넣었더니 새콤달콤하게 잘 익은 맛이 났다. "아, 이걸 어제 글로 썼어야 했는데! 신맛이 확실히 원기 회복에는 좋네." 춘천이 본가인 필자는 과일을 좋아하시는 엄마 덕에 베타민이 부족할 날이 없다. 새삼스레 앞으로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뒤로한 채 다시 라이팅캘린지를 쓰기 시작했다.

색을 볼 시간도 없이 바빴던 하루의 끝은 노란색 파인애플이었다. 아무런 색을 보지 못하면 검은색으로 세상이 보일까. 그러면 검은색이었던 하루의 끝은 노란색이었던 걸까. 어렴풋이 밤하늘에 걸려있던 달이 떠올랐다. 얇은 노란빛을 띠며 밤하늘을 밝히던 달. 셋노란 빛을 띠며 나의 하루를 마무리해주는 파인애플. 무언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다. 어쩌면, 밤하늘을 올려다본 그 순간부터 나는 파인애플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운명이었다는 게 아닐까.

😊 13 💬 4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정말 너무 바쁜 하루네요 설움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의 맛은 시고 단 그런 현입이 어떨 땐 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025/05/23  
friday, am 12:20 | 12:20PM  
김양선

오늘의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의 색'을 통해 여러분의 다채로운 하루를 몇볼 수 있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라 그런지 싱그런 초록색과 연한 분홍, 활기찬 에너지를 담은 강렬한 색,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은은한 색, 우울한 그레이와 블랙까지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저마다의 '색'을 발견하고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을 관찰하며 매일을 특별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다채로운 무지개색의 나날을 보내기 바랍니다.

😊 16 💬 0

2025/05/23  
friday, am 7:42 | 7:42AM  
김양선

#12일차 키워드 : 버리다  
오늘의 키워드는 '버리다'입니다. 버린다는 건 단순히 어떤 물건을 치우는 일만은 아니죠. 미련을 버리고, 기대를 버리고, 때로는 나쁜 습관이나 관계를 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려본 적이 있나요? 그 결심은 어떤 기분을 남겼나요?

'버리다'를 통해 떠나보낸 것들과 그 이후의 자신을 돌아볼까요?

😊 15 💬 0



2025/05/23  
Friday, am 8:06 | 27일째  
김미도(일본학과)

#12일차

나는 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한다기보다는, 내 습관이다. 물건이든, 미련이든, 추억이든, 인간관계든 수시로 버려버리는 게 나의 버릇 중 하나다. 어릴 적 사진, 편지, 그림 같은 것들도 나는 잘 버렸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왜 버리냐고 물었다. 그럼 내 대답은 간단했다. "필요 없으니까." 아마도 나는 그런 것들을 '질'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왜 그런 걸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붙잡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쪽이 내겐 더 쉬운 일이었던 것 같다. 다시는 못 만날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 그런 것들에 매달리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래서 나는 버리기로 한 것 같다. 나는 가벼워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던지도 모른다. 나는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대신, '내가 버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조금 더 가볍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8 💬 11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저는 버리는 것이 어렵는데, 미도님은 버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니

배워야 하겠어요. 자신의 마음을 위해 버리는 일이 조금 더 쉬워지면 좋겠네요. 즐거운 금요일 보내세요.



2025/05/23  
Friday, am 9:43 | 27일째  
유재원(일본학과)

#12일차

얼마 전 에타에서 누군가가 냉면을 쓰레기통 위에 일회용 그릇째로 버리고 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음식을 쓰레기를 공개적으로 놓았을 때 벌레가 얼마나 모이는지에 대한 실험이라도 하는 건가?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음식을 쓰레기여서 사람들이 그 글에 반응을 많이 한 것인가? 그건 아니다. 에타에 종종 올라오는 글 중 하나가 일회용 컵 이야기이다. 먹다 만 음료를 그냥 쓰레기통 위에 툭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심지어 쓰레기통 위에 부착된 종이에 빈 컵만 놓으라는 말이 있는데도 그러하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양심을 버린 사람'으로 명명된다. 컵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 담배꽂초, 과자봉지 등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상황을 지탄하는 글도 자주 올라온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질러도죽 있다. 나는 쓰레기를 꼭 쓰레기통에 버린다. 당연한 문장이 그렇지 않게 된 요즘이다. 누군가는 그런 나를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이건 융통성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은 양심을 버리며 상황 판단력도 버린 듯하다. 에타에 올라오는 쓰레기 관련 글에서는 다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라고 외치는 듯하지만 실제로도 과연 그럴까? 모두가 바른 말을 바른 행동으로 옮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17 💬 12

김미도(일본학과) 맞아요... 쓰레기 제대로 안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잘 안가르쳐주는 것 같아서, 정말 유치원생때부터 확실하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네요.



2025/05/23  
Friday, am 10:17 | 27일째  
한범현(데이터테크전공)

#12일차

'버리다'는 말에는 이상한 무게가 있다. 단순히 물건을 쓰레기통에 넣는 행위부터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감정을 놓아주는 일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무언가를 버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버린다는 것은 꼭 가벼워지는 일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오래된 편지 봉치를 버린 적이 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받은 것들이었다. 그 편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관계의 것들이었고 동시에 과거의 나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 편지들을 쓰레기봉투에 넣는 순간 기분이 묘했다. 마치 그 사람과의 시간마저도 완전히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버림에는 용기가 있다.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 선택한 '정리'의 행동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결심이 얼마나 내게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버림을 통해 나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을 버린다. 잘못된 기대, 변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까지. 버린다는 건, 곧 새로운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마음의 여백은 결국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된다.

😊 16 💬 10

김예지(사회복지학과) 마음의 여백이 결국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라는 표현이 너무 인상깊어요! 여백을 만들어야 다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느껴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23  
Friday, am 10:24 | 27일째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12일차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나에게는 오랜 습관이 하나 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기억 나지 않지만, 그만큼 오래된 습관이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게 내 오랜 습관이다.

기대를 갖는 것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든,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든, 노력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든 -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 혹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실망감은 감출 수가 없다. 특히나 공을 많이 들였을 수록 씁쓸함은 커진다. 하지만 이 중에 가장 큰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다. 노력에 대한 보상은 최선을 다했다면 주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지만, 타인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측불허하다. (혹시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힘들 때가 있다면 오늘 이 글이 당신에게 버리는 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는 말은 확실히 맞는 말이다.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같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예컨대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속 해줬을 때, 돌아오는 것이 기대한 만큼이 아니면 '내가 해준게 얼마데!'라는 마음을 가지기 마련이다. 나에게 해준 것이 '비교적' 적은 상대방을 탓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나의 노력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도와 기준이 달랐을 뿐이지. 뒷 문단의 행동을 상대방 입장에서 예를 들어보면 엄마와 자식의 관계로 들 수 있다. 어떤 엄마는 자식에게 아침마다 8점 반상을 차려준다. 하지만 자식은 아침을 먹으면 속이 좋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자식이 아침을 먹지 않으면 엄마는 '내가 널 위해서 꼭두새벽부터 만든 거잖니'라고 말한다. 그러면 자식은 속이 좋지 않음에도 어쩔 수 없이 아침을 먹게 되고, 이를 아침마다 반복한다. 그러던 어느날 자식은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차라리 아침에 잠을 더 잘래요."라고 말한다.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 널 위한 것인데, 아침 먹는 거 별 일도 아닐 텐데 그게 힘드니?'라며 자식을 탓할 것이다.

여기에 자식의 노력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손을 높게 들어 그대로 머리를 공 내려치도록 하자. 자식은 자신의 위장 컨디션과 잠을 포기했다. 이 두가지는 자식의 하루 컨디션을 좌우하는 큰 가치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정성을 강요하느라 그를 알지 못한다. 어때 보이는가? 생각보다 많은 관계에 대입되는 예시가 아닌가? 엄마가 갖는 '기대'는 자식이 밥을 먹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자식이 밥을 먹지 않으면 그 기대에 미치지 않아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 뒤에는, 상대방의 입장이 있다.

따라서 나는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아무리 기대해도,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입장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상대방의 노력과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에게 자아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자아가 있다는 뜻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내가 갖는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상대방이 반드시 거기에 부응할 수 없음도 알아야 한다. 무조건 상대방이 내가 한 만큼 나에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사람에게 기대가 많아 힘들다면, 그리고 그 기대가 칼이 되어 마음에 쏘인다면. 위에서 든 예시를 당신을 힘들게하는 인간관계에 대입해보자. 당신이 엄마와 자식 어느 쪽에 속하든 마음을 정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 기대이든, 미련이든, 무엇이든.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의 마음이 더이상 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 13 💬 7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인간관계에 있어, 나 자신에게 있어 큰 힘과 도움을 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를 느낀 것 같습니다!



2025/05/23  
friday, am 10:44 | 19888  
김수진(미래융합스쿨)

#12일차 '버리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내가 예정을 쏟았던 무언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만들어 온 물건들부터  
고등학교 시절의 의미 있는 물건들까지  
내 방 한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하지만 모든 걸 간직하기엔  
제대로 보관되지 못한 채 언지만 쌓여가고  
공간도 점점 부족해진다

그래서 엄마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라고 하신다

하지만 내게는 의미 없는 물건이 없다 하나하나 모두 추억이 깃든 소중한 것들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알게 되었다  
물건을 버리는 데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전에 스스로 정리하고 작별을 하는건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닌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소중한 기억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닌 작별하는 마음으로

물건은 떠나보내도  
그 안에 담긴 추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용기를 내보려고 한다

😊 15 💬 8

함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물건을 버리는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며 행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 용기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05/23  
friday, am 10:53 | 19888  
김예지(사회복지학과)

#12일차 -버리다.

나는 음식을 잘 남기지 않는다. 손이 큰 편이라 음식을 만들 때 양이 많아지고, 배달음식은 항상 1인분이 넘게 온다. 그러다 보니 항상 배가 불러도 음식이 남는다. 문제는 그걸 잘 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까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결국 배가 불러도 억지로 입에 넣게 된다. 한 끼를 끝냈다는 만족감보다는 더부룩함과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다. 음식을 아끼는 마음은 분명 좋은 것이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과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다. 버리지 않기 위해 나를 소모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느끼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처음부터 양을 줄이고, 남은 건 깔끔히 정리할 줄 아는 연습을 하고 있다.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배워가는 중이다.

😊 15 💬 9

김미도(일본학과) 맛있어요.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2025/05/23  
friday, am 11:00 | 19888  
정우현(철학과)

#12일차

저는 버리는 행위를 통해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평소 모으는 것을 좋아해 방에는 많은 것들이 가득 잡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릴 때 쾌감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샀던 물건들을 버린다는 것이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비워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생각도 저는 많이 비워냅니다. 평소에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 정말 저에게 필요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정말 내 생각들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마치 송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저에게는 버리는 행위가

비장한 사람처럼 만듭니다. 마치 버리면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심사숙고한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지식하네요. 지금까지 무엇을 버렸는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비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버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릉 여행에 오니 많은 생각들을 비워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찼었구나 생각하게 되네요.

😊 15 💬 7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 강릉 여행을 가셨군요. 바닷바람에 우현님을 소모시키는 생각들을 흘려보내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5/05/23  
friday, pm 12:57 | 21:00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12일차

버리다

나는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남들이 보면 그냥 쓰레기 같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는 것들도 나에겐 소중한게 느껴진다 나에겐 소중한게 느껴진다 일부러 의미를 부여하려는 건 아니다 그 물건 자체가 내게는 진짜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쪽지 하나, 오래된 인형들 등 그걸 보면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고 그때의 나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쉽게 버릴 수가 없다

내 방은 늘 정리해도 금방 어질러지고 물건들은 점점 쌓여간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건

그 안에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들어 있어서다

언젠가 생각해본 적 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물건을 못 버릴까. 그때 떠오른 기억 하나. 아주 어릴 적에 내가 정말 좋아하던 작은 가방이 있었다 늘 메고 다니고 어디에 갈 때도 꼭 챙겼던 내 보물 같은 가방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부모님은 내가 컸다는 이유로 그 가방을 버리셨었다 난 말도 없이 버려진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때의 실망감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나'를 놓는 것처럼 느껴졌던 게.

😊 16 💬 7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읽으면서 내내 공감했어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 한순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저도 충격받을 것 같아요



2025/05/23  
friday, pm 1:02 | 21:00  
권혁빈(경제학과)

#12일차

버리기 훈련

항상 미련이 남는다. 괜히 아깝다. 후회가 된다. 오래된 물건, 어릴 때의 경험과 선택, 그리고 내 좋지 않은 습관들 모두. 나는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언젠간 다시 꺼내볼 날이 올 거야. 내가 다시 돌아볼 날이 올 거야. 물론 아주 가끔은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내 머리 저편에서, 서랍이나 창고 구석에서 잠들어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간다.

지금 내 방 책상 밑 서랍에도 오래된 물건들이 꽂 차있다. 초등학교 때 즐겨하던 게임 CD, 어릴 때 가족끼리 사진을 찍었던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영어학원을 다닐 때 썼던 전자사전, 이전에 쓰고 계속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등등. 이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와 수능 수험표 같은 집다한 종이들도 섞여있다.

누군가는 굳이 이런 것들을 왜 계속 가지고 있다고 물어본다. 맞는 말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지도, 보지도 않는 계류 같은 물건들이니까. 하지만 막상 버리려면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이 또한 나의 살아온 인생이 담긴 것들이다. 이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일부를 지워버리는 것 같고, 다시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 계속 모아두고 있을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버릴 것들이지만, 먼 미래에는 다른 존재들보다 가장 귀중한 나의 보물이 될것이기때.

오늘도 '버리기 훈련'은 어느 때와 같이 실패로 돌아갔다. 한숨도 잠시, 그래도 위안을 가져본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쓸 때를 찾지 못한 것들을 모아두고 필요한 때를 위해 기다리는 것 뿐이야.

😊 16 💬 8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버리지 마세요... 분명 언젠가 다시 꺼내보면서 배 뜻어지게 웃을 날이 올 겁니다... 진짜루...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23  
friday, pm 1:30 | 21:00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12일차

나에겐 버리는 행위가 너무나도 무겁다.

"버리다." 너무 비참하고 슬픈 말이지 않은가. 더이상 필요하지도 소중하지도 않은 존재이기에 저 너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던져놓으리라 외치는 것 같다. 최선을 다 했던 마음, 무언가로 머릿속이 꽂 차있던 그 시기의 감정, 어릴 때부터 받아온 손편지, 수업시간에 친구와 주고받은 쪽지, 여행을 갔다가 길거리에서 받은 향수 시향지, 바닷가에서 주워온 뽀얀 색깔의 조개껍데기, 지금은 그 어디에도 붙이지 않는 스티커까지. 남들에겐 사소한 모든 것이라고 할지언정 나에겐 그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고 귀하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으면 그 순간의 기억마저 지워지는 것만 같다. 그때 내가 느꼈던 행복했던 감정마저 잊혀지는 것 같다. 그래서 난 버리는 게 힘들다. 사실은 버리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그 모든 것이 들어올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지나간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버겁다. 하지만 버려야 한다는 것의 아쉬움이 버거움을 능가해버린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건 그냥 나인 것 같다.

아마 나는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할 것 같다. 어차피 버리지 못할거라면, 잊지 못할거라면, 힘들 때마다 꺼내서 추억할 수 있게 마음 속 한 칸에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둬야겠다. 그 안에 차곡차곡 쌓아둬야겠다. 생채기 하나 나지 않게. 소중하게

아무래도 버린다는 건 내게 너무 잔인한 일어니까.



😊 16 💬 8

정서진 (인문방송융합20) 마음이 아파가면서까지 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민님께 소중한 것을 우선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05/23  
friday, pm 3:48 | 12:18  
최한영(금융재무학과)

#12일차 #버리다

나는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쉬이 버리지 못한다. 너덜너덜해지다 못해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아찔 수 없이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

인간관계는 내가 가장 못 버리는 것 중 하나다.

친구가 되었던 연인이 되었던. 인간관계는 서로의 호감에서 시작된다. 연인과의 호감은 친구와의 호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크다. 그만큼 관계가 끝났을 때, 내가 입는 타격감도 어마어마하다. 이별을 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영원을 생각했던 그 사람과 이별을 했다. 끝을 생각하고 하는 연애는 없으니까. 너무 너무 아팠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 안 보고 싶다고 되뇌일수록 더 보고 싶어졌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왜인지 마음이

찌르르 아프다. 나는 이별을 하면 상대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을 지운다. 사진첩의 휴지통 기한이 1달인 것을 알고 있는가? 나는 차마 휴지통까지 지우는 것을 못하고 굳이 삭제한 사진을 휴지통에서 몰래 보고 또 봤다. 그러다가 다시 복원하고 다시 삭제하고를 반복한다. 단짝 친구를 끊어내는 일이 쉬운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무한한 애정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버리고 싶지 않아서

연애를 하면 세상이 더 없이 맑고 행복하다. 그만큼 후폭풍도 어마어마하다.

난 더 이상 겪어낼 자신이 없다. 지금은 이유없이 미소가 번지는 날도 이유없이 신나는 날도 없지만 그래도 난 지금 이 삶에 만족한다.

그런데도 내 옆에는,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 15 💬 7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비록 연인과 관계가 정리되어도 현영님 옆에는 현영님을 믿고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2025/05/23  
friday, pm 4:01 | 12:18  
임혜빈 (사회복지학전공)

#12일차

버리다

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쉽게 겁먹고 불안해한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온갖 걱정을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면 잘 해결해 나가곤 한다. 내 익숙함을 좋아하는 성정도 이곳에서 시작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 그로 인해 과도하게 무서워한다. 그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포기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계속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나는 이런 성격을 버릴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것에 용기를 내 도전을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신체적 증상이 올라와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굴레에 빠져버린다. 이럴 때마다 나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진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데, 나만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아주 어릴 땐 이렇지 않았던 것 같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새로운 것에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진 않았다. 오히려 어린 시절엔 겁이 없었고, 어느 상황이든 즐겁게 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크면서 세상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까? 점점 불안이 커졌고,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

나는 이 기질을 버리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버려야 할까?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이 정도면 스트레스를 그만 받을 때가 됐는데, 왜 여전히 학습하지 못하는 걸까? 답답한 마음을 글로라도 표현해 본다.

😊 14 💬 6



김명빈 (미디어스쿨) 학우님의 글에서 묻어나는 마음이 너무 선명해서 마치 제 안의 감정을 들킨 듯 조심스레 읽었습니다.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솔한 고백이네요...! 어떻게든 버려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그 답답함, 참 깊이 공감합니다.



2025/05/23  
friday, pm 5:11 | 12:18  
강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12일차

꿈을 갖지 못했던 나에게 대학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실패'라고 표현하려 한다. 그러나 무너질 수 없었다.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충분히 아쉬울 수 있으나 앞으로의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학을 결정한 것이다.

데이터사이언스학부를 태어나서 처음들어봤고 컴퓨터쪽과도 인연이 없었기에 더더욱 고민이 되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좋아할뿐이지 앞으로 진로에 안착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나라고 하면 NO다. 그렇기에 좋아하는 것은 동아리나 다른 프로그램, 행사에서 이뤄내고 시간을 내서 혼자즐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일본학연구소에 들어오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과에서 진행하는 많은 행사들을 참여하며 사회성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하기 싫은 것, 해야하는 것 모두 다양하다. 대학이 아무리 본인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했던 것을 발견하며 잘할 줄 몰랐던 분야에 날개를 펼칠 수도 있었다. 아직은 입학한지 반학기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유로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씨앗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버리지 않았지만 버려야 하는 것도

존재했기에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 양자택일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공평하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1학기가 아직 진행중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뇌이도록 한다. "버리다" 라는 키워드를 눈으로 담는 순간 이 글이 머릿속에 펼쳐진 것 같다.

😊 13 💬 4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장, 버려야 하는 선택들이 나를 망설이게 하죠. 이게 나올까? 지게 나올까? 하는 고민은 나를 괴롭게 해요. 인생을 살면 누구나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하나 봅니다. 저 또한 그래야 했던 순간들이 많아요. 하지만 순간적인 선택과 별개로 내 삶은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민석님이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받고, 지금 '실패'라고 부르는 선택이 훗날 좋은 선택으로 여겨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23**  
Friday, pm 5:48 | 19:00  
이주원 (심리학과)

**#12일차 #버리다**  
관계를 버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이제껏 두 명의 친한 친구와 관계를 버렸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고민하고, 두 번째는 반 년 동안 고민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대개 그렇듯, 두 번 다 서로의 성격 차이가 그 이유였다. 내가 고민했던 기간은 가식적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관계 버림을 결단력 있게 선택하지 못 했던 이유는,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을 때문이었다. 성격 차이로부터 오는 갈등의 아픔을 겪지 않는 것과 앞으로 보낼 즐거운 시간들을 보존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치있을까, 를 고민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더 받을 수 있는 웃음에 미련이 남았던 것이다. 결국엔

그 미련을 버렸지만. 두 번의 관계 버림 이후, 나에게도 또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생겼다. 남의 단점만 보는 것. 사실 상대방도 나만큼이나 많이 고민했을 것이고, 또 짜증났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의 관계 버림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 했던 것 같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이미 버려진 관계를 주워담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관계에서 이런 습관은 버려야 한다는 걸 몰소 느꼈다.

😊 12 💬 0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이미 틀어진 관계에서 단점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즐거움의 미련보다 갈등의 아픔이 크게 느껴진다는 말이 슬프네요.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으니까 친했던 친구만큼 새로운 인연이 분명 찾아올거예요!**

 **2025/05/23**  
Friday, pm 8:08 | 18:00  
장근희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2일차**  
버리다, 라는 단어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났다. 너무 과해서 오히려 독이 된다는, 그렇다. 때로는 버려야 살 수 있다. 딱 찬 주머니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공간도 마찬가지다.

사실 버리는 일에도 용기는 필요하다. 언젠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물건들, 추억이 깃든 물건들, 나의 흔적이 남아있는 갤러리 속 사진까지. 그 모든 것을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지만 버리는 행위 속에는 선택의 자유도 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딱 찬 내 인생에 필요한 것만 남겨놓는 행위. 다르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 삶을 규정하고, 이 선택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버리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은 아니다. 진정한 소유는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된다. 버리는 것에도 때가 있다. 너무 이르면 후회가 남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 그 적절한 타이밍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인지도 모른다.

😊 10 💬 4

**공나경 (국어국문학과 23) 버리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말에 괜히 뜨끔했네요.. 저 자신을 조금은 내려놓아야겠어요!**

 **2025/05/23**  
Friday, pm 8:10 | 18:00  
공나경 (국어국문학과 23)

**#12일차 #버리다**

'옷 좀 버려라' 자주 듣는 말이다. 입지도 않는 옷을 왜 쌓아두나며 혼이 난다. 고등학교때 자주 입어 미련 해진 옷들부터 너무 커서 못입는 옷들조차 차곡차곡 쌓여있다. 옷장이 가득 차 새로 옷을 살때면 둘 공간이 없는 지경까지 다가왔다.

매일 듣는 소리에 나는 꼭 같은 말로 똑같이 대답한다. '언젠가 입을 수도 있잖아 아까워..' 그럴때면 이해 안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기 일쑤였다.

사실 어쩌보면 집착일지도 모른다. 생일때 받았던 편지부터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들까지 모두 보관한다.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습관처럼 쉽게 버리질 못한다. 소중한 날 입었던 옷들조차 간직하고 싶은걸지도 모른다. 그 옷들을 볼때면 괜히 그날의 기억이 생각나 가지고 온 추억 속의

물건들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쌓이니 이젠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옷장을 정리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옷을 버린다는 건 단순히 추억을 버린다는 것보단 새로운 추억을 쌓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 12 💬 4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저도 편지 내년에는 입을 것 같아서 몇 년을 안 입고 쌓아 둔 옷이 산더미입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2025/05/23**  
Friday, pm 8:51 | 22:00  
이주원(사회복지학과)

**#12일차**  
저는 보통 라이팅 챌린지 글을 쓰면 제 경험이나 추억에 관련지어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항상 그날의 키워드와 관련된 나의 추억이나 경험이 있을까 글을 쓰기 전에 생각해보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억들 하나씩 되돌아보며 늘 하는 생각이 "분명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추억이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추억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거나 강렬한 느낌을 준 것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작은 추억들은 모두 버려지고, 이 추억들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딱딱딱한 추억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버려지는 추억들이 많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이 추억들도 나의 소중한 추억인데 약간의 "이런 추억이 있던 자리다" 같이 흔적만 남기고 버려지는 것 같네요. 버려지는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결국 기억이 나질 않아 맞는 표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많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는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4    💬 10

최서영(식품영양학과) 저도 제가 겪었던 경험을  
글로 쓰는 편입니다. 제 경험을 글로 쓸 때 잘  
기억이 안나서 막막할 때마다 제 기억력을  
탓했는데, 동지가 있었네요..\*

 **2025/05/23**  
friday, pm 5:57 | 1998년  
제은비(생명과학과)

#12일차  
#버리다

마음을 비워내면 무엇이든 쉬워질까.  
마음속에 든 것이 많을수록 점점 더  
답답해진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고, 생각만 많아져  
머릿속에 잡동사니들이 점점 쌓여가는 기분.  
해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도, 시린 추억도,  
씩어 문드러진 감정도, 관계도.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기분은 무심한  
문자 하나에 밀바닥까지 쳐박혀 버렸다. 이  
관계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 그 무심히 던진 편지 하나가 왜 이리  
화가 나는지. 아직 비워내지 못한 기대가  
남아있었다. 아직도 밀바닥에 눌러붙은 채  
사라지지 않는 추억이 남아있었다. 마음은 왜  
쓰레기통을 비워 내듯이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걸까. 오늘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분명  
더 좋은 글. 더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글을  
써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마음껏 상상할  
시간도 고민할 여유도 없는 것이 속상하다.  
버릴 수 없는 것들은 왜 이렇게 야속한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노트북 화면 속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이렇게 속상한지.  
이 관계에 거리를 두고 마음을 비워내 여유를  
만들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친애하는 내 친구야.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나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 12    💬 3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참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는  
글인 것 같습니다. 참 친구를 생각하여 느껴지는  
복잡한 감정은 해결하는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2025/05/23**  
friday, pm 9:43 | 1998년  
조하경(정치학과)

#11일차  
한창 미니멀리즘이 유행할때, 이에 경도되어  
미니멀리스트가 되겠다고 다짐한 친구에게  
말했다.

"미니멀리즘을 실현하려면 우선 뭘 가진 후에  
버리면서 해야할텐데 가진게 뭘로도  
없으면서 대체 어떤걸 미니멀하게 만들거냐"

하고 매운맛 농담을 가한적이 있다. 물론 이  
문장 또한 라이팅 챌린지의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순화한 표현이다. 말은 이렇게 했어도  
나야말로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나중에  
쓰겠지',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를 핑계로  
삶의 잔여물을 미련하게 모아왔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할 때 쓰던 모자, 첫  
직장의 이름표, 물놀이 중 발견했던, 오직  
물수제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듯 한 납작한 돌,  
우도 해변에서 주어진 조개껍질 등 모으면  
이사짐 박스로 몇 박스는 필요할테다.  
초딩때부터 15년을 써온 애착이불도 기를 수  
없을 정도로 달아서 속의 털숭이  
빠져나올때야 겨우겨우 버렸다. 아마 나는  
소라계였어도 여태 바뀌은 소라집들을  
모아뒀을 것이다.

법정스님의 책으로 인해 유명해진  
'무소유'라는 불교의 중심사상이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여서 '불소유'라는 조소섞인  
비판을 받는 혜인스님은 결국 몇년전부터  
방송에서 모습을 감췄다. 혜인스님의  
잘잘못을 따지는건 둘째로 치고 적어도  
혜인스님이 '무소유'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은 옳지 못하다. '무소유'하면  
재산을 갖지않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무소유는 이 세계를 자신의  
의지대로 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소유 유무가 문제점이 아니라, 나타나는  
세계를 내 뜻대로 관계하고 가지고자 하는  
소유적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옛날 한 왕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덕망 높다고 소문난 스님을 초청했다.  
그런데 스님은 도착하자마자 궁의 술을  
마시고, 고기와 안주를 즐기며, 궁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에 왕은 크게 실망하여 물었다.

"스님, 부처님께서서는 탐욕과 현락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스님은 이처럼 세속적인 것을  
거리낌 없이 누리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폐하, 오늘 저와 함께 왕국의 경계까지  
산책을 나가시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걷기 시작했고, 국경에  
이르렀을 때 스님은 국경을 넘어 발걸음을  
올겼다.  
왕은 멍뚱 섰다. 스님이 물었다.

"폐하께서는 왜 오시지 않습니까?"

왕이 답했다.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국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바로 그것이 집착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기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것들이 나를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무소유란 가난하거나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상태, 곧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무소유란 표면적인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음'이다. 삶을 치열하게 살아 돈과 명예와  
지혜를 쟁취하되, 욕심내지 않고 언제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주저 없이 내려놓을 수  
있다면 무소유의 태도를 실천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고고한 철학적 사유는 여기까지 하고,  
알았으면 이번 주말에는 방정리나 좀  
해야겠다. 알면 뭐하나, 실천을 못하는데.

p.s 버리는게 어렵다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책 추천드립니다. 지안을  
미니멀리스트에 빠지게 만든 책이네요.  
버림의 미학, 실천은 어렵지만 매력있습니다.

😊 15    💬 6

김수진(미래융합스쿨) 저도 시간이 될 때  
하경님이 추천하신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3  
Friday, pm 10:21 | 18:18  
김서희(식품영양학과)

#12일차 버리다

나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많은 것을 버렸다. 또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나는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전산회계 2급, ITQ예셀, 포토샵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1.4등급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 후, 나는 나의 노력은 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상업고를 나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때문에 꽤 높은 학점을 받았을 때도 이 학점은 그냥 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떤 책을 읽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23살, 여자, 대학생이다. 내가 상업고 출신인 것도 딱 이정도 인 것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 심리학 책이었는데 그 책에도 비슷하게 쓰여있었다. 한 가지에 집중하다보면 심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멀리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나의 콤플렉스인 상업고가 그냥 나의 일부분임을 알게된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 12 💬 5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맞아요 결국 뭐든 그저 나의 일부일뿐이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걸요!



2025/05/23  
Friday, pm 10:42 | 24:18  
김명빈(미디어스쿨)

4학년.

졸업은 언제하니? 취준은? 자소서는 썼니? 대외 활동은? 동아리는? 그동안 뭐했니? ...를 늘 듣는 삶...

그래서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4시간도 벅찼다.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 '아, 피곤해!' 외치며 쓰러지는 일상. 바쁜 게 맛있는 줄 알고 "년 권잡아"를 백 번쯤 외쳤더니, 결국 권잡지 않은 내가 됐다.

그래서 버렸다!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열불처럼 외우던 할 일들, 기한 없는 자기 개발 리스트와 졸업 전에 끝내겠다던 프로젝트까지 모두가 날 괴롭혔다.

근데 하나들 버리니까 좀 승동이 트었다. 아직 졸업 멀었으니까 조급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중이다. 나도 아직 응애다.. 사회에 나가면 응애다...

근심 걱정을 버리니까 그 아래 눌러서 기를 못 피던 내가 좀 보였다.

가끔은 채우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대단한 용기일지도 모르겠다,

내 인생 내거니까 좀 편하게 살자!



#12일차

😊 14 💬 6

김수진(미래융합스쿨) 맞아요 인생은 내꺼죠! 저도 버리는 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해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3  
Friday, pm 11:11 | 18:18  
원소정(사회학과)

#12일차 #버리다

<완벽주의를 버리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에겐 언종은 습관이 있었다. 바로 미루는 것이다. 과제처럼 시간과 노력을 들이부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미뤘었다. 교수님들께선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셨고 막상 끝내고 나면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발동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미루고 미뤘었다. 미루는 그 순간에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시간에 반은 끝냈겠다.', '한심하다'라고 자신을 자책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 완벽주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제를 잘해내고 싶는데 나에겐 그만큼의 능력치가 없는 것 같고

때문에 시작부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원인을 알고 무조건 완벽하게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시작하기가 수월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자책하는 생각과 완벽주의를 버리니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전보다 줄어들었다. 또, 과제를 하는 것이니 어려운 말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버렸더니 글이 술술 써졌다.

과제를 비롯하여 라이팅 챌린지를 할 때에도 잘쓰고 싶어서 미루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야 허겁지겁 쓰는 학생들이 있다면 나처럼 완벽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보길 바란다.

😊 11 💬 4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원래 완벽주의 성향인 사람들이 그 완벽을 위해 최대한 미루는 특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는 하루가 많이 생기길 바라요!



2025/05/23  
Friday, pm 11:21 | 19:18  
박자영(경제학과)

#12일차 #버리다 #버려지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비교적 쉽다. 작아진 옷가지, 오래된 전자기기, 어린 시절 나를 위로해주던 인형... 한때는 분명 소중한 것이지만 지금은 방 한 칸에 자리만 차지하는 것들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단지 상품으로서의 기능만 했던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나의 어떤 순간들, 감정, 기억들이 깃들여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버린다'는 행위는 단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일부를 떨어내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기억을, 사람들, 감정을 버리는 일은 더욱 복잡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무언가를 버린다. 그리고 그 과정은 때로, 우리가 겪어온 시간의 가치를 하찮게 만들어버린다.

이쯤되면 연애가 끝난 뒤, 받은 선물들을 정리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지우며, 프로필에 남겨둔 흔적을 없애버린다. 마치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없었던 것처럼,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인간됨을 쓴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마음을 버리는 일이 아닐까. 사랑이 시작될 때 느꼈던 설렘, 작은 일에도 웃었던 순간들, 믿고 기댔던 마음, 상처와 실망, 그 모든 감정들을 함께 쥐고 있다가, 끝나는 순간 놓아버리는 것.

나는 늘 연애를 시작할 때 각오를 다진다. 어쩌면 부정적인 기억들 때문인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쓴다는 것이 두렵다. 내가 가진 편견과 상처가 또 다른 잣대가 되어 그 사람의 진심을 왜곡하지는 않을지, 결국 또다시 나 자신이 무너지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열기로 선택하는 것이 나의 연애의 시작이다. 그래서 내게 연애란 단지 사랑의 감정만이 아닌, 용기이자 결심이다. 그러나 연애가 반드시 도래하는 이별 앞에서 나는 또다시 물건들을, 그리고 결국 내 마음의 일부를 버린다. 추억, 신뢰, 기대... 그런 이름의 감정들까지.

하지만 내가 버린 것들엔 분명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정작 그런 내가 그 감정들을 외면하기 위해 애쓰는 사실이 문득 부끄럽고, 미안해진다.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유 하나로 내린 판단이 그 존재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은 아니었을까. 마치 삶이라는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당한 조연처럼, 그들은 나의 삶을 함께 구성했던 소중한 장면들이었는데. 그렇게 '버리는' 행위가 너무 쉬워지면, '이별'이 너무 가벼워지지는 않을까. 나는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일까. 나는 종종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내가 쉽게 버린 것들을 떠올리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 예감한다. 사랑도, 우정도, 익숙한 일상도 언젠가 나를 스쳐갈 것 같은 불안감. 무언가 있었던 자리는 언제나 자국을 남긴다. 그 빈자리를 따라 자꾸만 바람이 들어차고, 그 바람은 곧 불안과 허무함이 되어 마음을 혼돈다. 나는 점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다는 막연한 감정 속에 휩싸인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싶다. 앞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더 잘 들여다보고,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다. 비록 그것이 상처가 되더라도, 그것들이 남긴 흔적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무조건 품고만 있다면, 언젠가 마음이 무거워질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나는 이제 '정리하는 법'을 배우려 한다. 잊기 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정리하는 법. 무가치함의 낙인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자리 하나씩을 남기는 삶. 나는 이제, 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리하고 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 12 💬 3

조은채(간호학과) 쉽게 버리는 만큼 쉽게 버려질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공감되네요. 정리하고 품는 삶... 더 바람직한 태도 같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2025/05/23  
Friday, pm 11:27 | 17PM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12일차  
버린다.

나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걸 잘 못했다. 꼭 원할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생각이 많아져서

시작하는 것 자체를 하기 힘들었다.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어찌어찌 시작을 해도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내가 바보 같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워버려서 너무 하기 싫어했다. 특히 사람들이 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일 때면 더 그랬던 것 같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행평가나 생기부 활동이나 성적 같은 평가를 받는 일이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다. 너무 이런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런 건지를 찾아보았다. 찾아보니 완벽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수 없는 목표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몇 년 동안 있던 나의 기준이 한 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도 조금씩 나 스스로에게 말을 해주었다. 보고서를 쓰는 게 너무 두려워서 시작을 못할 때에도 내 목표는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만이 목표라고 생각했다. 또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를 생각해 보면 완벽주의를 완전히 버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높은 기준에 있던 나의 생각이 많이 허물어졌고 무언가 시작하거나 준비하게 될 때 나의 마음이 많이 편찮아졌다는 것을 느낀다.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나의 생각도 조금씩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니까 바뀌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지 않게 된 것 같다. 사로잡히더라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번 라이팅 챌린지도 처음에 글을 올리는 게 정말 망설여지고 내가 잘 쓴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분들의 글을 읽고 그냥 나의 생각을 공유하면 되는 곳이거나 생각이 들었다. 내가 글을 잘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 13 💬 4

임혜빈(사회복지학전공) 저도 워낙 불안이 많아 새로운 걸 잘 시작하지 못해요.. ㅠ 저는 여전히 이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리경님은 조금씩 이겨내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2025/05/23  
Friday, pm 11:28 | 20PM  
서정원(심리학과)

#12일차

기존의 것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다가 많은 것을 잃었다.

- 깊고 심오한 대화를 할 수 있던 친구 관계
- 유럽 여행 중 알게 된 나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던 친구와의 관계
- 학교에서 알게 된 나와 가치관의 결이 달랐던 친구와의 관계.

내가 설정한 보수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다. 내 가치관을 확고하다고 포장했고, 가치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람 관계이든, 현상이든, 성향이든 간에 모두 '아웃'이었다.


당시에 내 선택에 후회는 없었다. 내 내면에 있는 부조화가 싫어서, 모순적인 것이 싫어서 한 가지 뜻에만 따라 이성 관계를 맺고, 끝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잃은 소중한 관계가 있고, 질적인 교류가 오갈 수 있었지만 가까워지지 못한 관계가 많다.

기존의 가치관의 끈을 조금이나마 놓은 지금, 내면의 모순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에 이전 가치관을 왜 고집하려 했는지는 많은 시간을 걸쳐 생각해야 할 것이다.

환경과 유교 문화 탓이었을까, 가족력이 작용했을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버렸던 것일까.

😊 12 💬 4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가치관이라는 것이 견고하다보면 양면의 동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뭇의 조질에 더 되길 바라요!

 2025/05/23  
friday, pm 11:48 | 18000  
유채하(미디어스쿨)

#12일차  
키워드 : 버리다

[정확모드, 버리는 시간]  
오늘 내가 나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 한 가지를 버리기.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행위를 줄이고, 칭찬 도장 달력에 찍기.  
과하게 억제했던 감정 꺼내주기. 억지로 웃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순간을 떠올려보고 그 감정을 이해한 후 흘려보내기.  
또는, 오늘 하루 나의 감정 중 숨겨진 감정을 찾아 꺼내주고 이름 지어주기. 다른 감정으로 덮으려 했던 순간을 이해한 후 흘려보내기.  
나에게 압박 혹은 부담을 주는 행동, '꼭', '반드시', '완벽'처럼 '했어야 했다'는 생각 중 나를 가장 괴롭혔던 말을 떠올려보기.

[치유모드와 힐링모드, 버리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키워드로 나의 아주 작고 소박한 하루들을 기록하기.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은 것이라도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면 단어들만이라도 자유롭게 고적여보기.  
'Emolog', 'MOODA' 등 감정 기록 어플 사용하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배제시키려만 하지 말고, 힘든 것은 "힘들다"는 언어로 표현해보기.  
불행 중 '다행' 찾기. 불행복 중 무엇에 가까웠는지 수치를 매기기 보다는 다행스러운 일들을 찾아내기. 불행했던 하루였다면 불행하고 괴로웠던 만큼 다행이었던 것들을 하나 이상 발견해 기록하기.

[정리하다'와 '버리다']  
나는 정리하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는 편이다. 잦은 외출이 있거나 중요한 약속이 잡힌 날이면 그 강박이 더 심해진다. 청소를 몇 시간동안 하고, 물건을 다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열심히 치운다. 어느날은 청소를 마치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 때문에 다시 청소를 하기도 한다.  
'정리'는 버리는 행위와 다르다. 불안한 마음을 억제하고 배제시킨다고 해서 그 불안의 핵심이 사라지지 않듯, 해결하거나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놓아주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밑줄 그을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 문장들은 과감히 꺼먹는 것. 정리하는 행위와 버리는 행위는 함께할 수 있다. 이는 정원사의 가지치기와도 같다. 삐죽삐죽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정리한 뒤, 떨어진 나뭇가지들은 과감히 버리고, 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욕심' 버리기]  
생각해보면 나의 노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았다. 운이 조금 안 좋았던 순간이 있었을 뿐이지, 넘치게 애썼던 한주였다. 하루의 끝에 안도감을 느껴본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만 같다. 어제보다 더 고됐던 오늘이라면 그만큼 내가 열심히 달렸다는 의미이니까.  
금요일밤, 어제보다는 풍족해진 마음으로 하루의 끝을 마무리한다. 길었던 한주 끝에 찾아온 금요일, 모두가 평온한 밤을 보냈으면 좋겠다.

😊 10 💬 3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충분하지 않았다는 욕심을 버리고 나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는 순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2025/05/23  
friday, pm 11:50 | 20000  
최연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2일차  
구방심(求放心)

지난달 초에 있던 일이다. 학과 후배와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영상편집을 하다가, 학교 앞 카페에서 음료수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림대에서 필자의 집이 있는 애막골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가 걸린다. 평소에는 학교 일정이 끝나고 집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걸 루틴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날은 기이하게 4월치고는 더워도 너무 더웠다. 마침 같이 있던 학과 후배도 애막골 쪽에서 자취하고 있었던 참이라, 팔호

광장으로 걸어가서 시내버스를 타기로 했다. 학교에서 팔호 광장까지는 20분 정도가 걸렸다. 그 정도만 걸었는데도 땀이 줄줄 났다. 버스정류장에 도착해서 한숨을 돌리고 있던 때, 버스가 도착했다. 망설임 없이 타려던 차에 들려온 버스 기사님의 한 마디. "음료수는 못 가지고 타세요. 내리세요!"

잊고 있었다. 보통 버스 기사님들이 이해해주셔서 까먹었지만, 음료수는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절반 이상 남은 음료수를 흡입할 수 없는 노릇. 결국 길모퉁이에 플라스틱 컵을 급하게 버리고 탈 수밖에 없었다. 무단투기를 했다는 게 신경 쓰였지만, 버스를 놓치고 폭폭 찌는 더위를 버티며 집까지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 아니, 그럴 양심이 없었던 걸까.

별 거 아닌 것 같았지만,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마음에 걸렸다. 그때 그 순간에 필자는 음료수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컵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마음의 눈을 닫으니 그 순간은 편했다. 그러나 집에 온 순간부터 마음에 자꾸 그 순간이 걸려 편히 살 수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환경오염 같은 게 신경 쓰였던 것 보다는 그걸 치울 미화원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양심은 버리기에 쉽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행위보다는 무언가를 외면하는 행위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방심(放心)하는 순간 욕심에 휩쓸려 양심을 버리게 된다.

철학자 맹자는 "사람들은 기르던 닭과 개가 도망가면 찾으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노력을 안 한다"고 말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돈이 걸린 문제이기에 강조하면서, 정작 양심을 버려놓고는 반성할 줄 모른다는 뜻이다. 맹자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행위가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학문을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 즉 구방심(求放心)이라고 표현했다.

그 일이 있고 하루 뒤, 버린 컵을 주우러 다시 버스정류장을 갔을 때는 컵이 사라지고 없었다. 만약 필자가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버스를 보내고 집에 걸어갔을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는 싶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럼에도 인간의 양심은 분명히 존재하고, 실수 속에서도 더 나은 실을 만들어 간다. 컵이 없던 그 장소에서, 나는 버린 컵 대신 버린 양심을 구했다고 믿는다.

😊 13 💬 4

김영빈 (미디어스쿨) 작은 행동 하나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3  
Friday, pm 11:52 | 19:00  
심유진 (바어오메디칼학과)

#12일차 #버리다

수많은 생각들을 소개해나가길 몇 시간 꽤. 다 쓰고 싶다 하지만 내가 번거롭고 읽는 이가 번잡하다.

내가 버린 여러가지의 몇 년을 적어야 할까. 버린것이 자양분이 되었다는 흔한 말을 해야하나. 노트북 휴지통, 내 핸드폰 앱 알약으로 용량 청소도 생각나고..

버리다 라는 주제는 사실 처음 연상되는 것으로 버거워 미뤄왔지만 서서히 조여오는 마감 시간...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오늘 12일차를

끝내겠지.

셀레나 고메즈의 lose you to love me Lose가 '버리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노래의 서사(저스틴비버와의 연애사)를 셀럽들의 공개 연애편지이니 여러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와서인지 더 어이없게 물어서인지 주관적인 해석으로 버리다에서 잃고 잊어지다 라는 마치 한자어 느낌으로 많이 내포된 단어 뜻으로 해석했다.

버리다.. 분명 직관적인 어감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강하게 펼쳐내고 싶다면 간절함이 반어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떠한 숨겨진 뜻 없이 단어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는 의미다. 그렇기에 오늘의 '버리다' 참 어려운 말이었다.

😊 11 💬 4

이주현 (사회복지학과) 마감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붙잡고 계산 것 같아 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2025/05/23  
Friday, pm 11:54 | 17:00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2일차 #버리다

우리 산책 가? 야호! 나간다! 히히, 달리는 건 참 재미있어. 바람도 좋고~ 역시 밤 산책이 최고지. 워야, 차도 타? 병원 가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창문 좀 열어줘봐. 음~ 시원하다. 역시 바람 불어서 머리가 휘날려야 제 맛이이지. 난 차 타는 것도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해주다니 오늘 내 생일인가?

어, 차가 멈췄다. 여긴 어디지... 내려? 나도 같이 가. 너무 캄캄하다 여기. 새로운 냄새가 나는데. 안 와본 곳인 것 같네. 풀 냄새도 나고. 흙 냄새도 나. 이상한 다른 냄새도... 여기서 산책하게? 오잉, 왜 울지. 밤 산책 좋아하잖아. 같이 달려자, 울지 마. 그래, 날 꼭 안아서 다시 웃어봐. 그만 울고~ 근데 정말 여긴 어딜까. 자, 이제 신나게 달려보자! 어디가? 차를 타네. 나는? 차가 움직여, 나도 데러가야지! 어? 뭐야? 어디가? 나는? 어디 가는 건데? 같이 가! 멈춰~ 멈춰봐! 달리는 거 좋지만 같이 달리는 게 더 좋다구! 같이 가지니까! 나 이제 따라가기 벅차... 그만 멈춰... 날 그새 잊은 거야? 왜 안 멈추지. 너무 멀어져서 못 따라 가겠어... 힘들어... 이상하다... 밤 산책은 늘 함께였는데. 아마 무슨 일이 있어 잠시 다녀오는 거겠지. 곧 돌아올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 아니야, 분명 다시 데러러 오겠지... 그렇지? 말도 안 되지. 날 두고 간다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까. 실마... 정말? 네가 길을 잃었나봐.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계속 여기 있을게. 꼭 돌아와줘.

유기 동물의 시점에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 15 💬 4

공나경 (국어국문학과 23) 유기 동물의 시점을 글로 쓴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버리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생각인건지.. 화가 나기도 이해할 수 없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23  
Friday, pm 11:55 | 19:00  
정우림 (정치행정학과)

#12일차 #버리다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함께 냉장고 정리를 하실 때가 생각납니다. 절대 평화로운 정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극단적 미니멀리스트이십니다.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났다 싶으면 바로 버리자고 하십니다. 반면 외할머니께서는 햄스터와 유사한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워튼 일단 쌓아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정리를 하는 날이면 백이면 백, "이걸 왜 버리냐", "이건 못 먹는다" 하시며 두 분은 다투셨습니다.

저는 대체로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질려서 안 먹는 시리얼, 유통기한이 2주 정도 지난 우유, 지난 주에 먹다 남은 치킨같은 건 버려야죠. 당시 외할머니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음식을 쌓아만 두시는 습관을 왜 안 고치시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다 보니 외할머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군요.

(아래 나를 부분은 저희 이모께 들은 내용이며 저희 외할머니께 허락을 구해 작성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총님 보령의 왜 부유한 집의 장녀이자 교사의 꿈을 가진 소녀로 태어나셨지만 어떤 이유로 한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그 꿈을 접고 서울로 향해 기술을 배운 뒤미용사로 일을 시작하시고 가정부로도 일하시며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여 저희 외할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건강도 많이 상하셨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걱정하셨고 외할머니의 그런 연이 자꾸만 음식을 아끼려고 하시는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저희 이모는 설명하십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자랐기에 저와 제 여동생은 거의 외할머니 손 아래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하기만 했던 따뜻한 외할머니가 겪으시고 이루신 많은 것들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희 외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사랑하는 외할머니와의 페이스타임 통화를 위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4 💬 4

최서영(식품영양학과) 할머니에 대한 작성자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05/23**  
friday, pm 11:57 | 27900  
조은채(간호학과)

#12일차 #버리다

너무 많이 버렸다.  
아팠던 일들을 죄다 쏟아내느라 좋았던 일도 무심코 내다 버렸다.

그때의 병든 냄새를 참을 수 없어서 서둘러 집을 청소한 게 문제였다.

당 번 집은 너무 추워서 얼마 후 다시 주워 오려 했지만 쓰레기차는 이미 떠났고 난 쓰레기장에 열중하니 서 있었다.

어디로 분류해서 버렸는지 어렴풋한 기억만 맴돌 뿐 대체 무엇을 버렸는지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었다.

멀군 눈물조차 손에 잡히지 않고 그저 세카만 언지들만 남았다. 밀라블고 바스라진 조각들만

그런데 허무한 남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골목을 지나는 순간 버린 줄 알았던 기억들이 하나둘 나를 따라왔다.  
술술함,  
그리움,  
후회,

그리고 재질대며 귀가하는 아이들. 그 속에 순수한 내가 있었고 내 속에 작은 웃음이 있었다.

나는 다시 어린 나의 손을 잡았고 어린 나는 내 눈물을 닦아 주었다.

와 이거 쓰다가 방전되고 날라가서 복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금요일마다 빠듯하게 쓰게 되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17 💬 10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아팠던 일들을 죄다 쏟아내느라 좋았던 일마저 무심코 내다 버렸다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망심하고 읽다가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아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네요

 **2025/05/24**  
saturday, am 12:23 | 37900  
김형선

오늘의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이 돌아본 '버림'의 순간들은 어쩌면 삶의 불필요한 짐들, 관계와 학업, 자기계발에서 오는 부담감을 덜어내고 다른 단계로 나아가려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버림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낯익은 것들을 비우고, 떠나보내고 대신 그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들을 담아내 보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고, 다음주 남은 3회차도 잘해봅시다.

😊 22 💬 0

 **2025/05/26**  
monday, am 8:18 | 45900  
김형선

#13일차 키워드 : 수박VS토마토 / 뜨거운 여름날, 갈증을 해소해 줄 대표적인 과일이 있다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아니면 상큼하고 건강한 토마토? 오늘은 이 두 가지 매력적인 과일을 주제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맛을 넘어, 수박과 토마토에 얽힌 추억, 특별한 레시피, 혹은 여러분의 삶에 투영된 두 과일의 이미지나 두 과일의 역사까지. 여러분은 어떤 매력에 더 끌리시나요? 여름의 맛과 추억이

담긴 여러분만의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 13 💬 0

 **2025/05/26**  
monday, am 8:40 | 23900  
김미도(일본학계)

#13일차  
저는 무조건 토마토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박, 참외, 멜론 같은 과일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누가 주면 먹긴 하지만, 스스로 사 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 토마토는 어김부터가 참 귀엽습니다. 동글동글한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맛쟁이 토마토입니다. 그냥 생토마토도 좋아하지만, 토마토 케첩,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주스, 토마토 컵라면 등 토마토로 만든 건 기본적으로 다 좋아해요.  
저에겐 같이 사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토마토를 매우 싫어합니다. 편식도 심해서 같이 메뉴 고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그 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채소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저는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다 먹는 편이라, 처음엔 그 친구의 편식을 고쳐보고 싶다는 마음에 "같이 토마토를 키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단칼에 거절당했지만, 제가 뭔가 같이 키워서 먹어보고 싶다고 하니깐 어렵사리 승낙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함께 토마토를 키웠는데, 처음엔 열심히 물을 주고 꽤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이 줄었고... 결국에는 물을 5달이나 안 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래 살아남았죠. 생각보다 토마토는 강했습니다.  
저는 하루 세 끼를 토마토로 해결하고 싶은 정도로 토마토를 좋아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영양소도 글과루 섭취해야 하고, 무엇보다 토마토는 꽤 비쌉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토마토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찾아보니 식물학적으로는 과일로 분류되지만,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채소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 토마토는 과일도 되고 채소도 되는, 꽤 유익한 존재네요. 역시 토마토는 멋쟁이입니다.



😊 15 💬 8

김예지(사회복지학과) 토마토 어감이 참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글도 참 귀엽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6  
monday, am 9:38 | 19일  
강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13일차

점점 날씨는 무르익어가는 중이다. 어쩌면 더욱 빨리, 어쩌면 더욱 느리게 다가온다고 느낄지 모르겠다. 여름했을 때 과일이 아니라도 대표적인 음식은 수박이라고 많이 말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어렸을때부터 수박을 잘 먹으려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하찮은 이유지만 씨를 발라먹기가 너무 귀찮았다. 어머니께서는 죄송하지만 씨를 발라주셔야 먹었다. (물론 지금은 혼자서 발라먹기도, 삼켜먹기도 한다. 그럼에도 잘 먹진 않지만;) 삶의 태도가 결정된 것은 그때부터였을까, 사소한 것까지 귀찮다고 느껴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용변처리와 샤워같은 것들뿐이었다. 마마보이라는 유명한 호칭을 갖다붙여도 할 말은 없었다. 그렇기에 공부든 스포츠든 여러 취미생활이나 다른 필요한 일마저 혼자서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나는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았고 능력도 부족하다고 느꼈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 진정한 '나'를 찾으러 준비된 것없이 여행을 떠났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누구의 도움없이 전부 내 스스로 해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장착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로운도 전파할 수 있었고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현하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내게 되었다.

수박하니까 이렇게나 중요한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었다. 흔히들 말한다. 음식이 예술에 속하냐고. 누군가에겐 과거의 향수를 불러올수도, 정말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킬수도, 건강해질수도 \* \*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어여쁜 음식에선 눈으로도 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몇 년 전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방송에서 배우 박철민씨가 정호영셰프의 요리를 맛보며 눈물을 흘린 것이 증거가 된다. 나는 추억의 음식을 맛본 것은 아니지만 다시 수박을 먹었을 때 이 글이 생각날 것 같다.

p.s 앞으로 며칠남지 않은 글쓰기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려 한다!

😊 13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저도 그 냉부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음식은 맛을 통해 그리움의 대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2025/05/26  
monday, am 10:02 | 20일  
유재현(일본학과)

#13일차

수박은 내게 여름의 초인종이다. 수박의 추억을 생각하면, 학교에 화채 재료를 각자 하나씩 가져와 조별로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시원한 사이타와 과일의 만남은 꿀맛이다. 메인 과일인 수박이 여러 요소를 덕분에 더 맛있어진다. 그리고 계곡에 놀러 가서 먹는 수박도 맛있다. 물놀이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수박이 달래주는 느낌이다. 매년, 집에서 평범하게 선풍기를 틀어놓고 먹는 수박도 맛있다. 이렇듯 내 모든 여름에는 수박이 함께한다. 얼마 전에 올해 처음으로 수박을 먹었다. 수박을 먹으니 여름이 또 찾아왔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여름이 초인종을 눌렀다.

토마토는 무슨 토마토냐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 나는 방울토마토나 꺾꽂이 토마토를 선호한다. 그 외의 토마토에는 그다지 손이 가지 않는다. 방울토마토는 한입에 먹을 수 있어서 손이 가고, 꺾꽂이 토마토는 이를 그대로 꺾꽂해서 손이 간다. 직접적으로

소금이나 설탕을 뿌려먹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꺾꽂이 토마토를 자주 먹다 보니, 일반적인 토마토를 먹으면 맛이 맛있게 느껴진다. 그래서 샐러드에 넣는다는지, 마리네이드를 만든다는지 어딘가에 섞어야 토마토가 묵으로 넘어간다.

글을 쓰다 보니, 화채에 수박과 토마토를 같이 넣으면 어떨지 궁금해졌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도해 봐야겠다.

😊 12 💬 6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실링을 묻힌 토마토만 먹어봤는데 꺾꽂이 토마토는 처음 듣네요. 한번 시도해봐졌어요 맛있을 것 같네요

2025/05/26  
monday, am 10:15 | 20일  
박지영 (경제학과)

#13일차 #토마토 #할아버지

'토마토' 하면 나는 늘 할아버지를 떠올린다. 작년 여름,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 경상도 분이셨던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토마토를 '토마토'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 언제나 정겹게,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도마도'라고 하셨다. 그 말투가 어쩌나 따뜻하고 귀여웠던지, 아직도 귤가에 그 목소리가 생생하다.

할아버지는 토마토를 참 좋아하셨다. 방울토마토든, 큼직한 토마토든 가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할아버지 덕 냉장고 한구석에는 늘 토마토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다지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았다. 방울토마토는 그럭저럭 먹었지만, 자른 큰 토마토는 유독 손이 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도마도가 얼마나 맛있는디" 하며 섭섭한 듯 말씀하셨다. 그 목소리에 서운함이 아주 살짝 묻어 있었지만,

어린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서운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걸 그랬다. 함께 앉아 도마도 한 조각쯤은 먹어드릴 걸. 캔스레 가슴이 먹먹해진다.

할아버지는 도마도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셨다. 어느 날은 직접 설탕 뿌린 도마도를 건네시며 “먹어볼터?” 하고 웃으셨다. 그때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내게 도마도를 권하지 않으셨다. 대신, 할아버지 책상 밑 조그만 냉장고에는 콜라가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먹으려고 산 거야” 하셨지만, 냉장고 속 콜라는 항상 가득했고, 줄어드는 일이 없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그 콜라는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할아버지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도마도를 거부한 손자 대신, 좋아하는 콜라를 준비해두는 마음. 그 안에는 무언한 애정과 기다림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어린 나는 할아버지가 우리와 입맛이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내가 몰랐던 착각이었는지 모른다. 도마도를 좋아하셨던 분이 콜라를 사두었던 진짜 이유는, 결국 우리였다. 지금은 그 도마도도, 콜라도, 모두 할아버지를 닮은 그리움이다. 어쩐지 오늘따라 도마도에 설탕을 뿌려 한입 베어 물고 싶다. 어쩌면 그 맛 너머에서, “도마도가 얼마나 맛있는데” 하고 웃으실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 12 💬 6

최은교(간호학과 20256392) 너무 슬프고 따뜻한 글이었습니다. 정말 다정하신 할아버지를 두셨네요.



2025/05/26

monday, pm 12:03 | 17118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13일차

겉과 속이 모두 빨간 토마토, 겉은 초록이지만 속은 빨간 수박.

토마토는 이미 글을 한 번 썼으니 수박에 대해서 쓰겠지만, 사실 토마토보다는 수박을 좋아하는 게 사실이다.

매년 여름이 되면 엄마는 벽화점에서 수박을 한 통씩 사온다. 힘도 나보다 약하면서, 같이 사러 가자고 말도 안 하고 어느 순간 불쑥 사다놓는다. 엄마가 수박을 손질할 때면 꼭 옆으로 간다. 수박에 칼집을 내고 찌저적, 가르느 소리가 나면 동시에 수박의 시원한 향이 주방에 퍼진다.

단단한 껍질에 아삭하고 빨간 속살. 검은색으로 곡곡 박혀있는 씨앗. 탐스럽다. 엄마는 수박을 큐브 모양으로 잘라 보관용기에 차곡차곡 담다가, 옆에서 뻗어 쳐다보고 있는 내 입에 씨가 없는 부분을 먼저 썩 넣어준다. 입안에 시원한 단맛이 퍼지면 엄마와 같이 마주보고 웃는다. 그리고 나면 엄마도 한 입.

그렇게 손질된 수박은 이틀을 못 간다. 아빠는 냉장고를 열고 손질 수박과 눈이 마주치면 활짝 웃는다. 포크 두 개를 꺼내고 수박 통을 꺼내서 거실에 있는 안마 의자까지, 종종걸음으로 달려온다. 그 걸음에는 수박을 전부 해치워주겠다는 신념이 가득하다.

아빠가 수박을 드시고 있으면, 그 주위로 하나 둘 모여든다. 두 개의 포크 중 하나의 주인인 엄마. 그리고 과일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강아지 둘. 방에 있다가 뭐 먹어? 하고 나오는

언니, 마지막으로 가족들끼리 나 배고 화기에애한 소리에 뛰쳐나가는 나까지.

온 가족이 모여 수박을 나눠먹는다. 아삭아삭 신나는 소리와, 향긋하게 퍼지는 수박 냄새. 올해 여름도 여전히기를.

😊 11 💬 4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온 가족이서 수박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을 먹을 때 저처럼 강아지는 수박을 좋아해서 수박 달라고 옆에서 난리를 치는데 공감어 가는 글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6

monday, pm 12:06 | 15918  
김예지(사회복지학과)

#13일차 -수박

중고등학교 시절, 여름이 되면 우리 집 냉장고에는 항상 시원한 수박이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잠깐 들러, 학원을 가기 전에 꼭 수박 한 통을 먹고 나가곤 했다. 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한 과일이 들어오면 피로가 씻기는 것 같았고, 짭짤한 소중한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기도 했다. 그 수박은 그냥 과일이 아니라, 더운 여름과 긴 하루를 견디는 나를 위해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사랑이었다.

사실 할머니는 직접 수박을 기르기도 하셨다. 워낙 농사일을 좋아하셔서 해마다 도전하셨지만, 결과는 늘 임종했다. 수박을 수확해서 들고 오면 기대 가득한 얼굴로 반을 갈라보시곤 했는데, 속이 하얗게 비었거나 크기가 주먹만 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마주 보며 깔깔 웃었다. 비록 제대로 익은 수박은 아니었지만, 그 웃음과 정성이 수박을 먹는 단맛처럼 기억에 남아 있다. 여름 수박의 시원함 속엔 그렇게 우리의 웃음과 따뜻함이 함께 들어 있었다.

😊 11 💬 4

김영변(미디어스쿨) 와 수박을 직접 기르셨다니 대단하십니다.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사랑이라는 표현에서 뭉클,, 다정한 글 잘 읽고 가요!



2025/05/26

monday, pm 12:28 | 17118  
권혁빈(경제학과)

#13일차

난 안 먹어도 돼.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나마 사과, 배, 파인애플 정도는 있으면 먹지만 그 이외에는 굳이 찾지도 않는다. 내 눈 앞에 있어도 구미가 당긴 적이 없으니 아마 나는 과일이라는 사이가 먼 운명인가 보다. (물론 토마토는 과일인가 채소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했다. 둘 중에서 내가 그나마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래도 둘 중에서는 수박을 더 선호한다. 지금까지 더 자주 먹기도 했고, 토마토 특유의 신맛과 물렁한 식감이 나의 입맛과는 맞지 않았다. 물론 수박을 그나마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없어서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 항상 수박을 사먹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나 그리고 여동생까지 4명이다. 한 통을 사면 항상 남아서 냉장고에 보관된다. 문제는 오래 놔두면 맛이 처음보단 덜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반으로 잘린 한 통을 사면 다소 모자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처음엔 먹을 만큼 고깔 모양으로 잘라놓고 먹다가 남은 양은 속만 모아 깍뚫빔기로 반찬통에 보관한다.

다시 더위가 찾아오고 있다. 아직 완전히 여름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햇빛은 뽀뽀히 빛나며 곧 여름이 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올 해 여름에도 가족들과 같이 수박을 나눠먹는 시간이 다가온다.

😊 12 💬 5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저도 토마토 특유의 식감이 정말 언종아하는데 공감이 가는 글이었어요  
곧 여름이 오면 가족과 수박 먹을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05/26  
monday, pm 12:39 | 2018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13일차  
수박vs토마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토마토를 정말 싫어한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그 식감을 견딜 수 없다

치아로 딱 깨물었을 때 터지는 그 순간.  
속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너무 싫다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진다  
그래서 항상 급식실에서 방울 토마토가 나오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하지만 참 웃긴 게 케첩은 정말 좋아한다  
감자튀김 찍어 먹을 때도, 토스트에 발라 먹을 때도  
그 새콤달콤한 맛은 아주 잘 먹는다

반면 수박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과일이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건 무조건 수박이다.  
확채도 먹어봤지만 수박은 그냥 수박일 때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마트에 가서 수박 고를 때마다 재밌는 것 같다  
사람들은 통통 두드리면서 고르는데  
사실 나는 그 소리 구분은 잘 못하겠다  
대신 수박 배꼽이 작으면 당도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기준으로 고른다. 그게 또 은근

재미있다.

수박 먹을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도 있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수박씨로 얼굴에 별기 놀이도 하고  
누가 멀리 뱌나 시험도 했었다  
그냥 수박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토마토와 수박.  
같은 빨간색이지만 내겐 너무 다른 존재다  
한 쪽은 피하고 싶은 맛이고  
한 쪽은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수박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 15 💬 6

김미도(일본학과) 맛있어요. 제 친구도 토마토는 싫어하는데 케첩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수박 고르는 방법은 도저히 감이 안잡히더라고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26  
monday, pm 2:39 | 2018  
정우철(정치행정학과)



#13일차 #수박VS토마토

전 싫어하는 게 참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지만 사실 더럽게 까다로운 사람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노래하기입니다.  
노래방에 간 경험도 단 두 번뿐이고  
그때마저도 제가 노래를 부른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수박과 토마토 모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햄버거를 먹을 때에도 예외 없이 토마토를 버리고(토마토 농가 여러분께 악감정은 없습니다), 수박도 제가 싫어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박이든 토마토든 제대로 즐겨 본 경험은 전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박파티' 나 '멋쟁이 토마토' 같은 동요를 들으며 귀로 맛본 기억은 많습니다.  
도저히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만 4살의 제가 거의 옷을 벗은 채로 깔깔대며 수박과 토마토 동요를 부르는 영상도 아버지 아이폰에 저장돼 있을 정도로 음악 속 수박과 토마토는 맛있게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키워드가 키워드인 만큼 꼭 들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토마토를 고를 겁니다.

'수박파티'와 '멋쟁이 토마토'는 각 과일에 대한 활용성을 제시합니다.  
수박은 두드리고 쪄서 하모니카로, 토마토는 물에 담가 향까지 갖추고 나와 주스며 케첩이며 심지어 과일 주스에 줌도 준답니다.  
언급되지 않은 활용성도 감안한다면 둘 다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을 관리할 줄 알고, 장점을 드러낼 줄 아는 토마토에게 찬성송 드립니다.

수박에게 좀 미안하네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모 정당의 특정 계파를

공격할 때 쓰는 단어가 되어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라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13 💬 11

김명빈(미디어스쿨) 저두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2025/05/26  
monday, pm 2:53 | 2018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13일차

나는 정말 완전 대박 진짜 그야말로 수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실 뒤에 'VS 토마토'는 보이지도 않았다. 내가 얼마나 수박을 사랑하는지 자랑하고 싶지만 했다.  
오로지 나 때문에 부모님이 퇴근길마다 수박을 한통씩 사오실 정도로 수박에 대한 애정이 큰 나다.

뭐가 그렇게 좋은데?

한입 딱 깨물었을 때 사그락-하여 씹히는 식감, 달다구리하게 흘러나와 입안 전체를 흠뻑 적셔놓는 과즙, 특히 수박을 한입에 넣기 좋은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썰어 우유에 넣어줬다가 꺼내먹는 것..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심지어 나는 씨를 뱉지도 않고 그대로 삼킨다. 정말 수박 그 자체를 순수하게 내 몸으로 들이는 셈이다.

사실 매년 나의 수박엔 아빠의 사랑이 잔뜩 담겼다.

정말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보다도, 냉수보다도, 우유에 담긴 수박을 먼저 찾는 날

위해 매일 저녁 수박을 먹기 좋게 잘라 우유를 붓고 대용량으로 화채를 만들어두시는 아빠 덕에 일주일은 거뜬히 먹고살을 때 꺼내먹을 수 있다. 다 먹어가는 건 그렇게 빠르게 어떻게 아시는 건지 며칠 뒤 또 금방 수박화채가 만들어져있다.

우리 아빠의 따뜻하고 깊은 다정과 애정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수박에 아빠의 사랑을 비유해보니 수박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다.



😊 18 💬 6

김명빈 (미디어스쿨)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따뜻한 글이었어요 우유에 담가 먹어본 적은 없는데 저도 올 여름에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2025/05/26  
monday, pm 3:47 | 14:00  
이주현(사회복지학과)

#13일차  
토마토와 수박 중 고르라면 참 무엇을 고를지 고민입니다. 토마토는 매주 먹고 있는 만큼 좋아하는 과일이고, 수박은 더워지고 있는 현재 시원하게 먹으면 가장 맛있는 과일 같습니다. 그냥 고르지 않고 각 과일에 대한

개인적인 스타일이나 말해야겠습니다! 선택의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네요! 토마토는 지금 먹고 있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제외하고 대추 토마토를 좋아합니다. 작은 알맹이를 딱 깨물었을 때 안 터지다가 갑자기 툭 터지면 입 안에 상큼한 토마토가 퍼지는 그 느낌과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구워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피자를 먹을 때 구워진 토마토가 있으면 토마토가 올려져 있는 피자 조각을 먹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토마토의 단맛도 좋지만 신맛과 향이 너무 좋아 먹나봅니다. 수박은 여름하면 가장 생각 먼저 생각나는 과일인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냉장고에 넣어있는 조각 수박을 한 알 먹으면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북북북이 좀 심하다는 것이 단점인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던 기억을 가지고 다른 수박을 먹었는데 완전 멍망한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실망한 맛의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은 기억이 더 많기에 수박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박 화채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덜 단 수박이라고 사이라도 그 단맛을 채워주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에겐 토마토와 수박 둘 다 무엇이 좋은지 고를 수 없을 만큼 저는 이 두 과일을 모두 좋아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과일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에 오늘 저녁에 토마토나 먹어야겠습니다-

😊 12 💬 10

김미도(일본학과) 토마토나 수박이나 둘 다 장단점은 있죠. 저도 토마토를 참 좋아하는데요. 구워먹어도 맛있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2025/05/26  
monday, pm 5:22 | 20:00  
임혜빈 (사회복지학전공)

#13일차

수박 vs 토마토

우리 가족들은 과일을 정말 좋아한다. 계절마다 제철 과일을 잔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는데, 그중 여름에는 수박을 가장 많이 먹는다. 5월 중순부터 구매하기 시작해 선선해질 때까지 몇 달간 지겹도록 먹다 보니, 우리 집 여름은 수박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부모님은 수박을 잘라서 손질하는 것을 '수박 잡는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말이 참 재치 있고 귀여운 것 같다.

수박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들도 많다. 마트에서 일할 때, 퇴근하면서 수박을 사 오라는 부탁을 받았었고, 10kg짜리 수박을 안아서 집까지 걸어왔던 기억이 있다. 한여름 밤, 무거운 수박을 옮기느라 짜증도 났지만,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들고 온 뒤 괜히 힘들었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최근엔 내가 과일을 잘 먹지 않으니, 자꾸 부모님이 수박을 한입 크기로 썰어 나에게 대령해 주신다. 덕분에 배불러도 계속 수박을 먹으며 반강제 비타민 섭취를 하고 있다.

수박은 우리 가족들의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과일이다.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나는 언제든지 냉장고에서 시원한 수박을 꺼내 먹을 수 있고, 이런 귀여운 추억도 쌓을 수 있었다. 지금도 가족들의 사랑이 듬뿍 담긴 수박을 먹으며, 달콤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 14 💬 9

김예니(법학과) 수박 잡는다 라는 표현 정말 귀여운 거 같아요\*\*

2025/05/26  
monday, pm 7:41 | 23:00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13일차

수박 vs 토마토

저는 무조건 수박입니다. 올해 여름 저만의 목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모든 프랜차이즈의 수박주스를 먹고 왕중왕전 가리기! 현재는 이디야, 메가커피, 스타벅스, 공간만 먹어보았는데 처차 투병 등 다른 프랜차이즈 수박 주스도 먹어볼 생각이예요. 일단 현재까지 먹은 수박 주스를 토대로 제일 맛있는 수박 주스를 알려드릴게요 ^\_^

1. 메가커피

메가커피는 원래 맛있었는데 새로 리뉴얼 되면서 아주 맛있어졌답니다. 약간 아이스크림 수박바 위에를 그대로 남남하는 맛입니다. 생수맛 맛보다는 인공적인 맛이 나긴 하지만 맛있어요!!



### 2. 스타벅스

말해줘해 맛있습니다. 메가커피는 인공적인 맛이 강했다면 스타벅스는 생수박의 맛이 강합니다. 저는 인공적인 맛보다는 생과일의 맛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메가커피보다 스타벅스다 좀 더 맛있었어요. 다만 .. 양에 비해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 3. 공간

학교 앞 '공간' 이라는 곳 아시나요 ?? 수박 주스가 무려 2500원인 가성비같은 곳입니다. 인공적인 맛보단 생수박주스의 맛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스벅이 훨 맛있었습니다. 이곳은 가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 4. 이디아

제 기준 이디아가 현재까지 1등입니다. 생수박의 맛이 그대로 ...

우리끼리, Band!



전체적으로 저렴한 프랜차이즈여도 수박주스는 다른 곳과 가격이 비슷합니다.

-나는 생수박 맛이 좋아요: 이디아 > 스타벅스 > 메가커피 > 공간

-난 아무거나 잘 먹어요. 맛만 있으면 돼요! : 이디아 > 메가커피 > 스타벅스 > 공간

-돈이 없어요 ... : 공간

다들 그냥 이디아는 무조건 드셔봤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 이디아 1년차 알바생이었던 제 친구 피설로 생수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들 이디아 꼭꼭 먹어보세요

😊 17 💬 11

김예지(사회복지학과) 글이 너무너무 귀엽네요! 하나하나 적어주신 후기를 기반으로 맛있는 수박주스를 찾아볼게요! 글 감사합니다!



2025/05/26  
Monday, pm 8:04 | 10:10  
정우현(철학과)

### #13일차

수박과 토마토 둘 중에 고르라면 단연코 수박이다. 당도로 따지나 시원함으로 따지나 수박이 압승이다. 토마토는 새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다. 나는 토마토는 설탕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아무래도 토마토는 사람 자체가 스위트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나는 사람이 새콤해서 단맛이 필요하다. 단맛은 언제나 나를 이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건 단맛이었다.

내가 요즘 깨달은 건 사람들이 단맛이 싫다고 해도 나는 단맛이 제일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그리 신경 쓰지 않게 됐다. 나랑 안 맞는 건 영원히 맞지 않는다. 새콤함은 나랑 거리가 멀다. 단지 새콤함이 단맛과 더 가까워지게 해줄 뿐이다. 새콤함이 있기에 단맛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 새콤함은 단맛 자극제다.

😊 12 💬 6

최은교(간호학과 20256392) 저도 단맛이 제일 좋습니다. 제로 슈가 트렌드가 힘들어요\*\*\*

2025/05/26  
monday, pm 8:27 | 15:00  
이주원 (심리학)

#13일차 #수박VS토마토

여름엔 수박, 마지 공식 같다. 여름 = 수박. 사실 토마토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다. 요새는 스테비아 토마토도 있으니 계절 상관 없이 달달한 토마토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제일 맛있고 달콤한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건 딱 여름 뿐이다. 우리 가족은 여름에 무조건 두 번 이상은 수박을 먹는다. 할머니가 한 번 사오시고, 어머니가 한 번 사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수박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점이 참 좋다. 수박은 씨를 걸러내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포크로 살살 씨를 건어내고, 하나를 꼭 씹어 입에 넣으면 과즙이 잔뜩 나오는 게 너무 좋다. 나에게 수박은 매년 여름 찾아오는 익숙함이라면, 토마토는 가끔 찾아오는 신선함인 듯하다. 나에게 토마토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굳이 찾지 않는 과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끔 먹을 때, 종종 너무 맛있을 때가 있어서 정말 많이 먹게 된다. 서걱거리고 아삭거리는 식감과 대비되는 달달한 맛. 뭔가 오묘하면서도 신선한 맛이 토마토만의 매력 같다. 글 쓰다보니 토마토랑 수박 둘 다 먹고 싶어졌다. 사실 나에게 여름 하면 떠오르는 과일은 딸기인데... 따지고 보면 딸기 스무디지만, 나는 매년 여름이 찾아오면 꼭 딸기 스무디를 마시기 때문이다. 이유도 모르겠고, 언제부터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 어릴 적 여름날의 추억 속에서 나는 항상 딸기 스무디를 들고 있었다. 그게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딸기는 여름 제철 과일이 아니란 점이 참 아쉽다. 딸기만큼 여름에 어울리는 과일은 없는 것 같은데. 눈이 아플 정도로 새빨간 딸기를 보면 열정적인 여름이 떠오른다.

😊 11 💬 6

윤소정(사회학과) 수박은 여름을 알리는 과일인 것 같아요~저도 여름에 가끔씩 딸기가 생각나는데 주원님의 글이 공감되네요

2025/05/26  
monday, pm 8:30 | 14:00  
장근희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3일차

수박과 토마토는 여름의 양대산맥 과일이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다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것이 둘 다 너무 맛있고 다양한 종류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앞 공간의 수박주스, 토마토주스는 내가 이 학교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는 맛이다. 또 빙수는 어떤가. 과거 희망이었던 자리에 있는 빙동당의 수박빙수는 정말 기가 막힌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찬장을 열고 나갈 정도로 맛있었다.

수박의 시원한 단맛이나, 토마토의 상큼한 단맛이나.

나는 웃 고르겠다. 아니 고르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 어느 쪽이든 내가 먹어버리면 그만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이다. 그러니 여름이라는 계절에서 함께 빛나는 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어떨겠나?

😊 10 💬 13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여름의 양대산맥 과일인 수박과 토마토 중에 꼭 한가지를 그래도 꼭! 무조건!고르셔야 한다면 무엇을 고르실건지 궁금합니다!

2025/05/26  
monday, pm 8:53 | 20:00  
조하경(철학학과)

#12일차

가족이 모두 함께 살던 시절, 과일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 가족 어느 누구도 과일을 혼자 먹는 일이 없었다. 주방, 혹은 거실에 모여서 언제나 둘러 앉아 나눠 먹었다. 돌아보면 우리 가족은 과일을 먹는 방식이 특이했다.

토마토는 락앤락 통에 여덟등분하여 마구잡이로 넣은 후에 설탕눈을 뿌려 30분 정도 채워 먹었다. 그럼 설탕이 토마토 중심까지 배어들었다. 다같이 토마토를 먹은 후에는 삼형제끼리 남은 당도가 진해진 토마토 설탕 국물을 한모금씩 돌려먹곤 했다. 언제나 마지막에 먹는 사람은 찰랑거리는 남은 양에 성에 치는 법이 없었다. 어느날, 어머니께서 아침마당을 보시고는 설탕이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악마의 속삭임을 들으셨다. 그날 이후로 토마토 위에는 눈이 그쳤다. 그럼에도 다들 화창한 날씨의 토마토에도 적응하였다.

일요일 밤, 어느 가정집과 다르지 않게 우리 가족도 티비 앞 소파에 둘러앉아 개콘을 봤다. 개콘이 끝나고 일주일의 마무리에 이어 몰려오는 화절감을 언제나 수박이 달래주곤 했다. 어머니는 미리 수박 한통을 반으로 잘라 김치냉장고에 넣어두셨다. 몇시간 넣어두면 표면에 살얼음이 올라와 손가락으로 가를때 뽀뽀함이 느껴지곤 했다. 그때가 가장 맛있는 순간이다. 어머니께서는 개콘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수박 반통을 통째로 들고 오시고는 아버지와 삼형제의 손에 손가락 하나씩을 쥐어주셨다. 우리는 수박을 잘라먹지 않고 파먹었다. 가운데 부분이 가장 맛있기에 다들 차지하기 위하여 아주 전투적이었다. 어느정도 파먹었다 싶으면 어머니는 거기에 철성사이다를 부어주셨다.

그럼 수박을 먹은 자리에 탄산수박화채가 차올라 수박을 대접삼아 벌떡벌떡 들이켰다. 그럼 다음날 등교에 상심한 마음의 부채도 어느정도 화채로 갚아줄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매년 돌아오는 무더위를 건디게 해준 것은 냉수마찰도, KB국민은행 무연점포도 아닌 가족들과 함께 먹은 새빨간 토마토와 수박이었다. 여름이었다...★

😊 14 💬 6

최주연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묘사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6  
monday, pm 8:55 | 20:00  
김병민 (미디어스쿨)

수박은 누가 뭐래도 여름 최고의 답스타다.

하지만 사실 난 수박을 막 열렬히 사랑하진 않는다. 그저 여름이면 한 번쯤 생각나는, 적당히 좋아하는 과일이었다.

하지만... 토마토가 등장하는 순간, 나는 자동으로 수박 사대주의자가 된다. 랜덤 크고 이미지 좋고 누구 앞에 내놔도 호감형인 수박. 토마토와 비교하면 급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누군가 말했다. "토마토가 건강에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는 꼭 감고 한 입 베어 물면...

물컹물컹 시름새름 미적지근 교체도 역체도 아닌 것이 미끄덩미끄덩 입 안을 돌아다녔다.

마치 콧물을 먹은 것 같은 느낌에  
속은 울렁울렁... 허는 칼뿔 요청...  
뇌 조차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하는  
녀석.  
마지막으로 생 토마토 껍질 냄새가 코에  
원투펀치를 날리면...

그 순간, 내 안의 작은 흥선대원군이  
깨어난다.

토마토와의 통상수교를 거부한다!!  
당장 토마토 척화비를 세워라!!!

물론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장다.  
그대의 입맛까지 싫어할 정도로 내가  
편협하진 않다.  
다만, 내 그릇엔 절대 올리지 말아 달라...



#13일차

😊 15    💬 13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토마토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는 토마토 헤어의 괴이 재밌네요

2025/05/26  
monday, pm 9:15 | 10000  
김서희(식품영양학과)

#13일차 수박VS토마토

나는 토마토보다 수박을 더 좋아한다. 더운  
여름날 학교 후 먹는 수박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다. 더위를 식혀주고 갈증을 해소해준다.  
또 수박만의 수분 가득하고 사각거리는  
식감이 참 좋다.

나는 수박 뿐만 아니라 사과, 감, 샤인머스켓  
등 과일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는  
나만의 작은 도전을 하고있다. 여름에는  
수박을 몇 통 먹는지, 겨울에는 귤을 몇 박스  
먹는지 기록을 세우고있다.



작년 여름에는 수박을 2-3통 먹었고  
겨울에는 귤 3kg을 3박스 먹었다. 며칠  
전에는 올해 첫 수박을 먹었다.  
애플수박을 먹었는데 크기만 작고 식감이나  
맛은 일반 수박과 같았다.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수박을 먹으니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이번 여름에는 작년보다 수박을 더 많이 먹고  
싶지만 산불과 물가상승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 12    💬 6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수박 기록 경신!!!  
응원하겠습니다!

2025/05/26  
monday, pm 9:44 | 20000  
채은비(생명과학과)

#13일차 #수박vs토마토 #토마토

얇은 한여름  
낭창한 가지 끝에 매달린 녹색 몽우리  
입살맛은 햇살에 따끔따끔 시달리다가  
아이쿠, 새빨갭게 익어버렸다.  
여름밤은 후덥지근  
방금 막 냉장고에서 꺼내어 기만히 손을 대어  
보면 서늘한 냉기  
단단한 껍질에 칼을 대면 서그럭 하고  
보이는 것은 빨간 과육.  
칼등을 타고 흐르는 푸른 과즙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나아.

과일인가 채소인가.  
또 그런 걸 가지고도 왠지저랄하지  
나는 그런 거 몰라.  
난 그냥 이 새콤함이 좋았던 거야  
사람들 참 싸울 일도 많아.

그냥 한입 베어 물면  
이 사이에서 색 색 씹히는 단단한 식감  
그 사이에서 흐르는 새콤한 과즙  
말캉한 젤리 속 오독오독 씹히는 즙살 같은  
씨앗.  
설탕은 뿌리지 마.  
난 그냥 그 새콤함이 좋았던 거야.  
그 맛 그대로도 충분하잖아.

😊 12    💬 6

김미도(일본학과) 저도 설탕 뿌리는거 안좋아해요.  
그래서 스테비아 토마토도 안좋아하죠. 저도 있는  
그대로의 토마토가 제일 좋더라고요!

2025/05/26  
monday, pm 10:01 | 20000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13일차 '수박vs토마토'

지금의 나는 수박보다 토마토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토마토 중에서도 스테비아 토마토를 제일  
좋아하는데  
달고 과즙이 팍 터지기 때문에  
요즘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예전에는 수박과 관련된 추억이 더 많은 것  
같다  
수박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던 날은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순간들인데  
다른 과일보다 수박은 혼자서 먹기가  
힘들기에  
수박을 먹을 때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새로운 장소, 상황에서  
함께 나눠먹었던 기억이 난다  
계곡에서 먹었던 수박은 무척 시원했으며  
할머니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나서 먹은  
수박은 달았고  
더운 여름 가족들끼리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먹었던 수박은 행복한 맛이였다

그렇게 어린 시절 수박은 가족들과 오순도순 함께 먹으며 추억을 남겼던 의미가 담겨있다 물론 지금은 수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수박에는 좋은 추억들이 담겨있다 그때의 추억들을 되새기며 가족들과 수박을 나눠먹어야겠다 다들 시원한 여름 되세요!

😊 15 💬 8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수진님의 글을 읽으니까 수박이 참 먹고 싶어지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6  
monday, pm 10:11 | 17718  
최현영(금융재무학과)

#13일차 #수박vs토마토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워낙 먹성이 좋고 자제력이 부족해서 명절은 항상 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아이스크림도 가능하면 소화가 잘 되는 때실을 일러서 아이스크림을 대신해 주셨던가 말가루가 가득한 피자 대신 집에 있는 채소가 가득한 엄마표 피자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더운 여름이 찾아 오면, 커다란 수박 한 통을 송덩 썰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신기한 재주가 있습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면 엄마와 했던 탕고 는 언제 기분이 안 좋았나 실을 만큼 저를 박장대소하게 만들었고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는 친구가 한없이 부럽다가도 엄마가 해 준 차돌박이와 열무국수는 그런 마음을 씩 씻겨나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팝콘을 튀겨 재밌는 영화를 보여 주셔서 저는 아직도 비 오는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설레고 좋습니다. 엄마와 함께했던 유년 시절은 달콤한 수박이

한가득합니다. 곧 다가올 여름도 우리 가족과 함께 달콤한 수박이 한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 12 💬 6

김명빈(미디어스쿨) 와 어머니와 탕고라니 남편 넘치는 추억이네요..!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26  
monday, pm 10:11 | 17718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13일차 #수박VS토마토

슬슬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수박이 생각나네요. 물론 토마토는 설탕을 뿌려 먹어도 맛있고 갈아서 토마토 주스로 먹어도 맛있지만 더운 여름날 계곡에서 먹던 수박의 맛이 특히 그리워집니다.

한창 더울 때인 7월달쯤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가 수박을 물에 담귀 깨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라 그런지 그때의 기억이 그리 생생하진 않지만 수박의 맛은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수박을 계곡에 담귀 시원하게 먹으면 한 순간의 더위가 날려가 그만큼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다 지쳐 평상에 앉아 쉬다가 수박을 깨면 눈 속에 시원함을 담은 듯한 느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수박은 다른 과일과는 달리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어디 놀러가지 않아도 집에서 수박을 깨 먹을때면 바캉스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침 오늘 수박을 사오셔서 한입 베어 무니 이제 여름이구나.. 하는 그런 계절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올해 첫 수박의 맛도 역시 아는 것처럼 달달하고 시원해 여름에 에어컨을 꼭

들어야되는 것처럼 수박도 꼭 드시길 바랍니다!

😊 12 💬 6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과일로 계절을 느끼게 하는 맛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수박을 먹으며 행복하길 바라요!

2025/05/26  
monday, pm 10:20 | 10918  
서정원(심리학과)

#13일차

빨간색은 미각과 감정을 동시에 자극한다. 인지심리, 감각심리, 생리심리를 배우다 보면 시각, 미각, 정서가 상호작용해서 같이 연합해서 저장될 수 있고, 셋 중 하나의 기억을 인출했을 때 다른 두 가지 기억도 인출되는 특징을 알아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여름철 토마토의 빨간색을 보았을 때 우리는 푸릇푸릇한 초록의 계절을 떠올릴 수도 있고, 계절이 왔던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강렬한 색 자체가 변연계의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하고, 쾌감 예측을 상승시켜 수박 맛의 만족감 자체를 높일 수도 있다. 그리고 빨간색은 달콤함, 신선함, 완숙을 상징하기에 사람들은 빨간 과육을 보자마자 다른 과일보다 맛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만약에 토마토와 수박이 동일한 맛이라는 가정하에 색이 바뀌어 파란색이라면 그것들을 똑같이 "맛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위에서 설명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은 맛있는 토마토는 빨간색 토마토라서 파란색 토마토를 보고 "맛있었다"는 기억을 인출하기는 어렵다. 또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덜 익었거나, 상했거나, 인공적이 때문에

맛이 똑같더라도 "뭔가 이상하다", "맛없다"는 감각을 유발할 수 있다.

생리심리 내지 신경인지학적으로 접근해도 재있다. 시각 자극은 망막, 시각 감각 수용기, 신경절세포, 시신경, v1을 거쳐 후두엽의 v4(색채 인식을 담당하는 고등 시각 영역)로 전달되는데, 고채도의 빨간색은 v4에서 강하게 반응하고 이 정보는 즉시 변연계의 편도체와 측좌 피개 영역(VTA)로 전달되어 도파민을 분비하게 한다. 이후 도파민 분비를 경험했으면 측좌 피개핵에 의해 빨간색을 보면 긍정적 기대를 하게 되고, NAc에서 섭취 전에 쾌감을 느낄 준비를 시킨다. 반면에 파란색은 마찬가지로 v4에서 처리되고 VTA로 연결되긴 하지만, 익은 열매의 신호를 색상은 아니기에 편도체에서 불확실성 해석이 증가하여 보상 시스템이 억제된다. 이렇게 되면 VTA-NAc 경로의 도파민 활동이 적게 활성화 되고, 뇌는 파란색 토마토와 수박을 보았을 때 맛에 대한 기대를 줄이거나 거부하려는 생리 반응을 유도한다.

얼마 전에 이 공간에 뮤츠와 동반자가 없다더니, 이제는 지쳤더니 주저리주저리 고독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존재가 얼마 전 내 옆에 나타났다.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초록색이 대부분인 찰토마토 대신 새빨강고 맛있어 보이는 토마토를 값을 조금 더 줘서라도 샀다. 생일이기도 해서, 평소에 취미로 삼던 요리를 여기서 활용할 생각이다. 토마토로 크림소스를 만들어 바닥에 담고, 청경채를 버터와 소금에 볶아 올리고, 에어프라이로 크리스피 삼겹살을 구워 그 위에 올려야지. 또 어제 미리 구워둔 바스크치즈케익도 같이 먹고, 시금치피자도 함께하면 좋겠다. 페어링은 어제 우연히 발견하고 사 놓은 토카이 와인(귀부 와인)과 포트 와인으로 함께 해야지!

😊 13 💬 10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파란색이 식욕을 감퇴하는 색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확실히 붉은 색이 맛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나봅니다 신기하네요~

**2025/05/26**  
 monday, pm 10:31 | 12118  
 실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3일차 #수박 #토마토

수박과 토마토는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과일들이다. 수박은 막내를, 토마토는 엄마를.

엄마는 세 딸들을 위해 과일을 종종 사오신다. 오늘은 생 블루베리였지만 한 두달 쯤엔 스테비아 토마토를 사오셨었다. 나는 그 엄청 달다구리한 스테비아 토마토를 밥 대용으로 먹곤 했는데 입 안에서 팡 터지는 과즙이 너무 달콤해서 그 달달함에 엄마의 사랑을 느꼈다.

동생은 수박 킬러라고 할 만큼 수박을 좋아하는데 엄마는 그런 동생을 위하여 두드려 고르고 고른 아마도 당도가 높은 큰 수박을 한통 사오신다. 그 큰 수박을 다듬어 짝퉁살기를 해 큰 락엔락 용기에 담아 먹으라 하신다.

수박과 토마토로 또 다른 여러 과일들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현재진행형인 추억의 과일들이다!

😊 13    💬 8

김미도(일본학과) 어떤 과일이든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과일하면 가족을 떠올릴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05/26**  
 monday, pm 10:48 | 12118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13일차

수박vs토마토

나는 수박과 토마토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수박을 고를 것이다. 수박을 특히 좋아해서는 아니고 토마토를 정말 정말 싫어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부터 변함없이 싫어했던 과일이라서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보고 놀랐다. 내가 못 먹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을 보면 신기하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다.

내가 토마토를 처음 만날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어린이집에서 수영장으로 놀러 갔을 때 선생님들이 간식으로 방울토마토를 나누어주셨다. 나는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긴 토마토를 생각 없이 먹었는데 입안에서 씹자마자 이건 아니라고 느꼈다. 그래서 정말 못 삼킬 것 같았다. 그때 그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이후로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만 같았다.. 그래도 케첩이랑 피자에 깔려있는 토마토소스는 괜찮다. 하지만 토마토 스파게티부터는 먹지를 못하겠다.

오랫동안 싫어한 토마토였지만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면 나도 맛있게 먹어보고 싶다. 그럼 토마토가 들어가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흘러 더 어른이 되면 먹게 될 수 있을까? 음.. 모르겠다. 그냥 수박을 더 맛있게 즐겨먹어야겠다!

😊 12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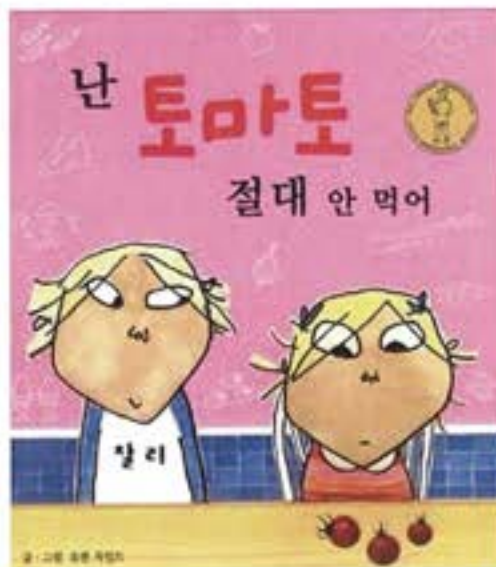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저도 토마토를 먹으면 식감과 맛이 너무 맛있고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잘 읽었습니다

**2025/05/26**  
 monday, pm 11:14 | 12118  
 조은채(간호학과)

#13일차 #토마토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를 아시나요?



토마토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편식하는 여동생의 식습관을 지혜롭게 교정하는 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동화책이죠. 저도 어릴 때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오빠가 있어서, 이 책에 남매가 등장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읽었는데요. 다만 역할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오빠가 토마토를 싫어했고, 저는 맛있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오빠도 토마토를 잘 먹는답니다. 자리면서 입맛이 바뀐 걸까요?) 하지만 비단 토마토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가리는 경우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편식을 꽤 심하게 해서, 이 책 내용이 저에게도 적용된다고 느꼈습니다... 여동생(플라)이 안 먹는 음식: 콩, 당근, 감자, 버섯, 스파게티, 달걀, 소시지, 꽃양배추, 양배추, 콩요리, 바나나, 오렌지, 사과, 밥, 치즈, 생선튀김, 토마토(극도로 혐오함)



오빠(철리)는 까다로운 플라에게 밥을 차려 주려는 부모님의 부탁을 받았습니.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 플라가 싫어하는 음식의 이름을 멋지게 바꾸어 줍니다(당근: 오렌지홍가지뽕, 완두콩: 초록방울, 생선튀김: 바다양남이, 으깬 감자: 구름보푸라기, 토마토: 달치익싸아, ...). 플라는 상상력 넘치고 흥미로운 이름에 매료되어 음식의 맛을 보고, 생각보다 먹을 만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먹겠다던 토마토까지 문제없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늘 통하는 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건강해지기 위해 먹어야 한다'라는 말로 설득하지 못할 때, 이런 재미있는 방법을 써봐도 좋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서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맛없다는 편견에 가로막혀서 시도할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미있는 이름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덮어서 진정한 맛을 느끼고 나의 세계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맛뿐인가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되는지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짐을 정리해서 집에 이 책이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도서관에서 다시 읽어 보고 다른 어린 친구들에게도 읽어 주고 싶네요. 오랜만에 어린 시절 추억 돌리는 책을 생각하며 즐거웠습니다.

😊 12 💬 3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워! 저 이거 어릴 때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는데...! 너무 추억이네요



2025/05/26  
monday, pm 11:16 | 159회  
윤소정(사회학과)

#13일차 #수박vs토마토

<수박vs토마토>

여름하면 생각하는 대표적인 과일은 수박이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행복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수박은 과일이 커서 손질하기 힘들고 씨를 발라먹거나 벨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달달함이 주는 행복이 훨씬 큰 과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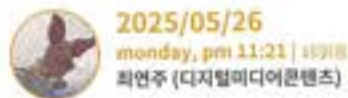
여름하면 수박 말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토마토다. 어린시절 토마토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을 뿌려먹었다. 요즘엔 토마토에 설탕을 뿌린맛이 나는 스테비아 토마토가 나오지만 어릴 때 설탕을 뿌려먹었던 기억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또, 어릴 때부터 엄마께서 토마토를 직접

갈아주셨었다. 요즘은 어릴 때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갈아주시는데 먹을 때마다 어린시절이 많이 생각나는 맛이다.

사실 나는 토마토를 정말 좋아한다. 그냥 먹기도 하고 주스로도 먹고 심지어 리면에 넣어먹기까지 한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토마토라면 정말 맛있다. 열라면이나 진라면 매운맛 같이 매운국물이 깔끔한 리면에 방울토마토 기준 5~7개를 반을 썰어서 같이 넣어먹으면 맛있다. 토마토를 좋아한다면 한번 먹어보길 추천한다.

😊 10 💬 7

최현영(금융재무학과) 토마토라면이라...예전에 런닝머신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소정님의 말씀에 힘 입어 한 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6  
monday, pm 11:21 | 159회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3일차 #수박vs토마토

수박보다 토마토가 좋은 이유

1. 쓰레기가 적다. 수박은 껍질이 두껍고 커서 처리하기 불편하다.
2. 토마토는 하우스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3. 방울 토마토는 한 입에 쏙 들어간다.
4. 토마토만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있어 요리에서 항상 메인 재료다.
5. 자르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6. 씨도 먹을 수 있다.
7. 토마토 요즘 유행이다. 문구류, 스티커 등 요즘 디자인에서 토마토가 빠지지 않는다.

어릴 땐 둘 다 좋아했지만 크고 보니 칼로리도 낮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가 더

좋아졌다. 씨 바를 필요도 없고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토마토! 야식으로도 딱이다.

😊 12 💬 4

윤소정(사회학과) 공감이 가는 좋은점 같아요! 토마토는 맛도 맛있지만 역기에 편해서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5/05/26  
monday, pm 11:32 | 229회  
최현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3일차

화채(花菜)의 정치학

교수님은 오늘 주제를 정하시면서 학우들의 아기자기한 문장이 수놓인 '수박 예찬글'이나, 어렸을 적 추억이 등롱 담긴 '토마토 찬양글'을 기대하셨을 거라고 감히 짐작해 본다. 아나나 다들께, 학우들의 참여한 논쟁과 열정적 호소로 토마토와 수박의 명예를 건 대리전은 용호상박(龍虎相搏)으로 치달고 있다. 열띤 '수박 vs 토마토 논쟁'에 필자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려 한다. 세상 모든 과일은 상큼함과 달콤함의 결정체요, 비타민 보충의 필수 요소다. 유독 어떤 과일만 중요하겠는가? 무조건 토마토다. 무조건 수박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있으면 먹는다. 없어서 못 먹는다. 그뿐이다. 다만, 허필이면 수박과 토마토라서, 생각난 주제가 있어 글을 올린다.

"너 수박이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몇 년 전부터 자주 쓰이는 말이다.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한국 정치의 '색깔론'을 떠올려보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은 파란색(초록색)이 상징이고,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은 빨간색이 상징이다. 그럼 수박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같은 초록색인데 쪼개어 보면 빨간색인 사람, 즉 겉으로 활동하는 건 진보지만 속은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수박'이 정치계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기였다. 당시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때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원은 수박이라고 불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에게 힘을 실는 쪽(진명)과 이재명에게 힘을 실지 않는 쪽(비명)으로 나뉘었기에 벌어졌던 상황이다. 심지어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가 등장해서 당도가 진하게, 더 빨강계, 잘 익은 수박같은 정치인일수록 국민의힘 접자일 확률이 높다는 비난까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겉이나 속이나 똑같이 빨간 토마토(정통 보수)나, 겉이나 속이나 똑같이 초록빛인 열론(정통 진보)들은, 배신자로 취급받는 수박의 마음을 알 리가 없다. 배신자로 낙인 찍힌 그들은 열론이 내뿜는 부드러운 단맛과 토마토가 주장하는 상큼한 단맛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 몸에 더 적합한 단맛인지 고민하며 수박만의 시원한 단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모든 정치인은 울바름과 지혜로움의 결정체여야 함이요, 민주주의 성립의 필수 요소여야 한다. 유독 어떤 정치인만 중요하겠는가? 철학자 공자가 말했다, "세상에는 무조건 이래야 한다, 무조건 저래야 한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중지의(時中之義)다. 언제나 의(義)에 견주어야 한다. 이후 정의에 맞으면 행하고, 정의에 맞지 않으면 멈춘다. 그뿐이다.

최근 김상욱 국회의원은 자신의 소속을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이번에는 겉만 빨강고 속은 노란빛인 '사과'

같은 배신자라고 비난할 생인가? 지금 필요한 건 하나의 과일이 아니라, 모든 과일을 담은 화채(花菜)다. 토마토, 수박, 멜론, 사과까지 모든 분파를 아우를 화채 그릇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모든 과일을 감싸 안은 화채의 풍부한 단맛이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노력은 대선 후보들의 몫이다.

😊 8 🗨️ 3

김영변 (미디어스쿨) 아아 사실 저도 수박 보고 그 뜻이 떠올랐어요. 이제 곧 대선인데 후회하지 않을 선택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국민들의 갈등이 해소되길,,!!

 2025/05/26  
monday, pm 11:55 | 17918  
유재하(미디어스쿨)

#13일차  
키워드 : 수박VS토마토

나는 토마토보다 수박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요즘은 토마토도 매력에 있는 것 같다.

특히나, 토마토 중에서도 탱글탱글한 시원한 방울토마토가 가장 좋다. 방울토마토는 우선 생긴 게 동그라미같이 귀엽게 생겼다. 피자, 토띠아, 베이글, 샌드위치, 바게트, 달걀 등 다양한 음식에 토핑이나 소스로도 활용하기 쉽다. 빨간 빛깔에 동글동글한 방울토마토를 먹으면 우울하다가도 기분이 오히려 좋아진다. 방울토마토는 껍질도 질기지 않고 맛있다. 새콤하기도 하고, 씹다보면 안에 더 새콤한 토마토즙이 터지는데 그 맛에 여름마다 토마토를 먹는다. 나는 생과일 토마토 주스도 좋아한다. 집에서 꿀이나 알룰로스 넣은 얼음을 갈아 만든 것을 가장

애정한다.

수박은 김치 냉장고에 넣었다가 실얼음이 생겼을 때 꺼내 먹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수박은 당도가 높아서 여름에 당중전이 필요할 때마다 찾게 되는 과일이다. 나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은 정말 힘든 계절이다. 그래서 여름에는 참외, 오이, 복숭아처럼 아삭하고 시원한 것을 자주 찾게 된다. 씨를 빼 먹는 것만 빼면 말기나 복숭아 다음으로 아마, 수박을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여름에는 더위를 견뎌내기 위해 찬 음식으로 급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씨 빼먹는 재미를 느끼며 수박을 먹듯, 좀 더 여유있게 제철 과일과 음식들을 맛보고 싶다. 이번 여름은 장마철이 한달을 넘길 거라고 한다.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얼른 싱싱한 과일들을 많이 즐기고 싶다. 때론 집에만 있으면서 토마토와 수박을 천천히 먹고 싶다. 장마철에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쟁여 둔 제철 과일들을 먹고 싶다.

😊 10 🗨️ 4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실얼음 생긴 수박.. 인정합니다! 거의 수박바나 수박사베트 느낌 날 때도 맛있는 것 같아요! 하. 칭 고여요~

 2025/05/27  
tuesday, am 12:21 | 23918  
김영선

오늘의 글쓰기 마감합니다. 달콤하고 수분 가득한 수박의 매력과 상큼한 토마토의 매력이 치열하게 맞붙는 동안, 우리는 여름날의 다채로운 풍경과 추억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넘어, 여러분의 맛 취향까지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부쩍 여름이 느껴지는

글들이네요. 이토록 각자의 색과 맛을 뽐내는 수박과 토마토처럼 각자의 개성이 빛나는 일상의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 13 🗨️ 0

 2025/05/27  
tuesday, am 7:57 | 20918  
김영선

#14일차 키워드: 잠 / 잠들다  
하루의 끝에 우리는 잠에 들고, 때로는 꿈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잠드나요? 쉽게 잠들 수 있나요, 아니면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나요? 잠들기 전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을까요? 또한 '잠들다'는 단어가 비유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열정과 분노가 잠들고, 관계가 잠들고, 계절이 잠들기도 하지요. 어르신들이 사망하면 우회적으로 이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잠들다'라는 키워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 14 🗨️ 0

 2025/05/27  
tuesday, am 8:43 | 20918  
김매도(일본학과)

#14일차  
나는 잠에 드는 게 쉽지가 않다. 잠드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편이다. 누가 나보고 밤을 새라고 하면, 여유롭게 밤낼 수 있다. 잠 든다 하니, 어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었다. 그런데 밥 먹자마자 애들이 다 잠들었다. 나만 깨어 있었고, 심심해서 자지 말라고 열심히 깨워봤지만 다들 밤 11시 30분까지 꿀아떨어졌다. 결국 나는 혼자서

놀았다. 학창시절에도 수학여행을 가면 잠 못 잤다. 전날부터 남들과 자야한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못자는데, 낯선 장소인 점이 가장 큰 이유고, 누가 내가 자는 모습을 본다는 게 싫어서, 아예 안 자버린다. 불면증을 고쳐보려고 수면제를 먹어본 적도 있다. 잠드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깨고 나면 정신이 너무 몽롱해서 집중이 안 됐다. 그래서 그것도 며칠 못 가서 그만뒀다.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나는 주변 소리, 냄새 같은 감각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 잠을 더 못 잔다. 하얀 누구랑 같이 자더라도 나 혼자만 깨어있을 때가 많아 외롭다. 학창시절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혹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하나'고 물어봤었다. 안 만진다. 정말로,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거다. 물론 그렇다고 매일 안 자는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 3-4일 정도 못 자면, 그제야 몸이 알아서 잠이 오는데, 그래봤자 겨우 4시간 정도. 너무 오래 못 자서, 요절할까봐 두렵기도 하다.

😊 14 🗨️ 9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핸드폰을 하지않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신다니 정말 고맙스러우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몸을 피곤하게 하면 잠이 잘오는데 운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5/05/27  
tuesday, am 9:01 | 2318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14일차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잤다.  
오늘도 감기지 않는 내 눈을 기다리다  
잠이 혼자 먼저 잠들고, 잠의 웃도, 잠의  
신발도  
잠의 문패도 잠들고  
나는 남아서 혼자 먼저 잠든 밤을  
내려다본다.

-남들이 시를 쓸 때, 오규원 中

좋아하는 선생님의 시에서 발췌해왔다.  
'남들이 시를 쓸 때'라는 제목을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듯이, 자기성찰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이다. 밤, 자기 전. 성찰을 헛속  
깊이 하는 시간이다. 나는 잠에 쉽게 들지  
못한다. 생각이 많고 복잡하여, 걱정도 많다.  
잠에 들기 전이면 하루, 일주일, 한달, 일년  
혹은 그 이상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며  
지나간 시간 속에 있는 나를 들여다본다.

잠 못드는 밤이 괴롭지만, 하루 중 유일하게  
조용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내일의  
피곤함이 예정되어 있어도, 더 나은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루틴이다.

잠에 들기 전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나를  
되돌아보다 보면, 새벽 네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 될 때가 많다. 잠을 알게 자기 때문에  
많이, 오래 자기라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일교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래 잘 수  
없다. 그래서 늘 만성 두통에 시달린다.

반성할 일이 줄어들면 잠 못드는 밤도 함께  
줄어들겠지, 언젠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하루의 끝에 편안한 잠에 들기를 바란다.

😊 13    💬 7

김예지(사회복지학과) 생각이 많으면 몸이  
피곤해도 잠에 들지 못하는거 같아요. 반성도  
가지 않지만, 잠에 들지 못 한다면 오늘의 정찬을  
해주며 내일의 나를 위해 잠드는 건 어떨까요?



2025/05/27  
tuesday, am 10:19 | 17518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14일차  
잠들다

나는 오늘도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머릿속이 조용해질 틈 없이 자꾸 생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험은 얼마 안 남았고, 해야 할 건  
산다미처럼 많은데  
막상 책을 펼치면 손은 멈춰있고 마음만  
분주했다

이상하게 피곤할수록 더 잠이 안 온다  
불 끄고 폰도 멀리 던져두고 눈을 감아도  
도파민을 다 끊은 줄 알았는데  
걱정들이 조용히 다가와 나를 에워싸기  
시작한다  
편찮을까?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닐까?  
그 질문들에 대답하다 보면 새벽이 온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꿈을 꿴다  
꿈속에서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이 웃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그 꿈의 따뜻함에 잠시  
기대고 싶어서.  
이상하다 꿈에서 쉬고 싶다니.

어쩌면 지금 내 마음이 가장 원하는 건  
휴식보다 '잠든다는 감각'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아무 생각 없이 폭 꺼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기다려진다

😊 15    💬 7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자기 전에 온갖 질문에 대해  
검색하고 생각하면 잠이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저도 어제 팔 사야할지 쿠팡으로 질문의  
답을 찾다가 시간을 많이 버려버렸습니다..



2025/05/27  
tuesday, am 10:40 | 15918  
김예지(사회복지학과)

#14일차 -잠

잠은 매일 하는 일이라 별생각 없이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  
하나인 것 같다. 예전에 방송에서 사람을  
'통슬리퍼'와 '웃슬리퍼'로 나누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통슬리퍼이다. 8시간  
이상은 꼭 자야 다음 날이 개운하고, 덜 자면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예민해진다. 그런데  
나는 단순히 잠을 오래 자는 것만이 아니라,  
꽤나 규칙적인 수면 루틴도 가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우리 집 고양이  
때문이다.

매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가 되면  
고양이가 조용히 이불 위로 올라온다. 내가  
이불을 열어주면 슬그머니 품에 안긴다. 그럼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감는다. 고양이를  
살살 쓰다듬어 주면, 골골골골 소리를 내며  
스르륵 잠이 든다. 잠이 안 오는 날이더라도  
이 소리를 들으면 잠이 참 잘 온다. 이 장면은  
매일 반복되는데도 늘 귀엽고 따뜻하다. 더  
웃긴 건, 우리 고양이는 잠들기 직전에 꼭  
한숨을 쉰다는 거다. 마치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았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잠이란,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존재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 13    💬 7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고양이와 잠드는 그  
시간..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소중한데요!



2025/05/27  
tuesday, am 10:54 | 20918  
임제빈(사회복지학과)

#14일차

잠, 잠들다

키워드를 보자 날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에  
당황스러웠다. 아침 일찍 부모님이  
출근하시는 소리에 깬 뒤, 다시 잠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늘 할 일도 많고,  
늦게까지 학교에 있을 텐데, 더 자지 못하는  
내가 한탄스럽다. 그래도 덕분에 이른  
시간부터 글쓰기를 시작하고 있다.

나는 약 3년째 불면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ASMR 듣기, 클래식 듣기, 명상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해 약을  
찾기 시작했다. 현재는 꾸준히 병원에서  
처방받으며, 일주일 중 6일은 이 약을 먹고  
잠드는 것 같다. 약 없이는 밤을 새우거나  
해가 떴을 때 겨우 잠에 들지만, 약만 있으면  
2시간 내로 쉽게 숙면할 수 있어 나의  
필수템이 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치료제의  
단점이 보이곤 한다. 복용 다음날엔 더  
피곤하고, 낮잠을 자고 싶어진다. 그러다  
보니 카페인으로 하루를 버티고, 커피로 인해  
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다. 그렇다고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서 카페인을 필요로  
하고, 또 내 위 상태는 나빠진다. 참 답도 없는  
몸뚱어리다.

잠을 자지 못할 때마다 우리 아빠가 생각난다.  
아빠는 뒤통수에 스웨치가 달린 것 처럼  
피곤하면 어디서든 스르륵 잠든다. 소파에서,  
바닥에서, 의자에서... 밤만 되면 어디서든

꾸벅꾸벅 졸다 방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나는 이 능력이 질투 날 정도로 부럽다. 어릴 땐 나도 아버지처럼 편하게 잠드는 사람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세상에 따지고 싶다.

😊 16 💬 5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생각이 많으면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서 그 마음이 공감됩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7**  
tuesday, pm 12:00 | 21988  
김영민 (미디어스쿨)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할 일을 대강 끝내두고 자체 절전모드에 들어갔다.

주5일 등교와 출근도 막지 못하는, 주말은 헌법상 나의 기본권-그중에서도 수면권-을 보장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그 권리를 충실히 행사했을 뿐이다. 행사 시간이 18시간이었다는 점만 다를 뿐...

그렇게 일요일 아침 10시 30분까지 자버렸다...(ㅋ)

하지만 후회는 없다!  
마치 학교 와이파이에서 걸려 무한 버퍼링 중이던 내 뇌가, 데이터로 전환하자마자 속 시원하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잠깐 사이 자동 OS 업데이트가 뇌에 이뤄진 것 같았다.

그렇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에 주는 최상의 '밸런스 패치'다.


누군가는 '잠은 죽어서 자라'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진짜 생산성은 깊이, 그리고 충분히 '충전'할 때 온다는 것을.

그러니 기억하자. 충분한 리셋 없이는 아무리 좋은 성능의 CPU라도 결국 다운된다는 것을!



#14일차  
😊 15 💬 9

서정원(심리학과) 대학생이 적당히 평균적으로 자는 건 사지인 걸까요... 오늘 학우분 대부분이 잠을 잘 못주무시네요. 다들 잘 주우셨으면 좋겠어요..!

 **2025/05/27**  
tuesday, pm 12:23 | 18988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14일차 #잠  
-잠을 잘 수 밖에 없는 환경-


우리 집은 10시만 되면 잠에 들었다. 아빠는 좋은 잠을 자야 한다고 10시만 되면 불을 끄고 잠자는 분위기를 만드셨다. 어느 날은 특별한 행사가 있어 12시까지 깨어있었는데 어린 내가 "우와, 12시다!" 하며 12시까지 깨어있는 상황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요즘은 과제나 핸드폰을 하느라 새벽 2시 이후에 자는 게 기본이 되었다. 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아빠는 잠에 대한 중요도를 최우선으로 두시는 듯하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야 제일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다던가, 가족 특방에 '일찍 자야하는 이유', '2시 전에 자야하는 이유' 등 잠과 관련한 쇼츠를 보내신다. 그리고 습관처럼 "12시 전에는 잠에 들어가." 하고 말씀하신다.

-왜 잠을 잘 자는가 -  
난 잠에 잘 드는 편이다. 평소엔 눈을 감고 '자아지' 마음 먹으면 15분 내로 잠에 든다. 여행을 가면 늘 친구들보다 먼저 잠든다. 버스를 타도 눈만 감으면 잠드는 모드에 돌입한다. 차에서 잠에 잘 드는 것에는 후천적인 이유가 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외갓집과 큰집으로 떠나기 바빴는데, 외갓집은 부산, 큰집은 강원도 간성으로 거리가 멀다. 명절에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게 되면 부산은 기본 5~10시간(차가 막히거나 휴게소를 둘러서 최장 10시간 걸려서 간 적이 있다), 큰집은 3시간이 걸린다. (초등학교 때까지 경기도에 살았다. 다행히 춘천에서는 1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어릴 때부터 차를 이용한 장거리 이동에 익숙해, 최장 10시간을 뜬눈으로 가기보다는 자고 일어나면 금방 도착하기 때문에 잠에 들었다. 어릴 땐 멀미가 심했던 게 그 이유이기도 하다. 성인이 된 이후로 여행을 자주 떠나게 되었다. 어릴 때의 장거리 경험으로 나에게 이동 시간 이퀄(=) 잠자는 시간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인식된다. (물론 시간이 길면 힘들다.) 커가면서 멀미도 나아져서 이젠 핸드폰을 하며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잠 -  
잠은 나에게 시간 단축의 수단이다. 잠을 자면 체력이 충전된다는 것과 건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지만, 늘 밤이 되면 할 일들이 생긴다. 내 밤을 잠으로 채우기엔 아깝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난 뒤, 생각 정리도 하고 낮 시간에 못한 취미 생활도 늘 밤에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요즘엔 잠을 자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밤의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잠을 아낀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낮에 모두 끝내고, 집에 와서는 나만의 편안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것에 시간을 쓰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을 잘 자지 않으면 내일의 내가 힘들다. 그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렇게 된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들이 끝나는 종강이 오면, 이제는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잠을 자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겠다고 다짐해본다.

😊 12 💬 6

김미도(일본학과) 저는 잠을 정말 잘 못자는 편이라, 연주님이 부러워요. 맞아요. 어떨 땐 잠자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2025/05/27**  
tuesday, pm 12:25 | 17988  
권혁민(경제학과)

#14일차  
빨리 내일을 기억하기엔 이른 밤. 요즘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면 바로 잠들기 직전 밤이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방의 전등도 꺼진 공간.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일절 없이 고요 속에서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보다 뒤척이다 잠에 든다. 그 잠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 끝에 맞출 수 있는 잘나의 보상으로 느껴진다.

가끔씩 일찍 잠드는 것이 가까워 새벽까지 지새다 늦게 잠을 청하거나 아예 밤을 새는

경우가 있다. 원래 쾌감을 느낀 직후가 가장 허무하고 힘든 법. 그렇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면 몸이 지치고 머리가 아파온다. 후회를 하지만 얼마 지나 다시 고통을 잊고 다시 반복한다.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꼭 쉬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1시간, 아니 30분만 일찍 자도 다음날 아침에 느끼는 기분과 몸 상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소에 6시간 내외로 잔 이후 일어났을 때와 주말에 1-2시간의 약간의 늦잠을 더해서 일어났을 때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달력을 보니 곧 기말고사가 다가온다. 많은 학생들이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먹어가며 오는 잠을 억지로 쫓아내고 밤을 지낸다. 하지만 나는 숙면을 선택한다. 어차피 자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 13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이미 카페인 섭취를 시작해버렸습니다..오늘도 일찍 자긴 글렀나봅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2025/05/27  
tuesday, pm 12:51 | 1928  
세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14일차

나의 밤은 모순적이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깨어나기에. 주황빛 조명 하나만이 켜져있는 방 안,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하루 동안 꼭 눌러 담았던 생각과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든다. 그때 괜히 웃은걸까, 그때 그 말은 너무 가벼웠을까-당시엔 멀쩡히 흘러보낸 순간들이 자꾸만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머리는 끝없이 상상의 세상으로 개입하며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조차 베개 끝에 앉게 만들고, 마음은 그날의 장면을 수없이 재생하게 만든다. 생각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잠은 마치 눈치 보는 연인처럼 현장을 어긋거리다가 조용히 다가오는 존재이다.

하지만 잠 다행스럽게도 그 복잡했던 마음도 어둠이 걸리고 햇살이 들면 거짓말처럼 없어진다. 생각은 많지만 그걸 오래 품지 않는 게 나의 방식이다. 지난밤 그렇게 괴로웠던 일도 밝음과 마주하면 '뭐 그런 일도 있는거지' 하며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된다.

나는 복잡한 마음을 품고도 단순한 성격으로 버티는 사람이다. 세상 모든 감정을 꺼안고 잠 못 이루다가도 아침이면 다시 상쾌해질 수 있는-

이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 14 💬 6

김명빈(미디어스쿨) 고요히 사유하도록 하는 글 같아요. 예민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아야겠습니다!

2025/05/27  
tuesday, pm 1:38 | 2008  
최현영(금융재무학과)

#14일차#잠

"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엮을 수 있겠지만 저는 원초적으로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에게 잠이 몹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습을 나가고 있어서, 매일 아침 6시 20분에 기상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주말에도 늘 같은 시간에 깹니다. 더 자고 싶은데... 눈이 떠지면 왜인지 모르게 쉬이 잠에 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개운하게 잘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쩔 그렇게 잠이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눈이 감기네요. 제게는 정말 달콤했던 잠의 기억이 있습니다. 해가 평평했던 더운 어느 여름날, 주택에 살았던 저는 거실 나무바닥에 얹은 이불 하나 깔아 놓고 방방곳곳에 있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시간에 대한 걱정이 누워 있었던 달콤한 잠의 기억이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지겨웠던 그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기도하고 걱정 한 보따리라서 아무 생각없이 잠 드는 게 어려울지라 그 때가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운 잠이 있지 않으신가요? 더위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요즘, 다들 더워 조심하세요~!

😊 16 💬 8

윤소정(사회학과) 주말에 햇볕이 적당히 드는 낮시간에 거실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 잠이 정말 달콤하더라고요!! 지금은 학교생활도 해야하고 과제도 해야해서 낮잠을 자는 일이 드문데 현영님의 글을 읽으니 문득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2025/05/27  
tuesday, pm 1:51 | 2108  
윤소정(사회학과)

#14일차 #잠

<잠의 중요성>  
'잠'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라는 말이다. 소위 '갓생'이라고 하면 잠을 적게 자면서 자기계발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 다들 '갓생'사는 사람을 두고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한다. 잠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힘든만큼 대단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건강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좋지만 한지는 모르겠다.

시험기간만 되면 버락치기를 하느라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새벽까지 공부를 했었다. 1시간~2시간정도 잠을 자고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시험지에 쓰여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마를 부여잡고 눈을 부릅 뜨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지금은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는 마음으로 시험기간에 줄리엔 일단 잔다.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더 잘된다. 그리고 전처럼 적게 자지 않고 못해도 6시간 이상은 잔다. 예전엔 줄러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잠의 중요성을 알기에 수면시간을 7-8시간으로 정해두고 있다.

<잠과 친해지기>

방학이 되고 나서 밤낮이 바뀌었다. 자려고 누우면 핸드폰을 보고 싶어서 잠을 안 자게 된다. 새벽 5시에 자서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기도 하고 어쩔 땀 더 오래자서 하루를 날려버리는 일이 허다했다. 수면패턴을 돌리기 위해 자기 전에 무드등을 켜다. 타이머를 한 시간으로 맞춰두고 '곧 있으면 자야 돼'라고 스스로와 약속했다. 눈을 감고 누웠지만 잠생각도 많이 들고 핸드폰도 보고 싶어서 자기 힘들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아침 일찍 시작하는 알바를 하는 것이었다. 8시 반까지 출근해야해서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게 되고 때문에 밤 11시쯤 되면 술술 잠이 온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은 12시가 되면 잔다. 불면증과 같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썼던 방법을 써보길 추천한다.

😊 16 💬 10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추천해주신 방법으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것같네요 방학엔 낮밤이 바뀌는게 큰 고민이었던지라 감사합니다



2025/05/27  
tuesday, pm 2:57 | 1998  
김서희(식품영양학과)

#14일차 잠들다

나는 원래 생각이 많아서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한 때는 잠들기 위해 높은 시간이 괴롭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침대에 누워 15~40분 정도 무한도전을 보며 나만의 시간을 보내면 금방 잠에 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전시간을 최대한 열심히 보내고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강 시간을 활용해 복습을 한다. 또 땀만하면 계단을 사용하고 춘천역 2~3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기도 한다. 이렇게 최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면 금방 잠들 수 있고, 푹 잘수 있다.

또 나는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수고했어'라고 이야기해준다. 그럼 오늘 하루가 더 보람차게 느껴지고 내일을 더 잘 보낼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에게 '잠'이란 단순히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콤한 휴식'이다. 얼른 집에 가서 낮잠을 자고싶다.

😊 13 💬 6

임서영(바이오메디칼학과)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준다니 너무 건강한 마인드네요! 얼른 집에 가서 낮잠 주무세요 꿀잠자세요



2025/05/27  
tuesday, pm 5:38 | 1998  
장근희(글로벌비즈니스전공)

#14일차

잠,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영원한 영면, 아주 긴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삶의 마지막을 '영면'이라 하듯,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표현이다. 나는 어릴 적 이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죽음은 죽음, 이미 지나간 슬픈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표현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고자 하는 마음과,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죽음에 대한 그리움과 공포, 외로움을 '잠'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죽음과 삶의 공백을 조금 메꾼 것이다.

결국 잠은 끝이자 시작이다. 우리가 매일 밤 자는 잠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죽음일 것이고, 매일 아침 가장 작은 단위의 부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잠을 통해 삶을 이어간다.

😊 6 💬 4

최연주(디지털미디어콘텐츠) 잠이라는 표현으로 죽음과 삶의 공백을 메꾼다니 너무 맛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2025/05/27  
tuesday, pm 5:41 | 1998  
박지영(경제학과)

#14일차 #잠 #꿈

꿈을 꿴다.  
사랑이 밤 먹여주는 세상,  
그곳에 발을 디뎠다.

아이들은 죽지 않는다.  
세상은 그들에게 견디라 하지 않고,  
더없이 찬란한 꿈을 꾸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방 안에 갇혀 마음과 싸우는 대신,  
세상과 부딪히며 걸어가는 법을 배운다.  
한 번의 실패에 무너지는 대신,  
그마저 성공이라,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  
성적표 한 장 보다 잘 익은 웃음이 귀하다.  
그들의 행복을 지키려 한 마음이 애쓴다.

노인은 외롭지 않다.  
그들의 냉창고는 이웃의 손길로 채워지고,  
그가 찾은 광장엔 언제나 말동무가 앉아 있다.  
홀로 남겨지는 대신, 함께 기억된다.  
탕 빈 장례식 대신, 눈물 가득할 이별이 기다린다.  
느린 걸음에 맞춰 함께 걷는 이웃이 있다.  
다정한 안부가 노인의 긴 생을 위로한다.

남성은 강하지 않다.  
그의 작은 상처에도 귀 기울이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을, 세상을, 어깨에 지는 사명 대신,  
슬픔 앞에서 기꺼이 울 권리를 배운다.  
여성은 약하지 않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는 대신,  
자신의 이름 석 자가 그녀를 대신한다.

사람은 사람으로 산다.  
그들의 사랑엔 망설임이 없고,  
그들의 위로엔 진심이 있다.  
공동체는 있으나 집단은 없고,  
어웃은 있으나 타인은 없다.

아름다운 세상,  
꿈꾸는 세상.

무거운 눈을 뜬다.  
깨지 않으려 애썼지만,

귀퉁이 꿈방이 냄새가 현실을 데려온다.  
방 한가득 채워진 언지를 햇살이 비춘다.  
찬란한 빛에 반치하 작은 방이 밝아진다.

쪽방 한 구석에서 새우잠 자던 나에게,  
너무도 과분한, 그러도 찬란한.

꿈을 꿴다.



최민수(인문방송융합미디어전공) 아이돌이 죽고,  
노안은 외롭고, 남성은 곱함을 강요받고, 여성은  
악하다고 오해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꼭 언젠가는 지영님이  
쓰신 글 속의 꿈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05/27  
tuesday, pm 6:39 | 12:11PM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 #14일차 '잠'

나는 자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항상 잠을 자도 오랫동안  
자기 때문에 잠귀신이라고도 불린다  
한 가지 못 쓴 설을 얘기해 보자면  
내가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 오래 자서 엄마가 불렀지만 일어나지  
않아서  
엄마가 장난스럽게 뺨을 때렸다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날 이후로  
자도 아무도 못 데려간다는 말이 생겼다  
그 정도로 나는 잠자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반대로 잠을 깊게 들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새벽에 잠을 깨시고  
깊게 잠들지 못해 나를 부러워하신다  
나는 그런 엄마의 감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엄마에게 은근히 미안한 감정도 든다  
내 주변인들은 은근히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아서

잠 잘 자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엄마도 잠을 잘 잤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저는 장귀가 밝아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고는 하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7  
tuesday, pm 7:15 | 12:01PM  
이주현(사회복지학과)

#### #14일차

저는 이번 학기에 들면서 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오르면서 과제가 많아지다 보니 하루  
일정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또 다른  
과제라는 일정이 시작됩니다.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늦게 끝나면 새벽 2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끝나서 침대에  
누워도 바로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켜버립니다. 그럼 더 잠이 안 올텐데  
그걸 못 참고 영상을 틀어버립니다. 생각없이  
영상을 보다 시간을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영상을  
소리도 작게 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좋지 않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해버립니다.  
이렇게 늦게 자연 일어나는 시간도  
늦어버립니다. 작년에만 해도 아침 7시 반에  
기상을 했는데 이젠 10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곤 수업에 가면 너무 늦게  
자버린 나머지 피곤함이 파도처럼  
몰려와버립니다. 이럴 때 늦게 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를 하더라도 다시 이러한 좋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요즘엔 이런 저의 잠자는 습관에 대해서  
잘못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정작

일찍 자든지 오래된지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혹시나 일찍 잠에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작은 사소한 방법도 괜찮으니 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빈(경제학과) 밤에 피곤하면 바로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늦게 자기보다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2025/05/27  
tuesday, pm 7:26 | 12:01PM  
유채원(일본학과)

#### #14일차

내가 고등학생 때 잠들기 전에 꼭 듣는 노래가  
있었다. 그건 바로 중현의 <하루의  
꿈>이었다. 지친 하루를 위로해 주는  
곡이어서 그 곡을 들으며 참 많이도 울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 나는 그의  
팬이었기에, 그가 내 꿈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노래를 듣기도 했다. 하도  
들어서 그런지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 노래만  
들으면 졸음이 몰려오는 일이 빈번했다.  
위의 곡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중현의  
<U&I>를 추천한다. 이것 또한  
위로곡이지만 멜로디가 <하루의 꿈>보다  
훨씬 밝다. 그렇지만 가끔은 이 곡이 더  
슬프게 들릴 때도 있다.(<하루의 꿈>은  
대놓고 '울어!!'하는 느낌의 곡이라면, 이  
곡은 웃으면서 '울어도 돼.'하는 느낌이다.)

그가 남긴 것들이 있는 한, 내 안에서 그는  
영원히 잠들지 않을 것이다.

tmi. <하루의 꿈>은 그가 본인의 반려견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다. 심야 라디오를  
진행했던 그는 자기가 스케줄을 마치고 집에  
가면 가족들은 다 자고 있지만, 반려견이 항상  
자신을 받게 맞이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는 이 곡을 작사했다고 한다.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꼭 듣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저는 예전에 잠들기 위해  
노래는 아니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잤던 것  
같습니다. 조곤조곤한 dj분의 말을 듣다보면 잠이  
그나마 빨리 오더라고요!



2025/05/27  
tuesday, pm 7:36 | 12:01PM  
강민식(데이터사이언스학부)

#### #14일차


##### <하루의 양면>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다 하루라는 개념을 잊어버린 듯한  
야밤의 도시를 거닐며 사색에 빠진다.  
길거리에는 술에게 목숨을 바친 전사들이  
넒부러져 있었으며 무한동력을 달고있는  
듯한 야밤의 전사들까지 다양했다. 사람들은  
잠을 편안한 장소에서 자야하고  
그렇지않더라도 깊은 숙면은 취해야 숙면을  
올바르게 취하고 또 옴은 것이라 생각한다.  
숙면에 들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재밌게 노는  
것 또한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매번 술에 찌들어 넒부러져 있는  
사람들을 손피경하곤 한다. 그러나 술에 찌든  
사람도 깊게 잠에 빠진 것은 반박불가다. 나는  
그 사람이 할 했던 어떤 장소에 있던 잠에  
깊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루'를 만족스럽게  
보냈다는 증거가 된다고 여긴다. 오히려 잠에  
드는 시간이 아까워서, 아니면 잠에 들  
타이밍을 놓쳐서이든 잠에 들지 못한 그들이  
그 '하루'를 후회하고 있기에 언장하고  
싫어한다 생각해 숙면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출한 것은 우리가 너무 '틀' 안에만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로로 고정관념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며 너그럽게 바라봐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하고.. 누구에겐 당연한 하루가 아닐 수 있다. 그들을 위해서, 아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힘차게 살아갔으면 한다. 매년 삶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것같은데 저번 글에서 말했듯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에 보이는 것도 많아짐에 따라 자동으로 이런 주제에 손이 가는 것 같다.

😊 9    💬 3

이주현(사회복지학과) 틀에 갇혀있다보니 바라보는 시선도 꽤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틀에서 나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2025/05/27**  
tuesday, pm 7:39 | 1918  
재은비(생명과학과)

#14일자 #잠  
(‘나’는 눈사람입니다.)

작은 재잘거림을 배운하고 난 당신께 기대어 여전히 이곳에 서 있네요. 앙상하게 빛어진 차갑고 흰 몸 몸속엔 얼음으로 된 심장 당신이 버린 가지로 만들어진 팔 이리도 시리어 서러운 내 몸 너머로 잠들어 있는 듯 아무 말 없는 당신의 고동을 느껴요. 이 모진 겨울을 견디려 그 울긋불긋한 손들을 발밑에 내려놓고 그 색색의 낙엽을 양분 삼아 오랜 잠에 든 당신 당신은 내 말이 들리지 않나요. 나는 당신의 발밑에 기대어 이리도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밤이 지나가고 서러운 아침이 오면 나는 속절없이 녹아 사라지고 말텐데. 당신이 잠든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조용히 녹아들어 당신의 발 밑에 몸을 드리우고 긴 긴 잠에 들 거예요. 내가 잠들어도 당신은 부디 이 겨울을 견뎌 내주세요. 부디 당신은 행복해 지세요. 이 모진 겨울이 지나가면 당신은 봄을 맞이하겠죠 그 오랜 잠에서 깨어나 꽃을 피울 때. 나도 그 줄기 끝에서 흐르는 수액이 되어 긴 잠에서 깨어날 거예요.

😊 10    💬 5

김경환(화학과) 감정이 너무 섬세해서 천천히 다시 읽게 됩니다. 겨울잠이 아닌 눈사람의 잠이라는 관점이 인상 깊습니다

 **2025/05/27**  
tuesday, pm 8:26 | 1518  
정우림(정치행정학과)

#14일자 #잠

저는 어떤 일이든, 특히 그 사안이 중대할수록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 역시 그런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라벨은 하루 안에서 N시간은 일을, 나머지 시간에는 여가를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정의하는 워라벨은 보다 넓은 시야로 접근해 삶 단위로 구성됩니다. 짧게 말하자면 짐을 때 스펙과 재산을 만족할 만큼 최대한 마련해 무탈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신나게 즐기다가 밤에 편히 자는 것처럼요.

제가 곤대처럼 비취질까 우려되어 사족을 좀 달자면(곤대가 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절대 쉬지 않고 24시간 달려라고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조차도 힘들 테니까요. 다만 여러분의 각 삶이 잘 예비되고, 천천히 빛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가올 인생의 밤을 대비하며 오늘을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을 즐기시고, 내일을 열어 나가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8    💬 3

김명빈(미디어스쿨) 무엇을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가요

 **2025/05/27**  
tuesday, pm 9:26 | 1118  
한예영(데이터테크전공)

#14일자 나는 비교적 쉽게 잠드는 편이다. 침대에 눕고 몸을 끄면 몇 분 안에 잠이 든다. 특별히 잠들기 전 특별한 습관은 없다. 목욕을 하고 휴대폰 알람을 맞추고 누우면 끝이다. 어떤 날은 잠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수면에 큰 어려움은 없다. 잠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쉴 수 있는 시간이다. 깨어 있는 동안에는 해결되지 않던 일들도 자고 나면 생각이 정리되거나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잠이 주는 리셋 기능이 꽤 좋다고 느낄 때가 많다. 잠은 내게 그저 익숙한 일과 중 하나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피곤하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난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 8    💬 3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잠이 아닌 다른 행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모두 잘 좋은 수면으로 내일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2025/05/27**  
tuesday, pm 10:13 | 1918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4일자 #잠 #잠오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 '잠'인데 요즘 마음이 붕 뜨는 일들이 많아서 거기다 오늘부터 축제의 시작이라서 사방으로 분산되는 내 의식들로 라이팅 챌린지에 전념할 에너지가 부족하다. 참.. 잠이라는 주제를 침잠시키고 싶어도 내 시선은 여기저기로 튕다.

항상 피곤하다. 잠이 몰려오고 쏟아진다. 어느 지역에선 아마도 경상도였다. '졸리다'라는 표현 대신 '잠온다'라고 하던데 잠 온다라는 표현이 내가 느끼기엔 좀 더 능동적인 느낌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다.

요즘 거의 6시간 미만으로 잤었다. 11시간도 잘 수 있는 나는 어디로 가고 숲속리퍼로 남았다. 파란 시간을 동경하던 나는 일찍 잘 수 없나보다. 2일자 주제 '고요'로 @최민수님의 글 속 '평단지기'에 감명받았고 교양 과목 생활한문의 기말과제인 마음에 새겨둘 고전 명구-좌우명 만들기 에서 평단지기로 주제를 잡아 제출하였다.

## 내 과제를 인용하자면

## 1. 고전 명구

## 원문 인용 및 해석 10줄 내외

平旦之氣(평단지기): 아침의 맑은 기운. 새벽의 아직 다른 사물과 접촉하기 전의 맑은 정신을 이르는 말.

人之良心雖已放失，然其日夜之間亦必有所生長。故平旦未與物接，其氣清明之際，良心猶必有發見者。

(인지항심수이방실, 연기일야지간, 역필유소생장. 고평단미여물접, 기기청명지제, 량심유필유발견자)

사람의 바른 마음이 비록 이미 흩어져 없어져도, 낮과 밤 동안 역시 필히 성장하게 한다. 고로 새벽에 물건을 접하지 않고, 기운이 청명할 때 바른 마음이 필히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고자 삼 제8장.

출처: <https://haesol-memo.com/?p=4390>



[매일매일한자성어]

## 2. 명구 탐색

## 명구에 담긴 사상 또는 의미 설명 10줄 내외

새벽의 상쾌한 기분. 평단은 새벽 동이 틀 무렵을 나타내는 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86580&cid=50293&categoryId=50293>



'평단지기(平旦之氣)'는 새벽녘,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맑고 고요한 기운 속에서 인간의 양심이 드러난다는 뜻으로,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을 바탕으로 한다. 인간의 양심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욕망으로 일시적으로 가려질 뿐이며,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순수한 시간대로, 마음을 정화하고 본성을 회복하는 순간이다. 누군가에게 새벽은 이른 기상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의 시작이며, 또 다른 이에게는 밤새 사유와 공부를 이어오다 고요 속에서 맞이하는 통찰의 순간이 된다. 과거 선비들 역시 밤을 지새우며 학문과 삶을 되돌아보았고, 그러한 정진 끝에 다가온 새벽의 기운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곤 했다. 이처럼 새벽은 외부 소음이 사라진 틈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평단지기'는 바로 그 고요의 순간 속에서 맑은 마음을 되찾게 하는 기운이며, 오늘날 명상과 새벽 루틴의 실천과도 연결할 수 있다.

## 3. 선정 사유

자아 성장과 실현 관련 선정 사유 소개 10줄 내외.

대학을 다니면서 작년 2학기부터 자유교양전공 '라이팅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주중마다 주어진 주제어에 맞춰 글을 쓰고 있다. 올해도 참여 중인 이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 주제는 '고요'였고, 나는 그 고요함이 새벽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이야기했다. 다른 학생의 글에서 '평단지기'라는 고사성어가 언급된 것이 유독 인상 깊었고, 그 의미가 새벽에 내가 느끼는 감정과 겹쳐져 가슴에 닿았다. 나는 종종 잠들지 않은 채 새벽을 맞이한다. 소위 '새벽 감성'이라는 말처럼, 그 시간대엔 생각이 많아지고 하루를 되돌아보며 나의 부족한 면들을 점검한다. 나만의 언어로 감정을 녹여낸 글이나 시를 쓰기도 하고, 과학 유튜브 콘텐츠를 보며 지식을 습득하는 때도 있다. 비록 그 시간이 때때로 슬픔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진실한 자아와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맹자가 말한 '평단지기'는 외물(外物)과 접하기 전, 맑고 청명한 기운 속에서 양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라 했는데, 나는 그 새벽의 기운이 곧 나를 정돈시키고 다시 나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라고 느꼈다. 그렇기에 나는 이 고사성어를 자아 성장과 실현의 상징으로서 선택하게 되었다.

만점은 아니었지만 15점 만점 중 14.8점을 받았다.

내게 잠은 모순적이다. 잠이 오지만 오롯이 나 혼자 존재한다는 자유로움과 사회의 나의 꾸며진 모습을 벗기고 하루를 들여다보기도 하는.

커피를 마시며 이 글을 쓰고있는 나는 다시 잠을 물리고있다. 아, 오늘도 늦게 잠들 것이다.



김미도(일본학과) 저도 생활한문 수강하고 있는데...  
과제 되게 잘하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 #14일차 #잠/잠들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잠으로 모든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글을 봤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모두 잠으로만 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건 아닐테지만, 대한민국 학생과 직장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업이나 업무에 쏟으니 잠 잘 때 말고는 쉴 시간이 넉넉치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삶을 살아오면서 쌓인 만성피로가 잠이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되니 한국인들의 피로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수 밖에. 그 글에서는 인도인 친구가 명상이라는 해결 방법을 추천해주었다.

5년 전 일어난 하지만 나도 약 3개월 정도 명상을 해본 적이 있다. 나는 '코끼리'라는 명상 어플을 통해 명상을 했었다. 수면의 이유로 명상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매일 진행한 명상은 마음의 고요를 찾는 데에 꽤나 도움이 되었다. 머릿속이 시끄럽지 않아야 잠도 잘 자게 된다고, 잠에 들기 어려운 이가 있다면 잠 자기 전 5-10분 정도 명상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코끼리'와 같은 명상 어플을 쓰면 길 것 같은 10분도 금방 지나간다. 아직 '코끼리' 어플에 이 오디오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만일 있다면 꼭정은 작가의 오디오를 추천한다. 나에게 명상 자체에 도움이 된 오디오는 아니다.

우느라 영상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걱정은 작가의 영상 오디오를 들으며 명상하다 울다 지저 잠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오늘 키워드에 아주 잘 들어맞기에 걱정은 작가의 영상 오디오를 추천한다. 명상이란 것은 특별한 오디오 없이, 또 집생각 없이 그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기에 꼭 이런 오디오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잠들기 전 시끄러운 머릿속을 정돈하고 싶은 이에게 추천하는 영상.



김명빈 (미디어스쿨) 좋은 어플 추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2025/05/27  
tuesday, pm 10:36 | 17198  
유재하(미디어스쿨)

#14일자  
키워드: 잠 / 잠들다

[스위치 끄기]  
잠든다는 건 스위치를 끄는 일이다. 하루 종일 켜어 있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스위치를 켜둔다. 일과, 사람, 말, 감정, 상념. 특 치기만 해도 반짝이는 불빛처럼 반응하는 것들을 끄지 않으면 나는 멈추지 못한다. 머릿속이 계속 작동하고, 마음은 쉼 없이 웅웅거린다.

그래서 잠은 훈련이다. 불필요한 것부터 차례차례 꺼나가는 연습. 그날 있었던 장피한 일, 하지 못한 일, 내일 해야 할 일, 말하지 못한 말.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은 꺼둔다고 말하며 누르는 것이다.

잠든다는 건 지금은 괜찮다고 나에게 속삭이는 일이다. 조금 덜 완벽해도, 아직

불안해도, 지금은 괜찮다고. 그렇게 스위치를 끄고, 어둠 속에서 겨우 쉬는 법을 배운다.

깊은 밤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나를 가볍게 안아준다. 이따금 울다가도 잠들 수 있는 건, 그 어둠이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스위치를 끈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최지윤(사회복지학과 20242357) 꿈이라는 매개체로 스스로의 무의식과 만나고 근육들을 놓아지게 해 휴식을 취하게 해줍니다. 의식을 잃는 행위지만 쉬게 해준다니 좋네요!

2025/05/27  
tuesday, pm 11:00 | 17198  
홍리경(디지털미디어콘텐츠)

#14일자  
잠.  
나에게 잠은 정말 소중한다. 안 중요한 사람은 없긴 하겠지만 잠은 온전히 보낼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라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다. 가끔 악몽을 꿀 때도 있기는 하지만 잠을 자면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예민해진 나의 감각들이 가라앉고 온전히 편한 마음 상태가 되어서 좋다.  
잠들기 직전도 좋다. 가끔은 잠들려고 눈을 감고 있어도 잠에 안 들어 다시 눈이 떠지는데 눈만 감고 쉬고 있어도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게 느껴진다. 그때의 상태도 약간 명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편한 순간 중 하나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활동은 잠이다. 잠을 잘 못 자는 날이면 하루의 마무리, 감정과 생각이 마무리가 잘되지 않는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 휴식하는 시간은 더 나아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 같다.



김명빈 (미디어스쿨)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만큼 '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다시 한번 재닫고 갑니다!

2025/05/27  
tuesday, pm 11:03 | 17198  
조화경(정각학과)

#13일자  
부모님께 평생 감사할 몇가지가 있다. 한국 남자 평균키를 상회하는 키, 기복없는 감정변화, 속 썩이지 않는 치아,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잠이다.

나는 누우면 잔다. 표현이 아니라 머리가 베개에 닿은 후로 딱 30초 걸린다. 스위치 켜듯이 수면으로 빠진다. 그리고 도중 깨는 법이 없다. 잠귀가 어둠과 빛에도 둔감하다. 마지막으로 잠을 설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됐다. 그리고 꿈꾸는 일이 무척 드물다. 오로지 잠에만 초집중하기 때문일까. 꿈은 가끔씩 꾸고 창의적인 재료를 얻고 싶은데 말이다. 커피, 에너지드링크의 카페인 따위도 내 잠을 막을 수는 없다. 테스트를 위해 커피 6샷을 때려부어도 봤으나 잘만 잤다. 축복받은 수면능력이다.

장점만 있는게 세상에 있을소나. 내 수면은 꽤나 고집이 세다. 11시만 지나면 수면시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12시를 초과해선 안된다. 조금만 양보를 증용해서 한시간이라도 늦게 잔다면 다음날 바로 태업으로 대응한다. 하루 능률이 바닥을 쳐버리고 나는 하루종일 반성한다. '제때 잘길' 하고. 남들이 하는 버락치기, 밤샘공부는 내게는 불가능하다. 성적을 올리기 위함이라고 잠에게 설득해도 타협하는 법이 없다.

햇바퀴 타듯 살다보면 살기 위해 자는건지,

잠들기 위해 사는건지 모호해지는 순간이 온다. 고작 일차원적 본능인 잠 따위 때문에 뻑뻑한 일정을 소화하는건가 싶다가도, 역기 위해 사는거랑 진배없구나-싶다. 결국 우리는 다 동물인가보다. 쉴 틈 없는 회전 속에서 그저 잠에 드는 순간만을 기다리는 나를 발견한다. 잠이 상이 돼버렸다.

상주러 가야겠다.



최현영(금융재무학과) 우와.. 진짜 축복 받으셨네요!! 저는 카페인을 섭취한 날에는 유독 잠을 잘 설치더라고요ㅠ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7  
tuesday, pm 11:29 | 14208  
조은재(간호학과)

#14일자 #잠  
글 쓰려고 기숙사로 돌아오긴 했지만... 바깥 노랫소리 때문에 리듬 타느라 글이 안 써진다. 히트곡 천지라 몸이 거부할지 않는다. 오늘밤에 잠자긴 글렀나...  
축제 기간 동안에 오늘부로 잠들기 전 습관이 생겼다. 바로 기숙사에서 혼자 출구기. 출을 전혀 배운 적도 없고 잘 따라하지도 못하는 몸치이지만. 내 맘대로 팔뚝팔뚝 뒤킵.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건 축복이다. 평소에도 힘이 넘칠 뻔 이유 없이 달리기도 하고, 막춤을 갈길 때도 있다. 물론 난 내향인이기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혹은 아주 친한 친구랑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엔 잠들기 전에 양전하게 일기를 쓴다. 며칠 전 시작한 친구와 교환일기 쓰기. 그 전엔 그냥 기분 드러울 때 쓰는 감정 해소용 일기. 아니면 자장이 대응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 중요한 것으로 30분 반복으로 설정해서 들기. 너무 오래 들으면 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설정을 해줘야 한다.

내일은 제대로 글 쓸 수 있을까...  
오늘 충분히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글을 써 보겠다. 내일이 마지막인가? 부디 하고 싶은 말을 잘 압축하고 정제해서 매끄러운 글로 완성할 수 있기를... 마무리를 잘하자.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 8    💬 5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정들기 전에 일기 쓰는 습관 참 좋아 보입니다! 감정 해소용의 일기가 저는 좋아보입니다!



2025/05/27  
tuesday, pm 11:29 | 12000  
정우현(철학과)

#### #14일차

잠에 관한 이야기라면 참 쓸 이야기가 많네요.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이 심해서 너무 힘들었는데요. 현재는 불면증은 괜찮아졌지만 피곤해서 대학병원에 가봤어요. 수면다원검사라고 해서 온몸에 덕지덕지 첩 붙이고 잤습니다. 결국 수면 무호흡증 판정을 받았는데 깊게 잠을 못 든다고 하네요. 양압기를 빌렸지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에 숨이 들어오는 게 너무 불편해요. 양압기가 적용돼서 꿀잠에 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8    💬 5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알른 적용해서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025/05/27  
tuesday, pm 11:33 | 12000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 #14일차 #잠/잠들다

또 다른 세계

잠을 잘 때면 어김없이 꿈이 찾아온다. 낮잠을 잘 때도, 쪽잠을 청할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꿈은 계속 따라온다. 참 신기한 건 그날의 꿈 속 시간이 유독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보통 잠에서 깰 때면 잊어버린다고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생생한 감각이 남아있다.

항상 잠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자면 잘수록 피곤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는 게 더 좋았다. 평소 집에만 있을 땐 하루 종일 잠을 청할 때도 있었다. 그런 나에게 잠이라는 키워드로 '꿈'이라는 주제는 배놓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꿈'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많다. 가위에 눌린 적도, 신기했던 꿈들도, 무서워 잠을 이루지 못했던 꿈들까지 하나하나 말할 순 없지만 매일 꾸는 꿈으로선 참 많았다.

보통 꿈은 현실과 반영을 하지 않았든가. 하나같이 현실에선 일어나기 힘든 또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다. 하늘을 나는 꿈부터 시작해 도플갱어를 만나는 꿈, 심장 수술을 받는 꿈, 귀신한테 쫓기는 꿈, 치아가 다 깨지는 꿈까지.. 특히 꿈 속에서의 아픔을 때때로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고통을 느낀다는 게 참 불쾌하다고 느꼈다. 더 괴로운 건 무서운 꿈을 꾸다 잠에서 깰 때면 다시 잘 수가 없다. 그 꿈을 이어서 꾸기 때문에.. 가위에 눌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감각처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왜 꿈을 꾸는 걸까. 꿈은 무의식이라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꿈들을 꿀 때가 많아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고민할수록 답은 나오지 않았다. 본질이야 어쨌든 조금은 내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건 맞지 않을까 싶다. 오늘도 난 꿈을 꿀 것이다. 새로운 꿈으로. 꿈 속에서 난 또 어떤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게 될까. 매일 아침 꿈 속 이야기를 해몽으로 찾아보는 건 하나의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꿈은 또 다른 하루를, 삶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세계라고 생각한다.

😊 7    💬 4

최현영(금융재무학과) 해몽을 찾아 보시다니 재밌는 습관이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7  
tuesday, pm 11:37 | 10000  
서정원(심리학과)

#### #14일차

나는 왜 잠을 잘까? 왜 인생의 1/4에 해당하는 시간을 자는 행위에 투자하는 걸까? 손해 보는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왜 그럴까? 나는 왜 살아갈까? '삶의 의미'를 주제로 한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을 통해서, 또 지난 1주일 동안 친구와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며 생각해봤다. 아우슈비츠에서의 경험이 담긴 심리학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작가는 삶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선이나 진리, 아름다움, 자연과 문화의 체험)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첫사랑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아주 미숙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본인과 상대방의 부족한 면을 보게 되고—연인은 서로의 거울이다—그것들을 고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숙한 나는 사라지고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존재는 확실히 나의 '삶의 의미'를 바꾸는 듯하다.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이성적으로, 효율을 따지며 평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아낌없이 나눠주고, 베풀다 보면 기존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삶은 부정당한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된다. 아마 지금의 나도 크게 바뀌는 중이겠지.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을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행위에 집중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왔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녀가 내 삶에 직방으로 흘러들어왔을 때 혼란스러웠다. 그동안의 창조적 행위는 곁에 있는 동반자에 의해 부정당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창조적 행위와 누군가를 만나는 행위 둘 다에서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녀는 나와 완벽히 대조적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러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나는 찍은 사진에 코멘트를 달거나, 블로그나 '라이팅 챌린지' 같은 프로그램에 글을 쓰면서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감정을 남기는 편인데, 그녀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남기는" 행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본능적으로 번식을 통해 후손을 남기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게 되고, 세상이 편해지면서 굳이 후손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다른 창조적 행위로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글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고, 사진을 찍어 남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글도, 사진도 없고 과거의 순간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현재는 과거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인데,  
과거를 기록하지 않았기에 망각되고  
부정된다면, — 그녀의 기억 저장 용량이 평균  
이상이거나 하는 등 기억력이 뛰어나 오래전  
기억이 오랫동안 결함 없이 보존된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 현재의 삶을 모순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트라우마였다. 과거의 큰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긴 모든 것을 삭제한 적이 있었다. 사진,  
기록, 물체 등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켰다. 역사  
자체 개변한 것도 아니고 없애버렸다. 나중에  
가서 크게 후회했다. 분명히 그 큰  
사건으로부터 얻은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텐데 역사를 소멸시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 둘 다 얻지  
못했다. 그게 너무 아쉬웠고, 어느 날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기록하는  
자아'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내 동반자는 기록하는 자아가 없으니,  
충격이었다. 기록하는 자아가 없지만 그녀는  
지금 내 앞에 살아있다.

그러면 기록하지 않고 동반자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걸까.  
기록하지 않고 짐을 잘 수 있는 걸까.

😊 : 💬 ?

김영빈 (미디어스쿨) 모든 것을 남기지 않아도,  
때로는 그저 함께 살아내는 것이 가장 단단한  
기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25/05/28

Wednesday, am 12:03 | 18:18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4일차

진혼곡(鎮魂曲)

죽은 듯이 전다는 표현이 있다. 말 그대로  
암전히, 미동도 없이 잠을 자는 사람을 보고  
죽은 줄 알았다고 하는 경우다. 이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을 곧 잠과 비슷하게  
여기는 표현이 많다. 또 다른 일례로  
영면(永眠), 즉 영원한 잠에 들었다고 하는 건  
곧 사람의 죽음을 문학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노화로, 사고로, 자의로, 사람들은 지금도  
꿈임없이 '영원한 잠'에 빠지고 있다. 단순히  
죽었다는 표현보다 영원한 잠에 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안타깝게 와닿는  
이유는 왜일까. 잠은 깨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다. 깨지 않는 잠은 삶에 의미가 없다.  
많은 이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잠을  
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지 않는 잠, 즉  
영면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하고  
안타까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어렸을 적, 엄마께서 감기를 앓으며 잠 못  
드는 필자를 위해 자장가를 불러주셨던  
기억이 가끔 난다. 필자뿐이겠는가. 부모님의  
자장가를 들으며 단잠에 빠졌던 이들은 꽤  
많은 것이다. 잠드는 이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는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영면에 빠지는 사람을  
위한 노래를 우리는 진혼곡(鎮魂曲) 또는  
위령곡(慰靈曲)이라고 한다. 더는 그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노래함으로써 넋을 기리는 것이다.

일본의 영화감독 신카이 마코토는 영화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을  
포함하는 통칭 '재난 3부작'을 완성했다.

예전부터 유독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상자가 많았던 일본이었다.  
때문에 재난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주제로 한 재난  
3부작은 일본 내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재난 3부작 속 밴드  
레드윙프스(Radwimps)의 노래 역시 일종의  
진혼곡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줬다.  
실제로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를 본 일본의  
자연 재난 피해민들이 많은 위로받았다고  
한다.

한국의 오컬트 영화감독 장재현의 영화  
'파묘'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오컬트  
영화지만, 내용을 해석해보면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모 영화에 가깝다.  
파묘 속 주요 인물인 지관 김상덕(최민식  
배우), 장의사 고영근(유해진 배우), 무당  
이화림(김고은 배우), 무당 윤봉길(이도현  
배우) 역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다. 영화  
속 등장하는 절인 '보국사(保國寺)' 역시  
'나라를 지키는 절'이라는 뜻이다. 장재현  
감독은 "의식에 담긴 역사와 그 잔재가 남아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과거의 아픈 상처와 두려움을 '파묘'해버리고  
실은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두 감독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에게 운석을  
피하게 하고, 폭우를 견히게 하며, 문을  
잠그고, 무덤을 파게 했던 이유는 곧 죽은  
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미디어를  
통해 죽은 자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아낸다.  
이러한 숭고한 행위가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죽은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만 있다면, 이미 영연의 든  
사람들에게는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는  
진혼곡이 될 것이다. 이런 영화는 곧  
제사(祭祀)의 현대적 형식이라 볼릴 만하다.

😊 12 : 💬 4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죽음을 영원히 잠에

든다 표현하는 게 와닿습니다 몇년전 사랑하는  
의할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한동안 슬픔과 우울감에  
빠져 잠에 제대로 들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되려 재가 꼭 자길 바라셨겠조 이전 그  
마음을 다 알고 할아버지의 소망대로 살고있어요  
첫 문단만 보고 바로 생각날 정도로 제게 아프고  
깊은 기억이었나봅니다 덕분에 사랑하는 그분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해요 :)



2025/05/28

Wednesday, am 12:20 | 12:18

김영빈

오늘의 글쓰기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잠'과  
잠들다'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며 많이  
공감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부터, 불면증의 고통, 포근한 이부자리의  
행복까지. 누군가에게는 잠이 쉽게  
찾아오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꿈에서 만난  
사람들, 잠들기 전 떠오르는 생각들은 우리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잠은 또 죽음에 대한 사유를 촉발하기도  
하는군요. 오늘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잠에  
들길 바랍니다.  
추신 : 내일은 드디어 챗지니 마지막  
날이군요. 축제라 마음도 몸도 들떠 있었지만  
잊지 말고 잘 마무리합니다.

😊 16 : 💬 0



2025/05/28

Wednesday, am 7:59 | 4:11PM

김영빈

#15일차 키워드 : '떠남'  
'떠남'은 하나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일, 과거의 나에게 작별을  
고하는 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 이 모든 것이 '떠남'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 보내고, 나 역시 떠나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낯익은 습관이나 상황을 떠나본 경험도 있을 거고요. 때로 떠남은 아프고, 두렵고, 아쉬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새로운 길로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떠남'의 이야기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14 💬 0



2025/05/28  
Wednesday, am 8:33 | 20000  
김도(일본학과)

#15일차

일본의 국민 가수 사카모토 쿄(坂本九)가 부른 노래 중에 "눈물아, 안녕(涙くんさよなら)"이라는 곡이 있다. 그 노래의 가사 일부를 인용하자면,

"눈물아, 안녕  
잘 가, 눈물아  
또다시 만나는 날까지  
너는 내 친구야  
이 세상은 슬픈 일 투성이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사랑을 했어  
멋진 사랑을 했어  
그러니 잠시 너를 못 만날 거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가사의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지금 들어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래다.

오늘은 스무 살의 나를 떠나보내고, 스물한 살이 되는 날이다.  
나는 2004년 5월 28일에 태어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다. 누군가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났고,

누군가는 나를 안아주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삶의 중요한 배움을 안겨주고 사라졌다. 그 속에는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다. 나를 슬프게 한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에게는 '안나지 말걸'하는 사람이 없다. 모든 만남은 나에게 하나같이 특별했고, 나의 일부였다. 좋았든, 아팠든,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나는 늘 고마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다소 낯부끄러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말을 진심으로 전한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무 살의 나에게서는 이 말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그동안의 모든 웃음과 눈물, 설렘과 후회를 껴안고, 이제 나는 스물한 살이라는 또 다른 계절로 발을 디딘다.

앞으로도 수많은 만남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또다시 기쁘고 아픈 순간들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 시간에게, 부디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

😊 19 💬 13

최현명(금융재무학과)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미도님!!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모든 날이 꽃길하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25/05/28  
Wednesday, am 8:49 | 25000  
정우현(철학과)

#15일차

저는 떠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정착하고 싶었지. 계속해서 뿔뿔이 떠나는 게 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두려웠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실 늘 혼자였는데도 낯선 환경은 언제나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학을 자주 가서 근속이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친구 사귀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정착할 곳은 제 마음속 안식처더라고요. 타인에게도 기대받지만 제가 안심하고 정착할 곳은 제 마음 안이었습니다. 허세를 부리면 돌면서 다시 불안정해지고 의기소침해지면 내가 누군지 잊습니다. 결국 고요함만이 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 있는 고요함을 마주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내 고요함을 받아줄 때 외부와의 세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이 있죠.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도 기가 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기가 빨렸다는 건 제 마음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저는 몇 번이나 고요함을 마주하려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18 💬 10

김예지(사회복지학과) 저도 떠나는 것이 참 싫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한 뒤 꼭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언제든 돌아갈 나의 보금자리가 있다면, 삶이 고단하더라도 씌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28  
Wednesday, am 9:06 | 27000  
김예지(사회복지학과)

#15일차 -떠남

떠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내가 처음 독립했던 날이 생각난다. 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주셨다. 그런 내가 집을 나가 홀로 살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내 사정을 알고있기에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론 많이 슬퍼하셨다. 나는 내 삶을 더 건강하게 살고 싶었고,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독립을 결심했지만, 할머니 눈에는 그 이유가 다르게 비쳤던 것 같다. 독립을 하고 1년정도가 되었을때 할머니는 나에게 말해주었다. 본인이 부족해서, 부모의 자리를 채워주지 못 해서 내가 할머니 곁을 떠나는 것 같아 미안했다고. 그 말을 듣고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다.

나도 혼자 지내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꼈다. 함께하던 순간들이 때면 떠올랐다. 떠남은 분명 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안고 있었는지도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떠남이란 꼭 멀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배웠다.

😊 18 💬 8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처음 기숙사에 살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손자 손녀를 다른 곳에 살도록 내보내는 것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 담긴 말들과 걱정이 있었기에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던 것이 아니었을 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2025/05/28  
wednesday, am 11:42 | 24일  
정서진 (언론방송융합20)

#15일차

중강하고 나면, 한 학기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분기점으로서의 시작을 위해 여행을 떠난다. 2023년 휴학을 하고, 2025년 학교로 돌아오기 전까지 틈틈이 다섯 군데의 나라를 여행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건 23년 봄에 혼자서 떠났던 도쿄로의 여행이다.

성인이 되고 여행은 자주 갔지만 혼자서 떠나는 건 상상도 못했었다. 특히나 영어권 국가가 아닌 일본으로의 여행이었기에 걱정도 많이 했었다. 일본어는 간단하게만 할 줄 알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친절을 잘못 타고 길을 잃은 채로 요코하마에서 도쿄까지 4시간 30분이 걸렸다. 반나절을 버린 셈이다.

그렇게 도착한 가야바초역. 눈앞에 끝없는 계단이 늘어져있었다. 내 몸만한 캐리어를 들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반쯤 올라가자 뒤에서 샐러리맨이 다급하게 뛰어와 캐리어를 올려주고 홀연히 사라졌다. 낯은 덩고, 몸은 힘들고, 캐리어는 무거워서 옮기고 싶었던 순간에 닿은 친절은 마음을 녹였다.

마지막 날 몸살이 나서 호텔에 누워있다가,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다시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도쿄역으로 가는 길목 어귀에 은방울 꽃이 피어있었다.

은방울 꽃의 꽃말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많이 지쳐있었지만, 은방울 꽃을 보자마자 신기하게 행복해졌다. 힘들었던 순간은 잠시 쳐쳐두고, 혼자 여행하면서 만났던 즐겁고 벅차는 마음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반, 더 많은 나라를 여행했다.

여행한 나라 중에 멕시코와 미국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다녀왔다. 이번에 가는 일본 여행은 그 친구와 가게 됐다. 혼자 갔었던 도쿄를 친구와 함께 가서, 고등학교 시절 잊고 지냈던 후배를 만날 것이다.

어딘가로 떠나면 늘 새로운 만남이 있다. 벅차는 순간과의 만남,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나의 자유로운 모습과의 만남. 그 마법같은 순간들을 또다시 마주치기 위해 떠난다.



가마쿠라에서의 황혼, 이 마법같은 순간을 보고 라면을 먹다 뛰쳐나가 혼자서 해변가를 걸었다.



이 글을 본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해지는 순간을 만나기를!

😊 17 💬 10

윤소정(사회학과) 홀로 떠나는 여행에서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뜻밖의 친절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연들도 만난다는 점에서 '떠남'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자여행하는 것에 도전해보고 싶어지네요

2025/05/28  
wednesday, pm 12:24 | 20일  
한주연(디지털미디어콘텐츠)

#15일차  
떠남

중학생 시절, 친구네 햄스터가 새끼를 낳았고 나는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한 마리를 데려왔다

작고 귀여운 존재가 내 손 위에 올라왔을 때 마음속에 이상한 책임감 같은 게 생겼던 것 같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본다'는 걸 배운 시간이었다  
집도 사주고 먹이도 챙기고 매일 들여다보며 이름도 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햄스터는 세상을 떠나 있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고 햄스터에게 미안한 마음이 오래 남았다  
시간이 흐르고 벌써 7-8년이 지났지만 그 날의 당황스러움과 허무함은 아직 또렷하다  
햄스터의 이름은 토리였는데 토리와 함께했던 1년이 너무 그리워서 사진과 영상을 자주 봤었던 것 같다.

떠남은 늘 그렇게 예고 없이 오고 우리는 그걸 뒤늦게 받아들인다  
햄스터를 떠나보낸 그 날 이후로, 무언가와 이별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며 문득 떠오른 또 다른 '떠남'은 바로 이 챌린지의 끝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이 끝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지만  
지금 이 마음도 언젠가 그리워질 것 같다  
모두 정말 수고했어요!

😊 18 💬 8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우리 토리... 이별 중 사별은 정말 사무치는 슬픔이 동반하겠죠. 저의 햄씨, 누릉이가 생각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05/28

wednesday, pm 12:31 | 20188  
권혁민(경제학과)

## #15일자

안녕, 나의 긴 시간들이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합쳐서 16년. 인생의 70%  
이상을 학교에서 지냈다. 중간에 잠깐 휴식을  
가진 기간까지 생각하면 약 18년 동안  
학교라는 공간에 나의 몸을 맡겼다. 길었지만  
끝날 때가 되니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다.  
졸업이 한 달도 안남았지만 아직 나는  
학생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느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또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 즐거움과 뿌듯함, 두려움과  
걱정이 같이 느껴진다. 게임으로 치면 이제가  
튜토리얼이 끝나고 본 스테이지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아직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 학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축색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준다. 아직 학생이니 할 하긴 이르지,  
본격적으로 돈 벌기는 조금 이르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명분이 사라지고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 너무 빨리 지나간 세월과 벌써 20대  
중반이 된 내 나이가 원망스럽다. 눈 떠보니  
너무 허무하게 흘러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가족들에게  
애써 괜찮은 척 주눅 든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학교로의 이동이었다면,  
이제는 학교에서 사회로의 진출이다. 아직  
미숙한 나, 무엇이 상처와 화살을 맞고 혼자서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다시  
일어선다. 한 번의 좌절로 끝내지면 너무 긴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걸어가야지.

😊 16 💬 8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의 이동을 이제 했는데 학반님은 학교에서  
사회로 이동이라니 분명 사회에 나가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2025/05/28

wednesday, pm 2:25 | 19918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 #15일자 #떠남

떠나고 싶다.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다.  
바쁜 일상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살다가는 에너지가 다해 탈진할 것 같으니 그  
전에 여행을 떠나고 싶다.

여행은 나를 새로운 곳에 던지는 도전이다.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 날  
내던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컨텐츠다. 행동들과 느껴지는 감정들을  
보면서 나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성찰의  
시간이다. 일상 속에선 주변의 소음에 깊은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만 온전히 떠난  
혼자만의 여행에선 가능하다.

스무 살,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계획한  
혼자 여행이 무산되었다. 스물 두 살이  
되어서야 상황이 나아져 떠날 수 있었다. 4박  
5일의 부산여행! 그중 이틀만 온전히 혼자  
다녔지만 첫 혼자만의 여행을 한 그 때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았다. 수많은 당일치기 일정은  
배제하고 작년 2월엔 두 번째 혼자 여행을  
강릉으로 떠났다. 공방, 소품샵, 카페를  
돌아다니며 사진 찍고 폭설에 양말이 다 젖고  
심지어는 코피가 나도 그저 행복했다.

여행은 무엇이든 미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치거나 운이 좋지 않거나 가게가 문을  
닫아도 "이것도 추억이지~" 하게 된다.  
나중에 이야기 할거리가 생겼구나 하고  
넘기는 그 마음이, 여행 과정에서 동반되어  
여행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미화되는 여행지에서의 추억처럼,  
지금의 힘들도 훗날 돌아볼 땐 웃으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을 여행처럼, 인생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살아가야겠다.  
우리, 마음이라도 먼저 여행을 떠나보내자!

😊 14 💬 12

최현영(금융재무학과) 혼자 여행이라..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혼자 여행을 가 보고 싶는데  
여러 이유로 계속 주저하게 되는데 이번 년도에는  
한 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2025/05/28

wednesday, pm 2:27 | 21918  
최현영(금융재무학과)

## #15일자#떠남

나는 지금까지 미련없이 무엇 하나 쉽게  
떠나보내게 없다.

애착 옷과 인형, 살던 집과 다니던 학교,  
친구들, 연인, 일하면서 만난 동료들까지.  
꼭 참으려고 해도 새어 나오는 눈물을 감출  
길이 없다.

작별할 때는 왜 눈에서 눈물이 마음대로  
흐르는 걸까?

어릴 때는 우는 모습을 보이는게 싫었다.  
울면 지는 것 같아서.

놀리느라 하루가 바쁜 초딩남자애들 앞에서  
내 눈물은 공격할 틈을 주는 셈이었기 때문에  
생존 본능으로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등장미  
소녀 캔디 가사를 되내이며 나오는 눈물을  
틀어 막았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럼에도 너무 아쉬운 이별은 내 이성을 잃게  
만든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내 두 뺨을 적신다.  
정신없이 울다 보면 내 눈에 다시 보이는  
것들.

나와 같은 이유로 울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눈물은 어쩌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수단이 아닐까 싶다.

"나도 그래... 나도 너무 아쉽고 보고 싶을  
거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다시는 필질 수 없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질, 마지막 장면 같아서...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어떻게 짊어지고  
내 집에 데려다 놓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막을 수 없는 것들.  
눈물과 이별은 그런 면에서 참 달아 있다.  
막을 수 없다면 바라는 수밖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여전히 이별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는 말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려고 노력한다.

세상이 이렇게 좁는데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은 다시 보지 않겠어?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라-!! 나도 한 번 잘 살아  
볼라니까-!"

😊 15 💬 7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크면서 가족 앞에서  
남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끼리, Band!



2025/05/28  
wednesday, pm 2:34 | 25918  
김명빈 (미디어스쿨)

오늘도 떠난다.

마음은 세계일주, 현실은 학교 지박령.

에어비엔비 대신 에브리타임에서 강의실 찾고,  
비행기 대신 서울버스 탑승.  
여권 대신 노트북, 카메라 대신 과제.  
짐은 많고, 자유는 없다.  
만유인력보다 강한 줄음만 존재할 뿐...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개강 1번만 더 하면  
지긋지긋한 개강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이 문장은 수정될 수 있음. 수정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불췌간 사춘기 노래 가사처럼 나도 떠나고  
싶다.

...하지만 그 전에,  
눈 앞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부터  
탈출하고 싶다...

++ 라이팅 챌린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학기도 기회가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



통합검색 어학사전 지식백 이미지 ...

어학사전

### senioritis

학문에 흥미를 잃고 졸업만을 생각하는 증상.

해문보기

출처 : 영어사전

다른 뜻 2

#15일차

😊 19 💬 13

서정원(심리학과)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치 있는 글  
 잘 봤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또 봐요 ✨



2025/05/28  
wednesday, pm 2:35 | 27918  
이주현(사회복지학과)

#15일차

벌써 25-1 라이팅 챌린지 마지막 날이네요.  
작년에 이어 새롭게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챌린지는 더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마지막을  
말하는 듯한 '떠남'이네요.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수 많은 생각을 하며  
15개의 글을 쓰고, 수 많은 유형의 글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부터 시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의 글들이 참 수준 높고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글을 쓰는데 있어 상당한  
실력이 있으시더군요!  
이번 챌린지 마지막 키워드를 보고 떠오른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이라는

노래입니다. 몇 년전 콘서트에 갔었을 때  
마지막 곡으로 이문세가 불렀었기에 더욱  
'떠남'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에 빗소리  
하늘은 맑아 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연기는 한 숨되어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엔  
친구들은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름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건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흘러 가는 걸  
어느 지나간 날에 오늘이 생각날까  
그대 웃으며 큰 소리로 내게 물었지  
그날은 지나가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저 그대의 웃음소리뿐

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사가 이번 라이팅 챌린지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건가',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엔' 등의 가사에서 라이팅  
챌린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지금 마지막  
글을 쓰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듯 합니다.

다음 챌린지 때도 다시 만나 서로의  
웃음소리를 들을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겠습니다.  
1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 17 💬 19

임서영(바이오메디컬학과) 오늘 글들이 다 너무  
슬피요. 전 아직 떠남이 슬픈데요 주현님 고생  
 많으셨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25/05/28  
wednesday, pm 2:50 | 25918  
강민석(데이터사이언스학부)

#15일차

정확히 오전 9시 24분 비행기가 착륙한  
시간이다. 인터넷망이 잡히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의 키워드를 살피는 것이었다.  
그리고 '떠남'이라는 키워드를 본 순간 그냥  
지금의 나였고 어떤 글을 작성할지 고민을  
시작했다. 온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 타지로  
떠나왔기 때문에 고민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떠난다는 것을 직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있던곳을 떠나지만 직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글자가 가진 힘은 비로소 개인에게서  
발휘되므로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처럼 놀러 와서 글을 쓰는데 부정적이고  
무겁게 쓰고싶지 않기도 했지만 말이다.  
놀러온 가장 큰 이유는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함인데 마지막  
라이브공연이다. 앞에서 긍정적으로 쓴  
이유는 이 부분에서의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였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선 떠나보낸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적절했기 때문이다.

p.s 짐을 못자서 그런지 문장이 조금이상하고  
잘 안 써짐 T\_T

😊 17 💬 6

최현영(금융재무학과) 마지막 라이브 공연이지만  
좋아하는 가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05/28

wednesday, pm 3:44 | 23:00  
박지연 (경제학자)

## #15일차 #떠남 #안녕

떠나는 일은 언제나 서운하다. 내가 떠날 때에도, 누군가가 나를 떠날 때에도, 마음속에는 늘 바람 한 줄기가 불어 들어온다. 그 바람은 차갑고 조용해서,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을 남긴다. 그렇지만 삶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어떤 순간은 인간됨을 써서 머무르고 싶지만, 고이기만 하면 결국 벽이 있어 삶의 이치라는 걸, 우리는 어렵듯이 안다. 그래서 떠나고, 보내고, 다시 떠나보내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흐르는 것 속에서 나는 점점 떠남에 익숙해지는 줄 알았지만, 문득문득 어떤 장면은 여전히 마음을 붙잡는다. 아마도 떠난다는 건, 그만큼 남아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일 것이다.

‘떠남’이라는 제시어를 듣고 GPT에게 문장 하나를 추천해달라 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첫 이별을 경험한다. 자궁이라는 첫 번째 집에서의 떠남.”

— 김연수, 『여행할 권리』

이 문장은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읽히겠지만, 나에게 이 문장은 떠남을 서운해하지 말라는 위로 같았다. 우리는 세상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별을 한다. 가장 온전했던 공간, 따뜻하고 완벽한 보호막 안에서 밀려나듯 세상으로 나온 그 순간이, 우리가 경험한 첫 번째 떠남이었다. 결국 우리는 태어남으로 떠난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이별은 그저 삶의 이치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서운함조차도 자연스럽게 정당한 감정일 수 있다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오늘의 이 떠남 앞에서는 조금 덜 아파하기로 했다. 이번 라이팅 챌린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 거라 자신하지 못했다. 바쁜 학기 속에서 하루하루 글을 쓰는 일은 때로 속제처럼 느껴졌고, 어떤 날은 마감시간을 겨우 맞춰 업로드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글을 쓰게 했던 건, 내 안의 작은 목소리였던 것 같다. “오늘도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는.

그렇게 써내려간 글 하나 하나는 생각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글로 남긴 생각들이 주는 성취감은 기대 이상이었다. 거기에 더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위로 받기도 했고, 그들의 진심 어린 문장에 나도 용기를 내어 댓글을 남겼다. 알 한마디, 표현 하나에 웃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가 주고받은 글은 단지 텍스트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두드리는 마음이었다. 이름도 얼굴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따뜻한 체온이 있었다. 글을 통해 연결된 그 감정들이, 어느 날은 친구 같고, 또 어느 날은 오래 알고 지낸 가족 같았다.

그래서인지, 지금 이 작별의 순간이 참 어렵다. 애정을 들인 만큼, 마음이 무겁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쉬운 걸 보면 나는 여전히 ‘떠남’에 약한 사람인 듯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떠남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떠나는 존재였다면,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다음 장을 넘기기 위한 준비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떠남 끝에 새로운 만남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지금은 그저 이 마음을 잘 접어 가슴속에 넣어두고 싶다. 나를 살게 했던 문장들과, 따뜻한 시선들, 그리고 매일을 기록하며 마주했던 나 자신을. 어쩌면 이번 챌린지를 통해 내가 가장 많이 만난 건 바로 ‘내 안의 나’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떠난다. 조금 아쉽고, 조금 슬프지만, 이 마음만은 꼭 간직한 채로.

😊 15 💬 8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글을 쓰면 확실히 나의 마음을 꺼내보이는 것이라 나를 알게 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2025/05/28

wednesday, pm 4:03 | 23:00  
유재원(일본학과)

## #15일차

이번 학기의 라이팅챌린지가 끝나는 날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선, 기말고사 전날까지 꾸준히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며 제 생각의 범위가 매일 새로 그려졌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여러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떠남이 있기에 다시 만나는 날이 더욱 즐거워지는 것이겠죠. 다음 학기에도 또 만납시다. 덕분에 밴드에 들어올 때마다 별세계에 놀러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라디오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인용하며 끝내겠습니다. 제게 라이팅챌린지는 그의 <푸른밤> 라디오와 비슷하게 '쉬고 싶을 때 떠오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응원이었습니다.

저도 쉬러 올게요.

여러분도 여전히, 그리고 안녕히 내일도 쉬러 와요.

사랑합니다.

😊 18 💬 11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정말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반주 축하드려요!!



2025/05/28

wednesday, pm 4:25 | 20:00  
임혜번 (사회복지학전공)

## #15일차 마지막

## 떠남

고등학교로부터, 연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많은 인연으로부터 떠나왔고, 매번 다른 감정을 느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학교에서 떠날 땐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불렀고, 연인과 헤어졌을 땐 슬프고 화가 나 술의 힘을 빌리기도 했다. 이번 라이팅챌린지에서 떠나는 것은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굉장히 시원스럽고 시원한 기분이다. 이제 아침마다 키워드를 보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글이 써지지 않아 몇십분씩 문장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학우들의 새로운 글을 읽으며 공감하거나 웃을 수 없고, 나의 솔직한 이야기에 댓글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도 없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좋은 경험을 안겨줬다.

처음 라이팅챌린지를 신청할 이유는 나의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시를 사용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 이후에 과제나 보고서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며, 처음으로 용기를 내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써볼 수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나의 콤플렉스, 자퇴이야기... 늘 내 단점을 숨기기 급급했던 나에게 큰 변화였다. 또한 댓글로 내 이야기를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따뜻한 학우들 덕분에 단점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나를 떠나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공간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은 오늘로 끝이지만, 우리 모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것이다. 한 발짝 더 성장한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한다.

😊 16 💬 8

**최한영(금융재무학과)** 라이팅챗런지가 예반님의 하루를 더욱 따뜻하게 했더니 너무 감사하네요. 라이팅챗런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05/28**  
wednesday, pm 4:40 | 22118  
이주원 (심리학과)

#15일차 #떠남

나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떠나고 또 떠나 보냈을까. 하루가 멀다하고 떠나는 기숙사, 다양한 이유로 떠나 보낸 사람들과 감정들. 오늘도 라이팅 챗런지라는 경험의 응축물들을 떠나 보낸다.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별 애뜻한 생각들이 다 든다. 글의 문맥이 잘 맞는지 고민 했던 내 모습도, 할 일이 너무 많아 빨리 해치워 버려야겠다 싶어도, 쓸 거리가 생각나지 않아 한 시간 이상 고민 했던 내 모습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떠나 보내는 날이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보았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청춘의 이야기가 담긴 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글, 친구들과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글... 모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떠나 보내기가 이렇게나 아쉽다. 이 아쉬운 마음도 언젠가는 떠나겠지. 모든 것들은 언젠가 떠나기 마련이다. 그러니 다들 떠나기 전에 마음껏 즐겨두기를.

😊 16 💬 9

**김예지(사회복지학과)** 인생은 어찌보면 떠남의 연속이죠. 오늘을 떠나보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만날 기회를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해보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05/28**  
wednesday, pm 5:21 | 25008  
조은채(간호학과)

#15일차 #떠남

나는 늘 마음이 먼저 떠나서 몸이 떠날 때는 인사조차 필요 없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어느새 마음이 엉켰다. 가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마음이 말하려는데 마음엔 입이 없지. 마음도 몸도 제 고집들이 세서 가는 방향이 같을 때는 드물지. 마음이 붙들여 둘 수 있는 몸은 기껏해야 두 눈동자. 나머지 몸은 떠나는 당신을 붙잡지도 따라가지도 못해 눈동자만 데구르르 뱅히.

당신이 떠나간 공간이 남아돌아 세를 놓았다 팔았다 도로 샀다 팔다리를 짝 벌리고 누웠다 추워져 웅크렸다 어쩔 줄을 모르겠다. 대답 없는 적막이 두려워 부르지도 못하는 이름은 아직도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네. 줄곧 당신의 향기를 애지중지 아꼈는데도 벌써 희미하네. 돌이마실 당신의 향기가 부족하고 내일 한숨만 가득해서 호흡이 곤란하다. 떨어내기만 하여 가벼워진 몸이 떠난다. 나도 당신처럼 세상을 떠난다.

당신은 나를 떠나 어디로 떠났나. 나는 여기를 떠나 어디로 떠나나. 혹시 같은 곳으로 떠날 수 있을까.



(노래는 글과 관련 없지만 '떠남'과 관련하여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 18 💬 14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마음과 몸의 방향이 같을 때가 드물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미안하다는 말이든 고맙다는 말이든 마음이 먼저 들어도 입으로 내뱉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에 공감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05/28**  
wednesday, pm 5:45 | 22108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15일차

떠남이 싫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질수록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야될지가 아니라 이젠 또 언제 나를 떠날까에 대한 두려움부터 생긴다. 버림을 받아본 기억도 떠남에 대한 큰 상처를 받아본 것도 아닌 사람이 이러니까 괜히 분위기 잡는 것처럼 보이기엔 하지만 모르겠다. 나는 내 삶에서 나를 스쳐간 모든 것이 전부 너무 소중하다.

그것들은 처음엔 영원할 것처럼 내 안에 스며든다. 경계를 두고 지켜볼 여지도 없이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따뜻한 말 한 마디로 혹은 그냥 함께 있는 공기의 결만으로 내게 다가오는 소중한 것들을 나는 조심스럽게 품는다. 조금 무겁고 부담스러워도 괜찮다. 처음에 조금 적응하기 힘들 뿐 한번 내게 소중한 것이라고 각인되면 그것들은 내 삶의 일부가 되니까.

하지만 아무리 귀해도 삶의 이치를 어길 수는 없니보다. 놓치고 싶지 않아 아무리 꼭 쥐고 있어도 모든 건 언제나 제 속도로 멀어진다. 나는 이게 너무 슬프다. 무언가를 아끼는 일에는 언제나 끝이 따라온다는 사실이. 정성을 다해 바라보고 가만히 조심스럽게 곁에 두었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멀어져있는 것들의 존재가.

근데 뭐 어찌겠나. 이젠 받아들여려고 한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은 그 시절 진심을 다했기에 빛났다는 것. 덜 좋아하고 덜 소중히 여기고 덜 품었으면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남아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여튼 내게는 언제나 슬픈 '떠남'이지만, 지나간 흔적 속 나의 진심이 증명한다. 의미 있는 '떠남'이었으리라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천둥도 심하게 치네요 ㅜㅜ  
밖에 계시던 분들 실내로 잘 들어가셨나요? 모쪼록 오늘 하루 조심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15일동안 여러분의 글을 읽을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



😊 16 💬 8

**권혁빈(경제학과)** 미련이 남지만 시원하게 놓을 수 있어야 아름다운 작별이 되죠. 과거의 아쉬운 떠남은 하나의 기억으로 남기고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길 응원합니다.

2025/05/28  
wednesday, pm 5:47 | 19:18  
김서희(식품영양학과)

#15일차 떠남

'떠남'이라는 키워드를 보니 고등학교 졸업식이 생각났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 때는 아쉬움, 후련함 등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언니가 졸업식 때마다 우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슬픔과 그동안의 아쉬움, 어른이 된다는 기대감, 대학생살에 대한 설렘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 날은 유독 짧게 느껴졌고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 사진을 많이 찍었다.

또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고등학교 때가 종종 생각나는데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더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나는 병원 외래를 다녀서 개근상을 받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이유지만 그 부분이 유독 아쉬웠다.

또 더 빨리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지 생각해보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자주했다.

아마 고등학교 때는 내가 열심히 했고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졸업식 날 많은 감정이 느껴진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후회나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 15 💬 7

최연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후회가 없어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연 왜 했을까 하지 않으면 왜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며 나아가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05/28  
wednesday, pm 8:00 | 20:00  
한예림(데이터테크전공)

#15일차

사랑이 끝날 때 그것은 언제나 마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별은 말보다 먼저 찾아오고 손을 놓기 전 이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사랑은 뜨겁게 시작되지만 끝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갑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인다. 사소한 말에도 웃음이 나고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함은 때로 무더짐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서서히 사랑은 변한다. 관심은 습관이 되고 설렘은 의무가 된다.

마음이 떠난 사랑은 되돌릴 수 없다. 붙잡으려 할수록 상처만 커질 뿐이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마음도 결국 떠난 감정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사랑은 강요로 유지되지 않는다. 진심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공허함뿐이다.

떠남은 슬프고 아프지만 동시에 정직한 감정이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잔인한 일이다. 진짜 이별은 다정한 거짓보다 솔직한 거리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거리감이 완전히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이 끝났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떠남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이기도 하다. 서로의 시간이 멈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떠남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고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은 곧 누군가를 혹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마음이 떠난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결국 떠나는 것도 사랑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된다.

😊 15 💬 4

김명빈 (미디어스쿨) 사랑의 끝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그 안에서 성장을 찾아내려는 태도가 성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라이팅챌린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주 축하드려요

2025/05/28  
wednesday, pm 8:08 | 22:08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15일차 #떠남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첫 시작이 되기도, 때로는 헤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향할 때, 두려움이 앞서가지만 그럼에도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새로운 경험들을 위해 용기를 내고자한다.

벌써 3학년이 된 지금 어디로 가야될지 막막할 따름이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마음에 낯선 곳은 나에겐 호기심 또는 부딪쳐야 되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듯 떠난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는 것 같다. 우물 속에만 갇혀있기보다 오히려 도전을 즐겨워하고 행해야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불확실한 세상으로 나가야만 진정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익숙한 곳이 좋다. 자주 보는 환경, 때면 같은 일들, 같은 사람들.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아 하루를 평탄하게 보내고 싶다. 그러나 결코 삶의 길은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다. 그걸 알기에 이러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한걸음 한걸음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길 바란다. 이러한 과정들이 또 다른 나를 만나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16 💬 6

윤소정(사회학과) 익숙한 환경이 주는 안락함을 무시할 순 없지만 자신이 멈추게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떠남은 성장의 발판의 되기도 하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5/05/28  
wednesday, pm 8:18 | 20:18  
재은배(생명과학과)

#15일차 #떠남

안녕, 처음 뵈겠습니다. 조심스레 열고 나간 문 너머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백지의 고요. 그곳에서 내 안의 거울 같은 호수와 마주하고 하릴없이 길을 잃어도 봤어. 무엇이든 처음이라 어색했던 오늘. 더 깊은 굴을 써내기 위해 팔팔 끓었던 오늘. 처음이라서 더 좋았던 거야. 단맛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 내고 시고 비워낼 수 없던 하루하루도 살아 내고 그렇게 각자의 백지를 채워가. 그래, 어디선가 찾아낸 이름의 의미도 새콤한 맛으로 가득 찬 여름의 과일도 황혼의 비 지난 후 마주한 군청의 하늘도 오늘만의 색으로 써 내리건 거야. 겨울밤의 잠에서 깨어나 내일이 돼도 다리가 물을 잊지 않듯 오늘을 기억할 수 있게.

15일 짜리 작은 달력에 오늘의 페이지를 걸어 둔 채로 내일로 떠나자. 그날의 이야기는 새로운 페이지에서 그럼, 또 보자!

😊 17 💬 7

김명빈 (미디어스쿨) 낯설고 어색했던 시작이었지만 그 어색함조차 사랑스럽게 기록해내신 듯해요 '내일로 떠나자'는 마지막 문장이 특히 좋았습니다. 잠시 멈췄던 시간 속에서 다시 걸음을 때는 용기, 그 설렘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도 응원합니다!



2025/05/28  
wednesday, pm 8:55 | 101111  
장근희 (글로벌비즈니스전공)

#15일차

떠나면 헬린지의 끝이 다가왔다. 모든 일에는 끝이라는 떠남이 정해져 있지만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우리에게 있어 떠남은 삶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 중 하나다. 모든 인연은 영원할 수 없는 만큼 그 반대인 떠남 역시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우리는 떠남을 점차 배우고 그 떠남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다. 처음에는 분하고 아쉽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월이 흐를 수록 이 감정을 조절하고 아쉽지 않은 떠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떠남은 어떠한 인생의 동반, 스승일지도 모른다. 머무르고 싶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영원할 것 같았던 순간들도 결국은 지나간다. 그 아쉬움과 그리움까지도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감정이다. 그렇지만 그 감정을 잘 받아들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떠남의 일부다.

😊 13 💬 7

울소정(사회학과) 너무 공감돼요! 인연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인데 처음엔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점점 떠나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숙해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25/05/28  
wednesday, pm 8:55 | 231111  
유재하(미디어스쿨)

#15일차

키워드 : '떠남'

[감정과의 작별]

불안은 나의 오래된 동거인이었다. 조용한 밤이면 가장 먼저 말을 걸어오곤 했다. 어느 새벽에는 그 목소리에 대꾸하지 않기도 했다. 나는 매일 후회를 बे게 삼아 잤다. 이제는 그 위에 고요함을 놓고 잠들기로 했다. '자책'은 나를 지키려는 방식으로 나를 다치게 했다. 그 자리에 조금 늦게 도착한 '이해'를 놓는다. 어떤 감정은 한번쯤 제대로 작별해야 한다. 그래야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 자꾸 다시 꺼내 읽던 마음속 문장을 덮는다. 밑줄 그었던 그 장면까지 고이 접어 넣는다. 마음속 문장을 자꾸만 되짚던 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장을 끝내도 될 것 같다.

[시절 인연과의 작별]

어떤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조금 더 붙잡고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인연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퇴색되기도 한다. 알아차렸을 땐 이미 내 손에 남은 게 없다. 함께 나눈 말보다, 더 이상 나누지 않는 침묵이 우리를 말해주는 날이 오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가 멀어진 것은 우리의 탓이 아니다. 다만 그 시절이 지나간 것뿐이다. 인연은 늘 그러했다. 지나가고 나서야 그 자리에 있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야 그 시절의 나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상에 지쳐 떠나는 여행]

아무도 모르게 하루쯤 사라지고 싶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로부터,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로 부터,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졌다. 너무 오래 머물렀던 자리는 점차 내가 누구인지 흐리게 만든다. 일상은 늘 같은 장면처럼 반복되고 그 안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감정은 낯설다.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날은 그 마음만으로도 한 걸음 벗어난 셈이다. 익숙함은 감정의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의 안개가 되기도 한다. 보호하는 듯하지만, 넘어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그곳을 빠져나오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방향 없는 발걸음으로 낯선 거리를 걸었다. 익숙함 너머의 공기는 낯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맞이함과 새로운 시작]

'떠남'은 '도망'과는 다르다. 나를 다시 찾기 위한 가장 조용한 움직임이다.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온 아침. 같은 창밖 풍경도 다른 감정으로 다가온다. '환영'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는 순간에 시작된다. 이는 꼭 타인의 말이 아닌, 자신에게 다정한 눈빛을 주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문을 닫고, 다시 맞이하며 문을 연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마주 나와, 맞이한다.

😊 15 💬 6

최현영(금융재무학과) 맞아요. 떠남다는 건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이죠. 15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학기도 행복만 가득하세요.)



2025/05/28  
wednesday, pm 9:05 | 251111  
정우필(정치행정학과)

#15일차 #떠남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에 있던 언젠가 떠납니다. 자랑스러운 한림대학교를, 지금 지내는 집을, 또 찬란한 청춘을. 학교든 집이든 청춘이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시원하게 열어젖히고 팔팔 끓다가 화려하게 색칠하며 떠납니다. 그 모습이 어땠든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2025 라이팅 헬린지에서 처음 쓴 글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언가를 여는 것만큼 마무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하니 서운한 감정이 드네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글을 쓰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거나 평가를 받아본 경우는 처음인데요, 좀 딱딱한 지적이나 비판도 받아야 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만 해주시더라고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따뜻한 말씀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글도 제 글과는 다른 매력이 있고 제가 쓴 것보다도 훌륭한 글이 수두룩하더군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주실지, 매일 저녁 오늘은 어떤 근사한 작품들이

올라와 있을지 기대하고 또 제 글에 반응이 비교적 적은 날이면 오늘 쓴 글은 별로였나 하여 실망하는, 그런 모든 경험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게 행복을 느끼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신 모 교수님께도 찾아뵈어 꼭 인사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 18 💬 10

서예빈(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저도 혼자 메모장에 글 쓰는 건 좋아하지만 공개적으로 어딘가에 올려보고 제 글에 대한 타인의 감상을 겪어본 적은 처음이라 컨스레 간장 되면서도 설했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평가받는 일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ㅎㅎ

 **2025/05/28**  
wednesday, pm 9:55 | 21:00  
서정원(심리학과)

#15일자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다."

작년 라이팅 챌린지 마지막 키워드 '작별'을 봤을 때 현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떠올랐다. 작중의 주인공은 친구의 새를 들보러 제주도로 향한다. 눈은 많이 오고 있고, 친구 집이 있는 제주도 중산간 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멈추어 꾸역꾸역 쫓고 차가운 발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도중 주인공은 쓰러지고, 이후 환상인 듯 아닌 듯 여러 장면이 전개된다.

서정 세력은 자유당의 편에서 백색테러를 무수히 자행했다. 4월3일 이후엔 제주도로 들어와 무고한 주민들을 죽였다. 중산간

지역은 불에 탔고, 중산간 지역의 주민들과 해안가 반경 5km 내로 내려오라 해서 내려온 주민조차 '빨갱이'와 엮여있으면 총살당했다.—현재 제주국제공항이 있는 터는 해안가 지역으로, 그날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총살당했던 지역이다—정말 많은 이들이 죽어서 묻혔고,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4월 3일 그날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의 무고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기록을 남겼다. 죽기 직전 누군가에게 알린 목소리일 수도 있고, 총살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서 썼던 글일 수도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살아가다가 인터뷰한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서일 수도 있다. 이 작고 연약한 목소리가 모여 큰 뜻을 이루고, 후대에 이어져 내려오면 또 그들이 그 목소리를 잇는다. 무고한 그들의 참담했던 죽음을 절대로 잊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 그들의 육체는 떠났지만,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4월 3일의 제주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기록하는 행위는 그렇기에 중요하다. 기록했기에 온전히 보관되었고, 그런 상태로 후대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 가짜 뉴스와 선동이 평배했던, 그래서 서로 싸우다 죽기까지 했던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진실됨'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구성하는 독재자에 의해 100년, 1000년 전과 비슷한 투쟁 사회에서 살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죽을 수도 있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매 학기마다 있는 '라이팅 챌린지'가 소중하다. 매일 글을 남기기가 힘든데, 이 챌린지는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 어떻게든 기록하게 만들고, 그걸 이미 작년에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신청 했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선택에 후회는 없었다. 저번주부터는 이것저것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만족스런 글을 쓰기 어려웠는데도 쓴다는 행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음에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학우분들의 글을 정독하고 공감할 수 있게. 또 여러분이 내 글에 남겨준 댓글에 코멘트를 달 수 있게.

😊 18 💬 14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저도 11일차부터 심란했어서인지 11일차부터 모든 분들의 글을 살피지 못하게 걸려요.. 정원님 글 읽는 재미와 생각 공유도 재밌었는데, 제 뒷심 부족으로 마지막까지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다음 학기에 또 다시 볼 수 있기를!

 **2025/05/28**  
wednesday, pm 10:23 | 21:00  
윤소정(사회학과)

<집을 나서며>  
#15일자 #떠남

'떠남'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단순히 한 장소를 떠나거나, 어떤 대상에게서 마음이 떠나거나, 익숙한 사람들 틈에서 떠나기도하고, 나의 미숙한 습관에게서 떠나기도 한다.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분들이 그만두시는 '떠남'을 경험했다.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더이상 못본다는 생각에 아쉬움, 슬픔, 그 사람의 다른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 여러감정과 생각들이 오고 갔던 것 같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면서 아쉬운 인연들을 떠나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다.

이번학기가 시작되면서 기숙사로 들어오게 되었다. 자취를 해본 경험도 없고 기숙사에 살아본 적도 없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 밖에

나와서 산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을지, 밥은 잘 챙겨먹을지, 옷세탁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외롭진 않을지 여러가지 걱정을 했었다. 막상 기숙사에서 살아보니 아침에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알람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나게 되고 식사가 부실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워보고, 요일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세탁도 하게 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엔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들을 의지해왔었는데 혼자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 닥치니 스스로 하게 되었다. 매주 본가로 가고 있지만, 집을 떠나 밖에서 생활해보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떠남'은 아쉬운 마음을 들게 하기도 하지만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 같다.

😊 13 💬 6

김명빈(미디어스쿨) 걱정을 하나씩 스스로 극복해나가는 모습에 더욱 용원을 보내게 합니다. 라이팅 챌린지도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2025/05/28**  
wednesday, pm 10:24 | 20:00  
최민수(연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5일자

내가 그곳을 떠난 이유

한림대학교에는 2개의 학생자치기구 언론사가 있다. 바로 '한림대학교 학보사'와 '한림대학교 방송국 HLBS'다. 개인적으로는 이 둘을 '중앙일보'와 'JTBC'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총괄해주는 단체는 같지만, 서로 미묘하게 다른 논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또, 한림학보는 엄연히 대학 총장 산하의 공식자치기구다. 반대로 HLBS는 순수하게 학생들끼리 모인 서울에서 출범한 독립자치기구다. 각각 신문과 방송이라는

매체를 사용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2021년에 한림대학교에 입학했던 필자는 1학년부터 HLBS 보도부에 들어가 활동했다. 기획, 취재, 작문, 촬영, 편집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보도부에서 활동했다 보니 방송 뉴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수준 높게 기를 수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21년도에 수습국원으로, 22년도에 정국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추억을 쌓았다.

이후 23년도 2월부터 24년도 8월까지 군대에 있었다. 1년 6개월의 군복무 후 돌아왔는데 필자가 정국원 때 교육했던 수습국원 후배가 어느덧 보도부장을 맡고 있었다. 원래는 전역했던 24년도 2학기에는 학교와 연을 끊고 편안히 쉬고 싶었다. 그러나, 보도부장을 맡았던 후배가 인원 부족 등 여러 사정을 말하며 필자에게 바로 돌아와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섰배된 입장에서 거절하기에는 사면초가(四面楚歌)였다. 어차피 본가가 준천이기도 하니, 학교 자체는 휴학하면서 HLBS에만 복직하는 방법을 택했다. 결국 전역한 지 2주 만에 HLBS 뉴스팀장으로 캠퍼스에 돌아오게 됐다.

HLBS에 돌아오며 꼭 보도해야겠다고 다짐했던 주제가 있었다. 필자가 군대에 있었을 때 한림학보가 보도했지만 HLBS는 차마 보도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의 주제였다.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정의로운 언론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주제는 꼭 보도하고 싶었다. 그러나 결국 미묘했던 논조 차이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기획회의 때부터 보도부장과 일부 팀원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계속 논쟁만 하겠다 싶어 결국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주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현재진행형이다.

게다가 학기 말에는 21세기 비상계엄을

경험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지며,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학생사회의 행동을 취재하느라 바빴다. 한림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이 주도한 시국선언이 진행되고, 무려 20년 만에 한림대학교 학생총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결국, 필자가 HLBS에서 마지막으로 제작했던 뉴스는 '[특보] 민주주의를 향해 울려 퍼지는 한림인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리포트였다.

그렇게 2025년 1월, 필자는 HLBS를 떠났다.

사실 돌아왔을 때부터 데스크와 논조 차이를 경험했으며 방송국을 떠나기로 마음이 굳어졌다. 주변에는 진로가 방송기자에서 신문기자로 바뀌었는지 같은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 주류 논조에 대항하며 미운받기 싫었다. 논조를 주도적으로 바꿀 자신이 없었으므로 도망쳤다고 핑계나 대볼까 한다. 대신 이번 학기부터는 한림학보 취재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림학보 기자로서 처음 쓰게 된 메인 담 기사는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에서 주최한 '도헌학술심포지엄' 현장취재였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였다. 그래서 가끔 "방송국에서의 마지막 취재가 학보사에서의 첫 취재로 이어진 게 아닐까?"하고 필자 제멋대로 의미 부여하며 헛웃음을 지을 때도 있다.

소중한 선후배와 동기를 버리고 '옆집'으로 떠난 비겁한 이가 무슨 변명이 필요해 이런 글을 쓰냐고? 변명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당시 HLBS 실무국장 선배님께서 흔쾌히 이직을 허락해주셨고, 방송국원들도 필자를 알리기보다는 응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또, 임기 마지막까지도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뉴스를 만들었다고 자신하는 필자에게 더 이상의 미련은 없다. 다만, 아직까지 HLBS에 남아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국원분들에게 미안함을, 편견 없이 필자를 받아준 한림학보 기자들에게

감사함을, 또 라이팅챌린지를 해오신 여러분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이런 무거운 주제를 마지막 글로 올렸다.

군 복무 포함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HLBS 소속이었고, 또 올해부터 지금까지 반년이 다 돼 가는 시간 동안 한림학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이기에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언론사치기구와 학업을 병행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또 누군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학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활동한다. 과감하게 밀하면, 한림대학교에 언론사들이 있는 한 대학교 내 민주주의가 무너질 염려는 멀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가끔은 필자를 1학년 때부터 키워주셨던 방송국 형수나들이 생각한다. 막내리며 귀여워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셨던 덕에 이 정도 수준까지 올 수 있었다. 고학번 선배가 됐을 때 그들처럼 든든하게 방송국을 받쳐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러나 떠남은 곧 새로운 만남이다. 현재는 실력 있는 학보사 사람들과 수준 높은 신문을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다. 가끔 행복에 젖었을 때 방송국 후배들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앞으로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정도 마음의 무게까지 가슴에 지고 살아가 보려고 한다.

아울러 이번 라이팅챌린지에서 필자와 같이 글을 쓰며 생각을 나눠 주신 학우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이 달아주셨던 댓글 하나하나 읽으며 행복했고, 여러분이 쓰셨던 글 하나하나 보며 감탄했다. 글쓰기에 이토록 진심인 학우들이 많다니, 왠지 모를 안도감도 들었다.

학우 여러분이 이번 챌린지를 떠나 머무실 모든 곳에 뜻밖의 행운과 나름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기록의 힘이, 글을 쓰는 행위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해줄 수 있기를 응원하며 필자도 라이팅 챌린지를 떠난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윤소정(사회학과) 3주간 민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시사성어가 되었던 시사적인 부분이든 유익한 내용을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민수님의 앞으로를 응원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2025/05/28

wednesday, pm 10:39 | 10110

조하경(정리학과)

#14일차

제작년 인도여행 중, 해인사에서 20년 넘게 수행하신 스님 한분을 만났다. 인도는 싯다르타가 태어나고 열반에 든 성지이기에 불자라면 죽기전 한번은 가 봐야 할 성지순례 장소이다. 오랜만에 한국인을 만난 서로는 신이 나는 바람에, 인도인들 앞에서 위생과 치안,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으며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다.

출가하신지 30년 가까이 되어 소위 '똘 좀 찼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는 나를 근처 펍으로 데리고 가 인도맥주를 네병 시키고서는 언거꾸 알코올을 들이키는 모습이 락이나 불랑스러웠다. 그런 모순적인 모습의 스님과 동양철학, 한국의 종교와 정치, 내 마음 속 미혹과 영혼의 번뇌를 풀어놓으며 허심탄회한 영혼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2차까지 마무리 한 나는 스님과 친분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번호를 여쭙었다.

자신은 핸드폰도 없거니와, 연락이 닿는다고도 미련만 남기는 법이라고 하셨다. 아쉬워말라고, 만날 사람은 언젠가는 만난다고 너무나 종교인스럽게 요청을 거절하셨다. 나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스님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고는 작별인사도 없이 헤어졌다. 스님앞에서는 울한 작별이 어려워, 멀어져가는 스님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 보았다.

시간이 지난 지금, 살아가며 몇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한 후에야 나는 스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만남은 헤어짐을, 떠남은 다시 돌아올을 진정 알고 있던 스님이셨기에 그리 의연한 태도로 작별하셨을테다. 아, 연기와 인드라마. 스님은 아직까지 내게 가르침을 주신다.

모든 작별은 재회를 전제하고 이루어진다. 이별도, 죽음도 재회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아픈거려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거란 후회의 메아리가 귓가를 맴돌아도, 걱정하지 말기를.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그러나, 떠나라!



😊 16 💬 7

공나경(국어국문학과 23) 만남은 헤어짐과 동시에 재회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경님 수고 많으셨어요!

모임이 쉬워진다!

우리끼리, Band!



2025/05/28  
wednesday, pm 11:23 | 11:18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15일차 '떠남'

인생에서 만남과 떠남은 떨어질 수가 없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 좋은 거름을 가지고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피어나도록 살아간다  
하지만 꽃봉오리에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해도  
언젠가는 시들기 마련이다  
이처럼 우리는 언젠가 떠나간다  
떠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떠난다는 건 활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의 순리이기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기에  
감정이 있기에  
떠남을 망설이고 그리워할 수 있다  
이 또한 자연의 순리이기에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이 또한 더 좋은 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떠남'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이든 좋은 거름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떠남을  
망설이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가 아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기에 그렇다  
  
라이팅 챌린지를 통해 만났던 우리도

이제는 떠남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만남이 소중한기에 행복했기에  
이별도 충분한 감정을 느끼고 마무리하자  
모두 좋은 거름의 길이니깐.



😊 15 💬 8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이별도 미련 없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이번 챌린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05/28  
wednesday, pm 11:40 | 11:18  
유리경(디자인미디어콘텐츠)

#15일차

떠남.  
길게 느껴졌던 챌린지도 끝이 난다.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챌린지도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루쯤은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꾸준히 열심히 했던 것 같다. 가끔 깨먹을뻔했던 날도 있었다.

아침에 키워드를 보고 다른 분들의 글을 읽어보고 새로운 관점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댓글 다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달 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좋아요는 열심히 늘렸던 것 같다.

처음에는 글 쓰는 것조차 어렵고 뭘 써야 할지 몰라서 하루 종일 생각을 했었는데 3주간의 시간 동안 나의 생각을 적어 내려가는 게 조금은 익숙해졌다. 글을 잘 쓰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것에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떠나는 것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으로 더 느껴진다. 영원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떠나는 것은 이제 슬퍼하기만 한 것이 아닌 새로운 기쁨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시작과 떠남이 반복되는 세상에서 내가 조금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번 라이팅 챌린지는 처음이었지만 잘 마무리하면서 떠나보낼수있어서 다행인것 같다. 앞으로도 이 라이팅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시 도전을 할 것 같다. 다음에 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12 💬 6

이주현(사회복지학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도 정재우는 우리는 모두 상상 그 이상의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05/28

wednesday, pm 11:55 | 11:55  
김수진(바이오메디칼학과)

#15일차 #떠남

향수를 뿌리면 냄새 분자들이 코를 자극하여 향이 들어온다. 체취를 감아도는 향은 곧 내 본래의 향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다 어느 순간 향기는 떠나간다. 원래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은 피부의 ph, 유/수분 상태, 개개인의 고유한 체취, 체온, 식습관과 건강상태로 같은 향수를 쓰더라도 향이 달라진다. 어떤 향수를 쓰든 사실 특별하다고, 하나밖에 없는 향 일거라고 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동일한 향은 시험지에 뿌려본 테스트용 향일 것이다.

물림을 보러 가자한 날이었다. 내가 먼저 제한한 약속이었지만 딱히 어떠한 실행도 없었다. 그저 햇빛이 뜨겁겠지, 날씨가 덥겠지.. 약속 취소됐으면 좋겠다. 귀찮다... 약속 당일 날까지 가기 싫었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시간에 맞춰나갔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낯선 아마도 처음 알아보는 향이 진동을 했다. 내가 알아본 향수중 내가 결코 선호하는 향이 아니었다. 너무 향이 세서,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을 그런 향이니까. 향이 너무 임팩트가 강했는지 그 친구와 헤어진지 몇 시간이 지난 집에와서 침대에 누워서도 그 감각이 코에 맺힌 착각이 들었다. 그 날을 기점으로 그 친구를 연상할때면 그 향이 떠오른다. 말다보니 그 향에서 진향의 달달함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 향에 익숙해져갔다. 그런데 그 친구 원래 향수 안 뿌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사람에게 대해 무심했던가? 나도 꽤 후각이 예민한데 물림 꽃 나들이를 이후부터 그 향을 인지한다.

너무 자주 봐서 일까. 그 친구의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내 개방감을 표출할수록 유대가 깊어지는 이 관계가 불편하다. 불편함을 완화하는 역할이 그 향인지 저런 생각도 덜 밀려오게 하는 그 향기가 무섭다.

원래 나는 거리두기를 잘 한다. 엄청 오랜 기간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내 생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로 이런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 사람이 좋다가도 내가 허락한 사람만, 내가 허락한 사람이더라도 과잉 애정은 경계하는 이런 못난 사람인 것을. 영원한 인간 관계는 없으니까. 그 영원하지 않음을 마주할 때 또 나는 아플 것이니까 그래서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거리두기를 하거나 내가 떠난다.

잔향조차 사라진 모든 분자들이 흩어져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그대가 내 거리두기를 서운해하니까, 내가 떠날 것이다.

😊 14 💬 8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향기는 원래 없었다는 듯 떠나간다는 말이 공감 가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